

2018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활용 방안

일시: 2018년 12월 8일(토)

장소: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204호

주최: 국립국어원

주관: 국어사학회

2018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세부 일정

- 일시: 2018년 12월 8일(토)
- 장소: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204호
- 주제: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활용 방안

일 시		발 표 및 내 용	사 회
개회	09:30~09:50	등록	이동석 (교원대)
	09:50~10:00	개회사: 정재영(국어사학회장)	
제1부 1분과 (운초우선 교육관 203호)	10:00~10:40	[개인발표 (1)] 발표 주제: 한자어 어원의 국어사전 처리 방안 연구 발 표: 김유범(고려대) 토 론: 이준환(전남대)	조재형 (전남대)
	10:40~11:20	[개인발표 (2)] 발표 주제: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발 표: 이래호(남부대) 토 론: 이금영(충남대)	
	11:20~11:30	휴식	
	11:30~12:10	[개인발표 (3)] 발표 주제: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연구 발 표: 이동석(교원대) 토 론: 김현주(공주교대)	
	12:10~12:50	[개인발표 (4)] 발표 주제: '다치다'의 공시적 다의성과 통시적 의미 변화 발 표: 허인영·전은경(고려대) 토 론: 송지혜(금오공대)	
제1부 2분과 (운초우선 교육관 204호)	10:00~10:40	[개인발표 (1)] 발표 주제: '한중일' 3종 언어의 리듬과 운율의 형성 과정 연구 발 표: 정원수(충남대) 토 론: 오재혁(건국대)	장요한 (계명대)
	10:40~11:20	[개인발표 (2)] 발표 주제: 백제어의 연구사적 재검토 발 표: 서엽(이화여대) 토 론: 문현수(숭실대)	
	11:20~11:30	휴식	
	11:30~12:10	[개인발표 (3)] 발표 주제: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 발 표: 김성옥(충남대) 토 론: 백채원(서울대)	
	12:10~12:50	[개인발표 (4)] 발표 주제: 훈민정음 후음자 'ㅇ'의 기능과 파스파 문자 발 표: 연규동(연세대)·최계영(서울대) 토 론: 이용(서울시립대)	
12:50~14:00		점심 식사	

일 시		발 표 및 내 용	사 회
제2부 (운초우선 교육관 203호) 주제 발표	14:00~14:40	[기조 강연] 발표 주제: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과제 발 표: 홍윤표(전 연세대)	조남호 (명지대)
	14:40~15:20	[주제발표 (1)] 발표 주제: 國語 語源辭典의 研究成果 발 표: 김무림(강릉원주대)	
	15:20~15:30	휴식	
	15:30~16:10	[주제발표 (2)] 발표 주제: '국어 어원사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 표: 조항범(충북대)	
	16:10~16:50	[주제발표 (3)] 발표 주제: 지역 방언 어원 연구의 방향과 과제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 발 표: 이태영(전북대)	
	16:50~17:00	휴식	
	17:00~18:00	[종합 토론] 좌 장: 정승혜(수원여대) 황선엽(서울대), 이건식(단국대), 백두현(경북대)	
	18:00~18:10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교육	이동석 (교원대)
폐회/ 총회	18:10~18:20	폐회 및 총회: 국어사학회장, 총무이사	

목 차

제1부 1분과 개인 발표

김유범 ▶ 한자어 어원의 국어사전 처리 방안 연구	7
이준환 ▶ “한자어 어원의 국어사전 처리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19
이래호 ▶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	21
이금영 ▶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에 대한 토론문	35
이동석 ▶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연구	37
김현주 ▶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53
허인영·전은경 ▶ ‘다치다’의 공시적 다의성과 통시적 의미 변화	55
송지혜 ▶ “‘다치다’의 공시적 다의성과 통시적 의미 변화”에 대한 토론문	75

제1부 2분과 개인 발표

정원수 ▶ ‘한중일’ 3 종 언어의 리듬과 운율의 형성 과정 연구	79
오재혁 ▶ “‘한중일’ 3 종 언어의 리듬과 운율의 형성 과정 연구”에 대한 토론문 ..	117
서엽 ▶ 백제어의 연구사적 재검토	119
문현수 ▶ “백제어의 연구사적 재검토”에 대한 토론문	165
김성옥 ▶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	167
백채원 ▶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에 대한 토론문	185
연구동·최계영 ▶ 훈민정음 후음자 ‘ㅇ’의 기능과 파스파 문자	187
이용 ▶ “훈민정음 후음자 ‘ㅇ’의 기능과 파스파 문자”에 대한 토론문	203

기조 강연

홍윤표 ▶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7
------------------------------	-----

제2부 주제 발표

김무림 ▶ 國語 語源辭典의 研究成果	241
조항범 ▶ ‘국어 어원사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	257
이태영 ▶ 지역 방언 어원 연구의 방향과 과제 -전라방언을 중심으로-	281

종합 토론

황선엽 ▶ “國語 語源辭典의 研究成果”에 대한 토론문	255
이건식 ▶ “‘국어 어원사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문	279
백두현 ▶ “지역 방언 어원 연구의 방향과 과제 -전라방언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303

각종 장소 안내	307
----------------	-----

2018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활용 방안

제1부 1분과

개인 발표

한자어 어원의 국어사전 처리 방안 연구

김유범(고려대학교)

1. 1. 머리말

어원의 중요성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심심치 않게 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어원이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운 대상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국어의 어원 연구는 고유어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나 국어의 어휘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은 어원 연구 역시 보다 다양한 어휘들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국어 어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경우 그것의 어원을 정확히 밝히는 일은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유어와 한자어를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

본 발표에서는 국어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자어의 어원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을 국어사전의 어원 정보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사전들의 어원 정보 처리 방식을 참조해 국어사전의 한자어 어원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어의 어휘 연구에서 한자어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공감하고 더불어 한자어 어원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2. 국어 어휘 체계와 한자어

국어 어휘 체계 안에는 다양한 어종의 어휘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크게 고유어와 차용어로 대분하고 차용어는 다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로 세분해 볼 수 있다.¹⁾

1) 국어의 어휘 체계를 보통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고에서는 차용어라는 명칭 아래에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를 묶었다. 이때 외국어는 외래어까지 인정할 만큼 일반화되지는 못했지만, 한때 국어에 들어와 쓰이고 있는 외국어의 어휘를 가리킨다.

(1) 가. 고유어

나. 차용어: □ 한자어, □ 외래어, □ 외국어

(1나)에서 보듯이 차용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먼저 국어화(國語化)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외래어와 외국어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래어와 외국어는 그것이 어떤 언어로부터 온 것인지에 따라 각각을 보다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용어 중 한자어는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차용어들과 구분된다. 그것은 한자어의 차용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국어화의 정도가 거의 고유어에 가깝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언급해 볼 수 있다. 현대의 국어 화자는 주어진 단어가 한자어인지 아니면 고유어인지를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한자어는 국어 어휘 체계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를 합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50만 8천여 표제어들 중 한자어 표제어가 58.5%를 차지하고 있다.²⁾ 또한 주표제어 중 한자어와 더불어 한자어 요소가 참여한 표제어들을 합한 비중은 약 69.1%에 달한다.³⁾ 이와 같이 국어 어휘 체계 속에서 한자어는 막강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 어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 한자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국어 어휘 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국어 속에 자리 잡게 된 한자어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한 이해가 국어 어휘 체계 이해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국어의 어휘 지도에서 한자어가 어떤 지형을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어 어휘 연구와 관련해 한자어의 역사와 그 어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는 점이다. 국어 속의 한자어들은 각기 다른 연원과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휘별 이해가 축적되어야 국어 한자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한자어의 어원은 이러한 이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 국어 어휘 교육과 관련해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어 어휘의 절대 다수가 한자어라는 사실은 국어 어휘 교육에서 고유어만을 강조하는 것이 편협한 태도임을 깨닫게 한다. 국어에서 중요한 개념어들이 대부분 한자어라는 현실을 고려해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이와 관련해 구분관 외(2016:144)에서 제시한 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어종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기타(혼합 형태)	합계
표제어	111,299	251,478	23,196	54,289	440,262
부표제어	20,672	46,438	165	1,234	68,509
합계	131,971	297,916	23,361	55,523	508,771
백분율	25.9%	58.5%	4.7%	10.9%	100%

3) 주표제어의 원어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전체 항목수: 440,262(100%), 고유어: 111,299(25.28%),
 한자어: 251,478(57.12%), 외래어: 23,196(5.26%),
 한자어+고유어: 36,461(8.28%), 외래어+고유어: 1,331(0.30%),
 한자어+외래어: 15,548(3.53%), 한자어+외래어+고유어: 751(0.17%)

한편, 국어 한자어가 지닌 특징에 대해 구분관 외(2016:149)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2) 한자어의 특징

- 가. 기초 어휘로도 쓰이지만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 등으로 많이 쓰인다.
- 나. 고유어에 비해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고유어 한 단어에 여러 개의 한자어가 대응되기도 한다.
- 다. 한자어 중 일부는 우리말에 동화된 정도가 심해 문장에서 쓰일 때나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 고유어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 라. 한자어는 고유어와 구성 순서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독서(讀書)’, ‘등산(登山)’처럼 중국어의 순서를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 마. 단어 형성에 제약이 적어 비교적 자유롭게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
- 바. 한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므로 비교적 짧은 음절로 단어를 만들 수 있다.

먼저 (2가), (2나), (2다)는 공통적으로 한자어가 지닌 고유한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가)는 한자어가 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다. 수사와 같은 기초 어휘는 물론이고 개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 등에 한자어가 많다는 사실은 한자어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2나)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지닌 의미 특성의 일반성을 언급한 것인데, 한 예로 고유어 ‘따르다’는 한자어 ‘추적(追跡)하다’, ‘수행(隨行)하다’, ‘추종(追從)하다’, ‘복종(服從)하다’, ‘수반(隨伴)하다’, ‘의거(依據)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라)는 한자어의 구조가 우리말 어순이 아닌 중국어의 어순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한자어가 기본적으로 중국어로부터 차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다), (2마), (2바)는 한자어가 국어라는 배경 속에서 획득하게 된 특징을 바탕으로 국어의 단어 형성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한자어가 우리말에 동화를 많이 입었음을 음운론적 측면은 물론, 문법론적 측면에서도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유(油)’가 들어간 한자어들 중 ‘경유(輕油)’에서와는 달리 ‘식용유(食用油)[시공뉴]’, ‘휘발유(揮發油)[휘발류]’에서는 ‘유(油)’의 발음이 [뉴], [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한자어들이 국어의 음운 변동에 따라 발음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말(神+말)’, ‘양닭(洋+닭)’, ‘된장(되+--+L#醬)’, ‘싫증(싫--+症)’, ‘밋상(밋--+相)’ 등과 같은 단어들은 단어 형성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고유어는 고유어끼리,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결합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을⁴⁾ 고려하면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와 같은 결합은 한자어가 국어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김민수(1997)에서는 국어의 한자어들을 그것의 계통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⁵⁾

(3) 가. 계통상 구분

한어계 한자어, 일어계 한자어, 국어계 한자어

4) 이에 대해서는 구분관 외(2016:150) 참조.

5) (3)과 관련해 언급된 아래의 내용은 김민수(1997:1229-1233)에서 서술된 내용을 필자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진술한 것이다.

나. 내용상 구분

음독어, 혼독어, 음혼독어, 취음어

(3가)의 경우 한자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준으로 한어계, 일어계, 국어계 한자어로 나누었는데, 한어계라 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어떤 시기의 한자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먹[墨]’, ‘붓[筆]’과 같은 단어는 상고음의 영향을 받은 반면, ‘묵필(墨筆)’은 중고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된다. ‘무궁화(無窮花)’는 한어 ‘木槿花’의 근대음이 들어와 음상이 변한 것을 ‘無窮花’로 취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일어계 한자어는 일본이 1876년 개항 이후 서구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하며 많은 서구의 어휘들을 한자어로 역어(譯語)한 결과로 생겨났는데, 상당수가 한어에 역수입되기도 했다. ‘역할(役割)’은 일본어 발음 ‘yakuwari’를 우리 한자음으로 바꾼 경우이며, ‘선단(先端)’은 1956년에 일본에서 당용한자(當用漢字, 1850자, 1946년 고시)를 사용해 ‘첨단(尖端)’의 ‘尖’자를 발음이 같은 ‘先’자로 바꿔 쓴 경우이다.

국어계 한자어는 국어 자체에서 생성된 한자어로 여기에는 옛 차자표기와 관련된 어휘들이 포함된다. 윗사람을 뜻하는 ‘상전(上典)’, 마지기를 뜻하는 ‘두락(斗落)’, 다음을 뜻하는 ‘지차(之次)’와 같이 이두에서 쓰였던 어휘들이 한자음 그대로 임혀 오늘날 한자어로 자리 잡았다. 또한 ‘광진(廣津)’과 같은 경우는 ‘광늑(광나루)’에 대한 차자표기로서 ‘늑(나루)’를 뜻하는 한자 ‘津’을 사용해 만든 한자어이다.

(3나)와 관련해 한어계와 일어계 한자어의 경우 대부분 음독어나 취음어에 해당하는 반면, 국어계 한자어는 내용상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재담(才談)’, ‘농악(農樂)’이 음독어의 경우라면 ‘황산(荒産 거출뢰)’, ‘니현(泥峴 흙고개)’는 혼독어, ‘당산(堂山 당뢰)’, ‘덕암(德巖 덕바회)’는 음혼독어의 경우가 된다. 반면 ‘갑절(甲折 곱절)’, ‘분(分 사람)’의 경우는 취음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자어가 계통을 묻지 않고 외형상 한자를 우리 한자음으로 발음하는 말이라고 볼 때, 국어의 한자어가 매우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자어의 어원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한자어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 뜻을 살려 쓴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음을 취한 것인지, 음을 취한 경우 표기 대상이 된 본래의 외국어는 무엇인지 등 한자어의 어원을 밝히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생각하게 된다.

3. 3. 어원 탐구와 한자어

6) 김민수(1997)에서는 중고음을 받은 ‘묵필(墨筆)’은 한자어로, 상고음을 받은 한어의 한대어 ‘먹(墨), 붓(筆)’ 등은 외래어로 구분했다. 또한 흔히 한자어로 보는 ‘무궁화(無窮花)’는 한어 ‘木槿花’의 근대음이 수입된 외래어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처럼 어떤 시기의 한자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해당 어휘를 한자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외래어로 볼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어원의 판정과도 관련된 것으로 국어 한자어의 연구에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원 탐구의 대상을 어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와 외래어가 객관적인 어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민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4) … 어원탐구의 대상을 본래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하고 보면, 흔히 고유어라고 하는 본래어는 종종 한계에 부딪치지만, 많은 한자어는 차용관계를 통하여 대개 객관적인 어원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 외래어도 그렇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말 어원의 본질인 동시에 어원탐구의 실상이다(김민수 1997:1227).

어원 탐구에서 고유어의 경우 전적으로 해당 어휘가 나타나는 국어사 자료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원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한자어의 경우는 차용 관계를 통해 그 어원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로 해당 한자어가 중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쓰였으며 우리는 그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어원 탐구의 실제적인 내용이 된다. 한 예로 한자어 ‘근대(近代)’를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한자어 ‘근대’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바가 있다.⁷⁾

- (5) modern의 번역어로 ‘근대’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90년경의 일이다. 이후 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번역어 ‘근대’는 물론 시대 구분의 개념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그 의미가 매우 모호했으며 용례도 드물었다. ‘근대’라는 단어의 역사를 파헤쳐가다 보면 ‘근대’와 뒤엉켜서 ‘근세’라는 단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둘 다 메이지시대 이후에 서구어 modern 등에 대한 번역어로 쓰이기 시작한 단어다. 그러나 초기에 주로 쓰인 것은 ‘근세’ 쪽이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 ‘근세’를 대신해 ‘근대’가 시대 구분의 정식 용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근대’의 표면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모든 유행어가 그렇듯이 ‘근대’ 역시 그 유행의 와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어조를 갖고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근대’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했던 것 같다. 이 단어를 들으면 그 뜻을 생각해 보기도 전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뜻을 막연히 느끼거나 혹은 멋져 보이는 어떤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적이고 문화적인 분위기에 친근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사람들이었으리라. 이처럼 ‘근대’라는 말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몇 번인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이 말이 유행한 시기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최초의 유행은 1910년 전후, 즉 메이지시대가 끝나갈 무렵으로 문예 분야 사람들 사이에서였다. 다음 유행은 태평양전쟁 중인 1942년의 일로 이 시기의 ‘근대’는 ‘초극되어야 하는 대상, 즉 부정적인 가치를 띠었다. 그 다음 유행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시작되었는데, 앞 시대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 당시 ‘근대’는 긍정적인 가치를 띤 하나의 상징이었다. 종전 직후에 ‘근대’라는 말의 의미가 공허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놀라울 정도로 다의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말의 의미가 다의적이라는 것은 곧 본래 그 말에 의미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음을 뜻한다. 의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유행하고 남용되며, 유행하고 남용되기 때문에 다의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라는 말은 처음에는 의미가 불충분한 상태로 존재했다가 점차 적당한 의미를 획득한 셈인데, 이것은 일본에서 번역어의 의미가 형성되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근대’라는 한자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그 의미를 획득해 갔는지 보여 준다. 주로 사전들에 의존해 한자어 ‘근대’의 출현을 살폈는데, 아마도 구축된 말뭉치를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사용 양상을 정리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메이지[明治] 유신을 통해 서양의 새로운 자본주의 문명을 수용하게 된 일본은 서양어에 대한

7) (5)에 정리된 한자어 ‘근대’에 대한 내용은 야나부 아키라(2011:57-74)에서 설명된 내용을 필자가 정리해 재편집한 것임을 밝혀 둔다.

번역어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한자어들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한자어들이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 이들 번역 한자어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5)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상황만을 보여 주므로 실제로 ‘근대’라는 한자어가 본래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그리고 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는 언제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전자는 중국 및 일본, 한국의 고전 속에서 ‘近代’의 용법을 찾아보는 방법을 통해, 후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간행된 한국의 문헌 자료 속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⁸⁾

고유어가 주로 주어진 국어사 자료에 기반을 두고 그 어원을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 이처럼 한자어의 경우는 여기에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한자 문화권에서 해당 한자어가 어떤 쓰임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통해 어원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은 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공존하고 있는 두 한자어 ‘시체(屍體)’와 ‘사체(死體)’에 관해 중국, 일본, 한국에서의 쓰임을 종합적으로 살핀 것으로 국어의 한자어에 대한 어원 탐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6) 한자어 ‘시체(屍體)’와 ‘사체(死體)’는 모두 중국의 옛 문헌자료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체(屍體)’와는 달리 ‘사체(死體)’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먼저 ‘시체(屍體)’는 4세기 중국 문헌자료에 등장한 후 지속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 초기 중국의 문헌에 나타난 ‘시체(屍體)’는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는 구의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체(屍體)’가 한국에서는 14세기경부터 쓰이기 시작해 현재까지 ‘송장’이나 ‘주검’과 같은 고유어에 대응되는 대표적인 한자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문헌자료에서는 ‘시체(屍體)’의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사체(死體)’는 6세기 중국 문헌자료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사용이 지속적이지 못했으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사체(死體)’가 일본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고유어 (し)かばね에 대응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遺體(いたい)’와 함께 대표적인 한자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하나의 단어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사체(死體)’는 한국에 차용되어 18세기 후반에 한국의 문헌자료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이후로도 간헐적인 쓰임을 유지해 오다가 근대 이후 범의·부검 관련 전문용어들이 대거 차용되며 한국어에서 그 쓰임을 넓혀 ‘시체(屍體)’와 혼용되는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김유범 2007:24).

이 역시 기존 사전들을 중심으로 두 한자어의 쓰임을 살폈다는 점에서 자료 검토상의 한계가 있지만,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 해당 한자어들의 쓰임을 비교하고 종합해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자어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자 문화권 안에서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어원 탐구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자어의 어원 탐구에서 해당 한자어가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서 이들 한자어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⁹⁾ 다른 한자 문화권에서 들어온 한자어가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 어떤 모습

8) 실제로 이한섭(2014:176)을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 한자어 ‘근대’는 다음과 같이 1906년 자료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밑줄은 필자)

恐慌은 近代經濟社會의 7장 激烈한 病患의 一이라. 其 救治方針을 吾輩研究치 아니치 못홀지라 (《태극학보》 제4호 ‘學術上 관찰노 商業經濟의 恐慌狀態를 論함’ 1906년 11월 24일)

9) 한 예로 현대국어의 ‘널빤지’, ‘널빈지’, ‘널판자’는 모두 ‘널’에 한자어 ‘板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들이지만,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板子’의 한자음 중 어떤 음을 수용했는지에 따른 결

으로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한자어들의 본격적인 어원 탐구를 위한 준비 작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4. 4. 한자어 어원의 특징과 사전 처리

탐구된 한자어의 어원은 해당 한자어의 특징을 반영해 적절한 방식으로 국어사전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제공된 어원 정보가 사전 이용자에게 해당 한자어가 지닌 뜻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까지도 함께 보여 줌으로써 국어 어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자어의 어원적 특징을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한자어들에 대한 어원 정보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사전들에서 어원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참조해 국어사전의 한자어 어원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어 한자어의 경우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개별 한자들의 음 연쇄와 그 형태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해당 한자어의 어원을 밝히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되기도 한다. 또한 고유어로 알고 있는 어휘들이 실제로는 한자어인 경우도 많고 한자음의 현격한 변화로 해당 한자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국어 한자어 어원의 특징을 국어사전의 어원 정보와 관련해 몇 가지로 유형화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 형태가 한자음과 일치하는 경우로 한글로 표기된 어휘 형태의 각 음절이 어떤 한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자어들은 사전에서 표제어와 함께 해당 한자가 제시됨으로써 기본적으로 그 어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7) 어휘 형태가 한자음과 일치하는 경우

가. 합-치다(合--)

「동사」 【(…과)】 【(…과) …을】 【…을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나 목적어로 온다)) ‘합하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나. 적나라-하다(赤裸裸--) [정----]

「형용사」 「1」 몸에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고 발가벗다. 「2」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어 숨김이 없다.

(7가)의 ‘합치다’는 첫 음절 ‘합’이, (7나)의 ‘적나라하다’는 앞의 세 음절 ‘적나라’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음절이 모두 해당 한자의 발음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한자어들은 사실상 어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밝혀져 있는 상황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 다만 해당 한자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쓰이게 되었으며 어떤 한자 문화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가 추가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과로서 국어 어휘 체계 안에 존재하는 한자어의 흥미로운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어휘 형태가 음 변화로 인해 본래의 한자음과 멀어진 경우로 한글로 표기된 어휘 형태가 어떤 한자로부터 유래되었는지에 관해 역사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자어들은 한자음의 변화와 더불어 국어의 음운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둘 사이의 거리를 설명함으로써 어원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8) 어휘 형태가 음 변화로 인해 본래의 한자음과 멀어진 경우

가. 먹01

「명사」

「1」 벼루에 물을 붓고 갈아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검은 물감. 아교를 녹인 물에 그을음을 반죽하여 굳혀서 만든다. 「2」 =먹물 「1」.

【**먹<능엄><<중>墨**】

나. 호두01

「명사」

호두나무의 열매. 속살은 지방이 많고 맛이 고소하여 식용하며, 한방에서 변비나 기침의 치료, 동독(銅毒)의 해독 따위의 약재로 쓴다. ≡강도03(羌桃)·당추자·핵도.

【**<호도<신구-윤><胡桃**】

다. 금실03(琴瑟▽)

「명사」 부부간의 사랑. ≡금실지락·이성지락.

(8가)는 한자어 ‘먹’이 고유어가 아니라 한자 ‘墨’의 한어 고음 [mək]으로부터 온 어휘 형태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국어가 중국어와 맺고 있는 역사적 관계가 얼마나 유구하고 깊은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8나)의 ‘호두’ 역시 ‘胡桃(호도)’에서 온 한자어로 두 번째 음절에서 ‘ㄱ>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¹⁰⁾ (8다)의 ‘금실’은 ‘琴瑟(금슬)’에서 두 번째 음절의 ‘ㅡ’가 ‘ㅣ’로 변화를 겪었음을 볼 수 있다.¹¹⁾

(8가)와 (8나)는 모두 【 】 안에 어원적 요소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단어가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반면 (7다)는 표제어 옆에 한자 표기와 함께 발음이 달라진 것을 표시하는 ‘▽’ 기호를 붙여 두었다. 해당 한자어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에 따라 (8나)와 (8다)가 다르게 처리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둘은 그 성격이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사전에서는 고유어로 처리되고 있지만 한자어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해당 어휘에 대한 그동안의 어원 연구 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기술보다는 참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9) 고유어로 처리되고 있지만 한자어로 볼 수 있는 경우

가. 호박01

「명사」

10) 17세기 자료(호도 胡桃 <두창경험방(1663) 13a>) 및 여러 사전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桃’의 한자음은 ‘도’였는데, 후에 ‘호도’의 어휘 형태가 ‘호두’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앵도(櫻桃)>앵두’, ‘자도(紫桃)>자두’에서도 관찰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무림(2015)를 참조할 수 있다.

11) ‘금슬’의 형태가 ‘금실’이 된 것은 19세기에 ‘ㅅ, ㅈ, ㅊ’ 아래서 ‘ㅡ’가 ‘ㅣ’로 변화된 이른바 전설모음화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식물』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채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동양계와 서양계, 멕시코, 북아메리카 원산의 페포계(pepo系) 따위가 있다.

「2」 『식물』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 덩굴은 단면이 오각형이며 덩굴손으로 감으면서 자란다. 암수한그루로 6월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종 모양의 노란 꽃이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로 크고 둥글며 연한 노란색이다. 잎과 순, 열매는 식용하며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로서 세계 각지에 분포한다. (Cucurbita moschata)

「3」 ‘「1」’과 ‘「2」’의 열매. ≡남과(南瓜).

「4」 못생긴 여자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나. 호박01(胡)

(9가) ‘호박’의 경우 ‘호’가 ‘호밀’, ‘호콩’, ‘호떡’, ‘호주머니’의 ‘호’와 같이 한자 ‘胡(호)’에서 온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¹²⁾ 이때 ‘胡(호)’는 ‘중국에서 들여온’의 뜻을 갖는 접두사로 처리되고 있는데, ‘호박’의 ‘호’ 역시 ‘박’에 접두사 ‘胡(호)-’가 붙은 어휘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때 ‘호’에 대해 (9나)와 같이 표제어와 함께 이러한 어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¹³⁾ 한자 정보가 들어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이탤릭체 정도로 ‘胡’를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국어사전의 한자어 어원 처리 방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제공하는 어원 정보의 양과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전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원사전의 경우 보통 해당 단어의 기원은 물론 변화 양상과 그 원인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한 예로 한자어 ‘보배’에 대한 국어사전과 어원사전의 풀이를 비교해 보자.

(10) ‘보배’에 대한 사전 기술 내용

가. 『표준국어대사전』

보배 [보 : -]

「명사」

「1」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2」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보빅<용가><<중>寶貝】

나. 『개정판 한국어 어원사전』

보배 ㉠ 귀중한 물건.

㉡ ‘보배’의 중세국어 형태는 ‘보빅’이며, 이 말은 한자어 ‘寶貝’에서 온 말이다.

㉢ ‘寶貝’는 중세국어 한자음으로 읽으면 ‘보궤’이지만, 근대 한어음(近代漢語音)은 [pao-pej]이다. 그러므로 특히 ‘보배’의 ‘배(貝)’는 한어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12) ‘호박’은 중국에서 들어온 ‘박’이란 뜻에서 조어된 것이므로, ‘胡(호)+박[瓢]’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호박은 조선 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왔으므로 ‘남과(南瓜)’라고도 한다(김무림 2015).

13) 접두사 ‘호(胡)-’가 결합된 다른 단어들과는 달리 ‘호박’의 ‘호’가 장음이라는 사실은 이때의 ‘호’가 접두사 ‘호(胡)-’와는 다른 요소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㉞ (漢語)寶貝[pao-pej] ㉞ 寶貝[pao-pej]> 보빅> 보배

예 • 金銀 보빅 잡디 마롬괘라(석보상절 6-10)

(10가)에 비해 (10나)는 ‘寶貝’가 우리 한자음과는 달리 그 형태가 ‘보배’가 된 사실이 근대 한어음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17쪽)에는 어원 정보와 관련해 (10가)를 예로 들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여 두었다.

(11) 보배 [보 : -] ㉞ …… 【<보빅<용가>< ㉞寶貝】

☞ 이 경우는 한자어라기보다는 중국어 차용어이므로 언어 명을 밝혀 준다.

이 역시 ‘보배’의 형태가 된 것이 결국 한어음의 영향이라고 본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10나)에서 보았듯이 근대 한어음 [pao-pej]가 ‘보배’라는 형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는 것이 국어사전 이용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이때 이와 같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풀이 내용에 박스를 추가해 설명하는 방식도 고려해 봄직하다.

(12)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먹’에 대한 풀이 내용

먹 ㉞ ①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기 위해, 연기 속에서 섞여 나오는 검은 가루를 아교풀에 반죽한 뒤, 굳혀서 만든 검은 물감. ㉞이 먹은 벼루에 갈면 좋은 향기가 우러난다. / 나는 창가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을 갈기 시작했다. (㉞의)묵³(墨)①, 오금²(烏金)③. ②벼루에 먹을 갈아 까맣게 만든 물. ㉞선생님은 붓에 먹을 찍어 직접 글씨를 쓰셨다. / 먹으로 그린 그의 그림은 꽤 윤치 있어 보인다. (㉞의)먹물①. (㉞의)묵수²(墨水). 【먹 《능엄1:18》】

○‘먹’은 《능엄경언해》(1461, 1:18)에 ‘먹’의 형태로 처음 나타나며, 이 단어는 한자어 ‘墨’의 고대 한자음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속담) 좋지 못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를 닮아 나쁜 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말. ㉞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더니 며칠 사이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닌 은숙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㉞의)근묵자흑(近墨者黑).

이것은 ‘먹’이 중국의 고대 한자음으로부터 왔음을 언급함으로써 중국어 ‘墨’의 어느 시대 한자음이 ‘먹’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8가)에서처럼 ‘먹’이 중국어 ‘墨’에

서 차용되었다는 정보만으로는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8가)와 (10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로부터 차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한자어 ‘먹’과 ‘보배’가 지닌 서로 다른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최초 출현형 및 역사적 변천 정보에 관한 문제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유어의 경우 15~17세기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 예를 찾아 어원 정보에서 제시하고 있다.

(13) 고치다⁰¹ [고치어[^{-어}/^{-여}](고쳐[^{-쳐}]), 고치니] 罽 ……

【<고티다<용가>】

(13)을 통해 현대국어 ‘고치다’가 15세기 문헌인 『용비어천가』에 ‘고티다’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전 이용자에게 해당 단어에 대한 뜻풀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단어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깨닫게 해 준다. 해당 단어에 대한 최초 출현형을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어휘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장에서 보았듯이 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는 한자어의 비중이 매우 큰 상황인데, 실제로 국어 어휘 연구는 고유어에 비해 이들 한자어에 대해서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미진한 상태이다.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언어 자료에 대한 축적과 정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어 한자어에 대한 연구 또한 이제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시대별로 한자어에 대한 말뭉치가 구축되고 그로부터 당시의 한자어들을 정리해 내는 것은 물론, 전후 시대의 사용 양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은 국어 한자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발표자는 국어사전에서 한자어 표제어에 대해 (13)과 같이 최초 출현형은 물론 그 역사적 변천까지 기술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개별 한자어들의 쓰임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자 문화권에 속한 언어들에서 관련 한자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언어들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국어학자들의 힘만으로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개별 언어 전문가들과 협력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한자어들의 역사를 살피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며, 우리의 문헌 자료에 담긴 한자어들의 사용 양상을 정리하고 역사를 추적하는 일은 국어 한자어의 어원 탐구를 위한 지난하지만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5. 5. 맺음말

이제까지 국어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자어의 어원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을 국어사전의 어원 정보와 관련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사전들의 어원 정보 처리 방식을 참조해 국어사전의 한자어 어원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보다 많은 한자어들과 사전 기술 내용에 대한 풍부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평소 발표자가 가지고 있던 국어의 한자어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앞으로 국어학계에서 한자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여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발표자의 의지를 다져본다.

참고문헌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6), 『한국어 문법 총론Ⅱ』, 집문당.
- 김무림(2000), 『『우리말 어원사전』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23-34.
- 김무림(2015), 『개정판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 김민수(1997), 「우리말의 어원」,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227-1236.
- 김무림·김유범·최미현(2017), 『현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 김유범(2007), 「漢字語 ‘屍體’와 ‘死體’의 歷史的 考察」, 『일본근대학연구』 18, 한국일본근대학회, 15-25.
- 노명희(2004),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박영섭(1995), 『한국한자어휘론』, 박이정.
- 사회과학원(1993), 『李朝實錄難解語辭典』, 한국문화사.
- 송민(2001), 「개화기의 신생한자어 연구(1)」, 『어문학논총』 20,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33-77.
- 송민(2002), 「개화기의 신생한자어 연구(2)」, 『어문학논총』 21,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53-95.
- 송민(2003), 「개화기의 신생한자어 연구(3)」, 『어문학논총』 2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34.
- 야나부 아키라(2011), 『번역어의 성립』(김옥희 옮김), 마음산책.
-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 정호성(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55-72.
- 조남호(2001), 『두시연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최경옥(2003), 『한국개화기 근대외래한자어의 수용연구』, 제이앤씨.
- 최경옥(2005), 『번역과 일본의 근대』, (주)살림출판사.
- 하영휘 외 편저(2011), 『옛편지 낱말사전』, 돌베개.

“한자어 어원의 국어사전 처리 방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준환(전남대학교)

국어 어휘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국어 어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걸맞게 사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자어 관련 정보를 국어사전에서 충실히 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자가 가진 음과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한자어 관련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국어사전에서 한자어 어원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준 이 발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이 발표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한자어의 정의에 관하여

이 글에서는 한자어를 외래어, 외국어와 더불어 차용어 안에 포함하고 있다. 기원적으로는 한자어에서 유래한 말이라도 이것을 국어 한자음으로 읽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배(寶貝)’, ‘호두(胡桃)’와 같은 것이 그렇다. ‘貝’와 ‘桃’가 각각 국어 한자음인 ‘패’, ‘도’와 다르므로 이를 한자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글의 취지에 따라서 이들에 대해 한자어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용하는 언중들의 인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금슬: ‘금실’의 원말”과 같이 풀이를 하여 ‘금슬’과 ‘금실’은 모두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호도’는 ‘호두’의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떡’은 표제어로 올라 있지만 ‘묵’은 아예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그리고 ‘주초(柱礎)’는 ‘주추’의 비표준어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사전의 처리에 따르면 한자어가 되는 것은 ‘금실’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사전의 처리에 따르자면 ‘배추’의 경우는 한자어가 아니고 ‘백채’가 한자어가 된다.

이를 보면 ‘슬>실’, ‘도>두’와 같이 국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겪은 한자음처럼 보여도 이를 俗音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처리는 고유어의 처리와도 어느 정도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호두’와 ‘주추’를 비교하여 보면 ‘두’와 ‘추’가 모두 국어 한자음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표준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부주(扶助)’, ‘삼촌(三寸)’을 비표준어로 처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를 보면 ‘호두’, ‘주추’의 ‘두’와 ‘추’는 차용에 의한 음으로 보고 ‘부주’와 ‘삼촌’의 ‘주’와 ‘촌’은 국어 한자음의 변화로 보아 다르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자어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이와 같은 한자음의 문제를 좀 더 세분화하여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한자어의 정의가 달라지면 사전에서의 처리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어원 표시 한자어의 뜻풀이에 관하여

‘호박’ 등과 관련하여 ‘胡’와 같은 방식으로 이탤릭체를 이용하여 어원 정보를 표시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다. 고려해 볼 만한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뜻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호떡’의 경우는 “중국식 떡의 하나. 밀가루나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설탕으로 소를 넣고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둥글넓적하게 구워 낸다. ≡고병04(烤餅).”과 같이 중

국에서 유래한 것임을 넣어 뜻풀이를 하고 있으나 나머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전에서는 “호(胡):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중국에서 들여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와 같이 ‘호’를 접두사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곳의 뜻풀이가 이 접두사를 포함하는 어휘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접두사의 의미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예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호콩’은 ‘=땅콩」1.」과 같이 처리되어 있다. 이 경우 땅콩도 ‘중국에서 들여온’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땅콩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호과02(胡瓜)’는 “→ 오이01」1.”로 되어 있는데 ‘오이01」1.’은 “」1.」『식물』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 여름에 노란 통꽃이 잎겨드랑이에서 피고 열매는 긴 타원형의 장과(漿果)로 누런 갈색으로 익는다. 열매는 식용하며, 인도가 원산지로서 세계 각지에 분포한다. ≡황과(黃瓜)」1. (Cucumis sativus)”와 같이 뜻풀이되어 있는 경우도 오이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임을 함의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풀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기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

이래호(남부대학교)

1. 서론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언어적 요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교육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어휘 교육이다. 어떤 언어로 말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해당 언어의 어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교육 방법과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¹⁾

(1) 어휘 교육의 방법과 대상

가. 개별 어휘에 대한 교육²⁾

-개별 어휘 뜻풀이

나. 형성 원리에 따른 교육

-파생어, 합성어, 음성상징어 등

다. 의미 관계에 따른 교육³⁾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상위어, 하위어, 동음이의어, 융합어, 연어, 관용표현 등

라. 사회언어학적 특징에 따른 교육⁴⁾

-경어, 완곡어, 비속어, 유행어, 신어, 방언, 외래어 등

마. 어휘장에 따른 교육⁵⁾

-색채어휘장, 가축어휘장, 미각어휘장, 직업어휘장, 날씨어휘장, 음식어휘장 등

바. 어종에 따른 교육⁶⁾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등

1) (1)은 조현용(2000), 문금현(2009)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 개별 어휘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별 어휘에 대해 뜻풀이를 하고, 의미의 성분 분석으로 통해 의미 확장 과정과 의미 양상에 따른 교육으로 진행되는 방법이다. 특히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어휘는 어휘 형성의 원리에 따른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

3) 어휘의 의미 관계에 따른 교육은 의미가 관련된 것들끼리 묶어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상관관계에 있는 단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휘의 양을 늘리고 의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어휘의 사회언어학적 특징에 따른 교육은 사회언어학적 특징을 가지는 경어, 비속어 등을 맥락,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가르침으로써 특정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어휘장에 따른 교육은 의미 주제별로 묶일 수 있는 의미장(어휘장)에 바탕을 둔 어휘 교육법으로 학습자가 동일 주제의 어휘를 연상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6) 어휘의 어종에 따른 교육은 어휘의 어종을 구분하여 어종에 따라 어휘를 별도로 교육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모국어와 일치하는 어종은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 단기간에 많은 어휘의 양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어휘의 형성 원리에 따른 교육은 단어 형성법 지식을 활용하여 단어를 분석하여 어근, 접사의 의미를 교육함으로써 한 어휘의 뜻을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교육 방법은 한국어의 어휘 형성 방법을 익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단어를 접하였을 때 유추를 통해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은 어휘의 형성 원리에 따른 교육 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⁷⁾ 어원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휘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원 교육을 통해 이해한 형태와 의미 등을 바탕으로 그 형태를 공유하고 구조가 같은 다른 어휘들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 교육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며, 어휘 교육에서 어원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 교육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살펴보고 그간 어원 교육에 대한 연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유형과 일부 예를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어원 교육의 의의 및 주의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어원과 어휘 교육

2.1. 어원과 어휘 교육에서의 어원

‘어원’은 한자 뜻 그대로 어떤 단어의 ‘근원(根源)’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원’은 특정 단어의 기원적 형태(곧 ‘기원형’)와 더불어 기원적 의미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조항범, 2014: 13). 그래서 우리가 어원을 연구한다고 하면 어떤 어휘의 기원적 형태를 찾아내거나 기원적 의미를 추적해 가는 작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원 연구는 주로 한 단어를 문헌상으로 검증이 가능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그것이 경험한 형태, 의미상의 변화를 기술하는 역사 어원론(조항범, 2014: 15)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⁸⁾ 또한 어원론은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의 음운, 형태, 의미 변화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관용구, 속담의 유래와 그 의미 전이 과정까지 확대하여 다루고 있다(조항범, 2014: 16-17).

김방한(1984: 204)에서, 어원을 연구한다는 것은 낱말의 ‘기원’ 그 자체가 아니라 불명의 어느 옛 시기부터 후대의 어느 시기에 이르는 낱말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곧, 어원 연구는 낱말의 형태와 의미의 변화 과정이 역사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언어의 모든 음운과 형태의 변화와 낱말의 구조를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원 연구는 대상 어휘의 형태 분석부터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한 어형을 단일어로 볼 것인지 복합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하여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복합어로 분석해야 할지 파생어로 분석해야 할지의 판단에서 어원의 추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⁹⁾ 그 다음에 어휘의 형태와 의미 변화 과정이 설명된다.

이는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원을 활용하여 어휘를 교육할 때도

7) (1나) 외의 어휘 교육 방법에도 어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어원이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형성 원리에 따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8) 조항범(2014)에서는 어원론의 종류를 기원 어원론(起源語源論)과 역사 어원론(歷史語源論)으로 구분하였다.

9) 이남덕(1985: 32)에서는 어원 연구의 방법으로 어원론 연구의 대상을 순수한 우리 고유어로 잡고 그 어휘를 형태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필요한 작업이 문헌어의 검토라고 밝히고 있다.

어휘의 구조를 이해하고 형태를 분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와 함께 형태를 분석하고 분석된 형태의 어원을 교육함으로써 어휘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어원의 내용은 특별하게는 해당 어휘의 형태 또는 의미의 역사적 변화 과정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구성 성분의 의미에 한정될 수도 있다.

어휘의 형태 분석을 통한 어휘 교육은 영어 교육에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으로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영어 교육에서 어원을 이용한 어휘 학습은 어휘를 접사와 어근으로 나누고, 접사나 어근의 뜻을 가르쳐 새로 접하는 단어의 뜻을 유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어휘의 구조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조유경 2004: 33 참조)을 학습자가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영어 어휘의 약 75%가 라틴어계와 그리스어계 접사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였을 때, 어원을 이용한 어휘 학습은 학습자들이 단시간에 많은 어휘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Levine(1982)은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어근과 접두사 등을 다음과 같이 어원을 기준으로 분류해 놓고 이러한 어근이나 접사는 단어 의미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학습되지 않은 수많은 단어의 의미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김미영, 2005: 20에서 재인용)

(2) Levine(1982)에서 제시한 Anglo-Saxen 접두사의 예

- FORE-:beforehand, front, before (forecast)
- MIS-:bad, wrong (misbelief)
- OUT-:beyond, more than, out, longer than (outgrow)
- OVER-:too, excessively (overburden)
- UN-:not, lack of, do the opposite of (unbiased)
- UNDER-:beneath, lower, insufficiently (undergraduate)
- UP-:up, upward (upcoming)
- WITH-:back, away, against (withhold)

물론 이러한 접사나 어근의 의미를 암기한다는 것 자체가 학습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어원을 통해 어휘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에게 어원을 공유하는 어휘들의 구조적 유사성을 인지시켜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원을 활용한 어휘 전략에 대해 Nagy(1997), Richards(1985)에서는 어휘를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알아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였다.(조유경 2018: 34 재인용)

영어 교육에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은 (1) 어휘의 분석을 통해 접사와 어근으로 나누고 (2) 접사와 어근의 의미를 가르쳐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어휘 형성 원리 또는 어휘 구조에 따른 어휘 교육이 그것인데, 이들의 어휘 교육 방식 역시 어휘 분석 후 의미를 교육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동일 유형 어휘의 의미까지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접사의 결합 양상과 접사의 의미에 관한 교육이나 조어력이 강한 어휘 형성소에 대한 교육 등 어휘 형성 원리에 의한 어휘 교육은 기본적으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겠다.¹⁰⁾ 이때의 어원의 내용은 형

10) 나은미(2008)에 따르면, 단어의 구조를 표현 어휘를 이용하여 이해 어휘를 유추하는 어휘 교육은 접미사를 구성 요소로 하는 접미파생어와 후행 요소를 공통 성분으로 갖는 합성어근의 교육에서 효과적

태와 의미 변화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 역사적 형태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의미만이 포함될 수도 있다.

단어 차원을 넘어 표현 차원으로 간다면 연결어미처럼 쓰이는 ‘-기 무섭게’ 등의 문법화 역시 어원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기 때문에’는 ‘-기’와 ‘때문’, ‘에’의 각각의 기능과 의미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기 무섭게’는 구성요소 각각의 의미와 총합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 변화 과정을 설명할 할 때 이해가 쉬울 것이다.

앞서, 조항범(2014: 15)에서 넓은 의미의 어원론에서는 관용구, 속담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이 관용어나 속담인데, 관용어나 속담이 발생하는 배경 지식을 모를 경우에는 그 의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유래와 그 의미 전이 과정에 대한 교육은 광의의 어원 교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¹⁾

어원의 개념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휘 교육 방식을 바탕으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을 정리하면, 해당 어휘의 형태와 의미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 것은 어원의 정의적 차원에 입각한 어휘 교육,¹²⁾ 즉 좁은 의미의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이라 할 수 있고, 단어의 구조 분석을 통한 구성요소의 의미만을 교육하는 것은 (어휘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따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¹³⁾

2.2.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 교육에 대한 논의

한국어 교육에서 단어 형성법에 의한 어휘 교육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으나, 어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어휘 교육을 논의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권순희(1999), 조현용(2000), 이관식(2003)과 이관식(2004)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특히 접사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어원을 통한 어휘 교육이 어휘 형성법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권순희(1999)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 연구를 적용하여 한국어 어휘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어력이 뛰어난 접두사와 접미사의 어원을 교육하여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파생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고유어 접두사나 접미사의 어원에 한정하여 어원과 뜻풀이, 대표적 용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접두사, 접미사의 어원은 대부분 접사의 사전적인 의미이며, 역사적 변화를 겪은 경우에만 옛 형태를 제시하였다. 곧 권순희(1999)에서의 어원은 어휘의 역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현재 쓰이고 기본적인 의미로 쓰였다.

이다.

- 11) 언어 자체에 문화적 의미나 내용이 포함된 대표적인 예가 관용어와 속담이라 할 수 있는데, 관용어와 속담의 경우 어휘의 일차적 의미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형성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이동규 2005: 2). 이때 그것이 형성된 문화적 배경을 어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용(2000: 204)에서는 속담이 발생하게 된 배경지식을 넓은 의미의 어원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원이란 언어학에서의 어원이 아닌 한국어 학습자에게 속담을 교육하는 상황에서 제시해야 하는 속담 발생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의미하며 한국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광의의 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이동규 2005: 91에서 재인용) 조항범(2014: 16)에서는 언어 증거 자료 이외의 언어 외적 자료에 치중해서 어원을 풀어가는데 어원론을 순수 언어학적 어원론에 대해 ‘문화사적 어원론’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 12) ‘담치’에서 ‘김치’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여 ‘김치’의 의미를 더욱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13) ‘개나리’는 ‘개+나리’로 분석할 수 있고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한 후 ‘개살구’ 등의 어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어휘 방식은 넓은 의미의 어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용(2000)에서는 어휘 교육에 어원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원 교육을 통해서 어휘 구조의 이해, 어휘 능력 확장, 어휘 학습 흥미 고취, 민족적 사고의 제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자를 이용한 어원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한자어의 한자 의미 제시도 어원 교육의 하나로 보고 있다. 기초어휘, 이철자 동음이의어, 수량단위명사, 속담에 대한 어휘 교육의 예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이 논문에서는 속담의 경우 그 발생하는 배경 지식이 넓은 의미의 어원이라고 하였다.

이관식(2003)에서는 한국어 학습 시 한국어의 첨가어로서의 구조적인 특징, 어휘 구조와 관계된 접사의 어원에 대한 이해가 한국어 어휘 습득 능력 확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다. 그 예로 파생어 분석을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을 들었다. 여기에서 파생어를 접사나 어근이 변하지 않는 유형, 접사가 변하는 유형, 어근이 변하는 유형, 접사와 어근 모두 변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어근과 접사의 결합 양상에 따른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학습자들의 어휘 의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접사 중 인칭접미사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그 어원을 살펴보고 인칭 접미사의 어원을 통한 한국어 어휘 구조의 이해는 어휘를 확장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흥미 요소를 부여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관식(2004)는 한국어 어원에 대한 이해가 한국어 어휘 습득 능력 확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아 한국어 어휘의 어원을 통한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어원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어휘 구조의 일반적인 원리를 한국어 어휘 교육에 적용한 연구이다. 세부적으로 단음절 어원¹⁴⁾, 영변화 파생에 의한 어사 분화¹⁵⁾, 어간 모음교체에 의한 어사 분화, 자음 교체에 의한 어사 분화(내적 파생), 한자어의 어원, 외래어의 어원, 그리고 어휘의 구조 분석이 가능한 인칭접미사와 일칭(日稱) 접미사, 수량 단위 의존명사, 그리고 민간 어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미와 어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이를 어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어원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장윤희(2007)은 국어사 지식이 한국어 어휘 교육에 유용할 수 있다는 논의이다. 여기에서는 의미상 연관된 단어에 틀림없음에도 형태상의 차이를 보인다든지 동일한 형태가 의미상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의미를 표시할 경우 국어사 지식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어사 지식은 어원에 대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어사적 지식(어원)은 개별 단어의 이해와 어휘 체계 안에서 불규칙하고 예외적으로 보이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 동형성에 이끌린 단어에 대한 오해를 막아 주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어원의 이해를 통해 어휘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는 더 나아가 어휘 구조의 내부적 질서에 대한 이해와 구성 요소에 형태, 의미 교육, 곧 어원 교육이 체계적인 어휘 교육의 한 방법임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원 교육

14) 어원론에서 “조어는 單音節語로서 閉音節語이다.”를 바탕으로 국어 신체어 및 신체 관련어는 대부분 단음절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제시하고 2음절 이상의 신체어는 대부분 2차적으로 형성된 합성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5) 어원론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어근)은 명사에서 전성되었다.”를 바탕으로 품사 발달의 단계로서 명사에서 대부분의 다른 품사가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그 예로 “신→신다, 띠→띠다, 불→붙다” 등을 들었다.

앞서 어휘의 형성 원리에 따른 어휘 교육 자체가 어원 교육의 일환임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비생산적인 접사를 비롯하여, 좁은 의미의 어원적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거나, 단순 의미 제시를 넘어서 어휘의 배경까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를 유형별로 나누고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¹⁶⁾ 접사나 어근의 형태가 중세/근대와 변화가 없어 의미 제시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¹⁷⁾

3.1. 비생산적인 접사

형성 원리에 따른 어휘 교육에서는 현대의 생산적인 접사를 분석하여 접사의 뜻과 어기의 뜻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비생산적인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어휘들은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접사의 어원(의미)을 알려줌으로써 의미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 (3) 가. 발뒤꿈치, 팔꿈치, 버선꿈치
 - 나. 오르막, 내리막, 늘그막 등
 - 다. 성깔, 빗깔, 때깔, 맛깔, 색깔 등
 - 라. 장사치(←장사아치), 동냥아치, 벼슬아치 등
 - 마.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등

(3)의 ‘꿈치’, ‘막’, ‘깔’, ‘아치’, ‘아지’ 등은 비록 비생산적인 접미사지만 동일한 접미사들을 공유하는 어휘들이 있고, 이러한 접미사를 붙여 임시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¹⁸⁾ 분리하여 접미사의 의미를 제시하여 교육하는 것도 방법이다. (3)에서는 접미사만을 제시하였는데, 비생산적인 접두사의 경우에도 비교적 많은 예들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의 경우에는 접두사와 어근을 분리하여 접두사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비생산적인 접사에 대한 그 뜻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이상의 단어 형성 기능이 없다는 것을 함께 가르칠 수 있기에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2. 어형 변화형

어형 변화형은 탈락이나 첨가 없이 음운 변화나 오분석에 의해 어근(간)이나 접사의 그 형태가 변화한 어휘들을 이른다. 어형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휘 분석도 쉽지 않을뿐더러 분석된 어휘의 형태를 보고 그 어근이나 접사의 의미를 유추하기가 어렵다.

16)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관식(2003), 이관식(2004)에서 제시한 파생어 가운데 접사나 어근이 변하지 않는 유형, 접사가 변하는 유형, 어근이 변하는 유형, 접사와 어근 모두 변하는 유형, 단음절 어휘, 영변화 파생 어휘, 내적 파생 어휘(어간 모음 교체, 자음 교체에 의한 어사 분화), 한자어 어원, 외래어 어원, 인칭접미사, 일칭접미사, 수량단위 의존명사, 민간 어원 등은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되도록 제외하기로 한다. 이들 역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의 좋은 소재가 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17) 이들도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의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18) 대표적으로 ‘손꿈치’를 들 수 있다. 손꿈치는 “손목으로 이어지는 손바닥 안쪽 부분.”을 이르는 의미로 쓰인다.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젓꼭지 사이 흉부의 정중앙에 놓으세요. 손가락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합니
다
.”(http://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04/safe_01_04_01.jsp)

(4) 가. 강남콩

나. 황새, 황소, 할아버지, 할머니

다. 숟가락, 이튿날, 사흘날 등

(4가)의 ‘강남콩’의 ‘강남’이 중국의 ‘양쯔강 남쪽’을 뜻하는 ‘江南’에서 온 사실이나¹⁹⁾ (4나) ‘황새’, ‘황소’의 ‘황’은 ‘한시’, ‘한쇼’의 “큰”을 뜻하는 ‘한’(하-+-ㄴ)에서 음운이 변화되어 원래는 “큰 새”, “큰 소”였다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 역시 ‘한’(하-+-ㄴ)에서 ‘할’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조항범 2014 참조), ‘아버지’, ‘어머니’보다 한 세대 위의 인물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등은 의미 교육뿐 아니라 흥미 차원에서도 좋은 교육 소재가 될 것이다.

(4다)는 ‘ㄹ’ 받침을 가진 단어가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 ‘ㄹ’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ㄷ’으로 표기한다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의해 표기된 어휘들이다. 이들은 ‘숟가락’, ‘이튿날’, ‘사흘날’에서 ‘ㄹ’이 탈락하여 형태인데²⁰⁾ 이들 역시 원래의 형태와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로서는 원 형태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술’, ‘이틀’, ‘사흘’ 등과의 관련성을 알려줌으로써 의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3.3. 화석형

어느 시기에 빈번히 사용되던 어형이 그 사용의 생산성을 잃고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어휘들도 어원을 활용한 교육의 대상이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ㅎ 종성체언, ㄴ계 합용병서, 선어말 어미 ‘-오-’ 등을 비롯하여 중세, 근대국어에 쓰이던 어휘들의 활용형 일부가 현대에 남아 있는 어휘들이다. 이들은 어휘 형성에서 불규칙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한국어에 대한 공식적인 지식만으로는 이들의 형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의 경우, 역사적 형태를 제시하는 방식 등으로 어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가. ㅎ 종성체언: 머리카락, 살코기, 수캐, 수컷, 수탉, 안팎, 암캐, 암컷, 암탉 등

(cf. 수거미, 수개미 등)

나. ㄴ계 합용병서: 좁쌀, 멍쌀, 찹쌀, 입때, 접때 등

(cf. 조, 메, 이, 저; 보리쌀, 귀리쌀)

다. 내로라하다 등

라. 미끄럼, 꾸지람(cf. 미끄러움, 꾸짖음) 등

마. 돌보다, 설익다, 굶주리다, 검붉다 등

(5가)~(5라)는 단위 화석의 예이며, (5마)는 규칙 화석의 예이다.²¹⁾ (5가)는 ‘ㅎ’ 종성체언의 예를 든 것인데, <한글 맞춤법> 제31항에 따라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19) ‘강남콩’은 16세기 문헌의 ‘강남콩’<훈몽자회 상: 7>에 소급될 어형이며, 여기에서의 ‘강남’은 중국의 ‘양쯔강 남쪽’을 뜻하는 ‘江南’이다. ‘강남’을 공유하는 어휘로는 ‘강냉이’를 들 수 있다. ‘강냉이’도 ‘강남이(江南-)>강냥이>강냉이’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조항범 2014: 363 참조).

20) (3다)와 (3라)는 (3가)~(3나)의 음운 변화에 따른 어형 변화와 차이가 있으나, 어형이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여기에 제시하였다.

21) 송철의(2008)에서는 언어의 화석을 단위 화석과 규칙 화석으로 구분하였다. 단위 화석은 언어의 단위인 음운, 형태, 단어 등의 언어 단위와 관련된 화석이며, 규칙 화석은 언어의 규칙과 관련된 화석으로 현대국어에 남아 있지 않는 단어 형식 규칙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어휘들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수거미, 수개미’ 등과 비교했을 때 (5가)에 제시된 어휘에 ‘ㅎ’음이 첨가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5나)의 좁쌀, 맵쌀, 찹쌀, 입쌀, 접때 등의 어휘에서의 ‘ㅂ’ 첨가도 마찬가지이다.

(5다)의 ‘내로라’는 의미상 ‘나’와 관련될 것인데 ‘내’로 나타나는 것도 생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로라’가 어떤 어미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한국어 학습자로서는 그 형태와 의미를 외울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로라’는 ‘나+-이-+-로-(←-오-)+-라(←-다)’의 구성에서 기원하여 현대국어에서는 ‘내로라하다’의 어근으로 굳어진 것으로 ‘-오-’ 화석형의 하나이다. 그 형태 변화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5라)는, ‘꾸짖-’, ‘미끄럽-’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명사들이 ‘꾸짖음’이 아닌 ‘꾸지람’으로, ‘미끄러움’이 아닌 ‘미끄럼’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용언의 ‘-(으)ㄴ’ 명사형 만들기 규칙을 배운 학생들에게 불규칙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전 시기에 존재했고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구짖-’, ‘미끌-’에 접미사 ‘-암/엄’이 결합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 그 규칙성을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장윤희 2007: 77~78).²²⁾ (5마)는 예전에 어간과 어간의 결합으로 어휘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어휘의 구조와 의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의 예들은 모두 의미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면서도 외형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불규칙해 보이는 화석형에 해당하는 것들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들을 규칙의 관계 속에서 학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원을 동원하여 할 경우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때 단어의 의미나 형태의 이해에 어원적 지식이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3.4. 음운첨가 및 음운 탈락형

어원 교육의 대상이 되는 음운 첨가 및 음운 탈락형은 합성어에서 ‘ㄹ’이 탈락되거나 ‘ㄴ’이 첨가되는 예들이다.

- (6) 가. 소나무, 버드나무, 화살, 이부자리, 무더위, 무서리, 무지개 등
 나. 겨우내, 하느님, 따님, 아드님, 바느질, 푸성귀 등
 다.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톱니 틀니 머릿니 등
 라. 업신여기다

(6가)는 합성어의 경우 어간말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된 예이고 (6나)는 파생어의 경우에 ‘ㄹ’이 탈락된 예이다. 이 어휘들을 분석하였을 경우 학습자들은 ‘소-솔’, ‘버드-버들’, ‘겨우-겨울’, ‘하느-하늘’의 관계를 인지하기 어렵고, ‘불놀이, 별사탕, 달동네, 날짐승’, ‘아들네, 딸네, 날도둑, 날짐승’ 등과 비교하였을 때 ‘ㄹ’이 탈락되는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려

22) 장윤희(2007: 77~78)에서 ‘꾸짖- : 꾸지람, 달리- : 달음박질/달음질 : (도움)달기, 모으- : 모이- : 모듬(안주), 당기- : (줄)다리기’ 등은 현대 한국어에서 의미상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 각각 과거 시기에 다른 단어들로부터 나온 예들로서, 그 원천이 되었던 한 단어 중 하나가 사어화함으로써 현재 이들을 관련지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과거 하나의 단어와 관련된 단어이면서도 사적인 변화의 결과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어사 지식은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후자의 예로는 ‘어지럽-’, ‘아찔하-/어찔하-’, ‘아지랑이’의 관련성, ‘온’과 ‘오로지’, ‘끓-’과 ‘그치-’의 예를 들고 있다.

을 것이다. 또한 ‘소나무-솔나무’, ‘부나방-불나방’ 등 ‘ㄹ’이 탈락하지 않은 어형²³⁾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탈락 이전의 형태와 이전 시기의 ‘ㄹ’ 탈락 규칙을 설명하면서 어휘의 형태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6다)는 공시태에서 ‘ㄴ’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이다. <한글 맞춤법>에서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의 단어에서 실질 형태소는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齒, 虱]’의 경우는 예외로 다룬 것이다.²⁴⁾ ‘이[齒]’는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어에서의 단독형은 ‘이’이다. 복잡한 규정의 설명보다 이들이 옛 형태와 관련 있다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다.

(6라)의 ‘업신여기다’는 이전 시기에 ‘없-’에서 파생된 부사 ‘업시’와 ‘여기-’의 고어인 ‘너지-’의 통사적 결합체인 ‘업시 너기-’라는 구성에서 ‘ㄴ’이 첨가된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앞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업신여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장윤희 2007: 81).

(6)은 모두 이들은 국어학적 지식이 없이는 복합어에서 탈락 또는 첨가를 겪은 형태를 단독형과 비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원 교육의 한국어 어휘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5. 동형이의어

한국어 학습자는 단어가 외적으로만 동형인 경우, 그 형태에 이끌려 동일한 의미로 오해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원을 활용한 교육은 어휘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막아 줄 수 있다.

- (7) 가. 가랑비; 가랑눈, 가랑머리
나. 밥을 먹다/귀 먹다

(7가)의 ‘가랑비 가랑눈, 가랑머리’의 ‘가랑’은 현대국어에서 동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같은 의미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가랑비’의 ‘가랑’은 그 어원이 가루[紛] 또는 안개[霧]를 뜻하는 명사 ‘ᄉᆞᆫ’에서 온 것이지만²⁵⁾ ‘가랑눈’, ‘가랑머리’의 ‘가랑’은 동사 ‘가르-’에서 온 것으로 파악된다(조항범 2014: 241 참조). 초급의 기초 어휘인 (7나)의 ‘먹다’는 ‘밥을 먹다’와 ‘귀 먹다’의 ‘먹다’가 동형어라 같은 ‘食’의 의미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귀 먹다’의 ‘먹-’과 ‘밥을 먹다’의 ‘먹-’은 동일한 어휘가 아니다. ‘귀를 먹다’의 ‘먹다’는 중세국어 내적 파생 곧, 모음 교체에 의해 단어를 파생시키는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로, ‘막다 : 먹다’는 아무런 의미나 기능의 차이 없이 사용되었다(장윤희 2007: 80 참조). 동형이의어는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의사소통에서는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들을

23) 특히 ‘ㄹ’ 탈락은 현대국어에서 더 이상 규칙의 효력을 갖지 않으며 이들 ‘ㄹ’ 탈락형들은 현대국어에서 ‘불나비’, ‘솔나무’, ‘불삼’ 등 ‘ㄹ’이 탈락하지 않은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탈락형들의 어원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ㄹ’ 탈락의 화석형들은 ‘구부스름하다, 둥그스름하다, 기다랗다, 가느다랗다’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24) 이는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 앞’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됨으로써 [송고시, 아피]로 읽힐 수도 있으며, 새끼 이를 ‘가랑이’로 적으면 끝이 갈라져 벌어진 부분을 이르는 ‘가랑이’와 혼동될 수 있다.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나는 ‘이’는 ‘간니[代生齒], 덧니, 틀니, ……가랑니[幼虱], 머릿니[頭髮蟲], ……’처럼 적기로 한 것이다.

25) 조항범(2014: 240~245)에서 ‘가랑비’는 ‘ᄉᆞᆫ비’ <월인석보 1: 36>에 소급되고, ‘ᄉᆞᆫ비’는 17세기부터 나타나며 ‘ᄉᆞᆫ’에 접미사 ‘-양’이 첨가된 형태로 파악된다. ‘ᄉᆞᆫ비’를 ‘ᄉᆞᆫ비’와 관련시켜 이해한 뒤 ‘細雨’라는 한자어를 대응하기도 하나, ‘ᄉᆞᆫ비’가 ‘ᄉᆞᆫ비’로 변하기 어려우므로 ‘ᄉᆞᆫ비’ 설은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늘게 내리는 비”로 뜻풀이하고 있다.

어원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어휘들 간의 의미의 간섭 또는 오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6. 혼종어, 혼성어, 두자어

혼종어는 어종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어휘가 결합한 어휘를, 혼성어는 합성어에서 일부를 절단한 말 또는 단어의 절단형을 합성한 어휘를 이르고²⁶⁾, 두자어는 구나 구절을 구성하는 단어의 첫 음절로 이루어진 어휘를 이른다. 외국에서 실제 사용되는 혼성어나 두자어를 단순 차용한 경우 그 원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차용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혼종어, 혼성어의 경우는 어원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 (8) 가. 깡통(can+桶), 깡패(gang+패), 소개팅(紹介+meeting), 라볶이(râmen+떡볶이) 등
나. 휴게텔(休憩+hotel), 고시텔(考試+hotel), 차파라치(車+paparazzi), 악플(惡性+reply), 태권로빅(跆拳道+aerobic) 등
다. 금치(金+배추), 무추(무+배추), 급겹살(金+三겹살), 손풍기(손+扇風機), 썩소(썩은+微笑) 등

(8)은 영어+한자어, 영어+고유어, 한자어+영어, 한자+고유어, 일본어+고유어 등으로 이루어진 혼종어이다. 혼종어 가운데 (8가)처럼 고유어화되어 사전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8나), (8다)처럼 최근에 만들어져 임시적으로 쓰이거나 그 쓰임을 넓혀가는 경우도 있다. ‘깡통’, ‘깡패’의 경우 그 자체를 암기할 수 있으나, 나머지들의 경우는 그 어원을 통한 설명이 필요하다. ‘볶이’, ‘텔’, ‘파라치’, ‘플’ 등은 접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원을 활용한 교육은 이들이 결합된 다른 어휘들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9) 가. 레포츠(resort+sports), 오피스텔(office+hotel), 선팅(sun+coating), 피싱(private data+fishing), 카파라치(car+paparazzi) 등
나. 교강사(教授+講師), 식의약(食品+醫藥), 화장품(化粧品+藥品), 차계부(車+家計簿), 반수생(半+再修生), 반계탕(半+蔘鷄湯), 고통철(苦痛+地下鐵), 저속철(低速+地下鐵) 등
다. 쌈추(쌈+배추), 닭돌기(닭+비둘기) 등

(2가)는 외국어, (9나)는 한자어, (9다)는 고유어끼리의 혼성어의 예를 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휘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생소할 어휘들이며, 어원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 (10) 가. 강퇴(강제 퇴장), 야자(야간 자율 학습), 공구(공동 구매), 강추(강력 추천), 여친(여자 친구), 남친(남자 친구)
나. 정모(정기 모임), 즐겜(즐거운 게임), 즐감(즐거운 감상), 즐통(즐거운 통신), 야동(야한 동영상), 은따(은근한 따돌림), 영따(영원한 따돌림)
다. 냉무(내용 없음), 고딩(고등학생), 초딩(초등학생), 중딩(중학생), 대학생(대딩), 늑

26) 혼종어도 대부분 두 어종의 일부를 절단하여 만들어지므로 혼종어를 혼성어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혼종어는 두 개 이상의 어종이 결합한 말, 혼성어는 동일 어종의 두 단어 이상이 절단되어 결합한 말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은 사람(노딩), 당근(당연하죠)

(10)은 두자어의 예를 든 것인데, 이들 중에는 (10가)처럼 한자어로만 구성된 구에서 줄어진 두자어가 상당히 많다. (10나)와 같이 그 밖의 경우에서도 두자어가 계속 생성되고 있다. (10다)는 어떤 본딧말을 어떻게 해서 줄인 것인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본딧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줄일 때 음절 축약을 거친 경우도 있어 어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3.7. 관용어구, 속담

속담은 교육을 위해서 그 어원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속담 및 관용어는 해당 어휘만 알아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담 및 관용어의 배경 지식과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어원은 곧 해당 속담의 발생한 배경 지식과 문화이다. 관용어는 그 구성요소들의 의미의 합이 전체 관용어의 의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기에 대한 어원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가를 들다’와 ‘미역국을 먹다’는 각각 모계 중심 사회의 결혼 풍속을 바로 이해할 때(조항범 2014: 16)와 미역의 특성, 음식문화, 시험 문화를 이해할 때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 교육의 의의

어원을 이용한 어휘 교육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²⁷⁾

첫째, 어휘 교육에 어원을 활용할 경우, 어휘의 구조 분석, 특히 파생어, 합성어 등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어의 의미와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학습자는 어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체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에서 빈도가 높고 생산성이 높은 접사나 어근의 어원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의 어휘 습득 능력을 키워준다. 학습자는 어근이나 접사의 의미가 잘 나타나는 여러 단어를 학습함으로써 그 어원이 어근 또는 접사로서 결합하여 형성된 낱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처음 접하는 단어에 대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어근과 접사의 어원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나타내는 모든 낱말의 의미를 알아낼 단서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어원 이해를 통한 어휘 학습 방법은 일방적인 어휘 암기에서 오는 단순함을 피하면서 어원이라는 흥미 요소를 통해 어휘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나아가 어원 분석에 따르는 문화사적인 특성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관식 2003: 30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대해 그 원래의 형태와 뜻을 생각하고자 하는 어원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 화자에게 단순한 어원적인 것도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될 수 있다.

넷째, 어원은 의미상 관련이 있는데 형태상의 차이를 보이거나 형태상 관련이 있는데 의미

27) 조현용(2000)에서는 어휘 교육에서 어원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어의 어휘 구조를 이해시킬 수 있다. 둘째, 어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어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어휘 학습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넷째, 우리 민족의 사고를 보여줄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어원을 통한 어휘 교육의 의의는 조현용(2000)에서 제시하는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을 설명할 수 있고, 어휘 체계 안에서 불규칙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장윤희 2007 참조).

다섯째, 어원을 통하여 민족적 사고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속담, 관용어의 경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며 개별 어휘에서도 어원을 통해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을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먼저 어원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어휘가 아니라면 많은 어휘의 비교를 통하여 어휘 내부의 구조를 파악할 능력이 갖추어지는 중급이나 고급 단계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다. 또한 어원 교육은 정확한 어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어원은 한국의 문화와도 관련이 되므로 잘못된 어원의 전달은 어휘의 의미와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한 어휘의 어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하거나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높은 것을 교육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어휘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므로 어원은 이러한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지, 어원에 대한 교육이 어휘 교육의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원 교육이 목적이 될 경우 학생들은 한국어 어휘를 더욱 더 어렵게 느낄 것이며 어휘 학습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 어휘의 고어형은 흥미 유발 차원에서 제시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휘의 고어형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한국어 학습자를 국어학자로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고어 표기 등은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²⁸⁾

5. 결론

참고문헌

- 구본관(2017), 단어 형성법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연구-유사 접사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0, 국어교육학회, 1-47.
- 권순희(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지도 방안 연구-고유어 접사의 어원 및 뜻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9, 국어교육학회, 361-382.
- 기세관(1992), 국어 /ㄹ/탈락과 관련한 두어 문제, 『春岡柳在泳博士華甲紀念論叢』, 이회문화사.
- 김미영(2004), 영어단어의 어원을 통한 어휘교육,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방한(1980), 한국어 어원 연구를 위하여, 말 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9-34.
- 김방한(1984), 한국어의 계통,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1.
- 김성옥(2013), /ㄹ/탈락 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형(2008), '불' 관련 어휘의 어원 탐색, 한국어학 39, 한국어학회, 41-78.
- 나은미(2008), 유추를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177-202.
- 문금현 (2009) 한국어 어휘론과 한국어 교육, 2009년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1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45-69.
- 문금현(2011),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교육,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

28) 조현용(2000: 207~208)에서는 어휘를 교육할 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은 (1)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는 안 된다. 설명은 쉬워야 한다. (2) 설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3) 우리 민족의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역시 본고의 어휘 교육에 주의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회, 7-47.
- 박용찬(2008),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고찰-우리말 속의 혼성어를 찾아서-, 형태론 10 권 1호, 111-128.
- 송철의(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 이관식(2003), 어휘 구조 이해를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파생어 분석과 인칭접미사의 어원 이해를 통한 어휘 습득을 중심으로-,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창간호,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277-301.
- 이관식(2004),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의 어원 교육,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2,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17-37
- 이남덕(1985), 한국어 어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동규(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속담관용어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석(2000), 르달락 현상의 적용 환경과 발생 및 소멸 시기에 대하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237-259.
- 이래호(2011), 한국어 교육에서의 신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언어학 연구 20, 종원언어학회, 155-178.
- 이선중(2017), 어원분석학적 접근을 활용한 한자어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112, 한국국어교육학회, 212-243.
- 장윤희(2007),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어사 지식의 유용성, 언어와 문화 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67-83.
- 조유경(2018) 중학교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른 어원을 이용한 어휘 전략의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항범(2014), 개정판 국어어원론, 충북대학교출판부.
- 조현용(1999), 한국어 어휘교육과 어원교육, 어원연구 2, 191-210.
- 조현용(1999),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교육, 한국어교육 1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5-281.
- 조현용(2015), 언어 변화와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9차 춘계 학술대회, 37-46.
- Levine, H. (1982). Vocabulary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New York: Amsco School Publications.
- Nagy, W.(1997). On the role of context in first -and second-language vocabulary learning. In N. Schmitt & M. McCarthy (Eds.), Vocabulary :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237-257.
- Richards, J. C. (1976). The role of vocabulary teaching. TESOL Quarterly 10, 77-89.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에 대한 토론문

이금영(충남대학교)

이 논문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원 교육의 범위와 어휘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원의 일부 예들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어원 교육의 의의 등을 고찰한 연구로서 의의를 갖습니다. 이 논문의 기본 골자인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원 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견해를 같이 하므로 여기에서는 논문을 읽으면서 갖게 된 몇 가지 작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3장에서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원의 유형을 ‘1) 비생산적인 접사, 2) 어형 변화형, 3) 화석형, 4) 음운 첨가 및 음운 탈락형, 5) 동형이의어, 6) 혼종어, 혼성어, 두자어, 7) 관용어구, 속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어원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음운 현상 및 품사 변화, 조어법, 문화 등과 관련된 분야로 어휘들을 나누어 그 어원을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형 변화형’의 예인 (4)의 어휘들이나 ‘화석형’의 예인 (5가), (5나), ‘음운 첨가 및 음운 탈락형’의 예인 (6)의 예들은 음운 현상과 관련된 어휘들로 묶어서 어원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또한 (5라)의 ‘미끄럼, 꾸지람’ 등은 ‘죽음 : 주검, 막음 : 마감’ 등과 같은 어휘들과 함께 품사 변화 및 모음조화 현상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화석형’의 예로 제시된 (5다)의 ‘내로라하다’나 ‘혼종어, 혼성어, 두자어’의 예로 제시된 (8)~(10)의 예 중 ‘카파라치, 무추, 쌈추, 닭돌기, 은따’ 등과 같은 어휘들은 한국어 교육용 어휘로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3. (7가)에서 ‘가랑비’의 ‘가랑’은 그 어원이 가루[紛] 또는 안개[霧]를 뜻하는 명사 ‘가르’에서 온 것이지만, ‘가랑눈, 가랑머리’의 ‘가랑’은 동사 ‘가르-’에서 온 것으로 파악된다(조항범 2014: 241 참조)하였는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가랑눈’의 의미 “조금씩 잘게 내리는 눈. ≒분설2(粉雪)·세설3(細雪)”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인용 오류인지 어원 분석의 견해 차이인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10다)의 예에 대하여 저자는 “어떤 본딴말을 어떻게 해서 줄인 것인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예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본다면 두자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냉무 ← 내용 무(無),

초딩/중딩/고딩(‘딩’의 접미사화) ← 초등/중등/고등

대딩 ← 대(학생) + -딩, 노딩 ← 노(인) + -딩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연구

이동석(한국교원대학교)

1. 서론

어원은 어떤 말의 근원적인 형태나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을 말한다. 어원 연구의 대상은 주로 단어이지만, 때로는 문법 형태소 또는 단어보다 더 큰 구나 절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말의 어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국어사 등 국어 문법의 여러 부문들에서 구축된 연구 방법과 연구 성과를 활용하게 된다. 어원 연구는 이처럼 문법 연구의 총체적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문법의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인지 역설적이게도 어원 연구는 그 자체로서 문법 연구의 주류로 여겨지지 못했고, 오히려 단어의 본 의미나 유래만이 부각될 뿐 그러한 의미를 도출하기까지의 치밀하고 세밀한 분석 과정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때문인지 우리말의 어원은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교수·학습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어원 교육과 관련된 연구도 단편적인 논문이 몇 편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의 어원을 국어과의 학습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국어과 교과서에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국어의 어원을 활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원을 직접적인 학습 내용으로 새롭게 다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학습 내용의 교수·학습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말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높여 준다는 것이다.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이다(교육부 2015:3). 우리는 국어를 통해 사고하고, 국어를 통해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과목이 국어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국어를 통해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아간다.

초·중·고 공통 과목인 ‘국어’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가치 있는 국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교육부 2015:3).

이러한 ‘국어’ 과목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국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학습 효과가 증대된다. 아무리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학습자가 국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단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떠한 의미에서 출발하여 지금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아는 것은 해당 단어나 표현은 물론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높여 줌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킨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학생들은 게임이나 연예인 등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호기심의 방향을 학습 내용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1) 시치미를 떼다, 다람쥐

예를 들어 ‘시치미(를) 떼다’에서 목적어 ‘시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람쥐’에서 ‘다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 만하다. 물론 어원에 대한 지적 탐구심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들 단어의 어원에 대한 호기심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들의 수준에서 어원적인 분석을 시도해 볼 만한 단어 및 표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어원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안내를 교사가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어원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국어의 여러 영역에 대한 학습에 영향을 미쳐 학습자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국어의 여러 영역에 걸쳐 두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 중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것이다. 국어 어원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바탕을 배경으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어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말을 통해 사고하고 대화하며 우리 문화의 전통을 이루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원에는 이러한 우리의 문화와 사상이 오롯이 투영되어 있다.

(2) 오른손, 왼손, 밀물, 썰물

위의 예에서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 ‘옳은 손’과 ‘원 손’이라는 구 구성이 굳어진 것으로, 전자는 ‘올바른 손’이라는 의미를, 후자는 ‘그릇된 손’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른 언어에도 이런 식의 의미 부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말에서는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두 단어의 어원에 반영된 의미가 극명하게 대조를 보인다. 이는 ‘오른쪽’은 옳고 ‘왼쪽’은 그르다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사고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밀물’과 ‘썰물’은 ‘미는 물’과 ‘당기는 물’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혈물’은 19세기 문헌에 ‘썰물, 혈물’과 같은 표기로 처음 등장하지만, ‘밀물’과의 의미 대조를 통해 그 이전 형태가 ‘*혈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국어의 ‘허다’는 ‘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혈물’은 곧 ‘당기는 물’이 된다¹⁾.

이는 전통적인 농경 사회로서 달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켰던 우리 민족의 문화를 잘 반영하는 어원이라 할 수 있다. 달이 바닷물을 밀고 당긴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밀물’과 ‘썰물’이라는 표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잘 말해 준다.

1) 관형사형 어미 ‘-르’는 일반적으로 미래를 나타내지만,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르’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 중 세 번째는 문법적인 분석력을 높여 주고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문법이란 언어의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원리나 규칙을 말한다. 따라서 문법을 이해하고 문법에 맞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우리말을 바르게 분석할 때 가능해진다.

어떤 단어나 표현의 어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단어 및 표현에 대한 문법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원을 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법적인 분석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법적 분석력은 사고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분석된 구성 요소의 문법적인 관계를 통해 특정 단어 및 표현의 의미를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3) 만만찮다, 마땅찮다, 편찮다, 귀찮다, 괜찮다

위의 예에서 ‘만만찮다, 마땅찮다, 편찮다’는 각각 ‘만만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편하지 않다’의 준말이다. 이를 통해 ‘찮다’가 사실상 ‘하지 않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귀찮다’에 대입하면 ‘귀찮다’는 ‘귀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환원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귀찮다’고 표현하는 것이 원래는 그 일이나 사람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괜찮다’의 경우 ‘괜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환원되지만 ‘괜하다’라는 단어가 그리 익숙하지 않다. ‘괜하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해 보면 ‘괜한’과 ‘괜히’라는 표현을 떠올릴 수 있다. ‘괜한’은 ‘쓸데없는’의 의미를, ‘괜히’는 ‘쓸데없이’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를 통해 ‘괜하다’가 ‘쓸데없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괜하지 않다’는 결국 ‘쓸데없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괜찮다’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한다.

- (4) 가. 미안해요. / 괜찮아요.
 나. 도와 줄까요? / 괜찮아요.
 다. 이거 어때? / 그거 괜찮은데!
 르.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무.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각각의 대화 상황에서 ‘괜찮다’는 구체적으로 조금씩 변형된 의미를 나타내지만, ‘쓸데없지 않다’라는 원의미와 서로 통한다. ‘괜찮다’의 이러한 의미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연결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사고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 중 네 번째는 국어의 여러 내용 영역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어원은 국어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공식적인 문법 영역뿐만 아니라 통시적 영역인 국어사를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학은 물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기능적인 영역을 학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이동석(2018)에서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국어 교과서 14종을 분석한 결과 ‘문법, 문학, 읽기, 쓰기, 듣기·말하기’의 다섯 영역 중 ‘쓰기’를 제외한 네 영역에서 어원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주로 다음 장에서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어원의 활용 방안을 살펴볼 것이지만, 어원이 문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어원은 국어과의 여러 영역에 두루 관련되어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역은 문법 영역이다. 이에 본고는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어원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법 영역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과목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과목

가. 공통 교육과정- ‘국어’

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일반 선택) -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진로 선택) -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공통 과목인 ‘국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과목들은 고등학교 교과서만 있다. 이 중 문법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과목은 ‘국어’ 및 ‘언어와 매체’이다. 이들 과목의 문법 영역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국어’의 문법 영역 내용 요소

핵심 개념	학년(군)별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학년
▶ 국어의 본질			• 사고와 의사소통의 수단	• 언어 기호	• 역사적 실체
▶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 낱말의 의미 관계 • 문장의 기본 구조	• 낱말 확장 방법 • 문장 성분과 호응	• 음운의 체계와 특성 • 품사의 종류와 특성 • 문장의 짜임 • 담화의 개념과 특성	• 음운의 변동 • 문법 요소의 특성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 발음과 표기 • 어휘 사용 • 문장·담화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 낱말의 소리와 표기 • 문장과 문장 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 분류와 국어사전 활용 • 높임법과 언어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른 낱말의 의미 • 관용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 어휘의 체계와 양상의 활용 • 한글의 창제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에 대한 태도 • 국어 사랑 • 국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낱말·문장에 대한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의 소중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국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시대의 국어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사랑과 국어 발전 의식

‘국어’의 경우 문법 영역이 ‘국어의 본질’,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국어에 대한 태도’ 등의 핵심 개념으로 나뉘어 있고, 핵심 개념별로 구체적인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²⁾.

<표 10> ‘언어와 매체’의 문법 관련 내용 요소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언어와 매체의 본질	• 언어와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와 국어의 특성 • 국어의 위상
국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단어·문장·담화 • 국어 자료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의 체계와 변동 • 품사와 단어의 특성 •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 • 문장의 짜임과 활용 •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 담화의 특성과 국어생활 • 시대·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 • 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생활 • 매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생활 성찰 • 매체 언어생활 성찰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문법 영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문법과 매체를 통합하여 ‘언어와 매체의 본질’, ‘국어의 탐구와 활용’,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등으로 핵심 개념이 나뉘어 있고, 역시 핵심 개념별로 구체적인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³⁾.

2) <표1>은 교육부(:108)의 표를 본고의 성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3) <표2>는 교육부(:108)의 표를 본고의 성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들 내용 요소들은 교과서를 집필할 때 개별적인 소단원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소단원을 이룰 만한 주제 중심으로 위의 내용 요소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2015 개정 국어과의 문법 내용 요소

- 가. 언어 일반론 - 언어의 기능, 언어의 본질, 언어의 특성, 국어의 특성
- 나. 음운론 - 음운의 체계, 음운의 변동
- 다. 형태론 - 품사의 종류, 단어의 형성(짜임), 새말
- 라. 어휘의미론 - 단어의 의미, 단어의 의미 관계, 어휘의 체계, 어휘의 양상, 관용 표현
- 마. 문장론 -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 바. 담화론 - 담화의 개념,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의 맥락, 담화의 생산과 수용
- 사. 국어 규범 -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어문 규범
- 아. 국어사 - 한글 창제 원리,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 자. 국어에 대한 태도

(6가)의 ‘언어 일반론’에는 ‘언어의 기능, 언어의 본질, 언어의 특성, 국어의 특성’ 등이 속한다. 언어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지시적·정보적·친교적·정서적·명령적 기능을 다루고, 언어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국어 과목에서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등을 배운다. 언어의 특성으로는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와 사고의 상호 영향 관계, 사회·문화와 언어의 표상 관계 등을 다루고, 국어의 특성 역시 ‘언어와 매체’에서 국어의 위상과 함께 다룬다.

(6나)의 ‘음운론’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이다. ‘음운의 체계’는 중학교 국어 과목에서, ‘음운의 변동’은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 다루며, ‘언어와 매체’에서는 이 두 내용을 모두 다룬다⁴⁾.

(6다)의 형태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품사의 종류, 단어의 형성(짜임), 새말’ 등이다⁵⁾. ‘품사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 모양이 바뀌는 낱말과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을 구분하고 낱말의 기본형을 이해하여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 등을 학습하며, 중학교에서는 품사의 종류를 알고 특성을 이해하는 학습을 한다. 합성어와 파생어는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는 낱말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언어와 매체’에서는 단어의 짜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게 된다. ‘언어와 매체’에서는 새말의 형성 과정도 다루게 된다.

(6라)의 어휘의미론에서는 다의어, 동음이의어와 같은 단어의 의미,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와 같은 단어의 의미 관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같은 어휘의 체계, 지역 방언, 사회 방언과 같은 어휘의 양상을 다루며, 관용 표현도 아울러 다루게 된다.

(6마)의 문장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홀문장, 겹문장과 같은 문장의 짜임, 주어,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을 비롯하여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등의 문법 요소를 다루게 된다⁶⁾.

4) 초등학교 1~2학년군의 ‘낱말의 소리와 표기’, 중학교군의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는 사실상 ‘음운의 변동’에 속하는 것이지만,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표준 발음법과 연계하여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에 포함을 시켰다.

5) 엄밀히 말해 ‘품사’는 형태론의 영역이 아니지만,

6) 고등학교 국어 과목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사동 표현을 빼고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언어와 매체’의 성취기준에서는 특별한 해설 없이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6바)의 담화론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국어 과목에서 화자(필자)와 청자(독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맥락(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담화의 개념을 학습하고,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에서는 담화의 개념,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화의 생산과 수용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6사)의 국어 규범으로는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과 같은 어문 규범을 배우게 된다.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은 초등학교 1~2학년군에서 다루고, 어문 규범은 대개 중등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배우고, ‘언어와 매체’에서는 국어 규범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과 함께 구어와 문어, 문학어와 일상어, 표준어와 방언,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 등에서 사용의 적절성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적절성과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강조한다.

(6아)의 국어사와 관련해서는 한글 창제 원리,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등을 배우고 (6자)의 국어에 대한 태도는 모든 학교급과 학년군에 관련 성취 기준이 있을 정도로 국어 과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다.

(6자)의 ‘국어의 태도’와 관련된 성취 기준의 내용을 학교급별, 학년군별로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 학교급·학년군별 국어의 태도에 대한 성취 기준 내용
- 가. 글자, 낱말, 문장에 대한 흥미(초등학교 1~2학년군)
 - 나.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초등학교 3~4학년군)
 - 다.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초등학교 5~6학년군)
 - 라.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중학교 국어)
 - 마.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고등학교 국어)
 - 바. 자신의 국어생활과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언어와 매체)
 - 사.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언어와 매체)

위의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인 우리의 문자언어 및 음성언어에서부터 이를 토대로 한 언어문화와 매체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어원의 활용 방안

3장에서 정리한 (6)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어원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의 활용 방안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원의 목록을 제시하는 정도로 다루어질 것이다. 관련된 어원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 일일이 다 다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생활에 탐구하도록 하고 있어, 사동 표현의 경우 ‘언어와 매체’에서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4.1. 언어 일반론

언어 일반론에서는 언어의 기능(지시적·정보적·친교적·정서적·명령적 기능), 언어의 본질(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언어의 특성(언어와 사고의 상호 영향 관계, 사회·문화와 언어의 표상 관계), 국어의 특성 등을 다룬다. 이 중 어원을 활용하여 다룬 만한 내용은 언어의 본질이다. 언어의 본질 중에서도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어원을 활용할 만하다.

(8) 얼굴, 싸다, 사납다

‘얼굴’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종종 언급된다. ‘얼굴’은 15세기에 ‘모습’이나 ‘틀’을 의미하였는데, 지금은 ‘안면(顔面)’의 의미로 사용되어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다. ‘얼굴’은 동사 어간 ‘엷-’에 접미사 ‘-울’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얼굴’의 성조는 ‘쯔쯔’으로 어간 ‘엷-’의 성조가 평성인 것과 통하며, 의미상으로도 ‘얼굴’의 의미와 ‘엷-’의 의미가 서로 통한다(7).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싸다, 사납다’ 등의 어원도 다룬 만하다. ‘싸다’는 15세기의 어형이 ‘스다’ 또는 ‘쓰다’로서 이 당시에는 ‘값이 얼마에 해당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값이 저렴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국어에서 ‘맛아도 싸다’, ‘넘어져도 싸다’와 같이 ‘싸다’가 ‘저지른 일 따위에 비추어서 받는 벌이 마땅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의 의미는 중세국어의 ‘스다’ 및 ‘쓰다’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다.

‘사납다’도 현대국어에서는 ‘성질이나 행동이 모질고 역세다’, ‘생김새가 험하고 무섭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세국어의 표기는 ‘사오납다’로 이 당시에는 ‘좋지 않다, 품질이 낮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꼴사납다’, ‘팔자가 사납다’, ‘정신이 사납다’와 같은 표현에서 중세국어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해서 ‘사랑’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어원을 알고 보면 이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일부 교과서에서 동일한 개념을 영어로는 ‘love’, 우리말로는 ‘사랑’, 중국어로는 ‘愛’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주는 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랑’은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 ‘思量’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말의 어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처럼 문제가 될 만한 예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4.2. 형태론

형태론에서는 품사의 종류, 단어의 형성(짜임), 새말 등을 다룬다. 이 중 어원을 다루기에

7) 고창식(1977)은 ‘얼굴’의 어원을 ‘얼이 깃든 骨’, 즉 ‘얼+골’로 보았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을 보면 ‘얼굴’이 사람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型 얼굴 형 鑄器之範, 模 얼굴 모 模範規模法也 <훈몽자회-예산문고본 하:7b>
式 얼굴 식 又法式 <훈몽자회-예산문고본 하:9b>

따라서 ‘얼굴’의 ‘얼’을 정신을 뜻하는 ‘얼’과 연관시키기가 어렵다. 한편 이남덕(1985:378)은 ‘얼굴’의 이표기인 ‘얼굴’을 ‘얼[色]’과 ‘골[形]’의 복합어로 보았다.

가장 적합한 내용은 단어의 형성 및 짜임이다. 합성어나 파생어 중에는 어휘부에 등재되어 복합어라는 사실이 잘 인식되지 않는 예들이 있다. 그러나 단어의 형성법과 짜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분석이 쉬운 단어부터 분석에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단어까지 다양한 수준의 단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어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9) 목숨, 연못, 살바

위의 ‘목숨’과 ‘연못’은 얼핏 보기에 단일어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각각 ‘목’과 ‘숨’, ‘연(蓮)’과 ‘못’이 결합한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분석이 가능한 단어들의 어원을 같이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단어들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목숨, 연못’과 같이 한 덩어리로 생각하기 쉬운 단어를 어원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학생들이 단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살바’의 경우에는 어휘 확장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 대개 ‘살’이나 ‘바’라는 단어가 낯설 테지만, ‘살’이 ‘사타구니’와 관련이 있고 ‘바’가 ‘밭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두 단어의 어원까지 함께 학습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10) ㄱ. 모가지, 무지개, 깃들다

ㄴ. 성가시다, 보살피다, 타고나다

우리말의 형태소는 대개 1음절이나 2음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는 3음절어의 경우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3음절어나 4음절어를 제시한 후 이들의 어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단어 분석력을 높여 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모가지’는 유의어인 ‘목’을 통해 ‘목’과 ‘-아지’가 비교적 쉽게 분석될 수 있으며, ‘-아지’를 동물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무지개’를 ‘물[水]+지개[戶]’로 분석하는 것은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분석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지개’의 어원을 통해 선인들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깃들다’, ‘성가시다’, ‘보살피다’, ‘타고나다’를 각각 ‘깃+들+--다’, ‘성+가시+--다’, ‘보+살피+--다’, ‘타+--고#나+--다’로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구성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11) ㄱ. 꼴등, 꼴찌, 꼬리, 꼬랑지

ㄴ. 힘겹다, 흥겹다, 정겹다, 눈물겹다

단어족의 차원에서 공통된 구성 요소가 포함된 단어들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해당 구성 요소를 분석해 내는 방식으로 어원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꼴등, 꼴찌, 꼬리, 꼬랑지’에서 공통된 구성 요소는 ‘꼴’이며, 이들의 공통된 의미를 고려하여 ‘꼴’의 의미가 ‘맨 끝’이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역시 학습자의 단어 분석력을 높여 주며 우리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힘겹다, 흥겹다, 정겹다, 눈물겹다’에서는 ‘겹다’가 공통된 구성 요소이다. ‘힘겹다’, ‘흥겹다’를 ‘힘에 겹다’, ‘흥에 겹다’와 같은 통사적인 구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의 ‘겹다’가 ‘견뎌 내기 어렵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알게 되면, 이들 표현이 드러내는 구체적인 의미를 실감할 수 있다.

(12) 라볶이, 혼밥, 길냥이

새말과 관련해서는 두음절어나 혼성어 등 다양한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의 어원을 다룰 수 있다. 두음절어나 혼성어에 속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더 잘 알겠지만, ‘라볶이’와 같은 전형적이고 친숙한 표현으로부터 시작하여 ‘혼밥’과 같이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된 표현, ‘길냥이’와 같이 분석에 다소 생각이 필요한 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단어들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라볶이’는 ‘라면’의 ‘라’와 ‘떡볶이’의 ‘볶이’를 결합한 전형적인 혼성어이지만, ‘혼밥’은 ‘혼자 먹는 밥’을 줄인 표현이라고 할 때 전형적인 두음절어는 아니다. 전형적인 두음절어는 ‘혼떡밥’이 될 것이다. ‘길냥이’는 ‘길고양이’를 의미하지만 ‘길양이’가 아닌 ‘길냥이’가 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길’과 ‘양이’가 결합하면서 ‘ㄴ’이 첨가되어 ‘길냥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ㄴ’이 첨가된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4.3. 음운론

음운론에서는 크게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을 다룬다. ‘음운의 체계’로는 자음 체계, 모음 체계를 다루고 아울러 초분절음소인 소리의 길이를 다룬다. 음운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모음의 교체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음성상징어를 다룰 만하다.

(13) 남다, 녀다, 살, 설, 맛(있다), 멋(있다)

지금은 ‘남다’와 ‘녀다’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하지만, 중세 문헌에서는 이 두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다’가 지금의 ‘남다’와 ‘녀다’의 의미를 모두 담당했었다. 이는 ‘남다’와 ‘녀다’가 같은 기원형으로서 모음 차이에 의해 의미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을 잘 말해 준다. ‘살’과 ‘설’, ‘맛’과 ‘멋’도 마찬가지다.

이들 어원을 살펴보는 것은 최소대립쌍을 잘 설명해 주는, ‘아 다르다’와 ‘어 다르다’는 우리말의 속담을 실감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이들 각 단어의 의미가 원형의 의미로부터 분화되는 과정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말 단어의 작은 의미 차이를 섬세하게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음운 변동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각 음운 현상별로 다양한 어원들을 다뤄 볼 만하다. 먼저 교체 현상과 관련된 어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4) ㄱ. 비음화 - 만나다, 망나니, 동냥, 장난, 성냥, 승냥
- ㄴ. 유음화 - 술래
- ㄷ. 경음화 - 가까스로, 깨끗하다, 마땅하다, 모꼬지, 불쌍, 날짜, 진짜, 가짜, 퇴짜
- ㄹ. 구개음화 - 고슴도치, 바치다

비음화 현상과 관련해서는 ‘만나다, 망나니, 동냥, 장난, 성냥, 송냥’ 등의 어원을 다룰 만하다. ‘만나다’는 중세 문헌에서 ‘맛나다, 맛나다’로 표기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맛- + 나- + -다’가 역행 비음화 규칙에 의해 ‘만나다’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망나니’ 역시 ‘막 + 나- + -니 # 이’로 분석할 수 있다면 역행 비음화 규칙이 적용된 예로 볼 수 있다.

‘동냥’은 불교 용어인 ‘동령(動鈴)’에서 온 것으로 ‘삼림(森林)’, ‘동력(動力)’과 같이 순행 비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은 예이다. ‘장난’, ‘성냥’, ‘송냥’은 각각 한자어 ‘작란(作亂)’, ‘석류황(石硫黃)’, ‘숙랭(熟冷)’에서 유래한 것으로 ‘독립(獨立)’, ‘협력(協力)’과 같은 한자어에서 관찰되는 비음화 현상의 예에 해당한다.

유음화 현상과 관련해서는 ‘술래’를 예로 들 수 있다. ‘술래’는 조선 시대에 순찰을 돌던 군졸인 순라군(巡邏軍)과 관련이 있다. ‘순라’에 역행 유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술라’ 또는 ‘술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까스로’와 ‘깨끗하다’는 각각 ‘갓갓’과 ‘긋긋’이라는 첩어 구성에서 경음화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중세 문헌에는 각각 ‘갓가스로’와 ‘긋긋하다’로 표기되었다. 이외에도 중세국어 시기의 ‘궁금하다’가 조음 위치 동화 현상에 의해 ‘궁금하다’가 되는 등 옛말의 첩어가 음운 변동에 의해 발음과 표기가 변화된 예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어원을 다루는 것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마땅하다(맛- + 當 + -히- + -다)’, ‘모꼬지(몬- + 긋- + -이)’ 등의 어원이 경음화 현상과 관련이 있고, ‘불쌍(<不常)’은 ‘발달, 발사, 발전’과 같이 한자어에서 ‘ㄹ’ 뒤의 ‘ㄷ, ㅅ, ㅈ’이 경음화되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날짜(날字)’, ‘진짜(眞者), 가짜(假者), 퇴짜(退字)’ 등은 사잇소리의 첨가에 따른 경음화 현상의 예로 볼 수 있다.

구개음화와 관련해서는 ‘고슴도치, 바치다’ 등을 다룰 만하다. ‘고슴도치’는 중세 문헌에서 ‘고슴돌’으로 표기되었는데, 여기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서 구개음화되어 ‘고슴도치’가 되었다가 다시 둘째 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지금의 ‘고슴도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바치다’는 어간 ‘발-’에 접미사 ‘-히-’와 어미 ‘-다’가 결합한 것으로, 15세기 문헌에는 ‘바티다’로 표기되었다. ‘바치다’는 이 ‘바티다’가 구개음화된 어형이다⁸⁾.

(15) 형겅, 능금, 궁금하다, 떡갈나무

위의 예처럼 연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된 어원들도 있다. 연구개음화 현상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어원 분석을 통해 많은 어휘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현대국어는 물론 이전에도 매우 일반적인 음운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형겅’은 ‘형- + -ㄹ # 겅’이라는 통사적 구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15세기의 ‘형 것’이 16세기에 ‘형겅’으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능금’은 한자어 ‘림금(林檎)’에 연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林檎’은 『계림유사』와 『동의보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궁금하다’는 첩어인 ‘궁금하다’에서 유래한 것이며, ‘떡갈나무’는 16세기 문헌에 ‘덩갈나무’로 나온다. 이때 ‘덩갈’의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연구개음화 현상과 연계하여 다른 어원들과 같이 다룰 만

8) 현대국어에서 ‘묻히다’ 등의 구개음화 현상이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공시적으로 보면 유기음화 현상과 구개음화 현상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15세기 문헌에 ‘무티다’ 등이 사용된 것을 보면, 통시적으로 ‘묻히다’ 등에서 발견되는 구개음화 현상은 유기음화 현상 뒤에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치다’도 마찬가지이다.

9) 연구개음화 현상과 관련된 어원의 내용들은 이동석(2004)를 참고하였다.

하다.

이 외에도 ‘싱겁다’(<슴겁다), ‘어깨’(<엇게), ‘토끼’(<툃기), ‘도끼’(<똥기), ‘두껍다’(<둔겁다, ‘도깨비’(<똥가비) 등이 연구개음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들 단어의 어원적인 분석이 명확한 편은 아니지만, 연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되기 이전의 과거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싱겁다’의 원형인 ‘슴겁다’는 ‘슴’의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슴슴하다’의 ‘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6) ㄱ. ㄹ 탈락 - 화살, 수저, 더부살이, 무지개, 마지기, 가다듬다, 가느다랗다
- ㄴ. ㅎ 탈락 - 귀양, 사냥, 고린내, 마찬가지
- ㄷ. 자음군 단순화 - 박쥐, 뭇

ㄹ 탈락과 관련해서는 어원을 다룰 만한 단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 중 ‘화살’과 ‘수저’는 ‘활살’과 ‘술저’에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화살’은 ‘활’과 ‘살’, ‘수저’는 ‘술(술가락)’과 ‘저(젓가락)’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화살’은 ‘활’과 ‘살’을 아우르는 의미를 나타내야 하지만 현재는 ‘살’만을 뜻하며, ‘수저’ 역시 한편으로는 ‘술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아우르기도 하지만 ‘술가락’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의 의미가 구성 요소의 총합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ㄹ’의 탈락으로 인해 원형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ㅎ 탈락과 관련해서는 한자어 ‘歸鄉’과 ‘山行’에서 유래한 ‘귀양’과 ‘사냥’, ‘끓-+-은#내’로 분석되는 ‘고린내’, ‘마치 한 가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마찬가지’ 등을 들 수 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어간 말의 ‘ㅎ’이 탈락하는 현상만을 ㅎ 탈락 현상으로 인정하지만, 사실상 구어에서는 체언 내부에서도 ‘ㅎ’이 탈락한다. 위의 예에서 ‘고린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이러한 점을 잘 말해 준다.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해서는 ‘박쥐’와 ‘뭇’을 들 수 있다. ‘박쥐’는 15세기 문헌에 ‘뽕쥐’로 표기되었다. 지금과 같은 표기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며, 이 두 표기를 비교해 볼 때 ‘박쥐’는 ‘뽕쥐’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뭇’은 15세기 문헌에서 ‘뭇’으로 표기되었으며, ‘뭇’은 ‘물[群]’에 사이시옷이 결합한 형태이다.

- (17) 유기음화 - 가타부타, 슬프다, 아프다, 고프다

유기음화와 관련해서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슬프다, 아프다, 고프다’ 등의 어원을 다룰 수 있으며, ‘가하다 부하다’에서 온 ‘가타부타’ 역시 유기음화와 관련하여 다룰 만하다.

4.4. 어휘의미론

어휘의미론에서는 ‘단어의 의미, 단어의 의미 관계, 어휘의 체계, 어휘의 양상, 관용 표현’ 등을 다룬다.

- (18) ㄱ. 어휘의 체계 - 사랑, 장난, 성냥, 송냥, 김치
- ㄴ. 단어의 의미 관계 - 길짐승, 날짐승, 밀물, 썰물
- ㄷ. 관용 표현 - 시치미를 떼다, 산통을 깨다
- ㄹ. 속담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어휘 체계와 관련해서는 고유어화된 한자어의 어원을 다룰 만하다. ‘사랑, 장난, 성냥, 송늬’ 등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자어 ‘思量, 作亂, 石硫黃, 熟冷’에서 온 것으로, 이처럼 일부 한자어는 발음이 변하면서 고유어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사랑’의 경우 이 단어가 한자어에서 유래했다는 정보와 함께 ‘사랑하다’에 대응되는 고유어 동사가 ‘괴다’나 ‘뒸다’였다는 점을 언급해 줄 수 있다. ‘김치’는 ‘沈菜’에서 유래했다는 점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단어의 의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길짐승’과 ‘날짐승’, ‘밀물’과 ‘썰물’처럼 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진 반의어들의 어원을 다룰 만하다. 이러한 관계를 이루는 반의어들의 어원을 분석하게 되면, 쌍을 이루는 단어 중 어느 한쪽이 어원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더라도 상대적으로 분석이 수월한 다른 한쪽의 분석을 통해 이 둘을 같은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용 표현으로는 ‘시치미를 떼다’나 ‘산통을 깨다’ 등의 표현을 살펴볼 수 있으며, 속담으로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를 다룰 만하다.

4.5. 문장론

문장론에서는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등을 다룬다. 이 중 ‘높임 표현’과 ‘사동 표현’에서 어원을 다루어 볼 만하다.

- (19) ㄱ. 높임 표현 - 모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계시다, 자시다
 ㄴ. 사동 표현 - 고치다, 바치다

높임 표현으로는 ‘모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자시다’와 같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여 어휘화된 단어들의 어원을 다룰 수 있다. 사동 표현으로는 ‘고치다, 바치다’ 등의 어원을 다룰 만한데, ‘고치다’는 ‘곧게 하다’라는 의미인 ‘곧- + -히- + -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고치다’의 어원은 표준어 규정 제25항과 관련해서도 다루어 볼 수 있다.

4.6. 국어 규범

국어의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이 중에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과 관련하여 어원을 다룰 만하다.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붙임 1]은 어원이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는 것이고 [붙임 2]는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붙임 1]의 예로는 ‘할아버지’와 ‘할아범’이 제시되었고 [붙임 2]의 예로는 ‘골병, 골탕, 꿀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제시한 예시들의 어원을 살펴보는 것은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붙임 2]에서 예로 다룬 ‘며칠’이나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등의 어원이 불분명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어원 연구의 입장에서 제27항의 [붙임 2]는 오해를 살 위험성이 있다. 규정에서 말하는 어원이 불분명하다는 표현은 공시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표준어 규정 제5항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예시로 ‘강낭콩’이 있는데, 이 ‘강낭콩’은 어원적으로 보면 ‘강남콩’이 맞다. 이 콩의 주산지인 중국의 강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는 어원과 관련된 조항이 많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일일이 다 다루지 않았지만, 어원과 관련된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예시들에 대해서 어원을 살펴보는 것은 학습자들이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4.7. 국어사

사실 국어사처럼 어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도 없다. 어원을 분석할 때 국어사적인 지식이 동원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어원들이 이미 국어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어사 분야가 음운, 형태, 통사, 의미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므로 본고에서 이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분량상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국어사와 관련하여 살펴볼 만한 어원을 음운사의 측면으로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는 어원 분석에서 음운의 변화 내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러한 내용을 현대 음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0) ㄱ. ㅃ 관련 - 서울, 한가위, 가운데
- ㄴ. ㅅ 관련 - 메아리
- ㄷ. ㅎ 관련 - 썰물, 불현듯, 들이켜다
- ㄹ. 이중모음 관련 - 개, 고양이, 내가(‘나’의 주격형)
- ㅁ. ㅂ계 합용병서 관련 - 좁쌀, 볍씨

‘ㅃ’과 관련해서는 ‘서울, 한가위, 가운데’ 등의 어원을 다룰 만하다. 이들은 옛 문헌에서 ‘셔블, 가외, 가뽏디’로 표기되었다. ‘셔블’은 ‘신라’ 및 이에 대한 차자 표기인 ‘徐伐, 徐羅伐, 斯羅’ 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新村’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셔블 > 셔울 > 서울’의 과정에서 ‘ㅃ’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꺄블’로 표기되었던 ‘시골’의 어원도 같이 살펴볼 수 있지만, ‘스꺄블’은 어원 분석이 쉽지 않아 학습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한가위’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어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단어이다. 17세기 문헌에 ‘가외’로 나오지만, ‘ㅃ’의 특성을 적용하여 ‘*한가뽏’ 정도로 재구해 볼 수 있다. ‘가외’가 한 달의 가운데인 음력 15일에 해당하는 점과 ‘가운데’의 고형이 ‘가뽏디’인 점을 연계하고 중세국어에서 ‘고이다’ 또는 ‘차오르다, 모이다’ 정도로 해석되는 ‘굽다’를 참고하여 ‘가뽏’을 ‘굽-+-이’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다(이동석, 2008).¹⁰⁾ 이는 『삼국사기』의 ‘嘉俳’와도 연결이 된다. ‘한가위’의 어원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가뽏디’와 연계하여 중세국어의 ‘굽다’까지 참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학습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ㅅ’과 관련해서는 ‘메아리’의 어원을 중세 문헌의 표기 ‘뫐사리’를 이용하여 ‘뫐+살-+-이’로 분석해 볼 수 있으며 ‘ㅎ’과 관련해서는 ‘썰물, 불현듯, 들이켜다’ 등의 어원을 살펴볼 수

10) 이동석(2008)은 ‘굽다’와 ‘가외’, ‘가뽏디’의 모음이 ‘ㆍ’와 ‘ㅏ’로 차이 나는 것을 ‘아자비’와 ‘아즈미’에서 ‘ㆍ’와 ‘ㅏ’의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였다.

있다. ‘불현듯’에 흔적을 남긴 ‘혀다’는 ‘(불을) 켜다’의 의미로, ‘들어켜다’에 흔적을 남긴 ‘혀다’는 ‘당기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이 두 의미의 관련성은 과거에 불을 켜던 방식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중 모음과 관련해서는 ‘가히’와 ‘괴’로 표기되었던 ‘개’와 ‘고양이’의 어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히’는 ‘ㅎ’이 탈락되어 ‘개(가이)’가 되었고 ‘괴’는 원래 ‘*고니’였으나 ‘ㄴ’이 탈락하여 ‘괴(고이)’가 된 것이다. ‘괴’가 접미사 ‘-양이’가 결합할 때 ‘고양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의 ‘괴’가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 /oj/였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서 ‘나’의 주격형이 ‘나가’가 아닌 ‘내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세국어의 주격형 ‘내’의 발음이 근대국어 시기에 [naj]에서 [nɛ]로 단모음화되었기 때문이다.

ㄴ계 합용병서와 관련해서는 ‘좁쌀, 범씨’ 등에서 ‘쌀’과 ‘씨’의 표기가 각각 ‘뽕’과 ‘뽀’였던 점을 어원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조’와 ‘쌀’, ‘벼’와 ‘씨’가 결합할 때 ‘ㄴ’이 덧나는 것은 중세 국어 표기인 ‘뽕’ 및 ‘뽀’와 관련이 있다. 이 내용은 한글 맞춤법 제31항과도 관련이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원은 우리말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높여 주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 또한 학습자의 문법적인 분석력을 높여 주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며, 국어의 여러 내용 영역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어의 여러 영역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원의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어원은 국어과의 교수·학습 내용에 포함된 적이 없다. 그러나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어휘 분야나 국어사 분야의 한 내용 요소로 어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고창식(1977), “국어의 어원문제-한자어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19.20, 안암어문학회, 269-279.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이남덕(1985), 『한국어 어원연구 I』, 이화여대 출판부.
- 이동석(2004), “연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487-513.
- 이동석(2008), “음운사와 어원”, 『한국어학』 9, 한국어학회, 79-111.
- 이동석(2016), “한글 맞춤법 어원 설명의 문제점”, 『민족문화연구』 7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325-354.
- 이동석(2018),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원 활용 연구”, 『한국어문교육』 24,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45~271.
- 이선웅(2017), “어원분석학적 접근을 활용한 한자어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112, 한국국어교육학회, 211-243.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현주(공주교육대학교)

발표문의 기술대로 ‘어원’은 문법 제 분야와 밀접히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 연구의 주류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원을 활용하면 국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고, 음운·형태·통사·의미·국어사 등의 지식과 개념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토론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론자로서는 발표문의 논지나 주장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던 부분을 위주로 몇 가지를 질의함으로 토론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1) ‘밀물’, ‘썰물’에서 밀고 당기는 주체를 달로 상정하였습니다. 토론자의 지구과학 지식이 부족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하루에 두 차례씩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와 ‘달’이 모두 물을 당기고 미는 (혹은 놓아주는) 의인화 대상이 아닐지요.
2. (4) ‘미안해요 : 괜찮아요’, ‘도와줄까요 : 괜찮아요’ 이 두 예의 ‘괜찮아요’는 ‘쓸데없지 않다’로 환원되지 않는 듯합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깃들다’는 ‘서리다’, ‘스미다’ 정도의 의미인데, ‘등지에 들다’와는 의미적 유연성에서 거리가 있는 듯 생각됩니다.
4. ‘-아지’에 ‘싸가지’를, 음성상징어에 ‘성질 : 승질’, ‘염치 : 암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질’은 사람의 성격 기술로 용법이 제한된 것이고, ‘암체’는 요즘 청소년들이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인성 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환유적으로 ‘염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5. ‘모시다’는 객체높임 어휘로, 여기에 포함된 ‘시’는 주체존대의 ‘-시-’가 아닌 듯합니다.
6. ‘며칠’의 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흘’, ‘나흘’ 할 때의 ‘을’이 ‘몇’에 결합한 것으로 본다고 해도 불파음화 이전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7. 이밖에도 중국어 ‘視’의 번역차용(loan translation, calque)일 가능성이 큰 조사 ‘보다’ (<보다가), ‘不過’의 번역인 ‘-에 지나지 않-’ 등처럼 어원이 다른 언어 표현의 번역인 경우도 활용하면 흥미로울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치다’의 공시적 다의성과 통시적 의미 변화

허인영·전은경(고려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표준어와 연변 방언에서 동사 ‘다치다’가 갖는 다의의 양상을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해 그 원인과 변화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한국어의 표준어에서 ‘다치다’라는 단어는 주로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신체에 상처가 생기다’의 의미로 쓰인다. 한편 연변 방언에서도 ‘다치다’가 쓰이는데, 연변 방언에서는 주로 ‘대서 건드리다’ 혹은 ‘손해가 되게 건드리거나 손을 대다’나 ‘어떤 일에 관계하거나 작용을 가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며, 나아가 사전에는 기술되지 않은 ‘만지다’, ‘글을 수정하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처럼 ‘다치다’가 두 방언에서¹⁾ 의미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기원적으로 상이한 두 단어가 각 방언에서 우연히 ‘다치다’라는 동일한 형식으로 발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단어가 의미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현재 보이는 다의성을 방언별로 획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방언의 ‘다치다’가 어떤 내부 구조를 갖는 단어에서 기원했는지, 그리고 통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치다’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치다’의 공시적인 쓰임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원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쓰여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먼저 공시적으로 두 방언에서 ‘다치다’가 갖는 다의 관계를 사전 등을 통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다치다’가 방언에 따라 상이한 다의 관계를 갖게 된 원인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세한국어로 거슬러 올라가 ‘다치다’의 선대형(先代形)이 어떤 구조와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근세한국어²⁾와 현대한국어로 내려오면서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문헌 자료의 예를 들어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한 단어가 통시적으로 의미 변화를 겪은 결과 현재 두 방언에서 상이한 다의 관계를 획득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대한국어 ‘다치다’의 다의성

2.1. 표준어 ‘다치다’의 의미

1) 20세기에 들어와서 형성된 규범적 언어인 ‘표준어’를 하나의 ‘방언’으로 취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의 ‘서울 방언’과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되는 ‘표준어’를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와 대조하는 입장이므로, 남한에서 사용되는 규범적인 한국어인 ‘표준어’와 중국의 연변 지역에서 규범적으로 사용되는 ‘연변 방언’을 별개의 방언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2) 이 글에서는 17-19세기 한국어를 가리키는 용어로 ‘근대(한)국어’ 대신 ‘근세한국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문학·역사학에서 이 시기를 ‘근대(近代)’보다는 ‘근세(近世)’로 칭하며, 이른바 ‘개화기(開化期)’로 칭해지는 19세기 후반을 다룰 때 ‘근대’의 개념에 혼동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치다¹’과 ‘다치다²’를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다치다¹’에는 3개의 의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치다’

표제어	뜻풀이	용례
다치다 ¹	「1」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신체에 상처가 생긴다. 또는 상처를 입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 넘어져 무릎을 다치다. ¶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2」 남의 마음이나 체면, 명예에 손상을 끼치다. 또는 끼치게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군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마치 자신의 체면이 다치는 듯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 그는 마치 여인의 그 가지런한 분위기를 다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몸을 부스럭거리기 시작했다.
	「3」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다. 또는 끼치게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실수로 기업의 재정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그 지휘관은 전투를 지휘하면서도 수확을 앞둔 논밭을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다치다 ²	몸이나 물건을 건드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쓰는 데 어깨만 두서너 번 모르고 다쳐도 저리 가라고 목자를 부라린다. <<한설야, 탐>> ¶ 어림없지, 키스라니, 손가락 하나 다치게 못할 걸. <<손창섭, 낙서족>> ¶ 창가를 가르치는 선생만은 생도들에게 손끝 하나 다치기를 꺼려 하였다. <<김사랑, 낙조>>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치다¹’은 3개의 의향이 있는 다의어로 등재되어 있다. 각 의향을 살펴보면 ‘다치다¹’는 ‘…이 (…을) 다치다’라는 논항 구조에서 결합하는 논항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결합하는 논항이 ‘인체’일 경우 ‘다치다¹」1」의 의미이고, ‘마음’ 또는 ‘체면’과 같이 추상적인 경우 ‘다치다¹」2」의 의미이며, ‘재산’을 나타내는 경우 ‘다치다¹」3」의 의미이다. 이 세 가지 의미는 모두 ‘어떠한 것의 한 부분이 손상되다’의 의미에서부터 논항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치다²’는 ‘몸이나 물건을 건드리다’의 의미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말 큰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치다¹’과 ‘다치다²’를 하나의 표제어로 다루고 있다. 이는 각 사전마다 ‘다치다’를 다의어로 다루지 동음이의어로 다루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정의상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뚜렷이 구별된다. 즉, ‘다의어’는 한 형태의 단어가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지닌 것이며 ‘동음이의어’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단어가 의미와 무관하게 동일한 형태를 지닌 것이다(임지룡 2018: 132). 하지만 동일 어원이면서 의미까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의어 판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동일 어원이라 할지라도 의미 분화가 극심하면 위의 두 가지 준거 가운데 하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있는 단어들 상당수는 준거를 달리 할 때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

마찬가지로 현대한국어에서 ‘다치다¹’과 ‘다치다²’가 다의어인지 동음이의어인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몸이나 물건을 건드리다’의 의미가 기술되어 있으나 현대 한국어 화자들은 이런 의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SJ-RIKS>코퍼스³⁾로 그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⁴⁾

그러므로 표준어의 ‘다치다’는 ‘어떤 것의 한 부분이 손상되다’라는 기본 의미로부터 공기는 논항의 특성에 따라 의미가 확장된 다의어로 보아야 한다. 표준어 ‘다치다’는 주로 ‘~이 다치다’의 논항 구조에 쓰이며 결합하는 논항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인다.

(1) 가.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쳤다.

나. 옆집 강아지는 뒷발이 다친 것 같았다.

‘다치다’는 (1)과 같은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다. 예문 중에서 주어는 ‘사람’ 또는 ‘강아지’와 같은 ‘생물’에 속한다. 주어가 ‘생물’인 경우 기본 의미인 ‘살아있는 것이 상처를 입다’의 의미로 쓰인다. 이 경우 ‘다치다’는 자동사로 쓰인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예문을 ‘사고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나 ‘강아지는 뒷발을 다쳤다’와 같이 타동사적 용법으로 바꿔도 문장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상처를 입다’의 의미로 쓰이는 ‘다치다’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될 수 있다.

(2) 가. 체면이 다치다.

나. 분위기가 다치다.

다. 마음이 다치다.

(2)에서 주어는 생물이 아닌 추상물이다. 이때 역시 ‘체면을 다치다’, ‘분위기를 다치다’, ‘마음을 다치다’와 같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상적인 감정 등이 언짢게 되다’의 의미로 쓰인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다치다’가 ‘곤란한 처지에 이르거나 해를 입게 되다’의 의미로도 기술되어 있다. 사전에 기술된 예문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를 볼 때 ‘다치다’는 논항 ‘사람’에만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처지나 입장 등이) 다친다’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때문에 (2)의 의미는 (1)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정책의 실수로 기업의 재정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3)의 경우 ‘재정, 경제’를 나타내는 논항과 결합하였다. 이때 ‘다치다’는 ‘재정이 손상을 입

3) <SJ-RIKS(SeJong-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코퍼스는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세종형태의미 분석 코퍼스>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코퍼스이다. 최초 구축 당시보다 약 250만 어절이 추가되어 약 1,500만 어절에 달하는 형태·의미 분석 코퍼스이다. 비록 원시코퍼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형태·의미적 중의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 놓음으로써 국어학, 언어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4) <SJ-RIKS> 코퍼스에서 ‘몸이나 물건을 건드리다’의 의미로 ‘다치다’가 쓰인 예문은 5건이었는데 모두 1994년에 쓰인 『곤충기』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익을 대로 익어서 싱싱하던 초록색은 다 사라지고, 살짝 다치기만 해도 단물이 터져 나올 듯한 누런 껍질에 싸인 배 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 애벌레는 본래 있던 자리에 두었고, 먹이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두었다.) 이를 통하여 현대 표준어 화자에게 ‘다치다’가 ‘몸이나 물건을 건드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의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문 ‘그 지휘관은 전투를 지휘하면서도 수확을 앞둔 논밭을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문에서의 ‘논밭’과 결합하는 ‘다치다’는 사전적 기술과 같이 ‘논밭이 손상을 입다’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으나, ‘논밭을 건드리다’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듯하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논밭’과 같은 구체물과 ‘다치다’가 결합하는 경우 연변 방언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건드리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반면, ‘다치다’의 ‘건드리다’의 의미가 거의 상실된 표준어에서는 구체물과 결합하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상의 의미 재분석을 통해 ‘다치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표준어 ‘다치다’의 의미

의항번호	뜻풀이	용례
「1」	생물 등이 상처를 입다.	사람이 다치다.
「2」	감정이나 분위기가 언짢게 되다	체면이 다치다.
「3」	재정이 손상을 입다.	재정이 다치다.

요컨대 ‘다치다’는 결합하는 논항의 특성에 따라 그 의미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모두 ‘어떤 것이 손상되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이나 ‘재정, 경제’를 가리키는 단어와 결합하였을 때는 구체물이 손상됨을 의미하는 반면, 추상물을 가리키는 단어와 결합하였을 때에는 손상된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완전하던 것이 부정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2.2. 연변 방언 ‘다치다’의 의미

연변 방언에서 ‘다치다’의 의미는 『조선말사전』과 신문기사나 문학작품 등에 수록된 용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쓰임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말사전』은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사전으로 현재 중국 조선족 어휘를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치다’가 『조선말사전』에 기술된 의미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중국 조선족 신문기사나 문학작품 등에서 실제 용례를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조선말사전』에 기술된 ‘다치다’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표 3] 『조선말사전』의 ‘다치다’

의항번호	뜻풀이	용례
①	대서 건드리다.	손으로 다치다.
②	손해가 되게 건드리거나 손을 대다.	인민해방군은 군중의 실 한오리 바늘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③	몸이 무엇에 부딪치거나 맞거나 놀리거나 하여 상하다.	칼에 손을 다치다.
④	(어떤 일에) 관계하거나 작용을 가하다, 취급하거나 다루다.	이미 다친 일이니 끝을 봐야지.

『조선말사전』에서 ‘다치다’는 네 가지 의미를 갖는 다의어로 기술되어 있다. 『조선말사전』의

「일러두기」를 보면 표제어가 다의어인 경우 기본 의미를 가장 먼저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본 의미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멀어져 소극화되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빈도가 높은 의미를 먼저 기술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다치다①’이 연변 방언에서 기본 의미일 수도 있으며, 설사 기본 의미가 아니더라도 ‘다치다’의 다의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다치다①’은 적합한 용례가 사전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으나 신문기사나 문학작품에서 그 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 가. 코치의 응원덕분인지 머리로도 다치기 어려운 방울높이를 오현정선수가 9회만에 등으로 다쳤다.

나. 그 여인은 지나가는 나의 어깨를 툭 다쳤다.

다. 애순이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물건을 손가락으로 다쳐보았다.

(4)는 『조선말사전』에 기술된 ‘다치다①’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이 경우 ‘다치다’는 주로 ‘A가 B를 다치다’의 논항 구조로 타동사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때 주어 ‘A’는 ‘사람’에 해당하고⁵⁾, 목적어 ‘B’는 사람이나 물체가 모두 가능하다. 이때 ‘다치다’는 표준어에서 쓰이는 의미가 아닌 ‘접촉하여 건드리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때 목적어 ‘B’에 해당하는 물체에 아무런 손상이 가해지지 않으며 원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5) 가. 리사장은 회사의 자금을 다친 혐의로 구속되었다.

나. 또 자기 방에 놓은 과일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5)는 『조선말사전』에 기술된 ‘다치다②’의 의미로 쓰인 예문이다. 이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한 ‘재산, 경제 등이 손해를 입다’의 의미와 비슷한 듯하다. 이때 역시 ‘A가 B를 다치다’의 논항 구조로 타동사로 쓰인다. 연변 방언 ‘다치다①’와 가장 주요한 차이는 ‘다치다②’의 경우 목적어 ‘B’가 주어 ‘A’로 인하여 반드시 그 상태나 모습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5가)의 경우 ‘리사장이 다친 회사 자금’은 원래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자금이 원래 상태에서 변화하였으며, (5나)에서 ‘과일을 다치’면 온전한 하나의 과일이 주어로 인하여 줄어들게 될 것이다.

『조선말사전』의 ‘다치다③’은 표준어 ‘다치다¹⁾’와 의미가 동일하다. 하지만 표준어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의미이지만, 연변 방언에서는 다의 중 세 번째에 기술된 것으로 보아 연변 방언 화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아니다. ‘다치다③’과 같은 경우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A가 (…을) 다치다’와 같은 논항 구조에서 쓰이며 주어에 해당하는 논항은 ‘생물’에 해당하여 그 의미가 ‘생물 등이 상처를 입다’가 된다. 연변 방언에서 ‘다치다’가 ‘상처를 입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낮은 것은 해당 의미에 대해 ‘상(傷)하다’를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6) 가. 그 일은 우리 반공실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으려 했다.

나. 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치지 맙시다.

5) 물론 특수한 문맥에서는 ‘강아지가 뼈다귀를 다치다’와 같이 주어 자리에 ‘동물’이 결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동화나 특수한 문맥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보편적인 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6)은 『조선말사전』에서 ‘다치다④’에 해당하는 예문들이다. 이와 같은 쓰임은 표준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때 ‘다치다’는 ‘사람이 일을 다치다’로 쓰이며 이때 목적어 위치에 올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일이나 임무’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이때 ‘다치다’의 의미는 ‘어떤 일을 관계하거나 다루다’가 된다.

『조선말사전』에는 이와 같은 총 네 가지 의미가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연변 방언의 신문기사나 문학작품을 살펴보았을 때 이외 더욱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7) 가. 환자분, 상처 부위를 자꾸 다치면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나. 발을 만지던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행동을 스스로없이 한다.

(7)의 경우 ‘다치다’가 ‘무엇을 만지다’의 의미로 쓰인 예문이다. 이 경우에는 『조선말사전』에 기술된 ‘접촉하여 건드리다’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조선말사전』에 기술된 의미는 접촉하는 행위가 순간적인 반면 예문에 쓰인 ‘다치다’는 그 접촉하는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것이다.

(8) 가. 박작가는 저에게 이 원고의 본문을 다시 다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계획서의 이 부분은 다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8)에서 ‘다치다’는 주로 ‘문장이나 글’ 등에 해당하는 단어와 결합하는데 이때 ‘글을 수정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이상으로 사전과 용례를 통하여 연변 방언에서 ‘다치다’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재분석한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연변 방언 ‘다치다’의 의미

의항번호	뜻풀이	용례
①	접촉하여 건드리다.	지나가는 행인이 나의 어깨를 다치다.
②	무엇에 손을 대다.	음식을 다치다.
③	생물 등이 상처를 입다.	다리가 다치다
④	어떤 일을 관계하거나 다루다.	일을 다치다.
⑤	무엇을 만지다.	상처를 다치다.
⑥	글을 수정하다.	문장을 다치다.

2.3. 표준어와 연변 방언 ‘다치다’의 의미 비교

앞에서 사전과 구체적인 용례를 통하여 의미 재분석한 표준어와 연변 방언 ‘다치다’의 의미를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표준어와 연변 방언 ‘다치다’의 의미 비교

표준어	연변 방언
	① 접촉하여 건드리다.

	② 무엇에 손을 대다.
「1」 생물 등이 상처를 입다.	③ 생물 등이 상처를 입다.
	④ 어떤 일을 관계하거나 다루다.
	⑤ 무엇을 만지다.
	⑥ 글을 수정하다.
「2」 감정이나 분위기가 언짢게 되다.	
「3」 재정이 손상을 입다.	

[표 5]를 볼 때 표준어 ‘다치다’와 연변 방언 ‘다치다’는 상당한 의미 차이를 보인다. 표준어와 연변 방언 ‘다치다’는 오직 ‘생물 등이 상처를 입다’라는 한 가지 의미에서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의미가 표준어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높은 빈도로 쓰이는 반면(다치다「1」), 연변 방언에서는 기본적이지도 않고 사용빈도도 높지 않다(다치다③). 연변 방언에서는 ‘상처를 입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한자어 ‘상하다’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감정이나 분위기가 언짢게 되다’의 의미에도 ‘다치다’ 대신 ‘상하다’를 사용한다. 따라서 표준어의 ‘다치다「2」’와 같은 의미는 연변 방언 ‘다치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표준어에서도 ‘마음이 상하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어 ‘다치다’와 ‘상하다’가 모두 자연스러운 반면, 연변 방언의 경우 ‘감정이나 분위기’와 같은 주어에 공기할 때는 ‘상하다’가 공기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표준어 ‘다치다’는 ‘상처를 입다’를 기본 의미로 삼아 의미 파생이 이루어진 반면, 연변 방언 ‘다치다’는 ‘건드리다’를 기본 의미로 삼아 의미 파생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연변 방언의 ‘다치다’는 ‘사물’을 ‘접촉하여 건드리다’의 의미에서부터 비가시적인 ‘일’과 같은 추상명사에 대한 ‘어떤 일에 관여하다’로 의미가 파생되었다. 또한 연변 방언의 ‘접촉하여 건드리다’의 의미로부터 일시적인 접촉이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 접촉하는 ‘무엇을 만지다’의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

3. ‘다치다’의 통시적 기원과 다의성

이제까지 논의한 바를 통하여, 공시적으로 두 방언에서 ‘다치다’가 상당히 다른 다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시적 다의성은 ‘다치다’의 기원적 구조와, ‘다치다’가 통시적으로 겪어 온 의미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선행연구 가운데 ‘다치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것을 넘어 기원적 구조나 의미 변화를 자세히 다룬 것은 없었다. 이는 아마도 현대한국어, 특히 표준어에서 ‘다치다’가 단일어로 취급되며 의미 또한 그다지 다양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치다’의 기원적 구조에 대한 단서를 몇몇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이 논의들을 기반으로 ‘다치다’의 기원적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다치다’의 의미가 변화해 온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3.1. ‘다치다’의 기원적 구조

먼저 ‘다치다’의 가장 이른 어형인 ‘다티다’의 기원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자.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다티다’를 언급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9) 가. 다[접근]-+-티[강세]-: 허웅(1975), 송철의 외(2004), 이병기(2008)

나. 닿[觸]-+-티[강세]-: 『표준국어대사전』

다. 닿[觸]-+디[落]-: 『국어 어휘 역사』

이와 같이 ‘다티다’의 구조는 크게 접미파생어로 보는 견해(9가, 나)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견해(9다)가 있다.

접미파생어로 보는 견해는 허웅(1975)가 대표적인데, ‘다-티다(撲)’에 대하여 “밑말 *「다-」는 따로 나타나지 않으나, 「다쫓다, 다잇다, 다왈다, 다든다」 따위에 공통된 「다-」는 ‘접근’의 뜻을 가진 뿌리임을 짐작하게 한다.”(193쪽)라고 하였다. 송철의 외(2004: 161, 335)에서는 기원적으로 ‘다-(觸)’라는 어간에 강제접미사 ‘-티-’가 통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병기(2008: 93)은 강제접미사 ‘-티-’가 통합하는 어기로 ‘다(逼,迫;觸;擊,搏;臨)’를 들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건드리다’의 뜻을 지닌 ‘다치다²’의 선대형 ‘다티다’에 대한 분석으로 ‘닿-+-티-’를 제시하고 있다. 따로 설명은 없으나 동사 어간 ‘닿-’에 강제접미사 ‘-티-’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한 듯하다.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견해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국어 어휘 역사』에 보인다. 『국어 어휘 역사』에서는 ‘다티다’를 ‘닿-디다’로 형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하고, ‘닿-’은 “‘접촉’을 뜻하는 어간”, ‘-디다’는 “앞의 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나타내는 접미적 형태”라고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 견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⁶⁾

이상의 견해에 대하여, 먼저 성조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증해 보자. ‘다쫓다’, ‘다왈다’, ‘다디르/르다’, ‘다잇다’, ‘다든다’, ‘다밀이다’에 나타나는 ‘다-’와 어간 ‘닿-’은 모두 평성이고, 강제접미사 ‘-티-’는 거성이므로 (9가)와 (9나)는 모두 문제가 없다. 그런데 ‘디-’는 약간 다르다. 다음의 예를 보자.

(10) 가. 모든 衆生으로 愛見스 구데 디고[LH](命諸衆生으로 落愛見坑호고) <1464 능엄경언해 6:87ㄱ>

가'. 외오 邪思애 듀미[RH](誤落邪思호미) <1464 능엄경언해 6:70b>

나. 이를 모르면 火宅애 떠디고[HLH](明迷此則墮火宅호고) <1463 법화경언해 4:150a>

나'. 한 念에 붙여 떠듀미[HRH] 다 이 곧 호니라(一念漂墮 | 皆如是也 호니라) <1463 법화경언해 7:52b>

다. 瞋瞋이 셋거 다뎬미[LHH] 서르 거슬뿌메 發 호느니(瞋瞋이 交衝호미 發於相忤호느니) <1464 능엄경언해 8:85a>

‘디-’는 다른 환경에서는 평성이나 거성으로 실현되지만 모음 어미 ‘-오/우-’ 앞에서는 상성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합성동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티-’는 ‘-오/우-’ 앞에서도 제2음절이 거성이다. 따라서 성조의 측면에서 (9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의미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증해 보자. (9가)의 ‘다-+-티-’에서는 ‘다-’의 의미를 ‘다왈다, 다잇다, 다디르다’ 등에 나타나는 ‘다-’와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웅(1975),

6)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어느 쪽 입장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현희(1997: 718)에서는 강제접미사 ‘-티-’가 통합한 파생동사 목록에 ‘다티다(拂, 觸)’가 제시되어 있을 뿐, ‘-티-’에 선행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말 큰사전』에는 ‘다티다’의 참고어로 ‘닿다’가 제시되어 있어 기원적으로 ‘다티다’에 ‘닿-’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으나, 후행하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송철의 외(2005), 김유범(2005)에서는 ‘접근, 觸, 부딪치다’의 의미를 갖는 가상적 어간 “*다-”를 상정한 바 있다. (9나)의 ‘달--+티-’ 또한 가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동사 어간 ‘달-’을 상정한 것만 다를 뿐, 해당 어간이 ‘접근, 觸’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9가)와 동일하다.

한편 (9다)의 ‘달+다-’에 대해 「국어 어휘 역사」에서는 “‘다티다’는 [중략] 현대어의 ‘찢어지다’나 ‘풀어지다’의 ‘지다’와 ‘달-디다’의 ‘디다’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티다’는 ‘달아서 상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런 분석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한국어의 ‘찢어지다’나 ‘풀어지다’에 쓰이는 보조용언 ‘지다’는 어간 바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 지-’의 꼴로 쓰이며 중세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디-’의 꼴로 쓰였다. 그리고 ‘다티다’는 15세기에 ‘달아서 상하다’의 뜻으로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의미의 측면에서도 ‘다티다’를 (9다)와 같이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9가)와 (9나) 중에서는 어떤 것이 더 타당한 분석일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를 갖는 용언 중에는 ‘다-’를 어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다쫓다’, ‘다밀이다’가 그러한 예이다.

(11) 가. 世尊이 聖衆들 드리시고 欲界 色界 두 하늬 스시에 가샤 大集 等 經을 니르디시니 出승호사디 “人間이며 天上이며 一切 모던 귓거시 다 모다 부텃 付囑을 드리 正法을 護持호라. 호다가 아니 오리 잇거든 四天王이 더븐 鐵輪을 놀여 보내야 다조차 자바오라.” 호시니 <1447 석보상절 6:46a>

나. 玉今이논 安陰 사르미라 나히 열닐구베 남지니 죽거늘 식어베이 조차 사더니 제 므술 사르미 길헤 맛보아 어루려 커늘 거스러 좃디 아니터니 그 노미 다조차 무닉 오나날 玉今이 면티 몰홀 주를 알고 목 미야 드라 주그니라(玉今. 安陰人. 年十七. 夫死. 隨舅姑而居. 路遇里人. 欲汚之. 拒不從. 里人逼之至門. 玉今知不免. 縊死) <1514 속삼강행실도 열:25a>

다. 迫 だ조출 박 <1576 신증유합 62a>

라. 촌 어른은 드토와 다미렸고 구루메 썩른 서르 저기 붉눗다(寒氷爭倚薄 雲月遞微明) <1632 두시언해(중간본) 2:20b>

마. 기픈 뵈해 비 해 오모로브터 길헛 므리 서르 다밀엿도다(自多窮岫雨 行潦相逐蹙) <1481 두시언해(초간본) 13:7a>

마'. 기픈 뵈해 비 해 오모로브터 길헤 므리 서르 다밀헛도다(自多窮岫雨 行潦相逐蹙) <1632 두시언해(중간본) 13:7a>

‘다쫓다’의 ‘쫓-’이나, <두시언해>에만 나타나는 ‘다밀이다’(중간본에서는 ‘다미리다, 다밀히다’)의 ‘밀이(미리-/밀히-)-’는 이른바 ‘강세접미사’로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단어에서 어간은 ‘쫓-’, ‘밀이-’이며 ‘다-’는 접두사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⁷⁾

그리고 어간이 아닌 접미사에 초점을 맞추면 ‘-티-’는 ‘더위-티다, 배티-다, 부드-티다’와 같이 모음 어간이나 ‘걸-티다, 덜-티다’와 같이 공명음 어간 뒤에도 오지만, ‘것티다(것--+티-), 굽티다(굽--+티-), 덩티다(덩--+티-), 엽티다(엽--+티-), 젓티다(젓--+티-), 흘티다(흘--+

7) ‘다미리다, 다밀히다’는 『이조어사전』에서 ‘맞부드치다, 합하여지다’, 『우리말 큰사전』에서 ‘밀려 달다’, 『고어사전』에서 ‘다물리다, 마주치다, 맞부딪히다’로 풀이되어 있다. 두시 원문에서 ‘다밀이다’에 해당하는 한자의 의미를 『漢語大詞典』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倚薄: 사방에서 압박하다, 압박하다(交迫; 迫近). 逐蹙: ‘부딪치다’와 같다(猶撞擊).

티-)와 같이 다양한 장애음 말음 어간 뒤에도 결합한다. 따라서 ‘다티다’의 기원적 구성은 ‘다--티-’와 ‘달--티-’ 모두 가능성이 있어서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3.2. ‘다티다’의 다의성

‘다티다’의 뜻풀이가 『이조어사전』과 『우리말 큰사전』에는 ‘다치다, 스치다’로 되어 있고, 『고어사전』에는 ‘스치다, 건드리다, 부딪히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적어도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현대한국어의 ‘다치다’의 의미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의미별로 ‘다티다’의 용례를 정리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3.2.1. 달다, 건드리다, 대다 [觸, 打]

‘다티다’의 구성을 ‘다--티-’로 보든 ‘달--티-’로 보든 그 안에는 [접촉]의 의미를 갖는 어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기원적 구성을 가장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비의도적인 접촉인 ‘달다’의 의미로 쓰인 예들이다.

(12) 가. hing역이 더럽고 사오나온 내에 다티 상호야 7랍고 알커든 벽예산을 스라 쏘이고(痘瘡觸犯穢汚痒痛者 焚辟穢散熏之) <1608 언해두창집요 하:46a>

나. hing역의 부름과 춘 괴운을 삼가 피할 거시니 안밧기 띠드시 열호야 털굼기 마 열려서 감습호야 들기 쉬우니 훈 번이나 다티 상호미 이시면 모든 증이 밋바다 되느니라(痘瘡當謹避風寒 蓋內外熱蒸毛孔俱開易於感襲 一有觸冒諸證隨作) <1608 언해두창집요 하:39a>

다. 만일에 밋스럽고 든든호여 죽방을 꺾호여 손에 닷티는 거시 곳 밋친 쏘이니 쥐믈러 그 쏘을 파호면 즉시 효험 보리라(如遇滑硬如毬호야 打手者이 卽是結糞이니 掘破其糞호면 便時見效라) <16xx 마경초집언해 하:91a>

(12가)는 천연두 자리가 더럽고 나쁜 기운에 닿아서 상하여 가렵고 아프면 약을 태워서 그 연기를 쏘이라는 처방이다. (12나)는 천연두에 걸리면 바람과 찬기운을 피해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바람과 찬기운에) 닿아서 상하면 모든 증세가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다. 『언해두창집요』에서는 이처럼 ‘(나쁜 기운에) 달다’라는 맥락에서 ‘다티다’가 쓰인다.⁸⁾ (12다)는 말이 배가 부어 아플 때, 기름을 손에 발라 손을 대장 속에 넣어 더듬어서 단단한 똥이 손에 닿으면 깨뜨려야 한다는 처방이다.⁹⁾

한편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드리다, 만지다’와 ‘대다’의 예는 상당히 많은데, 먼저 일시적인 의도적 접촉인 ‘건드리다, 만지다’의 의미로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13) 가. 바궤 뭉겨리 頗梨山을 다티듯 호니라(如大海波浪觸頗梨山) <1459 월인석보 4:22a>

8) 정호완 역주(2009)에서는 ‘다티다’에 해당하는 원문이 ‘觸(犯·冒)’인데도 ‘스치다’, ‘만나다’, ‘다치다’, ‘(냄새를) 맡다’ 등으로 일관성 없이 번역하였다. 한편 안상우·권오민 역주(2011)에서는 ‘觸犯’을 ‘촉범하다’로 번역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접촉하다’로 번역하여 ‘달다’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9) 김문웅 역주(2016하: 186)에서는 ‘달이다’로 번역하고 주석에 “닷티는: 달이는(피동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대한국어에서 ‘달이다’는 ‘달다’의 방언형이며, 자동사인 ‘달다’를 굳이 피동형으로 쓸 필요가 없으므로 이 설명은 문제가 있다.

- 나. 헝다가 7독디 아니홍딘댄 네 머리 다뵈 제 當헝야 쏘 바를 다터든 머리는 아로미
 잇고 바른 받든기 아로미 업스리어늘(若不徧者닌댄 當汝觸頭헝야 亦觸其足헝야든
 頭有所覺헝고 足應無知헝리어늘) <1461 능엄경언해 1:68a>
- 다. 사리 뼈에 마자 뼈 헝야디닌 모로매 살미틀 내오 쏘 붓어딘 뼈를 아소디 다 헝야사
 藥을 브토리니 그리 아니헝닌 헝 디 오래 암7디 아니헝며 비록 암7라도 상네 알
 꾀다가 헝다가 다시 다터 헝야디면 곧 놀란 피 솟고와 떠디여 즉재 죽느니라(夫箭
 中於骨骨破者 須出箭鏃 仍應除碎骨盡乃傳藥 不爾者瘡未不合 縱合常有疼痛 若更犯
 觸損傷 便驚血沸潰卽死也) <1466 구급방언해 하:1b>
- 라. 헝룻 아츠미 브툼과 幡괘 뭇디 아니헝는 機로 印宗 正眼을 다터 여르시니(一攄에
 以非風幡動之機로 觸開印宗正眼헝니) <1496 육조법보단경언해 상:4b>
- 마. 두려온 거슨 다티면 무여 나 전혀 머믈추미 업논 디(團圓之物는 動著卽運헝야 了無
 留滯흔디) <1548 십현담요해 42b>
- 바. 觸 다틸 촉 <1576 신증유합 34b>

(13가)는 우바국다(優婆鞠多) 존자가 마왕에게 하는 말로, 부처님의 제자와 싸우는 것은 마치 바다의 물결이 높이가 20유순이나 되는 바리산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13나)는 몸이 하나의 체(體)가 아니라면 머리를 만지면서 발도 만질 때 머리를 만지는 것을 안다면 발을 만지는 것은 몰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13다)는 화살이 뼈에 맞은 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다시 건드려서 상하면 금방 죽는다는 내용이다. (13라)는 육조대사가 비유를 통하여 하루아침에 인종(印宗)의 정안(正眼)을 만져 열었다는 내용이다. (13마)는 둥근 것은 건드리면 움직여서 전혀 머뭇거림이 없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일정 시간 동안의 의도적 접촉인 ‘대다’의 의미로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 (14) 가. 똥의 벼섯 피를 이베 찻들여 목 안해 들에 헝고 그 똥을 빠 헤터 가슴애 다터 똥다
 가 찻거든 깊 7새 브리라 오계들기면 도헝나라(割雞冠血【똥의 벼섯 피】以瀝口中令
 入咽內 仍破此鷄以搗心下冷乃棄之於道邊得烏鷄可矣) <1489 구급간이방 1:56a>
- 나. 劉氏 璋이 굴오디 劉儀애 某는 叩頭流血言이라 헝니 按호니 稽顙헝 後의 拜흙은
 머리로써 짜히 다티믈 굴온 稽顙이니 <1632 가례언해 9:42a>

(14가)는 닭을 목을 따고 배를 갈라 (병자의) 가슴에 대어 두고 있다가 차가워지면 길가에 버리라는 처방이다. (14나)는 부모상을 위문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쓰는 편지의 답장 앞부분으로, ‘계상(稽顙)’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머리로 땅에 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¹⁰⁾

그리고 18세기 이후로 보이는 ‘건드리다’의 의미를 갖는 ‘다티다’의 예는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어, [금지]의 ‘말다’와 호응하거나 ‘-르세라’와 결합하는 흥미로운 특징을 보인다.

- (15) 가. 괴명을 닳쳐 씨이지 말며 <1796 경신록언석 73a>
- 나. 그 고동을 쯔시 보고쥔 헝야 손으로 쯔간 달흔디 포우관이 놀나며 다치지 말나 헝
 니 괴식이 극히 용속헝더라 <을병연행록 12:7b>¹¹⁾

10) 한재영 역주(2015: 107)에서는 “머리로써 짜히 다티믈”을 “머리로써 땅에 슨침을”이라고 번역하였으나, ‘계상(稽顙)’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이므로 ‘스치다’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다.

11) <을병연행록>의 내용은 1765~1766년의 사행(使行)을 기록한 것이나, 현재 남아 있는 2종의 필사본

다. 洛陽 얏튼 물에 蓮 키는 兒孺들아 / 잔 蓮 키다가 굶은 蓮넙 닷칠세라 / 蓮넙헤
깃드린 鴛鴦이 선즙 씨와 놀나리라 <1876 가곡원류 60>

(15가)는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을 건드려 깨뜨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다. (15나)는 회중시계를 자세히 보고 싶어 손으로 잠깐 다루었더니 주인이 놀라며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다. (15다)는 잔 연을 깨다가 굶은 연잎을 건드려서 원앙이 놀랄까 걱정하는 내용이다.

3.2.2. 부딪히다, 부딪치다 [擊, 打, 撲, 撞, 着, 磕]

중세한국어부터 근세한국어 시기까지 가장 빈번하게 쓰인 ‘다티다’의 의미는 ‘부딪히다, 부딪치다’이다. 먼저 어떤 대상에 부딪히거나 부딪치는 것과 관련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6) 가. 目連이 윈 바를 門 안해 드리드시오 올흔 바른 門 밧긔 이셔 설벽 우름 소리를 듣고 제 머리를 기도애 だ터 피와 슬괘 너르 든더니(連左脚在門梟內 右脚在門梟外 聞叫苦痛之聲 將頭臙柱 血肉狼籍) <1459 월인석보 23:87b>
- 나. 물 타 忽然히 저믄 甞 이룰 스랑하야 물 발 흐러 瞿塘엿 돌흘 소사디게 호라(騎馬 忽憶少年時 散蹄迸落瞿塘石) 【이는 저믄 젓 물 들요물 스랑하야 오늘 쏘 들여 瞿塘 스 돌흐로 물 바래 だ터 뵈여 디게 흘시라】 <1481 두시언해(초간본) 3:51b-52a>
- 다. 담이 혈긔와 서르 だ터 머리며 눈이 아득하야 어즐코(則飲與血搏 頭目昏眩) <1608 언해태산집요 12b>
- 라. 잇솔면 어즈러이 돌아 불롬벽의도 だ티며 담의도 달리느니(擗行亂走하야 撞壁衝牆 하느니) <16xx 마경초집언해 상:96a>

(16가)는 목련(目連)이 자기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는 장면이다. (16나)는 젊었을 때 말 달리던 것을 생각하여 돌이 말발굽에 부딪혀 튀게 했다는 것이다. (16다)는 임신한 부인이 평소에 담음(痰飲)이 있으면 담음과 혈이 서로 부딪쳐 머리와 눈이 어지럽다는 내용이다. (16라)는 내장안(內障眼)에 걸린 말의 눈동자를 가리고 끌면 어지럽게 달려 벽에도 부딪히고 담에도 충돌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특정한 대상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부딪힘을 가리키는 ‘다티다’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7) 가. 다틸 씨 擊이오 <1463 법화경언해 1:58a>
- 나. 撞 다틸 당 <1576 신증유합 47a>
- 다. だ티거나 업더디거나 하야 헌디(九 打撲傷損) <1489 구급간이방 1:5b>
- 라. 노푼 디셔 느려디니와 だ티니와 업더디거나 하니란(登高墜下打撲傷損) <1497 신선태을자금단 14b>
- 마. 대더흔 디 흥역이 상한과 서르 7특니 시작하야 발흘 저긔 풍이어나 상한이어나 인 하야셔 어드리도 이시며 시긔병 던염을 인하야셔 어드리도 이시며 음식에 상하야 뵈 념 하며 토호물 인하야셔 어드리도 이시며 그릇 드되며 だ티며 놀라며 노호물

가운데 필사기가 있는 이본에는 1829~1831년에 필사했다고 되어 있다(홍은진 2001: 2-8). 따라서 18세기 자료로 취급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인허야 피 얼의여서 어드리도 이시며(大抵瘡疹與傷寒相類 始發之時 有因傷風傷寒而得者 有因時氣傳染而得者 有因傷食嘔吐而得者 有因跌撲驚怒蓄血而得者) <1517 창진방찰요 8a>

마지막으로 (16, 17)과 같은 ‘부딪히다’의 의미이기는 하나 번역할 때 한문 원문을 주의해야 할 예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18) 가. 쏘 다터 구무 지서 피 나릴 고틸디 스뭇 불근 슷브를 지 업게 불오 브를 가져 乳鉢 안해 소곰 훈 저부물 녀허 썰리 ㄱ라 ㄱ르 밍ㄱ라 瘡口스 가온디 ㄱ드기 멧구 고 김씩로 스외 미야 녹디 아니케 ㅎ면 피 즉재 그츠며 알포미 그츠며 곱디 아니 ㅎ며 물도 아니 나리라(又方治癩瘡作孔出血者 用通紅炭火吹去灰 帶火乳鉢內入鹽一撮 急研成細末 塞瘡口中令滿 以絹帶子緊縛定不可寬 血當立止 痛定不作膿 亦無水出) <1466 구급방언해 하:35a>

나. ㄱㅁ타 무릅 썬 ㅅㅅ 다터 브으며 밧 ㅅㅅ 상ㅎ여 절어 알쑤 디를 고틸노니(治閃着夾膝骨이 腫及骨傷跛痛ㅎ노니) <16xx 마경초집언해 상:61a>

다. 네 보라 내 이 가싯 頂子 | 당방 문에 다터 반편이 떠러디고 빗치 다 업서시니 네 임의셔 날을 빗 아사 주고려(你看我這帽頂子, 帳房門上磕着, 塌了半邊, 顏色也都消了, 你就饋我掠飭) <1677 박통사언해 하29b>

라. 몸으로써 物에 나아감을 닐온 磕이니 비록 다터시나 까여딘 곳이 업고 그 흔적이 모나거나 둥굴고(諸以身就物을 謂之磕 | 니 雖着어나 無破處ㅎ고 其痕이 方圓ㅎ고) <1796 증수무원록언해 3:17b-18a>

(18라)에 ‘몸으로써 물건에 나아감’, 즉 물건으로 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물건에 부딪히는 것을 ‘합(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18가)의 ‘다터 구무 지서 피 나릴 고틸디’는 원문의 ‘癩瘡’를 고려하면 ‘부딪혀 구멍이 생겨 피 나는 것을 고치되’로 번역해야 한다.¹²⁾ 그리고 (18라)의 ‘다티다’가 ‘着’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착(着)’에는 ‘부딪히다’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18나)의 ‘ㄱㅁ타 무릅 썬 ㅅㅅ 다터 브으며’는 ‘발을 빼어 무릎 낀 ㅅㅅ[협슬골]이 부딪혀 부으며 …’로 번역해야 한다.¹³⁾ (18다)는 갖에 달려 있는 장식이 천막 문에 부딪혀서 반쪽이 떨어지고 빗갈도 흐려졌다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다터’는 한문 원문의 ‘磕着’에 대응하므로 ‘부딪히다’의 뜻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헌자료상으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꾸준히 ‘부딪히다, 부딪치다’의 의미로 쓰인 ‘다티다’의 예가 보인다.

3.2.3. 스치다, 문지르다

중세한국어와 근세한국어에서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다티다’의 의미는 ‘닿다’, ‘건드리다’를 넘어 일정 시간 동안 접촉 및 마찰이 유지되거나 유지하는 ‘스치다’, ‘문지르다’의 의미

12) 따라서 김문웅 역주(2004하: 82)에서는 “다터”를 ‘다쳐서’로 언해하고, 주석에서 “다티-[傷]+-어(연결어미). 다쳐.”라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13) 따라서 김문웅 역주(2016상: 144)에서 “다터”를 ‘다쳐’로 언해하고, 주석에서 “다티-[傷]+-어(연결어미). 다쳐서.”라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마경초집언해>에서 ‘着’이 ‘부딪히다’의 뜻으로 쓰여 ‘다터’로 언해되는 예는 세 번 나오는데, 김문웅 역주(2016상)에서는 모두 ‘다치다’로 현대역하였다.

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9) 가. 忽然히 넷 노푼 이바디를 스랑호니 블근 소매 거문고애 다티더니라(忽思高宴會 朱袖拂雲和) <1481 두시언해 10:4a>
- 나. 스랑호니 네 新豊宮의 巡幸호실 제 翠華 | 하늘해 다터 東녀그로서 向호야 오더 나라(憶昔巡幸新豊宮 翠華拂天來向東) <1481 두시언해 16:39b>
- 다. 새 소음으로써 빠 우희 다터 쓰스라(用新綿호야 于骨上拂拭호라) <1796 증수무원 록언해 1:51a>

(19가, 나)는 한문 원문의 ‘拂’의 언해로 ‘다티다’를 사용하였다. (19가)는 소매가 거문고를 스치는 모습을, (19나)는 ‘취화(翠華)’, 즉 물총새의 깃털로 장식한 화려한 깃발이 높이 솟아 하늘을 스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한편 (19다)는 빠를 검험(檢驗)할 때 먹을 빠에 바르고 닦아낼 때 새 솜으로 빠 위에 문질러서 닦아내라는 것이다.¹⁴⁾

3.2.4. 다치다

‘다티다’가 현대한국어와 같은 ‘신체에 상처를 입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17세기부터이다.

- (20) 가. 니참의와 다엿 잔식 잡습고 그날 밤의 뒤 보라 나시다가 마로의 닳려더 낙상도 호시고 상히 다티시고 <1636 병자일기 246>
- 나. 니인이 신을 거시 업서 발 벗고 돈니다가 혹 다터 울 적이면 니관 보니여 무스 일우는다 못거늘 발 알파 운다 호니 쯤 와 닐오디 우디 말나 울면 죽이리라 호더라 <16xx 서궁일기 상:68b>
- 다. 혹 술위 7으로 곱가이 가면 갑군을 불너 금호라 호니 혹 다칠가 녀네호미러라 <을병연행록 5:37a>
- 라. 니도령이 울며 디답호되 썩러졌다 썩러졌다 춘향이 호는 말이 낙성을 호엿단 말이 오 그라쳐 디단이나 닷치지 아니호엿소 님 아들 놈이 썩러졌다 호더냐 <1840 춘향전 16b>

(20가)는 마루에서 떨어져 낙상도 하고 크게 다쳤다는 뜻이고, (20나)는 나인이 신발 없이 다니다가 발을 다쳐서 울면 내관이 울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20다)는 수레 가까이 가면 다칠까 염려하여 금한다는 뜻이고, (20라)는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는 이도령의 거짓말을 듣고 춘향이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내용이다. 모두 한문 원문은 없으나 의미상 충분히 현대국어의 ‘다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올 자리이므로 이 시기부터 ‘다티다’가 ‘상처를 입다’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글 자료가 아닌 언해 자료에서 ‘다치다’가 ‘상처를 입다’의 의미로 쓰인 예는 18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14) 송철의 외(2004: 160, 161)에서는 ‘다터’를 ‘대어’로 해석하였으나, 한문 원문에서 ‘拂’의 의미는 단순한 접촉을 의미하는 ‘대다’로는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불식(拂拭)’ 자체에 ‘털어내다, 문질러 닦아내다(搨拂: 揩擦)’(『漢語大詞典』)의 의미가 있으므로 ‘문지르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 (21) 가. 아오의 처는 손에 다칠 배 이실가 저허 뜻이 심히 처창허거놀(弟婦恐有所傷於手而情甚淒愴) <1758 종덕신편언해 하:34a-34b>
 나. 傷靑 다쳐 푸르다 <1748 동문유해 하:8b>
 다. 傷靑 다쳐 푸르다 靑腫 <1775 역어유해 보:35a>
 라. 傷靑 다쳐 푸르다 <1778 방언유석 3:5a>
 마. 靑傷 다쳐 푸르다 <1790 몽어유해 보:24a>
 바. 傷 다치다 <18c후기 한청문감 08:14a>
 사. 傷口 다친 디 <18c후기 한청문감 08:14a>
 아. 靑傷 다쳐 푸르다 <18c후기 한청문감 08:14b>
 자. 札瞎了 다쳐 눈 머다 <18c후기 한청문감 08:15ab>

(21가)는 한문 원문의 ‘傷’이 ‘다치다’로 연해되어 있다. (21나-자)의 유해류 역학서의 예들에서도 대체로 ‘傷’이 ‘다치다’에 대응하고 있어 이 시기에는 ‘다치다’의 의미가 현대한국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인 ‘신체에 상처를 입다’에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는 프랑스인과 영국인 등 외국인이 편찬한 사전이 간행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전들의 기술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22) 가. 닳치다 [輕打] être contusionné, un peu blessé comme par une chute, un choc ((추락이나 충격 같은 것에 의해) 타박상을 입다, 약간 상처 입다) <1880 한불사전 463>
 나. 닳치오 傷. To be bruised, hurt. <1890 언더우드 한영사전 146>
 다. 닳치다 [傷] 1. To strike against 2. to run against 3. to be hurt by 4. to be wounded by. <1897 한영사전>

(22가-다) 모두 ‘다치다’의 의미로 ‘멍들다, 상처 입다’를 기술하고는 있으나, (22가)는 ‘추락이나 충격 같은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서 ‘부딪혀서 상처를 입다’의 의미가 강함을 보여준다. 또한 (22다)는 ‘~에 부딪치다’를 1번 의미로 두고 있어 이때까지도 ‘다치다’가 의미 확장 과정에서 ‘부딪히다’라는 [원인] 사태의 의미와의 관련성을 잃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다치다’의 의미 변화 양상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다티다’의 의미 변화 과정과, 현대한국어에서 ‘다치다’가 보이는 공시적 의미 차이를 서로 연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한국어에서 ‘다치다’의 의미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여 현재와 같은 다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의 ‘다티다’에는 ‘달다, 부딪히다, 스치다’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한국어와 같이 ‘신체가 상처를 입다’라는 의미로 ‘다티다’가 쓰인 예는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티다’가 ‘부딪히다’라는 [원인]의 의미만을 나타내다가 ‘상처를 입다’라는 [결과]의 의미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인접성]에 기반한 의미의 환유적 확장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교량이 된 것은 ‘부딪혀서 상처를 입다’라는 맥락이다. 앞서 3.2.4절의 (22)에

서 보았듯이, 서양인이 편찬한 한국어 사전에는 ‘다치다’에 ‘부딪히다’와 ‘다치다’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20세기 전반기로 들어가면 부딪혀서 상처를 입는 맥락이 아니어도 ‘다치다’가 쓰이는 예가 등장한다.

- (23) 가. 잠이 곤히 드렀다가 불에 닳치지는 안이 헛얏나 여러 가지 녀녀와 근심이 더욱 그 마음을 어즈럽게 훈다 <1917 눈물(下)(이상협) 126>
나. 연우는 두 팔을 거두고 친히 고기를 써어다가 칼에 손이 다치여 피가 흘렀다. <1935 조선사상위인열전(김원근) 149>

20세기 전반기 코퍼스¹⁵⁾를 검색해 보면 ‘다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총 236회 나타난다. 의미별로 나눠 보면 ‘상처를 입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 218회(92.4%)이고 이 가운데 ‘큰코다치다’가 25회 사용되었다. 한편 ‘건드리다’의 의미로 쓰인 것은 18회(7.6%)밖에 되지 않는데 이 가운데 ‘내 배 다치라’가 6회 사용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 ‘다치다’의 쓰임은 ‘상처를 입다’의 의미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처를 입다’의 의미가 ‘다치다’의 주요 의미로 변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는 대상이 신체를 넘어 ‘마음이나 체면, 명예’, ‘재산’으로까지 넓어지게 되었다. 20세기 전반기의 문헌에서도 (24가)와 같은 예가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한국어에도 단어로 남아 있는 (24나-라)의 ‘큰코다치다’도 흥미롭다. ‘큰코’는 봉변이나 무안을 당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결국 비유적으로 ‘마음이나 체면, 명예’를 상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유사성]에 기반한 은유적 확장으로 생각된다.

- (24) 가. 신부인 「그 녀귀의 외습촌을 거러서 지판소에 고소를 헛시오」 노파 「그리^헛면 나 짜지 닳치지 안을싸요」 <1914 금강문(최찬식) 087>
나. 다 밝은 오늘날에 새삼스러히 저의 體面을 깎고 남의 感情을 다치고 兼하여 良心과 眞理의 罪人이 되어가면서 못 가져갈 것을 억지로 가져가리라 함은 想像도 하고 싶지 아니하다 <1925 동아일보 11.25.>
나. (최씨) 셋불니 헛다가는 큰코다치다 아라차려히라 나는 꼭 너만 밋는다 <1913 금국화(上) 28>
다. 그러면 무엇하나. 잘못 덤비다가는 큰코다치지. <1922 환희(나도향) 145>
라. 이 강제 판매에 응치 않았다가는 큰코를 다치므로, 한번 서원이 겨는 이상에는 피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1933운현궁의봄(김동인),292>

한편 ‘건드리다, 부딪히다’의 의미로 ‘다치다’가 쓰인 예는 매우 적는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의미로 ‘다치다’를 사용한 저자들의 고향이 대체로 북부 지역이라는 점이다. 아래는 20세기 전반기에 ‘건드리다’의 의미로 사용된 ‘다치다’의 예이다

- (25) 가. 데십륙도 본 법에 다치는 법은 폐지^{헛고}(第十六條 本法에 抵觸되는 法令은 廢止^함) <1906경향보감,1,332>
나. 「鳳仙」 英語로도 俗名이 터치미나 (나를 다치지마라) 이 꽃과 같이 聯想되는 것은

15) 흥윤표(2012)의 부록 CD에 수록되어 있는 ‘20세기전체(전반).2b’ 파일로, 20세기 전반기의 신문·잡지·소설 등이 수록되어 있는 코퍼스(약 670만 어절 규모)이다.

- 勿忘草 (포켓르미닛) (나를 잊지마라)입니다. <192X 조광, 나와 鳳仙花(이일) 184>
다. 내가 안 보았으면 모르지만 내가 본 다음에야 이 앞으론 이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할 터이다. <1938 무영탑(현진건) 270>
라. 그러나 노래를 가르키는 先生만은 生徒들에 손끝 하나 다치기를 꺼려하였다.
<1940 낙조(김사랑) 110>
마. 글 쓰는데 어깨만 두서너 번 몰르고 다쳐도 저리 가라고 목자를 부라린다. <1942
탑(한설야) 88>
바. 어떤 놈이고간에 나를 다칠테면 어디다쳐보라는듯, 썰죽한 두눈이 침대전에 걸터 앉
아버린"강명옥"(康明玉)여사의 얼굴만뚫어지게 쏘아 본다. <1957 경향신문, 薔薇의
寢室(김광주) 9.23.>
사. 어림없지, 키스라니, 손가락 하나 다치게 못할걸. <1959 낙서족(손창섭)>

그리고 ‘다치다’가 ‘건드리다’ 이외에 ‘부딪히다’, ‘닿다’의 의미로 쓰인 예도 드물게 보인다.

- (26) 가. 두 사람이 지나가다 던기환의 집고 가던 집행이가 판정의 팔에 닿치때 판정은 성
을 내어가지고 왜 남의팔을다치느냐하면서 싸움이시작되야 <1920 동아일보 6.27.>
나. 나는享受와 아울러 純粹에의 志向을몇번 말한일이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만 狹小
한 탈안에 몰아너으며 外氣에는 다치지안키로하는것이아니다. <1939 동아일보, 批
評의 現代的方法(한식) 9.3.>
다. 너의周圍는 모도다 無限이다 / 작은 나라를 펴서 그입술로 / 이 無限을 단치라 /
피가 나거든 한방울 나도 다오 <1940 동아일보, 雪梅·黃鳥(김광섭) 1.3.>

위의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상북도 대구 출신인 현진건(1900~1943)과 경기도 수원 출
신인 김광주(1910~1973)를 제외하면 모두 북부 지역 출신이다. 이일(1892~?)은 평안북도, 김
사랑(1914~1960), 손창섭(1922~2010)은 평안남도 평양 출신이다. 김광섭(1905~1977)은 함경
북도 경성, 한설야(1900~1976)와 한식(1907~?)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다.

이처럼 분명한 자료상의 편향을 고려하면, 20세기 전반기에 ‘상처를 입다’의 의미가 일반화
되어 있던 남부 지역과 다르게 북부 지역에는 ‘다치다’에 ‘건드리다’의 의미가 강하게 남아 있
었던 듯하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어 자료>에서 ‘건드리다’의 의미로 ‘건드리다’ 계
열이 아닌 ‘다치다’ 계열을 사용하는 방언은 평안도(다티다)와 함경도(드티다)밖에 없다는 점도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함경도 방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연변 방언에서 ‘다치다’는
‘신체가 상처를 입다’라는 의미보다는 ‘건드리다’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3.2.1절의 (15)에서 18세기 이후 ‘건드리다’의 의미로 쓰인 ‘다치다’에는 부정적인 함
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20세기 전반기 자료에서도 ‘다치지 말다, 다치지 못하게 하다, 다치
기를 꺼려하다, 다치게 못하다’ 등 주로 부정 서술어와 공기하는 것을 (25)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2.2절에서 논의한 현대 연변 방언 ‘다치다’의 의미 가운데 ‘손해가 되게 건드리거
나 손을 대다’에서도 ‘다치다’의 부정적인 함의가 간취되는데, 이 또한 18세기 이후 ‘건드리
다’의 의미로 쓰인 ‘다치다’가 겪은 통시적인 의미 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변 방언에서 ‘다치다’는 사물을 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관계하거나 다
루다’, ‘글을 수정하다’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러한 용법은 ‘건드리다’가 구체물뿐만 아니라

추상물까지 논항으로 포괄하게 되면서 ‘손대다, 만지다’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유사성]에 기반한 은유적 확장으로 생각된다.

한편 ‘건드리다’라는 의미로 쓰인 ‘다치다’의 예로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느냐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에 하는 말’인 ‘내 배 다치랴’, ‘장비야 내 배 다칠랴’ 또한 흥미로운 표현이다.

- (27) 가. 열손가락에 물을 툭툭 튀기며 쪼쪼손손이 스시장철 니호강이야 엇의가랴 장비야 니
비 닳치지마라 호고 이세상이 나하나를 위하야 싱겨거니 <1911 모란병(이해조) 1>
나. 전골 국물에다 밥을 말면서도 계속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식은 죽 마시듯 하
고 나서 ‘장비야, 내 배 다칠랴.’ 한다는 격으로 배를 안고 기대어 앉은 것을 보고
계속은, 「참 엄청나군요..」 하고 혀를 내둘렀다. <1933 영원의미소(심훈) 133>
다. 누가 내 배를 감히 다치랴 했다. 등 뒤에는 누이 되는 원나라 기황후가 있고, 생질
되는 원나라 황태자가 있다. <1940 다정불심(박종화) 35>
라. 기운만 소처럼 세었다 뿐이지 어떤 편이냐면 소명치가 못한 돌이는 속으로는 겁을
집어 먹으면서도 설마 내 배 다치랴 하는 뱃심이었다. <1950 농민(이무영) 16>

(27가-라)의 작가들은 모두 경기도(이해조), 서울(심훈·박종화), 충청도(이무영)와 같이 남부 지역 출신들이다. 따라서 ‘내 배 다치랴’라는 관용구의 ‘다치다’에 남아 있는 ‘건드리다’의 의미는 과거에 ‘건드리다’의 의미가 우세했던 시기의 화석과도 같아서, 당시 남부 방언에서 미약했던 ‘건드리다’의 의미를 활성화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현대한국어 ‘다치다’의 의미가 표준어와 연변 방언에서 공시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다치다’의 선대형인 ‘다티다’의 기원적 구조와 통시적 의미 변화를 살펴보았다.

현대한국어에서 표준어의 ‘다치다’는 ‘생물 등이 상처를 입다’라는 의미가 쓰임이 가장 빈번한 반면, 연변 방언에서는 ‘접촉하여 건드리다’라는 의미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다. 따라서 표준어의 ‘다치다’는 ‘생물 등이 상처를 입다’의 의미에서 주어가 ‘생물’에 해당하던 것으로부터 주어가 ‘재정’ 등 비가시적인 경제적 명사거나, ‘감정이거나 분위기’ 등 추상명사일 경우에도 결합하여 ‘재정이 손상을 입다’ 혹은 ‘감정이나 분위기가 언짢게 되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연변 방언의 경우 표준어와는 달리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접촉하여 건드리다’의 의미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접촉하거나 마찰하는 의미를 지닌 ‘무엇을 만지다’의 의미로 확장이 일어났다. 나아가 사물을 접촉하거나 만지는 의미로부터 추상적인 ‘일’이나 ‘글, 문장’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까지 의미 확장이 일어나 ‘어떤 일을 관계하거나 다루다’ 혹은 ‘글을 수정하다’라는 의미도 나타내게 되었다.

이처럼 ‘다치다’의 의미가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통시적 의미 변화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밝힐 수 있었다. ‘다치다’는 15세기에 ‘*다--티-’ 또는 ‘*달--티-’의 구성에서 유래한 ‘다티다’의 형태로 나타나며 ‘달다, 부딪히다, 스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현대 표준어의 ‘다치다’에서 보이는 ‘신체에 상처를 입다’의 의미는 17세기에 가서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과 관계에서 [원인](부딪히다)을 나타내던 것이 [인접성]에 기반하여 환유적으로 [결과](상처를 입다)의 의미도 나타내도록 확장된 것이다.

본래 선대형인 ‘다티다’가 지니고 있던 이러한 다의 관계는 현대 표준어의 ‘다치다’에서 상당히 축소되어 거의 ‘신체에 상처를 입다’의 의미로만 쓰이게 되었다. 한편 ‘다치다’의 논항이 되는 대상은 신체 이외의 명사로도 확장되어 ‘감정·분위기’나 ‘재산’ 등에도 쓰일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연변 방언의 ‘다치다’는 ‘다티다’의 통시적 다의성을 대부분 수용하여 이어져 왔다. 특히 ‘상처를 입다’의 의미 이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건드리다’의 의미로 쓰이던 ‘다치다’가 18세기부터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 경향을 따라, 현대 연변 방언에서도 구체물과 관련된 ‘따치다’는 부정 서술어와 공기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나아가 연변 방언에서는 ‘다티다’의 ‘건드리다, 부딪히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하여 ‘어떤 일에 관계하거나 작용을 가하다’라는 뜻으로까지 환유에 기반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하여, 통시적으로 동일한 구성에서 출발한 단어가 공시적으로 방언에 따라 상이한 의미의 축소·확장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치다’의 사례는 어휘사 연구에 몇 가지 시사를 던져 준다. 먼저, 어휘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의 변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음으로, 한 단어가 겪은 통시적인 의미 변화를 연구할 때에는 공시적인 지리적 다양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2009). 『한국어대사전』. 서울: 창작마을.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강성일(1972). 「中世國語造語論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기주연(1991). 「近代國語의 派生語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문웅 역주(2004). 『역주 구급방언해』(상·하).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문웅 역주(2016). 『역주 마경초집언해』(상·하).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유범(2005). 「중세국어 ‘-환-/~왈(월)-’의 형태론과 음운론」.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25-65.
- 박진호(2016). 「환유 개념의 통사적 적용」.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81-396.
- 송지혜(2011). 「‘시원하다’의 통시적 의미 변화 양상 연구」.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37-56.
- 송철의·이현희·장윤희·황문환 역주(2004).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안상우·권호민(2011). 『국역 언해두창집요』. 서울: 보건복지부.
- 연변인민출판사(1983). 『조선말사전』. 연변인민출판사.
- 윤평현(2016). 『국어의미론 강의』. 서울: 역락.
- 이병기(2008). 「중세 국어 ‘강세접미사’와 ‘보조용언’의 상관성」. 『국어학』 53. 국어학회. 87-111.
- 이정택(2001). 「‘-지(디)-’의 통시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학』 38. 국어학회. 117-134.
- 이현희(1997). 「중세국어의 강세접미사에 대한 일고찰」. 『韓國語文學論考』. 서울: 태학사. 707-724.
- 임지룡(2018). 『한국어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 장윤희(2002). 「國語 動詞史의 諸問題」. 『한국어 의미학』 10. 한국어의미학회. 97-141.
- 장윤희(2018). 「中世韓國語 ‘-츠-’ 部類 強勢接尾辭 派生の 形態論」. 『어문연구』 179.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35-59.
- 정호완 역주(2009). 『역주 언해두창집요』.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조성금(2015). 「후기 근대한국어 접미파생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재영 역주(2015). 『역주 가례언해』(권9·10).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서울: 샘 문화사.
- 홍윤표(2012). 『국어 정보학』. 파주: 태학사.
- 홍은진(2001). 「한글 필사본 을병연행록의 동사구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다치다”의 공시적 다의성과 통시적 의미 변화”에 대한 토론문

송지혜(금오공과대학교)

허인영·전은경 선생님의 발표는 ‘다치다’의 의미를 연변 방언과 비교하며 공시적 다의성을 검토하고, 통시적으로 그 의미가 변화한 과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짧은 언급만 있을 뿐 ‘다치다’를 깊이 있게 다룬 적은 없었기에 이 발표의 주제는 연구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 읽으며 떠오른 질문 몇 가지를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1. 이 발표문은 ‘다티다’를 허웅(1975), 송철의 외(2004) 등에서와 같이 ‘*다[접근]--+티[강세]-’로 분석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달[觸]--+티[강세]-’로 분석할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발표에서는 ‘다티다’의 ‘티’를 강제접미사로만 보고 있습니다.

‘다티다’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고, ‘티’를 동사 ‘티-’로 볼 수는 없습니까? 이선영(1992, 2002)에서 논의하였듯이 중세 국어에서 어간끼리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는 매우 생산적입니다. 이병기(2008)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기존에 강제접미사로 다루던 것을 접미사가 아닌 보조용언으로 볼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티다’를 ‘*다--+티-’ 또는 ‘달[觸]--+티-’로 보아도 이 발표에서 다루는 예문을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11)의 예문을 분석하며 “‘다좃다’의 ‘좃-’이나, <두시언해>에만 나타나는 ‘다밀이다’(중간본에서는 ‘다미리다, 다밀히다’)의 ‘밀이(미리-/밀히-)-’는 이른바 ‘강세접미사’로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단어에서 어간은 ‘좃-’, ‘밀이-’이며 ‘다-’는 접두사로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좃다’와 ‘다밀이다’도 ‘*다-’ 또는 ‘달[觸]-’에 ‘좃-’, ‘밀이(미리-/밀히-)-’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없을까요?

3. 발표문의 3.2에서는 ‘다티다’의 다의성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 있습니다.

3.1 ‘달다, 건드리다, 대다’, ‘부딪히다/부딪치다’, ‘스치다/문지르다’로 나누어 살핀 예문과 그 하위 분류가 명확하게 나뉘는지요?

3.1.1 예문 (13가)가 일시적 접촉인가요? (13다)가 의도적 접촉인가요?

3.1.2 ‘스치다’가 ‘일정 시간 동안 접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일시적 접촉이 아닐까요?

3.2 중세한국어 ‘다티다’의 세 가지 의미(달다/건드리다, 부딪히다/부딪치다, 스치다/문지르다) 간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4. ‘다티다’는 피동사가 아닌데 ‘부딪치다’로만 해석하지 않고 ‘부딪히다’로도 해석해야 할까요?

2018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활용 방안

제1부 2분과

개인 발표

‘한중일’ 3종 언어의 리듬과 운율의 형성 과정 연구

정원수(충남대학교)

1. 서론

1.1 연구목적

이 글은 필자가 그 동안 구축한 이른바 ‘한글운율문법’ 이론에 따라 ‘한중일’ 3종 언어의 리듬과 운율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구 상 존재하는 약 7,000종의 모든 인간 언어는 3음소(자음, 모음, 반모음)가 모여 ‘의미를 지닌 심리적 음절’을 만들고(‘언어능력’이 구비됨), 이 심리적 음절에 3운소(성조, 강세, 음장)가 얹혀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면서(‘언어수행’이 이루어짐) ‘물리적 음절’들이 만들어진다. 이 물리적 음절들은 길고 짧은 음절박(syllabic beats)을 만들고, 음절박이 모여 박자 리듬꼴(timed rhythmical form)을 만들며, 박자리듬꼴들이 ‘운율형’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인간이 말을 하는, 이른바 ‘언어수행’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의미를 띤 ‘심리적 음절’이 뉘비우스피 형상을 한 채, ‘물리적 음절’의 ‘리듬’과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볼 때, ‘한글운율문법’은 복층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 모든 언어들의 1층의 ‘음절들’은 ‘한글’ 문자(훈민정음)로 음절식 표기를 하고, 2층의 ‘리듬’과 3층의 ‘운율’은 오선지 위에 음표, 첩표로 표시할 수 있는 새 언어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한글운율문법’ 이론에 따라 ‘성조언어’인 중국어, ‘피치 액센트 언어’(준성조 언어)인 일본어, 그리고 ‘장단언어’인 한국어의 모든 어휘의 심리적 음절(큰음절)에 대한 ‘형태음소적 음절표기’를 할 수 있고, 발화된 물리적 음절(작은음절)에 대한 ‘음소적 음절표기’를 할 수 있으며, ‘성조(tone), 강세(accent), 음장(length) 부호’까지 음절의 모음 글자 위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중국어는 모든 1음절 이상 단어들의 각 음절에 성조(tone - 1성, 2성, 3성, 4성, 경성)가 얹혀 다양한 종류의 운율형을 형성한다. 일본어는 모든 1음절 이상 단어들의 각 음절에 성조(tone - 1성, 반1성, 2성, 3성, 반3성, 4성, 반4성)가 얹혀서 4 종류의 운율형, 즉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 ‘평판형’을 형성한다. 그리고 한국어는 1 음절 이상 단어들의 각 음절에 음장(length)이 얹혀서 다양한 유형의 ‘1박자리듬의 운율형들’을 형성한다.

품사별로 분류되는 모든 단어들은 문장 속에 들어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등의 ‘성분’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 문장의 성분들은 반드시 ‘반박자 리듬의 운율형’, ‘한 박자 리듬의 운율형’, ‘한 박자 반 리듬의 운율형’, ‘두 박자 리듬의 운율형’ 등을 형성한다. 이른바 문장의 성분들은 운율형과 함수관계를 맺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종 언어의 문장들이 전체적으로 운율을 형성할 때, 그 문장들은 대체로 ‘한박자 리듬의 운율’에서 최대 ‘12박자 리듬의 운율’까지 형성한다.

2. 본론

2.1 ‘한글운율문법’의 핵심

‘한글운율문법’을 기반으로 하여, 이 세상 7,000종의 모든 말들을 아래 ‘유니코드 한글자모’들로 음절식 표기를 할 수 있다.

<1> 유니코드 한글자모 표

The image displays three tables of Unicode Korean characters. The first table (left) covers the range A96-A97, the second (middle) covers D7B-D7C, and the third (right) covers D7D-D7F. Each table lists characters in a grid format with their corresponding Unicode values. The characters include various syllabic and consonantal forms used in the 'Hangeul Unmul' system.

(훈민정음 초성:17자) (중성: 11자) : (17+11=28자) (중성: 초성을 사용)
 ⇒ (유니코드 한글) 초성: 125자 X 중성: 94자 X 종성: 137 =1,609,750글자

자음과 모음이 모여 형성된 음절(syllable)은 박(搏, beat)의 지위를 확보하여, 다시 곁에 있는 다른 음절들과 어울려 그 발음시간의 물리적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더 큰 말소리 단위인 균등한 시간 길이의 ‘박자’(拍子, time) 리듬꼴을 만든다. ‘한 박자 리듬꼴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는 이 ‘한 박자 리듬꼴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명명하였다.

<2> 언어의 운율(prosody)을 형성하는 ‘한 박자’ 리듬꼴들

- 1) 1박 한 박자 리듬꼴: 새
- 2) 2박 한 박자 리듬꼴: ‘오리’, ‘장끼’, ‘부엉’
- 3) 3박 한 박자 리듬꼴: ‘종달새’, ‘독수리’, ‘비둘기’, ‘기러기’
- 4) 4박 한 박자 리듬꼴: ‘해오라기’, ‘딱따구리’, ‘쇠뿔부기’, ‘집비둘기’, ‘흰물떼새’
- 5) 5박 한 박자 리듬꼴: ‘호랑지빠귀’, ‘흰꼬리수리’, ‘회색기러기’, ‘제비갈매기’, ‘수리부엉이’, ‘노랑할미새’
- 6) 6박 한 박자 리듬꼴: ‘하와이기러기’, ‘큰부리까마귀’, ‘병어리빠꾸기’, ‘큰회색기러기’, ‘흰머리독수리’, ‘대만과란가치’, ‘넓적부리도요’
- 7) 7박 한 박자 리듬꼴: ‘밤색날개빠꾸기’
- 8) 8박 한 박자 리듬꼴: ‘무궁화꽃이에빠요’
- 9) 9박 한 박자 리듬꼴: ‘무궁화꽃이피었어요’
- 10) 10박 한 박자 리듬꼴: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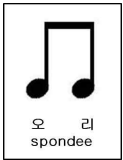


새

=



까마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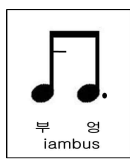


오리

⇒



장끼



부영



중달새

⇒



독수리



비들기



기러기



해오라기

⇒



딱따구리



쇠뜸부기



집비들기



흰물떼새



호랑지빠귀

⇒



흰꼬리수리



회색기러기



수리부영이



제비갈매기



노랑활미새



하와이기러기

⇒



큰부리까마귀



병어리빼꾸기



큰회색부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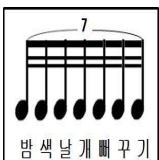
흰머리독수리



대만파란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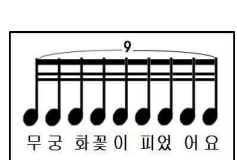
넓적부리도요



밤색날개빼꾸기



무궁화꽃이예뻐요



무궁화꽃이피었어요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또한 ‘반 박자 리듬꼴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 ‘반 박자 리듬꼴들’의 이름도 한국어로 명명하였다.

<3> 언어의 운율(prosody)을 형성하는 ‘반 박자’ 리듬꼴들

- 1) 1박 반 박자 리듬꼴: 닭
- 2) 2박 반 박자 리듬꼴: ‘나비’, ‘매미’, ‘꿀벌’
- 3) 3박 반 박자 리듬꼴: ‘메뚜기’, ‘잠자리’, ‘풍뎅이’, ‘베짚이’
- 4) 4박 반 박자 리듬꼴: ‘방아깨비’, ‘호랑나비’, ‘반딧불이’, ‘귀뚜라미’, ‘어리꿀벌’
- 5) 5박 반 박자 리듬꼴: ‘실소금쟁이’, ‘장수하늘소’, ‘얼룩말나비’, ‘솔잎혹파리’, ‘고려풀매미’, ‘어리호박벌’



2.2 중국어 문장들의 리듬과 운율 분석

2.2.1 운율 분석할 중국어 문장들

1. 인사: 만남과 헤어짐

- (1) **这是我的名片。**
Zhè shì wǒ de míngpiàn.
⇒ 이것은 내 명함입니다.
- (2) **一定要来韩国玩儿啊。**
Yídìng yào lái Hánguó wánr a.
⇒ 한국에 꼭 놀러 오세요.
- (3) **来韩国跟我联系吧。**
Lái Hánguó gēn wǒ liánxì ba.
⇒ 한국에 오시면 나한테 연락 하세요.
- (4) **再见。**
Zài jiàn.
⇒ 다시 만나요./ 또 봅시다. / 안녕히 가세요.)
- (5) **请慢走。**
Qǐng màn zǒu.
⇒ 조심해서 가세요.
- (6) **明天见。**
Míngtiān jiàn.
⇒ 내일 또 만나요.
- (7) **到韩国见。**
Dào Hánguó jiàn.)
⇒ 한국에서 만나요.
- (8) **请多关照。**
Qǐng duō guānzhào.
⇒ 잘 부탁드립니다.
- (9) **祝您一路平安。**
Zhù nín yìlù píng'ān.
⇒ 잘 다녀 오세요.
- (10) **非常感谢您的照顾。**
Fēicháng gǎnxiè nín de zhàogù.
⇒ 당신의 보살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 (11) **托您的福我在中国过得很愉快。**
Tuō nín de fú wǒ zài Zhōngguó guò de hěn yúkuài.
⇒ 덕분에 중국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2. 공항: 예약과 문의

- (1) **我想买去首尔的往返机票。**
Wǒ xiǎng mǎi qù Shǒu'èr de wǎngfǎn jīpiào.
⇒ 저는 서울로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사고 싶습니다.

- (2) 能给我靠通道的座位吗 ?
Nèng gěi wǒ kào tōngdào de zuòwèi ma?
⇒ 나에게 통로 쪽의 좌석을 주시겠어요?
- (3) 能给我靠窗的座位吗 ?
Nèng gěi wǒ kào chuāng de zuòwèi ma?.
⇒ 나에게 창가 쪽의 좌석을 주시겠어요?
- (4) 还有空位吗 ?
Hái yǒu kòngwèi ma?
⇒ 아직 빈 좌석이 있습니까?
- (5) 我想改到下午的航班。
Wǒ xiǎng gǎidào xiàwǔ de hángbān.
⇒ 저는 오후 항공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 (6) 我没有托运的行李。
Wǒ méiyǒu tuōyùn de xíngli.
⇒ 저는 맡길 짐이 없습니다.
- (7) 我只有一个随身行李。
Wǒ zhīyǒu yí ge suíshēn xíngli.
⇒ 저는 다만 휴대용 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 (8) 几点开始登机 ?
Jǐ diǎn kāishǐ dēng jī?
⇒ 몇 시에 탑승이 시작됩니까?
- (9) 请问登机口是几号 ?
Qǐngwèn dēng jī kǒu shì jǐ hào?
⇒ 실례지만, 탑승구는 몇 번입니까?
- (10) 请问飞机会延误多久 ?
Qǐngwèn fēijī huì yánwù duō jiǔ?
⇒ 실례지만, 비행기가 얼마나 지연됩니까?
- (11) 有去宾馆的公共汽车吗 ?
Yǒu qù bīnguǎn de gōnggòng qìchē ma?
⇒ 호텔로 가는 공공버스가 있습니까?
- (12) 请问在哪儿拿行李 ?
Qǐngwèn zài nǎr ná xíngli?
⇒ 실례지만, 짐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 (13) 请问,免税店在哪里 ?
Qǐngwèn miǎnshuì diàn zài nǎlǐ ?
⇒ 실례지만, 면세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 (14) 有一个行李没有出来。
Yǒu yíge xíngli méiyǒu chūlai.
⇒ 가방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2.2.2 중국어 문장들의 운율 분석

“성조 언어”인 {중국어}의 **운율도 리듬**을 타고 아름답게 흐릅니다.”

1. 인사: 만남과 헤어짐

(1) **저(这) 스(是) 워(我) 더(的) 명편(名片).**

중국어 1+2
가 락 3

[즈어 스으] # [우어 더] + [미잉 피엔].
Zhè shì wǒ de míngpiàn.
(이것은 입니다, 나의 명함.)
⇒ 이것은 내 명함입니다.

(2) **일딩(一定) 얀(要) 래(来) 한국(韩国) 왈(玩儿)아(啊).**

중국어 2+2
가 락 4

[이이 디잉] + [야오 띠이] # [하안 구어] + [와 아 라].
Yídìng yào lái Hánguó wánr a.
(꼭 오세요, 한국에 놀러.
⇒ 꼭 한국에 놀러 오세요. / 한국에 꼭 놀러 오세요.)

(3) **래(来)한(韩) 국(国) 근(跟) 워(我) 련시(联系) 바(吧).**

중국어 2+3
가 락 5

[띠이 하안] + [구 어] # [그잉 우어] + [띠엔 시이] + [바].
Lái Hán guó gēn wǒ liánxi ba.
(오시면 한국에, 나한테 연락하세요.)
⇒ 한국에 오시면 나한테 연락 하세요.

(4) **래(再) 쥘(见).**

중국어 1
가 락 1

[짜이 지엔].
Zài jiàn.
(다시 봐요.)
⇒ 다시 만나요./ 또 봅시다. / 안녕히 가세요.)

(5) **칭(请) 만(慢) 쑤(走).**

중국어 1+0.5
가 락 2

[치 잉 마 안] # [쑤 오].
Qǐng màn zǒu.
(부디 천천히 가세요.)
⇒ 조심해서 가세요.

(6) 명¹텨(明天) 쥘(见).

중국어 1+0.5
가 락 2



[미잉 티엔] # [지엔].
Míngtiān jiàn.
(내일 봐요.)
⇒ 내일 또 만나요.

(7) 도(到) 한(韩) 국(国) 쥘(见).

중국어 1+1
가 락 2



[다 오 하 안] # [구어 지엔].
Dào Hánguó jiàn.
(한국에서 만나요.)
⇒ 한국에서 만나요.

(8) 쥘(请) 뒤(多) 관자(关照).

중국어 1+1
가 락 2



[치잉 두어] # [구안 자오].
Qǐng duō guānzhào.
(부디 많이 보살펴 주세요.)
⇒ 잘 부탁드립니다.

(9) 죽(祝) 닌(您) 일루(一路) 평안(平安).

중국어 1+2
가 락 3



[주 우 니 인] # [이 일 루 우] + [피잉 아안].
Zhù nín yílù píng'ān.
(법니다, 당신의 여정(旅程)이 평안하기를.)
⇒ 잘 다녀 오세요.

(10) 웨창(非常) 감세(感谢) 닌더(您的) 잔구(照顾).

중국어 2+2
가 락 4



[페이 차양] + [가 안 시 에] # [닌더] + [자오 구우].
Fēicháng gǎnxiè nín de zhàogù.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의 보살핌을.)
⇒ 당신의 보살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11) 툼(托) 닌더(您的) 툽(福) 워(我) 짜(在) 중궈(中国) 궈드(过得) 헨(很) 워(愉) 쾌(快).

중국어 2+5
가 락 7



[투어 닌더]+[후 우]#[우어 짜이]+[주우 구어] +[구어 더]+[흐 언 워 워]+[콰 이].
Tuō nín de fú wǒ zài Zhōngguó guò de hěn yúkuài.
(당신의 덕분(德分)에 저는 중국에서 지냈습니다, 즐겁게.)
⇒ 덕분에 중국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2. 공항: 예약과 문의

(1) 위(我) 상(想) 매(买) 취(去) 서울(首尔)더(的) 왕환(往返) 지판(机票).

중국어 2+4 가 락 6 

[우어시앙] + [마아이] # [취위]+[서우으얼더]+[우양판안]+[지이판오].
 Wǒ xiǎng mǎi qù Shǒu'ér de wǎngfǎn jīpiào.
 (저는 사고 싶습니다, 서울로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 서울: /소얼/소우얼
 ⇨ 저는 서울로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사고 싶습니다.

(2) 능(能) 게(给) 위(我) 칸(靠)통(通 空道)더(的) 좌위(座位) 마(吗) ?

중국어 2+4 가 락 6 

[느영 게이] + [우어어] # [카오 토통]+[다오더]+[쥘어웨이] + [마]?
 Nèng gěi wǒ kào tōngdào de zuòwèi ma?
 (주시겠어요? 나에게 통로 쪽의 좌석을 ?)
 ⇨ 나에게 통로 쪽의 좌석을 주시겠어요?

(3) 능(能) 게(给) 위(我) 칸(靠)창(窗) 더(的) 좌위(座位) 마(吗) ?

중국어 2+4 가 락 6 

[느영 게이] + [우어어] # [카오 추앙] + [더] + [쥘어웨이] + [마]?
 Nèng gěi wǒ kào chuāng de zuòwèi ma?
 (주시겠어요? 나에게 창가 쪽의 좌석을 ?)
 ⇨ 나에게 창가 쪽의 좌석을 주시겠어요?

(4) 해(还) 요(有) 쿵웨이(空位) 마(吗) ?

중국어 1+2 가 락 3 

[하이 요오] # [코웅 웨이] + [마]?
 Hái yǒu kòngwèi ma?
 (아직 있습니까? 빈 좌석이 ?)
 ⇨ 아직 빈 좌석이 있습니까?

(5) 위(我) 상(想) 개도(改到) 샤우(下午)더(的) 항반(航班) .

중국어 2+2 가 락 4 

[우어시앙] + [가이다오] # [시아우우더]+[하양반안].
 Wǒ xiǎng gǎidào xiàwǔ de hángbān.
 (저는 변경하고 싶습니다, 오후의 항공편으로.)
 ⇨ 저는 오후 항공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6) **워(我) 메요(没有) 툽윈(托运)더(的) 싱피(行李) .**

중국어 2+2
가 락 4

[우어어] + [메이요오] # [투어위윈더] + [시잉피].
Wǒ měiyǒu tuōyùn de xíngli.
(저는 없습니다, 말길 짐이.)
⇒ 저는 말길 짐이 없습니다.

(7) **워(我) 즈(只)요(有) 일거(一个) 쉐션(随身) 싱피(行李) .**

중국어 3+2
가 락 5

[우어어] + [즈으요오] + [이어거] # [쉐이션] + [시잉피].
Wǒ zhǐyǒu yí ge suǐshēn xíngli.
(저는 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휴대용 짐을.)
⇒ 저는 다만 휴대용 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8) **지뎐(几点) 캐스(开始) 등지(登机) ?**

중국어 1+2
가 락 3

[지이 디엔] # [카이스으] + [드영지이]?
jǐ diǎn kāishǐ dēng jī?
(몇 시에 시작됩니까? 탑승이 ?)
⇒ 몇 시에 탑승이 시작됩니까?

(9) **칭원(请问) 등지(登机) 쿡(口) 스(是)지(几) 한(号) ?**

중국어 1+4
가 락 5

[치잉우엔] # [드영 지이] + [코오우] + [스으지이] + [하오].
Qǐngwèn dēng jī kǒu shì jǐ hào?
(실례지만, 탑승구는 입니까? 몇 번 ?)
⇒ 실례지만, 탑승구는 몇 번입니까?

(10) **칭원(请问) 페지(飞机) 회(会) 연우(延误) 뉘쥬(多久) ?**

중국어 1+4
가 락 5

[치잉우엔] # [페이지이] + [훼이] + [이엔우우] + [두어지오].
Qǐngwèn fēijī huì yánwù duō jiǔ?
(실례지만, 비행기가 지연됩니까? 얼마나 ?)
⇒ 실례지만, 비행기가 얼마나 지연됩니까?

(11) **요(有) 취(去) 빈관(宾馆) 더(的) 공공(公共) 차차(汽车) 마(吗)?**

중국어 4+3
가 락 7

[요오우]+[취위]+ [비인구안] +[더] # [고옹고옹] + [치이츠어] + [마]?
Yǒu qù bīnguǎn de gōnggòng qìchē ma?
(있습니까? 호텔로 가 는 공공 버스가 ?)
⇒ 호텔로 가는 공공버스가 있습니까?

(12) **칭원(请问) 쎄(在)날(哪儿) 나(拿)싱(行) 피(李) ?**

중국어 1+4
가 락 5

[치잉우엔] # [짜이나알]+ [나아시잉]+[피]?
Qǐngwèn zài nǎr nǎ xínglǐ?
(실례지만, 어디에서 찾습니까? 짐은 ?)
⇒ 실례지만, 짐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13) **칭원(请问) , 면쉐(免稅) 뎀(店) 쎄(在)나(哪) 피(里)?**

중국어 2+4
가 락 6

[치잉우엔] +[침] # [미엔수이] +[디엔]+[짜이나아] + [피]?
Qǐngwèn miǎnshuì diàn zài nǎlǐ ?
(실례지만, 면세점은 있습니까? 어디에 ?)
⇒ 실례지만, 면세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4) **요(有)일거(一个) 싱피(行李) 매요(没有) 출래 (出来) .**

중국어 2+2
가 락 4

[요오 이거]+ [시잉피] # [메이요오]+[추우파이].
Yǒu yíge xínglǐ měiyǒu chūlai.
(어느 한 개의 가방이 안 나왔습니다.)
⇒ 가방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2.3 일본어 문장들의 리듬과 운율 분석

2.3.1 운율 분석할 일본어 문장들

- (1) 彼女は 音楽家 です。
かのじょは おんがくか です。
⇒ 그녀는 음악가입니다.
- (2) 彼は 会社員です。
かれは かいしゃいん です。
⇒ 그 사람은 회사원입니다.
- (3) 兄は 医者です。
あには いしゃです。
⇒ 형은 의사입니다.
- (4) 姉は 先生です。
あねは せんせいです。
⇒ 누나(언니)는 선생님입니다.
- (5) 弟は 大学生です。
おとうとは だいがくせい입니다。
⇒ 남동생은 대학생입니다.
- (6) 妹は 画家です。
いもうとはがかです。
⇒ 여동생은 화가입니다.
- (7) 私は 韓国人です。
わたしはかんこくじん입니다。
⇒ 나는 한국인입니다.
- (8) 彼は 科学者です。
かれは かがくしゃ입니다。
⇒ 그는 과학자입니다.
- (9) 日本語は 難しいです。
にほんごは むずかしいです。
⇒ 일본어는 어렵습니다.
- (10) 英語は 易しいです。
えいごは やさしいです。
⇒ 영어는 쉽습니다.
- (11) 山田さんは 親切です。
やまださんは しんせつです。
⇒ 야마다 씨는 친절합니다.
- (12) 鈴木さんは 純粹です。
すずきさんは じゆんすい입니다。
⇒ 스즈키 씨는 순수합니다.
- (13) これは 本では ありません。
これは ほんでは ありません。
⇒ 이것은 책이 아닙니다.
- (14) それは 時計では ありません。
それは とけいでは ありません。
⇒ 그것은 시계가 아닙니다.
- (15) 彼は 留学生では ありません。
かれは りゆがくせいでは ありません。
⇒ 그 사람은 유학생이 아닙니다.
- (16) 彼女は 韓国人では ありません。
かのじょは かんこくじんでは ありません。
⇒ 그여자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 (17) 山本さんは 先生では ありません。
やまもとさんは せんせ이では ありません。
⇒ 야마모토 씨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 (18) 高橋さんは 銀行員では ありません。
たかはしさんは ぎんこういんでは ありません。
⇒ 타카하시 씨는 은행원이 아닙니다.
- (19) あれは 学校では ありません。
あれは がっこうでは ありません。
⇒ 저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 (20) それは カメラでは ありません。
それは カメラでは ありません。
⇒ 그것은 카메라가 아닙니다.

2.3.2 일본어 문장들의 운율 분석

“고저악센트 언어인 {일본어}의 운율도 리듬을 타고 아름답게 흐릅니다.ㅎ”

(1) 彼女は 音楽家 です。



[카노조와]#[오옹가꾸까]+[데스]. * /음각까/-->[오옹가꾸까](음절 분할을 통한 {평판형} 운율을 카노조와 음 각 까 데스. 만들.
かのじよは おんがくか です. * /카노조/는 {두고형}.
⇒ 그녀는 음악가입니다. * /데스/의 /스/는 무성화되어 /-/ 발음이 안 남.

(2) 彼は 会社員 です。



[카레와]#[카이샤이인]+[데스]. * /카레/는 {두고형}.
카레와 캐 샤 인 데스. * /캐샤인/ -->[카이샤이인](음절분할을 통한 {중고2형} 운율을 만들.)
かれは かいしゃいん です. * /카이샤인/는 {중고2형}.
⇒ 그 사람은 회사원입니다.

(3) 兄は 医者です。



[아니와]#[이샤][데스]. * /아니/는 {두고형}.
아니와 의사 데스. * /의샤/-->[이샤]('-'탈락을 통한 단모음화, {평판형} 운율을 만들.)
あには いしゃ です.
⇒ 형은 의사입니다.

(4) 姉は 先生 です。



[아네와]#[세엔세에]+[데스]. * /아네/는 {평판형}
아네와 셴 생 데스. * /셴생/ --> [세엔세에](음절분할을 통한 {중고2형} 운율을 만들.)
あねは せんせい です.
⇒ 누나(언니)는 선생님입니다.

(5) 弟は 大学生 です。



[오토오토와]#[다이가악세에]+[데스]. * /오토오토/는 {미고형}
오토오토와 대 각 생 데스. * /가쿠 -->각[가악](무성화, 내파화 현상, {중고2형} 운율을 만들.)
おとうとは だいがくせい です.
⇒ 남동생은 대학생입니다.

(6) 妹は 画家 です。

일본어 1+1
가 락 2

[이모오또와]#[가가][데스]. * /이모오또/는 {미고3형}
 이모오또와 과가 데스. * /과가/ --> [가가](반모음 w 탈락: 단모음화, {평판형})
 いもうとは がか です. * /과가/ --> [가가](반모음 w 탈락: 단모음화, {평판형})
 ⇒ 여동생은 화가입니다. * /과가/ --> [가가](반모음 w 탈락: 단모음화, {평판형})
 운율을 만들.)

(7) 私は 韓国人 です。

일본어 1+2
가 락 3

[와따시와]#[카안꼬구지인]+[데스]. * /와따시/는 {평판2형}.
 와따시와 칸꼭진 데스. * /칸꼭진/-> [카안꼬구지인](음절분할을 통한 {중고3형})
 わたしは かんこくじん です. * /칸꼭진/-> [카안꼬구지인](음절분할을 통한 {중고3형})
 ⇒ 나는 한국인입니다. * /칸꼭진/-> [카안꼬구지인](음절분할을 통한 {중고3형})
 운율을 만들.)

(8) 彼は 科学者 です。

일본어 1+2
가 락 3

[카레와]#[가가알샤]+[데스]. * /카레/는 {두고형}. /카/는 어두에서 한국어의 /가/ 발음과 같음.
 카레와 파각샤 데스. * /파/ --> [가]: 반모음 w 탈락: 통시적 단모음화.
 かれは かがくしゃ です. * /파각샤/ --> [카가알샤](음절분할을 통한 {중고1형}) 운율을 만들.
 ⇒ 그는 과학자입니다. * /파각샤/ --> [카가알샤](음절분할을 통한 {중고1형}) 운율을 만들.
 /각/이 [가꾸]로 '외파'되지 않고 [가약]으로 '내파'됨.

(9) 日本語は 難しい です。

일본어 1+2
가 락 3

[니호은고와]#[무즈카시이]+[데스]. * /니호은고/ --> [니호은고](음절분할을 통한 {평판3형})을 만들.
 니호은고와 무즈카시이 데스. * --> /와/[와]가 붙어서 {평판4형}
 にほんごは むずかしい です. * /무즈카시이/는 {중고3형}.
 ⇒ 일본어는 어렵습니다.

(10) 英語は 易しい です。

일본어 1+2
가 락 3

[에에고와]#[야사시이]+[데스]. * /영/-> [에에](음절분할을 통한 {평판2형})운율을 만들.
 영고와 야사시이 데스. * 여기서 일본인들은 /오/ 받침을 발음 못하고 /기/로 발음함.
 えいごは やさしい です. * /야사시이/는 {평판3형}.
 ⇒ 영어는 쉽습니다.

(11) 山田さん は 親切 です。

일본어 2+2
가 락 4

[야마다사양]+[와] # [시인세쯔]+[데스]. * /신췌/ -->[시인세쯔]: 음절분할을 통한 {두고형}
야마다상 와 신췌 데스. 운율을 만들.
やまださんは しんせつ です.
⇒ 야마다 씨는 친절합니다.

(12) 鈴木さん は 純粹 です。

일본어 2+2
가 락 4

[스즈키사양]+[와] # [쥬은스이]+[데스]. * /쥬췌/ -->[쥬은스이]: 음절분할을 통한 {평판형}
스즈키상 와 쥬췌 데스. 운율을 만들.
すずきさんは じゅんすい です.
⇒ 스투키 씨는 순수합니다.

(13) これは 本では ありません。

일본어 1+2
가 락 3

[코레와]#[호은데와]+[아리마세엥]. * /코레/는 {평판형}.
코레와 혼데와 아리마센. * /혼/ -->[호은](음절분할을 통한 {두고형})
これは ほんでは ありません. 운율을 만들.)
⇒ 이것은 책이 아닙니다..

(14) それは 時計では ありません。

일본어 1+2
가 락 3

[소레와]#[토케에데와]+[아리마세엥]. * /소레/는 {평판형}.
소레와 토케데와 아리마센. * /토케/ -->[케에](음절분할을 통한 {평판형})
それは とけいでは ありません. 운율을 만들.)
⇒ 그것은 시계가 아닙니다..

(15) 彼は 留学生では ありません。

일본어 1+3
가 락 4

[카레와]#[류우가악] +[세에데와] + [아리마세엥].
카레와 룡각생 데와 아리마센.
かれは りゅうがくせい では ありません.
⇒ 그 사람은 유학생이 아닙니다. * /룡각생/[류우가악세에]: {중고2형}.

(16) 彼女は 韓国 人では ありません。

일본어 2+3
가 락 5

[카노쥬와]#[카안꼬꾸] + [지인데와] + [아리마세엥]. * /카노쥬/는 {두고형}.
카노쥬와 칸꼭진 데와 아리마센. */칸꼭진/[카안꼬꾸지인]: {중고3형}.
かのじよは かんこくじん では ありません。

⇒ 그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17) 山本さんは 先生 ではありません。

일본어 2+3
가 락 5

[야마모토]+[사앙와]#[세엔세에]+[데와] + [아리마세엥]. */선생/[세엔세에]: {중고2형}.
야마모토 상와 셴생 데와 아리마센.
やまもとさんは せんせい では ありません。

⇒ 야마모토 씨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18) 高橋さんは 銀行 員 ではありません。

일본어 2+3
가 락 5

[타카하시]+[사앙와]#[기잉코오]+[이인데와] + [아리마세엥].
타카하시 상와 긴롱원 데와 아리마센.
たかはしさんは ぎんこういん では ありません。

⇒ 타카하시 씨는 은행원이 아닙니다. */긴롱원/[기잉코오이인]: {중고2형}.

(19) あれは 学校 ではありません。

일본어 1+3
가 락 4

[아레와]#[가악꼬오]+[데와] + [아리마세엥]. * /아레/는 {평판형}.
아레와 각꼴 데와 아리마센. */각꼴/[가악꼬오]: {평판형}.
あれは がっこう では ありません。

⇒ 저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20) それは カメラ ではありません。

일본어 1+2
가 락 3

[소레와] # [카메라데와]+ [아리마세엥]. * /소레/는 {평판형}.
소레와 카메라데와 아리마센. * /카메라/ -->[camera](외래어: {두고형})
それは カメラでは ありません. 운율을 만들.)

⇒ 그것은 카메라가 아닙니다..

2.4 한국어 문장들의 리듬과 운율 분석

2.4.1 한국어 문장들의 운율 분석(1)

-문재인 대통령 평양 연설문 (2018년 9월 19일)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단 언어’인 {한국어}의 운율도 리듬을 타고 아름답게 흐릅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大統領) 평양(平壤) 연설문(演說文)}

한국어 2+2
가 락 4

[문재인]+[대통령]#[평양연설]+[문]
문재인 대통령 평양 연설문

(1) 평양(平壤) 시민(市民) 여러분!

한국어 1+1
가 락 2

[평양시민]#[여러분]
평양 시민 여러분!

⇒

(2) 북(北)녘의 동포(同胞) 형제(兄弟) 여러분!

한국어 1+2
가 락 3

[북녘에] # [동포] + [형제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

(3) 평양(平壤)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박수)

한국어 5+2
가 락 7

[평양에서]+[여러분]+[이렇게]+[만나게]+[되어] #[참으로]+[반갑습니다]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

(4) ① 남(南)쪽 대통령(大統領)으로서 김정은(金正恩) 국무위원장(國務委員長)의 소개(紹介)로 여러분에게 인사(人事)말을 하게 되니,

한국어 6+3
가 락 9

[남쪽][대통령으로][서]+[김정은][국무위원장에][소개로]#[여러분에게][인사말을][하게되니]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

② 그 감격(感激)을 말로 표현(表現)할 수 없습니다.

한국어 2+3
가 락 5

[그 감]+[겨글] # [말로]+ [표현할수]+ [없습니다].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

(5)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時代)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수)

한국어 4+4
가 락 8

[여러분]+[쉼]+[우리는이러]+[케] # [함께]+[쉼][새로운시대를]+[만들고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

(6) 동포(同胞) 여러분!

한국어 1+0.5
가 락 2

[동포여러] # [분]
동포 여러분!

⇒

(7) 김정은(金正恩) 위원장(委員長)과 나는 지난 4월(月)27일(日) 판문점(板門店)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抱擁)했습니다.

한국어 5+4
가 락 9

[김정은][위원장과][나는]+[지난사월][이십칠일]#[판문점에서]+[만나]+[뜨겁게]+[포옹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사월 이십칠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

(8) ① 우리 두 정상(頂上)은 한반도(韓半島)에서 더 이상(以上) 전쟁(戰爭)은 없을 것이며,

한국어 4+4
가 락 8

[우리두]+[정상은]+[한반도에]+[서] # [더이상]+[전쟁은]+[없을꺼시]+[며],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

② 새로운 평화(平和)의 시대(時代)가 열렸음을 8천만(八千萬) 우리 겨레와 전(全) 세계(世界)에 엄숙(嚴肅)히 천명(闡明)했습니다. (박수)

한국어 3+5
가 락 8

[새로운]+[평화에서대가][열렸음을]#[팔천만]+[우리겨레와][전세계에][엄숙히][천명해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팔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

(9) 또한 우리 민족(民族)의 운명(運命)은 우리 스스로 결정(決定)한다는 민족(民族) 자주(自主)의 원칙(原則)을 확인(確認)했습니다. (박수)

한국어 5+3
가 락 8



[또한]+[우리민족에][운명은][우리스스로][결정한다는]#[민족][자주에원치글][화근해씀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10) ① 남북관계(南北關係)를 전면적(全面的)이고 획기적(劃期的)으로 발전(發展)시켜,


한국어 4+2
가 락 6



[남북관계]+[를]+[전면저기]+[고] # [희끼적그로]+[발전시켜],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② 끊어진 민족(民族)의 혈맥(血脈)을 잇고,

한국어 2+2
가 락 4



[끄너진]+[민조게]#[혈매글]+[잇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③ 공동번영(共同繁榮)과 자주통일(自主統一)의 미래(未來)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約束)했습니다. (박수)

한국어 4+4
가 락 8



[공동번영]+[과]+[자주통이레]+[미래를]#[앞팡기자]+[고] + [굳게] + [약소캐씀니다].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11)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文在寅) 대통령(大統領)은 이렇게 평양(平壤)을 방문(訪問)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2+1
가 락 3



[그리고올해]+[가을]+[문재인]+[대통령은] # [이렇게]+[평양을]+[방문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12) 평양(平壤) 시민(市民)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同胞) 여러분!



[평양시민]+[여러분]#[사랑하는] +[동포여러]+[분]!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

(13) ① 오늘 김정은(金正恩) 위원장(委員長)과 나는, 한반도(韓半島)에서 전쟁(戰爭)의 공포(恐怖)와, 무력충돌(武力衝突)의 위험(危險)을,



[오늘] +[김정은]+[위원장과]+[나는] #[한반도에][서]+[전쟁의][공포와][무력충도][레] +[위험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

② 완전(完全)히 제거(除去)하기 위한 조치(措置)들을 구체적(具體的)으로 합의(合意)했습니다.(박수)



[완전히]+[제거하기위한][조치들을]#[구체적으로]+[하비해줍니다]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

(14) ① 또한, 백두(白頭)에서 한라(漢拏)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江山)을 영구(永久)히



[또한]+[백두에서]+[할라까지]#[아름다운] +[우리강산들] +[영구히],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영구히

⇒

② 핵무기(核武器)와 핵위협(核威脅)이 없는, 평화(平和)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後孫)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確約)했습니다. (박수)



[핵무기와]+[핵] + [위협이없는] + [평화에터전으로] +[만드러]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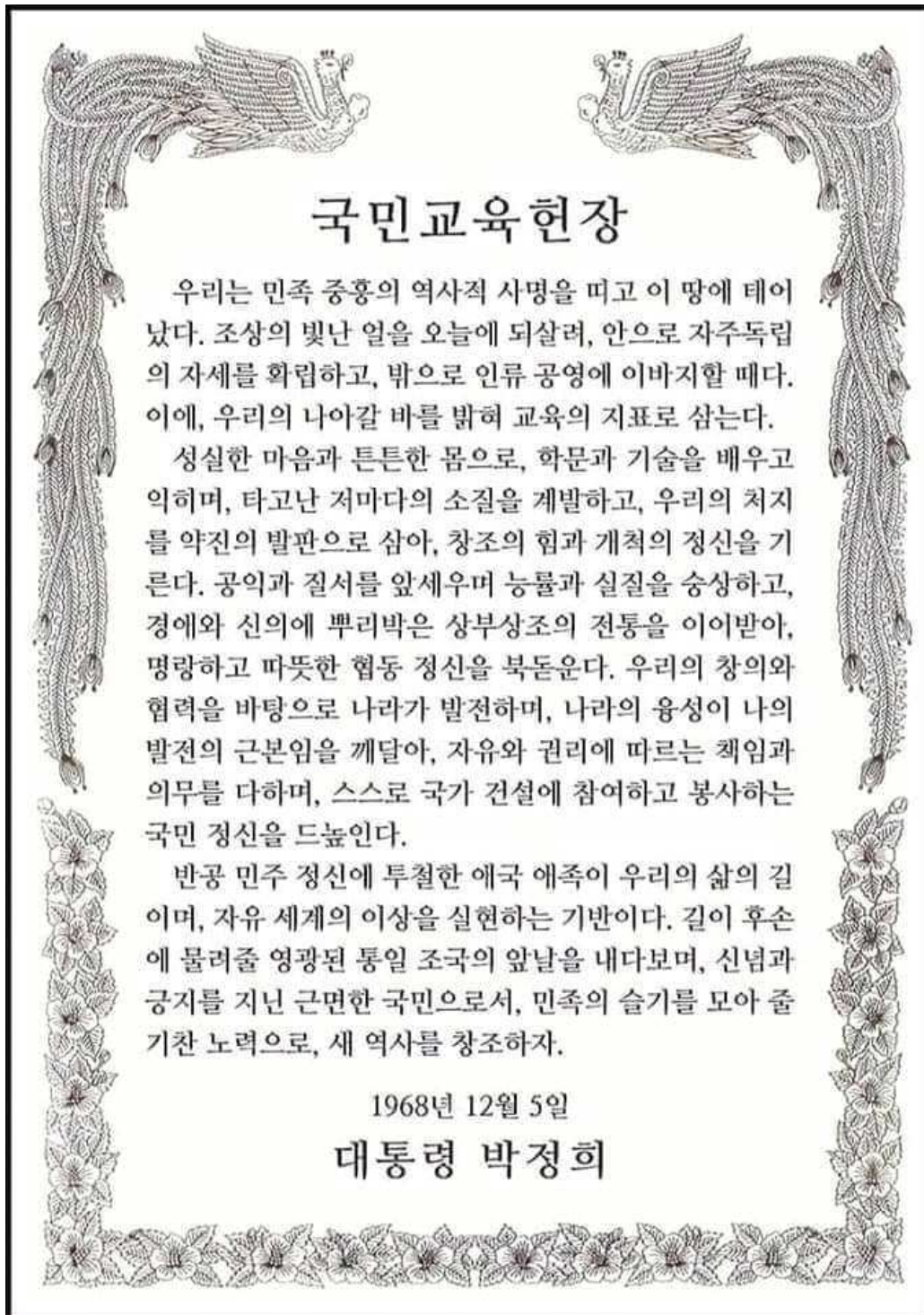


#[후손드레게] +[물려주자고] + [화야케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

2.4.2 한국어 문장들의 운율 분석(2)

- 박정희 대통령 '국민교육헌장' 낭독 (1968년 12월 5일)



“장단 언어인 {한국어}의 **운율도 리듬**을 타고 아름답게 흐릅니다.”

{국민(國民) 교육(教育) 헌장(憲章)}

한국어 1+1
가 락 2

[국민 교육]# [헌장]
국민 교육 헌장

(1) 우리는 민족(民族) 중흥(中興)의 역사적(歷史的) 사명(使命)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한국어 6+2
가 락 8

[우리는]+[민족]+[중흥에]+[역사적]+[사명을]+[띠고]#[이땅에]+[태어났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2) 조상(祖上)의 빛난 얼굴을 오늘에 되살려,

한국어 3+2
가 락 5

[조상에]+[빈난] + [어를]#[오느레]+[되살려]
조상의 빛난 얼굴을 오늘에 되살려,

⇒

(3) 안으로 자주(自主) 독립(獨立) 자세(姿勢)를 확립(確立)하고,

한국어 1+4
가 락 5

[아느로] #[자주] + [동니베]+ [자세를]+[황니파고]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

(4) 밖으로 인류(人類) 공영(共榮)에 이바지할 때다.

한국어 1+4
가 락 5

[바끄로]#[일류]+ [공영에] + [이바지할]+[때다].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

(5)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教育)의 지표(指標)로 삼는다.

한국어 4+3
가 락 7

[이에] +[우리에]+[나아갈바]+[를발켜] # [교육계]+[지표로]+[삼는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바 를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

(6) 성실(誠實)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學問)과 기술(技術)을 배우고 익히며,

한국어 4+4
가 락 8

[성시란]+[마음과]+[튼튼한]+[모므로]#[학문과]+[기수를]+[배우고]+[이키며],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

(7)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素質)을 계발(啓發)하고,

한국어 3+1
가 락 4

[타고난]+[저마다에]+[소지를]#[계발하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

(8) 우리의 처지(處地)를 약진(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한국어 2+3
가 락 5

[우리애]+[처지를] #[약지네]+[발판으로]+[삼아],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

(9) 창조(創造)의 힘과 개척(開拓)의 정신(精神)을 기른다.

한국어 4+1
가 락 5

[창조에]+[힘과]+[개척계]+ [정시늘] # [기른다].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

(10) 공익(公益)과 질서(秩序)를 앞세우며,

한국어 2+1
가 락 3

[공익과]+[질서를]#[앞세우며],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

(11) 능률(能率)과 실질(實質)을 숭상(崇尚)하고,



[능률과]+[실질을] # [숭상하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

(12) 경애(敬愛)와 신의(信義)에 뿌리박은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전통(傳統)을 이어받아,



[경애와]+[시니에]+[뿌리바근]#[상부]+[상조에]+[전통을]+[이어바다],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

(13) 명량(明朗)하고 따뜻한 협동정신(協同精神)을 복돋운다.



[명량하고]+[따뜻한] # [협동]+[정신들]+[복돋는다].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

(14) 우리의 창의(創意)와 협력(協力)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發展)하며,



[우리에]+[창이와]+[협력글]+[바탕으로]#[나라가]+[발전하며],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

(15) 나라의 융성(隆盛)이 나의 발전(發展)의 근본(根本)임을 깨달아,



[나라에]+[융성이] # [나에발찌]+ [네] + [근본니을]+[깨다라],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

(16)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다하며,

한국어 3+3
가 락 6

[자유와]+[권리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다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

(17) 스스로 국가(國家) 건설(建設)에 참여(參與)하고 봉사(奉仕)하는 국민정신(國民精神)을 드높인다.

한국어 5+3
가 락 8

[스스로]+[국가]+[건설에]+[참여하고]+[봉사하는]#[국민]+[정신들]+ [드높인다].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

(18) 반공(反共) 민주정신(民主精神)에 투철(透徹)한 애국애족(愛國愛族)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한국어 5+3
가 락 8

[반공]+[민주정신에]+[투철한]#[애국애족]+[기]+[우리에] + [살며]+[기리며],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

(19) 자유세계(自由世界)의 이상(理想)을 실현(實現)하는 기반(基盤)이다.

한국어 2+2
가 락 4

[자유세계에]+[이상을]#[시련하는]+[기반이다].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

(20) 길이 후손(後孫)에 물려줄 영광(榮光)된 통일(統一) 조국(祖國)의 앞날을 내다보며,

한국어 3+5
가 락 8

[기리]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통일]+[조국에]+[앞날]+[내다보며],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

(21) 신념(信念)과 긍지(矜持)를 지닌 근면(勤勉)한 국민(國民)으로서,

한국어 3+3
가 락 6

[신념과] + [긍지를]+[지닌] # [근면한]+[국민으로]+[서].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 서

⇒

(22) 민족(民族)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努力)으로 새 역사(歷史)를 창조(創造)하자.

한국어 3+4
가 락 7

[민조계]+[슬기를]+[모아] # [줄기찬]+[노력그로] +[새역사를] +[창조하자].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

(23) 천 구백 육십 팔 년 십이월 오일

한국어 2+2
가 락 4

[천구백]+[육십팔년]#[시비월]+[오일]
천 구백 육십팔년 십이월 오일 (1968년 12월 5일)

⇒

(24) 대통령(大統領) 박정희(朴正熙)

한국어 1+1
가 락 2

[대통령] #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

3. 결론

이상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비전(vision)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1. 19세기에 독일의 과학자 {헤르쯔}가 허공 속에 들어있는 '전파'를 발견하였듯이, 우리는 구미 언어학자들보다 먼저 인간의 자연언어 속에 들어있는 '리듬파'를 발견(30가지의 '한 박자 리듬꼴' 발견)하였다.

2. 이에, 전 세계 7,000종의 모든 인간언어들을 우리 한글(훈민정음: 유니코드 한글)로 표기하고, 그 언어의 '리듬'과 '운율'을 오선지 위에 음표로 표시하는 음운론적, 운율론적 연구를 마무리하고 [한글운율문법]이라는 새 언어학 학설을 정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3. 이제부터 우리는 인류의 새 미래문명으로서의 ‘한글문명’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즉, 문자가 없는 약 3,000종~5,000종의 소수민족 언어들을 모두 우리 한글로 표기해주는 언어학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KAIST 못지않은 인문학 중심의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여 다중언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들을 대량으로 양성해 내야 한다. 1978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에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을 설립하였듯이, 경기도 여주시나 세종특별자치시에 “100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교육 및 연구 기관인 대학원대학교 [세종대왕 국제교육원//누리마루 배움터]를 꼭 설립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전문교육 대학원대학교’ 본부를 이 여주시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하고 그 분원을 전국 300개 이상의 대학에 설치하게 되면, 전국의 초중고 교실에서 다중언어(한중일, 영독프, 스러힌, 아랍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를 가르칠 글로벌 청년 교사들을 연간 100만 명 이상씩 대량으로 양성할 수 있다.

4. 교육개혁 차원에서 위 대학원대학교에서 양성된 글로벌 교사들은 장차 전국의 모든 ‘초중고’의 한국어 및 외국어 과목 선생님의 자격을 가지고 배치되어 ‘한글운율문법’ 이론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그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운율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다. 즉, 원어민의 목소리를 녹음한 외국어 교과서의 문장들은 물론, TV에 나오는 아나운서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뉴스 문장들을 온전히 ‘운율분석’해 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 문장들을 ‘반복숙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은 외국어를 ‘잘 알아듣고’, ‘잘 말할 수 있으며’, ‘독해력’과 ‘작문력’까지 제대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중언어(한중일/영독프/스러힌/아터베) 구사능력을 함양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하여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몇 종의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원한다면 누구든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선진국들의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시나브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한글운율문법’ 이론으로 우리는, 1.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로봇’을 만들고, 2. 신 성장 ‘교육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ICT 소프트웨어 산업’, ‘여행관광 산업’, 그리고 ‘선교산업’을 크게 일으켜, 3. 연간 100만 개가 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들을 창출함으로써, 4. 아름답고도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5. 나아가 ‘평화적 남북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여, 6. 위대한 ‘8천만 한겨레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용순(2011), 영어 강세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글로벌 콘텐츠.
- 김용옥(1986),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통나무.
- 김차균(1988), 나랏말의 소리, 서울: 태학사.
- 김차균(1993), 우리말의 성조, 서울: 태학사.
- 김차균(1998), 나랏말과 겨레의 슬기에 바탕을 둔 음운학 강의, 서울: 태학사.
- 김차균(2002가), 영호남 방언 운율 비교, 서울: 도서출판 역락.
- 김차균(2002나), 국어 방언 성조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 김차균(2006),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 비교, 서울: 도서출판 글누리.
- 김채수(2013), 알타이 문명론, 서울: 박이정.

- 박문호(2013), *그림으로 읽는 뇌 과학의 모든 것*, 서울: 휴마니스트.
- 서우석(2013), *세계의 음악*,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신지영(2014), *한국어의 말소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안병섭(2010), *한국어 운율과 음운론*,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 정원수(2007가), “중국어의 한글 표기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학회.
- 정원수(2007나), “중국어 운모의 한글 표기 방안 연구”, *한글* 278, 한글학회.
- 정원수(2008가), *온누리한글로 쉽고 빠르게 배우는 아름다운 중국어*, 충남대 온누리한글연구소.
- 정원수(2008나), “한글의 세계화 방안 연구 -중국어의 제2한어병음자모로서의 한글의 위상 정립”, *국제비교한국학* 16-2, 국제비교한국학회.
- 정원수(2009), “한글을 이용한 중국어 교육 방안 연구”, *우리말글* 47, 우리말글학회.
- 정원수 외4인(2012), *정원수 운율법 영어*, 서울: 도서출판 한빛.
- 정원수(2017가), “‘한글운율법’을 통한 한중일 한자 어휘의 동시 교육 방안 연구”, *충청문화연구* 제18집,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 정원수(2017나), “중국어 상용한자 3500자의 한글 음절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충청문화연구* 제19집,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 최영애(2000), *중국어 음운학*, 서울: 통나무.
- Beckman, M. E. (1986). *Stress, and Non-Stress Accent*.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 and Morris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Féry, Caroline(2017), *Intonation and Prosodic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ssenhoven, C. (2004). *The Phonology of Tone and Into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mond, Michael(1999). *The Phonology of English: A Prosodic Optimality - Theoretic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son, Keith(2012), *Acoustic and Auditory Phonetics*, Oxford: Wiley-Blackwell.
- Jun, Sun-Ah(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Jun, Sun-Ah(1998). The Accentual phrase in the Korean prosodic hierarchy. *Phonology* 15.
- Jun, Sun-Ah(2005). *Prosodic Typology: The Phonology of Intonation and Phras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un, Sun-Ah(2014). *Prosodic Typology II: The Phonology of Intonation and Phras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obias Overath, Josh H McDermott, Jean Mary Zarate, David Poeppel(2015). The cortical analysis of speech-specific temporal structure revealed by responses to sound quilts. *Nature Neuroscience*, volume 18, June 2015.

<부록: '영독표' 3종 언어 문장들의 운율분석 예>

“강세 언어인 {영어}의 운율도 리듬을 타고 아름답게 흐릅니다.”

(1) “Samantha is a perfect friend.”

영어 2+2
가락 4



싸만따 있어 퍼펙트 후렌드.
[이서]

(싸만따는 입니다, 완벽한 친구.)
⇒ “싸만따는 완벽한 친구입니다.”

(2) “She always supports her friends.”

영어 2+2
가락 4



쉬 윽 웨이스 써폴츠 허 후렌즈.
[써폴처]

(그녀는 언제나 힘이 되어줘요, 자기의 친구들에게.)
⇒ 그녀는 언제나 자기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줘요.”

(3) “Alice wrote about me.”

영어 2+1
가락 3




앨리스 로우트 어바울 미.
[로더바울]/[로더바울]

(앨리스가 썼다, 나에 대해.)
⇒ 앨리스가 나에 대해 썼다.

(4) “I was shocked when I read this.”

영어 2+1
가락 3




아이 웁스 속트 웬 아이 레드 피쓰.
[레피쓰]

(나는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걸 읽는 동안에.)
⇒ 나는 이걸 읽는 동안 얼떨떨했다.

(5) “Was she really talking about me?”

영어 2+2
가락 4



웁스 쉬 리 얼리 튀킹 어바울 미 이?
[]

(그녀가 정말로 말하고 있나? 나에 대해.)
⇒ 그녀가 정말로 나에 대해 말하고 있나?

(6) I couldn't believe anyone would write such a positive thing about me, especially Alice.

영 어 8+2
가 락 10

아이쿠든(트)벌리브 애니 윈 우드 라일 씨 치어 파서티브 밍 어바울 미 이, 이쓰페셜리 앨 리쓰.

[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누군가 썼다는 것을 그토록 긍정적인 것을 나에게 대하여, 특히 앨리스가.)
⇒ 나는 누군가 나에게 대해 그토록 긍정적인 것을 쓴 것을 믿을 수 없었다 - 특히 앨리스가.)

(7) We have had a lot of arguments since we became friends.

영 어 4+3
가 락 7

위 해브 헨 어 랐 어 브 아규먼트 썬쓰 위 비케 임 후렌쓰.

[

(우리는 했다, 많은 말다툼을, 우리가 친구가 된 이후로.)

⇒ 우리는 친구가 된 이후로 많은 말다툼을 해 왔다.

(8) Surely she must know all my faults.

영 어 2+2
가 락 4

슈얼 리 쉬머슬노 율 마이 퓌쓰.

[

(확실히 그녀는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모든 나의 단점을.)

⇒ 확실히 그녀는 모든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9) When I look in the mirror, it's hard for me to see anything positive in myself.

영 어 3+5
가 락 8

웬 아이 룩 인 떠 미 러, 일쓰 할드 호미투씨 애니 밍 파서티브인 마이셀프.

[파서티브인]

(내가 거울을 볼 때, 그게 어려워 나는 본다는 것이, 긍정적인 무언가를, 나 자신에 대해.)

⇒ 내가 거울을 볼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무언가를 보기 어렵다.)

(10) Rather,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don't like about myself.

영 어 3+3
가 락 6

래 떠, 때어아매니 밍 쓰 켈 아이도운(트) 라익어바울 마이셀프.

[

(오히려 많은 것들이 내가 안 좋아하는 것들이야, 스스로에 대해.)

⇒ 오히려, 내가 스스로에 대해 안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

(11) I'm not just talking about my big nose and bad skin.

영 어 2+4
가 락 6

아이မ်낱작슬 퇴킹어바울 마이 빅 노우스앤(트) 배 드 쓰 킨.

[
(내가 단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의 큰 코나 안 좋은 피부에 대해.)
⇒ 나는 단지 나의 큰 코나 안 좋은 피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12) I've done lots of foolish things that I'm not proud of.

영 어 4+2
가 락 6

아이브단 라쓰얼 툴리쉬 밍쓰 켈 아이မ် 낱 푸라운 얼.

[푸라우덤]
(나는 행했어, 많은 어리석은 짓들을, 나는 그것들이 떳떳하지 못해.)
⇒ 나는 떳떳하지 않은 많은 어리석은 짓들을 했다.]

(13) I've lied to my parents and sometimes stretched the truth with my friends.

영 어 4+4
가 락 8

아이브 라인 투 마이 패 런 썬 드 썸타임스 스트레칭 띠 츠룽 위뜨 마이 푸렌즈.

[패런쓰+앤드] --> [패런] [썬드]
(나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 왔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해 왔다, 친구들에게.)
⇒ 나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 왔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진실을 왜곡해 왔다.]

(14) I've also started rumors about people, even Alice.

영 어 4+2
가 락 6

아이브 윙쏘우 쓰타티드 루머 써바울 피 풀 이븐 앨 리 쓰.

[
(나는 또한 소문도 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대해, 심지어 앨리스에게까지.)
⇒ 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지어 앨리스에 대한 소문도 내기 시작했다.]

(15) Last year, I caused some problems between Alice and her boy friend, Danny.

영 어 2+6
가 락 8

라쓰트 이 어 아이 러슨썸 푸라블럼스 비 트 윈 앨리스 앤 허 보이푸렌드 대 니.

[
(작년에, 나는 일으켰다 몇 가지 문제들을, 앨리스와 그녀 친구 대니 사이에.)
⇒ 작년에, 나는 앨리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대니 사이에 몇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다.]

“강세 언어인 {독일어}의 **운율도 리듬을 타고 아름답게 흐릅니다.**ㅎ”

[제1과] Guten Tag, wie geht es dir? : 안녕! 어떻게 지내니?

독일어 2+2
가 락 4

[구우텐]+[타아크]#[비이 게엘]+[애쓰 디어]?
/구우텐/ /타아크/ /비이//게엘//앓//디어/?

1친한 친구 사이 만날 때 인사말.....

(1) Frank: Guten Tag, Anne.

독일어 2+1
가 락 3

[구우텐]+[타아크]#[안내].
/구우텐/ /타아크/ /안내/.
{ 좋은 날, 안내. }
⇒ 안녕, 안내.

(2) Anne: Guten Tag, Frank.

독일어 2+1
가 락 3

[구우텐]+[타아크]#[프랑크].
/구우텐/ /타아크/ /프랑크/.
{ 좋은 날, 프랑크. }
⇒ 안녕, 프랑크.

(3) Frank: Wie geht es dir?

독일어 1+1
가 락 2

[비이 게엘]#[애쓰 디어]?
/비이//게엘//앓//디어/?
{ 어떻게 지내니 너는? }
⇒ 어떻게 지내니?

(4) Anne: Mir geht es gut.

독일어 1+1
가 락 2

[미어게엘]#[애쓰 구우트].
/미어//게엘//앓//구우트/.
{ 난 지내, 잘. }
⇒ 난 잘 지내.

Und dir?

독일어 1+1
가 락 2

[운트]#[디어]
/운트/ /디어/?
{ 그런데 너는? }
너는?

(5) Frank: Danke, mir geht es auch gut.

독일어 2+3
가 락 5

[당개][침]#[미어게엘]+[애쓰아우흐]+[구우트]
/당개/ /미어//게엘//앓//아우흐/ /구우트/.
{ 고마워, 나도 잘 지내. }
⇒ 고마워, 나도 잘 지내.

2격식을 차려서 인사할 때.....

(6) Herr Meyer: Guten Tag, Frau Bauer.



[구우텐]+[타아크] # [플라우]+[바우어].

/구우텐/ /타악/ /플라우/ /바우어/.

{ 좋은 날, 플라우 바우어. }

⇒ 안녕하세요, 바우어 여사님.

(7) Frau Bauer: Guten Tag, Herr Me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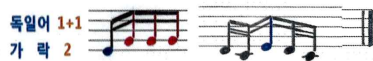
[구우텐] + [타아크] # [해어 마이]+ [어].

/구우텐/ /타악/ /해어/ /마이어/.

{ 좋은 날, 해어 마이어. }

⇒ 안녕하세요, 마이어 선생님.

(8) Herr Meyer: Wie geht es Ihnen?



[비이 게엘] # [애스 이이넨] ?

/비이//게엘//앓//이이넨/?

{어떻게 지내십니까, 당신은?}

⇒ 어떻게 지내십니까?

(9) Frau Bauer: Mir geht es gut.



[미어게엘] # [애스 구우트].

/미어//게엘/ /앓/ /구울/.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잘.}

⇒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Und Ihnen?



[운트] # [이이넨]

/운트/ /이이넨/?

{그런데 당신은?}

선생님은요?

(10) Herr Meyer: Danke, mir geht es auch gut.



[당개][췌] # [미어게엘]+[애스아우흐] + [구우트]

/당개/ /미어//게엘//앓//아우흐/ /구울/.

{고맙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저 역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3친한 친구 사이의 헤어질 때 인사말.....

(11) Klaus: Auf wiedersehen, Monika.
 독일어 2+1
 가 락 3



[아우프]+[비이더세엔] #[모오니카].
 /아우프/ /비이더세엔/ /모오니카/.
 { 잘 가, 모오니카. }
 ⇨ 잘 가, 모오니카.

(12) Monika: Tschüs, Klaus.
 독일어 1+1
 가 락 2



[취쓰] #[클라우쓰]
 /취/ /클라우쓰/
 { 안녕, 클라우쓰. }
 ⇨ 안녕, 클라우쓰.

4일상적인 인사말

(13) 아침인사: Guten Morgen.
 독일어 1+1
 가 락 2



[구우텐]#[모르겐].
 /구우텐/ /모르겐/.
 { 좋은 아침. }
 ⇨ 안녕. 안녕하세요!

(14) 저녁 인사: Guten Abend.
 독일어 1+1
 가 락 2



[구우텐]#[아아벤트].
 /구우텐/ /아벤트/.
 { 좋은 저녁. }
 ⇨ 안녕. 안녕하세요!

(15) 밤 인사: Gute Nacht.
 독일어 1+1
 가 락 2



[구우태나하] #[트].
 /구우태/ /나하트/.
 { 좋은 밤. }
 ⇨ 안녕.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강세 언어인 {프랑스어}의 **운율도 리듬**을 타고 아름답게 흐릅니다.”

[제1과] Bonjour, Mademoiselle ! : 안녕하세요, 아가씨!

볼 어 1+2
가 락 3

[봉수호] # [마드므와]+ [샬르]
/봉수호/ /마드므와샬르/

1격식을 차려서 인사할 때.....

(1) Monsieur: Bonjour, Mademoiselle !

볼 어 1+2
가 락 3

[봉수호] # [마드므와]+[샬르]
/봉수호/ /마드므와샬르/
{ 안녕하세요, 아가씨! }
아저씨 ⇨: 안녕하세요, 아가씨!

(2) Mademoiselle: Bonjour, Monsieur !

볼 어 1+1
가 락 2

[봉수호] # [므씨외]
/봉수호/ /므씨외/
{ 안녕하세요, 아저씨! }
아가씨 ⇨: 안녕하세요, 아저씨!

(3) Monsieur: Comment allez-vous ?

볼 어 2+1
가 락 3

[꼬망] [알레] # [부] ?
/꼬망/ /알렐/ /붓/?
{ 어떻게 지내십니까, 당신은? }
아저씨 ⇨: 어떻게 지내십니까?

(4) Mademoiselle: Je vais très bien, merci.

볼 어 2+1
가 락 3

[스 배] [트해비앙] # [매흐씨].
/스//뵈/ /트햐//비안/ /매흐씨/.
{ 저는 지냅니다, 매우 잘. }
아가씨 ⇨ 저는 매우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Et vous ?

볼 어 1
가 락 1

[에 부]
/엘//붓/?
{ 그런데 당신은요? }
당신은요?

(5) Monsieur: Bien, merci.

볼 어 1+1
가 락 2

[비앙] # [매흐씨]
/비안/ /매흐씨/.
{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
아저씨 ⇨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2 친한 친구사이의 인사말.....

(6) Paul: **Bonsoir, Sophie !**



[봉쓰와흐] # [쏘피]
/봉쓰와흐/ /쏘피/
{안녕, 소피! }

뿔 ⇨ 안녕, 소피!

(7) Sophie: **Bonsoir, Paul !**



[봉쓰와흐] # [뿔]
/봉쓰와흐/ 뿔/
{ 안녕, 뿔! }

쏘피 ⇨ 안녕, 뿔!

(8) Paul: **Comment vas-tu ?**



[꼬망] # [바 뽀]
/꼬망/ /뽀/뽀/?
{어떻게 지내니, 너는? }

뿔 ⇨ 어떻게 지내니?

(9) Sophie: **Très bien, merci.**



[트해비양] # [매흐씨].
/트했//비안/ /매흐씨/.
{매우 잘 지내, 고마워. }

쏘피 ⇨ 매우 잘 지내, 고마워.

Et toi ?



[에 뜨와]
/엘//뜨와/?
{그런데 너는? }

너는?

(10) Paul: **Bien, merci.**



[비양] # [매흐씨]
/비안/ /매흐씨/.
{잘 지내, 고마워. }

뿔 ⇨ 잘 지내, 고마워.

3 묻고 대답하기.....

(11) Paul: Est-ce que vous êtes Coréen ?



[애쓰꼬][부셀] # [꼬헤] [앙]
/엡//쓰//꼬/ /붓//에똥/ 꼬헤안/?

{입니까? 당신은 한국인 ?}

뽀 ⇨: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12) Sophie: Oui, c'est ç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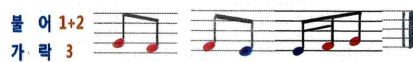
[위] # [싸 싸]

/위/ /뽀//싸/

{예, 그렇습니다.}

쏘피 ⇨: 예, 그렇습니다.

(13) Paul: Comment vous appelez-vous ?



[꼬망] # [부 사] [뽀레부]

/꼬망/ /붓//아뽀렝/ /붓/

{어떻게 당신 자신은 불립니다?}

뽀 ⇨: 당신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14) Sophie: Je m'appelle Sophie.



[스마뽀] # [쏘피]

/스//므//아뽀 쏘피/

{내 자신은 불립니다, 쏘피라고.}

쏘피 ⇨: 제 이름은 쏘피입니다.

(15) Au revoir !



[오흐브와흐]

/오//흐브와흐/

{안녕히 가세요!}

⇨: 안녕히 가세요!

“‘한중일’ 3종 언어의 리듬과 운율 형성 과정 연구”에 대한 토론문

오재혁(건국대학교)

1. 이 글은 ‘한중일’ 3종 언어의 리듬과 운율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본문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론에서 짧게 언급하신 모든 언어는 ‘심리적 음절→물리적 음절→음절박→리듬꼴→운율형’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으로 세 언어의 운율 형성 과정을 동일하게 보고 계신지 여쭙니다.
2. 제시된 문장의 운율을 분석하여 오선지 위에 음표로 나타낼 때, 음길이, 음높이, 음세기 등의 음향음성학적인 특징은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운율 분석 결과가 물리적 소리로 복원할 수 있는 악보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 문장(말소리)의 음성학적인 특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3. ‘리듬파’의 개념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제어의 연구사적 재검토

서 엽(이화여자대학교)¹⁾

1. 머리말	4. 백제어 연구의 발전기
2. 백제어 연구의 맹아기	5. 백제어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3. 백제어 연구의 초창기	6. 맺음말

1. 머리말

百濟(18 B.C.~660)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심장부, 한강변에 왕도를 정하고 대외적인 왕래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치, 문화적으로 성장하여 발달했던 진취적인 나라였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삼국 중 백제 문화는 高句麗(37 B.C.~668), 新羅(57 B.C.~668)와 다른 독특한 성격과 양상을 가지면서 발전하였고, 주변에 있는 東晉(317~420) 및 南朝(420~589)²⁾ 시기의 중국 대륙, 飛鳥時代(593~710)의 일본열도와도 교섭과 교류 면에서 가장 활발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나라이었다.

백제의 언어란 고대시기에 한반도의 정치사적인 구분에 부합한 한 정권인 백제라는 국가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가리킨다. 백제의 언어와 관련된 시공간 범주는 근본적으로 한국 역사학계의 통설로 된 백제의 정치사에 근거하여 기원전 18년부터 멸망할 때 660년까지와, 漢江 流域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에 西南部에 해당한다.

백제의 언어에 대한 역사적인 변화는 백제 정권이 지니는 사회의 변동, 인구의 이주, 문화의 교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제 정권의 기원에 대해서는 高句麗 기원설, 馬韓 기원설, 卒本扶餘 기원설, 夫餘 기원설 등 여러 견해가 있다. 백제 사회제도에 변화에 따른 백제의 시기 구분³⁾은, 李基東(1996:36-61, 2007)과 梁起錫(2013: 290-356)의 의하면 邑落이 사회편제단위가 된 初期 百濟 時期 [~3세기 중반(沙伴王)], 사회편제단위가 읍락에서 城(村)으로 변화는 過渡期로서의 部體制段階 [3세기 중반(古爾王)~4세기 전반(比流王)], 城(村)이 사회편제단위가 된 漢城都邑期 [4세기 전반(近肖古王, 346-375)~蓋鹵王 21년(475)], 城(村)에서 자연촌으로 사회편제단위가 바뀌는 과도기인 熊津都邑期(475-538), 자연촌이 사회편제단위가 된 泗泚都邑期 [聖王 16년(538)~義慈王 20년(660)], 후백제 부흥운동기(660년 8월~664년 2월)로 구분한다. 언어가 정치, 사회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은 백제사 연구의 발전과 학제적인 공동 연구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 논문은 China Scholarship Council(CSC, File No.201408260023)의 장학금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2017년 7월 18-19일에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열린 韓漢언어학국제심포지움(ISSKL)에서 발표한 'A historical review on the phonological studies of Baekje language'라는 원고와 PPT 내용을 다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귀중한 조언을 주신 Zev Handel 선생님, 嚴翼相 선생님, 李承宰 선생님, 林智凱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본고에 남아 있을 모든 문제는 필자에게만 기인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2) 중국 南朝 시기는 역사학적으로 劉宋(420~479), 蕭齊(479~502), 蕭梁(502~557), 陳陳(557~589)으로 구분한다.

3) 李基東(1996: 11-12)에서는 백제사의 역사를 수도의 위치를 기준으로 제1기 한성시대(前期) B.C.18~369; 제2기 한성시대(後期, 마한통일) 369~475; 제3기 웅진시대 475~538; 제4기 사비시대 538~660 모두 네 시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백제 인구의 이주와 변화는 한반도 본토에 있는 遷都에 따른 변화를 제외하면 日本 列島 이주와 백제유민의 入唐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백제인들의 일본 열도 이주와 교류는 제 1기(4세기 후반~5세기 중엽)의 생산기술자의 이주 시기, 제2기(5세기 후반~6세기 후반)의 문물교류의 제도화 시기와 제3기(7세기 후반 백제 멸망 이후)의 백제 유민의 대거이주 시기로 구분된다. 이 중에 백제 유민의 대거이주 시기는 백제 멸망과 백제부흥운동 실패로 인해 백제 流亡人들이 일본 열도에 망명하여 대규모 이주가 행해지는 시기로서, 일본열도 내의 九州지역과 近畿지역을 중심으로, 멀게는 中國·四國 지역, 東海·關東·東北 지역까지 이주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入唐한 백제유민들은 약 12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史實과 중국 西安과 洛陽에 산재하여 있는 扶餘隆, 黑齒常之, 黑齒俊, 難元慶, 禰寔進의 墓誌石 등을 통하여 보면 백제의 언어 자료와 분포는 인구의 이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백제의 문화 교류를 말하자면, 漢城에서 熊津으로 천도한 이후 백제의 문화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백제는 중국 南朝와 긴밀한 교류 관계를 가지면서 南朝 문화를 적극 수용하였다. 佛教, 儒教, 道教를 매개로 하여 중국의 선진문물이 대거 백제에 유입되었고, 불교는 본격적으로 熊津 시기에 융성하였다. 한편 백제는 造寺工, 瓦博士, 畫師, 露盤博士 등 불교관련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일본 飛鳥時代의 불교 진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한자는 문화 전파의 수단이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적 문자로서 그 위치를 확보하기에 이르렀고, 주변 여러 나라는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문화 매개체로 활용하였고 본국의 언어와 문자 생활에도 가미하였다. 백제는 熊津·泗泚로 천도한 이후 南朝 梁(502-560)부터 毛詩博士, 講禮博士 등 지식인과 工匠과 畫師 등을 비롯한 기술자들을 수용하였다. 이 시기에 백제 문화는 일본 열도에도 많이 전해졌다. 그 분야는 佛教나 儒學부터 직조 기술, 기와 제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또 五經博士 등 儒學者와 曆博士, 易博士, 露盤博士, 瓦博士, 造寺工, 造佛工 등의 기술자들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에 의해 백제의 언어는 중국 대륙, 일본 열도와의 문화 수입과 수출을 통하여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제어의 연구는 언어학적인 연구는 물론이러니와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지리학, 언어지리학, 사회언어학 등 인접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백제는 역사학적으로 중국 대륙과 일본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국 대륙, 한반도, 일본열도에 산재하여 있는 백제어를 보여주는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백제어의 음운연구는 타당성이 있다. 우선 백제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연구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어의 음운 연구에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본고의 직접적인 목적이고, 한반도 언어 계통론 연구의 일부로서 韓系 언어 연구의 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기울이는 것이 본고의 간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어의 연구사는 거시적으로 한국 본토 및 주변 나라의 백제 사학 연구사의 한 분야로서 백제학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백제어의 연구사를 한국 백제학⁴⁾의 연구

4) 현대에 들어와서 백제학의 중심지인 한국 본토의 백제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노중국(2010:25-29)에 의하면 1980년 이래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삼한시기까지 포함하면 24명 정도이며,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수는 12명 정도이다. 백제사 연구에 관한 대학 부설 연구소와 민간기관은 신라사, 고구려사, 가야사, 발해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또 그 활동도 활발하다. 대학 연구소로는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 등이 있고 민간연구기관으로는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이다. 그리고 이 연구 기관들에서 이러한 종합 및 정리 작업의 성과를 가지고 종합 정리서를 출간하였다. 또 획기적인 발굴들은 시간 구분에 따라서 주로 1950~1960년대에 발굴된 砂宅智積碑와 瑞山 磨崖三尊佛, 1970~1980년대에 발굴된 武寧王陵과 益山 笠占里 古墳의 金銅冠, 1990년대에 발굴된 扶安 竹幕洞 祭司遺蹟, 陵山里 寺址의 百濟金銅大香爐, 鎭川 石帳里 古代鐵 生産 遺蹟, 羅州 伏岩里

사를 기준으로 하여 백제어의 연구사적인 특징에 따라서 맹아기(The Embryonic Phase, 1879~1970), 초창기(The Start-up Phase, 1971~2012)와 발전기(The Development Phase, 2013~현재)로 나누고 백제어를 연구하는 학자, 사용한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연구 성과, 그리고 학계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2. 백제어 연구의 맹아기(1879~1970)

백제어 연구의 濫觴은 한국과 일본 고대사의 연구(특히 한반도 고대 지명의 연구)와 한국어와 일본어 언어의 비교 연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중에 한국과 일본의 고대 지명, 왕명, 관직명을 포함한 고유명사의 연구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료인 『日本書紀』, 『三國史記』 등에서 남아 있는 한반도계 고유명사(proper noun, proper name)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연구를 비롯하여 백제어의 연구를 꿰뚫어볼 수 있는 것.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백제어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 연구와 한국어와 일본어 비교 연구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현대 비교언어학적인 연구는 19세기 중엽에 핀란드 언어학자의 논문 Castrén(1857)에 의한 ‘Altaisch’ 이 구성되면서 정치, 경제, 종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동양에 진출한 서구의 외교관, 선교사 등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우랄-알타이어족에 결부시킴으로써 한일어의 계통론에 대한 연구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⁵⁾. 최초⁶⁾의 한국어와 일본어 비교 연구로서 영국의 외교관이자 언어학을 전공하는 Aston(1879)의 논문인 ‘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는 明治 후기부터 일본 사학자와 언어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일본어의 계통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연구가 성행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 일본어의 ‘島·嶋’ 가 한국어와 ‘m: m’ 의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예를 설명하였다. 한일어의 비교 연구는 이 후에 나타난 고대 한국어와 일

古墳群, 百濟昌王銘 石造舍利龕, 2000년대에 발굴된 公州 水村里 古墳群 등에 있는 金銅冠들과 扶餘王興寺址 舍利器, 그리고 1990년대에 백제사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木簡 자료들, 한성도읍기의 풍납토성 등이 있어, 이들 자료가 풍부한 백제사 연구를 추동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백제학 연구 현황은 周裕興 외(2007:106-114)에 의하면 중국의 백제학 연구를 제1단계인 개시기(중화인민공화국~1980년대)와 한중 수교 이후에 한 급속한 발전기(1992년 이후) 전후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 전영 외(2016:71)에 의하여 1949~1978년은 중국 백제학 연구의 첫 단계로 백제학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시대적인 요소의 제한 때문에 중국에서의 백제학 연구는 침체기에 들어섰고, 1978~2000년은 두 번째 단계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백제학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이후 연구의 기초가 되었고, 2000년 이후 백제학의 연구는 수적, 질적인 큰 발전을 이루어 많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하였다.

5) 小倉進平(1940)의 『朝鮮語學史』와 河野六郎(1964)의 『日本に於ける朝鮮語研究史概觀』에 의하면 일본에서 江戸時代부터 이미 한일어의 비교 연구가 있었고 한일 한자음의 비교 연구도 포함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를 예를 들면 契沖(1699)의 『圓珠庵雜記』, 貝原益軒(1700)의 『日本釋名』, 寺島良安(1713)의 『和漢三才圖會』, 新井白石(1717)의 『東雅』, 新井白石의 동문인 雨森芳洲의 『韻略諺文』(?), 『酬酢雅言』(?), 『全一道人』(1729), 『交鄰須知』(1705-1707), 藤井貞干(1781)의 『衝口發』, 小田菅(1794)의 『象胥紀聞拾遺』, 太田全齋(1815)의 『漢吳音徵』와 『音徵不盡(1815)』, 黒川春樹(1862)의 『音韻考證』 등이 있다.

6) 金敏洙(1964: 238)에 의하면 서양인의 언어학적인 연구보다 그 이전 朝鮮 高宗은 1872년에 對馬島 嚴原에 새로 朝鮮語學所를 설치하였고 이후에 부산으로 옮겼었다. 1880년에는 東京外國語學校에 朝鮮語科를 설치하여 동역을 양성하였다. 1903년에는 古書蒐集과 韓國研究에 뜻을 같이하는 일본인들이 한국연구회를 조직하고, 월례회식과 강연에 「談話錄」을 간행하기도 하였고 學部顧問인 幣原坦, 留學生인 金澤庄三郎, 漢城高等學校 學監인 高橋亨, 乙未義塾長인 鮎貝房之進, 公使館 通譯官인 前間恭作, 統監府法務院 淺見倫太郎 등이 그 회원이었다.

본어의 지명, 왕명, 관직명을 포함한 고유명사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학적인 연구부터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고대사 연구는 대표적으로 사학자인 白鳥庫吉(しらとり くらきち, 1865~1942)부터 시작했다. 白鳥庫吉이 일본 상고시대의 문헌에 나타나는 고유명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고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해석을 통하여 언어 고증적인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白鳥庫吉(1895-1896)은 고대 한국의 국명과 지명을 중심으로, 白鳥庫吉(1896)은 고대 한국의 왕명과 관직명을 중심으로, 白鳥庫吉(1897)은 『日本書紀』에 나오는 고유명사에 대한 漢語 풀이를 우랄-알타이어와의 비교로 고증하였고, 더 광범하게 白鳥庫吉(1898)은 『萬葉集』, 『日本書紀』, 『古事記』 등에서 수집한 200여의 어휘를 발굴하여 비교 연구를 시도했다, 더 나아가 白鳥庫吉(1900)은 중국사를 중심으로 시도하였다⁷⁾. 白鳥庫吉의 제자로서 津田左右吉(つだ そうきち, 1873~1961)는 엄격한 문헌 비판 방법을 운용하여 일본의 고대 사료인 『古事記』와 『日本書紀』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三國史記』에 나타난 虛構한 紀事に 대해서 많이 비판하였고 특히 百濟王의 系譜에 관하여 『三國史記』보다 『日本書紀』의 기록이 더 옳다고 주장하였다. 津田左右吉(1913)⁸⁾에는 『三國史記』 地理志에 나타난 高句麗, 百濟, 新羅 지명을 현재 한반도에 지명에 비정한 후 각각 지도에서 표시하여 도식화하였다. 이 밖에 『三國史記』 地理志에 실려 있는 古地名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지명학적인 연구는 申田薰(1905), 和田雄治(1914), 幣原坦(1924), 坪井九馬三(1923-1924), 松島惇(1926), 三品彰英(1935, 1936), 川崎繁太郎(1935), 今西龍(1936), 朝鮮總督府中樞院(1940), 井上秀雄(1962), 村山七郎(1963), 酒井改藏(1970) 등을 들 수 있다⁹⁾. 이후의 한국인 학자의 연구는 李弘植(1954), 辛兌鉉(1961)¹⁰⁾ 등을 포함한다.

이 시기에 백제계의 고유명사를 포함한 고대 한국과 일본의 고유명사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는 大矢透(おおや とおる, 1851-1928)를 비롯하여, 언어학자인 金澤庄三郎(かなざわ しょうざぶろう, 1872~1967)의 한국 고대 지명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金澤庄三郎(1912), 金澤庄三郎(1929/1943), 金澤庄三郎(1952) 등을 포함한다¹¹⁾. 韓日合邦(1910) 이후 朝鮮總督府의 通譯官으로서 前間恭作(まえまきょうさく, 1868~1941)은 前間恭作(1925)에서 일부 고대 新羅, 百濟, 高句麗의 지명 연구에 보충하여 고증하였다¹²⁾. 鮎貝房之進(あゆかい ふさのしん, 1864~1946)은 1931년부터 1938년까지 대표적인 업적인 『雜攷』 9 輯을 출판하였는데¹³⁾, 그 중 제2집 『日本の韓·新羅·任那·百濟·高麗·漢·秦等の古訓に就きて』, 제3

7) 白鳥庫吉(1895-1896)은 “朝鮮古代諸國名稱考”와 “朝鮮古代地名考”를 포함하고, 白鳥庫吉(1896-1897)은 “朝鮮古代地名考”이고, 白鳥庫吉(1898)은 “日本の古語と朝鮮語との比較(日本の古語와 韓國語와의 比較)”, 白鳥庫吉(1900)은 “漢史に見えた朝鮮語(漢史에 보인 韓國語)”, 白鳥庫吉(1905-1906)은 “韓語 城邑의 稱號인 忽(kol)의 原義에 대하여”이다.

8) 津田左右吉(1913)은 白鳥庫吉가 監修한 『朝鮮歷史地理』이다.

9) 申田薰(1905)는 “韓國古代村邑の稱呼に就いて”이고, 和田雄治(1914)는 “曾尸茂梨’に伽耶山たるの新説”이고, 幣原坦(1924)는 “曾尸茂梨及び熊城に就いて”이고, 坪井九馬三(1923-1924)는 “三韓古地名考(1/2/3)”을 포함하고, 松島惇(1926)은 “阿利水及阿利那禮河に就いて”이고, 三品彰英(1935)는 “久麻那利考”(上/下)이고, 川崎繁太郎(1935)는 “朝鮮地名の變遷に就いて”, 今西龍(1936)은 『百濟史研究』, 朝鮮總督府中樞院(1940)은 “內鮮一體懷古資料 朝鮮の國名に因める名詞考”이고, 井上秀雄(1962)는 “古代朝鮮の文化境域”이고, 村山七郎(1963)은 “高句麗語と朝鮮語との關係に關する考察”이고, 酒井改藏(1970)은 “三國史記の地名考”이다.

10) 李弘植(1954)은 “百濟人名考”이고 辛兌鉉(1959)는 “三國史記 地理志의 研究”이다.

11) 金澤庄三郎(1912)은 “日鮮古代地名の研究”, 金澤庄三郎(1929/1943)은 “日鮮同祖論”이고, 金澤庄三郎(1952)는 “朝鮮古地名의 研究”이다.

12) 前間恭作(1925)는 “三韓古地名考補正”이다.

13) 第1輯은 「新羅王位号並に追封王号に就きて」이고, 第2輯은 「日本の韓·新羅·任那·百濟·高麗·漢·秦等の古訓に就きて」(上卷/下卷.)이고, 第3輯은 「俗字攷附俗訓字·俗音字」이고, 第4輯은 「花郎攷」이고, 第5輯과 第

집 『俗字攷附俗訓字·俗音字』, 제7집 『日本書紀朝鮮地名攷』, 제8집 『姓氏攷及族制攷』에는 백제어에 관련된 국명, 지명, 인명의 차자표기를 자세히 고증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이는 후학들의 연구에도 큰 영형을 미쳤다.

金澤庄三郎의 계승자이자 한국어 언어학의 선구자인 小倉進平(おぐら しんぺい, 1882~1944)의 小倉進平(1920) 제5장 ‘國語朝鮮語の詞彙比較研究資料’, 小倉進平(1928), 小倉進平(1934), 小倉進平(1935), 小倉進平(1940), 小倉進平(1943)에는 백제어와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¹⁴⁾ 특히 小倉進平(1940)은 『日本書紀』에 나타난 고대 한국어를 ‘외래어’로 파악하고 고대 한국어 어휘, 한국어와 일본에서 공통적인 어원을 가진 어휘, 한국어에서 차용된 어휘로 분류하며 그 용례를 제시한 뒤 몇몇 어휘에 대해 언급하였다. 二次 世界大戰 이후 小倉進平의 제자로서 河野六郎(こうの ろくろう, 1912~1998)은 이 시기에 고대 한일어의 관계에 대하여 河野六郎(1949)에서 한자 ‘山’의 고대 한국어 훈독과 고대 일본어의 훈독을 중심으로 양 언어의 음운적인 대응을 발견했고, 河野六郎(1967)에서 한자 ‘城, 山, 主, 帶, 郡, 寺, 熊, 島’의 고대 한국어 훈독과 고대 일본어의 훈독을 중심으로 고대 한국어는 일본어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을 추측하였다. 그리고 『日本書紀』에 남아 있는 韓系語를 모두 어떤 한 언어로부터 가져왔다고 할 수 없을 듯한데, 대체로 아마도 백제어가 그 다수를 점유하고 있음에 틀림없고 百濟의 이중적인 언어성도 그 안에 약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日本書紀』의 韓系語가 후대의 한국어로 이어지는 이유는 韓民族의 언어가, 후대 한국어의 선조인 신라어와는 방언적 차이를 지니면서도 동일한 언어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¹⁵⁾.

이어서 일본어 학자의 연구인 馬淵和夫(1960)는 『日本書紀』에 나타난 百濟, 任那, 新羅와 高句麗를 포함한 한국 고유명사 표기에 쓰인 音假名 중 一音一字 開音節 표기에 쓰인 音假名을 추출하여 推古遺文에 쓰인 音假名과 비교하였고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日本書紀』를 편찬할 때 참조한 「百濟本紀」를 포함한 百濟三書의 외국 문헌의 표기나 문서 등을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 당시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표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木下禮仁(1961a)¹⁶⁾는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史料에 나타난 고유명사에 쓰인 音假名 58자를 정리하였고 推古遺文, 「佛足石歌碑」, 『風土記』, 『萬葉集』 등 상대 일본어 자료에 쓰인 音假名과 비교하였고 7세기 초인 推古기에 성립되었던 推古遺文의 音假名과 많은 일치점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木下禮仁(1961b)는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三書에 나타난 고유명사에 쓰인 音假名을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타난 百濟 인명 음차 표기자 40개와 대조하였으나 일치한 음차 표기자는 10개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大野透(1962)는 百濟史料에 나타난 고유명사를 제외한 『日本書紀』가 한국 고유명사에 쓰인 音假名 230개를 제시하고 그 중에 상대 일본어 자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였던 音假名인 常用假名 및 準常用假名이 총 94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고 한국 고유명사에 쓰인 音假名은 58%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6輯은 「俗文攷 附書年月日例」(上編/下編)이고, 第7輯은 「日本書紀朝鮮地名攷」(上卷)과 「日本書紀朝鮮地名攷」(下卷/続)을 포함하고, 第8輯은 「姓氏攷及族制攷」이고 第9輯은 「奴婢攷」이다.

14) 小倉進平(1920)은 “國語及 朝鮮語のため”이고, 小倉進平(1928)은 “日本語와 韓國語와의 系統的 關係에 대하여”이고, 小倉進平(1934)는 “韓國語と日本語”이고, 小倉進平(1935)는 “韓國語の系統”이고, 小倉進平(1940)은 “日本紀における外來語研”이고 小倉進平(1943)은 “言語と文學の上から見た内鮮關係”이다.

15) 河野六郎(1949)는 “日本語と朝鮮語の二三の類似”이고, 河野六郎(1967)은 “古代の日本語と朝鮮語”이다.

16) 木下禮仁(1961a)는 “日本書紀にみえる百濟史料の史的價値について”이고 木下禮仁(1961b)는 “百濟史料についての一整理”이다.

이 외에 한국어와 일본어 한자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언어학자인 滿田新造(みつたしんぞう, 1926)의 「朝鮮漢字音と日本吳音との類似點に就て—朝鮮に於ける字音傳來経路」는 한국 한자음과 일본 吳音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한반도에서의 한자음 전래는 시대를 달리 하여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어떤 시기에 전래된 것은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그 일부가 일본에 넘어와 上古音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다른 시대의 것은 대체로 일본에 전래되어 吳音으로 보존되고 한반도에서는 일부분만 유지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 백제계 고유명사의 연구를 포함한 한국인 학자의 언어학적인 연구는 李崇寧(1946), 梁柱東(1968), 朴炳采(1968)¹⁷⁾ 등이 있다.

3. 백제어 연구의 초창기

가. 초창기 (1971-2012)

백제의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대체적으로 20세기 70년대부터 『百濟研究』, 『百濟文化』와 『馬韓百濟文化』의 창간을 한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고고학계의 추동력을 말하자면 1971년에 한국 公州 지역에 있는 武寧王陵의 발굴 및 1972년에 일본 奈良 지역에 있는 高松塚古墳(たかまつづかこふん)의 발굴과 큰 관련이 있다. 초창기에 백제어의 연구는 백제 역사학, 고대 지명학, 한국어와 일본어 비교언어학, 한국어와 일본어의 고대 한자음학, 백제 金石文 및 木簡 연구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 논문이나 전문 저서는 삼국 시기에 다른 언어들의 연구보다 양이 적었지만 지속적으로 나와 있었고 서설형 연구, 『三國史記』地理志를 중심으로 한 연구, 『日本書紀』를 중심으로 한 연구, 中·韓·日자료를 종합적으로 한 연구, 百濟 金石文과 木簡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구분된다.

나. 서설형 연구

서설형 연구의 특징은 20세기 60년대 말부터 백제어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나 연구 방향을 탐색적으로 제시했거나 단편적으로 어떤 특정한 百濟 지명을 중심으로 연구하기가 시작하였다. 본고는 간략하게 무게가 있는 李崇寧(1971), 趙載勳(1973), 姜吉云(1977, 1978, 2012), 李基文(1982a, 1982b, 1991), 崔起鎬(1994, 1995, 2004), 姜憲圭(1996), 정원수(2001)을 소개하고자 한다.

李崇寧(1971)은 그 이후 李基文(1982b:254)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백제어 연구 과제에 첫 안내자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백제어의 영역 문제의 중요성, 백제어와 신라어 간의 방언적인 차이성, 백제어도 tone-language로서의 특성, 모음조화의 존재 가능성, 백제어의 일부 어휘가 방언 지역의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 어휘들과의 관련성 등 여러 견해들이 그 이후에 백제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중세한국어로 해석이 가능한 몇 개의 충청도 고 지명에 대하여 어간형성을 설명하였으며 일부의 지명 용자례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제어의 연구는 북방 언어와의 비교언어학적인 연구와 언어지리학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17) 李崇寧(1946)은 ‘言語 研究에서 본 人名攷’이고, 梁柱東(1968)은 ‘國史 古語彙 借字原義攷’이고, 朴炳采(1968)은 ‘古代三國의 地名語彙攷’이다.

趙載勳(1973)은 백제어의 형성, 현존 자료, 연구 방법 등 여러 면에서 더욱 상세하고 엄밀하게 구축하였다. 먼저 백제어의 형성에 대하여 ‘[남방계+북방계]+중국어’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었고, 백제어의 현존 자료에 대하여 주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있는 官名, 人名, 城名 및 山川名, 寺刹名, 地名을 묶어서 그들의 특성에 대하여 몇 용자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엄밀하게 재검토하였고, 백제어의 연구 방법에 대하여 주로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 고구려어 및 신라어와의 비교와 분석, 알타이어제어와 비교 연구, 百濟 고토의 방언 연구, 옛 百濟 지역의 지명 연구, 百濟 한자음의 연구, 백제사 연구와의 종합 등을 제안했고 이에 관한 여러 한계성도 지적하였다. 또 그 당시까지 백제어에 관련된 한국 내외의 저서와 논문을 총 정리를 하였다.

姜吉云(1977)은 백제어의 연구에 다른 학자들과 달리, 百濟의 發祥地와 版圖問題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백제어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어에 연구를 개입시킬 필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전기 백제어에 대해서는 복수언어이며 지배층은 주로 몽골계 언어를, 피지배층은 투르크계 언어를 사용하였던 것이 확실하였고 언어 저층에 통구스계 언어가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말기 백제어에 대해서는 지배층인 몽골계 高句麗 족의 언어와 피지배층인 투르크계의 한계족의 언어와 二元적인 언어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통구스계 언어와 대응되는 백제어들은 지배층 자체가 통구스어족과의 混成으로 말미암아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선주민족인 古朝鮮族¹⁸⁾ 등이 통구스계였기 때문일 것으로 주장하였다. 姜吉云(1978)은 다시 말기 백제어를 검토하였고 특히 백제어,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등과의 비교어휘표를 만들었고 피지배층인 투르크계의 한계 언어가 훨씬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Vovin(2015: 31-32)에서 계통적 관련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적인 계열적 형태론과 기본 어휘에 있어서 언어 A와 언어 B 사이의 규칙적 대응을 증명하는 비교 방법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에 의하면, 이 두 논문은 비교언어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등과 비교하면서 알타이어제어와의 상호관계와 음운대응 규칙을 밝히는 것을 보면 아주 모험적이고 자의적인 견해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李基文(1982a/1982b/1991)은 백제어의 연구 자료인 『三國史記』 地理志 卷 三十六은 이차적인 자료로서(卷 三十七은 일차적인 자료이지만 百濟 지명 표기의 양이 아주 적다) ①본래의 百濟 지명과 ②新羅 景德王의 개명과 ③고려의 今名이 제시되어 있는데 ①과 ②의 대

18) 古朝鮮族 언어에 관한 기술은 중국 漢나라 시대 揚雄(BC53-AD18)의 《方言》중에 北燕, 朝鮮, 洌水에 대한 기록이 남았다. 이연주(2008:45, 2009:462)는 고대한국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北燕 朝鮮 洌水 지역의 어휘들은 古朝鮮의 어휘들로 추적되며 또한 고구려어의 祖語일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현존하는 高句麗 어휘가 극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어휘들은 古朝鮮이나 高句麗의 언어와 문화 및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小倉進平(1940:3)의 견해는 이와 달리 “As to investigation by the Chinese, YANG Hsiung 揚雄 of the Han dynasty, in his Yang-tzu fang-yen 揚子方言 records what he calls the dialect of the region along the Retsu River 列水 in Korea: However, the words discussed are by no means genuine Korean, but a collection of the Chinese dialect words used in the region.”라고 주장하였다. 《方言》에 관한 중국측의 연구 성과를 보면 周振鶴, 游汝杰(1986:87)에 의하면 《方言》와 《说文》에 나타난 언어자료는 漢語의 방언이 아니고 少數民族인 ‘东齐青徐之夷、羌狄、瓠、东胡’나 ‘朝鮮、南越、匈奴’의 언어일 가능성이 있다. 華學誠(2014:092)의 연구에 의하면 《方言》에 나타난 北燕 方言은 총 47 획, 朝鮮 方言은 총 27 획, 洌水 方言은 총 22 획이고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51 획이다. 華學誠(2014:086)은 揚雄이 漢語의 方言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 소수민족의 어휘를 기록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漢語의 기층(substratum)이거나 차용어(borrowing)로 간주하면 더 타당하고 《方言》에서 漢語와 다른 소수민족언어를 구분하는 것이 揚雄의 著書 목적과 위배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에 입각한 백제어 단어의 재구는 ②의 성격의 模糊性으로 하여 방법론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고 ③까지 동원하는 경우에는 더 큰 모험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卷三十六을 이용하기 전에 ①②③의 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音相과 意味를 검토하거나 地名, 人名, 官名에 대하여 重出한 복수 대응을 이용하는 것은 더 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일차적 가치를 지닌 증거 자료로 고대 百濟의 疆域에 속했던 지역의 역대 방언으로서 하나는 이런 방언에 대한 옛 문헌 기록들(光州版 『千字文』, 日本 大東急記念文庫本 『千字文』), 다른 하나는 오늘의 방언에 있는 化石화된 고대 백제어의 흔적, 또 이런 화석의 대표적 형태인 오늘의 俗地名들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고 또 고대 일본의 기록에 남아 있는 고대 백제어의 차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백제어 어휘와 고구려어나 신라어 또는 중세한국어에 있는 비슷한 音相과 의미를 지닌 단어들과 비교하는 것은 좋지만 백제어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를 중세한국어의 새김으로 읽는 것은 큰 맹점이라고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제어의 정의에 대하여 백제어의 통시적 연구는 불가능하고, 오늘날 주된 연구 대상은 바로 他二國의 언어와 대립하고 뚜렷한 성격을 갖추고 있는 후기 백제어라고 추측하였고 백제어 연구에서 알타이 제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와의 비교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결하여 가공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崔起鎬(1994)는 먼저 한국어의 계통설에 대하여 일본학자 坪井九馬三(1924-1925), 新村出(1927), 河野六郎(1945), 井上秀雄(1962)의 남방계(한계)와 북방계(부여계)가 있다는 학설을 고착시킨 한국학자 이기문(1961) 등의 경주말이 한반도 언어를 통일했다는 라티움 현상과 ‘신라어 근간설’, 일본학자의 주장을 맹렬히 비판한 북한의 학자 김병제(1961), 홍기문(1963), 김영황(1978), 류렬(1982, 1983), 김병제(1984), 김수경(1989) 등의 민족어 단일 기원설로서 ‘고구려어 근간설’ 두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여 高句麗는 193년 동안에 한강 유역을 지배하고 新羅는 251년 동안 지배한 반면 한강 유역을 500여 년 이상 다스리던 백제어가 고려 중앙어에 연결되고 중세한국어의 바탕을 이루며 근대한국어로 이어져서 오늘의 현대한국어가 되었다고 한 주장과 百濟가 지배하던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일부와 황해도 일부 방언은 모음과 자음 수에서 비슷하고 성조가 소멸되어 높낮이나 장단에서 유사성이 많다는 공통점을 근거하여 백제어가 한국어 형성에 큰 바탕이 되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최기호(1995)는 주로 백제어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의 『三國史記』, 『三國遺事』, 중국의 『梁書』, 『周書』, 『後漢書』, 『三國志』, 『史記』, 『漢書』, 일본의 『古事記』, 『日本書紀』 등에 있는 백제어에 관련된 기록을 소개하였고, 그리고 이런 문헌에 있는 왕명, 인명, 관직명, 지명에 관한 언어학적인 특징을 제시하였다. 또 김영황(1978)과 류렬(1989)에서 제시한 삼국 어휘 표기 구조상의 공통점을 근거하여 삼국의 언어가 계통적으로 같은 언어이며 미세한 부분에서 방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姜憲圭(1996)은 20세기말까지의 백제어 연구를 정리하였으며 연구사적인 업적으로 보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일본 학자들의 백제어 어휘 연구, 한국 학자들의 백제어 어휘와 백제어 기층어인 마한어 연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일본 학자에 대해서 주로 金澤庄三郎(1985)과 馬淵和夫(1978)의 연구 업적을 제기하였고 한국 학자는 도수희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사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바람직한 백제어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중국 고대사에 기술된 百濟 사료의 탐색, 百濟의 碑文, 기타 百濟의 遺物 등을 조사함으로써 백제어 연구 자료의 확보, 음운 및 통사 부분의 연구, 인접 분야를 전공한 한국사학자, 중국역사학자, 언어학자, 역사지리학자와의 긴밀한 공조 연구, 같은 분야의 전

공자들의 선공을 인정할 필요성, 대학의 유사연구소간의 협조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까지 ‘백제어의 언어’, ‘백제어’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된 문헌들의 목록을 발표 시기 순서와 일본과 한국의 국가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정원수(2001)은 다시 백제어의 형성과 계통에 대하여 일본 학자 新村出(にいむらいずる, 1916)에서 3, 5, 7, 10의 수사체계를 근거하여 주장한 고구려어와 원시 일본어 동계 언어 설을 반대하면서 고대 한반도 중부지역의 지명은 고구려어가 아니라 백제어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백제어 연구의 방법론과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 의식이 새롭게 부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Vovin(2005)에는 『三國史記』地理志에 나타난 지명을 언어 자료로서 한국어 차용어(loanword)와 원서자료(textual evidence)보다 믿음성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비판하고 여진어와 만주어에 있는 한국어 차용어와 형태론적인 유사점에 근거하여 고구려어에 있는 韓系語 특성을 추측하였다. 그리고 Kono(1987)와 Bently(2000)에서 논의한 백제어 어휘 중에 ‘韃吉支, 於羅瑕, 於陸, ハシカシ, サシ, 阿留之, オコシ, 阿利比志, 久麻, 俱知, 那禮, 山, 斯麻, コニ, 柯曾, 爾林, 己富里, シトロ’를 중심으로 비판하여 재검토하였고 「薯童謠」에 나타난 문법은 고대 한국어 문법이고 일본어족의 문법이라는 것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삼국 시대의 언어는 고구려 방언과 백제 방언을 포함한 고대한국어만 있었고 일본어족의 언어가 기층어로만 사용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다. 『三國史記』地理志를 중심으로 한 연구

이 시기에 백제의 국명, 지명, 인명, 왕명을 포함한 단편적인 등재 논문을 정리하자면 등재한 시간 순서대로 洪思俊(1970)에는 ‘大王浦’와 ‘古馬彌知縣’에 대하여, 林恩用(1972)에는 百濟建國 說話의 ‘百濟, 濫祚, 廣, 寬’에 대하여, 池憲英(1972, 1973)에는 ‘豆良尹城’, ‘産長山下’에 대하여, 김선기(1973)에는 ‘熊川, 伐音支, 加知奈, 珍惡山’, 李炳銑((1978)에는 ‘慰禮城과 百濟’에 대하여, Sasse(1982)에는 百濟地名에 나타난 ‘良’字에 대하여, 김주원(1982)에는 百濟 地名에 나타난 ‘己, 只’에 대하여, 菅原七(1982)에는 ‘百濟(くだら)’에 대하여, 李崇寧(1983)에는 百濟의 어휘에 나타난 ‘熊’자 지명과 인명 표기에 대하여, 趙法鍾(1989)은 百濟別稱 ‘鷹隼’에 대하여, 姜憲圭(1995)에는 백제 지명 ‘所比浦縣’에 대하여, 權在善(2002)에는 ‘곰배, 님배’에 대하여, 中嶋弘美(2011, 2012)에는 韓·日 地名語 比較의 觀點에서 三國史記 地理志의 百濟 地名語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馬淵和夫 外(1978)은 『三國史記』地理志에 나타난 백제 지명을 중심으로, 『三國遺事』 『鷄林類事』 『朝鮮館譯語』 『訓蒙字會』 『新增類合』 『龍飛御天歌』 등 자료와 결합하여 고증한 후에 차자표기자 중에 있는 語頭字, 語中音, 母音調和, 語末音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李炳銑(1983)은 中國 史書에 나타난 고대 한반도 언어와 관련된 條文 기록을 살펴본 후에 『三國史記』地理志에 나타난 고대 三國 지명의 차자표기자를 비교하여 고찰한 후에 夫餘 高句麗의 北部語와 三韓, 新羅, 百濟의 南部語 사이에 언어의 차이가 많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嚴翼相(1991, 2007, 2008, 2015) 등 일련의 연구는, 박사논문인 Eom Ik-Sang(1991)에 있는 백제음에서 漢語 상고음의 흔적을 발굴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부터 엄익상(2015)까지 고대

한국한자음의 원형을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한자 전래의 경로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三國史記』 地理志의 고유명사를 이용하여 王力の 상고음 및 중고음 체계를 근거하여 백제한자음의 음운체계를 해독하였다. 유창균(1983, 1991), 도수희(1987, 2007)의 재구음과 달리 유성음과 유기음이 없는 ‘p-, m-, l-, n-, t-, k-, (ts-), s-, 0-’ 로 되는 자음체계와 ‘a, i, o, u’ 로 되는 4 모음체계를 해독하였다. 특히 엄익상(2015: 120)에 있는 백제한자음 성모의 특징에 대하여 ①상고 章계 파열음 성모와 상고 端계 파열음의 차이가 없다, ② 중고 知계 한자와 中古 端계 한자의 차이가 없다, ③순음에는 양순음과 경순음의 차이가 없다, ④유성 저지음은 무성음화하였다, ⑤유기음은 무기음화하였고 유기음 성모 한자의 사용이 드물다, ⑥상고 경구개음 또는 교설음 성모는 평음으로 사용되었다, ⑦ ‘p-, t-, k-, s-, m-, n-, l-, 0-’ 이 확고한 음소적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자음 韻尾의 발달은 8세기 중엽이후 統一新羅에 와서야 보다 분명한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百濟 시대에는 후기로 오면서 초보적인 자유변의(free variation)의 형태로서 존재하였고 음절구조는 (C)V로 보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성조에 대해서 백제한자음에 성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개음이나 모음체계에 대해서는 현존 자료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라. 『日本書紀』를 중심으로 한 연구

藤井茂利(1969, 1975, 1976, 1980)의 일련 연구는 『日本書紀』에 나타난 한반도계 音假名, 之韻을 중심으로 한 推古遺文 자료에 있는 한반도계 音假名, 『萬葉集』卷 五에 나타난 한반도계 音假名, 『日本書紀』에 나타난 한반도계 인명 표기의 音假名을 중심으로 일본한자음에 있는 漢音, 吳音, 한국어 中世傳承漢字音과 비교를 하였다.

森博達(1977)은 『日本書紀』에 나타난 고대 백제어를, 즉 卷第九의 神功四十七年紀(367)부터 卷第十四의 雄略二十年紀(476)까지에 있는 「百濟記」, 卷第十四 雄略記를 중심으로 한 「百濟新撰」, 卷第十七의 繼體三年紀(509)부터 卷第十九의 欽明十七年紀(556)까지의 「百濟本紀」에 나타난 백제어 표기자를 주로 唐代北方音에 의한 中國原音說의 a群(卷十四~卷十九, 卷二十四卷二十七)에 넣었다.

尹幸舜(1991)은 『日本書紀』 필사본에 나타난 한국 고유명사의 音假名이 推古遺文의 音假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漢語 上古音의 영향을 보여주는 音假名이 많다는 점, 音假名の 자음이 吳音系일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다.

李根雨(1994)는 『日本書紀』에 나타난 百濟史料에 쓰인 音假名 중에 推古遺文의 音假名과 일치하는 것이 많다고 점을 근거로 百濟史料가 百濟에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推古遺文은 일본이 百濟로부터 불경을 받아들이면서 문자 기록을 시작한 당시에 형성된 자료이므로 百濟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百濟史料와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柳玟和(1991, 1994, 2000)는 『日本書紀』에 나타난 모든 한국 고유명사의 표기자와 그들의 분포 상황을 조사하였고 森博達(1991)에서 제시한 『日本書紀』歌謠, 訓注의 音假名 α와 β群 구분은 한국 고유명사의 표기자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냈다. 다만 그는 『日本書紀』에 나타난 모든 한국 고유명사의 표기자를 正讀字와 차자표기자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Bentley(2000)는 도수희(1981)가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수집한 백제어 어휘 39 개를 비판하였고, Kōno(1987)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日本書紀』에 나타난 백제어와 관련된 어휘

를 중심으로 총 42 개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또 Starostin(1989, 1999)의 후기 상고음과 Pulleyblank(1991)의 전기 중고음의 재구음에 의거하여 ‘a, i, i, u, e, ə, o’ 로 되는 7 모음체계, ‘p, m, t, s, n, r, c, k, (h?), w’ 로 되는 유성음과 유기음을 포함하지 않는 10 자음체계를 해독하였다.

김정빈(2007)은 『日本書紀』의 자료성과 안에 있는 백제한자음의 음운체계를 森博達(1977)의 α群과 β群에 의하여 검토하였고 백제한자음의 假名 분표도와 고대 백제어의 假名用字表를 정리하였다. 김정빈(2007)에 있는 백제한자음의 특징에 대하여 그는 성모는 重脣과 輕脣의 無別이고, 舌頭와 舌上의 無別이고, 牙音과 喉音이 有別이고, aspirate(有氣)體系가 不在하고, 有聲 체계가 不在하고, 鼻音이 存在하고, 당시의 照母는 破열음이 아니 破찰음 ts류로 나타났다고, 운모는 e韻類가 存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정빈(2008)은 『日本書紀』에 있는 고대 백제어의 借字音을 分韻分紐表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水野俊平(1999, 2001, 2002, 2009)의 일련의 연구는 『日本書紀』를 중심으로 백제한자음을 연구했다. 특히 水野俊平(1999)부터는 『日本書紀』에 나타난 한반도와 관련된 고유명사가 森博達(1991)에 제시한 α群과 β群 구분과 무관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水野俊平(2009)은 『日本書紀』에 나타난 百濟 고유명사 音假名을 추출한 후에 萬葉假名에서 쓰이지 않거나 표음이 일치 하지 않는 音假名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百濟 고유명사 표기가 백제인의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水野俊平(2009: 131)은 『日本書紀』에 있는 百濟 고유명사 중에 230 音借字를 추출하여, 음운체계를 재구하지는 않았지만, 백제한자음 특징에 대하여 ①心母字와 審母字, 虞韻字와 尤韻字는 같은 음가를 가졌고, ‘奴’와 ‘怒’는 같은 음가를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②日母字와 淸母字는 [s]라는 음가를 가지며 서로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前舌적인 [a]와 後舌적인 [a]를 변별하지 않았다, ④[o]와 [ə]는 변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⑤支·之韻에 속한 일부 한자의 韻母는 百濟 한자음에서 [o]·[ə] 등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⑥支韻字의 일부가 [a] 내지 [a]로 반영되었다, ⑦微韻에 속한 일부 한자의 韻母도 [o]·[ə] 등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⑧喉音字의 일부가 [k]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 ⑨照母字의 일부가 [k]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 ⑩無聲音인 見母字와 有聲音인 羣母字를 변별하지 않았다, ⑪-t 韻尾字의 일부는 -t韻尾를 유지한 채 백제한자음으로 반영되었으며, -t가 -l로 변화한 것도 있었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마. 中·日·韓 자료를 종합적으로 한 연구

도수희(1977, 1987, 1989, 1994, 2007, 2010, 2013) 등의 일련 연구는 백제어 연구 분야의 개척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977년의 박사논문을 비롯하여 百濟의 정치 역사에 따라서 부여계어로 된 단일언어시기, 부여계어와 한계어가 공존한 이중언어 시기, 韓系語로 된 단일언어 시기로 분류하였는데 백제어 음운체계를 해독하는 방법론에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漢語와 백제어를 平面的으로 처리하여 각 언어 음운체계 분포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三國史記』의 자료들을 모아서 도표로 정리하고 지명의 위치를 표시한 여러 지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도에 표시한 대부분의 지명에 대한 원전 자료와 지리적 설명이 없었다. 강현규(1996:209-210)에 있는 도수희의 일련 백제어 연구에 대한 정리에 의하면 ①어휘 연구는 金馬渚(1974), 所夫里(1975), 仇知·實(1975), 餘村·沙平(1980), 白·熊·泗泚·伎伐(1983), 村(1984), 己(1985), 賣·勿(1985), 熊津·白江(1986),

泉·井(1987), 加知奈·加乙乃(1989), 黃等也山(1989), 所夫里·泗泚(1989), 眞峴·貞峴(1991), 雨述·奴斯只·所比浦(1991), 慰禮(1993), 負兒嶽(1994), 奈己(己·己)(1994), 韓·干·韃·瑕(1994), 泉·交·宜(1995); 東·西(1985), 南·北(1985); 於羅瑕·韃吉支·구드레·구다라(1972), 王名·人名(1992), 溫祚·殷祚(1993); 十濟·百濟·鷹隼(1991, 1993, 1994) 등이 있다. ②음운 연구는 백제어의 음운변화(1984), 고대국어 음운변화의 두 방향(1987), 고대국어의 음운변화(1994) 등이 있다. ③비교연구는 百濟 전기어와 가라어의 관계(1985), 마한어에 관한 연구(I)(1980, 1987), 마한어에 관한 연구(II)(1988(속), 1993), 弁韓·辰韓語에 관한 연구(I, 1990), 백제어와 고대 일본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I, 1988, 1994), 古代韓半島의 語彙分布와 그 特徵(1993)이 있다. 이후에 도수희(2013)에서 『三國史記』에 나타난 한반도 중부의 高句麗 지명들이 백제인들의 언어라 주장하였다는 것을 보면 『三國史記』 地理志에 대한 原典 비판 의식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馬淵和夫(1971)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타난 高句麗, 百濟, 新羅의 인명, 지명, 관직명 중에서 음차자로 간주되는 표기자와 馬淵和夫(1960)에 제시된 『日本書紀』에 나타난 한국 고유명사의 音假名 266 개를 비교하였고 百濟 고유명사에 나타난 ‘意, 哥, 岐, 貴, 州, 氏, 怒, 流’ 등은 『日本書紀』에서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 근거하여 『日本書紀』에 있는 한국 관련기사의 原資料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原資料보다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Miller(1979C)는 백제어와 관련된 어휘인 ‘馬斯良, 斯麻, 主(님), 俱知, 得安, 들, 上, 下, 母, 村’ 을 알타이어의 어원과 관련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백제어의 어휘와 알타이어의 관련성은 차용인진 동원인지에 대해서 다른 한국어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Lewin(1980)에는 초기 역사시대의 백제와 大和 사이의 언어 접촉에 대하여 『三國史記』 地理志에 나타난 백제 지명, 『日本書紀』에 나타난 일부 백제 지명과 인명을 정리한 후에 일본어와 한국어의 동원어를 재정리를 하였다.

姜斗興(1982)은 百濟史料에 쓰인 音假名을 『三國史記』의 百濟 고유명사에 쓰인 음차자와 비교하였고 완전히 일치한 고유명사는 1 개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百濟史料에 쓰인 音假名 대부분은 일본 音假名の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일본인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百濟史料의 자료적인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兪昌均(1983)에는 백제한자음의 연구 자료를 기록한 사람에 따라 분류하여 中國側 자료인 『史記』, 『漢書』, 『後漢書』, 『魏書』, 『南齊書』, 『北史』, 『梁書』에 있는 百濟의 고유명사, 百濟側 자료인 『三國史記』 地理志에 있는 지명, 日本側 자료인 『日本書紀』에 있는 관직명, 지명, 인명을 중심으로 字音を 각각 해석하였다. 특히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史料를 百濟에 실제로 존재한 사서로 보고 木下禮仁(1961가)이 제시한 百濟史料 字音假名을 百濟史料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 대부분은 百濟 측의 사료나 외교 문서 등에서 轉載된 것으로 보고 『日本書紀』에 나타난 百濟 고유명사 및 관직명은 백제한자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中國側 자료 중에 있는 馬韓의 54 국명, 辰韓과 弁韓의 24 국명의 표기자의 성모체계와 모음체계를 추출했고, 百濟側 자료인 『三國史記』 地理志에 있는 고유명사의 자음의 성모체계, 모음체계, 운미자음체계를 추려냈고, 日本側 자료인 『日本書紀』에 있는 字音を 해석하고 추출한 성모체계, 모음체계, 운미자음체계를 추출했다. 이와 반대로 兪昌均(1991)의 주장은 中國側의 백제한자음을 참고 자료만 보고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고 『三國史記』 地理志 卷 第三十

六, 第三十七을 중심으로 『日本書紀』의 자료와 같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兪昌均(1991)에는 백제한자음의 再構音에 대해서 漢語 中古音 이전 단계에서 이미 토착화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漢語 上古音에 속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董同龢(1985)의 상고 성모체계를 참고하여 字類의 代用 관계를 찾으려 하면서 백제한자음의 성모의 初期音을 추출했다. 이 유성과 무성의 대립은 中期부터 中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後期音에서는 이 대립을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韻部모음체계의 경우는 董同龢(1985)의 5개 介音 체계에 의하여 추출하였다. 兪昌均(1991:342, 370)은 유성음을 포함한 ‘p, b, m, d, t, n, (r)l, s, ts, k, g’ 자음체계와 ‘a, i, u, o, (ə), (ə̃)’ 를 포함한 운부모음체계를 해독하였다. 韻尾 자음체계는 성모체계, 모음체계와 달리 李方桂의 漢語 상고음의 운미자음체계에 의하여 백제한자음의 陰聲韻, 入聲韻, 陽聲韻 체계를 ‘-φ/-r/-m/-n’ 로 추출했다.

河野六郎(1978)의 “일본 한자음과 일본의 오음”이라는 연구는 한국 한자음과 일본 吳音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성류와 운류로 나누어 총 13 항목에 걸쳐 다루었다. 그리고 한국 한자음은 기본적으로 신라음이고 일본 吳音은 백제음을 전승한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한국 한자음과 吳音의 상이점은 신라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실로써 설명하였지만 저자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백제계 한자음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나 증거가 없어서 불완전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였다. 단 영어 논문인 Kōno Rokurō(1987)은 중국과 일본의 사료를 이용하여 백제어의 이중성(Bilingualism)을 제안하였다. 百濟의 언어 자료를 근거하여 百濟는 분명하게 두 개의 국가 언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중국의 사료에서 뒷받침되고 두 개의 언어 중 하나는 고구려어와 관련이 있는 침략자의 언어로서 夫餘-百濟 왕족의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한계 언어들과 관련이 있는 지역 방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張世敬(1988가)은 『日本書紀』에 나타난 高句麗, 百濟, 新羅 삼국의 왕명 54개의 쓰인 차자표기자 87개 중 訓借字 4 개를 제외한 83 개를 상대일본어 자료에 쓰인 音假名 및 『日本書紀』에 쓰인 音假名과 비교하였고 나타난 일치성에 의거하여 한국 차자 표기법이 일본의 차자표기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張世敬(1991)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타난 百濟 인명 표기자 211 개를 『日本書紀』의 百濟 인명의 음차자 및 音假名과 아니, 百濟 인명의 표기자와만 비교하였다 음의 비교는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바. 百濟 金石文과 木簡을 중심으로 한 연구

새로운 연구 자료로서 百濟 金石文과 木簡에 나타난 백제어와 관련된 문자 자료를 해독과 언어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백제어 언어학사의 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국어학계에서 이룩한 百濟의 金石文 및 木簡 자료에 대한 연구사는 權仁瀚(2010: 243-274)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하면 百濟 金石文의 연구 대상은 주로 武寧王誌石, 七支刀銘文, 武寧王陵 出土 銀釧銘, 公州 地域 出土 磚銘 등에 나타난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武寧王誌石에 대한 연구는 鄭在永(2003), 金永旭(2003), 權仁瀚(2006)이 있고, 七支刀銘文에 대한 연구는 南豐鉉(2000), 鄭在永(2003), 尹幸舜(2005), 權仁瀚(2008)이 있고, 武寧王陵 出土 銀釧銘에 대한 연구는 南豐鉉(2000, 2006), 鄭在永(2003), 權仁瀚(2006), 公州 地域 出土 磚銘에 대한 연구는 鄭在永(2003), 權仁瀚(2008)이 있다. 옛 百濟 지역에 출토한 木簡에 대해서 扶餘 陵山里寺址 木簡은 金永旭(2003), 金完鎮(2005), 金永旭(2007), 李承宰(2008, 2009)의 연구를 위주로, 扶餘 雙北里 및 羅州 伏岩里 木簡에 대한 연구는 權仁瀚(2008), 李承宰(2009)의 연구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그 이후에 權仁瀚 외 編(2015)는 百濟에 관한 木簡 자료와 金石文 자료를 포함한 문자 자료를 총 정리하였고 李丞宰(2017)은 한반도에 출토된 木簡을 모두 판독하고 언어학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李丞宰(2017)에 의하면 옛 百濟 지역에 나타난 木簡 자료는 益山 彌勒寺址 木簡, 扶餘 官北里 木簡, 扶餘 宮南池 木簡, 扶餘 雙北里 木簡, 扶餘 陵山里寺址 木簡, 扶餘 舊衙里 木簡, 錦山 栢嶺山城 木簡, 泰安 대섬 海底 木簡, 羅州 伏岩里 木簡, 泰安 馬島1號 木簡, 河南 二城山城 木簡을 포함한다.

이 외에 중국에서 출토한 백제 유민의 묘지에 대한 언어학적인 고찰은 거의 없고 역사학적인 연구는 李道學(1991, 1996, 1997), 黃清連(1993), 梁起錫(1995, 1997), 李文基(2000), 尹龍九(2003), 董延修·趙振華(2007), 拜根興(2011), 金榮官(2007) 이장웅(2012), 吳澤暉(2014), 文東錫(2008) 등이 있다.

4. 백제어 연구의 발전기(2013~현재)

이승재(2013)의 백제어에 관한 연구가 연구 자료의 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서평인 이장희(2014:586)와 박창원(2015:263)는 새로운 자료과 방법에 의한 이루어진 업적이란 점에서 고대 한국어를 연구하는 노작이라고 평가하였다.

먼저 연구 자료는 기존 연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제어 고유명사 표기 자료를 9종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宋基中 外(1994), 宋基中(2004), 장세경(2007)에서 정리한 중국 자료인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傳에 기록된 馬韓 55개 國名, 『後漢書』를 비롯한 중국 기타 12 종의 史書에서 기록된 한자어를 포함한 百濟의 고유명사, 『舊唐書』와 『新唐書』에서 기록된 百濟의 고유명사; 한국에 있는 자료인 益山 彌勒寺址, 扶餘 陵山里寺址를 위주로 대표하는 여러 곳과 羅州 伏岩里에서 출토된 百濟木簡에서 기록된 인명, 지명, 관명 등, 百濟 출신의 新羅 僧 璟興¹⁹⁾(생몰연대 미상)이 남긴 反切字, 『三國史記』 地理志 卷 第三十六과 卷 第三十七에서 기록된 景德王 때에 개정된 百濟 지명, 『三國史記』의 가타 권차에서 기록된 百濟의 지명, 인명, 관명, 『三國遺事』에서 기록된 百濟와 관련된 인명, 지명, 관명; 일본에 있는 자료인 『日本書紀』에 기록된 百濟 고유명사 표기자²⁰⁾ 총 9 종의 자료에 나오는 백제어 표음자를 무작위로 모두 합치면 1421자가 되고 중복된 표음자를 제외하면 백제어 表音字는 모두 694자를 정리하였다. 본고는 자료 편찬의 연대순에 따르면 『三國志』에 기록된 馬韓 55개 國名은 漢語 後漢音 시기에 표기한 것이고, 중국 사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서로 참조한 가능성이 높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기록된 백제계 고유명사는 표기한 시기와 표기인에 따르면 특별한 이차자료만 볼 수 있고, 경흥 반절자를 연구하는 전제는 그의 활동 무대와 시기, 반절자의 문어적 성격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고, 百濟 木簡의 표기자에 대한 음과 훈의 구분, 그리고 新羅 木簡과의 차이점을 고증할 필요가 있다; 『日本書紀』에 기록된 百濟 고유명사 표기자의 수출은 미즈노 슌페이(2009)에 의한 것이고 兪昌均(1983)에서 추출한 268자와 차이점이 있다. 수량의 측면에서 추출자는 694자

19) 『三國遺事(1281-1283)』 卷七 憬興遇聖條를 참조하면 경흥은 百濟의 熊川州 출신으로 성은 水씨이다. 文武王이 임종 직전에 國師로 모실 것을 유언하였으므로 神文王이 즉위하자 곧 國老로 봉하였다. 南豐鉉(2003: 34)을 따르면 많은 저술을 내어 新羅 3대 저술가로 일컫는다. 唯識論의 승려로서 新羅 불교를 체계화하는 데 공이 컸고 그의 저술 가운데 현재 전하지 않은 法華經疏 16卷이 있는데 日本僧侶 中算이 인용한 것은 이것이 아닌가 한다고 하였다.

20) 兪昌均(1983)이 후리가나(振り仮名) 표기를 기준으로 표훈자와 표음자를 구별한 뒤에 표음자 268자를 추출했다.

만 있고 질의 측면에서 각 문헌에서 추출한 표음자의 비율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등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 방법은 박창원(2015: 263-266)에 따르면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들 수 있다. 즉 계량적 분석법, 구조 분석법, 분포 분석법이다. 계량적 분석은 유창균(1975)에서 처음 적용된 개념이고 분포의 양으로 그 존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백제어에 두음 법칙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인용해 보면 ‘이승재(2013: 130)의 3장에서 거론된 백제어 표음자 항목은 모두 1245 개이다 여기에서 來母 즉 /l/이 어구 위치에 온 항목을 골라 보면 위의 (1)과 같다. 두음법칙을 위반하는 항목은 모두 15 개이므로 전체의 1.2%에 해당한다. 예외가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백제어에 두음법칙이 있었다고 믿을 수 있다.’ 는 것을 바로 계량적 분석법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백제어 표기자의 음운론적 특징 분석할 때 계량적 분석법(quantitative analysis)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대해, 계량적 분석법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계량화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최빈수, 분산 등의 기초적인 기술통계 방법을 활용하는 분석법이고 ‘분포의 양으로 그 존재성을 평가하는 것’ 이라기보다 자료의 양이 많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법이며, 언어학에서는 現狀 분석을 통한 음운론적 구조에 대한 演繹的 모델이 설정될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제한적인 백제어 자료에 적용시키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백제어 표기자의 표기시기는 『切韻』의 편찬 및 배포 시기와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伊藤智ゆき(2007)의 『朝鮮漢字音研究-資料篇』에 있는 중세한국한자음을 계량적 분석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문제점을 담고 있다. 伊藤智ゆき(2007)는 平山久雄(1967)의 漢語 中古音 재구음을 기준으로 한국 15-16세기의 문헌에 나타난 개별한자들을 모아서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각 문헌에서 중세한국한자음(전승한자음)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것이고 7세기까지에 해당하는 백제어의 음운체계는 이러한 16세기 말까지에 해당하는 중세한국한자음에 근거하면 논리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한국전승한자음은 각 시기별로 외부적인 변화나 한국어 내부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어의 연구에 한계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漢語의 음운사를 보면 魏晉南北朝 시기는 상고음부터 중고음까지의 過渡期, 『切韻』 시기부터 唐末~五代十國까지는 중고음 단계로 보고 中唐을 中間點을 하고 중고음 단계는 전기 중고음 단계와 후기 중고음 단계로 나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백제어의 시기는 대체적으로 後漢 시기부터 전기 중고음까지에 속한다. 기원전 18년에서 7세기까지에 해당하는 百濟의 정치권 시기에 따라 백제어를 시기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료의 부족함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다. 게다가 문헌 자료의 보수성 문제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문헌자료에 나타난 표기자들의 음운체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구조분석법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분포 분석법은 음운 분석을 위해 20세기 초반의 구조언어학을 이끈 프라하 학파(Prague School)에서 했던,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을 찾아 음소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즉 음소의 자격을 가지는 자음과 그렇지 않은 변이음(allophone)을 판별할 때에는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와 최소대립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승재(2013: 260)에서 이 방법과 관련된 기술을 찾아보면 “조음위치에서는 치조음 서열의 /ts, s, z/가 경구개음 서열의 /tɕ, ɕ, z/와 각각 음운 대립을 이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들 사이에 최소대립쌍이 존재하므로 이 음운 대립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등 기술을 보면 분포 분석법에 해당한다. 이 분포 분석법에 대하여 이장희(2014:592)에 의하면 이 것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한자음 연구 방법으로 현대의 음소 정립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하였고 동일한 攝에서 韻母 차이에 따라 유사한 聲母가

구별되는 것을 ‘상보적 분포’라 보고, 두 개의 한자가 同韻일 때 쓰인 다른 聲母를 ‘최소대립쌍’으로 보았다. 따라서 ‘상보적 분포’나 ‘최소대립쌍’이 해당 언어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 책의 그것은 동일한 攝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듯 보이지만, 韻書가 한자를 음절구조에 따라 이미 정리한 체계이므로 한 언어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한자음 연구에 분포와 대립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연구 객관화, 명료화시켰다는 점은 이 연구의 최대 장점이며 성과라고 하였지만 음운 분석의 측면에서 분포 분석법의 정당성의 검증, 그리고 중고음의 성모체계와 재구음을 이용하여 하나의 攝 내의 분포 관계를 포착하는 작업이므로 직접적 대상은 중고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적절한지는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엄익상(2015: 121)은 이승재(2013)가 유성음 존재설을 주장하는 것에 재고할 필요가 있고 百濟 문헌에 중국의 유성음 성모자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그들 한자가 당시 백제어에서 유성음 성모로 발음되었음을 증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post hoc, ergo propter hoc²¹⁾’라는 오류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의 정의를 검토해 보면 ‘Two words which differ in meaning when only one sound is changed are referred to as a ‘minimal pair’, and linguists or native-speakers who make these judgements are said to be carrying out a minimal pair test.’²²⁾ 즉 최소대립쌍이란 하나의 음운만 차이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 묶음이고 이 개념은 단어의 의미 변별과 관련되므로 음운의 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한자들이 한자음의 음절구조 중에(聲母, 韻母, 聲調, 等, 開合) 한 차이가 있더라도 표음 고유명사의 의미를 변별하지 않으면 최소대립쌍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중국어 음운학적 관점에서 百濟 고유명사에 나타난 음운 현상을 관찰하는 것과 한국어 발달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서로 일관성을 유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미흡하거나 자의적인 주장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이 시기에 백제어와 관련된 단편적인 연구를 정리하자면 張士東(2013)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언어의 異同에 대하여, 최지연(2014)에는 『日本書紀』와 『三國史記』에 나타난 百濟系 固有名詞에 대하여, 姜憲圭(2014)에는 백제 지명에 나타난 ‘加知奈縣 一云 加乙乃縣’의 어원에 대하여, 粟田英二(2015)에는 『日本書紀』와 고대 한국어 한자음에 대하여 등 여러 면에서 논의하였다.

5. 백제어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앞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에 본고에서는 백제어의 음운 연구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이 절에는 우선 中·韓·日의 史料에 나타난 백제어 관련된 기록과 백제

21) 이 뒤에 따라서 이 때문에 (post hoc ergo propter hoc)는 어느 사상이 다른 사상의 뒤에 일어난 것을 파악하고, 앞의 사상이 원인이 되어 뒤의 사상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오류(인과의 오류)이다. 영어에서는, “post hoc”, “false cause”, “conditional correlation”, “correlation not causation” 등이라고도 한다. 전후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 상관관계의 순서가 별로 중시되지 않는 ‘상관은 인과를 나타내지 않는다’와는 미묘하게 다르다. 이 뒤에 따라서 이 때문에는, 시계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점으로 잘못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오류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다른 요인을 무시해, 사상의 순서에만 기초를 두고 결론을 이끄는 것으로 생긴다. 가까운 곳에서는, 미신이나 주술적 사고의 상당수는 이 오류로 분류된다.(<https://ko.wikipedia.org/wiki/>에 나타난 내용에 의한 해석이다.)

22) Davenport, Mike & Hannahs, S. J. (2010), *Introducing Phonetics and Phonology*, Third edition, Hodder Education. Crystal, David (2008: 307).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6th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어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는 條文들을 백제어 음운연구의 역사학적인 배경으로 간주하고, 印歐語를 중심으로 한 역사비교언어학 방법론의 기반에서 백제어의 음운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음운 대응을 찾는 것은 역사비교언어학적인 배경으로 간주하고, 백제어의 음운 연구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백제어를 보여주는 문헌의 고증, 백제어 어휘의 수집과 분류, 백제어와 관련된 지역적인 음운 대응의 맞춤, 백제어 음운 특징의 분석 등을 포함하는 것을 본고 연구의 진행 방법으로 간주한다.

사. 역사학적 배경

본고에서는 백제어 음운연구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中·韓·日의 문헌에 나타난 百濟라는 국명이 처음 등장한 史料 기록, 백제와 주변에 있는 新羅, 高句麗, 倭, 中國과 언어 접촉이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史料 기록, 백제가 佛敎의 『涅槃經』과 儒學의 『詩經』, 藏書 등을 통한 한자의 수용에 대한 史料 기록, 百濟의 賢人을 통하여 일본 열도의 한자 수용에 대한 史料 기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百濟라는 국명은 처음으로 ‘伯濟國’으로 『三國志』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韓傳 條에서 나타났고 구체적인 사료 기록은 다음 (1)과 같다.

- (1) 馬韓在西。其民土著，種植，知蠶桑，作絺布。各有長帥，大者自名爲臣智，其次爲邑借，散在山海間，無城郭。有爰襄國……伯濟國……凡五十餘國。大國萬餘家，小國數千家，總十餘萬戶。(마한은 (삼한의)서쪽에 있다. 그 백성들은 토착 생활을 하며 곡식을 심었다. 누에치기와 뽕나무를 재배할 줄 알았으며, 솜과 피륙도 만들었다. (나라마다) 각각 長帥가 있어 세력이 큰 자는 스스로 臣智라 일컬었으며, 그 다음은 邑借라 하였다.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거주하였으며 성곽이 없다. (마한의 나라로는)원양국……백제국……등 모두 50여 나라가 있다. 큰 나라는 만여가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가이며, 총 십여만 호에 달한다.)

백제의 인구에 주변 나라에 있는 신라인, 고구려인, 왜인, 중국인을 포함하는 것에 의하면 백제어는 주변 다른 언어와 접촉이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료 기록은 (2), (3)과 같이 『隋書』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 百濟 條와 『北史』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百濟 條에 나왔다.

- (2) 其人雜有新羅，高麗，倭等，亦有中國人。其衣服與高麗略同。<隋書，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 百濟> (백제의 백성 가운데는 신라인, 고구려인, 왜인 등이 섞여 있으며, 중국인도 있다. 그 의복은 고구려와 대체로 같다.)
- (3) 其人雜有新羅·高麗·倭等，亦有中國人。其飲食衣服，與高麗略同，若朝拜祭祀，其冠兩廂加翅，戎事則不。<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百濟> (그 사람들 가운데는 신라와 고구려 및 왜인들이 섞여 있으며, 중국인도 있다. 그 음식과 의복은 고구려와 대체로 같다. 朝拜나 祭祀의 때에는 그 모자의 약쪽 곁에 깃털을 꽂는데, 군복을 입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百濟에서 『涅槃經』²³⁾ 등의 불교 경전과 뜻풀이 책²⁴⁾, 毛詩博士²⁵⁾ 등 매체를 통하여 한

자를 수용한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사료 기록은 처음으로 『南史』 卷七 梁本紀中 第七 武帝下大同七年(541)條와 『梁書』 卷五十四 列傳 第四十八 諸夷 百濟 條²⁶⁾에서 찾을 수 있고 구체적인 사료 기록은 각각 다음 (4), (5)와 같다. 이와 비슷한 기록은 한반도의 사료인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枕流王 元年(384)條와 『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聖王 十九年(541)條에서 기록되었고 다음 (6), (7)과 같다. 그리고 불경을 통해서 한자음이 전래되었을 것과 중국 南朝 시기 음운체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도 무방하다.

(4) 百濟求涅槃等經疏及匠工, 畫師, 毛詩博士, 並許之. <南史 卷七 梁本紀中 第七 武帝下大同七年(541)條> ((대동 7년) 百濟는 열반경(涅槃經)을 비롯한 여러 경전 및 그 해설서와 기술자, 화사(畫師), 모시박사(毛詩博士) 등을 요청하여, 모두 보내주었다.)

(5) 今言語服章略與高麗同, 行不張拱, 拜不申足則異. 呼帽曰冠, 襦曰複衫, 袴曰褌. 其言參諸夏, 亦秦, 韓之遺俗云. 中大通六年, 大同七年, 累遣使獻方物; 並請涅槃等經義, 毛詩博士, 並工匠, 畫師等, 敕並給之. 太清三年, 不知京師寇賊, 猶遣使貢獻; 既至, 見城闕荒毀, 並號慟涕泣. 侯景怒, 囚執之, 及景平, 方得還國. <梁書 卷五十四 列傳 第四十八 諸夷 百濟 條> (지금의 (百濟의)언어와 복장은 대략 高句麗와 비슷하지만 길을 갈 때 두 팔을 펴지 않고 절을 할 때

23) 『涅槃經』에는 小乘과 大乘의 『涅槃經』이 있다. 小乘의 『涅槃經』은 佛陀가 만년에 王舍城을 출발하여 최후를 맞게 된 쿠시나가라(Kuśinagara)에 이르기까지의 여정과 그 사적·설법의 모양과 入滅 후의 화장·유골의 분배 등을 기술하고 있다. 大乘의 『涅槃經』은 釋迦牟尼佛이 入滅하기 전 1 주야에 說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상은 佛身常住, 悉有佛性, 闡提成佛로 요약된다. 후에 이 『涅槃經』은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佛性思想의 보편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泗泚 천도 이후 聖王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涅槃經』이 중시되었다. 百濟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戒律뿐만 아니라 불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涅槃經』은 釋迦佛 신앙과 연결되어 발달하였다. 『涅槃經』에서 강조하는 轉輪 사상의 모습이 당시 성행하고 있는 釋迦佛 조성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釋迦佛 신앙은 불교를 통한 왕권의 신성성에 연결된다. 이러한 신성성은 다른 귀족세력과의 차별성으로 나타나 武寧王 소가계 집단의 배타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는데 활용되었다.

24) 經義는 불교 經典의 주석서를 말한다. 聖王이 卽位초부터 추진한 律宗의 정비와 대통사의 창건을 통해서도 이러한 泗泚 천도의 의도와 배경을 찾을 수 있다. 律宗의 정비는 聖王 4년(526) 謙益의 귀국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彌勒佛光寺事蹟」에 의하면 謙益이 中印度에서 5부율을 갖고 귀국하자 聖王이 그를 興輪寺에 안치시키고 고승 28 인과 함께 梵語 律部 72 권을 번역하게 하고 아울러 曇旭·惠仁 등이 지은 律疏 36 권에 친히 서문을 썼다고 한다. 謙益이 가져온 5부율의 내용이 전하지 않고, 또 「彌勒佛光寺事蹟」에 대한 사료적 신빙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聖王 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戒律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도 좋을 듯하다. 律이란 불교 신도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담은 도덕적 요소로서 불교 교단을 통제하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다. 百濟의 戒律은 法華 신앙이나 涅槃 신앙, 彌勒 신앙 그리고 효사상과 깊은 관련을 갖고 왕권의 관심과 지지하에 수용되어 百濟 불교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聖王이 轉輪 聖王으로 자처하며 인도에서 귀국한 謙益을 맞아 律部를 번역하게 하였고,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신율의 서문을 친히 쓴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처럼 聖王은 계율의 장려를 통해 불교 신앙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시키고 불교 교단조직에 대한 왕권의 통제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적 기강을 확립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謙益이 귀국하여 律部에 대한 譯經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인 527년에 聖王은 현재 公州 斑竹洞에 大通寺를 창건하였는데, 이는 武寧王 계 소집단의 배타적인 聖族 관념을 확립시켜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25) 『毛詩』는 중국 最古의 詩集으로서 『詩經』(詩傳)을 말한다. 이 『詩經』은 중국 漢나라 때의 毛亨·毛長이 箋하였기 때문에 『毛詩』라고도 한다. 毛詩博士는 『詩經』에 정통한 전문 학자를 말한다. 百濟에 초빙된 모시박사의 이름은 알 수 없다. 이 시기에 百濟는 梁나라로부터 毛詩博士를 초빙한 것 외에 陳나라로부터 講禮博士 陸詡를 초빙하였고 (『晉書』 卷第三十三 儒林 鄭灼 傳附 陸詡傳), 武寧王은 五經博士 段楊爾와 高安茂를 倭에 파견하였다 (『日本書紀』 卷第十七 繼體紀 七年·十年). 이러한 사실들은 百濟의 유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 百濟의 언어와 高句麗의 언어는 비슷하다는 기록은 『梁書』의 이條에서 설명되었다.

발을 펴지 않는 것은 다르다. 모자를 갓이라 부르며, 저고리를 복삼, 바지를 잠방이라 부른다. 언어는 여러 중국말과 섞여 있는데 역시 秦韓이 남긴 풍속이라 한다. 中大通 6년과 大同 7년 수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여러 공물을 바쳤다. 아울러 涅槃經 등의 불교 경전과 뜻풀이책, 毛詩博士, 장인과 그림을 가르치는 사람 등을 요청하자 모두 들어주도록 조치하였다. 太淸 3년(양나라 의) 수도가 도적에게 노략질당한 것을 모르고 사신을 파견하여 공물을 바쳤다. 도성에 이러 대궐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모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자 侯景이 노하여 가두었다. 후경의 반란이 평정되고 난 후 비로소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6) 秋七月, 遣使入晉朝貢. 九月, 胡僧摩羅難陀自晉至, 王迎之致宮內, 禮敬焉, 佛法始於此.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枕流王 元年(384) 條> (침류왕 원년(384) 가을 7월에 사신을 쯤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9월에 胡僧 摩羅難陀²⁷⁾가 진나라에서 오니 왕이 그를 맞이하여 궁궐 안으로 모시고 예우하며 공경하니, 불교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7)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 涅槃等經義并工匠²⁸⁾畫師²⁹⁾等, 從之. <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聖王 十九年(541) 條> (19년(541) 왕이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 조공하고, 아울러 표를 올려 毛詩博士와 涅槃 등의 經義 및 工匠과 畫師 등을 청하였더니 [양나라에서] 이를 허락하였다³⁰⁾.)

百濟의 藏書에 대한 기록은 『舊唐書』 卷一百九十九上 列傳 第一百四十九 東夷 百濟 條에서 간략한 기록이 남았고 다음 (8)과 같다.

(8) 其書籍有五經, 子, 史, 又表疏並依中華之法. (그 서적으로는 오경(五經)과 제자(諸子) 및 역사서가 있다. 표문과 상소문은 모두 중국의 법을 따른다.)

百濟의 賢人을 통하여 일본열도는 한자를 수용한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사료인 『古事記』 中卷 品陀和氣命(應神天皇) 條와 『日本書紀』 卷第十 譽田天皇 應神天皇 十五年(284) 秋八月 壬戌朔 丁卯 條, 十六年(285) 春二月 條, 卷第十七 男大迹天皇 繼體天皇 七年(513) 夏六月 條에서 남아 있고 다음 (9), (10), (11), (12)와 같다. 이를 통하여 당시

27) 胡僧이 어느 지역 출신의 승려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摩羅難陀란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印度 승려로 동진에 건너와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다. 摩羅難陀는 東晉에서 百濟로 건너와 불교를 전한 승려이다. 그가 개인 자격으로 왔는지 아니면 東晉 국왕의 부탁에 의해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가 百濟에 건너오자 枕流王이 宮內로 맞아들여 禮敬을 한 것을 보면 2 개월 전에 東晉에 파견된 百濟의 사자와 동행하여 왔거나 혹은 東晉의 사신을 따라 왔을 가능성이 크다.

28) 工匠은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匠色 또는 匠人이라고도 한다. 百濟가 梁으로부터 工匠을 초빙하여 기술을 배운 것은 公州 지역에서 출토된 '梁官瓦爲師'라는 銘文이 있는 塼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29) 畫師는 畫工을 말한다. 聖王은 倭에 佛像과 佛經을 전해주고 (『日本書紀』 卷第十九 欽明紀 十三年 條에 '冬十月 百濟聖明王 遣西部姬氏達率怒喇斯致契等 獻釋迦佛金銅像一軀 幡蓋若干 經論若干卷 別表讚流通禮拜功德云……'이라 한 기사 참조), 또 謙益이 印度에서 가지고 온 律部를 번역하여 百濟戒律을 확립하는 등 불교의 융성과 교단의 정비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성왕이 工匠과 畫師 등을 梁으로부터 초빙한 것은 사찰의 건립 및 불상의 장엄화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30) 왕이 사신을……[梁나라에서] 이를 허락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梁書』 卷第五十四 列傳 百濟傳에 '累遣使獻方物 兼請涅槃等經義毛詩博士并工匠畫師等 勅并給之'라 나와 있다.

百濟의 한자음과 일본의 한자음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도 무방하다.

- (9) 亦百濟國主照古王，以牡馬壹疋，牝馬壹疋，付阿知吉師以貢上。*此阿知吉師者，阿直史等之祖。亦貢上橫刀及大鏡，又科賜百濟國，若有賢人者貢上，故受命以貢上人，名和邇吉師，即論語十卷，千字文一卷，并十一卷，付是人即貢進。*此和邇吉師者文首等祖。<古事記 中卷 品陀和氣命(應神天皇)條> (또 百濟 국주 照古王이 암말 한 마리와 수말 한 마리를 阿知吉師 편에 바쳤다. <*이 阿知吉師는 阿直史 등의 조상 이다.> 또 橫刀와 大鏡을 바쳤다. 또 百濟에 현인이 있으면 바치도록 명령하셨으므로 명을 받고 바친 사람은 和邇吉師라고 하여 論語 10권과 千字文 1권 합 쳐서 11권을 이 사람 편에 바쳤다. <*이 和邇吉師는 文首 등의 조상이다.>)
- (10) 百濟王遣阿直伎，貢良馬二匹，即養於輕坂上廐。因以阿直岐令掌飼。故號其養馬之處曰廐坂也。阿直岐亦能讀經典。即太子菟道稚郎子師焉。於是天皇問阿直岐曰。如勝汝博士亦有耶。對曰。有王仁者。是秀也。時遣上毛野君祖荒田別。巫別於百濟。仍徵王仁也。其阿直岐者。阿直岐史之始祖也。<日本書紀 卷第十 譽田天皇 應神天皇 十五年(284) 秋八月 壬戌朔 丁卯 條> (百濟王은 阿直岐를 파견하여 良馬 2마리를 바쳤다. 이에 輕의 언덕 위의 마굿간에서 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阿直岐에게 사육하는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말을 사육하는 곳을 일러 廐坂라고 불렀다. 阿直岐는 또한 經典을 잘 읽었으므로 태자 道稚郎子의 스승이 되었다. 이에 천황은 阿直岐에게 "너보다 훌륭한 博士가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하길, "王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수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上毛野君의 조상인 荒田別·巫別을 百濟에 보내어 왕인을 불러오도록 하였다. 阿直岐는 阿直岐史의 시조이다.)
- (11) 王仁來之。則太子菟道稚郎子師之，習諸典籍於王仁，莫不通達。所謂王仁者，是書首等之始祖也。<日本書紀 卷第十 譽田天皇 應神天皇 十六年(285) 春二月 條> (王仁이 왔다. 이에 태자 道稚郎子는 王仁을 스승으로 삼았다. 여러 典籍을 배우니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이른바 王仁은 書首의 시조이다.)
- (12) 百濟遣姐彌文貴將軍，州利即爾將軍，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委意斯移麻岐彌。貢五經博士段楊爾。<日本書紀 卷第十七 男大迹天皇 繼體天皇 七年(513) 夏六月 條> (여름 6월 百濟가 姐彌文貴장군과 州利即爾 장군을 파견해서 穗積臣押山 <*百濟本記에는 委의 意斯移麻岐彌라 한다.>에게 딸려 보내어 五經博士 段楊爾 를 바 쳤다.)

아. 역사비교언어학적 배경

주지하는 바와 같이 William Jones(1746~1794)를 비롯하여, 이어서 19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역사비교언어학에 있는 재구는 크게 내적 재구(internal reconstruction)와 비교방법(comparative method)으로 나뉘는데, 내적 재구는 한 언어 내에 존재하는 공시적인 예외로써 과거의 모습을 재생하는 것으로 이 공시적인 체계에 불규칙성이 있어야 하며, 비교방법은 같은 기원이나 계통에 속하는 언어를 서로 비교하여 그 전의 상태를 공통 조어로서 추측하는 것이다. Campbell(2013: 199-211)과 박창원(2002: 25-26)에 제시된 印歐語를 중심으로

한 재구의 전제와 절차를 다시 살펴보면, 먼저 재구의 전제는 ①비교의 대상이 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어휘가 그 언어의 고유어로서 동일한 기원에서 변해온 것이어야 하고, 역시 비교 대상이 되는 언어가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것이며, ②언어의 변화는 규칙적이며, ③언어의 공시적인 교체형은 기원적인 것이 아니고, 통시적인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내적 재구의 실제적인 절차는 ① 다른 언어나 외부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②특정 언어의 공시적인 불규칙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③변화의 유형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전의 모습을 추정하는 것이다. 비교방법의 실제 절차는 ①비교하고자 하는 언어의 동일한 기원이나 계통을 확인하고, ②내적 재구나 그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당해 언어의 가장 오래된 언어 형태를 재구한 다음, ③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언어를 서로 비교하여 공통 조어로 추정될 수 있는 이전의 상태를 재구하는 것이다. 즉 고대 한국어에서 공시적인 불규칙성을 찾아내거나, 같은 계통에 속하는 언어를 찾지 못하면, 내적 재구나 비교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백제어를 음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재구(reconstruction)인지 해독(decipherment)인지 방법론적으로 두 술어의 차이점을 뚜렷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대 한국어에 이러한 서양식의 재구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힘들며, 본고에서 제안할 방법론은 한자를 차용하여 전사된 백제어의 표기자들과 대응하는 漢語 上古音, 後漢音, 中古音의 음운체계, 일본어의 상대음운체계, 일본한자음의 음운체계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그 당시의 백제어 표기자들의 음운체계(백제어 그 전체가 아닌)를 추측하거나 해독할 뿐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印歐語 祖語(Proto-Indo-European, PIE)를 재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비교방법에 있는 음운론적 대응³¹⁾(phonological correspondence, systematic correspondence, 혹은 systematic sound correspondence, 혹은 sound correspondence, correspondence set)이라는 개념을 백제어의 음운 연구에 토착화시키면 백제어(혹은 韓系語), 漢語와 日本語가 같은 기원이나 계통에 속하는 언어로 보기가 어려우니 지역적인 음운 대응(areal phonological correspondence) 혹은 한자음의 음운 대응(phonological correspondence of Sinographic reading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구어 조어의 재구에 나타난 음운론적 대응과 백제어의 음운 해독에 나타난 지역적인 음운 대응에 대하여 예를 들면 다음 표1., 표2., 표3. 과 같다.

표1. 로망스어(Romance) 동원사(cognate)의 음운론적 대응(Campbell(2013:110))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라틴어)	영어 주석
1	capra /kapa/	cabra /kabra/	cabra /kabra/	chèvre /ʃɛvr(ə)/	capra	'goat'
2	caro /karo/	caro /karo/	caro /karu/	cher /ʃɛt/	caru	'goat'
3	capo /kapo/ 'main, chief'	capo /kabo/ 'extremity'	capo /kapu/ 'extremity'	chef /ʃɛf/ 'main, chief'	caput	

31) 인구어에 사용하는 음운론적 대응은 Campbell&Mixco(2007:187)에 의하면 “In effect, a set of ‘cognate’ sounds: the sounds found in the related words in cognate sets that correspond regularly among related language because they descend from a common ancestral sound. In the comparative method one seeks regular sound correspondences across sets of cognates in the daughter languages as a necessary step prior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proto-sounds from which each sound correspondence derives”라고 하였다.

표2.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적용된 그림 법칙(Grimm's Law)(Campbell(2013:42))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1	*p > f	pie padre por	pied(고대 프랑스어pié) père per	foot father for
2	*t > θ	tres tu	trois tu	three thou
3	*k > h	(can) ciento corazó	chien(<kani-) cien(<kent-) cœur	hound(<hūnd) hundred heart
4	*d > t	diente dos	dent deux	tooth(<taneθ) two
5	*g > k	- grano	genou grain	knee corn

표3. 백제어에 있는 지역적인 음운 대응

		漢語	韓國語	日本語
1	**p-	伯 '伯濟國' 『三國志』 百 '百濟' 『晉書』 卑 '卑離國' 『三國志』	百 '百殘' 「廣開土王陵碑文」 百 '百濟' 『三國史記』 比 '比利城' 「廣開土王陵碑文」 夫 '毛良夫里縣' 『三國史記』	百濟 [クダラ, 訓] 『古事記』 比 '比利(ヒリ, 音)' 『日本書紀』
2	**m-	麻 '固麻' 『梁書』	熊 (곰, 訓) '熊川州' 『三國史記』	麻ム '久麻那利[コムナリ, 音]' 『日本書紀』
3	**s-	隆 (訓?) '餘隆' 『梁書』	斯 '斯麻王' 「武寧王墓誌石文」	斯シ '斯麻王[シマ#キシ]' 『日本書紀』

백제어의 음운 연구에는 서구 印歐語에 적용되는 음운론적 대응(systematic correspondence, Trask(2000: 336))처럼 백제어의 어휘에서 지역적인 음운 대응을 찾는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자음을 차용하여 표기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백제어 어휘가 중국 대륙, 한반도, 일본 열도에 있는 다른 史書, 金石文, 木簡 자료 등에 중출되는 표기자들을 찾는 방법이다. 지역적인 음운 대응은 역사학·지명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中·韓·日 문헌 자료에 있는 동일한 고유명사에 대한 異表記자 표기의 偶然性, 한자음 표기의 음운론적인 有緣性에 근거한 것이다. 한자음의 음운론적인 해독은 표기된 시간 순서로 첫 번째 등장한 언어의 음운체계에 근거하여, 중출로 등장한 언어의 음운체계들과 결합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한자음의 음운론적인 관계, 혹은 지역적인 음운 대응은 동일 음운 관계와 다른 음운 관계 (표기된 시기, 음운체계 등)로 구분된다. 다른 음운 관계는 표기인의 음운체계 혹은 표기자의 표기 등 요소에 따라서 음운 차이나 음운 변화가 담겨 있는 뜻이다.

IV장에서 상술할 것과 같이, 표3.에 있는 예를 간략히 언급하자면 백제 지명에 나타난 '夫里'에 대하여, 첫 번째로 '卑離(國)'이라는 마한 국명으로 중국 正史인 『三國志』에 나타났지만, 한반도의 金石文 자료인 「廣開土王陵碑文」에 '比利(城)'으로, 史書인 『三國史記』에 '毛良夫里縣'으로, 일본 열도의 史書인 『日本書紀』에 比利(ヒリ)로 나타났고 역사학·지리적으로 같은 곳으로 비정하면 언어학적으로 이러한 표기들을 연결시키고 '卑-比-比(ヒ)'자와 '離-利-利(リ)'자는 각각 동음 관계가 있는 지역적인 음운 대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三國志』에 나타난 '國'자와 「廣開土大王碑」에 나타

난 ‘城’ 자는 훈차소로 같은 시니피에(signifié)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한다. 『三國志』의 편찬 시기에 後漢語의 음운체계를 근거하여, 『日本書紀』의 편찬 시기에 상대일본어의 음운체계와 한국어의 통시적인 음운변화와 결합하여 백제의 지명 표기자의 음운론적 특징을 고찰하여, 백제어에서 자음 **p-와 **l-의 존재를 해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지역적인 음운 대응은 백제어 어휘의 음표자들 중에서, 한자음 자료로 동일한 어휘에 대한 역사학·지명학적인 동일한 비정에 근거하여, 중국 대륙,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史書, 金石文, 木簡 등 일차 자료에 나타나는 異表記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각 음표자의 음운론적인 有緣性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자. 연구의 진행 방법

백제어의 음운 연구를 실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①백제어를 보여주는 문헌을 고증하기, ②백제어의 어휘를 수집 및 분류하기, ③백제어와 관련된 지역적 음운 대응을 맞추기, ④백제어의 음운 특징을 분석하기를 포함한다.

1) 백제어를 보여주는 문헌을 고증하기

백제어를 보여주는 문헌 자료는 중국 대륙의 문헌, 한반도의 문헌과 일본 열도의 문헌을 포함하고 竭澤而漁(못이나 호수의 물을 퍼내고 궁극적으로 물고기를 잡다는 뜻이다)식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중국 대륙의 문헌은 正史 類 자료인 『三國志』, 『後漢書』, 『宋書』, 『南齊書』, 『魏書』, 『梁書』, 『周書』, 『晉書』, 『隋書』, 『南史』, 『北史』, 『舊唐書』, 『新唐書』; 金石文 類 자료인 「大唐平百濟國碑銘」, 「唐劉仁願紀功碑」, 「扶餘隆墓誌銘」, 「太妃扶餘氏墓誌銘」, 「黑齒常之墓誌銘」, 「黑齒俊墓誌銘」, 「珣將軍功德記」, 「難元慶墓誌銘」, 「禰寔進墓誌銘」, 「祿軍墓誌銘」, 「禰素士墓誌銘」, 「禰仁秀墓誌銘」, 「陳法子墓誌銘」을 포함한다. 한반도의 문헌은 史書 類 자료인 『三國史記』, 『三國遺事』; 金石文 및 木簡 類 자료인 「七支刀銘文」, 「隅田八幡畫像鏡銘文」, 「廣開土王陵碑文」, 「砂宅智積碑文」, 「武寧王陵出土銀釧銘文」, 「武寧王墓誌石文」, 「武寧王妃墓誌石」, 「昌王銘石造舍利龕」, 「癸未銘金銅三尊佛立像」, 「甲寅銘釋迦像光背」, 「鄭智遠銘金銅三尊佛立像」, 「何多宜藏法師銘光背」, 「癸酉銘阿彌陀三尊四面石像」, 「癸酉銘三尊千佛碑像」, 「甲午銘金銅一光三尊佛像」; 옛 百濟 地域 出土 瓦, 磚, 土器의 銘文 자료인 서울 지역 出土 瓦, 磚, 土器의 銘文, 公州 地域 出土 瓦, 磚의 銘文, 扶餘 地域 出土 瓦, 磚銘, 土器銘 및 기타, 益山 彌勒寺址 出土 瓦·土器銘, 益山 王宮里 王宮坪城 出土 銘文 瓦, 栢嶺山城 出土 銘文瓦, 古阜舊邑城 出土 銘文瓦; 옛 百濟 地域 出土 木簡 자료인 益山 彌勒寺址 出土 木簡, 扶餘 官北里 出土 木簡, 扶餘 宮南池 出土 木簡, 扶餘 雙北里 出土 木簡, 扶餘 陵山里寺址 出土 木簡, 扶餘 舊衙里 出土 木簡, 錦山 栢嶺山城 出土 木簡, 羅州 伏岩里 出土 木簡, 河南 二城山城 出土 木簡을 포함한다. 일본열도의 문헌은 史書 類 자료인 『古事記』, 『日本書紀』; 氏族 관련 史料인 『新撰姓氏錄』; 보충 및 비교 자료로 萬葉假名가 성숙하기 전에 나타난 상대일본어의 推古遺文 자료인 伊豫道 後溫湯碑文, 元興寺露盤銘, 法隆寺金堂藥師光背銘, 元興寺丈六光背銘, 法隆寺金堂釋迦佛光背銘, 天壽國曼荼羅繡銘, 法隆寺三尊佛光背銘, 上官記逸文, 上宮太子系譜, 船氏墓誌를 포함

한다. 일본의 백제계 木簡(北大津 音義木簡?)

어떤 언어 자료든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비판이 가해져야 자료로서의 확실한 믿음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백제어를 보여주는 문헌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언어 자료로서 문헌에 대한 비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첫째, 中·韓·日의 문헌 자료를 합쳐서 계산하면 중세한국어의 자료나 근대한국어의 자료보다 훨씬 적고 中·韓·日의 문헌 자료에서 수집할 수 있는 고유명사나 음표자들의 수량이 더 떨어진다. 이것은 바로 백제어 언어 자료의 희소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 백제어를 보여주는 문헌 자료들은 표기 시기의 복잡성이라는 문제를 담고 있다. 百濟(18 B.C.~660)의 정치권 시기와 비교해 보면, 중국대륙의 자료는 『三國志』(265~300)부터 『新唐書』(1044~1060)까지에 나타난 것들이고, 한반도의 자료는 「七支刀銘文」(369)부터 『三國遺事』(1281?)까지에 나타난 것들이고, 일본열도의 자료는 百濟 멸망 후에 나타난 『日本書紀』(720년)부터 『新撰姓氏錄』(815)까지에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백제어가 기록된 시간 간격이 아주 길고 百濟 멸망 후에 나타난 자료는 신빙성이 더 떨어진다. 게다가 中·韓·日 사료에 있는 百濟와 관련된 條例들은 연대가 紊亂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백제어의 음운연구나 음운변화는 이러한 사료의 연대순에 따라가면 안 된다.

셋째, 백제어를 기록한 표기자들이 음운체계의 다양성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백제어를 기록한 표기인들의 음운체계는 漢語, 한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하고 표기하는 시기에 따라서 각 언어가 역사적인 음운 변화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森博達(1991)은 『日本書紀』의 편집자는 漢語 화자와 일본어 화자를 포함하였고, 『日本書紀』의 음운체계도 α 군과 β 군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백제어가 기록된 문헌 자료의 역사학적인 부실성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正史類 자료에 있는 百濟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문체 및 내용 상 일치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三國史記』³²⁾의 표기 시기는 12세기이고 표기인은 고려 경주 출신이라는 것에 의거하면 地理志에 나타난 지명 표기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엄격히 특별한 이차 자료(현대의 시각으로)만으로 간주해야 한다. 『日本書紀』는 奈良時代に 편찬한 자료이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특히 한반도와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윤색한 것이 많이 존재하였고 백제어의 언어 자료로서 더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

이상 백제어를 보여주는 문헌에 대하여 간략히 비판한 후 백제어의 음운연구에 계량적 분석법(quantitative analysis)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쪽을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일반적으로 문헌 자료의 보수성과 滯古性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대 언어의 全貌를 고찰할 수 없고 본고에서는 문헌 자료에 기록된 일부 백제어 어휘의 음운 특징을 고찰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언어학적 연구의 전제와 기초로서의 여러 백제계 국명, 인명, 국명에 대한 논의는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 논의를 참조하여 각주로 표기할 것이다.

2) 백제어의 어휘를 수집 및 분류하기

백제어를 보여주는 中·韓·日의 문헌 자료에 나타난 고유명사(proper noun, common name, proper name)는 백제어의 음운연구에 유용하다³³⁾. 고유명사는 명사의 일종으로 인

32) 『三國史記』에 대한 원전 비판 및 검토는 정구복 외(1995), 강경구(1997)에서 설명한 바 있다. 정구복 외(1995) 논문집에 있는 노종국(1995)에 의하면 『三國史記』百濟本紀의 일부는 중국 사서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등을 참조하였고, 地理志는 『後漢書』, 『北史』, 『通典』, 『舊唐書』, 『新唐書』를 인용했다고 주장하였다.

명, 지명을 포함한 특정한 대상 또는 유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백제어의 고유명사는 百濟地名, 百濟王名, 百濟人名, 百濟官職名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아래 (13)과 같다. 이러한 고유명사들은 문헌 자료에서 나타난 연대의 순서대로 나열한다.

(13) 백제어의 고유명사

- ㄱ. 辟卑離(國)-辟(中)(ヘチウ)-辟支(山)(ヘキノムレ)-避(城)(ヘサシ)-辟骨-碧骨(縣)
- ㄴ. 萬廬(國)-邁廬(王)-邁羅(王)-邁羅(城)-邁羅(國)-馬西良-馬斯良-麻斯良-邁羅(縣)
- ㄷ. (餘)慶-蓋鹵(王)-慶司-近蓋婁-加須利(君)[カスリ#ノ#キン]
- ㄹ. (隆)-(武)(寧)(王)-斯摩-斯麻-斯麻(王)-嶋(君)[セマ#キシ]
- ㄱ. 沙(氏)-沙吒(相)(如)-沙吒(千)(福)-沙豆-沙若思-沙乞-砂宅(智)(積)-沙吒
- ㄴ. 木(氏)-木羅斤資[モクラコンシ]-木滿致[モクマンチ]
- ㄷ. (佐)(平)-(佐)(平)沙宅己婁[ソク#サヘイ#サタクコロ] *
- ㄸ. (德)(率)-(德)(率)國雖多[トクソチ#コクスキタ] *

ㄱ.과 ㄴ.은 百濟地名이고, ㄷ.과 ㄹ.은 百濟王名이고, ㄱ.과 ㄴ.은 百濟人名이고, ㄷ.과 ㄸ.은 百濟官職名이다. 中·韓·日의 문헌 자료에 나타난 백제어의 고유명사를 수집한 후에 모든 백제어의 어휘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백제어의 고유명사는 한 종류의 명사로서 단어 차원에 있어서 직접 성분 분석(immediate constituent, IC)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최형용(2000: 163, 2003: 132)이 논한 Nida(1949)와 이익섭(1965)에서 제시된 원칙을 종합적으로 한국어의 경우에 적용시키는 직접 성분 분석의 기준에는 ①의미와의 연관성, ②보다 작은 단위에 의한 대치 가능성, ③통시성, ④언어 쉼 구조에 의한 지원도'가 있다. 적어도 기준 ①과 ②는 충분히 백제어 어휘의 형태적인 분석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태소(morpheme)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의미의 불확정성도 있지만) 최소단위이고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백제어 고유명사의 표기자들을 훈표형태소(semantographic morpheme)와 음표형태소(phonographic morpheme)로 구분할 수 있다. 훈표형태소(이하 훈표소)란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중국식 지명의 영향이나 언어 접촉(language contact)에 의해(한자어로 수용하여) 한자의 훈(즉 의미, 한자의 '音, 形, 義' 3 요소 중의 하나인 '義'를 가리킨다)을 빌어서 표기한 한자들이다. 혹은 한자어라고 일컫는다. 한자는 모두 단음절이기 때문에 모든 훈표소도 단음절형태소이다. 이상 예시 (13)의 괄호 안에 있는 표기자들은 모두 수용한 한자어로서 훈표형태소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중에 ㄷ.과 ㄸ.과 같은 百濟官職名³⁴⁾들은 본고의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佐平'의 경우는 官職名으로서 중국 『周禮』에 나타난 기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자어로 간주한다. 백제어의 고유명사가 漢語에서 차용한 것인지 혹은 中國化된 것인지를 역사학적인 연구를 의거하고 차용어나 중국화된 형태적인 성분이 있으면 괄호로 표기한다. 한자어는 백제어에 있는 차용어이고 한자어의 음운 연구는 차용음운론(loanword phonology)의 연구 분야에 속하고 기본적으로 백제어나 고구려어, 신라어의 음운체계를 해독한 후에 착수

33) 『三國史記』에 나타난 鄉札인 「薯童謠」와 옛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木簡에는 백제어와 관련된 문법 현상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성숙화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34) 百濟官職制度에 대한 역사학적인 연구는 노종국(1998, 2007, 2010), 양기석(1997), 전우식(2010)에서 설명한 바 있다.

가 가능하다. 한자어의 차용은 백제어의 어휘, 음운체계, 음운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표형태소(이하 음표소)란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중국식 지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백제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한자의 음만 빌어서 표기한 한자들이다. 음표소는 단음절 음표소(monosyllabic phonographic morpheme)와 다음절 음표소(polysyllabic phonographic morpheme)로 구분할 수 있다. (13)의 괄호 안에 있는 훈표소를 제외하면 모두 음표소로 간주한다. 훈표소와 음표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음표로 표기한다. 즉 훈표소 혹은/또한 음표소라는 뜻이다.

3) 백제어와 관련된 지역적 음운 대응을 맞추기

백제어와 관련된 지역적 음운 대응을 맞추는 것은 역사학·지명학의 연구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다음 (14), (15)와 같다. 이 중에 牟水(國)과 牟水(城)은 같은 곳으로 비정하고, 牟盧卑離(國)과 毛良夫里(縣)은 같은 곳으로 비정한다는 것에 의하면 표기자 중에 음표소 ‘牟-毛’, ‘盧-良’은 각각 지역적 음운 대응을 이룰 수 있다.

(14) 牟水(國)-牟水(城)

가. 牟水(國) <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韓傳 >

나. 牟水(城)³⁵三家爲看烟 <廣開土王陵碑文, 守墓人 條>

(15) 牟盧卑離(國)-牟盧(城)-毛良夫里(縣)

가. 牟盧卑離(國)³⁶ <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韓傳 >

나. 牟盧(城)³⁷ <廣開土王陵碑文, 永樂 6年(396) 條>

다. 高敞縣, 本百濟毛良夫里(縣) <三國史記, 卷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三>

4) 백제어의 음운 특징을 분석하기

백제어의 음운 특징을 분석하거나 음운체계를 해독하는 것은 漢語, 韓國語와 日本語의 통시적인 음운 변천에 의거하여 진행할 수 있다. 漢語,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사 변천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4. 漢韓日 言語의 音韻史 變遷圖

時間	漢語	韓國語	日本語
----	----	-----	-----

35) 권인한(2015: 194)에는 韓濊 지명으로 판정되어 있다. 牟水國은 「廣開土大王碑文」에 보이는 고구려에 정복당한 백제의 牟水城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구려 때의 買忽郡이었고 통일신라 때 水城郡이었던 京畿道 水原市 일대로 비정한 견해가 있다. 이 입장은 ‘牟水’의 ‘牟’와 ‘買忽’의 ‘買’는 음이 비슷하고, 『三國史記』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에 ‘買’는 ‘水’로 표기되었고 ‘忽’은 ‘城’으로 표기되었으며, ‘忽’은 ‘고을’ 혹은 ‘城’을 뜻하기 때문에 모수성과 수성군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고구려 때 ‘買省縣’이었던 京畿道 楊州郡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M2牟水國의 ‘牟’자는 ‘買’자의 음과 비슷하여 ‘물’을 의미한 ‘水’자를 표기한 음표소로, ‘水’자는 ‘물’을 의미한 훈표소로 볼 가능성도 있다.

36) 牟盧卑離(國)은 백제 때 毛良夫里(縣)이었던 全羅北道 高敞으로 비정한다.

37) 권인한(2015: 192)에는 백제 지명으로 판정되어 있다. 牟盧’는 ‘마을’ 혹은 ‘모을’의 음표자로 본다.

2000		現代時期 (20世紀初~)			近代時期 (明治以後1868~)
1800	現代音時期 (清末~)	近代時期 (17世紀初~19世紀末)			近世時期 (江戸時1603~1867)
1600	近代音時期 (元明清) 『中原音韻(1324)』	中世後期 (15世紀~壬辰倭亂)			中世時期 (鎌倉·室町時代1192~1603)
1400		中世前期 (10世紀~『訓民正音(1444)』)			
1200	中古音後期 (隋唐宋) 『廣韻(1007~1008)』 『韻鏡(1161~1203)』	古代後期 (統一新羅~935)			中古時期 (平安時代794~1192)
1000					
800					上代時期 (~奈良時代794) 『萬葉集(783)』 『風土記(733)』 『日本書紀(720)』 『古事記(712)』 推古遺文材料
600					
400	中古音前期 (魏晉南北朝) 『切韻(601)』 『經典釋文』	高句麗 (~668) 「廣開土 王陵碑文 」(414)	百濟 (~660) 「七支刀 銘文(369) 」?	新羅 (迎日冷水 里碑(524) ,壬申誓記 石(552))	
200	後漢音時期(25~220) 劉熙(160?~?)『釋名』 鄭玄(127~200)注『周禮』 許慎『說文解字(100~121)』	『三國志(265~300)』 東夷傳 夫餘 高句麗 韓			『三國志(265~300)』 東夷傳 倭
AD元年					
BC200		揚雄(BC53~18)『方言』 北燕朝鮮洌水方言區??			
~					
BC1250	上古音時期 『詩經』				

漢語 音韻史의 시간 구분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고음은 중국의 언어학적 자료(『詩經』 등 韻文資料)에 근거하여 재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부터 漢나라 말기까지 즉 기원 후 2세기말(東漢/後漢 말)까지의 漢語를 지칭한다. 中古音은 3 세기의 魏晉南北朝 시기에서 10세기의 隋唐 말까지의 漢語 음운을 말한다. 兩宋은 중고음에서 近代音까지의 과도기이며, 元明清의 음은 近代音이라고 한다. 또 근대음은 대체적으로 전기 官話와 중세 官話로 보고 10세기의 宋나라부터 19세기의 淸나라까지이 음으로 보고 있는 학자도 있다. 현대음은 20세기부터 현재까지이다. Ting Pang-hsin(丁邦新, 1975: 269)에 있는 상고음부터 중고음까지 漢語 音韻史의 시간 구분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I. ①上古 前期(Early Archaic Chinese)~諧聲時代; ②上古 中期(Archaic Chinese)~周秦(?~205B.C.); ③上古 晚期(Late Archaic Chinese)~兩漢(206B.C.~207), II. 古音(Old Chinese): 魏晉宋(208~478), III. 中古音(Ancient Chinese): 1.中古 前期(Early Ancient Chinese)~齊梁陳(479~589); 2.中古 中期(Ancient Chinese)~隋唐(590~)로 구분된다.

백제어의 자료가 처음으로 등장한 일차 사료로서는 『三國志』이고 『三國志』의 편찬 시기에 근거하면 백제어의 표기 시기는 정치사적으로 중국대륙의 魏晉南北朝 시기부터 시작한다. Ting Pang-hsin의 시기 구분에 의하면 중국 대륙의 백제어의 표기 시기는 漢語 음운사의 魏晉宋(208~478)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면 더 타당하다.

魏晉宋(208~478)부터, 특히 西晉 永嘉南渡(307~311) 이후 漢語는 큰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역사학계의 입장을 살펴보면, 唐長孺(1955/2010: 345~375)에 있는 “讀《抱朴子》推論南

北學風의異同”에 의하면 東晉의 吳士들이 洛陽語를 학습한 것은 中原文化의 중심지에 있는 洛陽 晉室이 東渡하기 전에 이미 시작하였고 吳士들의 洛陽語가 吳音을 섞어 있는 것은 顏之推(531-591)의 『顏氏家訓·音辭篇』에서 언급한 것처럼 ‘南染吳越，北雜夷虜，皆有深弊，不可具論’에 의하면 南渡한 僑姓과 吳士를 포함한 東晉 사람들의 官話는 ‘不南不北의 吳化洛陽語(한 藍靑官話으로서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닌 吳 지역의 언어와 같이 토착화된 洛陽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陳寅恪()의 “東晉南朝之吳語”라는 논문에는 東晉以後의 언어에 대해서 “東晉南朝疆域之內，其士大夫無論屬於北籍，抑屬於吳籍，大抵操西晉末年洛陽近傍之方言，其生值同時，而用韻寬嚴互異者，既非吳音與北音之問題，亦非東晉南朝疆域內北方方言之問題，乃是作者個人審音之標準有寬有嚴，及關於黨籍流行之審音學說或從或遠之問題也”에 의하면 江南 士族들이 洛陽語를 학습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학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黃笑山(1991)에 의하면 4세기 초 晉나라가 南遷해서 建康(金陵, 南京)을 수도로 하였는데, 이후의 南朝도 모두 여기를 都邑으로 하여 200년이 계속되었다. 북쪽에서 온 士族과 官吏들, 이를 따라온 사람들은 여전히 북방의 전통적인 雅音 河洛舊音을 사용하였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漸染吳越’하여 齊梁 시대(479-551) 士人들은 하나의 洛陽 皇室의 舊音을 기초로 하고 金陵地方 어음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통일된 雅音을 쓰게 되었다. 隋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뒤, 陸法言이 顏之推 등과 토론하여 편찬한 『切韻』이 이러한 雅音을 기초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周祖謨(2001)에는 전기 中古 漢語는 220년부터 588년까지의 기간으로서 魏晉南北朝時代를 말하고 이 360여 년 동안 중국의 사회적 변동은 극대했었다. 戰亂이 그치지 않고 북방 외족의 침입이 심하여, 4세기부터 6세기말까지 중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으며, 언어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하였다. 周祖謨(1962/2001: 225)는 “南北朝 시기에 韻書가 매우 많았으나 分韻은 자못 일치하지 않았다. …北人은 洛陽音을 위주로 하였고, 南人은 金陵音을 위주로 하였다. …아깝게도 이러한 운서들은 모두 전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南北朝期間韻書很多，而分韻不一致…北人以洛陽音為主，南人以金陵音為主，…可以這些韻書都已汪佚無存了)말했다. 周祖謨(1988)에는 魏, 晉, 宋, 北魏 시대의 韻母 음이 南朝의 齊, 梁, 北齊, 北周, 陳, 隋에 이르러 分·음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周祖謨(1962/2001)은 齊梁 이후에 이르러 음운변화가 더욱 커져서 韻母의 전이와 聲母의 분화가 일어나 성운체계가 전 시대와는 매우 달라져, 隋 陸法言의 『切韻』이 마치 齊梁으로부터 隋나라 초기에 이르는 이 기간의 음운체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북방어음인 洛陽音을 중심을 한 중국 南朝 漢語音은 백제어의 음운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해도 가능하다.

한국어 음운사 연구의 일부로서 백제어의 음운 연구는 통시적으로 이후 시기에 한국어 음운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음운사의 시기 구분은 이기문(1972, 2011)에 따르면 ①三國時代부터 統一新羅 멸망(935)까지는 고대 한국어 시기, ② 고려시대부터 조서시대의 처음 200년까지는 전기 중세한국어 시기, ③ 15세기 중엽에 『訓民正音』의 창제부터 16세기말의 壬辰倭亂까지는 후기 중세한국어 시기, ④ 17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는 근대한국어 시기, ⑤ 20세기 초엽 이래는 현대한국어 시기로 구분한다. 그 이후에 남풍현(2003:3)에 있는 釋讀口訣의 문법 차이에 근거한 한국어의 시대 구분은 ①上古時代의 한국어(三國時代), ② 中古時代의 한국어(統一新羅 시대), ③ 近古時代의 한국어(高麗初에서 13세기 中葉까지), ④前期 中世韓國語(13세기 후반에서 15세기 訓民正音創製까지)로 나누었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어 한자음의 음운 변천에 대하여 박병채(1956)는 ①衛滿朝鮮 이후 漢四郡 (B.C. 108~313) 설치까지는 한문화의 접촉과 한문의 유입기, ②漢四郡이 高句麗에 멸망할 때까지를 말하며 한문화의 模倣과 受容期, ③ 漢四郡의 멸망으로부터 삼국이 정립하던 시기는 한문화의 整備와 한문의 普及期, ④統一新羅 시대는 한문화에 대한 자주주의의 발견과 한문의 정착기, ⑤고려시대는 한문화의 深醉와 漢語의 國語化 시기로 한자의 한반도 유입을 5 시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박병채(1973:412)는 한국 한자음이 언제 중국에서 들어왔는지를 고찰하려면 먼저 정치적 문화적인 역사 배경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한국한자음이 정착한 시기를 高句麗 美川王 14년(314년)부터 新羅가 삼국을 통일한 文武王 8년(668)까지 약 4세기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유창균(1980: 90)은 한국어 한자음의 음운 변천에 대하여 ①고대시기: 한자의 수입~新羅의 삼국통일, ②중기시기: 統一新羅~임진란까지, ③근세시기: 임진왜란~현대한자음의 형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상 내용에 의하면 백제어의 음운연구는 고대 한국한자음 시기에 속한다.

백제어와 관련된 한국 한자음의 南方音 母胎說을 살펴보면, Maspero(1920)는 신라에는 5세기경의 남방자음(吳方言)이 전하였고, 高句麗에는 북방자음이 전했고 唐의 討滅후에 당의 자음이 채용되었고,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남방자음(신라자음)과 북방자음(고려자음)이 병존했고, 그러나 李氏朝鮮에 이르러 신라자음(남방자음)이 승리했고 따라서 현재의 자음의 근거는 남방자음이지만 북방자음의 영향도 있고 그 뒤 관화음의 영향도 받았다고 하였다. 河野六郎(1968: 14)는 전승된 朝鮮字音 중에 六朝에서 근대에 걸치는 긴 기간의 각대의 자음이 남아 있어서 一律的으로 어느 시대의 중국원음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각각의 음운 범주 속에는 新舊의 층이 混在하고 있는 것이 眞狀이라 하였다. 근거의 원형이 된 것은 南朝의 江東音일 것이며, 그 뒤에 가장 유력한 刻印을 찍은 것은 唐代의 長安音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하였고, 한국한자음에 舊層-南朝의 江東音과 신층-唐代의 長安音의 복합으로 간주하고 근대한자음의 주류는 신층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박병채(1971: 426)는 한국한자음이 7·8세기의 절운음인 북방 중고한음을 그 모태로 한 것이며 거기에 6·7세기 六朝시대의 東南方 한음인 고층이 보수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河野六郎과 비슷한 견해를 세우고 있다.

일본 열도의 문헌은 史書類 자료인 『古事記』, 『日本書紀』, 氏族 자료인 『新撰姓氏錄』에서 많은 百濟의 고유명사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것에 의거하면 백제어의 음운연구는 일본어의 음운사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어의 음운사는 上代(奈良時代 이전 및 奈良時代, ~794), 中古(平安時代, 794~1192), 中世(鎌倉時代 1192~1333, 室町時代 1333~1603), 近世(江戸時代, 1603~1867), 近代(明治 이후, 1868~현재)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대응적으로 백제어의 음운 연구는 상대일본어의 음운체계와 관련이 크고 지역적인 음운 대응이 있을 가능성 높다. 그리고 보충자료로서 萬葉假名가 성숙하기 전에 나타난 상대일본어의 推古遺文에 나타난 가나 上代特殊假名 자료를 참고하고 이 외에 주로 상대일본어 시기에 나타난 萬葉假名 목록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로 한자를 읽는 방법에는 음으로 읽는 방법인 音讀과 뜻 혹은 훈으로 읽는 방법인 訓讀으로 구분된다. 한자의 음은 한자가 지닌 본래의 중국어 발음이 일본에 전해지고, 그것이 일본어 음운체계 맞게 변화되어 정착한 것이고 4, 5세기 경에 전래되었다고 추측되는 金石文에 나타난 한자음이 古音이고, 5, 6세기 중국 남부에서 한반도를 경유해서 전해진 한자음이 吳音³⁸⁾(혹은 和音, 倭音)이고, 7, 8세기에 걸쳐서 전래된 한자음을 漢音이

38) 오음에 대하여 이경철(2013: 171)은 5세기를 전후해서 중국 남부의 吳地方音이 百濟를 통해 일본 전래된 음

라고 하고 있다. 불경의 讀誦音은 대체로 六朝의 『切韻』과 거의 가까운 오음으로 읽고 유교 경전 등 漢籍이나 平安시대 이후에 소개된 한적을 통해서 들어온 한자어는 唐 長安·洛陽의 표준음과 부합되는 한음으로 읽었다. 百濟 고유명사의 표기자들은 대응적으로 일본한자음에 있는 古音, 吳音, 漢音으로 실현 여부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제어의 음운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漢語,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사 변천 연구는 시대적인 한계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에 있는 漢語, 한국어와 일본어의 통시적인 음운 연구는 충분히 성숙화되어 백제어의 음운 연구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백제어의 음운연구에 필요한 漢語 음운사의 연구와 언어학적인 재구에 대해서 본고는 Schuessler(2009)의 最低 限度 漢語 上古音(Minimal Old Chinese, 이하 OCM), 後漢音(Later Han Chinese, 이하 LHan), 中古音(Middle Chinese, 이하 MC) 再構音을 참조하고 漢語의 음운사는 李方桂(1971), Pulleyblank(1962, 1984), Baxter(1992), 潘悟雲(2000), Baxter&Sagart(2014)를 참조할 것이다. 백제어 고유명사의 음표소를 표기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음표소의 上古聲韻部, 中古聲韻調, 廣韻反切을 확인하고, 복수한자음의 경우는 음표소의 의미에 따라서 취사선택을 하고, 漢語 상고OCM, 후한음, 중고음의 재구음에 있는 실현 양상, 상고시기부터 후한음까지 음운의 변화, 후한음시기부터 중고음까지 漢語 음운의 변화를 확인한다. 중국 대륙에 있는 백제어 고유명사의 표기 시기는 북방 아음인 洛陽音을 중심을 한 중국 南朝 漢語音을 기준으로 하는 동시에 漢語 음운사를 前瞻後顧(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본다는 뜻으로, 일을 당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앞뒤를 재며 어물어물함을 이르는 말)해야 한다. 즉 한국 한자음에 여러 기층의 漢語音³⁹⁾을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漢語 음운사의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를 같이 참고로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성조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 제외한다.

백제어의 음운연구에 필요한 한국어 음운사와 한국한자음의 연구로는 이기문(1972, 1998, 2011), 이돈주(1995), 권인한(1997b, 2005, 2009), 伊藤智ゆき(2007), 訓蒙字會(1527, 睿山本)을 참조할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에 대한 차자표기자 자료 및 연구는 송기중(1994, 2004), 권인한(2015), 梁柱東(1965), 金完鎭(1980, 2000), 南豐鉉(2014a, 2014b) 등을 참조할 것이다.

상대일본어에 대한 연구는 본고에서 Miyake(2003)와 Frellesvig(2010)를 참조할 것이고, 推古遺文 上代特殊假名은 大矢透(1911)을 참고하고 萬葉假名 목록은 大野晉(1953), 森博達(1991), Vovin(2009)를 참조한다. 이 외에 일본어의 古音, 五音, 漢音에 대한 연구는 沼本克明(1997) 등을 참조하고 자료는 『廣漢和辭典』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 <https://japanknowledge.com>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백제어의 모음과 자음을 해독하는 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5.와 표6.을 참고한다. 표에 나타난 BVX(Baekjeic vowel X), BCY(Baekjeic consonant Y),는 中·韓·日

으로, 百濟音, 和音, 對馬音이라고도 한다. 주로 생활에 밀접한 漢語나 佛教關係用語에 남아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음의 약 2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오음은 5세기 중국 六朝期 남부의 吳地方音을 이식한 것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지만, 吳地方音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隋나라 仁壽元年에 설립된 漢語 중고음을 대표하는 『切韻』의 체계와 비교해 보면, 吳音이 시기적으로는 『切韻』보다 다소 앞선 前切韻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切韻』이 의거한 北方標準音과는 다른 방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본고는 滿田新造(1926/1997)과 같은 오음의 百濟 經由說을 지지하기 전에 백제한자음에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있었음을 언어학적으로 먼저 증명해야 하고 차용 음운론의 관점에서는 백제한자음의 유무성 대립이 확인되어야만 이것을 수용한 일본어의 오음에서도 유무성 대립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39) 한국한자음에 대한 기층 혹은 층위 연구는 申雅莎(2006, 2009), 韓昶濤(2010, 2014), 申祐先(2014, 2015, 2017), 盧慧靜(2014)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의 언어별 혹은 음운 환경에 따른 백제어의 모음과 자음의 변이음들이다. CP1(phonograph 1 written by Chinese), KP1(phonograph 1 written by Korean), JP1(phonograph 1 written by Japanese)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백제어 어휘를 표기하기 위한 사용한 표기자 혹은 음표소들이다. CC1(Chinese consonant 1)은 漢語에서 실현된 자음 1, KC1(Korean consonant 1)은 한국어에서 실현된 자음 1, JC1(Japanese consonant 1)은 일본어에서 실현된 자음 1이다. CV1(Chinese vowel 1)은 漢語에서 실현된 모음 1, KV1(Korean vowel 1)은 한국어에서 실현된 모음 1, JV1(Japanese vowel 1)은 일본어에서 실현된 모음 1이다. 자음BC, BV를 표기한 음표소는 백제계 고유어나 일본계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俱知(鷹, 매), 至至(父, ちち) 등이 있다. 그리고 분고에서는 음소만 표기하는 이른바 광범위한 전사 또는 음소적 전사(phonemic transcription)를 사용한다. 漢語의 재구음, 상대일본어의 음운체계와 이후의 시기에 한국 전승한자음의 음운체계에 근거하여 해독 및 상정한 백제어의 모음과 자음 앞에서는 별표 두 개로(**) 표시하고 하이픈(‘-’)이 하나만 표시하면 어두나 어말 자리만 나타나는 뜻이고 하이픈이 두 개로 표시하면 어두와 어말에 모두 실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림1. 백제어의 모음을 해독하는 방법의 圖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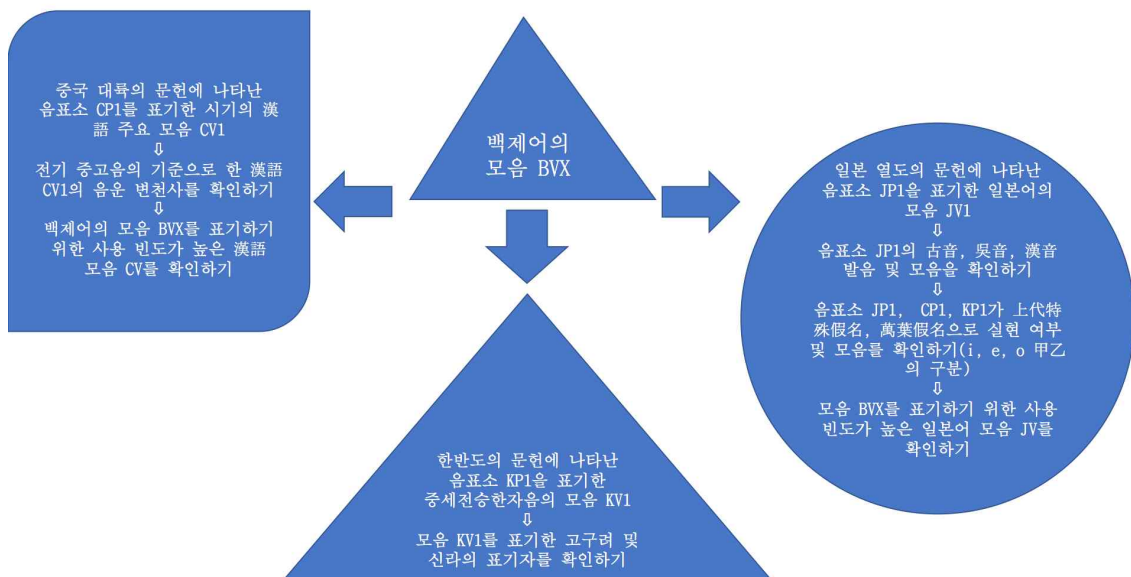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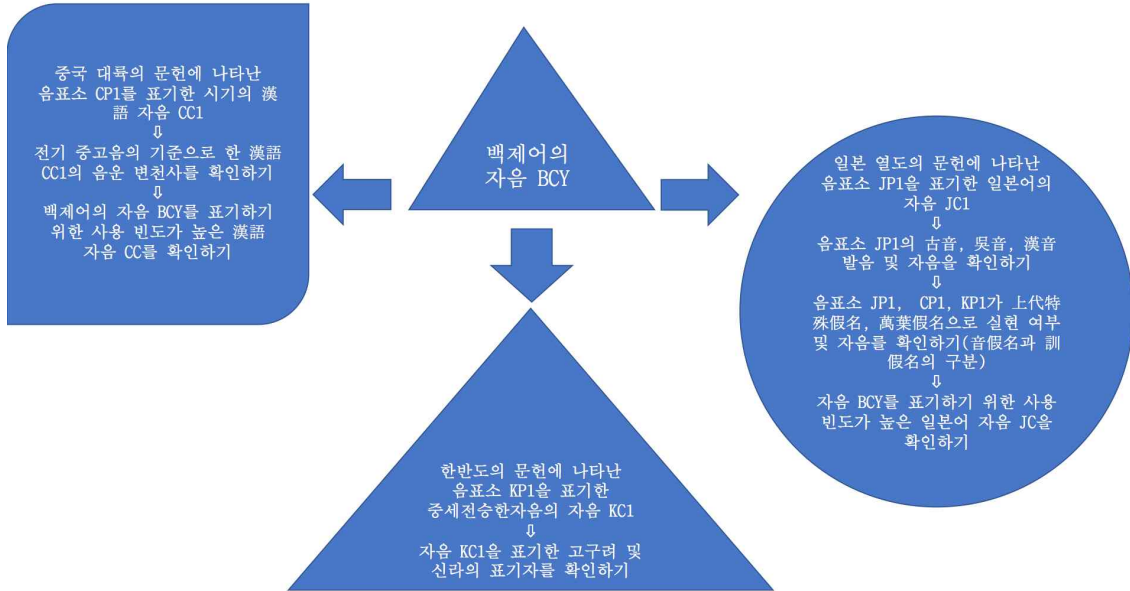


그림2. 백제어의 자음을 해독하는 방법의 圖示



6. 맺음말(생략)

참고문헌(주요)

일차 자료 및 문헌 목록

- 국립공주박물관 편(1999), 『日本所在 百濟文化財 調査報告書 1. 近畿』,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편(2000), 『日本所在 百濟文化財 調査報告書 2. 九州』,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편(2002), 『日本所在 百濟文化財 調査報告書 3. 近畿』,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편(2004), 『日本所在 百濟文化財 調査報告書 4. 長野・東京・千葉』,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편(2005), 『백제문화 해외조사보고서 5. 中國 江西省・安徽省・浙江省』,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편(2008), 『백제문화 해외조사보고서 6. 中國 南京地域』, 국립공주박물관.
 國語學會 편(1973), 『國語學資料選集 I, II, III, VII』, 一潮閣.
 권인한 외 편(2015), 『한국고대 문자자료 연구: 백제. (상, 하)』, 주류성 출판사.
 양중국(2006), 『(中國史料로 보는)百濟』, 서경.
 전형식(2006), 『일본인의 한국어연구 자료집 -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편(2008), 『百濟史資料譯註集-韓國篇 I』,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편(2008), 『百濟史資料譯註集-韓國篇 II』,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편(2008), 『百濟史資料譯註集 - 中國篇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편(2008), 『百濟史資料譯註集 - 日本篇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원 편(2005), 『百濟史資料原文集 1 - 韓國篇』,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충청남도역사문화원 편(2005), 『百濟史資料原文集 2 - 中國篇』,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충청남도역사문화원 편(2005), 『百濟史資料原文集 3 - 日本篇』, 충청남도역사문화원.

Song, M. I. & Matsui, M. (1980), *Japanese Sources on Korea in Hawaii*,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이차 자료

중국측

- 拜根兴(2011), 『唐代高丽百济移民研究：以西安洛阳出土墓志为中心』, 中国社会科学出版社.
 何九盈(2013), 『中国古代语言学史』 第4版, 商务印书馆.
 華學誠(2014), 『周秦漢晉方言研究史』, 上海人民出版社.
 李无未(2011), 『日本汉语音韵学史』, 商务印书馆.
 李无未(2014), 『东亚视阈汉语史论』, 厦门大学出版社.
 梁啟超(2011), 『中國近三百年學術史』(新校本), 商務印書館.
 罗常培, 周祖谟(1958), 『汉魏晋南北朝韵部演变研究』 第一分册, 科学出版社.
 唐长孺(2010), 『魏晋南北朝史论丛』, 商务印书馆.
 王仲殊(2013), 『古代中国与日本及朝鲜半岛诸国的关系』, 中国社会科学出版社.
 徐通锵(1991), 『历史语言学』, 商务印书馆(2014.12重印).
 曾晓渝(2004), 『語音歷史探索 - 曾曉渝自選集』, 南開大學出版社.
 赵元任(1980), 『语言问题』 新版, 商务印书馆.
 周一良(2010), 『魏晋南北朝史十二讲』, 中华书局. (2013.7 重印).
 周祖谟(1996), 『魏晋南北朝韵部之演变』, 台北东大图书股份有限公司.
 周祖谟 著, 周士琦 編(2000), 『周祖谟语言文字论集』, 人民教育出版社.
 周祖谟(2001), 『周祖谟语言学论文集』, 商务印书馆.

한국측

- 강헌규(1995), 백제 지명 所比浦縣에 대하여, 『백제문화』 24, 99-11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강헌규(1996), 백제문화의 연구 어디까지 왔나 : 백제어 연구의 현황과 그 문제점, 『백제문화』 25, 207-21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姜昺求(1997), 『三國史記 原典研究』, 學研文化社.
 강길운(1977), 백제어의 계통론(1), 『백제연구』 8, 45-6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강길운(1978), 백제어의 연구(계통론(系統論))(2), 『백제연구』 9, 41-8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姜吉云(2011),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姜吉云(2012), 『한국어 계통론(上卷, 下卷)』 개정판, 한국문화사.
 강신항(1987), 한국 한자음과 漢語 상고음과의 대응 가능성에 관하여, 『東洋學』 17, 1-26.
 姜信沆(2003), 『韓漢音韻史研究』, 태학사.
 姜信沆(2011), 南 · 北系 漢語와 韓國漢字音, 『韓國語研究』 8, 5-27, 역락.
 姜信沆(2017), 『韓漢音韻史研究』, 增補補遺編, 월인.
 權仁瀚(1997a), 현대국어 한자어의 음운론적 고찰, 『國語學』 29, 243-260, 國語學會.
 權仁瀚(1997b), 한자음의 변화 교정본, 『國語史研究』 別刷本, 太學社.
 權仁瀚(1998), 『朝鮮館譯語의 音韻論의 研究』, 太學社.
 권인한(2002), 고대 한국한자음에 대한 한 고찰 - 신라국호의 이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출판부, 79-96.
 權仁瀚(2003), 신라 관동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 149-191.
 권인한(2003), 고대 한국한자음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斯」의 고대 한국한자음 문제를 중심으로,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9-26.
 權仁瀚(2005), 岩崎本 『日本書紀』의 聲點에 대한 一考察 : 韓國系 固有名詞 資料를 中心으로, 『大東文化研究』 52, 317-345,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權仁瀚(2006), 중세국어 한자음, 『國語史와 漢字音』, 57-94, 박이정.
 權仁瀚(2008), 고대 지명행태소 ‘本波/本彼’ 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2, 83-95.

- 權仁瀚(2009), 『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研究 <資料篇>』, 박문사.
- 권인한(2010), 木簡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 문자문화 - 한문 어법의 선택적 수용과 변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목간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1-13.
- 권인한(2011), 『三國志』 · 魏志 · 東夷傳의 固有名詞 表記字 分析, 『口訣研究』 27, 217-242, 口訣學會.
- 권인한(2012), 韓 · 日 初期 木簡을 통해서 본 한문 어법의 선택적 수용과 변용, 『일본연구』 13, 81-109.
- 권인한 외 편(2013),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권인한 외 편(2009), 『동아시아 자료학의 가능성 - 고대 동아시아사의 이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권인한(2015), 『廣大土王碑文 新研究』, 박문사.
- 권인한 외 편(2015), 『한국고대 문자자료 연구: 백제. (상, 하)』, 주류성 출판사.
- 金敏洙(2003), 『新國語學史』 全訂版, 一潮閣.
- 김선기(1971), 백제 지명 속에 있는 고대 음운 변천, 『백제연구』 4, 23-6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김수경(1989),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 하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양출판사. (영인본 『고구려 백제 신라 언어 연구』, 1995년에 한국문화사에서 출판되었다.)
- 김완진(1958), 原始國語의 子音體系에 對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金完鎭(1971),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 金完鎭(1977),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塔出版社.
- 金完鎭(1980), 『鄉歌 解讀法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完鎭(1981), 古代語 研究資料로서의 地名,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 71-85.
- 김완진(1996),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完鎭(2012), 百濟와 高句麗를 위한 한 概說, 『韓國語研究』 9, 5-24, 역락.
- 김정빈(2007a),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보이는 백제 한자음 연구 - 그 자료성과 음운체계를 중심으로, 『口訣研究』 19, 25-62, 口訣學會.
- 김정빈(2007b), 『일본오음연구』, 책사랑.
- 김정빈(2008), 일본서기(日本書紀)(720) 고대 백제어 차자음(借字音) 분운분뉴표(分韻分紐表), 『口訣研究』 20, 287-307, 口訣學會.
- 김정빈(2011), 「枕彌多禮」 攷, 『口訣研究』 26, 243-268, 口訣學會.
- 김홍석(2005), 백제 유물 속에 백제어 소고, 『백제문화』 34, 235-25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南豐鉉(1981),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社.
- 南豐鉉(2003a), 新羅僧 順憬과 憬興의 法華經 註釋書에 대하여, 『口訣研究』 10, 31-46, 口訣學會.
- 南豐鉉(2003b), 古代國語의 時代 區分, 『口訣研究』 11, 1-22.
- 南豐鉉(2009), 『古代韓國語研究』, 시간의 물레.
- 南豐鉉(2014a), 『國語史研究』, 태학사.
- 南豐鉉(2014b), 『古代韓國語 論攷』, 태학사.
- 노중국, 권오영(2008), 『백제 역사와 문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노중국(2010),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 都守熙(1977), 『百濟語研究』, 亞細亞文化社.
- 都守熙(1987), 『百濟語 研究 I』,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都守熙(1989), 『百濟語 研究 II』,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都守熙(1994), 『百濟語 研究 III』,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都守熙(2000), 『百濟語 研究 IV』,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都守熙(1999), 『한국 지명 연구』, 이회문화사.

- 도수희(2004), 『백제의 언어와 문학』, 주류성.
- 都守熙(2004), 『百濟語 語彙 研究』, 제이앤씨.
- 都守熙(2007), 『백제언어 연구(1)(2)(3)(4)』, 제이앤씨.
- 都守熙(2008), 『三韓語 研究』, 제이앤씨.
- 都守熙(2010), 『한국 지명 신 연구: 지명 연구의 원리와 응용』, 제이앤씨.
- 도수희 외(2013), 『알타이어 속의 한국어, 한국어 속의 알타이어』, 역락.
- 류렬(1990), 『조선말력사』, 사회과학출판사.
- 류렬(2003), 『향가연구』, 『조선어학전서』 13, 박이정.
- 柳玟和(2000), 『『日本書紀』 朝鮮固有表記字의 研究』, 해안.
- 朴炳采(1966), 鄉歌 表記의 源流的 考察, 『국어국문학』 32, 국어국문학회.
- 朴炳采(1971), 『古代國語의 研究 - 音韻篇 -』, 高麗大學校 出版部.
- 박병채(1988), 서평 : 도수희 저 : 백제어 연구(I), 『아세아연구』 31권2호, 319-32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世英社.
- 朴炳采(1990), 『古代國語學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박창원(1985), 국어 유성장애음의 재구와 그 변화, 『국어국문학』 93, 57-85, 국어국문학회.
- 박창원(1995), 고대국어(음운) 연구 방법론 서설 - 전사의 대응을 중심으로-,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 박창원(1996a), 고대국어의 치음, 『國語學』 27, 99-130, 國語學會.
- 박창원(1996b),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 박창원(1997), 연구 방법과 변화 유형, 『國語史研究』 25-63, 태학사.
- 박창원(2002), 『고대국어 음운(1)』, 태학사.
- 박창원, 오미영, 오은진(2004), 『한·영·일 음운 대비』, 한국문화사.
- 박창원(2014), 국어사의 새로운 이해 1: 전체적인 흐름의 이해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2, 171-214.
- 박창원(2015), 고대국어 자음체계의 대한 연구사적 검토 - 이승재(2013), 『백제어 자음체계』의 간행에 조음하여, 『이화어문논집』 35, 247-271.
- 宋基中(1992), 現代國語 漢字語의 構造, 『한국어문』 1, 1-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宋基中, 南豊鉉, 金永鎭 편(1994), 『古代國語 語彙集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송기중(1995), 고대국어 한자음에 관련된 몇 가지 관찰, 『한일어학논총』 449-468, 국학자료원.
- 송기중(1999), 고대국어 연구의 새로운 방법, 『한국문화』 24, 1-34.
- 宋基中(2004), 『古代國語 語彙表記漢字의 字別 用例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재한(2012), 『日本 吳音의 韻類體系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申雅莎(2006), 韓漢音研究, 北京大學博士研究生學位論文.
- 申雅莎(2009), 『訓蒙字會』 · 『新增類合』 · 『千字文』에 반영된 止攝字 층위 연구(1), 『중국어문학논집』 58, 141-163.
- 申祐先(2014), 한국 한자음 역사 음운 층위 연구의 의의와 그 방법, 『중국어문학논집』 89, 91-112.
- 申祐先(2015), 韓國漢字音歷史層次研究, 國立台灣大學 博士論文.
- 申祐先(2017), 『韓國漢字音歷史層次探析』, 元華文創股份有限公司.
- 辛兌鉉(1958)
- 申容泰(1982), 韓國漢字音의 母胎에 關する 考察, 『人文科學研究』 1, 국제대학교.??
- 신용태(1988), 『原始韓·日語의 研究』, 동국대학교 출판부.
- 양기석(2013),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 梁柱東(1965), 『古歌研究』 訂補版, 一潮閣.
- Eom Ik-Sang(1991), *A comparative phonology of Chinese and Sino-Paekche Korean*, Indiana

University Dissertation.

Eom Ik-Sang(1992), *The Min Dialects As the Source of Sino - Paekche Korean*, 『중국어문학논집』 4, 309-327.

嚴翼相(1998), 多音漢字의 中國音韻學的 分析, 『중국어문학논집』 10, 381-425.

엄익상(2002), 『중국 언어학 한국식으로 하기』, 한국문화사.

엄익상, 遠藤光曉(2005), 『한국적 중국언어학 자료 연구』, 학교방.

엄익상(2007), 백제한자음의 운모와 성조에 대한 문의, 『중국어언어연구』 25, 47-66, 한국중국언어학회.

엄익상, 원등효광(2008), 『한한어언연구』, 학교방.

엄익상(2008), 『(백제에서 현대까지)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 한국문화사.

엄익상, 遠藤光曉 외(2010), 『한한어언탐색(韓漢語言探索)』, 학교방.

엄익상, 고광민(2013), 『중국동남방언어중한문화』, 한국문화사.

엄익상(2015), 『(백제에서 현대까지)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다시보기』, 한국문화사.

俞昌均(1975), 高句麗 人名表記에 나타난 用字法의 檢討, 『東洋學』 5, 85-97,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俞昌均(1980), 『韓國 古代 漢字音의 研究 I』, 啓明大學校 出版部.

유창균(1982), 마한의 고지명에 대하여, 『어문연구』 11, 어문연구회.

俞昌均(1983a), 『韓國 古代 漢字音의 研究 II』, 啓明大學校 出版部.

俞昌均(1983b), 『韓國漢字音 研究』, 啓明大學校 出版部.

俞昌均(1991), 『삼국시대의 漢字音』, 민음사.

俞昌均(1994), 『鄉歌批解』 補訂版, 螢雪出版社.

李京哲(2002a), 河野六郎의 朝鮮漢字音唐代長安音說에 대한 反論 - 聲類를 중심으로 -, 『日本語學研究』 第5輯, 97-114.

이경철(2002b), 河野六郎의 朝鮮漢字音唐代長安音說에 대한 反論 - 韻類를 중심으로 -, 『日本語學研究』 第13輯, 251-276.

이경철(2003a), 『한·일 한자음 체계의 비교연구』, 보고서.

이경철(2003b), 中古漢語 韻尾體系의 再考, 『日語日文學研究』 第44輯, 165-186, 한국일어일문학회.

이경철(2004), 중고한어 재구음의 문제점에 대하여, 『日本文化研究』 第14輯, 237-250.

李京哲(2009), 韓國漢字音에 나타나는 「아래아」의 音韻結合樣相에 대하여 - 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한국일본어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17-23.

이경철(2013), 分韻表를 활용한 日本漢字音 연구 방법, 『日本語學・日本語教育』 2, 음운·음성 169-199, J&C.

李基東(1996), 『百濟史研究』, 一潮閣.

이기동 외(2007), 『백제사 총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이기문(1963), 'A Genitic View on Japansene', 『朝鮮學報』 27, 136-147. 日本期刊

이기문(1964), 'Materials of the Koguryo Language',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No. 20.

이기문(1967), 韓國語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V 言語 文學史篇』.

이기문(1968),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第4號.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 탑출판사.

李基文(1977), 제주도 방언의 'ㅇ' 에 관련된 몇 문제, 『國語國文學論叢(李崇寧先生古稀紀念)』, 탑출판사.

이기문(1982a), 백제어 연구와 관련된 제문제, 『백제연구』 13, 136-13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이기문(1982b), 百濟語 研究와 관련된 몇 問題, 『백제연구 별책』 254-26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李基文(1991), 三國時代의 言語 및 文字生活, 『韓國思想史大系』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李基文(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 李基文(1998), 『國語史概說』 新訂版, 太學社.
- 이기문(2001), 고대 삼국의 언어 표기관, 『새국어생활』 제11권, 제3호, 37-48.
- 李基文(2005), 우리 나라 文字史의 흐름, 『口訣研究』 14, 233-251, 口訣學會.
- 이기문(2006),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45-70, 태학사.
- Lee, Ki-Moon & Ramsey, S. R. (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李根雨(1994),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三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李敦柱(1990), 향가 용자 중의 ‘賜’ 자에 대하여, 『國語學』 20, 72-89, 國語學會.
-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塔出版社.
- 이돈주(1981), 지섭(止攝) 한자음과 /o/ 음의 반영, 『한글』 173 · 174, 247-266, 한글학회.
- 이돈주(2003), 『韓中漢字音研究』, 태학사.
- 이돈주(2006), 한국의 속음한자 중 /k-h/ 음의 교체 문제, 『國語史와 漢字音』 335-372, 박이정.
- 李炳銑(1982), 『韓國古代國名地名研究』, 螢雪出版社.
- 이병선(1983), 고대(古代) 남북간(南北間) 방언(方言)의 이동(異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0, 41-75, 국어국문학회.
- Lee, Sang-oak (2010), *Contemporary Korean Linguistics : International Perspectives*, Taehaksa.
- 李崇寧(1955/1978), 신라시대의 표기법 체계에 관한 시론,
- 이승녕(1967), 한국방언사, 『한국 문화사 대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승녕(1971), 백제어의 연구와 자료의 문제점 - 특히 지명의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백제연구』 2, 157-16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이승녕(1983), 백제어의 연구시고(研究詩攷) - 주로 「웅(熊)」 자지명(字地名)과 인격의 경향에 대하여, 『백제연구』 14, 5-1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54-57.
- 이승재(2013), 『(漢字音으로 본) 백제어 자음체계』, 태학사.
- 李丞宰(2016a), 高句麗語 母音에 ‘아’가 없었을까? - 고구려어 표음자의 蟹攝字 분석 -, 『國語學』 78, 3-46, 國語學會.
- 이승재(2016b), 『漢字音로 본 고구려어 음운체계』, 일조각.
- 이승재(2017), 『목간에 기록된 고대 한국어』, 일조각.
- 이연주(2008), 양웅 『방언』(한대(漢代))에 나타난 동북 지역의 언어 상황, 『中國學報』 58, 35-52.
- 이연주(2009), 양웅(揚雄) 《방언(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 고찰, 『중국어문학』 54, 451-481.
- 이연주(2010), 揚雄 『方言』과 중국어에 있어 방언의 문제, 『인문과학연구』 26, 102-124.
- 이연주(2012), 양웅(揚雄) 《방언(方言)》의 통어(通語)와 공통어, 『중국어문학』 59, 247-269.
- 이은규(2006),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 용자 사전』, 제이앤씨.
- 이장희(2001), 신라시대 漢字音 聲母體系의 통시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장희(2003), 전승 한자음 원순모음의 반영 양상 분석, 『제17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3-16, 한말연구학회.
- 이장희(2014), 고대국어의 음운체계 연구의 새로운 시각 - 이승재, 『한자음(漢字音)으로 본 백제어 자음체계』(태학사, 2013), 『어문논총』 62, 585-593,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 이재돈(2007), 『中國語音韻學』, 學古房.
- 李鍾徹(1995), 『日本地名에 反映된 韓系語源再考』, 國語資料院.
- 李準煥(2011), 鄉札 表記字 漢字音 研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學會』 26, 5-54, 口訣學會.
- 이준환(2015), 『訓蒙字會』 注釋에서 볼 수 있는 중세국어 한자음의 모습, 『國語學』 75, 85-127.
- 李珍昊 譯註, 河野六郎 著(2010), 『한국 한자음의 연구』, 역락.

- 李珍昊 편역, 河野六郎 著(2012), 『河野六郎과 國語 音韻論』, 지식과 교양.
- 이진호(2017), 『국어 음운론 강의』 개정판, 삼경문화사.
- 이진호(2017), 『국어 음운론 용어 사전』, 역락.
- 李弘植(1954), 百濟人名考, 『서울대 論文集』 1, 3.
- 林東權(2005), 『日本 안의 百濟文化 : 師走際와 鬼室神社를 中心으로』, 민속원.
- 임용기, 홍윤표 편(2006),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 장세경(1991), 백제 인명 표기자 연구 - 「일본서기」의 한국 인명 표기자와 비교, 『東方學志』 71-72권,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 장세경(2007), 『한국고대 인명사전』, 역락.
- 全昌煥(2003), 日本吳音と中國方言音の音韻對應についての研究, 新潟大學大學院先達社會文化研究科 博士學位論文.
- 全哲雄(1999), 『忠北 方言의 單語 變遷史』, 보고서.
- 정광(2011), 『삼국시대 한반도의 언어 연구 - 고구려어의 역사비교언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 박문사.
- 정광(2012), 고려본 <용감수경(龍龕手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61, 237-279, 국어국문학 회.
- 정광 외(2015), 『한국어의 좌표 찾기 - 계통론과 유형론을 넘어서』, 역락.
- 鄭求福 외(1995), 『三國史記의 原典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원수(2001), 백제어의 형성과 계통에 대하여, 『백제연구』 33, 163-18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趙大夏(2001), 古代日本漢字音の研究, 立教大學 博士學位論文.
- 조대하(2004), 古代 韓日漢字音의 對比研究 - 「斯」 字의 古音을 中心으로 -, 『일본어문학』 20, 155-171.
- 趙大夏(2006), 魏志의 古代韓日語轉寫音表記についての考察, 『일본문화연구』 17, 301-312.
- 조재훈(1973), 백제어 연구 서설, 『백제문화』 6, 7-4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지현영(1961), 정읍사(井邑詞)의 연구, 『아세아연구』 4권1호, 141-20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지현영(1972), 「두량윤성(豆良尹城)」에 대하여, 『백제연구』 3, 11-4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지현영(1973), 산장산하(産長山下) 지명고(상) - 두량윤성(豆良尹城)에 대하여(속(續)), 『백제 연구』 4, 53-8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최기호(1994), 한국어 형성에서 백제어의 위치, 『몽골학』 2, 1-20.
- 최기호(1995), 백제어의 연구 - 문헌자료에 관하여, 『인문과학연구』 4, 93-118, 상명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 韓昶濤(2010), 고대 韓國漢字音에 반영된 東漢~六朝代 中國音(1), 『구결연구』 24, 133-161, 口訣學會.
- 한경호(2014), 고대조선한자음에 반영된 동한 ~ 육조대 중국음(2), 『중국조선어문』 6, 51-56.
- 韓昶濤(2015), 한국한자음 중의 魚韻 반영형에 대하여, 『구결연구』 35, 155-189, 口訣學會.
- 한경호(2015), 上古音 *s[+nasal]-式 音節初 子音群(Initial Cluster) - 戰國~西漢時代의 楚地 出土문헌 위주로, 『중어중문학』, 60, 191-211, 한국중어중문학회.
- 한미경 외(2006), 『일본어의 역사』, 제이앤씨.
- 韓美卿 편(2013), 『日本語學・日本語教育 2, 음운·음성』, J&C.
- 한성백제박물관 편(2015), 『백제의 성장과 중국』, 한성백제박물관.
- 일본측**
- 鮎貝房之進(あゆかい ふさのしん, 1931), 『雜放』,
- 有坂秀世(1944), 『國語音韻史の研究』, 三省堂.
- 江上波夫(えがみなみお/Egami Namio, 1967), 『騎馬民族國家 : 日本古代史へのアプローチ』, 中央公

論社.

- 栗田英二(Eiji Kurita, 2015), 『日本書紀と古代韓國語漢字音』, 『동아인문학』 30, 101-136.
- 服部四郎(Hattori, 1959), 『日本語の系統』,
- 服部四郎(1976), 『上代日本語の母音體系と母音調和』, 『言語』 5-6.
- 平山久雄(ひらやまひさお, 1967), 『中古漢語の音韻』, 『中國文化叢書 1 言語』, 大修館書店. [李準煥 (2013a) 역, 『中古漢語의 音韻(1)』, 『口訣研究』 30, 257-297, 口訣學會.; 李準煥 (2013b) 역, 『中古漢語의 音韻(2)』, 『口訣研究』 31, 195-248, 口訣學會.]
- 平山久雄(2005), 『平山久雄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 藤井茂利(1969), 『日本書紀に見える朝鮮系音假名』, 『東洋大學紀要』 第13輯, 23-36.
- 藤井茂利(1975), 『推古朝遺文の假名と朝鮮漢字音』, 『文學科論集』 第11号, 81-105, 鹿兒島大學.
- 藤井茂利(1976), 『萬葉集の音假名と朝鮮漢字音』, 『文學科論集』 第12号, 77-108, 鹿兒島大學.
- 藤井茂利(1980), 『日本書紀に見える朝鮮人名表記の漢字』, 『文學科論集』 第16号, 1-27, 鹿兒島大學.
- 伊藤智ゆき(2002), 『朝鮮漢字音研究』, 東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文本篇』, 汲古書院. [이진호(2011), 『한국 한자음 연구 - 본문편』, 역락].
-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資料篇』, 汲古書院. [이진호(2011), 『한국 한자음 연구 - 자료편』, 역락].
- 金澤庄三郎(かなざわ しょうざぶろう, 1901), 『日韓兩國語 比較論』, 日韓語 動詞論,
- 金澤庄三郎(1910), 『日韓兩國語同系論』, 三省堂書店.
- Kanazawa, S. (1910), 『The Common Origin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Sanseido.
- 金澤庄三郎(1912), 『日鮮古代地名의 研究』,
- 金澤庄三郎 小籾? 文次郎(1913), 『朝鮮地名語彙』, 東京帝國大學.
- 金澤庄三郎(1929/1943), 『日鮮同祖論』, 刀江書院/汎東洋社.
- 金澤庄三郎(1932), 『新羅の片假名 : 比較國語学史の一節』, 金澤博士還曆祝賀會.
- 春日和男 編(かすが かずお, 1978), 『新編國語史概説』, 有精堂.
- 木下禮仁(1961가)는 “日本書紀にみえる百濟史料の史料的價値について”, 『朝鮮學報』 20·21, 天理朝鮮學會.
- 木下禮仁(1961나), 『百濟史料についての一整理』, 『文化史學』, 文化史學會.
- 金田一京助
- 金田一春彦
- 金田一春彦(きんだいち はるひこ, 1988), 『日本語 上・下』 新版, 岩波書店. [潘鈞(2001), 『日語概説』, 北京大學出版社.]
- 金田一春彦(2001), 『日本語音韻音調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諸橋徹次(1981-1982), 『廣漢和辭典』, 大修館書店.
- 金田一春彦 監修(2003), 『古語辭典』, 學研教育出版.
- 河野六郎(1949), 『日本語と朝鮮語の二三の類似(일본어와 한국어의 두어 가지 유사점)』, 『人文科學の諸問題 - 共同研究-』, 74-80, Seki Shoin??
- 河野六郎(1967), 『古代の日本語と朝鮮語(고대의 일본어와 한국어)』, 『ことばの宇宙』,
- 河野六郎(1968), 『韓國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2)』 (1979) 채수록, 295-512, 平凡社. [李珍晷 역주(2010), 『한국한자음의 연구』, 역락.]
- 河野六郎(1979), 『河野六郎著作集(1)(2)(3)』, 平凡社.
- Kono, R. (1987), 『The Bilingualism of the Paekche Language,』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45: 75-86.
- 馬淵和夫(1971), 『國語音韻論』, 笠間書院.
- 馬淵和夫(1999), 『古代日本語の姿』, 武藏野書院.
- 馬淵和夫 外(まぶちかずお/Mabuchi Kazuo, 1978), 『三國史記』記載の百濟地名より見たる古代百濟

- 語の考察, 『文藝言語研究』 言語篇3, 筑波大學文藝言語學系.
- Mabuchi, K. (1980), *Nihon shoki chū no Chōsenjo shriyō o tooshite mita kodai Chōsenjo to kodai Nihongo no on'in soshiki no taihi ni tsuite,* [On the Comparison of the Phonological Systems of Ancient Korean and Ancient Japanese as Seen Through Korean Materials Preserved in Nihon shoki], in *Mélanges offerts à M. Charles Haguenauer en l'honneur de son 80e anniversaire : Etudes Japonaises, L'Asiathèque, Paris, 103-144.*
- 馬淵和夫(1984), 『(増訂)日本韻學史の研究 1』, 臨川書店.
- 馬淵和夫(1984), 『(増訂)日本韻學史の研究 2』, 臨川書店.
- 馬淵和夫(1984), 『(増訂)日本韻學史の研究 3』, 臨川書店.
- 馬淵和夫(1999), 日本語の系統と韓國語, 『한국어어문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발표문』.
- 前間恭作(まえまきょうさく, 1925). 三韓古地名補正. 史學雜誌, 제36편, 제7호.
- 松本克己(ましもと・かつみ/Matsumoto Katsumi, 2006), 『世界言語への視座－歴史言語學と言語類型論』, 三省堂. [박종후 역 (2016), 『역사언어학과 언어유형론』, 역락.]
- 松本克己(2007), 『世界言語の中の日本語－日本語系統論の新たな地平』, 三省堂. [박종후 역 (2014), 『언어유형지리론과 환태평양 언어권』, 역락.]
- 松本克己(2016), 『ことばをめぐる諸問題 言語學・日本語論への招待』, 三省堂.
- 水野俊平(1999), 『日本書紀』에 나타난 한반도 관련 고유명사의 특이성에 대한 소고, 『日本語文學』 7, 日本語文學會.
- 미즈노 슌페이(2001), 『日本書紀』의 고대 한국어 표기 연구 - 특히 고유명사 차자표기의 한자음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水野俊平(2002), 『일본서기』 “백제사료”에 의한 백제 한자음의 특징 추정, 『어문학회연구』 40, 149-173, 한국국어학회.
- 미즈노 슌페이(2009), 『백제와 백제 한자음 백제어』, 역락.
- 三根谷徹(みねや とおる, 1993), 『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 汲古書院.
- 滿田新造(Mitsuta Shinzo/みつたしんぞ, 1926), 朝鮮漢字音と日本吳音との類似點に就て－朝鮮に於ける字音傳來経路, 『東洋學報』 第十五卷 第三號.
- 滿田新造(1964/1997), 『中國音韻史論考』, 朋友書店.
- 村山七郎(むらやましちろ/Murayama Shichiro), 日本語와 高句麗語와의 關係에 관한 暫定報告, 順天堂大學 體育學部紀要 第4.
- 村山七郎(1962), 日本語와 高句麗語와의 數詞, 『國語學』 48,
- 村山七郎(1962), 高句麗 資料 및 若干의 日本語・高句麗語 音韻對應, 『言語研究』 42,
- 村山七郎(1963), 高句麗語와 韓國語와의 關係에 考察, 『朝鮮學報』 26,
- 森博達(もり ひろみち, 1977), 『日本書紀』に見える萬葉假名の一特質, 『文學』 45-2, 151-180.
- 森博達(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大修館書店.
- 森博達(1999), 『日本書紀の謎を解く 述作者は誰か』, 中公新書. [심경호 역(2006), 『일본서기의 비밀』, 황소자리]
- 森博達 (2009a), 辰韓の言語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37(終刊號), 大和書房.
- 森博達 (2010),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韓國漢字文化의 影響, 『목간과 문자』 6, 93-105.
- 森博達 (2011),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韓國의 漢字文化의 影響(續篇), 『목간과 문자』 8, 121-140.
- 中嶋弘美(나까지마 히로미, 2011), 고대국어 지명어의 국어학적 연구 - 한 · 일 지명어 비교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新村出(にいむらいずる/Nimura izuru, 1916), 國語及び 朝鮮語の 數詞について, 『藝文』 7-2, 4. (高句麗地名和古代日本語の對比研究)
- 沼本克明(ぬもと かつあき, 1996), 『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 汲古書院.
- 沼本克明(), 『日本漢字音の歴史』, 東京堂出版社.

- 沼本克明(2018), 『歸納と演繹とのほさまに揺れ動く字音假名遣いを論ず：字音假名遣い入門』, 汲古書院.
- 小倉肇(おぐら はじめ, 1995), 『日本吳音の研究』 全4巻, 新典社研究叢書.
- 小倉肇(2011), 『日本語音韻史論考』, 和泉書院.
- 小倉肇(2014), 『續. 日本吳音の研究』 全6冊, 和泉書院.
- 小倉進平(おぐら しんぺい/Ogura Shinpei, 1920), 『國語及 朝鮮語のため』(國語及 朝鮮語에 대하여), ウツボヤ書籍店.
- 小倉進平(1920), 『朝鮮語學史』, 大阪屋號書店.
- 小倉進平(1928), 日本語와 韓國語와의 系統的 關係에 대하여, 『警務彙報』 262, 朝鮮警察協會.
-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史読の研究』, 刀江書院.
- 小倉進平(1934), 『韓国語と日本語』, 国語科學講座 - IV -, 国語學, 明治書院.
- 小倉進平(1935), 『韓国語の系統』, 『東洋思潮』 東洋言語の系統, 岩波書店.
- 小倉進平(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12.
- 小倉進平(1943), 『言語と文學の上から見た内鮮關係』, 財団法人中央協和会.
- 小倉進平(1964), 『朝鮮語學史』 増訂補註, 刀江書院.
- 沖森卓也 編(おきもり たくや1991), 『資料 日本語史』, おうふう.
- 沖森卓也(2017), 『日本語全史』, 筑摩書房.
- 大野晉(1952), 日韓兩國語의 詞彙의 比較에 대한 小見, 『國語와 國文學』 29-5, 5.
- 大野晉(おおの すずむ, 1957), 『日本語の起源』, 岩波新書.
- Ono Susumu(1970), *The Origin of the Japanese Language*, Japan Cultural Society.
- Ono Susumu(1980), *Sound Correspondences between Tamil and Japanese*, Gakushuin.
- 大野晉(2014), 『大野晉の日本語相談』, 河出書房新社.
- 大矢透(おおや とおる, 1889), 日本語와 韓國語와의 類似, 『東京人類學會雜誌』 37, 東京人類學會.
- 大矢透(1911), 『假名源流考及證本寫真. 1: 假名源流考』, 國定教科書, 國語調査委員會
- 大矢透(1911), 『假名源流考及證本寫真. 2: 假名源流考證本寫真』, 國定教科書, 國語調査委員會.
- 坂井健一(さかいけんいち/Sakai Kenichi, 1975), 『魏晉南北朝字音研究』, 汲古書院.
- 坂本太郎 外 校注(1995), «日本書紀»(文庫版), 岩波文庫.
- 佐藤信(2010), 『木簡から読み解平城京』, 日本放送出版協會. [송완범 옮김(2017), 『목간에 비친 고대 일본의 서울, 헤이조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佐伯有清(1981),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第1, 第2, 第3), 本文篇, 研究篇, 吉川弘文館.
- 白鳥庫吉(しらとりくらきち/Shiratori Kurakichi, 1895), 朝鮮古代諸國名稱考, 『史学雜誌』 6, 7-8號, 山川出版社.
- 白鳥庫吉(1895), 朝鮮古代地名考, 『史学雜誌』 6, 10-11號, 山川出版社.
- 白鳥庫吉(1896), 朝鮮古代地名考, 『史学雜誌』 7, 1號, 山川出版社.
- 白鳥庫吉(1896), 朝鮮古代王號考, 『史学雜誌』 7, 2號, 山川出版社.
- 白鳥庫吉(1896), 朝鮮古代官名考, 『史学雜誌』 7, 4號, 山川出版社.
- 白鳥庫吉(1897), 日本書紀에 보이는 韓語의 解釋, 『史学雜誌』 8, 第4, 6, 7號.
- 白鳥庫吉(1898), 日本の古語と朝鮮語との比較(日本の 古語와 韓國語와의 比較), 『國學院雜誌』 4, 4-12, 國學院大學.
- 白鳥庫吉(1900), 漢史に見えた朝鮮語(漢史에 보인 韓國語), 『言語學雜誌』 1, 3-5號, 富山房雜誌部.
- 白鳥庫吉(1905-1906), 韓語 城邑의 稱號인 忽(kol)의 原義에 대하여, 『史學雜誌』 16, 第11號, 同 17, 第1-3號)
- 高松政雄(1986), 『日本漢字音概論』, 風間書房.
- 高松政雄(たかまつ まさお, 1992), 『日本漢字音の研究』, 風間書房.
- 高松政雄(1997), 『日本漢字音論究』, 風間書房.

- 築島裕(つきしま ひろし, 1997), 『日本漢字音論究』, 風間書房.
築島裕 編(), 『日本漢字音史論集』, 汲古書院.
築島裕(2014), 『歴史的仮名遣い : その成立と特徴』, 吉川弘文館.
築島裕(2016), 『築島裕著作集 3 古辭書と音義』, 汲古書院.
朝總(1940), 『内鮮一體懷古資料 朝鮮の國名に因める名詞考』, 朝鮮總督府中樞院.
山田孝雄(やまたよしお/Yamada Yoshio, 1940), 『國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 保文館.
櫻井花郎(1953), 高句麗의 言語에 대하여”, 東京學藝大學研究報告〈史學・地理學〉
西村眞太郎(1934)의 “日本語와 韓國語와의 交渉”(朝鮮 第230~233號)

서양측

- Aston, W. G. (1987), ‘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New Series*, Vol. 11, No. 3 (Jul., 1879), pp. 317-36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xter, W. H. (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 Baxter, W. H. & Sagart, L. (2014), *Old Chinese : A New Re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xter-Sagart Old Chinese reconstruction (Version 1.1, 20 Sep. 2014). Online at: <http://ocbaxtersagart.lsa.umich.edu/>
- Beckwith, C. I. (2007), *Koguryo : The language of Japan's Continental Relative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 Koguryoic Languages, with a Preliminary Description of Archaic Northeastern Middle Chinese*, 2nd Edition, Brill.
- Bentley, J. R. (2000), A New Look at Paekche and Korean : Data from Nihon shoki, *Ehokwenku* 36.2, 417-443.
- Bentley, J. R. (2001), The Origins of the Man' yōgana,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64.1, 59-73.
- Bentley, J. R. (2002), *Historiographical trends in early Japan*, Edwin Mellen Press.
- Bentley, J. R. (2008), *A Linguistic History of the Forgotten Islands : A Reconstruction of the Proto-language of the Southern Ryūkyūs*, Global Oriental.
- Bentley, J. R. (2008), ‘The Search for the Language of Yamatai,’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2.1, 1-43,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Japanese.
- Bentley, J. R. (2016), *ABC Dictionary of Ancient Japanese Phonograms*,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rian, D. J. & Richard, D. J., eds. (2003),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Blackwell.
- Brown, L. (2015),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Wiley-Blackwell.
- Campbell, Lyle. (2013), *Historical linguistics : An introduction*, 3rd edition, The MIT Press.
- Castrén, M. A. (1857), *Ethnologische Vorlesungen über die altaischen Völker*, St. Petersburg: Imper, Akad, Nauk.
- Coblin, W. S. (1974-1975), ‘The Initials of the Wei-Chin Period as revealed in the Phonological Glosses of Kuo P' u and Others,’ *Monumenta Serica*, Vol. 31, pp. 288-318.
- Coblin, W. S. (1977-1978), ‘The Initials of the Eastern Han Period as reflected in Phonological Glosses,’ *Monumenta Serica*, Vol. 33, pp. 207-247.
- Coblin, W. S. (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 Coblin, W. S. (2002), ‘History and Dialect Development in the Lower Yangtze Watershed,’

-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Vol. 65, No. 3 (2002), pp. 529-543.
- Coblin, W. S. (1994), *A Compendium of Phonetics in Northwest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No. 7,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Courant, M. (1894), *Bibliographie Coreenne: Tableau Litteraire de La Coree T3: Nomenclature Des Ouvrages Publies Dans Ce Pays Jusqu'en 1891*, Hachette Livre - Bnf.
- Courant, M. (1900), *Souvenir de Séoul, Corée : 1900*, Independently published.
- Crystal, D. (2008),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6th Edition, Blackwell.
- Davenport, M. & Hannahs, S. J. (2010), *Introducing Phonetics and Phonology*, 3rd edition, Hodder Education.
- Foley, W. A. (1997), *Anthropological linguistics : an introduction*, Blackwell.
- Frellesvig, B. (2001), 'A Common Korean and Japanese Copula,'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0.1, 1-35.
- Frellesvig, B. & Whitman, J. (2004), 'The Vowels of Proto-Japanes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38, 281-299.
- Frellesvig, B. & Whitman, J. (2008), 'Evidence for Seven Vowels in Proto-Japanese,' Frellesvig, B. & Whitman, J., eds., *Proto-Japanese : Issues and Prospects*, 5-41, John Benjamins.
- Frellesvig, B. (2010), *A History of Japanese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rlgren, K. B. J. (), [趙元任, 羅常培, 李方桂 譯(1940), 『中國音韻學研究』, 商務印書館.]
- King, J. R. P. (1991),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Harvard University Dissertation.
- Lewin, B. (1973), 'Japanese and the Language of Koguryo,' Richard, R. M. ed., *Papers of the C.I. C. Far Eastern Language Institute* IV, 19-35, University of Michigan.
- Lewin, B. (1976), 'The Problems and History of a Linguistic Comparison,'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2, No. 2 (Summer, 1976), pp. 389-412, The Society for Japanese Studies.
- Lewin, B. (1980) 'Sprachkontakte zwischen Paekche und Yamto in Frühgeschichtlicher zeit,' *Asiatische studien Études Asiatiques*, 34.2, 167-188.
- Lin, Yen-hwei. (2007), *The sounds of Chi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엄익상 외 옮김 (2010), 『중국어 말소리』, 역락.]
- Mair, V. H. (2016), *ABC Dictionary of Sino-Japanese Readings*, University of Hawai 'i Press.
- Martin, S. E. (1987), *The Japanese Language Through Time*, Yale University Press.
- Martin, S. E. (1966), 'Lexical Evidence Relating Japanese to Korean,' *Language* 42.2: 185-251.
- Martin, S. E. (1996), *Consonant Lenition in Korean and the Macro-Altaic Question*,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 'i Press.
- Martin, S. E. (1997), 'How Did Korean Get -l for Middle Chinese Words Ending in -t?,'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6.3, 263-271.
- Maspero, H. (1920), *Le dialecte de Tcha' ng-ngan sous les T' ang*, B.E.F.O.XX. [聂鸿音 (2005) 译, 『唐代長安方言考』, 中华书局.]
- McClure, William. & Vovin, A., ed. (2017), *Studies in Japanese and Korean Historical and Theoretical Linguistics and Beyond*, Brill.
- Meillet, A. (1984), *la Méthode Comparative en Linguistique Historique*, Honore Champion. [岑麟祥 译(2008), 『历史语言学中的比较方法』, 世界图书出版.]

- Miller, R. A. (1967), 'Old Japanese Phonology and the Korean-Japanese Relationship,' *Language* 43.1, 278-302,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Miller, R. A. (1967), *The Japanese Langu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R. A. (1971), *Japanese and the Other Altaic Languag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R. A. (1977), 'The Altaic Accusatives in Light of Old & Middle Korean,' *Altaica*,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158, 157-169, Suomalais-Ugrilainen Seura, Helsinki.
- Miller, R. A. (1979a), 'Old Japanese and Koguryo Fragments : A Re-Survey,' in G. Bedell et al., eds., *Explorations in Linguistics : Papers in Honor of Kazuo Inoue*, Kenkyusha, 348-368.
- Miller, R. A. (1979b), 'Old Korean and Altaic,' *Ural-Altische Jahrbücher*, 51, 1-54.
- Miller, R. A. (1979c), 'Some Old Paekche Fragment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 3-69.
- Miller, R. A. (1980), *Origins of the Japansene Language : Lectures in Japan during the Academic Year 1977-78*,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金芳漢 譯(1985), 『日本語의 起源』, 민음사.]
- Miyake, M. H. (1999), 'The Phonology of Eighth Century Japanese Revisited : Another Reconstruction Based Upon Written Records,' University of Hawai 'i Dissertation.
- Miyake, M. H. (2003), *Old Japanese: a phonetic reconstruction*, RoutledgeCurzon.
- Miyake, M. H. (), Kana' s Korean origins,
- Norman, J. (1988), *Chi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전광진 역(1995), 『중국어언어학총론』, 동문선.]
- Osterkamp, S. (2014), *Nicht-monosyllabische Phonogramme im Altjapanischen : Kritische Bestandsaufnahme, Auswertung und Systematisierung der Fälle vom Typ oŋgana*, Harrassowitz Verlag.
- Passy, P. (1906), *Petite phonétique comparée des principales langues européennes*, Teubner. [刘复 译(2013), 『比较语音学概要』, 商务印书馆.]
- Pellard, T. (2015), The Linguistics Archaeology of the Ryukyu Island, Patrick H., Shinshō, M., Michinori S., eds., *Handbook of the Ryukyuan Languages : History, Structure, and Use*, 13-38, Mouton de Gruyter.
- Poppe, N. (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 Pulleyblank, E. G. (1962-1963),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Asia Major n.s. 9. 58-144, 206-265. [潘悟云, 徐文堪 译(1999/2008重印版), 『上古汉语的辅音系统』, 中华书局]
- Pulleyblank, E. G. (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Pulleyblank, E. G. (1991),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Ramsey, S. R. (1975),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Yale University Dissertation. [Ramsey, S. R.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塔出版社.]
- Ramsey, S. R. (1993), 'Some Remarks on Reconstructing Earlier Korean,' *Ehak yenkwu (Language Research)* 29.4, 433-442.
- Ramsey, S. R. (1996), 'Some Preliminaries to Reconstructing Liquids in Earlier Korean,'

- 沈在箕 外 編(1996), 『李基文教授 停年退任 紀念論叢』, 신구문화사.
- Ramstedt, G. J. (1926), 'Two Words of Korean-Japanese,' *Journal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55, 1951. (金田一京助 譯, 『民族』 1, 6號)
- Ramstedt, G. J. (1936),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 Ramstedt, G. J.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XCV,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 람스테트, G. J., 포페, N., 핫토리 시로 지음, 도재학, 남서영, 임고은 옮김(2016), 『알타이 가설과 한국어』, 역락.
- Ratliff, Martha. (2010), Hmong-Mien Language History (Pacific Linguistics, 613; Studies in Language Change, 8),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Francis-Ratte, A. T. (2016), 'Proto-Korean-Japanese : A New Reconstruction of the Common origin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 The Ohio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Sagart, L. (1999), *The roots of Old Chine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龚群虎 译 (2004), 『上古汉语词根』, 上海教育出版社.]
- Simmons, R. V. & Van Auken, N. A., ed. (2014), *Studies in Chinese and Sino-Tibetan Linguistics: Dialect, Phonology, Transcription and Text*(漢語與漢藏語研究: 方言、音韻與文獻), Institute of Linguistics(語言學研究所), Academia Sinica(中央研究院), Taipei, Taiwan.
- Sasse, W. (1982), 百濟地名에서 <良>字에 관하여, 『百濟研究』 第13輯, 忠南大 百濟研究所.
- Sasse, W. (2004), 'Review of C. I. Beckwith, *Koguryo: Language of Japan's Continental Relatives* (Leiden: Brill, 2004),' *Journal of Inner and East Asian Studies* 2.1, 97-106.
- Serruys, P. L. M. (司理儀, 1959), *The Chinese Dialects of Han Time : According to Fang Ye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uessler, A. (2007), *Etymological Dictionary of Old Chinese (EDOC)*, University of Hawai 'i Press.
- Schuessler, A. (2009), *Minimal Old Chinese and Later Han Chinese*, University of Hawai 'i Press.
- Sohn, Ho-min, (1994), *Korean*, Routledge.
- TING, Pang-hsin. (丁邦新, 1975), *Chinese Phonology of the WEI-CHIN Period: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魏晉音韻研究』),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special publications NO. 65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专刊之六十五).
- Trask, R. L. (1996), *Historical Linguistics*, Edward Arnold.
- Trask, R. L. (2000), *The Dictionary of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 Unger, J. M. (2001), 'Layers of Words and Volcanic Ash in Japan and Korean,'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7.1, 81-111, The Society for Japanese Studies.
- Vovin, A. (1993), 'Notes on Some Japanese-Korean Phonetic Correspondences,' *Japanese/Korean Linguistics* 3, 338-350, Stanford Linguistics Association.
- Vovin, A. (1994), 'Genetic Affiliation of Japanese and Methodology of Linguistic Comparison,' *Journal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85, 241-256, Suomalais-Ugrilainen Seura.
- Vovin, A. (1999), 'Once again on the reading of the Old Korean 尸,' *The Emergence of the Modern Language Sciences, Studies on the transition from historical comparative to structural linguistics in honour of E.F.K Koerner* 2, Methodological

-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ed. Sheila Embleton, John E. J., & Hans-Josef N., 289-300, John Benjamins, .
- Vovin, A. (2000), 'Pre-Hankul Materials, Koreo-Japonic, and Altaic,' *Korean Studies* 24, University of Hawai 'i Press.
- Vovin, A. (2005), 'Koguryō and Paekche: Different Languages or Dialects of Old Korean?,' *Journal of Inner and East Asian Studies* 2-2, 108-140, Koguryo Research Foundation.
- Vovin, A. (2009), *Man' yōshū* : Book 15, Global Oriental LTD.
- Vovin, A. (2010), *Koreo - Japonica : A Re-evaluation of A Common Genetic Origin*, University of Hawai 'i Press.
- Vovin, A. (2017), *Man' yōshū* : Book 1, Brill.
- Vovin, A. (2017), 'Origin of the Japanese Language,'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nguistics*, 1-34,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man, J. B. (1985), 'The Phonological Basis for the Comparison of Japanese and Korean,' Harvard University Dissertation.
- Whitman, J. B. (1990), 'A Rule of Medial *-r- Loss in Pre-Old Japanese,' in P. Baldi, ed., *Linguistic Change and Reconstruction Methodology*, 511-545, Mouton de Gruyter.

“백제어의 연구사적 재검토”에 대한 토론문

문현수(숭실대학교)

이 논문에서는 백제어의 연구사에 대해 검토한 후, 백제어의 음운 체계의 분석을 위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심사를 앞둔 박사학위논문의 선행 연구 정리 및 연구 방법을 발췌하여 글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위논문의 완성에 도움이 되고자 글을 읽어 나가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백제어 연구사의 시대 구분 기준

이 논문에서는 백제어 연구사를 ‘맹아기-초창기-발전기’와 같이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맹아기를 1879년부터 1970년까지, 초창기를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발전기를 2013년부터 현재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맹아기와 초창기의 구분은 『百濟研究』를 비롯한 전문학술지의 창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초창기와 발전기의 구분은 이승재(2013)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百濟研究』등의 전문학술지의 창간과 이승재(2013)이 시대 구분 기준점이 되는 연구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2. 백제어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이 논문의 5장에서는 백제어 연구에 대한 발표자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가령 한어 상고음, 후한음, 중고음의 음운체계와 일본어의 상대음운체계나 일본한자음의 음운 체계를 토대로 당시의 백제어 표기자들의 음운 체계를 추측하는 방법론을 새로 제안하고 있는데, 발표자가 지역적인 음운 대응 혹은 한자음의 음운 대응이라고 칭한 이러한 방법론이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연구 방법론인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3. 음운체계 대응의 기준이 되는 기준 한자음의 상정

백제어의 시간적 범주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백제어 표기자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진 표기인지를 정확히 판별해야 음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구 대상이 되는 백제어 표기자의 시대와 표기 지역들에 대한 판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발표자는 백제어 음운 체계 분석을 위해 한국 한자음을 이용할 때 중세 전승 한자음의 음운체계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중세 전승 한자음이 백제 한자음을 계승하였다고 판단하였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 연구

김성옥(충남대학교)

[목차]

1. 서론
2. 연구 대상 소개
3. 주제격과 목적격의 단일화 과정과 해석
 - 3.1.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
 - 3.2.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
4.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이 체언말음이 폐음절이면 ‘은’과 ‘을’로의 단일화적 양상을, 체언말음이 개음절이면 주제격은 ‘는, 는, 난, 은’, 목적격은 ‘를, 를, 랄, 을’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남을 살핀다. 그리고는 이들을 16~19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 ‘은/은/는/는’ 및 목적격 ‘을/을/를/를’의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논하고, 이로써 16~20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을 해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15세기의 주제격 ‘은/은/는/는’과 목적격 ‘을/을/를/를’은 모음조화와 체언말의 음절구조에 따라 체언말음이 양성모음이면 비교적 ‘·’가 있는 ‘은/는, 을/를’이 쓰였고, 음성모음이면 ‘—’가 있는 ‘은/는, 을/를’이 쓰였다. 그리고 ‘은/는, 을/를, 은/는, 을/를’은 체언말의 음절구조에 따라 체언말음이 폐음절이면 ‘은/은, 을/을’로, 개음절이면 ‘는/는, 를/를’ 등으로 교체되었다(허용 1969: 61, 66). 그러다가 근대국어의 지나 현대국어에서는 체언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받침이 있는 폐음절이면 ‘은’과 ‘을’이 쓰이고, 받침이 없는 개음절이면 ‘는’과 ‘를’이 쓰이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주제격 ‘은/은>은’과 ‘는/는>는’, 목적격 ‘을/을>을’과 ‘를/를>를’의 단일화는 16세기 이후에 ‘·’의 소실과 모음조화의 붕괴에 따른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이라면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 교체기(1890~1910년)를 의미하는 개화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화기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개화기로서, 이는 언어적 측면에서도 현대국어의 공식적인 언어 특징들을 갖추어 가는 시기이자, 또 언어 외적 환경이 새로운 언어인 현대국어의 형성을 알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정승철 1999: 8). 이에 15세기의 주제격 ‘은/은/는/는’과 목적격 ‘을/을/를/를’ 또한 16세기 이후에 ‘·’의 소실과 모음조화의 붕괴로 인해 주제격은 ‘은/은>은’ 및 ‘는/는>는’, 목적격은 ‘을/을>을’ 및 ‘를/를>를’로의 변화 과정을 거쳐 개화기 시기에는 단연 주제격과 목적격이 ‘은/는’과 ‘을/를’의 양상임을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개화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의 한글간

찰에서는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의 주제격과 목적격을 우선 살핀 후, 이들을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은/은/논/는’ 및 목적격 ‘을/을/를/를’에 대한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논의를 위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연구 대상을 소개한다. 3장은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및 목적격에 대한 분석,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은/은/논/는’ 및 목적격 ‘을/을/를/를’의 변화 과정, 그리고 16~20세기 한글간찰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 등을 논한다. 4장은 논의의 내용을 종합한다.

2. 연구 대상 소개

본 연구는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의 주제격과 목적격을 살펴 이들을 16~19세기 한글간찰의 주제격 및 목적격에 대한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논하고, 이로써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을 해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본고에서의 구체적인 분석은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은진송씨 송병필가 한글간찰을 통해 보이고자 하므로 이들에 대한 서지 사항을 우선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이하 ‘김성일가’라고 한다.) 한글간찰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2009c)에서 역주한 167편과 김한별(2015)에서 소개한 62편이 있다. 김성일가 한글간찰 230여 편은 김성일과 30세손이자 鶴峯의 10세손인 김진화를 중심으로 증조부 김주국, 아내 여강이씨, 그의 딸들과 며느리 등, 3~4세대에 걸친 그 집안사람들의 것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들 중 19세기 중·후반인 김진화(金鎭華, 1793~1850)의 간찰 18편, 김진화의 妻 여강이씨(驪江李氏, 1792~1862) 간찰 96편, 김진화의 딸들 간찰 51편과 김진화의 子婦인 진성이씨(眞城李氏, 1825~1888) 간찰 18편 등의 183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판독 및 주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2009c)과 김한별(2015)을 참조한다.

둘째, 은진송씨 송병필가(이하 ‘송병필가’라고 한다.) 한글간찰은 102편에 이른다. 그 중에서 본고는 발·수신자 관계가 파악되는 간찰들로 황문환 외(2013)에서 판독된 91편을 대상으로 한다. 91편의 간찰은 송병필(宋秉弼, 1854~1903)과 그 후손을 중심으로 부부간, 부녀간, 자매간, 고부간, 사돈간 등의 다양한 관계에서 오간 것들이다. 송병필가 한글간찰 91편은 작성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1863년이고, 가장 늦은 것은 1922년이므로 대체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쓰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황문환 외 2013: 238~239). 송병필가 한글간찰의 판독은 황문환 외(2013c)를 참조한다.

그리고 본고는 위의 한글간찰 외에도 다음의 16세기 중반~20세기 전반 한글간찰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조항범 1998 참조),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건들바우박물관보고서 1991, 백두현 1997, 2003을 참조), 17세기 중반~18세기 초반의 제월당 송규렴가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2009b 참조), 18세기 중·후반~19세기 중반의 동춘당 송준길가 한글간찰(‘연독회’¹⁾의 판독 자료), 19세기 중·후반~20세기 전반의 해남윤씨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2005a 참조), 전주유씨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2005a 참조), 창원황씨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2005b 참조), 안동 진성이씨 번남가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2009d 참조), 광산김씨 가문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2009f 참조) 등이다.

1) ‘연독회’는 충남대학교에서 구성된 한글간찰 판독 모임이다.

이들에 대한 서지 사항은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및 목적격을 논한 김성옥 (2018a)과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및 목적격의 표기적 특징을 논한 김성옥 (2018b)을 대신한다.

3. 주제격과 목적격의 단일화 과정과 그 해석

본 연구는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을 논하는 것이다. 이에 15세기의 주제격 ‘은/은/는/는’과 목적격 ‘을/을/를/를’이 주제격은 ‘은/은>은’ 및 ‘는/는>는’, 목적격은 ‘을/을>을’ 및 ‘를/를>를’로 단일화가 됨을 고려하여, 3.1에서는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 3.2에서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으로 나누어 논한다.

3.1. 체언말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

3.1.1.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을 논함에 있어 먼저 주제격에 대해 살핀다. 이를 위해 우선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의 주제격에 대한 분석표와 그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 ‘은/은’에 대한 분석표

한글간찰 명	연철표기		중철표기		분철표기		합계
	CV\$C은	CV\$C은	CVC\$C은	CVC\$C은	CVC\$은	CVC\$은	
김성일가	27	3	4	-	-	527	561
송병필가	3	3	3	3	-	231	243
합계	30	6	7	3	-	758	804

(1)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 ‘은’에 대한 빈도와 용례

ㄱ. ‘CVC+은’에서의 연철 및 중철표기[37회]

①김성일가[연철27회, 중철4회]: 오손<10, 11>, 거손<23, 76, 123>, 이거손<25>, 갑손<50>, 옷손<10, 11, 25>, 것손<76> 등.

②송병필가[연철3회, 중철3회]: 거손<47, 49>, 이긋손<39> 등.

ㄴ. ‘CVC+은’에서의 분철표기[X]

①김성일가: 발견되지 않음.

②송병필가: 발견되지 않음.

(2)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 ‘은’에 대한 빈도와 용례

ㄱ. ‘CVC+은’에서의 연철 및 중철표기[9회]

①김성일가[연철3회, 중철X]: 그거손<68>, 갑손<(2015)23>²⁾.

2) <(2015)23>에서 ‘(2015)’는 김한별(2015)에서 소개한 김성일가 한글간찰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2009)에서 역주한 167편에 대한 간찰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2015)23>에서 ‘23’은 김한별(2015)의 61편에 대한 간찰 번호를 말한다.

- ②송병필가[연철3회, 중철 3회]: 거슨<43>, 이곳슨<39>, 젓슨<42> 등.
 L. ‘CVC+은’에서의 분철표기[758회]
 ①김성일가[527회]: 창연은/말은<2>, 고을은<2, 9>, 보선은<9>, 의복은/세간은<27>, 약은/몸은/병환은<44>, 집은/셔방은<64>, 방은<69>, 불공은<69>, 하인은<70> 등.
 ②송병필가[231회]: 혼인은<2, 12, 14, 16, 17>, 간선은/의복은<15>, 도입은<16>, 소식은<16, 43>, 조식은<31, 33, 34, 38>, 아즉은/돈은<43>, 특녹은/조명은<65>, 외싱은/반정은<69> 등.

<표 1>은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의 주제격 ‘은’과 ‘은’에 대한 분석표이다. 19세기 이후에는 곡용에서의 분철표기가 정착단계였다고 해도 체언말 ‘ㅅ’의 경우는 여전히 연철 또는 중철표기로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분석표에서는 <표 1>과 같이 연철, 중철, 분철표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1)과 (2)는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 ‘은’과 ‘은’에 대한 용례를 보인 것이다.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 이들 한글간찰에서는 주제격이 총 804회가 발견된다. 그 중에서 연철표기는 ‘CVC+은→CV\$C은’³⁾형의 30회와 ‘CVC+은→CV\$C은’형의 6회로 36회가 발견되고, 중철표기는 ‘CVC+은→CVC\$C은’형의 7회와 ‘CVC+은→CVC\$C은’형의 3회로 10회가 발견된다. 이때 주제격 ‘은’이 연쇄한 연철과 중철표기는 연철표기인 ‘오손 마즌가<김성일가10>, 오리 둘 거슨<김성일가76>, 보니신 거슨<송병필가47>’ 등과 중철표기인 ‘츄럽웃손 오신 후<김성일가11>, 흥훈 것슨<김성일가76>, 이곳즌 죄역이<송병필가37>’ 등과 같이 체언말 ‘ㅅ’에 한해서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철 및 중철표기이면서 주제격 ‘은’이 연쇄한 ‘CVC+은→CV\$C은’형이나 ‘CVC+은→CVC\$C은’형의 9회도 (2)에서 보듯 체언말 ‘ㅅ’에 한하여 ‘그 거슨 갈미려<김성일가68>, 젓슨 열히셔<송병필가42>, 이곳슨 향상 슈슈후와<송병필가39>’과 같이 나타난다.

연철 및 중철표기의 46회를 제외한 758회는 ‘반작은 이던긋고<김성일가8>, 집은 엇더흔고<김성일가64>, 조식은 유갓치<송병필가38>, 지용은 춤<송병필가83>, 마음은 무안후읍<송병필가89>’와 같이 분철표기이면서 주제격 ‘은’이 연쇄한 ‘CVC+은→CVC\$은’형이다. 분철표기이면서 주제격 ‘은’이 연쇄한 ‘CVC+은→CVC\$은’형은 (1)에서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듯 체언말이 폐음절일 때, 19세기 이후의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의 한글간찰의 주제격은 체언말 ‘ㅅ’과의 연쇄에서 연철 및 중철표기 46회를 제외한 758회(94.27%)가 분철표기이면서 주제격 ‘은’이 연쇄한 ‘CVC+은→CVC\$은’형인 것이다. 이는 19세기 중·후반~20세기 전반의 해남윤씨 한글간찰, 전주유씨 한글간찰, 창원황씨 한글간찰, 안동 진성이씨 변남가 한글간찰, 광산김씨 가문 한글간찰에서도 그러함을 볼 수 있다. 김성옥(2018b)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들 간찰에서도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 주제격 ‘은’은 체언말 ‘ㅅ’에 한하여만 연철 및 중철표기로 나타나면서 그 빈도도 515회 중에서 10회만이 보인다. 그리고는 주제격 ‘은’이 체언말 ‘ㅅ’에서 연철 및 중철표기의 30회를 제외한 475회가 ‘아직은<해남12>, 기름은<해남20>, 집은/회답은<전주27>, 안질은<창원12>, 동복은/눈은<창원56>, 신연은<광산31>, 눈은<광산144>’과 같이 분철표기이면서 92.23%의 빈도율을 보이는 것이다.

3.1.2.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목적격

3) ‘CVC+은→CV\$C은’에서 ‘C’는 ‘자음’(Consonant), ‘V’는 ‘모음’(Vowel), ‘+’는 ‘형태소 경계’(morpheme boundary), ‘\$’는 ‘음절 경계’(syllable boundary)를 의미한다.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 3.1.1에서의 주제격에 이어 3.1.2에서는 목적격에 대하여 살핀다. 이를 위해서도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에서의 목적격에 대한 분석표와 그 용례를 우선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목적격 '을/을'에 대한 분석표

한글간찰 명	연철표기		중철표기		분철표기		합계
	CV\$C을	CV\$C을	CVC\$C을	CVC\$C을	CVC\$을	CVC\$을	
김성일가	64	6	1	2	-	422	495
송병필가	4	2	-	4	-	162	172
합계	68	8	1	6	-	584	667

(3)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목적격 '을'에 대한 빈도와 용례

ㄱ. 'CVC+을'에서의 연철표기 및 중철표기[69회]

- ① 김성일가[연철64회, 중철1회]: 거술<3, 20, 24, 68, 123 ...>, 그거술<48>, 갑술<31, 33, 76> 등.
- ② 송병필가[연철4회, 중철X]: 거술<71, 88> 등.

ㄴ. 'CVC+을'에서의 분철표기[X]

- ① 김성일가: 발견되지 않음.
- ② 송병필가: 발견되지 않음.

(4)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목적격 '을'에 대한 빈도와 용례

ㄱ. 'CVC+을'에서의 연철표기 및 중철표기[12회]

- ① 김성일가[연철6회, 중철2회]: 버르술<60>, 그거술<123>, 문밧글<33>, 갑술<52>, 붓졸<5> 등.
- ② 송병필가[연철2회, 중철4회]: 거술<19, 70>, 젓술<42>, 돛술<43>, 노럿술<46> 등.

ㄴ. 'CVC+을'에서의 분철표기[584회]

- ① 김성일가[422회]: 날을<15>, 내항을/둘을<2>, 나물을<5>, 말을<69, 외 4회>, 서울을<12>, 길을/담을/소금을/청송을<15>, 첩을<17>, 약을<17, 외 9회>, 소문을/제약을/효험을<19>, 흥정을/당을<20>, 양식을/곡석을/벽을/등식을<101>, 남천을/국흠을/눈물을/땀을<116> 등.
- ② 송병필가[162회]: 마음을<3>~몸을<49>, 쓴을/믈을<4>, 돈을<43, 외 4회>, 죽별을/난편을/의복을/가음을<49>, 사흘을/부강을/적선을<58>, 변상을<60>, 의복을/걱정을/숙발을<90> 등.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은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 목적격이 667회가 발견된다. 그 중에서 연철표기로는 'CVC+을→CV\$C을'형의 68회⁴⁾와 'CVC+을→CV\$C을'형의 8회로 76회가 발견되고, 중철표기는 'CVC+을→CVC\$C을'형의 1회와 'CVC+을→CVC\$C을'형의 6회로 7회가 발견된다. 이때 연철 및 중철표기의 83회는 주제격과 마찬가지로 체언말 '스'에 한해서만 '어린 거술<송병필가64>, 오술 지을<김성일가76>, 버르술 고칠<60김성일가>, 젓슬 머기고<송병필가42>, 으른 노럿슬<송병필가46>'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83회를 제외한 584회가 분철표기이면서 목적격 '을'이 연쇄한 'CVC+을→CVC\$을'형으로 '상면을 못히고<김성일가23>, 동침을 드리고<김성일가50>, 쓸을 프라<김성일가59>, 증녹을 또<김성일가69>, 약을 씌다<송병필가19>, 낙한을 혀였다<송병필가29>, 속발을 혀였다<송병필가90>'와 같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때 목적격 '을'이 연쇄한 분철표기는 (3ㄴ)에서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듯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은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목적격도 주제

4)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의 'CVC+을→CV\$C을'형 68회 중에서 48회는 여강이씨 한글간찰에서 '부족하은 거술<3>, 이셔야 흘 거술<22>, 손의 쥘 거술<34>, 오술 혀여<50>, 차릴 거술<74>' 등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격과 마찬가지로 체언말 ‘ㅅ’과의 연쇄 외에는 대부분 분철표기이면서 ‘을’이 연쇄한 ‘CVC+을→CVC\$을’형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격 역시 주제격에서처럼 19세기 중·후반~20세기 전반의 해남윤씨 한글간찰, 전주유씨 한글간찰, 창원황씨 한글간찰, 안동 진성이씨 번남가 한글간찰, 광산김씨 가문 한글간찰에서도 아래 <표 3>과 같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3>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목적격에 대한 분석표(김성옥 2018b: 14)

한글간찰 명	연철표기		중철표기		분철표기		합계
	CV\$C을	CV\$C을	CVC\$C을	CVC\$C을	CVC\$을	CVC\$을	
해남윤씨	3	-	-	-	-	26	29
전주유씨	1	-	1	3	-	48	53
창원황씨	5	1	2	2	-	79	89
진성이씨	-	4	-	1	-	66	71
광산김씨	-	1	-	2	-	153	156
합계	9	6	3	8	-	372	398

체언말이 폐음절일 때, 위의 한글간찰들도 목적격 ‘을’은 체언말 ‘ㅅ’에 한하여 연철 및 중철표기로 쓰이면서 그 빈도도 398회 중에 12회만을 보이는데 반해, 목적격 ‘을’은 체언말 ‘ㅅ’에서의 연철 및 중철표기 14회를 제외한 372회가 ‘사촌을/갓을/착을<해남20>, 슬전을<전주35>, 시절을<전주41>, 경갑을/가항을<창원34>, 독척을/변편을<광산17>, 운편을/중속을<광산140>’과 같이 분철표기이면서 93.47%의 빈도율을 보이는 것이다.

이로써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 19~20세기 전반의 한글간찰은 주제격과 목적격이 연철 및 중철표기이자 체언말 ‘ㅅ’에 한해서만 ‘은’과 ‘을’이 쓰이고, 그 외에는 분철표기이면서 ‘은’과 ‘을’이 연쇄한 ‘CVC+은→CVC\$은’과 ‘CVC+을→CVC\$을’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3.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과 그 해석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의 주제격과 목적격의 경우, 주제격의 ‘은’과 목적격의 ‘을’은 연철 및 중철표기이자 체언말 ‘ㅅ’에 한해서만 발견되고, 그 외에는 분철표기이면서 ‘은’과 ‘을’이 연쇄한 ‘CVC+은→CVC\$은’형과 ‘CVC+을→CVC\$을’형인 것이다. 이로써 이 시기에는 주제격 ‘은/은’과 목적격 ‘을/을’이 ‘은’과 ‘을’로의 단일화적 양상임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은’과 ‘을’로의 단일화 양상은 15세기의 주제격 ‘은/은’과 목적격 ‘을/을’이 16세기 쯤에 ‘·’의 소실과 모음조화의 붕괴로 인해 주제격은 ‘은/은>은’, 목적격은 ‘을/을>을’로의 변화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19세기 한글간찰에서도 주제격 및 목적격이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는 개음절일 때와는 달리 주제격 ‘은/은>은~은>은’과 목적격 ‘을/을>을~을>을’로의 변화 과정을 거쳐 18세기 이후에는 ‘은’과 ‘을’로의 단일화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16~19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 ‘은/은’과 ‘는/는’, 목적격 ‘을/을’과 ‘를/를’은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는 ‘은/은>은’과 ‘을/을>을’로의 변화과정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제월당 송규렴가 한글간찰,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 중반의 동춘당 송준길가 한글간찰을 대상으로 16~19세기 한글간찰의 주제격 ‘은/은/는/는’과 목적격 ‘을/을/를/를’에 대한 단

일화 과정을 논한 김성옥(2018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이들이 연철표기이면 대체로 ‘은’이 쓰인 ‘CVC+은→CV\$C은’형으로 95회가 보이고, 분철표기이면 ‘은’이 쓰이면서 ‘CVC+은→CVC\$은’형으로 25회가 출현한다. 이때 25회의 분철표기는 주로 체언말 ‘오’에 한해서 나타나는데, 이는 ‘오[n]’이 어두 및 음절초에 올 수 없다는 분포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후행하는 음절초로 연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철표기가 우세했던 16세기 중반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 주제격은 대체로 연철표기이면서 ‘은’이 연쇄한 ‘CVC+은→CV\$C은’형으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격 ‘을/을’도 마찬가지이다. 순천김씨 한글간찰은 연철표기이면 주로 ‘을’이 쓰인 ‘CVC+을→CV\$C을’형으로 170여 회가 보이면서 분철표기일 때는 체언말 ‘오’에 한하여 ‘을’이 연쇄한 ‘CVC+을→CVC\$을’형으로 35회가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는 곡용에서의 분철표기가 확산됨에 따라 ‘CVC+은→CV\$C은’형과 ‘CVC+을→CV\$C을’형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CVC+은→CV\$C은’형이 ‘CVC+은→CVC\$은’형보다 95:25회의 빈도로 훨씬 많이 나타났다면 현풍곽씨 한글간찰은 분철표기이면서 ‘은’이 연쇄한 ‘CVC+은→CVC\$은’형이 연철표기이면서 ‘은’이 연쇄한 ‘CVC+은→CV\$C은’형보다 52:30회로 보다 많이 출현하는 것이다. 목적격 ‘을/을’도 마찬가지이다. 순천김씨 한글간찰은 체언말음이 폐음절이면 대부분 ‘을’이 연쇄되어 연철표기인 ‘CVC+을→CV\$C을’형으로 170여 회가 나타났다면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는 연철표기가 대체로 체언말 ‘르’와 ‘스’에 한해서만 보인다. 그리하여 순천김씨 한글간찰은 연철표기이면서 ‘을’이 연쇄한 ‘CVC+을→CV\$C을’형이 분철표기이면서 ‘을’이 연쇄한 ‘CVC+을→CVC\$을’형의 빈도보다 많이 나타난 반면, 현풍곽씨 한글간찰은 연철표기이면서 ‘을’이 연쇄된 ‘CVC+을→CV\$C을’형보다 분철표기이면서 ‘을’이 연쇄된 ‘CVC+을→CVC\$을’형의 빈도가 보다 많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17세기 중·후반~18세기 초반 제월당 송규렴가 한글간찰과 18세기 중·후반~19세기 중반 동춘동 송준길가 한글간찰에서는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 ‘은/은’과 목적격 ‘을/을’이 ‘곡석은<송규렴9-38>, 집은<송규렴9-8>, 보선은<송준길1026>, 여름은<송준길1009>, 지축을<송규렴9-8>, 브람을<송규렴9-13>, 학원을<송준길1094>, 탈장을<송준길992>’과 같이 대부분 분철표기이면서 ‘은’과 ‘을’이 연쇄한 ‘CVC+은→CVC\$은’형과 ‘CVC+을→CVC\$을’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연철표기이면서 ‘은’과 ‘을’이 연쇄한 몇몇의 용례들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대체로 ‘거슨<송규렴9-24>, 타슨<송준길924>, 오슨<송준길92>, 거슬<송규렴9-6>’처럼 체언말 ‘스’에 한해서이다.

이렇듯 18세기 이후로 가면 곡용에서의 분철표기가 정착 단계에 이르면 따라 연철표기이자 ‘은’과 ‘을’이 연쇄한 어형들은 체언말 ‘스’ 외에는 발견되지 않고 대부분 분철표기이면서 ‘은’과 ‘을’이 연쇄한 ‘CVC+은→CVC\$은’형과 ‘CVC+을→CVC\$을’형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은/은>은’과 목적격 ‘을/을>을’로의 단일화 과정으로 인하여 19~20세기 전반의 한글간찰에서도 주제격은 ‘CVC+은→CVC\$은’, 목적격은 ‘CVC+을→CVC\$을’로의 단일화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이와 같은 ‘은’과 ‘을’로의 단일화 양상은 음운사적 변화에 의해 예측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의 주제격 ‘은/은’과 목적격 ‘을/을’은 대체로 체언말음과의 모음조화에 의해 체언말음이 양성모음이면 ‘은’과 ‘을’이, 음성모음이면 ‘은’과 ‘을’이 쓰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ㆍ’가 16세기경에 ‘ㆍ>ㅡ’로 변화되고, 또 ‘ㆍ>ㅡ’의 변화로 말미암아 모음조화가 급격히 붕괴되면서 주제격 ‘은/은’과 목적격 ‘을/을’에서의 모음조화에

따른 교체 양상 역시 상당히 약화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도 체언말음이 음성모음일 때에 양성모음의 ‘은/는, 을/를’이 연쇄한 ‘얼구툰<순천55>, 신쥬눈<순천50>, 누눌<순천99>, 소쥬를<순천41>’ 등이나, 체언말음이 양성모음일 때 음성모음의 ‘은/는, 을/를’이 연쇄한 ‘바븐<순천130>, 모양은<순천30>, 후바글<순천27>, 스랑을<순천31>’ 등이 나타나면서, 이 시기에는 이미 주제격 ‘은/은’과 ‘눈/는’, 목적격 ‘을/을’과 ‘를/를’에 대한 ‘ㆍ’와 ‘ㅡ’의 교체가 체언말음과의 모음조화에 따라 교체되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17세기의 한글간찰에 가면 주제격 ‘은/은>은’과 목적격 ‘을/을>을’로의 확산을 보이면서 18세기 이후부터는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에 주제격과 목적격이 ‘은’과 ‘을’로의 단일화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에서 주제격 ‘은’과 목적격 ‘을’로의 단일화 양상은 ‘ㆍ’ 등의 음운사적 변화와 함께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은/은>은’과 목적격 ‘을/을>을’로의 변화 과정에 따른 것으로써 충분히 예측된 바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 ‘눈/는’과 목적격 ‘를/를’에 대한 단일화 과정에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는 3.2에서 논하도록 한다.

3.2.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

15세기의 주제격 ‘은/은/눈/는’과 목적격 ‘을/을/를/를’이 체언말음의 받침 유무에 따라 주제격은 ‘은/은>은’과 ‘눈/는>는’, 목적격은 ‘을/을>을’과 ‘를/를>를’로 단일화가 됨을 고려하여 앞서 3.1에서는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을 살핀 것이다. 이어 본 절에서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을 논하고자 한다.

3.2.1.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을 논함에 있어 먼저 주제격에 대하여 살핀다. 이를 위해서도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의 주제격에 대한 분석표와 그 용례를 우선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4>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에 대한 분석표

한글간찰 명	주제격				합계
	눈	는	난	은	
김성일가	328	-	-	2	330
송병필가	122	4	10	5	141
합계	450	4	10	7	471

(5)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 ‘눈/는/난/은’에 대한 빈도와 용례

ㄱ. 주제격 ‘눈’[450회]

①김성일가[328회]: 나눈<64, 68, 69>, 예눈<5, 외 4회>, 제스눈<9>, 이저눈<9>~이저눈<123>, 더위눈<10>, 일기눈<24>, 편디눈<6, 9, 25>~편지눈<123>, 우리눈<67>, 죄눈/분부눈 123> 등.

②송병필가[122회]: 편지눈<5 외 6회>, 씨눈/아오눈<4>, 월즈눈/칠셔눈/스쥬눈<17>, 달부눈<77>, 지종조모눈/손오눈<79>, 명주눈<82>, 스데눈/년고눈<85> 등.

ㄴ. 주제격 ‘는’[4회]

- ①김성일가: 발견되지 않음
- ②송병필가[4회]: 저는 나와/저는 바라는/근구는/오원경이는<87>⁵⁾.
- ㄷ. 주제격 ‘난’[10회]
 - ①김성일가: 발견되지 않음
 - ②송병필가[10회]: 슈의난<18>, 손녀난/여기난<91>, 숫출이난<86> 등.
- ㄹ. (체언말음이 개음절에서의) 주제격 ‘은’[7회]⁶⁾
 - ①김성일가[2회]: 츨파은/죡가은<(2015)50>.
 - ②송병필가[5회]: 훈슈은/유리은/신부레은/치마은<2>, 편지은<4> 등.

<표 4>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에 대한 분석표이고, (5)는 그에 따른 빈도와 용례이다. 이때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에서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이면 주제격이 ‘는, 는, 난, 은’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들을 나누어 그 용례를 (5)와 같이 제시하였다.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은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주제격이 ‘는, 는, 난, 은’ 등으로 총 471회가 발견된다. 그 가운데 ‘는’형은 450여 회, ‘는’형은 4회, ‘난’형은 10회, ‘은’형은 7회이다. 이때 ‘는’과 ‘난’형은 송병필가에서만 ‘저는 바라는…근구는 츨즈<송병필가 87>’에서 ‘는’형의 4회와 ‘디도난 별고 업시시다<송병필가21>, 남미난 엇지하면…실과난 보니 셔셔<송병필가42>, 여기난 오라비와<송병필가72>’ 등에서 ‘난’형의 10회가 발견된다. 그리고 개음절임에도 폐음절일 때의 ‘은’형이 ‘츨파은 삼춘…죡가은 다 평안들<김성일가(2015)50>’ 등에서 나타나고, ‘는’형은 ‘도포는 관디를<김성일가4>, 나무는 설굴이라고<김성일가15>, 장스는 구월의<김성일가27>, 츨슈는 온다<김성일가54>, 제스는 무스이<송병필가64>, 비누는 보니여<송병필가73>’와 같이 김성일가 한글간찰의 328회, 송병필가 한글간찰의 122회로 450회가 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의 해남윤씨와 전주유씨 한글간찰, 창원황씨 한글간찰, 안동 진성이씨 번남가 한글간찰, 광산김씨 가문 한글간찰에서도 아래 <표 5>와 같이 나타남을 보게 된다.

<표 5>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에 대한 분석표(김성옥 2018b: 17)

한글간찰 명	주제격				
	는	는	난	은	합계
해남윤씨	8(38.1%)	1(4.76%)	7(33.3%)	5(23.8%)	21
전주유씨	15(26.3%)	6(10.5%)	29(50.9%)	7(12.3%)	57
창원황씨	115(92.74%)	6(4.83%)	3(2.41%)	- (0%)	124
진성이씨	18(20.0%)	15(16.66%)	57(63.33%)	- (0%)	90
광산김씨	176(79.27%)	16(7.20%)	21(9.45%)	9(4.05%)	222
합계	332(64.59%)	44(8.56%)	117(22.76%)	21(4.08%)	514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위의 한글간찰에서도 주제격이 ‘는, 는, 난, 은’형으로 514회가 발견되면서, ‘는’형은 332회로 64.59%, ‘는’형은 44회로 8.56%, ‘난’형은 117회로 22.76%, 그

5) 송병필가 한글간찰에서 ‘는’의 4회는 <87>번 간찰에서만 발견된다. 황문환 외(2013: 361)의 <87>번 간찰 판독문에 보면 ‘영옥 상셔’가 나온다. 이를 통해 이 간찰의 발신자가 ‘영옥’임은 알 수 있으나 ‘영옥’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 이 간찰의 발신자는 미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6) 개음절에서 주제격 ‘은’의 7회 중, 김성일가 한글간찰의 2회는 김진화의 딸들 간찰인 <(2015)50>에서만 발견되고, 송병필가 한글간찰의 5회는 송병필 간찰인 <2>, <4>에서만 발견된다.

리고 체언말음이 개음절임에도 ‘은’형이 21회인 4.08%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테면 주제격 ‘난’형은 양예난 어나씨<창원66>, 석유난 오난<광산72>, 목화난 구만<광산 105>, 소포난 금월<해남19>, 편지난 사오…비난 오나<전주1>, 학교난 못 가<진성15>와 같이, ‘는’형은 ‘심스는 흐늬도<전주9>, 빈혜는 닛냥 밧고<전주57>, 감리는 시로<광산96>, 조부는 모시고<광산139>’와 같이 출현하는 것이다. 한편 ‘는’형은 이 시기에 대표적인 주제격으로 예측됐던 것이었으나,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그 출현이 514회 중에 44회인 10%로도 채 되지 않은 8.56%에 그친다. 이는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에서도 주제격 ‘는’형이 19세기 중·후반에 주로 쓰인 김성일가 한글간찰에서는 보이지 않고, <표 4>에서처럼 송병필가에서만 4회가 발견되면서 그것도 ‘영옥’이라는 인물이 쓴 <87>번 간찰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 ‘은’형은 비록 주제격 ‘는, 는, 난, 은’ 중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긴 하나 ‘환가는 경성서<해남2>, 비소리는 처처헌디<해남20>, 목화는 환지로<전주52>, 손즈은 십살일<광산38>, 손사과는 먼저<광산102>’와 같이 출현함을 볼 수 있다. 주제격 ‘는’형의 경우는 ‘·’가 16세기에서 18세기를 거쳐 ‘·>—’와 ‘·>ㅏ’로의 변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글간찰에서는 ‘어미는 주야<해남5>, 번개는 엇던고<전주6>, 전화는 존<진성24>, 우고는 업습고<광산136>, 회보는 자셔이<창원58>’와 같이 115회가 발견되면서 90%이상의 빈도율을 보인다.

이와 같이 위의 한글간찰들에서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으로 ‘는’형이 가장 높은 빈도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에서도 <표 4>에서 살폈듯이 주제격 ‘는’형이 471회 중에서 448회인 95.12%로 가장 높은 빈도율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3.2.2.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목적격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3.2.1에서의 주제격에 이어 3.2.2에서는 목적격에 대하여 논한다. 이를 위해서도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의 목적격에 대한 분석표와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목적격에 대한 분석표

한글간찰명	목적격				
	를	를	랄	을	합계
김성일가	150	39	2 cf. 련[2]	12	205
송병필가	40	33	1	42	116
합계	190(59.19%)	72(22.43%)	3[2](1.5%)	54(16.82%)	321

(6)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목적격 ‘를/를/랄/을’에 대한 빈도와 용례

ㄱ. 주제격 ‘를’[190회]

①김성일가[150회]: 관디를/싱기를<4>, 과거를<54, 57, 61, 81>, 혼슈를/통두를<54>, 영화를<81>, 형데를/모시를/부조를/다리를<100>, 상수를<103, 106>, 경수를/칭녀를<117> 등.

②송병필가[40회]: 아히를/이를/낭피를/<58>, 과이를<31>, 디레를<33>, 빙비를/심수를<64>, 진유를<65>, 향슈를/화고를<74>, 악보를/이통구회를/문부를<80> 등.

ㄴ. 주제격 ‘를’[72회]

①김성일가[39회]: 도리를<19>, 역스를<63>, 인돌이를<64>, 은비녀를<68>, 명जू를/내외<69>, 낫기를/편지를<70>, 혼스를/피를/회포를<123>, 죽녁고를/국슈를<124> 등.

②송병필가[33회]: 친스를/대례를<35>, 디고를/정니를/복대를<37>, 당고를<37, 61>, 답소를<63>, 처즈를/니스를<69>, 아회를<87>, 라비를<90> 등.

ㄷ. 목적격 ‘랄’ [3회]

①김성일가[2회]: 분부랄<50>, 히랄<(2015)49>.

cf. 렐[2회]: 치료렐<(2015)031>.

②송병필가[1회]: 억지랄<49>.

ㄹ. (체언말음이 개음절에서의) 목적격 ‘을’[54회]

①김성일가[12회]: 옥관즈을<56>, 하교을<92>, 공부을/일시을<93>, 진지을/구미을<96>, 경소를<(2015)22>, 과거을/념녀을/당부을<(2015)23> 등.

②송병필가[42회]: 상소를<55, 56>, 머느리를/경지을<55>, 정회를/이모을<57>, 편지을/녹지을/공소를<91>, 이비을/경소를<36>, 아회를/양네을<56>, 복대를<61>, 식소를<84> 등.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은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목적격이 ‘를, 를, 랄, 을’형으로 321회가 발견된다. 그 가운데 ‘를’형의 190회, ‘를’형의 72회, ‘랄’형의 3회와 ‘렐’형의 2회, 그리고 개음절임에도 ‘을’형이 54회이다. 목적격 ‘를’형은 ‘대호를 자바<김성일가14>, 과거를 하여<김성일가60>, 보리를 하기도<송병필가49>, 낭피를 면하고<송병필가58>, 회소를 하면<송병필가71>’ 등에서, 목적격 ‘를’형은 ‘도리를 하시옵<김성일가19>, 비를 맛고<김성일가100>, 세저를 당하여<송병필가1>, 질여를 통혼하였시느<송병필가8>’ 등에서 출현한다. 목적격 ‘랄’형은 ‘분부랄 그리하시면<김성일가50>, 멧 히랄 길슴도<김성일가(2015)49>, 억지랄 디오니<송병필가49>’의 3회와 함께 ‘렐’형이 ‘치료렐 줄하여…치료렐 하여<김성일가(2015)31>’에서 2회가 출현한다. 이때 ‘렐’형은 김한별(2015)에서 소개한 김진화의 넷째 딸 간찰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목적격 ‘을’형은 체언말음이 개음절임에도 ‘하교을 듯줍느<김성일가92>, 공부을 못홀다<김성일가93>, 더회를 당호셔<송병필가24>, 설소를 호오니<송병필가44>’와 같이 54회로 16.82%의 빈도율을 보인다.

그리하여 19~20세기 전반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의 목적격은 주제격과 마찬가지로 ‘를, 를, 랄, 을’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를’형이 59.19%로 가장 높은 빈도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격 역시 주제격과 마찬가지로 19세기 중·후반~20세기 전반의 해남윤씨 한글간찰, 전주유씨 한글간찰, 창원황씨 한글간찰, 안동 진성이씨 번남가 한글간찰, 광산김씨 가문 한글간찰에서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이들 한글간찰에서도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목적격이 ‘를, 를, 랄, 을’ 등으로 총 219회가 발견된다. 그 중 ‘를’형은 24회로 11.21%, ‘를’형은 57회로 26.02%, ‘랄’형은 4회로 1.82%, 그리고 체언말음이 개음절임에도 ‘을’형이 134회로 61.18%가 나타나는 것이다.

일테면 목적격 ‘를’형은 ‘하슈를 누리시기<전주3>, 비를 만나<창원21>, 부소를 호오셔다<진성31>, 진지를 당호오셔<광산122>’ 등에서, 목적격 ‘를’형은 ‘우무가시리를 줌<해남4>, 효 잇기를<창원2>, 슬흐를 물어<전주39>, 가스를 돌보시면<진성25>, 심스를 명치<광산114>’ 등에서, 목적격 ‘랄’형은 ‘불효랄 기치난<전주32>, 석회랄 이즈시고<전주39>, 부모님 저랄 늦게<진성23>’ 등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격 ‘을’형은 가장 높은 빈도율인 134회이자 61.18%로 ‘남무를 몰예<해남2>, 썩을 극난<해남20>, 세상소를 아지<전주58>, 화교을 당호오시니<창원5>, 머리를 써서<진성17>, 부모을 소기오릿가<광산148>’와 같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로써 19~20세기 전반의 한글간찰은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목적격 또한 ‘ㄹ, ㄹ, 랄 (렬), 을’형으로 나타나면서,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에서는 ‘ㄹ’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가 하면 그 외의 19세기 중·후반~20세기 전반의 한글간찰에서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임에도 목적격 ‘을’형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등, 주제격은 ‘ㄴ, ㄴ, ㄴ, 은’ 중에서도 ‘ㄴ, ㄴ’형이 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더라면 목적격은 ‘ㄹ’형과 개음절에서의 ‘을’형이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3.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과 그 해석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의 주제격과 목적격이 ‘은’과 ‘을’로의 단일화를 보인 폐음절일 때와는 달리 개음절에서는 주제격은 ‘ㄴ, ㄴ, ㄴ, 은’, 목적격은 ‘ㄹ, ㄹ, 랄, 을’ 등을 보이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ㄴ’과 ‘ㄹ’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본고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이러한 양상을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 ‘ㄴ/ㄴ’과 목적격 ‘ㄹ/ㄹ’의 단일화 과정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에서는 주제격 ‘은/은/ㄴ/ㄴ’과 목적격 ‘을/을/ㄹ/ㄹ’이 체언말음이 폐음절이면 ‘은/은>은’과 ‘을/을>을’로의 단일화 과정을 보이거나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땐 ‘ㄴ/ㄴ>ㄴ’과 ‘ㄹ/ㄹ>ㄹ’의 과정이 아닌 주제격은 ‘ㄴ’, 목적격은 ‘ㄹ’로의 단일화적 양상을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다.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의 주제격과 목적격을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와 개음절일 때로 나누어 살핀 김성옥(2018a)에서는 체언말이 개음절일 땐 주제격과 목적격이 ‘ㄴ/ㄴ>ㄴ’과 ‘ㄹ/ㄹ>ㄹ’의 과정이 아닌 16세기에서 19세기 한글간찰에 이르기까지 줄곧 ‘ㄴ’과 ‘ㄹ’로의 단일화적 양상임을 논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16세기 중반의 현풍김씨 한글간찰에서는 체언말음과의 모음조화와 상관없이 체언말음이 개음절이면 주제격은 ‘바리는<순천190>’을 제외한 150여 회가 ‘우리는<47>, 면화논<96>, 과거논<114>, 자내논<134>’과 같이 ‘ㄴ’이 있는 ‘ㄴ’형이고, 목적격은 ‘고개를<115>’을 제외한 180여 회가 ‘유무를<16>, 화를/새히를<44>, 안주를<57>, 고리를/진지를<110>’처럼 ‘ㄹ’이 있는 ‘ㄹ’형이다. 17세기 초반의 현풍김씨 한글간찰에서도 주제격 ‘ㄴ’과 ‘ㄴ’형은 ‘ㄴ:ㄴ=110:5’⁷⁾의 빈도를 보이고, 목적격은 ‘ㄹ’이 있는 ‘ㄹ’형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ㄹ’형으로만 130여 회가 출현한다.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제월당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도 주제격은 ‘ㄴ’형으로만 100여 회가 발견되고, 목적격은 ‘유무를<송규렴9-44>’을 제외한 90여 회가 ‘ㄹ’형으로만 보이며, 18세기 중·후반~19세기 중반 동춘동 송준길가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 역시 모두 ‘ㄴ’과 ‘ㄹ’형으로만 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은 주제격과 목적격이 ‘ㄴ’과 ‘ㄹ’로의 단일화적 양상이었던 것이고, 이에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ㄴ, ㄴ, ㄴ, 은’과 목적격 ‘ㄹ, ㄹ, 랄, 을’ 등의 출현은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ㄴ’과 목적격 ‘ㄹ’로의 단일화적 양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7) ‘ㄴ’의 5회는 건들바우박물관보고서(1991, 金一椽 해제)의 판독에 의한 것이다. 한편 백두현(1997)에서는 이들이 ‘장모씨논<4-17(건들102)>, 어마님전에는<15-11(건들152)>, 밧씩셔논<126-15(건들156)>, 바지논<22-10(건들137)>, 손조논<111-7(건들160)>’과 같이 모두 ‘ㄴ’으로 판독되어, 백두현(1997)에서는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 ‘ㄴ/ㄴ’이 ‘ㄴ’으로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은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주제격은 ‘ㄴ’, 목적격은 ‘ㄹ’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제격과 목적격이 16세기에서 19세기 한글간찰에 이르기까지 ‘ㄴ’과 ‘ㄹ’로의 단일화적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20세기 한글간찰의 ‘ㄴ, ㄴ’과 ‘ㄹ, ㄹ’의 출현 역시 주제격과 목적격이 16~19세기에 ‘ㄴ’과 ‘ㄹ’로의 단일화적 양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국어사적으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ㄴ’은 16세기쯤에 1단계인 비어두에서 ‘ㄴ>—’로의 변화와 18세기쯤에 2단계인 어두에서 ‘ㄴ>ㅏ’로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음운사적 변화는 모든 어휘와 환경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휘나 언어적 환경 및 지역적 환경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나 진행이 점진적이었던 것이다. 주제격과 목적격이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는 폐음절일 때와는 달리 16세기에서 19세기 한글간찰에 이르기까지 ‘ㄴ’과 ‘ㄹ’로의 단일화적 양상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ㄴ’의 ‘ㄴ>—’ 및 ‘ㄴ>ㅏ’로의 변화가 점진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 ‘ㄴ’의 비음운화가 정착 단계에 이르게 되자 문법형태소인 주제격 ‘ㄴ’과 목적격 ‘ㄹ’의 ‘ㄴ’에서도 ‘ㄴ>—’와 ‘ㄴ>ㅏ’로의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ㄴ’과 ‘ㄹ’의 ‘ㄴ’이 ‘ㄴ>ㅏ’로 변화되면 이들은 ‘ㄴ’과 ‘ㄹ’로 나타나게 되고, 만약 ‘ㄴ>—’로 변화된다면 ‘ㄴ’과 ‘ㄹ’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ㄴ>ㅏ’의 변화는 어두에서 생산적이었고, ‘ㄴ>—’의 변화는 비어두에서 생산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법형태소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인식하게 된다면 ‘ㄴ’과 ‘ㄹ’의 ‘ㄴ’은 ‘ㄴ>ㅏ’로 변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ㄴ>—’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사의 경우는 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인식되기 보다는 체언과 결합된 곡용의 형태로 인식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그리하여 19~20세기의 한글간찰에서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이 ‘ㄴ’과 ‘ㄴ’, 그리고 ‘ㄹ’과 ‘ㄹ’ 등이 모두 출현함을 보이나, ‘ㄴ’과 ‘ㄹ’의 경우는 후대로 갈수록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한 채 현대국어에서는 ‘ㄴ’과 ‘ㄹ’이 단일화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6~19세기의 주제격과 목적격이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땐 ‘ㄴ’과 ‘ㄹ’로의 단일화적 양상을, 폐음절일 때는 ‘은/은>은’과 ‘을/을>을’로의 단일화 과정임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ㄴ’의 변화가 한 문법형태소 내의 이행태들일지라도 그 변화의 시기를 달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때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 ‘은/은’ 및 목적격 ‘을/을’에서의 ‘ㄴ’ 변화, 그리고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 ‘ㄴ/ㄴ’ 및 목적격 ‘ㄹ/ㄹ’에서의 ‘ㄴ’ 변화가 시기적으로 달리 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ㄴ’를 선행하는 초성 유무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즉 ‘CㄴC’의 음절 구조와 ‘ㄴC’의 음절 구조에서 ‘ㄴ’의 변화가 ‘ㄴC’의 음절 구조에서는 생산적이었다면 ‘CㄴC’의 음절 구조에서는 변화의 진행이 저지되었을 가능성 말이다. 이는 연철표기가 우세했던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대체로 연철표기 이면서 ‘은’과 ‘을’이 쓰인 ‘CVC+은→CV\$C은’형과 ‘CVC+을→CV\$C을’형으로 나타나고, 분철 표기이자 ‘은’과 ‘을’이 쓰인 ‘CVC+은→CVC\$은’형과 ‘CVC+을→CVC\$을’형의 경우는 어두 및 음절초에 올 수 없다는 분포상의 제약을 가진 체언말 ‘ㅇ’에 한해서만 출현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ㄴ’의 변화가 ‘CㄴC’의 음절 구조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CㄴC’의 음절 구조가 ‘ㄴC’의 음절 구조와는 어떠한 음운론적으로 차이가 있었기에 ‘CㄴC’의 음절 구조에서는 ‘ㄴ’ 변화가 저지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김완진(1975)과 오종갑(1988)의 연구에서 ‘ㄴ’과 ‘ㄹ’이 ‘은+은’과 ‘을+을’과 같은 ‘형태소 증가형’이라는 것과, 이에 따라 ‘ㄴ>—’

의 변화가 문법형태소인 ‘ㄴ’과 ‘ㄹ’까지는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기존 연구(한영균 1996, 성인출 2004) 등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한편 16~19세기 중반의 한글간찰에서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주제격 ‘ㄴ/는’과 목적격 ‘ㄹ/를’이 ‘ㄴ’과 ‘ㄹ’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대체로 ‘·’가 있는 ‘ㄴ’과 ‘ㄹ’형으로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본고는 이러한 ‘ㄴ’과 ‘ㄹ’형을 단순히 표기의 보수성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첫째, ‘ㄴ’과 ‘ㄹ’형을 표기의 보수성으로만 본다면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에서,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는 대체로 ‘ㄴ’과 ‘ㄹ’형으로 나타나고, 개음절일 때는 주제격 ‘은/은>은’과 목적격 ‘을/을>을’로의 단일화적 양상을 보이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19~20세기 전반의 한글간찰에 나타나는 ‘ㄴ’과 ‘ㄹ’형에 대해서도 ‘ㄴ’과 ‘ㄹ’형을 단순히 표기의 보수성으로만 본다면 그 해석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19세기 후반 이후의 대표적인 주제격으로 예측되었던 ‘ㄴ’형의 경우, 그 시기의 본 한글간찰에서는 ‘ㄴ’형이 빈도 확산을 미약하게나마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전체 10%로도 채 되지 않는 빈도율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테면 김성일가 한글간찰에서는 ‘ㄴ’형이 발견되지 않고, 송병필가 한글간찰에서는 139회 중에 4회만이 발견된다. 그리고 해남윤씨는 1회인 ‘꺄후하꺄옉기는<20>’에서만 보이고, 창원황씨는 124회 중 6회만이 발견되며, 광산김씨는 222회 중 16회인 7.02%만이 보이는 것이다. 목적격 ‘ㄹ’형의 경우도 앞서 3.2.2에서 살핀 바와 같이 ‘ㄴ’형보다는 출현 빈도율이 높긴 하지만 이 역시 19세기 중·후반 이후의 대표적인 목적격으로 예측되었던 빈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와 ‘·>ㅏ’의 변화가 한글간찰의 문법형태소인 ‘ㄴ, ㄹ’에서는 19세기 이후에 들어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ㄴ’과 ‘ㄹ’형이 19세기 이전까지의 한글간찰에서는 아주 간헐적으로만 보이다가 19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조금씩의 빈도 확산을 보이는 이러한 변화 과정도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단일화적 양상을 줄곧 보인 ‘ㄴ’과 ‘ㄹ’형을 표기의 보수성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⁸⁾

4. 결론

8) 그리고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에서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폐음절일 때의 주제격 ‘은’이나 목적격 ‘을’이 출현하는데, 특히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의 해남윤씨 한글간찰, 전주유씨 한글간찰, 창원황씨 한글간찰, 안동 진성이씨 번남가 한글간찰, 광산김씨 가문 한글간찰 등에서는 개음절에서의 목적격 ‘을’이 목적격의 여러 형태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율임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후고를 기약하면서 우선 두 가지 정도로만 언급해 두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제격 ‘은’이나 목적격 ‘을’은 일반적으로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에 쓰이는 것이므로 개음절로 끝나는 체언말음에서도 폐음절에서의 절음 현상 내지는 폐쇄 현상이 발화자에 따라서는 실현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실현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을 단일화 하려는 의식이 이 시기에 더욱 고조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목적격에서의 ‘을’은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주제격에서의 ‘은’은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을 단일화 하려는 의식이라면 주제격과 목적격이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 ‘은’이나 목적격 ‘을’은 개음절로 끝나는 체언말음에서도 폐음절에서의 절음 현상 등이 발화자에 따라서는 실현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실현이 표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해석해 두고자 한다. 한글간찰이라면 여타 문헌에 비해 구어적 요소의 반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또 체언과 조사를 분리하려는 의식으로 인해 체언과 조사 사이에 짧은 휴지를 둔다면 이는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을 살펴, 이들을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은/은/는/는’ 및 목적격 ‘을/을/를/를’의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논하고, 이로써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을 해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김성일가 한글간찰과 송병필가 한글간찰을 비롯하여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 및 목적격을 살펴보았다. 이때 15세기의 주제격 ‘은/은/는/는’과 목적격 ‘을/을/를/를’이 주제격은 ‘은/은>은’ 및 ‘는/는>는’, 목적격은 ‘을/을>을’ 및 ‘를/를>를’로 단일화가 됨을 고려하여, 이들을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와 개음절일 때의 주제격과 목적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는 19~20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을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은/은/는/는’ 및 목적격 ‘을/을/를/를’에 대한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 19~20세기 한글간찰의 주제격과 목적격은 연철 및 중철표기이자 체언말 ‘ㅅ’에 한해서만 ‘은’과 ‘을’이 쓰이고, 그 외에는 분철표기이자 ‘은’과 ‘을’이 연쇄한 ‘CVC+은→CVC\$은’형과 ‘CVC+을→CVC\$을’형으로 나타남을 확인하면서, 이 시기에는 주제격 ‘은/은’과 목적격 ‘을/을’이 ‘은’과 ‘을’로의 단일화적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은’과 ‘을’로의 단일화적 양상은 ‘ㆍ’ 등의 음운사적 변화와 함께 16~19세기 중반 한글간찰의 주제격 ‘은/은>은’과 목적격 ‘을/을>을’로의 변화에 따른 것임을 논하였다.

반면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는 주제격 ‘는/는>는’과 목적격 ‘를/를>를’로의 단일화가 아닌 주제격은 ‘는, 는, 난, 은’, 목적격은 ‘를, 를, 랄, 을’ 등으로 나타나면서, 그 중에서도 ‘는’과 ‘를’이 비교적 높은 빈도였음을 알 수 있었다. ‘는’과 ‘를’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주제격과 목적격이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는 16~19세기 한글간찰에 이르기까지 ‘ㆍ’가 있는 ‘는’과 ‘를’로의 단일화적 양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논하였다. 그리고 19~20세기 한글간찰에서의 ‘난, 는’이나 ‘랄, 를’의 출현 등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일테면 ‘ㆍ’의 ‘ㆍ>—’ 및 ‘ㆍ>ㅏ’로의 변화가 변화의 점진성으로 말미암아 문법형태소였던 주제격 ‘는’이나 목적격 ‘를’에서는 늦게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19세기에 들어 ‘ㆍ’의 비음운화가 정착 단계에 이르자 한글간찰의 ‘는’과 ‘를’에서도 ‘ㆍ>—’와 ‘ㆍ>ㅏ’로의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는’과 ‘를’의 ‘ㆍ’가 ‘ㆍ>ㅏ’로 변화되면 ‘난’과 ‘랄’로 나타나게 되고, ‘ㆍ>—’로의 변화를 겪게 된다면 ‘는’과 ‘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ㆍ>ㅏ’의 변화는 어두에서 생산적이었고, ‘ㆍ>—’의 변화는 비어두에서 생산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만약 문법형태소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인식하게 된다면 ‘ㆍ>ㅏ’로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ㆍ>—’로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의 경우는 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인식되기 보다는 체언과 결합된 곡용의 형태로 인식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19~20세기 한글간찰에서는 ‘난’과 ‘랄’, 그리고 ‘는’과 ‘를’ 등이 모두 출현함을 보이나, ‘난’과 ‘랄’의 경우는 후대로 갈수록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한 채 현대국어에서는 ‘는’과 ‘를’로 단일화가 된 것임을 논하였다.

이로써 15세기의 주제격 ‘은/은/는/는’과 목적격 ‘을/을/를/를’이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와 개음절일 때에 따라 단일화 과정을 달리 하는 가운데, 체언말음이 폐음절일 때는 16~19세기에 주제격 ‘은/은>은’과 목적격 ‘을/을>을’로의 변화 과정에 의해 19~20세기 전반의 한글간찰에서도 주제격은 ‘CVC+은→CVC\$은’, 목적격은 ‘CVC+을→CVC\$을’로의 단일화 양상을 보인 것이었다. 반면 체언말음이 개음절일 때 ‘ㆍ’의 ‘ㆍ>—’ 및 ‘ㆍ>ㅏ’로의 변화가 한글간찰의 문법형태소인 ‘는’과 ‘를’에서는 늦게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

르기까지 주제격은 ‘ㄴ’, 목적격은 ‘ㄹ’로의 단일화적 양상을 보인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 ‘ㆍ’의 비음운화가 정착 단계에 이르자 ‘ㄴ’과 ‘ㄹ’의 ‘ㆍ’ 역시 ‘ㆍ>—’ 및 ‘ㆍ>ㅏ’로의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에서는 주제격과 목적격이 ‘은’과 ‘을’로의 단일화적 양상을 보인 개음절일 때와는 달리 주제격은 ‘ㄴ, ㄴ, ㄴ, 은’, 목적격은 ‘ㄹ, ㄹ, ㄹ, 을’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남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건들바우박물관, 『晉州河氏墓出土文獻과 服飾調査報告書』(金一根 해제), 1991.
-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韓國簡札資料選集 Ⅲ -恩津宋氏 霽月堂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3.
- 김상돈·이경희, 「근대국어의 격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 월인, 1999: 619~654쪽.
- 김성옥, 「주제격 ‘은/은/ㄴ/ㄴ’과 목적격 ‘을/을/ㄹ/를’의 단일화에 대한 일고찰 -16~19세기 한글간찰에서의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83, 국어국문학회, 2018a: 1~31쪽.
- 김성옥, 「19~20세기 전반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표기 분석」, 『영주어문』39, 영주어문학회, 2018b: 5~30쪽.
- 김성옥·김정태, 「개화기 한글 간찰의 음운론적 고찰」, 『한글』310, 한글학회, 2015: 137~169쪽.
- 金一根, 「諺簡의 研究(續): 諺簡의 諸學的 考察」, 『학술지』16-2, 건국대학교, 1973: 39~93쪽.
- 金一根, 「忘憂堂 從姪 郭澍의 再室 晉州河氏墓 出土文獻의 觀點」(『晉州河氏墓出土文獻과 服飾調査報告書 : 건들바우박물관』에 수록), 1991.
- 김완진,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 증가에 대하여」, 『국어학』3, 국어학회, 1975: 7~16쪽.
- 김주원, 『모음조화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 김주필, 「조선시대 한글 편지의 문어성과 구어성」, 『한국학논총』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223~257쪽.
- 김한별, 「19세기 전기 국어의 음운사 연구 -(의성김씨 학봉 종가 언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부자, 「은진송씨 송준길 후손가 언간의 서지」, 『돈암어학』20, 돈암어문학회, 2007: 128~156쪽.
- 배영환, 「현존 最古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 『국어사연구』15, 국어사학회, 2012: 211~239쪽.
- 백두현, 「晉州 河氏墓 出土 <玄風 郭氏 諺簡> 判讀文」, 『어문논총』31, 경북어문학회, 1997: 19~88쪽.
- 백두현,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2003.
- 백두현, 『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
- 성인출, 「18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 율음언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신성철, 「발신자의 사회적 성격에 따른 19세기 한글 편지의 표기와 음운」, 『어문논집』57, 중앙어문학회, 2014: 107~135쪽.
- 오종갑, 「모음조화의 재검토」, 『牧泉 兪昌均 博士 還甲紀念論文集』, 계명대출판부, 1984: 393~427쪽.
- 오종갑, 『국어 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8.
- 이근규, 「15세기 국어의 모음조화와 울림도 동화」, 『한글』171, 한글학회, 1981: 91~130쪽.
- 이근규, 『중세 국어 모음조화의 연구』, 창학사, 1986.
- 이기문, 『國語音韻史研究』, 탑출판사, 1985.

- 이동석, 『국어 음운현상의 공시성과 통시성』, 한국문화사, 2005.
- 이래호,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현황 및 그 특성과 가치」, 『국어사연구』20, 국어사학회, 2015: 65~126쪽.
- 이승녕, 「모음조화연구」, 『李崇寧國語學選集1 音韻論 I』, 민음사, 1988: 165~261쪽.
- 이승녕, 「/·/音의 消失期推定에 對하여」, 『李崇寧國語學選集3 音韻論III』, 민음사, 1988: 297~363쪽.
- 장영길, 「국어 모음추이와 모음조화 붕괴에 대하여」, 『동악어문학』28, 동악어문학회, 1993: 45~65쪽.
- 전철용, 「청주북일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의 판독문」, 『호서문화연구』13,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5.
- 조건상, 『청주 북일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충북대박물관, 1981.
-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1998.
- 최태영, 「모음조화론 -중세국어 형태음소론적 연구의 일환으로」, 『국어문학』Vol.20, 국어문학회, 1979: 181~231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 태학사, 2005a.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2』, 태학사, 2005b.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3』, 태학사, 2005c.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4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간찰』, 태학사, 2009a.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5 -은진송씨 송규렴 가문 한글간찰』, 태학사, 2009b.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6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간찰』, 태학사, 2009c.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7 -전주이씨 덕천군파 종택 한글간찰』, 태학사, 2009d.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8 -대전 안동권씨 유희당가 한글간찰 외』, 태학사, 2009d.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9 -광산김씨 가문 한글간찰』, 태학사, 2009f.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0 -의성김씨 천전파 초계정씨 한글간찰』, 태학사, 2009g.
- 한영균, 「모음조화의 붕괴 유인에 대한 재검토」, 『울산어문논집』제11집,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6: 115~142쪽.
- 한영균, 「모음조화의 붕괴와 모음체계 재정립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3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33~55쪽.
- 허웅, 『옛말본』, 서울: 과학사, 1969.
- 홍윤표, 『근대국어 연구 (I)』, 태학사, 1994.
- 홍윤표, 「근대국어의 국어사적 성격」, 『국어사연구』9, 국어사학회, 2009: 153~172쪽.
- 황문환,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10, 국어사학회, 2010: 73~131쪽.
- 황문환,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종합화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59, 한국어학회, 2013: 39~74쪽.
- 황문환 외 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 역락, 2013a.
- 황문환 외 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2』, 역락, 2013b.
- 황문환 외 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3』, 역락, 2013c.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에 대한 토론문

백채원(서울대학교)

이 발표문은 19~20세기 전반 한글 간찰에 나타나는 주제격과 목적격 조사가 체언 말음이 폐음절이면 ‘은’, ‘을’로의 단일화를, 개음절이면 ‘은/는/난/은’, ‘를/를/랄/을’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고, 그 배경을 16~19세기 한글 간찰에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지어 논의한 글입니다. 정교한 통계 처리를 통해 한글 간찰에 나타나는 주제격, 목적격 조사의 실현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필사본에 나타나는 조사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간본 자료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선생님께서서는 전반적으로 한글 간찰에 나타나는 주제격과 목적격 조사의 단일화 과정의 경향을 논의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양상이 刊本 자료에 나타나는 주제격, 목적격 조사의 양상과는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체언 말음이 폐음절일 때, 연철에서 ‘은’, ‘을’의 비율이 ‘은’, ‘을’보다 더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

체언 말음이 폐음절일 때, ‘은, 을’은 연철 및 중철에서 체언말 ‘스’에 한해서만 사용되고, ‘은’, ‘을’은 분철에서 그 외의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철에서 주제격, 목적격 조사가 ‘은’, ‘을’로만 나타나는 현상은 단일화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표 1>, <표 2>를 참고하였을 때 연철에서는 오히려 ‘은’, ‘을’이 ‘은’, ‘을’보다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남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은/은>은’, ‘을/을>을’이라는 단일화 양상에 오히려 반대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경향으로 분명 주제격 조사는 ‘은’으로, 목적격 조사는 ‘을’로 단일화되어 왔지만, 왜 연철에서는 그와 반대 방향의 표기를 보여주는지 궁금합니다. 오종갑(1986/1988)에서는 분철된 경우보다 연철된 경우가 음모음화의 진행이 빠른 이유를 울림도(sonority)를 적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3.1.3.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16~19세기의 연간 자료에서도 단일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해한 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6세기 순천김씨 한글간찰

- a. 연철: CV\$C은
- b. 연철: CV\$C은(95회) - 감소 ->
- c. 분철: CVC\$은(25회) - 증가 ->
- d. 분철: CVC\$은

17세기 현풍곽씨 한글간찰

- a. 연철: CV\$C은
- b. 연철: CV\$C은(30회)
- c. 분철: CVC\$은(52회)
- d. 분철: CVC\$은

16세기에는 b와 같은 표기가 많았지만 후대로 갈수록 c와 같은 표기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혹시 ‘은/은’이 ‘은’으로 단일화되는 과정을 논의할 때 연철과 분철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이들의 단일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a, b→a>, <c, d→c>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철에서는 ‘은’보다 ‘은’이 사

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앞서 말한 문제점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 체언 말음이 개음절일 때 ‘ㄴ, ㄹ’로, 폐음절일 때 ‘은, 을’로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설명

3.2.3에서 선행 체언이 개음절일 때는 ‘ㄴ, ㄹ’로, 폐음절일 때는 ‘은, 을’로, 폐음절일 때는 ‘은, 을’쪽으로 단일화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울임으로 표시한 부분은 제가 선생님의 다른 논문에서 제시한 예를 참고하여 추론한 것입니다).

(1) 16~19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주제격과 목적격의 단일화 양상

ㄱ 개음절 뒤: **ㄴ**/는 **ㄹ**/를 : ㄴ/ㄹ (‘ㄴ, ㄹ’쪽으로 단일화)

ㄴ 폐음절 뒤: 은/**은** 을/**을** : 은/을 (‘은, 을’쪽으로 단일화)

(2) 한 문법형태소내의 이형태들이라도 ‘으’의 변화의 시기를 달리하며, 이와 같은 차이는 ‘ㄴ, ㄹ’에 선행하는 초성 유무와 상관성이 있음. ‘으C’가 ‘C으C’보다 더 변화를 잘 겪음.

(3) 순천김씨 한글간찰의 표기

가. CVC+은→CV\$C은 (예) 옷+은 → **오^으즌**[C^으C] (‘ㄴ, ㄹ’>‘은’의 변화가 저지됨)

나. CVC+은→CVC\$은 (예) 종+은 → **종^은으**[C] (‘ㄴ, ㄹ’>‘은’의 변화를 겪음)

(4) 결론

ㄱ 개음절 뒤: **ㄴ**/는, **ㄹ**/를 → ‘ㄴ/ㄹ’은 [C^으C]의 구조이므로 ‘ㄴ, ㄹ’>‘은’의 변화가 저지됨

ㄴ 폐음절 뒤: 은/**은**, 을/**을** → ‘은/을’은 [으C]의 구조이므로 ‘은, 을’>‘은, 을’의 변화를 겪어 ‘은/을’로 단일화됨

지금 이 논의가 주제격, 목적격 조사가 선행 체언이 개음절일 때는 ‘ㄴ, ㄹ’쪽으로, 폐음절일 때는 ‘은, 을’쪽으로 단일화되는 것에 대한 설명임을 고려하면, 선생님께서는 (3)의 순천김씨 한글간찰에 나타나는 현상을 근거로 ‘C으C’의 구조를 가지는 ‘ㄴ, ㄹ’ 또한 ‘ㄴ, ㄹ’>‘은’의 변화가 저지되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의 ‘오즌’의 ‘즌’이 ‘C으C’의 음절구조를 가지는 것과, (4)에서 조사 ‘ㄴ, ㄹ’이 ‘C으C’의 음절구조를 가지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의 자료는 ‘은’이 선행 체언과의 결합 관계에서 그 음절구조가 ‘C으C’로 나타나는 것이고, (4)에서 조사 ‘ㄴ, ㄹ’은 조사가 그 자체로 ‘C으C’의 음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폐음절 뒤의 ‘은/을’은 ‘으C’의 구조이기 때문에 ‘ㄴ, ㄹ’의 변화도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난’, ‘랄’과는 달리 왜 ‘안’, ‘알’은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3)의 자료를 다룸에 있어서 ‘은’이 오는 것과, ‘ㄴ, ㄹ’>‘은’의 변화를 겪어 ‘은’으로 나타나는 것을 구별하여 자료를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 외의 사소한 것으로 ‘은/은’, ‘ㄴ/는’을 ‘주제격’이라 하셨는데, 이를 보조사가 아니라 격조사의 일종으로 보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참고문헌

오종갑(1986), 폐음화와 그에 따른 음운 현상: 18세기 후기 국어를 중심으로, 『嶺南語文學』(현재 한민족어문학으로 개칭)13, 한민족어문학회, 97-120. [오종갑(1988: 9-34)에 재록]

오종갑(1988), 『國語 音韻의 通時的 研究』, 계명대학교 출판부.

훈민정음 후음자 'ㅇ'의 기능과 파스파 문자

연구동(연세대학교)·최계영(서울대학교)

1. 머리말	4.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파스파 문자 표기
2. 중세국어 후음자 ㅇ의 기능	5. 음운론적 흔적의 파스파 문자 표기
3.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파스파 문자 표기	6. 맺음말

1. 머리말

훈민정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종 임금의 독창성은 의심할 바 없다. 하지만, 문자가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앞선 문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국내 학자들과는 달리 해외 학자들은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의 관련성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의 관련성을 단순히 글자의 모양을 벗어나서 문자의 원라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어 음운사와 표기법 연구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훈민정음 후음자 ㅇ의 음가 및 기능이 파스파 문자와 관련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기존에 파스파 문자와 훈민정음의 관계는 주로 자형과 제자 원리의 유사성 면에서 검토되었다. 이러한 유사성은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있지만 그 차용 관계를 확실히 밝힐 수 없는 것이어서 자칫 소모적인 논쟁만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각 문자가 해당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얼마나 적합하게 조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파스파 문자는 비교적 그 계통이 확실한 문자로서 티베트 문자에서 대부분의 자형을 빌리고, 거기에 위구르 문자의 표기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문자 체계이다. 그러므로 파스파 문자의 운용 원리를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의 계통을 현재로서 정확히 밝히기보다는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에서 기존 알려진 문자들이 운용 원리가 훈민정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중세국어 후음자 ㅇ의 기능

중세국어에서 ㅇ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1a)와 (1b)는 표기법적 기능을 하는 ㅇ으로써, 특정한 음가 없이 자체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1c)는 음운론적 기능을 한다는 관점과 음운론적 흔적을 나타내는 기능이라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 (1) a. 아비, 오늘, 어라-, 울-, 이르-

- b. 두어, 사우-, 그우라-
- c. 몰애(沙), 쫄애(剪), 글왈(文), 달아(異), 앓이(弟), 알어늘(知)

차. 표기법적 기능

1)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표기

중세국어의 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음가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다. (1a)의 단어들을 ‘ㅏ 비, ㅑ 놀, ㅓ 리-’ 등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그 음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비, 오늘, 어리-’라는 표기에 나타나는 ㅇ은 음운론적으로 아무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단어 처음에 쓰인 글자 ㅇ은 그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표기법적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어떤 요소를 덧붙여 표기하는 일은 셈계 문자의 표기법과 유사한 기능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셈계 문자들은 자음만을 표기하는 ‘자음문자(abjad)’에 속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¹⁾의 경우에는 셈계 언어의 특징적 표기인 3자음 어근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특정 글자를 추가하여 표기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히브리 문자에서는 모음 a, e, o로 시작하는 단어에 “”로 전자되는 \aleph (알레프)가 사용되어 있다.

발음	히브리 문자	전자	뜻
adam	אָדָם	'dm	사람, 인간
emet	אֱמֶת	'mt	진리
ozen	אָזֵן	'vzn	귀

따라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처음에 특정한 음가 없이 사용되는 글자를 셈계 문자의 첫 번째 글자의 이름 알레프(aleph, alif)를 따라서 ‘알레프’적 용법이라고 부른다.²⁾ 이러한 알레프적 기능은 그 이후 셈계 문자의 영향을 받은 여러 문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기문(1972: 15 각주1)에서도 이러한 알레프적 요소가 문자학상으로 위구르 문자, 티베트 문자, 파스파 문자 등에서도 발달한 것이 흥미롭다고 하면서, 단어 어두에 사용된 훈민정음 ㅇ의 기능을 셈계 문자의 알레프 용법과 맨 처음 관련짓고 있다.

2)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표기

중세국어 ㅇ의 두 번째 기능은 한 단어 내의 두 모음 사이에서 쓰여 두 모음이 각각 다른 음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기문(1972: 16)에서는 ㅇ의 이러한 기능을 알레프보다도 큰

1) 음성학적으로는 언어에 따라 후두마찰음 [ʔ]으로 발음나는 경우도 있다.
 2) 이를 한글로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즉 ‘노래방’의 경우 자음만을 이용해서 ‘ㄴㄹㅂ’이라고 표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ㄴㅂㅈ’라고만 표기하면 음절 수효가 맞지 않기 때문에 ‘ㅇㅂㅈ’와 같이 별개 글자를 넣는 것이다.

ㄴ ㄹ ㅂ ㄴㅂㅈ → ㅇㅂㅈ
 노래방 아버지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 즉, ‘孔子|’와 같은 표기와 ‘孔子이’와 같은 표기의 차이는 전자와 같은 표기가 ‘子|’가 하나의 독립된 음절을 이루지 않지만, ‘子이’는 각각 별개의 음절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어중에서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음가 없는 ㅇ을 쓰는 것은 중세 국어 ㅇ의 중심 기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2.1.1.의 알레프적 용법에 가려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논저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표기하는 ㅇ의 기능과 어중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을 표기하는 ㅇ의 기능을 ㅇ의 ‘소극적인 기능’으로 보아 같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ㅇ이 가진 표기법적인 기능은 “어두음이 모음임을 나타내거나 어중의 두 모음이 각각 다른 음절임을 나타내는 기능” 정도로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단어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기(2.1.1.)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표기(2.2.2.)의 부분집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표기가 후음자 ㅇ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음절 경계를 분리하여 표시하는데에 ㅇ이 이용된 것을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을 표기하는 ㅇ이야말로 형태소 경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한 중요한 표기법적 기능이다.

카. 음운론적 기능

중세국어 ㅇ이 가진 세 번째 기능은 앞 음절의 음절말 자음을 분철시키는 ㅇ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기 관행이었지만, (1c)에서 보듯이 ㅇ을 이용해서 음절말 ㄹ이나 ㅅ을 분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기능이다.

이러한 ㅇ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크게 지금까지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되었다. 우선 이른바 ㅇ의 적극적인 기능으로서, 이기문(1962, 1972) 이래 후음의 불청불탁음 즉 유성마찰음 [h]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중세국어 시기의 다른 표기와는 달리 연결되지 않거나 ‘요/유’가 실현되지 않은 것과 같은 표기법에서 논증된 근거와 더불어, 중세국어 ㅇ의 대응형이 중세 이전의 문헌 자료와 현대 방언 자료에서 ㄱ으로 실현되는 위치라는 점 등이 가장 큰 근거로 작용한다.

반면에 (1c)의 예에 보이는 ㅇ을 탈락한 흔적의 음운적 잔존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어떤 음소가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탈락한 자리를 표시하는 표기자의 의식이 반영된 흔적 표기라고 보는 것이다(오종갑 1979, 김무식 1992, 이광호 1995, 차재은 2003 등). 이러한 관점은 연구자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세밀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ㅇ이 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 심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음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ㅇ은 역시 일견 표기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음운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³⁾

1) /ㄱ/ 흔적 위치

중세국어의 ㅇ이 주로 특정 위치의 ㄱ에서 변화한 위치에 사용된 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한글 문헌에서 ㄹ, ㅅ 및 | 아래에

3)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장단점 및 그동안 연구 이력에 대해서는 김무림(2005), 김성규(2009:20-51)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서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어미가 ㅇ으로 표기되었다.

- (2) 명사 및 동사 어간: 물애(沙), 놀애(歌), 놀애(놀개), 놀애, 떨위(*떨귀), 달애(誘), 얼의-(凝), 쫓애(剪)
 것위
 파생 어간: 놀이-, 살이-, 알외- cf. 알기-
 합성어: 골아마괴, 갈외 cf. 가마괴(鴉), 괴(猫)
 곡용형: 놀이(장), 놀익(津)
 공동격 조사 ‘-과’: 물와(水), 입시울와
 어미
 의문어미 ‘-고’: 罪오/ 어느 날오. 므슴 얼굴오 cf. 器具오
 연결어미 ‘-고’: 권속을 여희오, 아드리오/ 길오 놓고, 밍굴오, 니름오
 ‘-거나’: 草木이어나 부디어나
 ‘-고져’: 죄오져
 ‘-과라’: 세와라
 ‘-거늘’: 이울어늘 중세국어 거/어 교체^{alif vowel}
 선어말어미 ‘-거’: ㅅ이어다/ 밍굴어늘, 할어늘, 니를어다
 부사형어미 ‘-게’: 혈에 디여, 니름에 흘씨라, 여희에, 드외에
 ‘-과’: 울의 흐니사

2) /ㄹ/ 흔적 위치

중세국어의 ㅇ이 주로 특정 위치의 ㄹ과 관련지을 수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 ㄹ으로 표기되던 것이 이후 문헌에서 일괄적으로 ㅇ으로 변화한 예들이다.

- (3) 글왈(<글왈), 갈워, 설워, 활아치(<활바치), 골와(<골바), 설워호믄(<설버호믄), 솔오리삿다(<솔뵤리삿다)
 설이(<설뵤), 물이(<물뵤), 사이(<사뵤), 수이(<수뵤), 므거이(<므거뵤), 더리이디(<더리뵤디)
 놀우츠며, 놀우쳐, 놀우치놋다, 놀웃다 cf. 놀+뵤, 奮 날부츨 분
 애들울(<애뵤-), 열울(<열-), 골울(<골-), 설울(<설-)

(3)에서와 같이 분철시키는 요인이 반모음 w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모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왈(cf. 글왈), *셔워(cf. 설워) 등으로 표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분철 표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ㅇ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ㅇ은 ㄱ으로 소급할 수 없으므로 [h]가 아니라 [hw]와 같은 단계를 가정하기도 하였다.

3) /·, -/ 흔적 위치

오종갑(1979)에서는 위 두 경우 외에도 ‘·, -’가 삭제된 경우도 흔적 위치라고 이해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세국어 ㅇ의 세 가지 용법은 파스파 문자에서 모두 발견된다.

3.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파스파 문자 표기

파스파 문자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표기하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

를 다른 문자체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티베트 문자	파스파 문자				위구르 문자	훈민정음
문자	ཨ	𑖇	𑖆	가로선	×	가로선	ㅇ
모음	모든 모음	ö, ü	ü, i	e, o, u, i	a	모든 모음	모든 모음

타. 𑖇(°)가 알레프적 기능으로 사용된 경우

셈계 문자의 알레프에 해당하는 파스파 문자는 𑖇이다. 이 글자는 전통적으로 ’ 또는 a로 전자된다. 특히 ’’로 전자되는 경우 알레프적 용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 어두에서 알레프 기능을 하는 글자로 사용된 경우는 모음 /ö/, /ü/로 시작하는 경우이다(뽀뽀 1957: 25). 이 두 모음만 알레프를 사용한 것은 이 두 모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독립된 글자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모음자 a가 단어 시작 표기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ö, ü를 구분하기 위해 ’’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어 시작 표기 기능이라 할지라도 파스파 문자에서는 다 사라지고 ö, ü에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셈계 문자가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모음이 독립한 것이다.

1) 어두 /ö/

/ö/는 어두에서 언제나 ’’+eo⁴)의 꼴로만 표기된다.

- ’eo₁-gu₂n ögün x63 (M001:8) (M001:11) (M001:14) (M002:9) (M002:12) (M003:11) (M003:14) (M004:13) (M004:20) (M005:10) (M005:13) (M006:11) (M007:12) (M007:15) (M008:12) (M008:16) (M009:7) (M009:11) (M010:12) (M010:17) (M011:6) (M011:8) (M012:11) (M012:13) (M014:13) (M014:16) (M015:13) (M015:17) (M016:16) (M016:19) (M017:13) (M017:16) (M018:13) (M018:15) (M019:14) (M019:16) (M020:12) (M020:15) (M021:15) (M021:18) (M022:12) (M022:14) (M024:8) (M024:10) (M025:11) (M026:17) (M026:23) (M027:21) (M027:27) (M028:14) (M028:20) (M030:18) (M030:21) (M031:17) (M031:21) (M032:18) (M032:20) (M033:10) (M033:12) (M034:22) (M034:27) (M035:18) (M035:22) “to give, pronounce”⁵⁾
- ’eo₃l-jeë₃ öl-jeë x1 (M040:7) “good luck, happiness”
- ’eo₃r-geo₃n örgön x2 (M039:2) (M040:3) “wide”

2) 어두 /ü/

/ü/는 어두에서 거의 대부분 ’’+eu의 꼴로 표기된다.

- ’eu₂-bu₂-lu₂n übül-ün x3 (M024:18) (M025:26) (M028:36) “winter”
- ’eu₂-k’u₂-gu₂ ük’ügü x4 (M060:5) (M061:5) (M062:5) (M063:5) “to die, pass away”

4) o, u에 일종의 보조기호 e를 붙여서 ö, ü를 표기하는 관습은 위구르 몽골문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e는 전설성을 표기하는 기호가 되었다.

5) 전자형, 전사형, 출전, 의미의 순으로 제시한다.

³eu₂n-du₂r ündür x2 (M039:3) (M040:3) “high, tall”

다만, /ü/로 시작하는 일부 어휘의 경우에는 ㄹ(•)가 알레프 기능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3.2.1. 참고.

파. ㄹ(•)가 알레프적 기능으로 사용된 경우

ㄹ(•)가 알레프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ü/, /i/ 두 모음의 경우이며, 이 모음들은 각각 ’ 또는 가로선이 알레프 기능을 맡은 예들과 혼용되어 있다.

파스파 문자보다 앞선 문자에서 알레프 기능을 담당했던 문자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 •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였다고 전제한다면 •가 어두에서 모음자와 함께 나오는 예들은 예외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의 알레프 기능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알레프를 붙이는 관습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관습이 /ü/와 /i/에만 남아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발음의 차이인지 어원 표기인지 또는 위구르 몽골 문자의 영향인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모음 /ü/

어두에서 ㄹ(•)가 알레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들은 모두 üge와 관련된 어휘들 즉, ‘언어, 말’을 뜻하는 몽골어 단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가 어두에 사용된 예

- (eu₂)-ges üges x1 (M021:35)
- eu₂-ges üges x1 (M005:32)
- eu₂-ge üge x5 (M001:3) (M006:3) (M009:2) (M010:3) (M021:30)
- eu₂-ge-t’u₂ üget’ü x1 (M084:1)
- eu₂-ge-•u₂ üge•ü x1 (M039:1)
- eu₂-ge-•er üge-•er x3 (M005:30) (M029:6) (M036:27)
- eu₂-gu₂-leg-sen ügülegsen x1 (M040:7)
- eu₂-gu₂-lel-du₂-k’u₂n ügüleldük’ün x2 (M005:32) (M021:34)

그러나 같은 단어의 표기에 ㄹ(•)가 혼용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cf. ’가 어두에 사용된 예

- ³eu₂-ge-•u₂ üge•ü x1 (M033:18)
- ³eu₂-ge-•u₂n üge•ün x12 (M004:28) (M005:25) (M006:17) (M010:30) (M019:22) (M020:22) (M021:39) (M025:24) (M029:13) (M033:22) (M035:31) (M036:38)
- ³eu₂-ge-•u₂é₁ üge•ué x1 (M022:20)
- ³eu₂-ge-•u₂é₁ üge•üé x21 (M001:18) (M003:23) (M005:38) (M006:18) (M007:24) (M008:25) (M011:12) (M012:19) (M014:27) (M016:27) (M017:25) (M018:22) (M023:28) (M026:33) (M027:40) (M028:33) (M029:12) (M030:27) (M031:29) (M036:38) (M037:56)

'eu ₂ -ge- • u ₂ ê ₃	üge • üê	x5 (M002:17) (M010:28) (M024:17) (M032:25) (M034:50)
'eu ₂ -geê ₁	ügeê	x2 (M009:18) (M085:4)
'eu ₂ -geê ₃	ügeê	x3 (M039:7) (M040:1) (M040:9)

2) 모음 /i/

몽골어 모음 /i/의 경우 또한 어두에서 •가 알레프 기능을 담당한다. 어두에 'i인 예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에 모든 예를 제시한다.

• i ₁ -(h • en-du ₂ r)	ihēn-dür	x1 (M032:2) "protection"
• i ₁ -h • en	ihēn	x1 (M040:7)
• i ₁ -h • en(-du ₂ r)	ihēn-dür	x1 (M022:2)
• i ₁ -h • en-du ₂ r	ihēn-dür	x22 (M002:2) (M004:2) (M005:2) (M008:2) (M011:2) (M012:2) (M014:2) (M015:2) (M017:2) (M018:2) (M019:2) (M020:2) (M021:2) (M026:2) (M027:2) (M030:2) (M031:2) (M033:2) (M034:2) (M035:2) (M036:2) (M037:2)
• i ₁ -h ₁ • en-du ₂ r	ihēn-dür	x3 (M003:2) (M007:2) (M016:2)
• i ₁ -j _i	iji	x8 (M023:3) (M023:10) (M023:25) (M023:31) (M024:3) (M024:6) (M024:13) (M024:18) "edict"
• i ₁ -j _i -t'en	ijit'en	x1 (M024:17) "those who having an edict"
• i ₁ -j _i -t'u ₂	ijit'ü	x1 (M023:28) "having an edict"
(• i ₁ r-ge-ne)	irgen-e	x1 (M006:5) "people"
• i ₁ (r-ge-ne)	irgen-e	x1 (M025:7)
• i ₁ r-ge-ne	irgen-e	x7 (M003:7) (M021:8) (M024:5) (M028:3) (M036:18) (M037:9) (M037:14)
• i ₁ r-ge-ni ₁	irgen-i	x1 (M049:2)
• i ₁ r-ge-nu ₂	irgen-ü	x3 (M027:7) (M027:9) (M036:13)

하. 가로선이 알레프적 기능으로 사용된 경우

3.1과 3.2에서는 특정 문자를 사용해서 알레프 기능을 표시한 예를 살펴보았다. 3.3에서는 문자라기보다는 글자의 모양을 달리해서 알레프 기능을 표시한 예를 살펴본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음 /e/, /i/, /o/, /u/의 경우에는 모음자 위에 가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가로선이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어두 모음자는 어중 모음자 앞에 이른바 '머리(head)'(뽀뽀 1957: 25)에 해당하는 가로선이 덧붙여 있는 형태이다.

모음	e	i	o	u
음절초	ᄒ	ᄒ	ᄒ	ᄒ
어중	ᄒ	ᄒ	ᄒ	ᄒ

이 같은 가로선은 알레프적 기능을 가진 별개의 문자로 표시하던 관습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파스파 문자는 음절 단위로 구분해서 표기하기 때

문에 어두 외에도 음절초에도 가로선이 보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가로선을 그어 표시하는 방식은 위구르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구르 문자 역시 다음 표와 같이 어두 모음자의 모양이 어중 모음자와 다르다. 만주 문자, 몽골 문자, 위구르 문자, 소그드 문자 등 셈계 문자가 거처온 많은 문자들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시작에 가로선이 잘 나타나 있다.

모음	a	e	o, u	ö, ü
어두 모음	𐰀	𐰁	𐰂	𐰃
어중 모음	𐰄	𐰅	𐰆	𐰇

1) 어두 /e/

몽골어 어두 /e/는 모두 파스파 문자 é로 표기된다. 즉, 어두에는 é만 단독으로 쓰인 예는 모두 특정 글자(·, •) 없이 가로선을 가진 글자로만 시작한다.

- è₂-jēn èjēn (M039:1) (M040:4) (M040:9) “lord, master”
- è₂l-č'i₁-ne èlč'in-e (M002:6) (M004:6) (M010:7) (M012:4) (M019:7) (M024:5) (M033:5) (M034:8) (M035:7) “messengers, envoys”
- è-du₂-•e èdü •e x22 (M001:9) (M003:12) (M005:11) (M006:9) (M007:13) (M008:13) (M009:5) (M011:7) (M012:11) (M014:14) (M015:14) (M016:17) (M017:14) (M018:13) (M020:13) (M021:15) (M022:12) (M026:18) (M027:22) (M028:15) (M030:18) (M031:18) “now”

어두 /e/에 ‘’가 쓰인 예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 단어가 산스크리트어 ratna에서 차용된 어휘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두에 ‘’를 포함한 표기는 티베트어 표기의 알레프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⁶⁾

- 'è₃r-di₁-ni₁s èrdinis x2 (M039:3) (M040:10) “pl. jewels”
- 'è₃r-ti₁-ni₁ èrtini x1 (M039:7)
- 'è₃r-ti₁-ni₁s èrtinis x1 (M039:7)

2) 어두 /o/

몽골어의 어두 /o/는 모두 가로선을 가진 파스파 문자 o로 표기된다.

- o-lo₃n olon x6 (M006:5) (M008:17) (M021:8) (M021:30) (M036:18) (M083:19) “many”
- o-ro₁-•r oro •ar x1 (M040:3) “completely”
- o-so₃l-t'n osolt'an x1 (M037:36) “be negligent, have an accident”

3) 어두 /u/

6) 또한 이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e와 혼기되고 있다.

- 'er-di₁-ni₁-•er erdini-•er x1 (M084:8)
- 'er-di₁-ni₂-yi₁n erdini-yin x1 (M084:1)

몽골어의 어두 /u/는 모두 가로선을 가진 파스파 문자 u로 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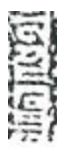
u-lu ₂ -su ₂ n	ulus-un	x4 (M039:1) (M040:3) (M040:7) (M040:9) “state, dynasty, government”
u-ri ₁ -d-nu ₂	uridan-u	x27 (M001:9) (M002:10) (M003:12) (M004:14) (M005:11) (M006:9) (M007:13) (M008:13) (M011:7) (M012:11) (M014:14) (M015:14) (M016:17) (M017:14) (M018:13) (M019:14) (M020:13) (M021:15) (M022:12) (M026:19) (M027:23) (M028:16) (M030:18) (M031:18) (M033:11) (M034:23) (M035:18) “previous, former”
u-su ₂ -ni ₁	usun-i	x1 (M084:5) “water”

몽골어 어두에서 •+u를 쓴 예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이스탄불에서 간행된 파스파 자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자료에서는 u 단독으로 등장한다.

•u ₂ -lu ₂ s	ulus	x1 (M049:2) “state, dynasty, government”
•u ₂ -ru ₂ - •u ₂ t'	uru •ut'	x1 (M049:1) “long”
cf. ur-t'u ₂	urt'u	x1 (M037:24)
ur-t'u ₂ -d	urt'u-da	x1 (M040:5)
ur-t'u ₂ -d	urt'uda	x1 (M040:7)

4) 모음 /i/

앞서 3.2.2.에서 모음 /i/의 경우 •가 어두에서 알레프적 기능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어 가로선을 가진 글자로 시작하는 예들도 보인다. 모두 제시한다.

i-b •en-(du ₂ r)	ibën-dür	x1 (M046:3) “protection”	
i-deg-sen	idegsen	x1 (M084:17) “to eat”	
i-dn	idan	x1 (M043:1) “?”	
i-he- •en	ihe •en	x1 (M039:1) “protection”	
i-heg-č'i ₁	ihegč'i	x1 (M039:3) “to protect”	
i-le-beê ₁	ilebeê	x1 (M036:22) “to send, dispatch”	
i-m	ima	x1 (M050:2) “it's, their, his, her”	
i-m-d	ima-da	x2 (M003:17) (M037:35)	
i-nu ₂	inu	x5 (M003:18) (M003:21) (M037:21) (M083:13) (M084:11) “it's, their, his, her” ⁷⁾	
i-ri ₁ n-ji ₁ n	irinjin	x1 (M040:13) “personal name”	

거. 알레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음 /a/로 시작하는 단어는 아무 표시 없이 모음자 a로 시작한다. 모음자 a가 원래 알레프적 기능을 담당했던 글자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⁸⁾

7) •-nu₂ anu (M049:3) (M049:4) (M049:5) “their” 참고

8)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기술은 오해이다. “파스파자의 모음자는 喻母에 속한다고 하였다. 즉, 36성모의

1) 어두 /a/

몽골어 어두 /a/는 ‘’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가 다른 모음자와 같이 쓰이는 경우(/ö, ü/의 경우)에는 알레프 기능을 담당하며,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모음 /a/를 표기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파스파 문자는 기본적으로 음소음절문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중모음 /a/는 따로 표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e, i, o, u/ 등 모음은 어두에서 단독으로 표기하는 글자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 모음 /a/는 ‘’로만 나타난다.

'-mi ₁ -t'-ni ₁	amit'an-i	x3 (M037:18) (M040:3) (M040:10)	“animals, living beings”
'l-d-t'u ₂ -qyi ₁	aldar'uqai	x5 (M091:5) (M092:5) (M093:5) (M094:5) (M095:5)	to be guilty
'-yu ₂ -qu ₂	ayuqu	x7 (M002:18) (M003:25) (M007:25) (M011:12) (M017:26)	(M019:22) (M027:42) to be afraid of

4.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파스파 문자 표기

파스파 문자에서 한 단어 내의 두 모음 사이에서 쓰여 두 모음이 각각 다른 음절임을 나타내는 데에는 •가 사용된다(뽀뽀 1957: 22, 이기문 1962: 326). 이를테면 a•u, e•u는 이중모음 au, eu와 달리, •가 연속하는 두 개의 모음이 축약해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별개 음절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모음\$[a]+모음”(V\$•V)의 구조로 쓰여 전후의 두 모음이 이중모음을 구성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글자가 담당할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치에서 • 없이 모음이 연쇄되는 예는 없다. 이를 전후 모음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喩母 / , [a]에 이를 포함한 7자를 귀속시켜 단독으로 쓰일 때는 / /를 앞에 붙이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훈민정음에서는 중성의 글자, 즉 모음자를 欲母 /o/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독으로 쓸 때에는 /o/를 붙여 ‘으, 으, 이, 오, 아, 우, 어’로 쓰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한글과 파스파 문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정광 고려학회)

다만, 몽고자운에서는 모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를 취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자.

V2 V1	-•(C)	-•e(C)	-•i(C)	-•o(C)	-•u(C)	합
a	11				131	142
	C-•(1) C-•C(7) C•-•C(2) C-•Cu(1)				C-•u(64) C-•uC(60) C-•ue(3) '-•u(2) '-•ue(2)	
e		12			96	108
		Ce-•e(2) Ce-•eC(10)			Ce-•u(13) Ce-•uC(53) Ce-•ue(27) •e-•u(2) •e-•uC(1)	
i		24		1	128	153
		Ci-•e(9) Ci-•eC(15)		Ci-•o(1)	Ci-•u(94) Ci-•uC(32) Ci-•ue(2)	
o	7	1		4	1	13
	Co-•(3) Co-•C(4)	Co-•e(1)		Co-•o(2) Co-•oC(2)	Co-•uC(1)	
u	85	132			101	318
	Cu-•(2) Cu-•C(49) Cu-•Ci(34)	Cu-•e(65) Cu-•eC(67)			Cu-•u(61) Cu-•uC(10) Cu-•ue(30)	
ö		45				45
		Ceo-•e(38) Ceo-•eC(2) 'eo-•e(4) 'eo-•eC(1)				
ü		3			4	7
		Ceu-•e(2) Ceu-•eC(1)			Ceu-•u(1) Ceu-•uC(3)	
합	103	217		5	461	786

이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파스파 문자 ·로 표기된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 원래부터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을 표기하는 예들이 있는가 하면, 음운론적 흔적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된 예들이 다 계산된 것이다. 이 두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몽골어 어휘의 변화를 일일이 고려해야 한다. 아래 예들을 원래부터 모음으로 시작된 음절에 사용된 •이 사용된 경우이다.

- | | | |
|---------------------------------------|------------|---|
| q-•u ₂ -li ₁ | qa •uli | x1 (M018:20) "law, right" |
| hu ₂ -j-•u ₂ r | huja •ur | x2 (M036:11) (M039:1) "origin" |
| êr-k'e-•u ₂ d | êrk'e •üd | x22 (M001:6) (M003:9) (M005:8) (M006:7) (M007:10) (M008:10) (M009:6) (M011:6) (M014:11) (M016:14) (M017:11) (M018:12) (M020:11) (M021:14) (M021:16) (M022:11) (M025:9) (M026:15) (M027:18) (M028:12) (M030:17) (M031:15) "(pl.) Christians" |
| do ₁ -lo ₁ -•-n | dolo •an-a | x1 (M034:54) "seven" |
| qo ₁ -•o ₁ -d | qo •o-da | x1 (M040:2) "beautiful" |
| o-ro ₁ -•r | oro •ar | x1 (M040:3) "completely" |
| hi ₁ -ru ₂ -•r | hiru •ar | x3 (M004:13) (M004:20) (M031:21) "benediction" |

beo₁ -•e-su₂ bö•esü x29 (M001:9)
 qu₂-t'u₂-•r qur'u•ar x3 (M026:36) (M030:28) (M033:25) “third”
 o-mo₁-•n-d-qu₂n omo•andaqun (M037:18) omo'a:nda- “to protect, help”
 č'-q-•n č'aqa•an (M018:25) (M019:25) (M021:43) čaɣa:n “white”

이 표에서 특이한 사항은 몽골어 모음 i 앞에 예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기법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몽골어 어중모음 i는 모두 -yi-와 같이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즉, 파스파 몽골어에서 모음 i로 시작하는 비어두음절의 예는 모두 -yi-로만 보인다.⁹⁾ 파스파 몽골어에서 •를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음소로 해석할 가능성은 없을까. 실제로 뽀빠(1957)와 스반데슨(2005)은 •를 모음충돌 지시자(hiatus marker)로 기술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표기법적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의 위치를 의미하는 표기법적인 기술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파스파 몽골어에서 모음충돌 회피와 관련해서는 y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y가 사용된 예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같은 모음이 연달아 올 때, 또는 어미 결합시에 y 개재되는 예들이다.¹⁰⁾

V2 V1	-y(C)	-ye(C)	-yi(C)	-yo(C)	-yu(C)	합
a	C-yC(1)		C-yi(15) C-yiC(55) '-yi(1)		C-yu(2) '-yu(35)	
e		Ce-ye(3) è-ye(3)	Ce-yi(6) Ce-yiC(32) ye-yi(2) ye-yiC(1) è-yi(1) è-yiC(7)		Ce-yu(1)	
i	Ci-y(52) Ci-yC(11) Ci-y•(1)	Ci-yeC(19)	Ci-yi(59) Ci-yiC(82)			
o	Co-yC(84)		Co-yi(7) Co-yiC(60) o-yi(2)	Co-yoC(1)		
u	Cu-yC(22)		Cu-yi(9) Cu-yiC(12)		Cu-yu(5)	
합						

9) V-yi의 앞에 오는 모음에 따라 한두 개씩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yi: s-yi₁-t'u₂r (sayit'ur), t'-yi₁-lu₂n (t'ayil-un)
 e-yi: è₂-yi₁-mu₂(èyimü), bè₁-ye-yi₁(bèye-yi)
 i-yi: dè₁n-ri₁-yi₁(dènri-yi)
 o-yi: o-yi₁-t'u₂(oyit'u), qo₁-yi₁-n (qoyina)
 u-yi: b-yi₁-qu-yi₁n (bayiqu-yin), k'u₂-yi₁-č'i₁-•e-k'u₂n(k'üyič'i•ek'ün)

10) 이 숫자에는 어느 정도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몽골어가 아닌 티베트어, 중국어 어휘의 수가 극소수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5. 음운론적 흔적의 파스파 문자 표기

파스파 문자에서도 음운론적 흔적을 보여주는 표기가 많이 발견된다. 기존 논저에서는 이 경우의 •를 모두 장모음 /ā, ē, ū/로 전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를 장모음 표기로 보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스반테센에 의하면, 몽골어는 어두에서만 장단 대립이 있을 뿐, 비어두 위치에서는 장단이 구별되지 않는다. 하지만 파스파 문자 자료에서 이러한 유형의 표기에 보이는 모음은 단지 a, e, u 세 모음뿐이며, 게다가 모두 비어두 위치에서만 보인다. 따라서 모음과 모음 사이의 •를 장모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왜 다른 모음은 이런 표기가 없는지
- ② 왜 어두에서는 이런 표기가 보이지 않는지
- ③ •가 왜 앞에 오는가? (a의 경우는 뒤라고 봐도 되나?)

이미 흑질투와 투무르토고 역시 이 둘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ǰ-y •-r'ŋ	ǰ-y •-r'ū ₂
H	ǰayār'an	ǰayār'u
T	ǰaya'a:tan	ǰaya'a:tu
Mo.	ǰayaŷa:tan	ǰayaŷaln
	x1	x2

	d •e-du ₂	d •e-re
H	dēdü	dēre
T	dé'è:dü	dé'è:re
Mo.	dege:dü	dege:re
	x3	x1

	d •u ₂ l-q-qu ₂ é ₁	d •u ₂ l-q-qu ₂ é ₃
H	dülqaqué	dülqaqué
T	du'u:lqa-	
Mo.	duju:lja-	
	x23	x8

너. /ɣ, g/ 흔적

다음 예들은 앞선 시기의 자료에 ɣ, g가 있었던 위치에 •가 사용된 것이다.

- t'o₁-•-su₂n t'o •asun (M040:12) < toɣa:sun "dust, earth"
- ʃi₁r-qo₁-•-n ʃirqo •an-a (M001:22) <. jirɣuɣa:n "6"
- ʃi₁r-qo₁-•-n ʃirqo •an (M037:17)
- qr-q-•-su₂ qarqāsu (M084:7) < qarqa, ɣarɣa- "to show, express"
- ʃ-•-n ʃa •an (M040:1) < jaɣa:n "elephant"
- (k'i₁)-ʃ-•-r k'iʃa •ar (M039:1) < kijaɣa:r "brother, other side"
- hi₁-ru₂-•-er hirü •er (M001:8) (M001:11) (M001:13) (M003:11) (M003:14) (M005:10) (M005:13)
 (M006:8) (M006:11) (M007:12) (M007:15) (M008:15) (M009:7) (M010:12) (M010:17) (M011:R)
 (M011:2) (M011:4) (M011:6) (M011:8) (M014:13) (M014:16) (M015:13) (M015:17) (M016:16)
 (M016:19) (M017:13) (M017:16) (M018:13) (M018:15) (M019:14) (M019:16) (M020:12) (M020:14)
 (M021:15) (M021:18) (M022:12) (M022:14) (M024:8) (M024:10) (M025:11) (M026:17) (M026:22)
 (M027:21) (M027:26) (M028:14) (M028:20) (M030:18) (M032:18) (M032:20) (M033:10) (M033:12)
 (M034:21) (M034:27) (M035:18) (M035:22) < irüge:r "benediction"
- (k'i₁)-•-ed k'i •ed (M018:20)
- k'i₁-•-ed k'i •ed (M022:15) (M024:15) (M027:36) (M033:13) (M035:27) (M036:10) (M036:24)
 (M036:29) (M037:25) (M037:52) (M039:5) (M039:6) "and" < kige:d "and"
- i-he-•-en ihe •en (M039:1) < ibege:- "to protect"
- beu₂-t'eu₂-•-eg-sen büt'ü •egsen (M084:13) < büt'üe:-, bütüge- "to complete, create"
- k'u₂-yi₁-č'e-•-en k'üč'e •en (M036:30) < güyi:č'i'e:- "to complete, finish, fulfill" = güyi:č'i'e:'ü:l- <
 gu:yi:čige:gü:l-
- ši₁ŋ-ge-•-en ši₁ŋge •en (M040:6) cf. ši₁ŋge'e:- "to absorb" < singgege:-
- geo₁-reoi₁-•-e görö •e (M027:33) < görüge:d "animals"
- g •e-•-u₂-lu₂-•-ed gē •ülü •ed (M023:25) (M024:16) cf. ke'e:'ül- "to be said" = ge'e:'ül- < kemegü:l-,
 ke'e:- = ge'e < keme-
- t'o₁-•-o₃n t'o •onx1 (M039:3) < toɣa:n "number, quantity"
- no₁-•-o₃q-d •-su₂ no •oqda •asu (M039:5) no'o:qda- < noɣa:ɣda- "to come under"
- t'o₁-•-o₁-ri₁-qu₂ t'o •oriqu (M040:8) cf. to'o:ri- < toɣa:ri- "to go around"
- (bo₃)s-q-•-u₂-lu₂(q)-(sn) bosqa •uluqsan(M016:21) bosqa'u:l- "to erect, construct" < bosqaɣu:l-
- b-y-ʃi₁-•-u₂-lu₂-•-su₂ bayaji •uluasu (M083:12) bayajiɣu:l- "to enrich, make rich"
- b-•-u₂-t'u₂-qyi₁ ba •ut'ukai x32 (M001:16) (M002:14) (M003:18) (M004:25) (M005:18) (M006:14)
 (M007:19) (M008:20) (M009:13) (M010:23) (M011:10) (M012:16) (M014:22) (M015:27) (M016:23)
 (M017:21) (M018:17) (M019:19) (M020:18) (M021:23) (M022:17) (M023:17) (M024:13) (M025:16)
 (M026:26) (M027:31) (M028:25) (M030:24) (M031:25) (M033:15) (M034:37) (M035:26) ba'u:- "to come
 down, step down, dismount" < baɣu:-
- s-•-u₂-t'u₂-qyi₁ sa •ur'ukai x2 (M005:19) (M021:25) sa[u:]'[-[s-)'u]] Mo. saɣu:- "to sit, stay"
- se-•-u₂-de-ri₁ se •üder-i x1 (M083:12) se'ü:der Mo. segü:der
- se-•-u₂-de-ri₁-yer se •üder-iyer x1 (M039:5) "shadow"
- t'e-ri-•-u₂-t'en t'eri •üt'en x1 (M026:24) teri'ü:n Mo. terigü:n "beginning"

더. 그 외 흔적

1) /m/ 흔적

g • e- • u₂-lu₂- • ed gē • ülü • ed (M023:25) (M024:16) cf. ke'e:ül- "to be said" = ge'e:ül- < kemegü:l-,
 ke'e:- = ge'e < keme-
 k'eu₂- • u₂-nu₂ k'ü • ün-ü x1 (M084:12) kü'ü:n "man, human" Mo. kümün

2) /b/ 흔적

o-ro₁- • r oro • ar x1 (M040:3) 'completely' Mo. oro-bar

3) 공시적 교체에서도 나타나는 경우

'yi ₁ -mq	aimaq	x3
'yi ₁ -m- • u ₂ d-d	aima • ud-da	x1 (M005:26)
sen-šhi ₁ -ŋu ₂ d-de	senšhiŋud-de	x6 (M021:21)..
sen-šhi ₁ - • u ₂ d-de	senšhi • ud-de	x1(M012:15)

6. 맺음말

참고문헌

김무림(2005), 「중세 국어 분철 표기 'ㄹ-ㅇ, △-ㅇ'의 음운론적 해석」,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81-105.
 김무식(1992), 「중세 국어 후음 'ㅇ'에 대한 일고찰 —주로 음가추정 및 음운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어문학』 53, 한국어문학회, 65-91.
 김성규(1996), 「중세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 —중세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7-55.
 김성규(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41-68.
 변한영·김민규·최계영·연구동(준비중), A Quantitative Study on the 'Phags-pa Script.
 뽀빠(Poppe, N.)(1957), The Mongolian monuments in ᠠᠯᠠᠭᠤᠰᠤᠰᠤᠰᠤ script. Wiesbaden: Otto Harrassowitz.
 스반테슨(Svantesson, J.):Jan-Olof·Anna Tsendina·Anastasia Karlsson·Vivan Franzén(2005), *The phonology of Mongolia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오종갑(1979), 「ㅇ, △의 음운사적 고찰」, 『한민족어문학』 6, 한민족어문학회, 47-68.
 이기문(1962), 「중세국어의 특수 어간 교체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진단학회, 309-343.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차재은(2003), 「15세기 우리말의 후음 관련 문제들」,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241-263.
 최계영(Choe, Gyeyong):이형미(Hyoungmi Lee)·박상철(Sangchul Park)·연구동(Gyudong Yurn)(2017), Shapes and usage of the 'Phags-pa letters added for Chinese writing. *Scripta* 9, The Hunmin jeongeum Society, 1-28.
 투무로토고(Tumurtogoo, D)(2010), *Mongolian monuments in 'Phags-pa script*, Taipei: Institute of Linguistics, Academia Sinica.
 흑질투(Hugjiltu, W.):Sarula(2004), 『八思巴字蒙古語 文獻匯編』, Inner Mongolia Education Press.

“훈민정음 후음자 ‘ㅇ’의 기능과 파스파 문자”에 대한 토론문

이용(서울시립대학교)

1.

이 논문에서는 훈민정음 후음자 ‘ㅇ’의 음가 및 기능이 파스파 문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훈민정음 후음자 ‘ㅇ’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파스파 문자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이 모두 발견된다는 점에서 훈민정음 창제가 파스파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의 관련성을 언급할 때 대체로 자형과 제자 원리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이에 비해 파스파 문자의 운용 원리를 세밀하게 살펴서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이 어떠한지를 탐색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1) 알레프적 기능과 관련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기문(1972: 15)에서 ‘ㅇ’에 알레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을 받아들여 파스파 문자에도 알레프적 요소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알레프적 요소와 관련해 중세국어에서는 알레프적 기능으로 쓰이는 글자가 ‘ㅇ’ 하나이지만, 파스파 문자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ㅇ’의 알레프적 기능은 하나의 글자가 알레프적 기능을 갖는 티베트 문자의 ‘ཨ’나 위구르 문자의 ‘◀’ 쪽에 가까운 듯하다. 파스파 문자의 ‘ᄃᆞᆫ’는 티베트 문자의 ‘ཨ’에서 온 것이다.

2) 중세국어에서 앞 음절의 음절말 자음 뒤에 나오는 ‘ㅇ’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기존의 연구로 유성후두마찰음 [h] 또는 ㅇ이 탈락한 흔적의 음운적 잔존으로 보는 입장 둘 다를 소개하고 있지만 입장이 명확하지 않는다. ‘/ㄱ/ 흔적’, ‘/병/ 흔적’의 용어를 쓴 것으로 보아서는 음운적 잔존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것은 아마도 파스파 문자의 ‘ᄃᆞᆫ’을 ‘y, g’의 흔적으로 보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ㅇ’을 유성후두마찰음 [h]로 보는 입장에서는 음운론적 흔적의 파스파 문자 표기 ‘ᄃᆞᆫ’는 중세국어의 ‘ㅇ’과 관련이 없는 셈이 되지 않을까 한다.

3) “스반테슨에 의하면, 몽골어는 어두에서만 장단 대립이 있을 뿐, 비어두 위치에서는 장단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몽골어는 현대어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대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기술을 파스파 문자 시기까지로 소급하기는 곤란하다.

이상 세 가지를 질문해 보았다. 한글을 창제할 때는 많은 문자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른 문자와의 영향 관계 등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문자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글의 비밀도 많이 풀리기를 기대해 본다.

2018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활용 방안

제2부

주제 발표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과제¹⁾

홍윤표(전 연세대학교)

1. 머리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국어 어휘의 어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닭도리탕, 불고기’의 어원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들이 그러한 관심을 증명한다. 언중들이 국어의 어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그 관심은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대개 민족에 대한 인식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①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 ②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평가, ③ 민족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 ④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표현된다. 이 중에서 특히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면서 우리말의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어원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한자를 공부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자성구, 특히 고사성어(故事成語)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듯이,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에는 우리말에 대한 고사(故事)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어의 어원풀이에 다분히 민간어원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간어원설은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이야기 줄거리, 소위 스토리(story)를 지니고 있어서, 언중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화, 전설, 민담처럼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YTN의 ‘재미있는 낱말풀이’에서는 가능한 한 한 어휘에 역사적 배경을 가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원 풀이에 흥미를 가미하려는 의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어 어휘의 어원에 대한 인식

국어 어휘의 어원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들의 몫이다. 국어학자들 중에서도 국어사 연구자, 그중에서도 특히 어휘 연구자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어 어원 연구자들이 우리말 어원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학자들의 어원 연구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① 동일한 계통의 언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다른 언어에서 국어 어휘와 동일한 기원을 가진 어휘를 찾아내는 것.
- ② 국어 어휘의 역사적 유래를 다른 언어에서 찾아 그 차용관계를 연구하는 것
- ③ 각 어휘의 성립과 그 기원 및 음상과 의미의 연합이 성립된 과정을 검토하면서 각 단어의 역사적 변천을 연구하는 것.

이전 시기의 국어학자들은 어원 연구의 최종목표는 국어와 동일한 계통을 가진 언어의 어휘

1) 이 발표문은 홍윤표(2008), 국어 어원 연구에 대한 관견, 한국어학 39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들과의 관계를 찾아서, 계통론적으로 어느 언어의 어느 어휘로부터 국어 어휘로 차용 또는 변화하여 왔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어학자들이나 일반인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졌다. 언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그 계통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비교언어학의 학문적 전통이 단절되면서 그러한 연구는 아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현대의 어원 연구는 어휘의 역사를 현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과거까지 더듬어 올라가서 그 음상, 의미의 변화사를 밝히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알려지게 되었다. 곧 어휘의 역사를 밝히는 일이 어원 연구의 전부인 것처럼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어에 외래어가 범람하면서 이들 외래어가 어느 나라의 언어로부터 유래한 것인지를 알고 하는 것도 어원 연구의 일환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어의 어원론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되게 되었다.

- ① 국어 어휘와 국어와 동일한 계통을 가진 언어의 어휘들과의 관계(제 알타이어와의 관계)의 연구
- ② 국어 어휘와 다른 언어 어휘와의 관계, 즉 차용 관계(특히 한자어를 비롯한 다른 외국어로부터 차용된 외래어 관계)의 연구
- ③ 각 어휘의 형태론적 분석을 포함한 어휘 역사의 연구

①의 어원 연구는 동일 계통의 언어의 조어에까지 소급하여 그 기원형과 그 의미를 재구하고 그 이후 그 단어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기술·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어의 어원 연구는 동일 계통의 알타이어 제어와의 비교연구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예컨대 Ramstedt(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와 송민(1999), 『韓國語と日本語のあいだ』(Korean and Japanese in Comparative Perspective와 같은 것이 그 연구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반공이데올로기와 반일이데올로기 때문에 해방 이후 그 연구가 전혀 성립되지 못하거나 기피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가 트이면서 이러한 국가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주로 현대언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실상 비교언어학적 연구는 진척되지 못하였다.

②의 어휘 차용 관계 연구는 주로 어휘론이나 의미론 연구자들의 몫이다. 소위 원어 정보를 연구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이러한 원어정보는 국어사전에 밝혀져 있어서 쉽게 그 어원을 알기 어렵지 않지만, 어느 경우는 사전에 잘못 되어 있기도 하다. 예컨대 북한의 조선말대 사전에는 ‘노다지’가 영어의 ‘no touch’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의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놀다’(드물다, 귀하다)에 접미사 ‘-다지’가 붙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좋다.

③의 어휘의 역사를 밝히는 연구는 어느 한 어휘가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그 자료가 문헌자료이든, 금석문 자료이든 또는 한글 이외의 자료이든) 시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현대까지의 음상과 형태와 의미의 변화를 기술·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원은 문헌상에서 확인되는 단어의 최초의 출현 연도와 그때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 이후의 문헌에 출현되는 용례 및 그 형태와 의미 변화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지금까지 나온 어원사전의 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어원 사전 중에서 ‘고양이’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고양이 𪛗 포유류 고양이과의 짐승. 살쥬이를 길들인 것으로 밤눈이 밝아 쥐를 잘 잡음. [어원 √고이/괴[猫]+ 양이[접사]. 변화 *괴양이> 고양이. ※ 괴(능엄 8:122). 중세어에서 ‘괴’는 이중 모음 [koj]로 발음되었으므로 ‘고이[koi]’라는 형태와는 음절수에 의한 변이 관계에 있을 뿐이다. 참고 ① √고이[猫]+ 양이[縮小接辭](崔鶴根 1956.9.30). 민간 ① 虎樣伊(東韓譯語). ② 高樣+ 이[접사](東言攷略 3-4: 高句麗와 百濟의 國姓이 皆 高氏 故로 新羅人이 斥惡訶야 言必稱 高訶니, 猫의 形容이 惡毒訶 거슬 ‘고양이’라 謂訶는 者는 高氏의 模樣이 有함을 指訶시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구) 그렇게 하면 매우 좋기는 하겠지만 실지로는 불가능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유래를 가지고 있다. 옛날에 쥐들이 모여서 고양이의 해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한 쥐가 말하기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든 쥐가 “정말 그렇겠다.”고 칭찬했다. 이 때 한 쥐가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라고 하자 그만 모두 입이 딱 막히고 말았다고 한다. (安玉奎 1989.11)] 𪛗 묘향현령(猫項縣鈴). <김민수, 최호철, 김무림(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p.92>

고양이 [명] 猫

고양이과의 짐짐승으로 살쥬이를 길들인 것이라고 한다. 鬼尼(猫)<遺事>. 괴 가히(猫犬)<楞 8:122>. 괴 묘(猫)<字會上18>. 괴는 ‘고이’가 준 말이다. ‘곧>곧>곧이>고이>괴’의 변화이다. kaskə(猫)[나나이]. kosuku(猫)[아이누]. kəsikə(猫)[滿]. kəkəkə(猫)[오로촌]. xəxə(猫)[에벤키]. 유구(琉球) 아마미오섬(奄美大島)이나 기카이섬(喜界島)에[서는 guru(猫)가 있는데, ‘괴’의 조형(祖形)이 ‘곧’일 개연성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 鬼尼는 ‘귀니’ 또는 ‘괴니’일 것이다. ‘괴니’는 ‘괴’와 ‘니’의 합성일 것이다. 사투리에 ‘고냉이, 고냥이, 괴냉이, 고내기, 고냉이, 고니’ 등이 있는데, 후행어 ‘냉이, 냥이, 냉이, 내기, 냉이, 니’ 등도 실사(實辭)로서 고양이(猫)의 뜻일 개연성이 있다. neko(猫)[日]. ne와 ko의 합성어로서이음동의어(異音同義語)일 것이다. 일본어 ne는 국어 니, 내기, 냉이 등과 동원어라 하겠다. 옛말에 고양이 뜻을 지니는 ‘닐’계가 있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고냥이>고냥이, 고양이’의 변화다.

<서정범 지음 박재양 엮음(2018), 새국어 어원사전, 보고사, p.87>

고양이

고려. <계림> 猫曰鬼尼 귀니:*k(i)uəi-nii(강신항 55) 조선 괴(=고양이). 고양이(유창동) 사투리 괴내기/괴냉이/고내기. 괴냉이/해내기, 고내기, 고냉이, 고냥이, 고내 참고 고시아어 길랉어 k'isk ‘고양이’; 알타이어(만주통구스어군) 솔론어 xəxə(kaka-keke-xexe) ‘고양이’, 어원어 kərkə(kərkə, kərkə), 네기달어(kaskə[*kərkə, 오로치어 kaskə, 오로크어 kaskə, 나나이어 kaskə[*kəksə] 만주어 kəsikə(C 외 I:481, S&T 138) ♣ 통구스어를 보면 우리말 ‘귀>괴’도 통구스어 kərkə에서 변한 말 같다. ‘kər->*거이>*거이>*구이>귀>괴’로 변한 것이 아닐까?

<조영언(2004), 한국어 어원사전, 다솜출판사. p.40>

고양이 [명] 포유류 고양이과의 동물. 살쥬이를 길들인 것으로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고, 발바닥에 살이 많아 소리를 내지 않고 걸을 수 있어 다른 동물에 접근하기 쉬움. 밤눈이 밝아 쥐를 잘 잡음.

[一] ‘고양이’의 중세국어 형태는 ‘괴’이므로 ‘고양이’는 ‘괴[猫]+ 양이(접사)’의 구조로 분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二] 중세국어에서 ‘괴’는 하향 이중모음인 [koj]로 발음된다. 따라서 ‘고양이’는 ‘괴[koj]+양이[an̆i]에서 반모음 [j]가 다음 음절로 넘어가 [ko-jaŋi]로 재구조화된 형태이다.

원 괴[猫]+양이(접사) 변 괴>*괴양이> 고양이

예 사르미게 질드느니 곧 괴 가히 퉁 퉁 類라(능업경언해 8-122)

<김무림(2015), 전면개정판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p.144>

고양이

고양잇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준> 꿩이. <계림유사>에 猫曰鬼尼[*고니], <고려사>에 方言猫曰高伊[*고이/괴]라 하였다. 고양이는 ‘고니/괴+양이’로 분석된다. ‘고냉이’는 경상도 사투리다. 고양이를 부를 대에 쓰는 말 ‘나비’는 원숭이를 가리키는 ‘납, 쥘나비’에 넘겨 주었다.

‘꿩이-잠’은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면서 자는 잠이다. ‘들-고양이’는 ‘살꿩이. 들이나 산에서 사는 고양이’를, ‘도둑-고양이’는 집에서 기르지 않아 돌아다니며 음식을 훔쳐 먹는 고양이를 말한다. ◇고양이와 개 -서로 양숙인 관계를 이르는 말. [고양이 쥐 생각]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 = 고양이 쥐 사정 보듯.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p.53-54>

서정범(2018), 조영언(2004)에서는 동일계통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의 예를 들어서 그 언어로부터 기원하였음을 밝히려고 하였는데, 한국어 자료로서 가장 오래된 기록들과 비교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타이어라고 한 ‘나나이, 아이누, 오로촌, 에벤키, 솔론, 네기랄, 오로치, 오러크,, 만주, 일본’ 등의 언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 몽고어군, 토이기어군, 퉁구스어군에 대한 구별도 하지 않음으로써 체계도 없이 나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들의 형태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술도 없다. 반면에 방언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 기원으로부터의 변화형임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김무림(2015), 백문식(2014)에서는 동계 언어와의 비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무림(2015)에서는 변화 양상을 언어지식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어서 철저히 언어학적인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언어외적인 요소는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백문식(2014)에서는 속담이나 속어 등도 함께 설명하고 있어서 어원과는 연관이 없는 요소들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홍윤표 등(미간), 국어 어휘 역사 사전, 태학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준어: 고양이 𪛇 //현대 뜻풀이: 고양잇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원래 살꿩이를 길들인 것으로, 퍽과 송곳니가 특히 발달해서 육식을 주로 한다. 발톱은 자유롭게 감추거나 드러낼 수 있으며, 눈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다. //관련 한자어: 가리(家狸), 묘(貓), 묘아(猫兒)

	15c	16c	17c	18c	19c	20c
괴	○	○	○	○	○	○
외			○			
고양이			○		○	○
괴양이					○	
고양					○	

《15세기》 【괴】 네 사르물 븐던 전츠로 사르미게 질드느니 곧 괴 가히 툽 돌 類라 <1461능엄언8,122b> (이하 예문 생략)

《16세기》 【괴】 오직 다민다민 無字를 드러 十二時 中 四威儀內에 모로매 畵畵호야 괴 쥐 자봄 ㄱ티호며 들기 알아놈 ㄱ티호야 ㄱ티호야 업게 호리라 <1517몽법어,고,2a> 猫 괴 묘 <1527훈몽자,상,10a> 猫 괴 묘 <1576신유합,上,14a>

《17세기》 【고양이】 猫喫齋 고양이소 <1690역어유,하,51b> 【괴】 괴 니는 열독을 잘 프느니 괴 니 업거든 사름미 니만 ㅼ도 ㅼ던커니와 <1608두창언,下,30b> (이하 예문 생략) 【외】 斑猫 갈외 芫青 청갈외 <1613동의보,2,14b>

《18세기》 【괴】 猫兒 괴 <1748동문해,하,40a> 猫兒 괴 <1768몽유하,33a> 猫 괴 黑猫 거문괴 花猫 어룡괴 <1778방언유,해부방언,16a>

《19세기》 【고양】 위에 안즌 우리 하나님과 고양의게 구완호물 돌리라 <1887예수성,요한목시록07:10절> 【고양이】 고양이 描 <1880한불자,183> 고양이 描 <1895국한회,26> 猫 고양이 <18XX광재물,獸獸,3> 엇지 살난호 군스를 거느려 강악호 진나라에 드러가미 귀를 모라 고양이 입으로 드러가이라. <18XX초한전징실기021> 【괴】 괴 猫 <1880한불자,183> 괴 묘(猫) <1884정몽유,7b> (이하 예문 생략) 【괴양이】 괴양이 모 猫 <1895국한회,33> 청기고리 신상토 썩고 동넛 얼운 츠즈보고 괴양이 성적호고 식집가고 암씩 서답 츠고 월후호고 너구리 넛손즈 보고 <18XX남원고사1,6a> 놀뵈 이 형상을 보고 식혜 먹은 괴양이 갓튼지라 <18XX홍부전,15a>

《20세기》 【고양이】 猫 고양이 묘 <1913부별천,29a> 고양이 묘(猫) <1918초학요,102> 지렁이 쫓이 몽글몽글하게 올라온 괴습잇는 밧이랑과 고양이밥이 나 잇는 빈 터저|을 쓸새 업시 돌아다닐 새 <1922넛날솜은,2> 가슴에다 손을 대고 양까님을 쓰며, 낙태한 고양이 상을 한다. <1936상록수3,382> 【괴】 猫 괴 묘 <1908신정천,24> 猫 괴 묘 <1923한훈몽,11b>

《해설》 ‘고양이’는 ‘고양이’를 뜻하는 ‘괴’에 접미사 ‘-양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접미사 ‘-양이’는 ‘무말랭이, 조랭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접미사 ‘-양이’를 다시 접미사 ‘-양’과 ‘-이’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괴’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데 당시에는 ‘고이【koi】’처럼 소리나는 것이었다. ‘괴’에 접미사 ‘-양이’가 결합한 ‘고양이’는 17세기에 간행된 <역어유해>에서 처음 보인다. 괴 + -양이’는 ‘괴양이, 괴양이’로도 나타날 수 있으나, ‘괴양이’는 문헌에 보이지 않고 ‘괴양이’가 19세기에 나타난다. 특히 ‘괴양이’가 19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고소 설류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양이’가 결합한 형태에서도 ‘괴’에 대한 어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에 ‘고양이, 괴양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연히 문헌에서 그와 같은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양이’가 ‘괴양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되는 것은 19세기 말에 들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불자전>처럼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문헌에서는 ‘고양이’가 보다 대표적인 형태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괴양이’보다 ‘고양이’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괴양이, 고양이’를 ‘괴’와 직접 연관짓는 어원의식이 희박해진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괴양이’가 명사 ‘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 만연해 있던 ‘|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즉, ‘고 + 양이’가 ‘괴양이’로 ‘|모음 역행동화’ 현상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잘못 되돌림으로써 ‘고양이’라는 형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초에 간행된 한자 학습서에 “괴 묘”가 나타나는 것은 <천자문>류의 전통을 답습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양이’의 형성 과정에서 명사 ‘괴’와의 연관관계를 국어 화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20세기 초에 창작된 산문에서 ‘괴’가 쓰인 예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통해서 추리되는 사실이다.

이 기술은 철저하게 한 어휘가 문헌상에서 언제부터 보이며 그것이 세기별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 용례들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계 언어와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차용관계를 다룬 것은 어휘항목의 성격에 따라 기술되어 있다. 예컨대 김민수, 최호철, 김무림(1997)과 김무림(2015)에서는 ‘가라’, ‘가라오케’ 등에 그 차용관계를 밝히고 있다.

베테랑(veteran) ㉮ ▷ 숙련가. 전문가. 전문인. [어원 (라)vetus[나이 늙은]. 변화 (라)vetus > veteranus[고참병,노병] > (프)vétérán > (영)veteran > (일) > 베테랑]

베트콩(vietkong) ㉮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어원 (베)越(南)+ 共(産黨). 변화 (베)越(南) [viet(nam)]+ 共(産黨)[kong(sandang)] > 越共 > Vietkong > 베트콩]

<김민수, 최호철, 김무림(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p.458>

아르바이트(독arbeit) ㉮ 본래의 직업 이외의, 임시로 하는 부직. ▷ 부업. [어원 (독)arbeit [일,勞苦]. 변화 (독)arbeit > (일) > 아르바이트]

그러나 이 차용어가 언제 차용되었으며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베테랑’이 프랑스어로부터 유래되었는데, 일본어에서 사용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베테란’으로 들어와 사용되다가 ‘베테랑’으로 굳어졌음을 밝힌다면 더욱 정밀한 기술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문도 함께 제시하여 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웨베르는 天津 주재공사를 거쳐 벌써 十여년 동안이나 대한 외교를 도맡아 온 베테란이다. <1968대한제국(유주현),428>

곽예도(郭銳刀)형사는 연락을 받은 즉시 변두리인 은학동에서 고물수집상을 하고 있는 김팔용에게로 달려갔다. 김팔용은 전과 7범의 베테랑이었다. <1979성역(유재용),422>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명도 더 세밀하게 기술하여야 소위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알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알바’는 독일어 ‘Arbeit’(일하다)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1950년대에 ‘알바이트’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아르바이트’로 변화하였다. 이것이 축약되어 2000년대부터 ‘알바’로 쓰이게 되었다고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으로부터 차용한 것인지는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건 다 내가 실없이 한 말이구, 터놓구 얘기가 지금 김 형은 알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급한데, 이 형두 좋은 데 아시는 것 있건 소개해 주슈 <1955젊은세대(염삼섭),240>

나두 그런 말 들은 일은 있지만 그건 명자 얘기가 아니더라. 아르바이트라던가 한다는 불량 여학생이 더러 그런다더면 <1963유수암(한무숙),74>

가라 가짜, 헛

‘가라’는 일본어 ‘から’[KARA, 空]에서 온 말이다.

가라오케

‘가라오케’는 일본어 ‘空オケ’에서 온 말이다. ‘オケ’[oke]는 영어 ‘orchestra’를 줄인 이론식 외래어이다. 그러므로 ‘가라오케’의 의미를 국어로 풀면 ‘가짜 관현악단’이 된다.<김무림 (2015), p.28>

김무림(2015)에서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나온 어원사전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사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물론 ‘사전’이란 이름을 붙인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은 연구 업적들을 검토해 보아도 그 결과는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안옥규(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박일환(1995), 우리말 유래 사전, 우리교육.

김민수 편, 최호철 김무림 편찬(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徐廷範(2000), 國語語源辭典, 보고서.

조영언 (2004), 한국어 어원사전, 다솜출판사.

강길운(2010),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김무림(2012),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김무림(2015), 전면개정판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서정범 지음 박재양 엮음(2018), 새국어 어원사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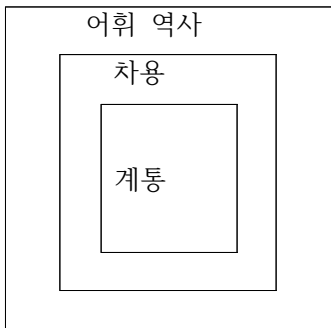
	어원사전	어휘의 계통	어휘의 차용	어휘의 역사
1	안옥규(1989)	X	○	○
2	박일환(1995)	X	○	○
3	김민수, 최호철, 김무림(1997)	X	○	○
4	서정범(2000)	○	X	○
5	조영언(2004)	○	X	○
6	강길운(2010)	○	X	X
7	김무림(2012)	X	○	○
8	백문식(2014)	X	X	○
9	김무림(2015)	X	○	○
10	서정범 지음 박재양 엮음(2018)	○	X	○
11	홍윤표 외(미간)	X	○	○
	계	4	6	10

이 표를 보면 국어 어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휘의 역사에 치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어휘의 계통도 어휘 역사 기술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어휘의 계통을 제외한 어휘의 역사 기술에 집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비교언어학이나 계통론 연구의 기반이 빈약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어 어휘의 차용에 관한 연구도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김민수, 최호철, 김무림(1997)과 김무림(2015)에 어휘 차용에 관한 기술이 있다고 했으나 그 항목은 극히 일부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화 이후에 들어온 외래어에 대한 관심이 적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한 한자어를 차용 관계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어의 한자어를 차용어로 본다면 차용 관계를 다루어야 하지만, 만약에 국어 어휘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단순한 한자어의 역사 기술로 끝나고 말 것이다.¹⁾ 그렇다면 어원 연구의 범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발표자는 앞의 세 가지를 다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어의 어원 연구는 한 어휘의 알타이어 계통을 밝히는 것과 어휘의 차용 관계를 밝히는 것, 또는 한 어휘의 역사를 기술하는 일을 하나로 묶고, 그 큰 틀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알타이어의 다른 언어로부터 계통을 찾는 일이나, 어느 외국어로부터 차용을 하여 사용한 것이나, 모두 한 어휘의 역사에 포함된다. 그리하여 어원 연구의 범위를 한 어휘의 역사를 기술하는 내용 속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어휘의 역사를 기술하되, 그 어휘의 알타이어와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면 기술 설명해 주고, 만약 그 계통을 알 수 없다면 그 기술에서 제외하며, 또한 다른 외국어로부터의 차용이라고 한다면 그 차용 관계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차용 이후의 역사도 기술, 설명하는 것이 국어 어휘의 어원 연구일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곧 어휘 역사에 대한 기술은 계통의 기술과 차용의 기술을 포함하며, 차용의 기술은 계통의 기술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어원 연구의 범위를 어휘 역사 기술 속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어휘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쌓아온 모든 지식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되는 것이어서 넓은 의미의 어사(語史) 및 어지(語誌)의 기술이 곧 어원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어 어원 연구의 역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러한 우리말의 어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날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을까?

국어 어원에 대한 연구업적들을 조사하여 목록화하여 놓은 것은 이미 다음과 같은 연구서들에 보인다.

강헌규(1988), 韓國語 語源 研究史, 集文堂.

趙恒範(1994), 國語 語源研究 叢說(I), 太學社

1) 최근에는 이러한 한자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의 한자어의 차이와 그 근원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성대학교 한자연구소에서 하영삼 교수가 중심이 되어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헌규(2003), 국어어원 통사, 이회

이들에 목록화되어 있는 업적들을 검토하여 보면 지금까지의 어원 연구에 대한 과정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국어학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우리 선조들이 국어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던 대상은 음운(또는 ‘음’)과 어휘였다. 그 중에서도 어휘에 대한 관심은 언어의 다른 층위에 대한 관심보다도 높았었다. 특히 어원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고대사에 보이는 고유명사(인명, 지명, 관직명 등)에 대한 해석 노력이 그러한 일면이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이는, 김대문의 ‘次次雄, 尼師今, 麻立干’ 등에 대한 해석이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南解次次雄立,[次次雄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 爲慈充.”]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이 즉위했다. 차차웅은 혹은 자충(慈充)이라 한다. 김대문(金大問)은 이렇게 말했다. 차차웅은 방언으로 무당을 가리킨다.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들기 때문에 이를 경외하여 마침내 존장자를 가리켜 자충이라 부르게 되었다.) <三國史記 1卷-新羅本紀1-南解次次雄-元年>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지명에 대한 설명이 지명의 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醴泉郡>, 本<水酒郡>, <景德王>改名, 今<甫州>. 領縣四: <永安縣>, 本<下枝縣>, <景德王>改名, 今<豐山縣>. <安仁縣>, 本<蘭山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嘉猷縣>, 本<近(一作<巾>)品縣>, <景德王>改名, 今<山陽縣>. <殷正縣>, 本<赤牙縣>, <景德王>改名, 今<殷豐縣>.

<古昌郡>, 本<古陞耶郡>, <景德王>改名, 今<安東府>. 領縣三: <直寧縣>, 本<一直縣>, <景德王>改名, 今復故. <日谿縣>, 本<熱兮縣>(或云<泥兮>), <景德王>改名, 今未詳. <高丘縣>, 本<仇火縣>(或云<高近>), <景德王>改名, 今合屬<義城府>.

<開韶郡>, 本<召文國>, <景德王>改名, 今<義城府>. 領縣四: <眞寶縣> 本<柒巴火縣>, <景德王>改名, 今<甫城>. <比屋縣>, 本<阿火屋縣>(一云<并屋>), <景德王>改名, 今因之. <安賢縣>, 本<阿尸兮縣>(一云<阿乙兮>), <景德王>改名, 今<安定縣>. <單密縣>, 本<武冬彌知(一云<曷冬彌知>), <景德王>改名, 今因之.

<嵩善郡>, 本<一善郡>, <眞平王>三十六年爲<一善州>, 置軍主. <神文王>七年, 州廢, <景德王>改名, 今<善州>. 領縣三: <孝靈縣>, 本<荊兮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亦同兮縣>, 今未詳. <軍威縣>, 本<奴同覓縣>(一云<如豆覓>), <景德王>改名, 今因之.

<開寧郡>, 古<甘文小國>也. <眞興王>十八年, <梁>{陳}<永定>元年, 置軍主, 爲<青州>. <眞平王>時, 州廢, <文武王>元年, 置<甘文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四: <禦侮縣>, 本<今勿縣>(一云<陰達>), <景德王>改名, 今因之. <金山縣>, <景德王>改州縣名, 及今並因之. <知禮縣>, 本<知品川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茂豐縣>, 本<茂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永同郡>, 本<吉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陽山縣>, 本<助比川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黃澗縣>, 本<召羅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管城郡>, 本<古尸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利山縣>, 本<所利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縣眞縣>, 本<阿冬号縣>, <景德王>改名, 今<安邑縣>.

<三年郡>, 本<三年山郡>, <景德王>改名, 今<保齡郡>. 領縣二: <清川縣>, 本<薩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耆山縣>, 本<屈縣>, <景德王>改名, 今<青山縣>.

특히 ‘本’으로 설명을 붙인 곳에서 고유어 지명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대부분의 지명은 음상(音相)만 남아있고 의미는 남아있지 않아 의미추정이 힘든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이렇게 음상(醴泉郡)과 의미(水酒郡)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어휘에 대한 해석은 문헌 곳곳에 보이는데, 삼국유사에는 편자 자신의 어원 해석과 최치원의 어원 해석이 붙어 있다.²⁾

그리고 용비어천가, 동국여지승람에서 함경도 지방의 몇몇 지명이 여진어에서 왔음을 밝히는 내용이 있었다.

실학시대에는 국어 단어의 어원을 중국어나 한자어에서 왔다고 보았다. 이수광의 ‘芝峯類說’이나 황원석의 ‘華音方言字義解’, 이의봉의 ‘古今釋林’ 등이 그러한 문헌이다.

예) 아비 阿父, 물 沒

동언고략(東言攷略)에서는 국어 어휘의 기원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예: 고린내 : 高麗臭 등).

개화기 시대에는 고대사 연구에 관심이 많은 국사학자의 연구가 있었다. ‘아사달, 단군’ 등에 대한 고유명사의 어원론 연구를 하였는데 그것은 큰 모험이었다. 왜냐하면 어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음상, 의미가 필요한데 고유명사는 ‘음상’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측이거나 허무맹랑한 해석이 많았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은 계속되었고, 20세기에 와서도 어원 해석에 대한 노력은 있었으나,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그 결과는 빈약한 편이었다. 그 이유는 어휘론에 대한 연구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에는 권덕규, 전몽수, 양주동, 이회승 등의 국어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반세기가 가까운 1970년대까지 두드러진 업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국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그 폭, 깊이에 있어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15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의 역사 연구에 몰입해 있어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1980년대부터 어원 연구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21세기에 와서 그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어원사전의 등장도 이 이후였다. 이 이후의 연구 경향은 다음 항목에서 다루도록 한다.

3.1. 사전에서 어휘의 어원 및 역사적 변화 표시

국어사전에서 어원이나 어휘 역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표시되어 있지 않다. 표시되어 있어도 매우 소략한 편이다. 더군다나 잘못된 정보도 꽤나 많다. 그 일례를 들어 보자.

‘한숨’이란 단어의 기술을 보자.

- ① 잠을 계속하여 자는 한동안(한 소금) ② 근심이나 설움으로 말미암아 속에 맺힌 기운을 내뿜노라고 길게 쉬는 숨(②태식 = 太息) (②옛말 : 한숨)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큰사전’>
- ① 한 번의 호흡이나 그 동안. ② 잠간 동안의 휴식이나 잠. ③ 근심이나 서러움이 있을 때 길게 몰아서 쉬는 숨, 태식(太息) <이회승, ‘국어대사전’>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의미들은, 즉 ①과 ②는 원래 그 기원이 다른 단어이다. ①은 중세 국어에서 ‘한숨’이고 ②는 ‘한숨’으로 나타나는데, 그 역사적 변화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즉 ①은 수사 ‘한’(1)과 ‘숨’의 복합어이고, ②는 형용사 ‘하다’

2) 현대 이전의 어원에 대한 관심은 매우 소략하게 기술한다.

의 관형형 ‘한’과 ‘숨’의 복합어이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표제항을 두 개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표제항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어 사전에서 어원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 어휘들은 주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들이다. 사전에서 어원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보도록 한다.

(1) 조선어학회 편찬 『큰사전』

<p>5. 어원의 표시</p> <p>1. 어휘 자체로서 이미 어원이 나타난 것은 따로 어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해석 가운데 짐짓 어원 된 말을 써서 설명을 겸하기도 하고, 혹은 주해 끝에 옛말을 소개함으로써 대신하기로 하였음. 이를 테면: 꿀끔거리다 - 꿀끄럽고 뜨끔거리다. 멍쌀 - (옛말 : 뉘쌀). 따위와 같음.</p> <p>2. 한자 말이나 외래어는 () 안에 한자나 로마 글자를 적되, 로마 글자에는 각각 원어(原語)의 국명(國名)을 부호로써 밝히고, 만일 발음이 변한 것은 ←표를 앞에 두었음. 이를 테면: 문명(文明) 아이스크림(영 Ice-cream) 가나(일 카나 =假名) 고무(←프 Gomme) 따위와 같음.</p>

(2) 이회승 편 『국어대사전』

<p>어원의 표시</p> <p>1. 한자어와 외래어는 그 말 바로 옆 () 안에 각각 한자 로마자 일본 가나를 넣어 주고, 외래어에서는 영어인명지명을 제외하고는 그 원어의 국명을 밝혔다. 보기 : 승리(勝利) ㉠ 주석 …… 페이퍼(paper) ㉠ 주석 …… 안단테(이 andante) ㉠ [연]주석 …… 다꾸앙(일 탁쿠안 : 澤庵) ㉠ 주석 ……</p> <p>2. 어원은 확실하나 발음이 달라진 말은 주석의 첫 머리에 [←]표로 그 어원을 밝혔다. 보기: 보조개 ㉠ [볼조개] 주석 …… 고무 ㉠ [←볼 gomme] 주석 ……</p> <p>3. 한자어에서 뜻과 음이 같은 말들은 그 말 바로 옆 () 안에 한자를 병기해 주었다. 보기: 유독(惟獨唯獨) ㉠ 주석 ……</p> <p>4. 속음으로 읽혀지는 한자어에는 「†」, 취음(取音)인 한자어에는 「×」표를 각각 그 한자의 왼편 어깨에 질렀다. 보기: 추렴(†出斂) ㉠ 주석 …… 생각(×生覺) ㉠ 주석 ……</p>

(3) 신기철·신영철 편 『새 우리말 큰사전』

5. 어원의 표시

1. 한자어와 외국어는 그 말 바로 옆 () 안에 각각 한자 로마자 일본 카나를 넣었고, 외국어에서는 영어인명지명을 제외하고는 그 원어의 국명을 보였다.

[보기]

성공(成功) ㉠ 풀이….

러브(love) ㉠ 풀이….

상송(프 chanson) ㉠ 풀이….

겔트(독 Geld) ㉠ 풀이….

안단티노(이 andantino) ㉠ 풀이….

샤미센(일 シヤミセン ; 三味線) ㉠ 풀이….

㉡ 범어 등은 () 안에 한자를 적고 원어음(原語音)을 풀이 앞에 로마 자로 표시했다.

[보기]

바라밀다(波羅蜜多) [-따] ㉠ ((불)) (범 Paramita) 풀이….

사바(娑婆) ㉠ ((불)) (범 saha) 풀이….

2. 한자어에서 뜻과 음이 같은 말들은 그 말 바로 옆 () 안에 한자자를 나란히 적었다.

[보기]

적전(籍田藉田藉田) ㉠ 풀이….

(4)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종래의 어원 표시를 원어 정보와 어원 정보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즉 한자어나 외래어의 원어를 밝히는 것은 ‘원어 정보’라고 하였고, 또 별도로 어원 정보를 두었지만 그 두 가지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원어 정보

◆ 한자어와 외래어는 표제어 다음에 그 원어를 밝혔다. 만일 고유어와 결합한 표제어이면 고유의 음절 수만큼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예> 가터-뜨기 (garter--) 나비-넥타이(--necktie)

 다락-방(--房)

◆ 비표준어, 방언의 원어는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원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 일수3(一睡) '한숨' 의 잘못.

◆ 부표제어의 원어는 밝히지 않았다. 단, '-적' 이 붙은 부표제어의 경우는 '一的' 만 보였다. <예> 개괄(概括) [개-] ……

 개괄되다 [개-되-/개-뉘-] ……

 개괄-적(一的)[개-적] ……

 개괄-하다 [개--] …을 ……

<p>어원 정보</p> <p>1. 제시 범위</p> <p>(1) 로마자 이니셜로 이루어진 단어의 원말, 어원적 분석, 어원, 최초 출현형 및 역사적 변천은 뜻풀이 맨 끝 【 】 안에 제시하였다.</p> <p>(2) 어원적 분석은 현대 고유어 표준어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와 같은 문법 요소는 원래 어휘 요소였던 것만 선택적으로 제시하였다.</p> <p>(3) 복합어의 구성 성분이 이미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어원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복합어에서 별도의 어원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다.</p> <p><예> 성냥 마찰에 의하여 불을 일으키는 물건. 작은 나뭇개비의 한쪽 끝에 황 따위의 연소성 물질을 입혀 만든다. 활린(黃燐), 적린(赤燐), 무린(無燐) 성냥 따위가 있다. =양취등. ……석류황<언태>石硫黃</p> <p>성냥-불[--빨] 성냥으로 켜는 불. 성냥불을 당기다/ 난로 심지에 성냥불을 붙이다/ 성냥불로 담뱃불을 붙인다./ 손끝이 타 들어가도록 종세는 성냥불을 켜 채 방 안을 둘러보았다. 《최인호, 지구인》</p> <p>(4) 역사적 변천에서 의미가 있는 형태만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단순히 표기상의 차이만 있는 형태는 제시하지 않았다.</p>
--

이러한 종래의 사전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고유어

고유어의 어원 표시에 관심을 나타낸 최초의 사전은 한글학회 편찬의 ‘큰사전’이었다. 이 사전의 권1 첫머리에 있는 범례의 다섯째 항목으로 ‘어원의 표시’를 마련한 데에서 편찬자들의 어원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고유어에 대한 것은 ‘결끔거리다’를 ‘결끄럽고 뜨끔거리다’로 분석한 것처럼 주로 복합어들의 형태소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2) 한자어

한자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해당 한자를 병기하여 어원 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국어사전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한자어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인지 일본에서 유입된 것인지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중국을 통해 들어 온 한자어는 범어를 중국에서 음차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자어에만 범어의 예를 들었을 뿐, 한문에서 유래한 한자어인지, 아니면 백화문으로부터 온 한자어인지도 구분하여 놓지 않았다.

(3) 외래어

외래어는 주로 원어의 국명과 함께 로마자나 일본 카나를 제시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러나 종래의 국어 사전들의 어원 표시의 한계가 드러난다. 그 어원 표시를 보면

① 단편적인 고행(古形)의 제시가 있다.

② 파생어와 복합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즉 형태소 분석조차 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Martin(1968), New Korean-English Dictionary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여 대조를 보인다.

(1) 바가지 - [박 + -아지]

(2) 바깥 - [?(<밖 + -알(?(<밭); cf. 풀-알

(3) 부삽 - [n.abbr. <불 + n.]

(4) 사람 - [der. subst. <살다]

(5) 시내 - [<var. 실 + 내]

③ 한자어의 어원에 대한 기술이 매우 소략하다.

④ 신조어에 대한 어원 표시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1900년대초 이후에, 즉 근대문화가 들어온 이후에 도입된 어휘들, 특히 한자어에 대한 어휘의 어원이나 그 변화의 역사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3.2. 어원 연구와 어휘 역사 연구의 성과

어원 연구의 성과들은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원사전도 여러 편 나와 있는 셈이다.

모든 어휘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기술하여 놓은 어휘 역사사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임의로 선택된 어휘에 대해 어원을 기술해 놓은 사전도 여럿 있다. 어원사전 목록은 앞에서 제시하여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또한 국어의 어원에 관한 수많은 저서도 있다.

Ramstedt(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

강길운(2010),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국립국어원(2015), 단어별 어원 정보, 생각염표.

김동진(2001), 선인들이 전해 준 어원 이야기, 태학사.

김선기(2007), 한국어의 어원, 한울.

김인호(2001), 조선어 어원편람(상,하), 박이정.

김인호(2005), 어원유래상식(1),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렴종률(2001), 조선말 단어의 유래, 금성청년종합출판사, 평양.

류응하(2017), 우리말의 어원을 찾아, 한빛.

劉昌惇(1971), 語彙史 研究, 宣明文化社.

리득춘(1987), 조선어 어휘사, 연변대학출판사.

박갑천(1995), (재미있는) 어원이야기, 을유문화사.

박갑천(1995), 재미있는 어원 여행 : 말의 고향을 찾아, 을유문화사.

박영홍(2017), 우리말과 한자어 -알기쉽게 쓴 우리말 어원풀이-, 백암.

백문식(1998),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出版社.

서정범(1989), 우리말의 뿌리, 고려원.

서정범(1996), 서정범의 어원별곡, 앞선책.

송정석(1975), 우리말의 語源考, 박애출판사.

송정석(1977), 우리말의 語源考(3), 박애출판사.

송정석(1996), 韓國語의 語源雜記(4), 중앙문화사.

송정석(1997), 韓國語의 語源雜記(5), 중앙문화사.

송정석(1998), 韓國語의 語源雜記(6), 중앙문화사,

- 송정석(2003), 韓國語의 語源雜記(7), 중앙문화사.
- 송정석(2009), 살아 움직이는 어원 이야기(상,하), 정인출판사.
- 송정석(1988), 韓國語의 語源雜記, 중앙문화사.
- 신난다(1993),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1), 서광학술자료사.
- 신용태(1993),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박이정.
- 유창돈(1975), 語彙史 研究, 二友出版社.
- 이기문(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 이남덕(1985-6), 한국어 어원연구 I - IV, 이화여대 출판부.
- 이덕해(2010), 불교 어원산책, 집옥재.
- 이동석(2015), 시어의 어원 연구, 한국문화사.
- 이병근(2004), 어휘사, 태학사.
- 이왕근 편저(2014), 유기화학의 어원과 용어, 전남대학교출판부.
- 이재운, 박숙희, 유동숙 편저(2008),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 가지, 위즈덤하우스.
- 田蒙秀(1947), 朝鮮語源志, 平壤 赤誠社.
- 전재호(1987), 국어어휘사연구, 경북대 출판부.
- 정상우(2009), 의학 어원론, 군자출판사.
- 조항범(1994), 국어어원연구 총설(I)(1910-1930년대), 태학사.
- 조항범(1996), 국어 친족 어휘의 통시적 연구, 태학사.
- 조항범(1997), 다시 쓴 우리말 어원이야기, 한국문원.
- 조항범(2009),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 천소영(2000), 우리말의 속살-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창해.
- 천소영(2007), 우리말의 문화 찾기 : 고유어 어원에 담긴 한국문화, 한국문화사.
- 최창열(1988), 어원산책, 한신문화사.
- 최창열(1998), 우리말 어원연구, 일지사.
- 최창열(2002), 어원의 오솔길, 한국학술정보.
- 최창열(2005), 아름다운 민속 어원, 한국학술정보.
- 최창열(2006), 어원산책, 한국학술정보.
- 현진건(1990), 조선말의 어원을 찾아서, 연변인민출판사.
- 홍사만(2003), 국어 어휘의미의 사적 변천, 한국문화사.
- 홍윤표(2009),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지금까지 각 어휘에 대한 어원정보를 조사하여 놓은 연구결과물도 공개되어 있다.³⁾ 1996년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표자에게 의뢰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어원 설명 항목을 기술할 목적으로 어원 관련 논저 목록과 어휘별 어원정보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시기 : 개화기 이후 1996년까지 발표된 모든 어원 관련 논저를 작업 대상으로 하였다.
- (2) 사전 등재용 선별 작업 : 정리된 어휘들에 대하여, 사전에 올릴 만큼 근거있고 타당한 어원 설명을 제시한 어휘들을 선별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다.

3) 국립국어원(2015), 단어별 어원 정보, 생각심포.

(3) 내용 : 대상 어휘의 어원 설명을 요약하되 어원 설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고유어의 조어 방식 설명
- ② 형태·의미 변화 설명
- ③ 고유어화된 차용어(외래어)의 원어 제시
- ④ 국어와 계통상 비교되는 알타이 제어의 공통 조어 제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시된 어원 관련 연구논저 목록은 다음과 같다.

- Ramstedt,G.J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
강길운(1959), '겨집'의 어원(上), (下) 현대문학 5권 7,8호(통권 55,56호)
강길운(1975), 삼한 신라어는 토이기 어족에 속한다 : 수사·계절어·방위어의 체계적 비교, 국어국문학 68·69
강길운(1979) 한국어의 형성과 계통 : 민족적 기원 국어국문학 79·80
강길운(1980) 수사의 발달 (I), 충남대 논문집 7-1 남광우 박사 회갑 기념 논총
강길운(1981), 고조선 삼국에 대한 비교 언어학적 고찰, 언어 2 충남대

<중략>

- 허영호(1950), 許數觀語源記(二), (三), 신천지 5:1,2
허영호(1950), 화풍관 : 어원기, 신천지 5:3. 서울신문사
현평효(1968), '나무' 어사에 대한 어원적 고찰, 제주도 37
현평효(1969), 제주도 방언 '나무'·'나물', 국어국문학 논문집 7,8, 동국대 국문과
현평효(1972), '耽羅'의 어의에 대하여, 제주도 53
홍기문 (1934), 친족 명칭의 연구(1)-(13), 조선일보 5 / 27, 29, 30, 31 ; 6 / 1, 2, 3, 7, 8, 9, 12,
홍윤표(1996), “우리말 탐방, 「충남 저널」 55호.
홍윤표(1996), “우리말 탐방, 「충남 저널」 56호.
홍윤표(1996), “우리말 탐방, 「충남 저널」 57호.
홍윤표(1996), “우리말 탐방, 「충남 저널」 58호.

<이하 생략>

그리고 제시된 어휘별 어원 정보는 다음과 같다.

#1K 가닥 #3 우리말에서 *kat-/kar-어근이 파생된 말들을 생각해 보면 kat-의 원뜻은 線條를 나타냄과 동시에 분파되어 가는 뜻도 겸한 듯하다.‘한 가닥의 희망’이라 할 때에는 한 줄기의 뜻에 그치지만 ‘가다가닥 사연의 줄거리가 흥미롭다’에서는 한 줄기의 뜻이 아니고 갈라져 나간 줄거리가 복잡한 여러 줄거리임을 말한다. #4 가닥 < 간(線條) + 악(명사 형성 접미사) #5 갈래.가락 #8 이남덕 (1985-6) [한국어 어원연구 I - IV] \$ 이화여대 출판부>

#1K 가래다 #3 ‘굴외다’ 이말은 이조어에서 ‘침범하다’의 뜻으로 쓰이였으며, 그것은 원형의 ‘굴괴다’이던 것이 k목음화한 것으로 믿어진다.그 까닭은 현재 함경도 기타의 방언에 ‘갈개다’라는 후신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변천을 거듭한 것으로 믿어진다. ‘가래다(:남의 일을 방해다)<굴래다<굴외다<굴외다<*굴괴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말에 ‘글기다’(=세차게 치다)가 있는데 이것은 16세기이후에만 나타날 뿐, 15세기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글외다’와 ‘글기다’는 서로 남을 침해하는 뜻에서 공통되고 그 어근도 *kalg-이므로 ‘글기다’는 ‘글외다’에서 분화, 발달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글외다(侵)’와 대응되리라고 믿어지는 것으로 동계어 *korgŪr-가 있고, 유입어인 알타이제어에 qalu-(侵) 등이 있으나 우리말에 ‘개개-(侵害)’가 있고, 그 의미에 치중하여서 ‘글외-’의 원시형을 *kalgu-로 재구할 수 있으리라 추정한다. #4 가래다 < 골래다 < 글외다 < 글외다 < *글외다(:侵犯) #5 갈기다 #7 狄人이 글외어늘(狄人于侵) #% 龍歌 4장 #7 盜賊의 해 글외어미甚흐니(盜賊縱橫甚) #% 杜초, 7, 29 #7 흔 바람 구석의 가 골래디 못홀소냐(一壁廂去浪蕩不的) #% 朴重 中 55 #8 강길운 (1992) 한국어 계통론 -어원·어휘비교편- \$ 형설출판사

<중략>

#1 흉비 #2 胸背 #3 服飾 #7 胸흉背의 흉비 #% 翻譯朴通事 上 27, 上 73 #7 흉비 #% 老乞大諺解 下 21, 하 24 #7 흉비 #% 老乞大諺解 下 24 #7 補子 흉비 #% 역보 28 #7 補子 흉비 #% 同文類解 上 55 #8 이기문 (1965*) 근세중국어 차용어에 대하여>

#1 흐르니다 #2 <옛> 流 #3 [동] #4 ← {흐르(流) + 니(行) + 다} #8 <지춘수 (1987) 어원 산고 \$ [장태진 회갑]>

#1 힐흠비 #2 <옛> #4 ≤ &만 힐흠비 #7 힐흠비(사름쓸허 보채다, 譏刺纏惹) #% 漢清文鑑 七 51 #7 法을 듣고 도로혀 당당히 힐후고(聽法還應難) #% 杜詩諺解 #7 므슴아다 입힐 흠흐리오(要甚麻合口) #% 朴通諺 #8 유창돈(1957) “漢清文鑑 語彙考” \$ 국어국문학 17 & 11

#1 헛귀 #2 <옛> 旭 #3 [명] ‘헛귀’는 ‘헛(日) + 귀(접미사)’로 분석됨. #4 ← {헛 + 귀} #7 헛귀 #% 훈몽 #8 <박병철(1989) 중세훈의 소멸과 변천에 관한 연구 \$ 인하대 박사>

또한 한자의 어원에 대해서 밝혀 놓은 성과도 있었다. 홍윤표·심경호(1993),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850개 정도의 한자어 어원을 밝혀려고 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15세기에 사용된 고유 한자어휘의 실상을 가장 풍부하게 보여주는 『朝鮮王朝實錄』의 해당 권을 대상으로 하여 고유 한자어를 조사하고, 15세기에 완성된 범전집인 『經國大典』을 참고로 하여 당시에 통용되었던 고유 한자어를 보충하고 의미 내용을 밝혔다. 그 중 3개의 예만을 보이기로 한다.

加之介 : 매의 한가지. 『훈몽자회』 상권에서 黃鷹을 ‘갈지개’라고 하였다. 『오체청문감』 보편4에서 매를 몽고어로 ‘가지치개’라 하였다. 몽고어의 차자이다.

脚力 : 사신들에게 시중을 들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높은 층에 속하여 제 발로 걸어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탈 것 또는 그 비용을 말함. 『이문집람』 권2에서는 “사신들이 왕래할 때에 그중의 벼슬없는 사람들이 타는 노새나 나귀를 ‘각력’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江監 : ‘한강가에 있는 軍資監, 또는 繕工監을 가리키는 말. 군사감이나 선공감과 같은 관청은 여러곳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강가에 있는 관청을 ‘경감’이라고 불렀다. 『속대전』 권2 참고 항목을 보면 군사감에 전에는 3개의 ‘감’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京監과 分監은 없어지고 오직 ‘강감’만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京都 下에서

繕工監이란 말아래에 “용산강에 있는 것을 ‘강감’이라 하고 창덕궁 금호문밖에 있는 것을 紫門監이라 한다”고 하였다. (세조21-6-8정묘)(경국2-호전)

4. 어원과 어휘역사 연구의 과학적 방법과 민간어원설

4.1. 과학적 방법

국어의 어원과 어휘 역사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 범위와는 상관 없이 국어 자료 및 동일계통의 언어 자료의 불투명성과 불명확성 때문에 무리한 재구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어휘의 역사를 민간어원설에 기대어 연구하여 오기도 하였다. 오히려 언중들은 민간어원설에 의한 어원 설명에 더 매료되기도 한다. 왜냐 하면 그 설명이 언어학적 설명보다는 매력적이고 또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어원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도 제시되기 힘들었다.

어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한 어휘의 역사를 음운, 형태, 문법, 의미면에서 정확히 그리고 고르게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역사적 기술은 국어사의 시대구분에 따라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세기별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 하면 한 시대구분 내에 존재하는 어휘의 형태나 의미가 너무 다양하여 기술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어휘의 음운, 형태, 의미의 변화과정을 고르게 제시하여야 한다. 국어의 어휘 역사를 종합적으로 기술하게 될 때, 음운론 전공자는 음운현상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형태론 전공자는 형태분석에 치중하며, 의미론 전공자는 의미에 집착하여 기술하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러한 기술 방법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국어학자들이 적어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② 문화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다른 언어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인근 국가들의 언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접촉해 왔던 시대적,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즉 한자나 중국어와의 접촉, 특수 분야에서 몽고어의 차용, 백화문의 수용, 일본어으로부터의 차용, 불교 분야에서 산스크리트어와의 관련 및 중국에서의 차자표기 형태 등등에 대해 주목하라는 것이다.

③ 알타이어들의 음운대응 관련 및 음운법칙을 관찰하여야 한다.

이 준칙은 여러 번 강조되어도 좋을 것이다. 아마추어 어원 연구자들에게 이 준칙을 지키라고 하는 주장은 가혹한 요구일지 모른다. 이 요구에 응하게 되면 아마도 그들의 주장은 상당수가 거짓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미 비교언어학자들의 연구업적들을 꼼꼼히 살피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물론 서정범(2000), 국어 어원사전의 앞에 ‘국어 어원 연구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고, 거기에 조어 재구와 소실어 재구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 예컨대 ‘조어는 단음절어로서 폐음절이다’,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은 명사에서 전성된 것이다’, ‘조어의 어근 말음은 ㄷ이다’는 등이 그러한 규칙이다. 그 결과 ‘감기’를 뜻하는 ‘곶불’(고(鼻) + -ㅅ + 불(火)에서 ‘불’이 ‘코’라고 가정하기까지 할 정도이다.

④ 어휘체계 내에서 개별 어휘를 기술하되, 음운법칙의 예외에 대해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이 주장도 매우 유효한 내용이다. 왜냐 하면 A 어휘에 적용시켜 설명한 음운법칙과 B 어휘에 적용시켜 설명한 음운법칙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를 여러 어원사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 변화의 전반에 나타나는 음운규칙은 그 언어의 음운사의 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가 어원 연구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⑤ 서로 연관이 없는 단어들 간에 어형이 유사하다고 해서 이들을 함부로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성조가 다른데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이들을 하나로 인식하거나, 또는 ‘·’와 ‘ㅏ’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잘못 등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숨’이란 단어를 기술할 때의 문제점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어원 설명도 ‘흐나’와 ‘하늘’을 혼동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어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내용이나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다음 항목에서 보완 설명할 것이다.

4.2. 어원과 어휘역사의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국어학적 지식

어원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기 위해 국어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면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국어사(음운사, 형태사, 의미변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어휘변화는 음운변화에 의해서는 그 음상이 변하며, 또한 형태론적으로 변화하여 이전의 어형과 다른 어형으로 변화하여 재구조화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여건에 따라 그 의미 변화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국어학의 모든 분야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② 한자의 古訓에 대한 지식과 고대 한자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차자표기법을 통하여 고대국어를 재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③ 문헌자료와 방언자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어느 어휘의 어형은 문헌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방언형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또 방언에서만 변화하기 이전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어휘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중앙어나 표준어만 알고 있는 학자들을 당혹케 하기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④ 차용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한자 차용어나 일본어 차용어가 그러하다. 국어사와 차용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학자들이 곧잘 실수하는 가장 흔한 예들은, 이전의 국어 자료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어느 어휘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것인 양 주장하기도 하고(예: 自由, 十分 등), 또 어느 것은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어인 양 주장하기도 하고, 어느 어휘는 고유어인데도 한자어인 양 기술하기도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도 차용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⑤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알타이어와의 친족관계 뿐만 아니라 어휘비교를 위해서 필요한 지식인데, 전공자의 대꿨김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

⑥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어휘는 언어 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외적 지식이 어휘사 기술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예컨대 ‘부시’와 연관된 어휘들(부싷깃, 부싷돌)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싷돌 사용법’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폭넓고 깊은 국어학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원 연구에 애착을 가질 젊은 학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언어의 어휘수가 많기 때문에, 이 어원을 연구하는 작업(특히 어원사전의 편찬작업)은 공동작업으로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어원 연구를 위한 방법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한국어원학회가 유일하다. 이 학회에서 어원연구 1집(2001년)부터 어원연구 8집(2012년)까지 간행하였으나 현재는 활동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자들의 참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어원 연구를 위해서는 가칭 한국 어휘연구학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3. 개별 어휘의 역사기술 방법

개별 어휘의 역사를 기술한 것을 보통 어사(語史) 또는 어지(語誌)라고 한다. 그런데 이 어사 또는 어지란 하나의 단어가 어떤 어휘에 받아들여진 이후 전용 또는 변형되고 결과적으로는 폐기되기까지의 역사를 기술하는 일이다. 그런데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에 그 변화의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대 이후에 A라는 단어가 의미 ‘가’를 상실하고 오로지 의미 ‘나’를 나타내게 되고 어형 B가 의미 ‘가’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시기에 A(가)의 시대가 끝나고 A(나)의 시대로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냐는 문제가 야기된다. 예컨대 ‘지치다’가 ‘설사하다’란 의미에서 ‘기운이 빠지다’란 의미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렇게 의미가 바뀐 시기가 18세기라고 해서, ‘설사하다’란 의미를 가진 시대가 완전히 가고, ‘기운이 빠지다’란 의미를 가진 시대로 완전히 이행했다는 기술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래서 ‘지치다’란 어휘와 ‘설사하다’란 어휘가 이전에는 유의어 관계로 인식되다가(그 차이는 단지 고유어와 한자어의 차이이다), 그 의미가 바뀐 시기에는 다른 어휘체계를 이루었다고 기술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단어들이 쓰인 예문들을 해석하면서 단지 연어적인 관계에서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한정된 문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개별 어휘사, 즉 어사 또는 어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단어가 각각의 시대의 어휘에서 의미, 용법, 어형상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를 역사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단어들 다 일일이 기술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어느 특정한 한 단어를 골라서 그 개별 단어의 어휘사를 기술함으로써 어휘사의 일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면이 모여 전체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며, 또한 단면으로서 전체를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도 부질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한 어휘의 역사를 밝히는 일이 국어사 연구에서 국어 체계와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라고 배강내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이렇게 개별 어휘사가 곧 국어 어휘사를 기술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국어사의 근간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문법사나 음운사 연구에서도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 즉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기술하는 것만이 어휘

사가 아니다. 그 기저에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고찰하는 근본적인 입장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4. 어휘 변화의 요인

개별 어휘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그 변화의 요인을 기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어휘 변화의 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그 역사를 수월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가 변화하는 요인은 언어 자체에 내재하는 요인과, 언어와는 유리되어 있는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어휘를 구성하는 어형이나 의미가 변화하는 요인이고, 그것에 의해서 어휘의 지역적 변용이나 역사적 변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형과 어휘의미의 변화 유형은 여러 가지 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을 요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1. 어형의 변화

(1) 음만의 변화

① 음의 첨가

‘고티다’가 구개음화되어 ‘고치다’가 되고 이것이 ‘곤치다’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는 방언어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고문헌에서는 그러한 의미차이를 가져 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ㄹ초다’가 ‘근초다’가 되어 ‘ㄴ’이 첨가되었어도 의미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금초다’를 거쳐 ‘감추다’로 변화할 경우에는 의미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만일 다시 사교에 김히 물드러 그 전습을 곤치지 아니호고 <1881어제유대소신료급 중외민인등척사운음,4a>

그 직조를 곤치지 안스오니 <1898제국신문,1010>

② 음의 탈락

‘날개’가 ‘날애’가 되는 경우와 같이 ‘ㄱ’이 탈락하는 경우가 흔히 보인다. 그러나 의미변화까지는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迦樓羅는 金 날개라 혼 쓰디니 <1459월인석보1:14b>

奮은 매 놀애 티득시 가비압고 썩를씨오 <1459월인석보10:78a>

③ 음의 교체

음이 교체되면서 의미가 변화하지 않는 예들이 있다. 예컨대 ‘꽃’(花)이 ‘꽃’으로 그리고 다시 ‘꽃’으로 변화하였지만, 의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빛꽃 爲梨花 <1446훈민정음해례본,42>

梧은桐동花화는 薔薇미소즐 니르니라 <1567몽산화상육도보설,31a>

4) 田中章夫(1978), 國語語彙論, 明治書院, pp.282-283.

또 원추리소출 츄고 <1608언해태산집요,12a>

상당수의 음운변화 현상은 이러한 어형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어간재구조화를 이루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치찰음 밑에서의 고모음화, 비원순모음화 등에 의한 음의 교체는 역시 의미변화를 가져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음라우트는 어느 경우에는 의미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보기싫다’가 ‘뵈기싫다’가 되었을 때에는 의미 가치의 하락이란 현상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음의 융합

현대국어의 ‘다니다’는 ‘든다’와 ‘니다’의 합성어였다. 그리하여 ‘든니다’이었지만 음운변화로 인하여 ‘든니다’가 되고 이것이 다시 ‘다니다’가 된 것인데, 이것은 어찌면 음의 융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太子 | 뵈히며 프리며 글히디 아니호야 든니실 씨 <1447석보상절3:35b> 前生에 든
니다가 <1459월인석보1:45b> 길씨리로 가 든니며 <15XX장수경,30b>

마찬가지로 ‘드르’(野)가 ‘들’로 변화한 것도 일종의 음의 융합으로 해석된다.

드르헤 龍이 싸호아 <1447용비어천가,069> 逃亡호야 들헤 가 수무물 두세 번 호고
<1514속삼강행실도열:16a>

⑤ 音質의 변화

자음의 변화와 모음의 변화가 보이는데, 이것은 대체로 의미의 분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보인다. ‘감다’(玄)가 ‘검다’로 되는 것 등이 그러하다.

⑥ 음의 顛倒

‘빋복’이 ‘빋굽’이 된 것은 일종의 ‘ㅂ’과 ‘ㄱ’의 음의 전도라고 할 수 있다.

부텨 菩提를 求호들 빋복 너흘 싸름 곧거니 므스글 일우리오<1461능엄경언해
6:112b> 눈망울이며 빋굽이며 <1792증수무원록언해1:25a>

마찬가지로 ‘하야로비’가 ‘히오라비’로 변화한 것은 모음 ‘ㅏ - ㅓ’가 ‘ㅓ - ㅏ’로 순서가 바뀌어 음의 전도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차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鶯子는 舍利弗의 어미 누니 붉고 조호야 하야로비의 누니 곧홀씨 鶯子 | 라 호느니라
<1459월인석보11:96a> 닛ㄱ의 히오라비 무스 일 셔 잇는다 <1713악학습령,229>

(2) 의미, 문법과 관련된 변화

① 의미의 혼동

오늘날 잘못 쓰는 예로 흔히 드는 단어로 ‘막역하다’와 ‘막연하다’를 들 수 있다. ‘막역하다’는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하다’란 뜻이고, ‘막연하다’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다’란 뜻

인데, 이 두 단어를 혼동하여 ‘막역한 친구’를 ‘막연한 친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막역하다’의 의미와 ‘막연하다’의 의미를 혼동한 예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公’의 새김이 원래는 ‘구의’(官)였었는데, 이 음이 변화하여 ‘귀’가 되자 이 ‘귀’를 ‘귀하다’의 ‘귀’로 그 의미를 혼동하게 된 것도 있다.

② 어원의식

‘나쁘다’는 ‘마음에 들지 않아 만족하지 않다’란 뜻이다. 그래서 그 어원으로 ‘낮다’와 연관시켜서 설명하려고 한다. 즉 ‘나쁘다’가 ‘낮다’의 어간 ‘낮-’에 접미사 ‘-브다’가 붙어서 파생된 파생형용사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낮다’(低)는 중세국어에서 ‘낮다’가 아니라 ‘눣다’였으며, ‘나쁘다’는 ‘남브다’였다. 그래서 어원해석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의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러한 예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삼팔 따라지’는 ‘38’이란 화투놀음의 가장 작은 숫자를 ‘38선’이란 것에 비유되어 부른 것으로 보인다.

③ 문법변화

‘보다 많은’의 부사 ‘보다’는 원래 조사로 쓰이던 것이었다. ‘이것보다 저것이 더 크다’처럼 쓰이던 것이었는데, 이 조사가 부사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끔 일본어 ‘より’의 영향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것은 국어 조사의 문법 변화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여럿 있다. ‘마냥’이나 ‘부터’가 그러하다. ‘마냥 앉아서, 버텨 해 등)

④ 모음충돌

‘말’을 뜻하는 단어는 ‘말’이었고, ‘馬’를 뜻하는 단어는 ‘말’이었으나 ‘·’의 소실로 모두 ‘말’로 변화하여 모음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의 소실로 수많은 이러한 예가 등장하게 되었다.

2. 어휘 의미의 변화

(1) 의미 폭의 변화

① 의미의 확대

의미의 확대란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의 외연이 넓어짐을 말한다. 의미의 외연이란 의미가 나타내는 전체 범위를 말한다. 예컨대 ‘부엌’은 중세국어에서는 ‘브엷, 브석’으로 쓰이었는데, 이것은 주로 ‘아궁이’란 의미였었다.

브엷 爲竈 <1446훈민정음해례본,57> 쯤 브레 덴 슬홀 고토티 춘 브엷 안스 가운딧
 홀굴 細末호야 甘草草 굴을 녀허 <1466구급방언해下:12a> 안호로 붓그료딧 브석 굴
 기 검디 몬홀 나를 여리 차반으로써 주느다<1481두시언해(초간)22:50b>

그러나 이 단어는 외연이 넓어져서 ‘아궁이, 부뚜막’을 포함하여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 변화하였다.

역시 ‘아침, 저밈, 저녁’은 원래 때를 나타내던 뜻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아침(저밈, 저녁)에 먹는 밥’도 의미하게 되었다.

‘겨레’는 원래 ‘친척’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단체’의 뜻으로 바뀌고 어느 개인에 의

해 이것을 ‘민족’이란 의미로 바꾸어 쓰게 하였는데, 이것은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의미의 축소

‘얼굴’의 의미는 본래 ‘모양’이란 뜻이었다. 그래서 훈몽자회에서는 ‘얼굴’은 한자로서 ‘形, 狀, 型, 模, 式’으로 나타나고, 신증유합에서도 ‘狀, 體, 形, 象’으로 나타난다.

- 形 얼굴 형 <1527훈몽자회(존경각본)上:24b>
- 狀 얼굴 장 <1527훈몽자회(존경각본)上:35b>
- 型 얼굴 형 <1527훈몽자회(존경각본)下:16a>
- 模 얼굴 모 <1527훈몽자회(존경각본)下:16a>
- 式 얼굴 식 <1527훈몽자회(존경각본)下:21a>
- 狀 얼굴 상 <1576유합초,上15a>
- 體 얼굴 테 <1576유합초,上22b>
- 形 얼굴 형 <1576유합초,下1a>
- 象 얼굴 상, 고키리 상 <1576유합초,下51a>

그러던 것이 오늘날처럼 ‘낮’이란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의미가 축소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손발 얼굴을 斂^하여 즉제 葬^하야 <1632가례언해7:16a>

③ 의미의 분화

‘남’은 ‘木’과 ‘樹’ 및 ‘薪’(땃나무)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방언형에서는 ‘나무’와 ‘남구’가 ‘생나무’와 ‘장작’을 나타내는 말로 분화하기도 하였다.

(2) 의미 가치의 변화

① 의미의 하락

의미가치가 하락한 대표적인 예는 ‘겨집’이라고 할 수 있다. ‘겨집’은 원래 ‘여자’ 또는 ‘妻’라는 의미였었는데, ‘여자’를 낮추어 말하는 경우에 쓰이게 되었다. 특히 ‘계집’으로 어형변화를 겪으면서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② 의미의 향상

‘정음’이란 말은 원래 ‘바른 소리’란 뜻이었는데, 오늘날 ‘정음’은 ‘훈민정음’ 즉 우리 글자를 말하는 뜻으로 그 의미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의미의 전환

① 比喻的 轉換

‘노루발’은 ‘장도리’의 못을 빼는 도구를 뜻하는데, 이것은 ‘노루의 발’에서 비유적으로 전환되어 사용된 것이다.

② 對義的 轉換

③ 連鎖的 轉換

어떤 단어의 의미가 연쇄적으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국어의 다의어 현상은 대부분 이러한 연쇄적 전환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외적인 요인은 문화사적 요인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교통의 발달에 따른 문물의 교류다. 특히 외국어와의 접촉은 어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국어에서 국어 어휘에 영향을 준 외국어는 중국어, 몽고어, 일본어, 영어 등이다.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변화가 대개는 시대적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비해서, 이러한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는 문화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는 시대적 순서에 따라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한자어와 같은 중국 계통의 언어가, 고려시대말에는 몽고어의 영향이, 그리고 조선시대 말기에는 일본어가,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영어가 국어 어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형성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어휘변화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 오기도 한다.

4.5. 민간어원설(民間語源說)

언중들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민간어원설을 믿으려 한다. 국어 어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민간어원설 때문이기도 하다. 민간어원설은 소위 ‘믿거나말거나’설로서, 국어 어휘의 어원의식을 흐려 놓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화냥년’의 ‘화냥’에 대한 것이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붙잡혀 갔던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몸을 버린 여자여서 ‘還鄉’에 ‘-년’을 붙인 것이라는 설이다. 너무 그럴 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설을 믿으려 한다. 이제는 그 어원이 밝혀져서 이 설이 터무니없는 설이 되었지만, 그 어원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 수천리 수만리를 날라 퍼져 나가곤 한다. 원래 ‘화냥년’의 ‘화냥’은 ‘화랑(花娘)’에서 온 말이다. 즉 ‘남자와 통간하는 여자’란 뜻인데, 중국어 발음이 ‘화냥’과 같다. ‘화냥’은 그 어원이 ‘화랑(花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화랑(花娘)’이 ‘화랑(花郎)’과 발음이 같고 또 실제로 ‘花娘’을 ‘花郎’으로도 표기한 예들이 있어서 ‘화냥년’을 무당이나 신라 화랑과 연관시켜 풀이한 것도 나오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민간어원설이 위용을 떨치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① 민간어원설은 단순한 객관적 언어학적 분석이나 설명에는 무관하고 거의 대부분 일정하고 그럴듯한 이야기 줄거리가 붙어 있어서, 언중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예컨대 ‘삼팔따라지’는 광복 이후에 삼팔선을 넘어 남하한 사람이 ‘딸’을 많이 낳아서 이들의 별명을 ‘삼팔따라지’라고 했다는 것인데, 국문과 교수가 버젓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단군왕검’의 ‘왕검’을 고조선 시대에 그 시대에 ‘왕거미’를 숭상해서 이것이 줄어들어 ‘왕검’이 되었다고 하거나, ‘메아리’의 어원을 설명하면서, 조선왕조 때, 이성계의 권유를 거절한 고려의 신하와 학자들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 깊은 곳에 피신하여 산속에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소리’, 즉 노래로 신세타령을 하였는데, 그것이 산에서 울리는 소리, 즉 ‘메아리’라고 하였으며, 그 ‘메아리’ 속에서 서글픈 ‘아리랑’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 듯하게 소설을 쓴 것이어서, 멧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로 ‘메아리’의 어원인 것으로 믿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이다. 별의별 상상력을

다 동원하여 그 어원에 대해 작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다지’를 설명한 어느 글을 인용해 본다.

조선 말기 우리나라는 힘이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외세에 많은 경제적 이권을 빼앗겼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금광 채굴권이에요. 우리나라의 광산을 외국 사람에게 헐값에 넘긴 거지요. 평안도 운산 지역은 유명한 금광 산지로서, 미국인들이 사들여 막대한 이득을 올린 곳이에요.

“빨리빨리 금맥을 찾아라!”

미국인 사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조건달 씨가 일꾼들을 마구 부러먹고 있었어요.

"뭘 꾸물대고 있는 거야, 빨리 하라니까!"

조건달 씨는 일꾼들에게 눈을 부라렸어요.

"쳇, 같은 조선 사람이면서 더 지독하게 구는군."

일꾼들은 투덜거리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꾼들의 환호성이 터졌어요. 땅 속을 파 들어가던 인부들이 드디어 금맥을 찾아냈던 거지요.

"와와, 찾았다. 금이다, 금!"

일꾼들은 어렵게 찾아낸 금맥을 보며 기쁨에 차 있었어요. 잠시 후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인 사장이 헐레벌떡 굴 속으로 달려왔어요. 그는 일꾼들이 금맥 주위에 둘러서서 웅성거리는 것을 보자 이렇게 외쳤어요.

"노 터치, 노 터치!"

'노 터치'란 손대지 말라는 뜻의 영어예요. 하지만 영어를 모르는 일꾼들은 서로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어요.

며칠 후 일꾼 몇 명이 사무실에 들렀어요. 광산에 터뜨릴 폭약을 가지러 간 거지요.

폭약이 담긴 상자 앞에는 나무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일꾼들이 상자를 옮기려고 손을 대자 사장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노 터치, 노 터치!"

일꾼들은 상자에서 얼른 손을 뺐어요.

'노 터치라니? 이게 노 터치라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뭐길래 손도 못 대게 하는 걸까?'

호기심이 생긴 일꾼 하나가 뚜껑을 살짝 열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상자 속에는 광산에서 캐낸 금덩이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제야 알겠다는 듯 일꾼들은 말했어요.

"미국 코쟁이들은 금을 노 터치라고 하나 봐...."

이와 같이 일꾼들이 광산에서 캐낸 광물을 만질라치면 미국 사람들이 놀란 듯이 '노 터치'라고 외쳤는데 영어를 잘 모르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노 터치'가 금이나 은 따위의 값비싼 광물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이 말이 나중에 '노다지'로 변해 '한 군데서 많은 이익이 쏟아져 나오는 일이나 물건'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해요.

이 글에는 평안도 운산이라는 지역적 배경과 조선말기의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조건달이라는 허구의 인물까지 등장하여 마치 실화처럼 꾸며 놓아서 '노다지'의 어원이 사실인 것인양 설득시키고 있다.

- ② 민간어원설은 대부분이 민담, 전설, 신화 등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민족적 감정을 유발시켜서 그 내용을 믿으려 하는 속성이 있다. 예컨대 ‘행주치마’의 ‘행주’를 ‘행주산성’과 연관시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한자성구에는 고사성어가 있어서 이 고사성어에 대한 인식이 국어 어휘에도 전이된 것으로 해석된다.
- ④ 민간어원설은 부담이 없다. 즉 철저한 검증이나 언어학적 규명을 통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믿어도 큰 부담이 없고 또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민간어원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① 그럴 듯한 이야기 줄거리가 있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해도 믿고 싶어 한다.
- ② 상당수의 언중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흥미 본위로서 인정하려 한다.
- ③ 상당수는 한자에 연관시키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고린내’를 옛날에 ‘고려’ 사람들이 몸을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 냄새를 ‘고려+入+내’, 즉 ‘고린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 등이다.⁵⁾ ‘생각’이 ‘生覺’으로부터 왔다고 하거나, ‘사랑’을 ‘思郎’에서 왔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 ④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 그 어휘가 발생한 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이후의 역사적 변화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 ⑤ 어휘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 변화의 규칙성이나 언어 변화의 유형 등은 무시되어도 좋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노다지’와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노터치’가 ‘노다지’로 변화하려면 그 설명이 거의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변화유형을 보이는 다른 예들도 없다.
- ⑥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쉽게 각인되기 때문에 쉽사리 그 통념을 깨기가 쉽지 않다.
- ⑦ 외국의 역사가 아닌 한국의 역사에 건강부회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다. 예컨대 아직은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미역국을 먹는다’는 말은 요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떨어진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은 미역국의 미역이 미끌미끌하니까, 그렇게 사용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얼음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미역국을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아직까지 이 말의 원래 뜻은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미역국을 먹는다’는 말은 원래 취직자리에서 떨어졌을 때를 속되게 일컫는 말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을 때, 그 ‘해산’(解散)이란 말이 아이를 낳는다는 ‘해산’(解産)과 말소리가 같아서, 해산할 때에 미역국을 먹는 풍속과 관련하여 이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역국을 먹었다’는 말은 ‘해산’ 당했다는 말의 은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직자리가 떨어진 것과 시험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미역국을 먹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 설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민간어원설이 난무하는 데에는 국어학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전공자들이 민간어원설에 기대어 어원을 밝힐 때 국어학자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아서 오히려 어원에

5) 이 내용은 동언고략(東言攷略)의 기술 내용이다.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불고기’나 ‘닭도리탕’이 그러한 예이다. 불고기는 ‘산적’(散炙)을 거쳐 ‘쇳산적’(쇳에 눌러 놓고 구운 산적), ‘사슬산적’(꼬챙이에 꿰지 않은 산적, 連散炙), ‘너비안이’(廣切肉), ‘너부할미’(너브할미)를 거쳐 1930년대에 ‘불고기’로 정착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고기’가 없어서 일본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비전공자의 말에 현혹되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것을 증명한다.

병식은 불고기 집에서 뒤를 밟아가던 때처럼 경자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1933영원의미소(심훈),178>

5. 어원사전 및 어휘 역사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 작업

어원 연구의 총결산은 어원사전이며 어휘역사 연구의 총결산은 어휘 역사 사전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어원사전과 어휘 역사 사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어원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어원 사전 편찬은 앞으로 반드시 편찬되어야 할 종합국어대사전의 내용 속의 어원 부분을 보충하는 조건으로 편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국어사전의 어원풀이 항목은 결국 그 어휘의 역사를 기술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어원 사전은 어휘 역사 사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원 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 작업은 결국 어휘 역사 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 작업일 것이다.

국어 어원을 포함한 국어 어휘 사전 편찬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 ① 어원을 포함한 어휘 역사 연구의 논저목록 조사
- ② 지금까지 어원 및 어휘 역사가 연구된 어휘항목 조사
- ③ 어원을 포함한 어휘 역사 사전의 기술 내용 결정
- ④ 어원 및 어휘 역사가 과학적으로 기술되었다고 판단되는 어휘항목의 정리
- ⑤ 어원 및 어휘 역사 기술 설명이 가능한 어휘 항목 조사
- ⑥ 기존 어휘 역사 말뭉치 수집 및 정리
- ⑦ 어휘 관련 문헌 조사 및 미입력 문헌의 입력
- ⑧ 검색
- ⑨ 기술, 설명

(1) 어원을 포함한 어휘 역사 연구의 논저목록 조사

어휘역사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원사전이나 어휘역사 연구에 대한 연구업적을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해 놓은 것도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추가하는 작업을 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서가 약 200책, 논문이 약 1400편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2) 지금까지 연구된 어휘 항목 조사

어원이나 어휘 역사를 기술해 놓은 저서나 논문에서 기술된 어휘 항목을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컨대 김민수, 최호철, 김무림(1997), 우리말 語源辭典에는 14,370 개가, 홍윤표 외(미간) 국어 어휘 역사 사전에는 5000개의 항목이 있어서 그 5000개의 표제어를 가려 뽑을 수 있고, 각 어원 사전에서도 그 항목을 뽑을 수 있다. 최소한 20,000여개의 어휘 항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어휘항목에서 복합어는 독립시켜 한 항목으로 목록화하여야 하지만, 파생어 등은 한 항목으로 처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가난’과 ‘가난하다’가 그러한 예인데, ‘가난’ 항목에서 다룬 것을 ‘가난하다’에서 동일하게 설명하는 번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어원을 포함한 어휘 역사 사전의 기술 내용 결정

국어 어휘역사 사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1. 어원

- ① 근원 언어 또는 어족
- ② 궁극적 기저형 또는 재구형
- ③ 차용 관계
- ④ 잘못 알려진 어원
 - ㄱ. 민간 어원설
 - ㄴ. 차용 관련

2. 어휘 역사

- ① 최초의 어형과 그 용례
- ② 마지막 어형과 그 용례(사어인 경우)
- ③ 문헌상 확인되는 최초 출현 문헌명 및 연도
- ④ 문헌상 확인되는 최후 출현 문헌명 및 연도
- ⑤ 형태소 분석(가능한 것만 직접구성성분 분석)
- ⑥ 형태의 시대별 변화
- ⑦ 의미의 변화
- ⑧ 관련어(동일 어기에서 파생된 다른 단어들)
- ⑨ 유의어
- ⑩ 반의어
- ⑪ 연어

이러한 기술은 항목별로 제시하여도 좋고 또 어느 항목은 묶어서 제시하여 주어도 좋다. 여기에서 특히 ④의 잘못 알려진 어원을 삽입한 것은 언중들이 알고 있는 어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이다.

그 일례를 ‘쇼마’를 대상으로 하여 보이도록 한다.

//제목: 국어 어휘 역사사전

//일련번호:

//작성자:

//작성 날짜:

//표제어: 쇼마

//표준어: 소변

//관련 형태: 소마

//관련항: 소변, 小便, 오줌, 오줌, 오줌, 오줌, 오줌

//품사: 명사

//현대 뜻풀이: 소변

//관련 형태: 소마

//관련 한자어: 便, 小解, 去解

//어원:

//차용관계:

//형태소 분석: 쇼(小?) + 마(末?)

//최초 출현 용례:

느릅은 성이 땃땃하니 곡식 곶을 섯그면 룡히 당위를 도게 하며 견매며 쇼마를 흰흰케 하는 나라 <1554구황촬요(만력본),6a>

//용례

그 나라히 네법이 바히 업서 남예 오줌 쇼마를 서로 피티 아니하니 즘싱과 다르미 업더라 <1765을병연행록3,43> 피신 사름이 알고 더운 물을 드리오니 이후는 즘을 즘지 아니시고 상황이 쇼마 보러 가실 제 직희여 가시더라<17xx대송홍망록2:7> 말히디 못히고 사름 꾸짓디 못히고 쇼마 보디 못히니(說不得話 罵不得人 不能去大便) <1760손방연의4:7> 당인이 보고 황망히 쇼마 핀계히고 섬 아래 느려오나늘 쇼동이 ㄱ마니 시를 준대(張寅忽然看見 慌忙推小解 走到階下)<17xx평산냉연 8:108>

//최후 출현 용례:

쇼마 大小便 쇼마보다 <1880한불자전,433> 쇼마*#3小便 (작을) (쇼변-*변) #8쇼마보다 ->오줌 <1897한영자전,604>

//형태의 시대별 변화

//유의어: 소변, 小便, 오줌, 오줌, 오줌, 오줌, 오줌, 쇼피(小避)

//반의어: 大便

//연어: 쇼마 보다

//종합설명:

//끝

\$

(4) 어원 및 어휘 역사가 과학적으로 기술되었다고 판단되는 어휘항목의 정리

지금까지 기술되었던 어원 또는 어휘 역사 관련 연구업적들을 검토하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가 많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느 경우에는 황당무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거나, 민간어원설에 바탕을 두고 주장되는 것이 있거나 학문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것이 있거나, 또는 알타이어에 대한 무지로 엉뚱한 알타이어를 끌어다가 대입시키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어두 자음이 동일하다고 ‘홍윤표’와 ‘황영필’이

친족이 되는 우스운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가려내는 일이 필요한데, 어느 경우에는 국어사 연구자라도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어원 및 어휘 역사 기술 설명이 가능한 어휘 항목 조사

발표자의 경험에 의하면 어휘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항목을 설정할 때, 대개는 국어사전이나 고어사전을 뒤져서 어원이나 어휘역사 기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휘 항목을 찾아 놓고, 자료를 검색하여서 기술과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어원이나 어휘 역사를 기술하려고 할 때 가장 쉽게 선택되는 어휘들은 대체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고 각 형태소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다. 대체로 한자어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어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어휘와 일반인들이 가지는 관심 어휘는 매우 다르다. 대체로 국어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어휘 중에서도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15세기 문헌부터 등장하는 어휘들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19세기말이나 20세기초부터 등장하는 어휘들은 제외시키는 편이다. 이러한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오히려 어휘의 역사나 어원을 찾기 쉬운 것은 최근에 생성된 어휘들이다. 특히 현대에 빈도수가 높게 사용되는 한자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어휘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편이다. 예컨대 ‘물리’(物理)나 ‘화학’(化學), ‘수학’(數學) 등의 어원이나 어휘 역사는 거의 연구·기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 이 어휘들이 등장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유입된 어휘인지 그리고 그 용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이 궁금한 편이다.

(6) 기존 어휘 역사 말뭉치 수집 및 정리

어원 및 어휘 역사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정밀한 말뭉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어휘 관련 문헌 자료들을 입력해 놓은 말뭉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뭉치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① 역사 자료 말뭉치

역사 자료 말뭉치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말뭉치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 ㄱ. 어휘 자료 말뭉치 (재물보, 물명고, 물보 등)
 - ㄴ. 이두 자료 말뭉치
 - ㄷ. 한자 자석 자료 말뭉치 (천자문, 유합, 훈몽자회, 아학편 등)
 - ㄹ. 고소설 자료 말뭉치(판본 및 필사본 포함)
 - ㅁ. 고시가 자료 말뭉치 (시조, 가사 등)
- 구결 자료는 주로 형태부 관련 자료이어서 크게 필요하지 않다.

② 현대국어 말뭉치

- ㄱ. 남한의 말뭉치
- ㄴ. 북한의 말뭉치

- ㄷ. 중국 조선어 말뭉치 포함
- ㄹ. 신문 말뭉치
- ㅁ. 잡지 말뭉치

③ 현대국어 구어 말뭉치

현대 구어 말뭉치로서는 구비문학대계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④ 사전 말뭉치

- ㄱ. 고어사전
- ㄴ. 현대국어 사전
- ㄷ. 기타 다양한 사전 말뭉치

현재 구할 수 있는 사전 말뭉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7세기 국어사전(홍윤표 외)	가사문학집성(임기중)
고전소설독해사전(이광호 외)	국어대사전(금성사)
국어어원사전(김민수 외)	로한자전(푸짚로(1874))
신어사전(1946년)	신어사전·인명사전(1935년)
神話·想像世界辭典	어휘의미망사전(KAIST)
연세한국어사전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의성의태어사전	이조어사전(표제항)
조선말대사전(북한)	조선말사전(북한,1962년판)
조선어사전(문세영)	조선어사전(심의린)
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	중조대사전(색인)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사전(배주채)
한불사전(리델)	한어대사전(중국)
한영사전(계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서상규 외)	

④ 한자어 자료 말뭉치

현재 확보되어 있는 한자어 자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어록해 류 말뭉치
- ㄴ. 기타 자서류(字書類) 문헌 말뭉치

⑤ 방언 말뭉치

현재 발표자가 준비해 놓은 방언 자료 말뭉치는 다음과 같다.

- ①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② 김영배(1997), 평안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 ③ 김영태(1975), 경상남도 방언연구(I), 진명문화사.
- ④ 김태균(1986),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 출판국.
- ⑤ 이기갑 외(1997), 전남방언사전, 전라남도.

- ⑥ 현평효 외(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 ⑦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1-9.
- ⑧ 이상규(2000), 경북 방언사전, 태학사.
- ⑨ 서울대학교(1997), 한국 방언사전
- ⑩ 한영목(1999), 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 ⑪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 관련 자료
- ⑫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 관련 자료
- ⑬ 국어대사전(금성사)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 관련 자료
- ⑭ 국립국어원(2006, 2007), 지역어 조사 자료집.

현재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양의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학 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입력한 말뭉치를 합치면 상당량이 될 것이다. 한자 자석 자료도 발표자는 천자문을 비롯한 약 300여책의 자료를 입력하여 놓고 있다. 한자 자석 역사사전을 간행하기 위한 작업으로 준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세종계획의 ‘한민족 언어 정보화’ 팀에서 구축한 방언자료들도 있어서 그 검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각 단어마다 방언형과 그 분포지까지 파일로 제시되어 있어서 국어의 어원 및 어휘 역사 연구를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7) 어휘 관련 문헌 조사 및 미입력 문헌의 입력

지금까지 국어사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왔던 국어사 자료들은 주로 판본 자료들이었다. 그러나 어휘사 관련 문헌들은 대부분 필사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휘’란 단어가 일본어로부터 들어온 시기가 1920년대이었고, 그 이전에는 ‘어휘’란 의미로 쓰이던 어휘는 ‘물명’이었다. 이들 물명들을 수집 정리하여 놓은 문헌들은 판본이 거의 없다. 물론 이들 물명 자료들은 그 표제항이 한자어이어서 국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들 표제항과 풀이말을 뒤바꾸면 국어 대 한자어의 대역 어휘 사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문헌 자료들은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입력도 되어 있지 않아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들 자료들을 목록화하고 이들을 입력하여 어휘역사 사전 편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⁶⁾

이만한 자료들이라고 한다면 어휘역사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원 및 어휘 역사 사전을 집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과 시간이 확보 되는 일이다.

(8) 검색

(9) 기술, 설명

6. 맺음말

6) 이들 자료의 목록은 홍윤표(2018), 물명의 연구 방법과 과제, 한국어사연구 4를 참조하기 바란다.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로서 어원을 포함한 어휘 역사 사전 편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편찬 과정 등을 기술·설명하였다.

어원 연구 및 어휘 역사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꽤나 있었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라고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 발표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물들을 재수집·재검토하여 재정비해 놓고, 이러한 기초 작업 위에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절실한 바람인지도 모르겠다. 곧 어원이나 어휘의 역사 연구가 국어학계에서 별도로 독립된 분야로 평가 받고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별도 모임의 설립도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인간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인 어휘를 연구함으로써 국어학 연구가 제 자리를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헌규(1988), 韓國語 語源研究史, 集文堂.
강헌규(2003), 국어어원 통사, 이회.
劉昌惇(1971), 語彙史 研究, 宣明文化社.
송민(1999), 『韓國語と日本語のあいだ』(Korean and Japanese in Comparative Perspective),
이기문(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趙恒範 編(1994), 國語 語源研究 叢說(I), 太學社.
조항범(2009),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홍윤표 외(미간) 국어 어휘 역사 사전, 태학사.
홍윤표(2008), 국어 어원 연구에 대한 관건, 한국어학 39
홍윤표(2018), 물명의 연구 방법과 과제, 한국어사연구 4.
홍윤표·심경호(1993),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國語 語源辭典의 研究成果

김무림(강릉원주대학교)

1. 導入

1.1. 記述의 範圍

어원(語源, etymology)은 말의 근원이다. 말의 본질이나 기원을 찾는 것은 인간이 지닌 반성작용(反省作用)의 하나이다. 말이라는 것이 인간의 특성을 짓는 결정적 요소인 것을 감안하면, 어원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 물음에 속한다. 이러한 물음을 나타내고 그에 대한 답을 모색했던 일은 국어를 사용한 우리의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어원에 대한 탐구는 말의 성립이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어려운 범위에 있어서 정곡(正鵠)에 다다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어원론을 전개하여 단편적인 기록을 남기거나, 또는 여러 어휘에 대한 어원적 견해를 수집하고 여기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문필 작업은 비록 주관적 견해에 치우쳐 있더라도 크게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전(辭典, dictionary)'의 형태를 갖추어 어원론을 전개하여 '어원사전(語源辭典)'을 편찬한다는 것은 전범(典範)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공공성(公共性)의 기준에 의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어 어원사전의 연구성과를 개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에서 어원론을 전개한 경우는 일반 국어사전의 표제어에서 가능한 어원을 설명하고 풀이한 경우가 있고, 어원을 밝힐 수 있는 표제어만을 선별하여 독립적인 어원사전을 편찬한 경우도 있다. 본고의 주요 대상은 후자에 있지만, 전자의 성과를 통하여 어원사전의 발전과 성립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현대적 의미의 국어사전이나 어원사전의 편찬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므로, 근대의 경우는 사전의 의의(意義)를 지니는 몇몇 저작(著作)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도 비록 '사전(辭典)'은 아니지만, 자모순(字母順)에 따라, 또는 의미 유형에 따라 어휘를 배열하고 어원 풀이를 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저작(著作)을 사전과 구분하여 '어원집(語源集)'이라고 부르겠으며, 본고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2. 語源의 性格과 語源辭典의 編纂

어원사전의 성격은 해당 언어의 계통적 위치와 관련이 깊다. 인구어족(印歐語族)의 경우는 같은 계통에 있는 언어들과 비교가 가능하여 같은 어족에 속하는 언어 사이의 역사적 관계가 기술의 주요 대상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전은 조어(祖語)를 재구하여, 각 언어의 어휘 형태가 어떻게 연결되고, 그 변화의 과정에는 어떠한 규칙이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게 된다. 영어사전에서 'father'와 'beef'에 대한 어원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어사전에서 'father'와 'beef'

가. father [ME *fader*, OE *fæder*; c. G *Vater*, L *pater*, GK *patér*, Skt *pitar*, Ir *athair*, Arm *hayr*]

나. beef [ME < OF *boef* < L *bov-* (s. of *bōs*) ox, cow; akin to cow]

차용어가 아닌 영어 'father'의 어원란을 통해서 자체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동원어(同源語)에 의한 기원적 어원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借用) 관계는 같은 어족(語族)일 경우 오히려 파악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다. 영어 'beef'의 어원란을 보면 중세영어에서부터 쓰인 'beef'가 고대 프랑스어에서 차용된 것임을 보여준다. 같은 라틴어 뿌리를 가진 어휘라고 하더라도 기원적 유래를 가진 'father'와 차용어인 'beef'의 역사적 위치는 다르다.

어족(語族)이라는 계통성을 수립하기 어려운 언어의 어원론은 필연적으로 내부적 시선에 한정되며, 외부로 향하더라도 거의 차용에 한정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어족이 수립되지 않은 언어로는 국어와 일본어가 대표적이다. 『日本國語大辭典』(小學館, 1975)에서는 어원 풀이가 가능한 표제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語源說'을 보여준다.

(2) 『日本國語大辭典』의 표제어 とも【友、朋、伴、部、侶、共】에 대한 語源說

가. (1)何事も諸共にするので, トモ(共)の義(和句解・箋注和名抄・言葉の根しらべ=鈴江潔子).

나. (2)トは与の義(名言通). また, モはモロ(諸)の義(國語溯原=大矢透).

다. (3)朝鮮語 tong-moで, 同胞の義(大言海・外來語辭典=荒川惣兵衛).

라. (4)中國語 tong(同), tom(党)から〔外來語辭典=荒川惣兵衛〕.

마. (5)床を同じくするので, トコロの反(名語記).

바. (6)トヒモリ(間守)の義(日本語源學=林甕臣).

사. (7)トタモチ(登持)の略(紫門和語類集).

아. (8)トほ接續の義, モほミ(身)の轉か〔國語の語根とその分類=大島正健〕.

자. (9)止り集まるの義(國語本義).

계통론이 수립되지 않은 언어의 경우 (2)에 보인 바와 같은 각종 '어원설'의 제기가 불가피하다. 다양한 어원설 속에 정답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원설이 난무할수록 정답은 그곳에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어원설을 제기하면서, 또는 어원설을 소개하면서 항상 괄호(括弧)를 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원(語源)'이라는 말 자체에는 '원천(源泉)'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의 어원 탐구는 원천이 아닌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다는 함의(含意)가 있다. 막힌 궁극이 아니라 계속 열리게 될 또 다른 문(門)에 서는 것이 어원론의 숙명이다.

2. 近代 및 開化期の 語源集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조선 후기는 이용후생(利用厚生)과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주장한 실학(實學)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언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볼 만한 어원론이 전개되었다. 성리학의 틀을 벗어나 내용적으로 백과(百科)의 지식을 추구하던 실학의 시대에 어원에 대한 관심에 따라 어원집이 편찬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근대의 어원집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저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근대에 편찬된 어원집 관련 저작

- 『芝峯類說』(李睟光, 1614): 卷十六 語言部 俗諺, 卷十七 雜事部 名號
- 『靑莊館全書』(李德懋, 1775~1780)
- 『華音方言字義解』(黃胤錫, 1780년대)
- 『東韓譯語』(李義鳳, 1789)

- 『茲山魚譜』(丁若銓, 1814)
 - 『雅言覺非』(丁若鏞, 1819)
 - 『物名類攷』(柳僖, 1824年頃)
 - 『東言考』(朴慶家, 1836)
 - 『松南雜識』(趙在三, 1855)
 - 『東寰錄』(尹廷琦, 1859)
- 등등

근대의 어원론은 민간어원(民間語源, folk etymology)과 한자(漢字)에 의한 부회(附會)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정약용의 『雅言覺非』는 부적절한 해석을 제외하면, 현대의 관점에서 손색이 없는 어원론을 전개하여 주목된다. ‘以豕爲豚豕亦云돏아지然아지者獸子之名豕豈子乎’(권1-31), ‘套袖 謂之吐手者 華音之誤翻也 華音套袖作돏수’(권2-17) 등에서 고유어와 한어 차용어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다.¹⁾

3. 現代의 語源集 및 辭典 編纂

3.1. 現代의 어원 관련 저작

개화기 이후의 어원에 대한 탐구는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서 서구(西歐)의 문물에까지 시야가 넓어지고, 민속어와 같은 고유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개화기에 이어서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의 저술과 논문에서는 본격적인 현대 어원론이 시작되었다.

(4) 현대의 어원집

- 張志淵: 『萬國事物紀原歷史』(1909, 아세아문화사/1978)
- 李能和: 『朝鮮巫俗考』(계명구락부, 1927), 『朝鮮解語花史』(한남서림, 1927)
- 崔南善: 『朝鮮相識問答』(동명사, 1946~1947), 『朝鮮相識』(동명사, 1948) 등
- 方鍾鉉: 『一蓑國語學論集』(민중서관, 1963)
- 梁柱東: 『朝鮮古歌研究』(박문서관, 1942)
- 田蒙秀: 『朝鮮語語源志』(적성사, 1947)
- 南廣祐: 『國語學論文集』(일조각, 1960)
- 劉昌惇: 『語彙史研究』(선명문화사, 1971)
- 金善琪: 『옛적 노래의 새풀이-향가신석』(보성문화사, 1993)
- 李基文: 『國語語彙史研究』(동아출판사, 1991)
- 李南德: 『한국어 어원연구 I · II · III · IV』(이대출판부, 1985~1986)
- 朴甲千: 『말』(한림각, 1965), 『語源隨筆』(을유문화사, 1974)
- 沈在箕: 『國語語彙論』(집문당, 1982)
- 朴炳采: 『古代國語學研究』(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 최창렬: 『우리말 語源研究』(일지사, 1986)
- 한진건: 『조선말의 어원을 찾아서』(연변인민출판사, 1990)
- 신용태: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1, 2』(서광학술자료사, 1993, 1994)
- 都守熙: 『百濟語 語彙 研究』(제이앤씨, 2005)

1) 『雅言覺非』에 달린 華音은 『譯語類解』(1690)나 『華東正音通釋韻考』(1747) 등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 홍윤표: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태학사, 2009)
 - 千素英: 『古代國語의 語彙研究』(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 려종률: 『조선말단어의 유래』(금성청년종합출판사, 2001)
 - 김인호: 『어원유래상식 1, 2』(사회과학출판사, 2005, 2009)
 - 이재운·박숙희·유동숙: 『우리말 어원 500가지』(위즈덤하우스, 2008)
 - 김양진: 『우리말 수첩』(정보와사람, 2011)
 - 이동석: 『시어의 어원 연구』(한국문화사, 2015)
 - 조항범: 『우리말 어원 이야기』(예담, 2016)
 - Ramstedt, G. J. *Studies in Korean Etymology*(MSFOu 95, 1949)
- 등등

현대의 어원 관련 저술은 논문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²⁾ 위에 든 저술들은 눈에 띄는 대로 열거한 것이므로, 어원집의 일면을 보여준 것일 뿐이다. 오히려 어원사전의 편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원 관련 저술들이 집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논문 형태의 저술이라도 (4)에 열거한 어원집의 성격을 지니는 것도 있다. 李基文(2012)의 「語源 研究의 뒤안길」은 마치 수필 같은 제목이지만, 99개의 어휘를 사전식으로 나열하여 자세한 어원 풀이를 하였다.

3.2. 국어사전의 뜻풀이에서 語源을 다룬 경우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국어사전은 심의린(沈宜麟, 1894~1951)이 편찬한 『普通學校 朝鮮語辭典』(以文堂, 1925)이지만, 본격적인 국어사전은 문세영(文世榮, 1888~?)의 『朝鮮語辭典』(博文書館, 1938), 그리고 ‘조선어 학회’가 지은 『조선 말 큰 사전』(을유문화사, 1947)이다. 이러한 초기의 국어사전에서 어원은 뜻풀이의 방법으로 부가(附加)되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초기의 국어사전에서 어원과 관련된 뜻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5) 초기의 국어사전과 어원 풀이

가.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에서

- 가난 𪎠 간난(艱難)에서 온 말.

• 건달(乾達) 𪎠 일정한 주소·직업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건설방. 날탕. (원래 건달은 범어(梵語)의 건달파(乾達婆)에서 온 말인데 건달파는 주색·음악들에 빠진 중).

나. 조선어 학회의 『조선 말 큰 사전』에서

- 가게 【이】 ①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집. ② 임시로 물건을 벌리어 놓고 파는 곳.

③ 임시로 허름하게 지은 집. (①②③ 가게). (원말: 가가=假家).

- 게라-즈리(←Galleyズリ) 【이】 =교정쇄(校正刷).

• 고수레¹ 【이】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푸닥거리를 할 때에, 음식을 조금씩 떼어 던지며 외치는 소리. 단군 때에 고시(高矢)라는 사람이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데서 생겼다는 말. (고시네. 고시래. 꼬시레) --하다 【제.여벗】

- 고자(鼓子) 【이】 생식기의 불완전한 사내. (화자=火者. 내관=內官②). (옛말:고자)³⁾

2) 어원 관련 논저는 『우리말 語源辭典』(1997: 1261~1309)의 ‘사료문헌’에 거의 망라되어 있다.

3) 현대의 거의 모든 국어사전에 ‘고자(鼓子)’로 되어 있으나, 중세국어 형태는 ‘고자(훈몽자회 중-2, 신증유합 상-17)’이므로, ‘鼓者’라면 가능하겠으나, ‘鼓子’는 될 수 없다.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子(즈)’

• 고추-장【이】 멍쌀이나 찹쌀이나 보리로 지은 밥이나 떡을 만든 가루에, 메줏 가루를 섞어 으개어 삭혀서,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고 다시 멩개서 담가 익힌 반찬의 한 종류. (고초장=苦草醬).

『朝鮮語辭典』과 『조선 말 큰 사전』의 어원에 대한 풀이는 형태의 유래에 대한 풀이가 대부분으로서 본격적인 어원 풀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이후의 국어사전에서도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朝鮮語辭典』의 ‘일러두기’에는 ‘어원’에 대한 항목이 따로 없지만, 『조선 말 큰 사전』의 범례(凡例)에는 다음과 같이 ‘5. 어원(語源)의 표시’라는 항목이 있다.

(6) 『조선 말 큰 사전』의 범례에서

5. 어원(語源)의 표시

1. 어휘 자체로서 이미 어원이 나타난 것은 따로 어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해석 가운데 짐짓 어원 된 말을 써서 설명을 겸하기도 하고, 혹은 주해 끝에 소개함으로써 대신하기도 하였음. 이를 테면:

결끔거리다---결끄럽고 뜨끔거리다. 멍쌀---(옛말: 뫼쌀)

따위와 같음.

2. 한자 말이나 외래어는 () 안에 한자나 로마 글자를 적되, 로마 글자에는 각각 원어(原語)의 국명(國名)을 부호로써 밝히고, 만일 발음이 변한 것은 ←표를 앞에 두었음. 이를 테면:

문명(文明) 아이스크림(영Ice-cream) 가나(일力ナ=假名) 고무(←프Gomme)

따위와 같음.

실용과 규범의 측면에서 현대를 이끈 대표적인 국어사전은 『국어대사전』(民衆書館, 1961)이다. 『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는 ‘어휘의 수록, 표제어, 어휘의 배열, 맞춤법,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어법의 표시, 해석의 방식, 삽화, 외래어, 부록’ 등의 총 11항목에 걸쳐 있으며, ‘어원의 표시’는 여섯 번째 항목에 놓여 있다. 모두 4개의 항목으로 나열된 어원 표시의 내용은 『조선 말 큰 사전』에 비하여 좀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 말 큰 사전』과 『국어대사전』의 계통을 잇는 어원의 풀이는 이후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최대한 확장된다. 이 사전의 ‘일러두기’는 모두 17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네 번째의 항목에 ‘어원 정보’가 있다. 열거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표준국어대사전』 ‘일러두기’의 ‘어원 정보’

01 제시 범위

(1) 로마자 이니셜로 이루어진 단어의 원말, 어원적 분석, 어원, 최초 출현형 및 역사적 변천은 뜻풀이 맨 끝 [] 안에 제시하였다.

(2) 어원적 분석은 현대 고유어 표준어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와 같은 문법 요소는 원래 어휘 요소였던 것만 선택적으로 제시하였다.

(3) 복합어의 구성 성분이 이미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어원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복합어에서 별도의 어원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다.

와 ‘耆(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

성냥01 「명사」 마찰에 의하여 불을 일으키는 물건. 작은 나뭇개비의 한쪽 끝에 황 따위의 연소성 물질을 입혀 만든다. 황린(黃燐), 적린(赤燐), 무린(無燐) 성냥 따위가 있다. ≡양취 등. 【<석류황<언태><石硫黃】

성냥-불 [--뿔] 「명사」 성냥으로 켜는 불.

(4) 역사적 변천에서 의미가 있는 형태만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단순히 표기상의 차이만 있는 형태는 제시하지 않았다.

02 로마자 이니셜로 이루어진 단어의 원말: (내용 생략)

03 어원적 분석

(1) 복합어 또는 구의 형태가 많이 변하여 원래의 모습을 알기 어려우면 어원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 구성 요소 가운데 현재 남아 있지 않은 단어가 들어 있으면 그 속에서 최초 출현형을 밝혔다.

<예>

단-무지 「명사」 무를 시들시들하게 말려 소금에 절여서, 쌀의 속겨로 격지를 지어 담가 만드는 일본식 짬지. ≡무절이. 【←달-+-ㄴ+무+지[<다이<디히<가연>]】

부라-부라 「부사」 매우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 【←불+-이+-야+불+-이+-야】

(2) 표제어의 붙임표(-)로 어원적 분석을 대신할 수 있거나 표제어의 붙임표(-)가 없어도 명백히 복합어로 인식되는 경우는 어원적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예> : (내용 생략)

04 어원

(1) 현재는 고유어처럼 생각되나 원래 한자어이었거나 몽골어, 중국어 따위의 차용어에서 변한 단어는 어원을 밝혔다. 이 경우 원어 정보에서는 아무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다.

<예>

감자01 「명사」 …… 【<甘藷】

고무01 「명사」 …… 【<<프> gomme】

보배 [보:-] 「명사」 …… 【<보비<용가><<중>寶貝】

☞ 이 경우는 한자어라기보다는 중국어 차용어이므로 언어명을 밝혀 준다.

성냥01 「명사」 …… 【<석류황<언태><石硫黃】

(2) 간접 차용한 단어인 경우 원래의 언어를 어원 정보에서 제시하였다.

<예>

일본어를 통한 예: 빠꾸(<일>bakku) 「명사」 …… 【<back】

한자어를 통한 예: 와사02(瓦斯) 「명사」 …… 【<<일>gasu [瓦斯]】

(3) 표제어의 일부 성분만이 차용된 경우에는 그 원어를 어원을 밝히는 자리에서 '[]' 안에 밝혔다.

<예>

가라-말 「명사」 …… 【< 가라물<번노>← 가라[<<몽> qara]+물】

기와01 「명사」 …… 【< 지와 [< -瓦] 지새< 디새<석상>← 딜+새】

05 최초 출현형 및 역사적 변천: (내용 생략)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어원 풀이는 『국어대사전』(1961)에 비교하여, 특히 형태의 분석과 형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 역사적 재구형(再構形)을 부분

적으로 시도한 것이나 의미의 변화를 보인 것 등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형태 분석 이전의 내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어원에는 접근하지 않았다. 이것은 규범적인 국어 사전으로서 주관성이 개재될 수 있는 어원론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⁴⁾ 이러한 성격에 드는 국어사전으로는 신기철·신용철의 『새 우리말 큰사전』(삼성출판사, 1974/초판, 1983/제3차수정증보),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어문각, 1992), 사회과학출판사의 『조선말 대사전』(199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2009) 등이 더 있다.

규범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원적 견해를 풀이에 넣은 최초의 국어사전으로는 『금성판 국어 대사전』(1991)이다.⁵⁾ 여기에서는 어휘의 성격에 따라 ‘1차 어원’과 ‘2차 어원’으로 나누어, 차용어의 범위에 드는 한자어 및 외래어를 대상으로 원어(原語)를 밝히는 것을 1차 어원이라고 하고, 순우리말을 비롯한 나머지 어휘에 대한 것을 2차 어원이라고 하였다. 어원 풀이에 있어서 『금성판 국어 대사전』의 특징은 2차 어원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일러두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금성판 국어 대사전』 ‘일러두기’의 ‘4.2. 2차 어원’

4.2.1 순 우리말

부역[-역] 囙 [√불[火]+섭[側, 傍]]

4.2.2 순 우리말화한 것

붓¹ [붓] 囙 [√筆: ‘筆(필)’의 중국 상고음은 piet]

빵 囙 [√(포)pāo].

가라-말 囙 [√(만)kara[黑]+√말[馬]]

4.2.3 이중(二重) 이상의 국적을 거친 말

게라 囙 [√(일)ゲラ<√galley]. ① ⇨갯리(galley) ② ‘게라새’의 준말

4.2.4 어형(語形)의 역사적 변천

가을 囙 [→ 𠄎 𠄎 𠄎 (月序 16) > 𠄎 𠄎 (訓蒙 上1) > 𠄎 𠄎 (類合 上2) > 가을]

4.2.5 민간 어원(民間語源)

4.2.6 고사 성어(故事成語)

4.2.7 번역어의 원어

자유 전자(自由電子) 囙 [free electron]

4.2.8 외래어의 본 뜻

컨디션(condition) 囙 [‘형편’, ‘상황’의 뜻]

4.2.9 학명(學名)

개:나리¹ 囙 [√개[浦]+√나리[百合]]. → 犬伊那里(鄉方)/犬伊日(鄉藥)/介伊日伊(鄉集) > 개나리(救急簡 3:31) [Forsythia koreana]

1차 어원은 기존의 국어사전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었던 것이지만, 2차 어원에서 제시한 어원 풀이는 진전된 어원 풀이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정설로서 확립되지 않은 어원론은 유력한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4) 근래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의 ‘국어 어휘 역사’라는 항목에서 ‘세기별 형태’와 ‘종합설명’을 참조하면 어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어원란의 작성에는 金敏洙(1926~2018) 대표 편집위원의 지도 아래 최호철(崔鎬哲), 김무림(金武林), 이윤표(李胤杓) 등이 참여하였다.

3.3. 語源辭典의 編纂

어원만을 단독으로 다룬 ‘어원사전’은 여러 종류가 있다. 국어사전의 내부에서 어원을 다룬 경우는 비록 주관적인 견해를 참조한 경우라도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한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원사전’은 편찬자의 주관적이거나 독단적인 견해가 유감없이 발휘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어느 경우에도 어원적 진실은 하나인 것이므로, 비판적 안목을 지니지 못한 독자에게는 ‘어원사전’의 여러 견해가 ‘다양(多樣)’이 아니라 ‘혼란(混亂)’이 된다. 편찬된 어원사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9) 각종 語源辭典

- 안옥규(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박일환(1994), 『우리말 유래사전』, 우리교육.
- 김민수(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 徐廷範(2000), 『國語語源辭典』, 보고서.
- 조영언(2004), 『한국어 어원사전』, 다솜출판사.
- 姜吉云(2010),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 김무림(2012), 『한국어 어원사전』(개정판, 2015), 지식과교양.
-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 사전』, 박이정.
- 서정범(2018), 『새국어어원사전』(박재양 엮음), 보고서.

이상에서 열거한 어원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간략(簡略)하거나 자세(仔細)하다는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원에 접근하는 학문적 태도에 차이가 있다. 학문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국어(우리말, 國語, 韓國語, 朝鮮語, Korean)’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다. 언어는 같은 어족(語族)의 언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비교언어학적 시각이 그 하나이며, 확인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연결선은 취약하기 그지없으므로 내적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시각이 다른 하나이다. 후자의 시각, 곧 국어사적 시각은 국어 계통론이 확립되지 않은 현실에 기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하에서는 아홉 종류의 어원사전을 뜻풀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3.3.1. 比較言語學的 語源辭典

조영언(2004), 姜吉云(2010), 서정범(2018) 등의 어원사전은 비교언어학적 시각에서 편찬되었다. 특히 姜吉云(2010)은 우리 민족의 주류가 길약족(=니그분족)과 동계인 토착민이고, 여기에 유입된 소수의 여러 종족들, 즉 드라비다족(=가야국, 후기 백제의 지배층), 몽고족(=맥족), 터키족(=위만조선, 김씨신라의 지배층), 아이누족(석씨신라의 지배층), 만주족(=단군조선, 예족, 박씨신라의 지배층), 한족(漢族) 등의 다민족이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어원론은 자연 이러한 민족의 언어와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교언어학적인 어원사전에서 득의(得意)의 풀이는 단일 형태로 이루어진 고유어에 대한 것이다.

(10) ‘개다(晴)’에 대한 조영언(2004), 姜吉云(2010), 서정범(2018)의 어원 풀이

가. 조영언(2004: 23), 개다[=날씨가 맑아지다]

조선 개다[晴](유창돈) 참고: 알타이어 (몽골어군) 문어몽골어 gei- ‘빛나다, 빛을 받하다, 빛

을 내뿜다, 맑아지다, 날이 새다, 밝아지다, incarnate(구체화하다, -의 화신이 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 (ge)gegere- ‘날이 새다, 밝아지다, 맑아지다, 개다, 개화되다, 문명화되다’, gegegetei ‘빛나는, 밝은’, gegerel ‘교육, 개화, 문명화, 문화’, geigül- [gei-의 사역형] ‘밝게 하다, 즐겁게 하다’, geilge- [gei-의 사역형] ‘밝게 하다, 비추다, 조명하다, 행복하게 하다’(Les. 374, SKE 85)

나. 姜吉云(2010: 67), 개:다 𣎵

(뜻)흐리거나 굶은 날씨가 맑아지다(晴) (뿌)이 말은 hal/halli(폴림·녹음, Turk)·gei-(개다·맑아지다·밝아지다, W.Mo)·gala-(개다, Ma)·karala-(밝아지다, Gily)·hare-ru(개다, Jap)·kara-t’o(개인 모양, Jap) 등과 비교될 수 있으나, 여기서 gala-와 직접 대응되는 고유어일 것이다. 즉 *gei->kē->kā와 같은 변화는 간모음 -e>a의 변화가 부자연스러운 데 반하여, gala-는 인접한 만주족의 언어이고 동게어가 karala-이고, 우리말의 차용어인 일본어가 kara-/hare-인 데다가, *gala-.kara->kari>kai->kä-(개:-)의 변화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따라서 ‘개다’의 어원은 gala-(개다)와 ‘개:-’의 공통기어 *kala-(개:다·晴)로 추정되는 고유어일 것이다.

다. 서정범(2018: 42), 개다 𣎵 晴

날이 갠다는 것은 태양이 나온다는 뜻이다. 해거름(黃昏)의 ‘거름’도 해와 관련될 것이다. ‘거름’의 ‘걸’이 해의 뜻을 지니는 말이다. 𣎵개다(晴) : 하늘이 개니(天晴)《杜初23:20》. ‘개다’의 어간은 ‘개’로서 명사다. ‘개’는 ‘가이’가 준 말로서 ‘갈>갈>갈이>가이>개’의 변화다. ‘갈’은 해의 뜻을 지닌다. gere(光)(蒙). 몽골어 gere(光)는 본디는 해의 뜻을 지니는 말에서 전의(轉義)된 말이다. 국어 빛깔의 ‘깔’도 해의 뜻에서 빛(光), 해(日), 색(色)의 뜻으로 전의되었다. 일본어 hikari(光)는 구어 ‘빛깔’이 그대로 반영된 말로서 kari가 빛(光)의 뜻을 지니지만, 본디는 해의 뜻이다. gün(日)(터키). 𣎵글피(外後日)《朴重中5》. 글피의 ‘글’이 해의 뜻이다. galgaoho(晴, 개다)(滿)의 어근 gal이 해의 뜻을 지니고 있다. kuyax(太陽)(위구르), kuyaxnuri(陽光)(위구르).

이상과 같은 사전의 어원 풀이에서 조영언(2004)은 주변의 언어 형태와 단순한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姜吉云(2010)의 풀이는 주변 언어 형태와의 비교를 통해서 공통기어(共通基語)의 개념인 원시 형태의 재구에 초점을 두었다. 서정범(2018)에서는 형태의 비교와 변화를 통해서 원래의 기본 의미에 도달한다는 어원적 의도를 풀이에 반영하였다. 이들의 비교언어학적 검토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차치(且置)한다면, 어원 풀이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은 ‘뜻’에 초점을 둔 서정범(2018)이다.

3.3.2. 學史的 語源辭典

실질적 의미에서 국어 어원사전의 최초는 『우리말 語源辭典』(김민수 편, 최호철·김무림 편찬, 태학사/1997)이다. 이 어원사전의 특징은 기존의 어원에 대한 논저(論著)를 제시하면서, 해당 표제어에서는 어원 풀이 뒤에 이들 어원론의 성과를 번호를 붙여 나열하여 보여준다. 어원론의 성과에는 민간어원(民間語源, folk etymology)도 포함되어 있다. 표제어에 대한 어원 풀이는 독자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수의 어원 풀이는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가져온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이 사전의 어원 풀이와 뒤에 이어지는 기존의 풀이를 검토하면 연구사적 검토를 할 수 있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우리말 語源辭典』(1997: 80)의 ‘계집’

계:집 ㉠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어원 √겨-[在]+√집[家]. 변화 겨집(월석 1:8) > 계집. 참고 ① √겨-[在]+√집[家](劉昌惇 1954.2.1, 김형규 1956.10.20). * ‘계시다’의 고행 ‘겨시다’는 ‘겨 + 시-다’로 분석되므로, 이로부터 ‘겨’를 추출할 수 있다. ② √제[自]+√집[家](洪起文 1934.5.27-31). ③ √갓[婦女]+√집[家](이탁 1967.8.31). ④ √결[族]+√집[家](徐廷範 2000.11.25:45-46). 민간 女를 ‘계집’이라 혹은 臂(音에 게 | 라)止邑(문은 國文의 邑과 如하나라)(東言攷略 25)]

즉 ‘계집’에 대한 『우리말 語源辭典』의 풀이는 유창돈(1954)의 견해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표제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없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어원론을 전개하거나 어원미상(語源未詳)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우리말 語源辭典』의 최대의 결점은 밝히지 못한 어원미상(語源未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어원론을 전개한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말 語源辭典』을 제외한 여타의 어원사전이 모두 독자적 견해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지만, 편찬을 담당하여 직접 집필에 참여했던 필자로서는 ‘독자적 견해’에 의한 어원 풀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바로잡고 싶을 때가 많았다. 직접적으로는 믿고 임무를 맡기신 金敏洙(1926~2018) 선생님께 죄송하고, 수많은 독자에게는 매우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독자적 어원론의 위험성을 내다보면서, 아울러 투명하지 않은 국어 어원을 회고(回顧)하면서 학사적(學史的) 어원사전(語源辭典)을 구상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오로지 『新國語學史』(일조각, 1979/전정판)를 집필하셨던 혜안(慧眼)의 작용이었다고 생각된다.

3.3.3. 反省하는 語源辭典

어원에 대한 의식은, 그리고 어원에 대한 탐구는 인간이 지닌 불가피한 반성작용(反省作用)이다. 필자는 『금성판 국어 대사전』(1991)의 어원란 작업과 『우리말 語源辭典』(1997)의 편찬 작업을 통해서 어원(語源)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서도, 어원론의 불가피한 한계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처’에 대한 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부처<부터<석상><<중>佛體<<산>buddha】로 되어 있다. 같은 표제어를 『한국어 어원사전』(2015)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약간 수정).

(12) 『한국어 어원사전』(2015)에서 ‘부처’

부처 ㉠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 ② 불도를 깨달은 성인. ③ 불상.

㉠ 범어(梵語) ‘Buddha’를 한어(漢語)에서 음역한 것이 ‘佛陀, 浮屠, 浮圖, 勃馱’ 등인데, ‘佛陀’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줄여서 ‘佛’이라고 한다. 범어 ‘Buddha’는 ‘깨달은 사람[覺者]’을 뜻한다.

㉡ ‘부처’의 중세국어 형태는 ‘부터’였으며, 『均如傳』(1075년)의 향가(鄉歌)에서는 ‘佛體(佛體)’라고 썼다. 중세국어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현대국어 ‘부처’는 구개음화와 단모음화에 의해 ‘부터 > 부처 > 부처’의 변화를 겪었다.

㉢ 한어(漢語)에서는 범어 ‘Buddha’의 음역 한자어를 ‘佛體’로 쓰는 경우는 없으므로, ‘Buddha’의 뜻으로 쓰는 ‘佛體’는 국어 한자어 용법이다. ‘佛體’를 중세국어 한자음으로 읽으면 ‘불테’인데, 고대국어의 시기에 치경음 ‘ㅌ’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일반적인 음운 현상을 겪었을 것이므로, ‘불’이 ‘부’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體’가 ‘터’로 읽히는 것은 ‘體’의 고대국어 한자음이 ‘터’인 것인지, 아니면, ‘테’에서 음절말 반모음 ‘[j]’가 탈락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아마도 고대국어의 이두에서 ‘齊(제)’가 ‘저’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조하면, 고대국어 시기에 ‘體’의 한자음이(특히 차자표기에 있어서) ‘터’로도 읽혔을 가능성이 있다. 혹시 ‘부터’에 조사 ‘-ㅣ’가 연결된 ‘부테’를 ‘佛體’로 표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겠으나, 『均如傳』의 향가를 참조하면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㉔ 중국의 문헌인 『祖堂集』(952년)에 ‘佛體’라는 말이 ‘身現圓月相 以表諸佛體’와 ‘圓相則表諸佛體也’의 구절에서 쓰였지만, 이 경우에는 ‘佛陀’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부처의 몸’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均如傳』의 향가에 거듭 출현하는 ‘佛體’는 ‘佛陀/Buddha’의 뜻으로 쓰였다. 『均如傳』은 1075년에 편찬되었으나, 향가는 均如(923-973)의 작품이므로 ‘佛體’가 쓰인 시대는 10세기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세국어의 ‘부터’가 ‘佛陀’의 한자음에서 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고음이나 중고음을 고려할 때, ‘陀’의 국어 한자음이 ‘터’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均如傳』의 향가를 제외한 국어의 다른 역사적인 문헌에서는 ‘佛體’란 말이 하나의 어휘로서 쓰인 경우는 없다.

㉕ 佛體(불터)

㉖ *佛體(불터) > 부터 > 부처 > 부처

㉗ • 心未筆留 慕呂白乎隱佛體前衣(禮敬諸佛歌)

- 부터 나샤물 나토아(월인천강지곡 상-10)
- 佛은 부테시니라(석보상절 서-1)
- 부처 불(佛, 왜어유해 상-53)

이와 같은 필자의 풀이가 처음부터 제시된 것은 아니다. ‘佛體’의 중세국어 한자음 ‘불테’와 중세국어 어휘 ‘부터’의 연결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것은 고대국어 한자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재구가 ‘부처’의 어원론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생기다’의 어원이 ‘삼다’의 파생어인 ‘삼기다’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형태의 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의문이 쉽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설명과 『한국어 語源辭典』의 풀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3) ‘생기다’에 대한 어원 풀이

가. 국립국어원 ‘국어 어휘 역사’에서

‘생기다’는 ‘삼기다’라는 고어에서 변한 말이다. ‘삼기다’는 동사 ‘삼다’의 어간 ‘삼-’에 ‘-기-’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사 ‘삼다’는 고어에서 ‘되다’, ‘만들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이런 의미의 ‘삼다’가 쓰인 예가 나타난다. <순천김씨연간>에 쓰인 ‘하늘히 그리 삼기니’의 ‘삼기니’는 ‘만드니’, ‘되게 하니’의 뜻으로 쓰였다. ‘삼기다’는 ‘삼기다 > 샘기다(역행동화) > 생기다(연구개음동화)’와 같은 형태 변화를 거친 것이다.

나. 『한국어 어원사전』(2015)에서

생기다 ㉔ 없던 것이 있게 되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㉕ ‘생기다’의 중세국어 형태는 ‘삼기다’이다. ‘생기다’는 중세국어 ‘삼기다’로부터 변화된 형태이므로, 그 어원적 출발은 ‘삼다[爲, 作]’에서 시작된다. 현대국어에서 ‘삼다’는 ‘제자로 삼다, 경쟁의 대상으로 삼다’ 등에서와 같이 ‘무엇을 무엇으로 하거나 무엇으로 여기다’의 뜻이므로 타동사 용법으로 쓰인다. 중세국어에서도 물론 ‘삼다’는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국어보다는 용법이 일반적이고 쓰이는 범위가 넓었다.

㉖ ‘삼기다’는 타동사 ‘삼다’에 접사 ‘기’가 연결된 형태인데, 타동사 용법인 ‘생기게 하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자동사 용법인 ‘생기다’의 의미로도 쓰였다. 그러므로 타동사 용법인 ‘삼기다’는 사동사(使動詞)가 되는 것이고, 자동사 용법인 ‘삼기다’는 피동사(被動詞) 용법에 의한 것이다. 즉 ‘뉘라셔 離別을 삼겨 사름 죽게 혼고(청구영언)’에서의 ‘삼겨’는 ‘생기게 하여’의 뜻인 반면에 ‘天地 삼기실 제 自然히 되연마는(송강가사)’에서의 ‘삼기실’은 ‘생기실’에

해당하는 자동사이다.

㉓ ‘삼기다’의 발음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기다’와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은 ‘감기’와 ‘강기’가 표면 발음에서 잘 분간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현상은 받침 ‘ㄹ’이 뒤따르는 연구개 자음 ‘ㄱ’에 조음위치가 동화되어 연구개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상기다’는 첫 음절의 모음 ‘아’가 두 번째 음절의 ‘이’에 동화되어 ‘애’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마치 ‘당기다’가 일부 방언에서 ‘댕기다’가 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결국 부주의한 발음을 전제로 ‘생기다’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시점에서 언중(言衆)은 ‘생기다’의 어원을 한자어 ‘생기(生起)’와 관련시켜 어휘 형태를 고정시키게 된 것이다. 한자 ‘생(生), 또는 한자어 ‘생기(生起)’와 관련시킨 오류 작용이 없었다면, ‘삼기다’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현대국어에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삼기다’에 작용한 음운 현상들은 다른 어휘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수의적인 발음 현상에 머물러 어휘 형태의 변화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㉔ ‘독립신문’에 쓰인 ‘싱기다’는 사전(字典)에 나타나는 ‘生’의 한자음 ‘싱’을 잘 보여주는 표기이다. 여기에서도 ‘싱기다’의 어원을 한자 ‘生(싱)’과 관련시켰음을 알 수 있다.

㉕ 삼[爲, 作]+기(접사)+다(어미)

㉖ 삼기다 > 상기다 > 싱기다 > 생기다

㉗ • 하날 삼긴 성오로브터 나니(번역소학 8-9)

-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송강가사)
- 뉘라셔 離別을 삼겨 사름 죽게 흥노고(청구영언)
- 노래 상긴 사름 시름도 하도할샤(해동가요)
- 체골이 더 튼튼히 싱겨스니(독립신문 12호)

부분적으로 한자음과 관련된 ‘부처’와 ‘생기다’에 대한 어원 풀이는 형태 변화와 관련하여 필자에 의한 반성(反省)이 반복되었던 항목이다. 반성을 전후하여 어원론의 내용은 당연히 달라진다. 어제의 의욕이 오늘의 반성에 의하여 부끄러움이 된다. 이러한 성취와 파기, 그리고 파기와 성취에 의하여 어원론은 중심을 잡으면서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3.3.4. 『겨레말 큰사전』의 어원 작업

2005년 2월 20일 민족어 공동사전 편찬을 위한 사업회가 결성된 이후,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으면서 『겨레말 큰사전』이 편찬 작업 중에 있다. 『겨레말 큰사전』의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14) 『겨레말 큰사전』의 뜻풀이 방침

가. 언어학적인 뜻풀이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전문 용어를 비롯한 일부 올림말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적인 뜻풀이 방식을 적용한다.

나. 뜻풀이 문장 구성에서는 어떤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보다 친절하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다. 될 수 있는 한 단어의 밑뜻이나 어원 및 유래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올림말에서 발음, 원어,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의 폭넓은 정보를 주되 남과 북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뜻풀이의 세 번째 항목에 어원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실제로 편찬위원회에서는 어원 풀이를 자세히 다룰 표제어를 선정하고, 용역을 통하여 어원 집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 정보에 의하면 주로 고유어에 해당하는 300여 표제어를 어원 풀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고 하며, 한 표제어에 대한 어원 풀이는 대략 A4 한 면 정도의 분량이라고 한다.

하나의 표제어에 대한 어원 풀이가 A4 한 면 정도의 분량이라면, 본 사전의 뜻풀이에 그대로 노출하여 읽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전자사전의 형태에서 따로 어원 풀이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겨레말 큰사전』에서 보여줄 어원 풀이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국어 어원사전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격적인 어원 풀이의 대상이 300여 어휘에 제한된 것은 국어 어원론의 한계라는 점에서 아쉬운 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규범적 의의가 있는 고유어 어원이라면 300여 어휘의 선정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4. 結論

국어 어원사전의 발달은 비교언어학과 국어사의 시각 속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비교언어학적인 어원사전이 상호 논의의 부재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학사적(學史的)으로 불행한 일이다. 과연 이러한 학문적 논의의 결여(缺如)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회의적(懷疑的)인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 비교 대상 언어의 역사적 심층성(深層性)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언어의 어휘 사전을 서로 비교하는 평면적 방법론이 주위의 긍정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어사적 어원사전은 차용어를 포함한 고유어의 어원에 대하여 꾸준히 어휘를 늘려가며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시(提示)와 비판(批判), 그리고 반성(反省)과 성취(成就)에 의하여 어원론의 시각은 내적으로 정밀함을 더해가는 양상이다. 어원집을 꾸리고, 어휘를 모아 체계적인 사전(辭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어원에 대한 논의는 비판 속에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최소한 300여 어휘에 대한 어원론은 제법 신뢰할 수 있다는 근래의 인식은 어원론의 이러한 성장을 지켜보면서 수긍한 까닭일 것이다.

국어 어원론은 분분한 상상과 추측 속에서도 300여 어휘 정도의 근간(根幹)을 토대로 몇 천 단어에 걸쳐서 발전하고 있다. 약간의 비판을 감수한다면, 미상(未詳), 가능(可能), 관견(管見), 의심(疑心) 등의 꼬리표와 함께 제시할 어휘는 아직 많다. 국어 어원사전의 연구성과는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이러한 숙제를 앞에 두고 의욕과 용기를 낼 학자도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姜憲圭(1988), 『韓國語 語源研究史』, 집문당.
 金敏洙(1979), 『新國語學史』(全訂版), 일조각.
 李熙昇(1950), 『國語學概說』, 민중서관.

기타 본문에 제시한 참고문헌은 생략.

“國語 語源辭典의 研究成果”에 대한 토론문

황선엽(서울대학교)

이 글은 국어 어원사전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를 행한 것이다. 어원을 둘러싼 여러 개념과 관점, 어원 연구의 의의 등과 같은 기본적인 논의에서 시작하여 정식으로 ‘어원사전’이란 이름을 내걸고 이루어진 업적 외에도 근대와 현대의 어원집들까지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나아가 ‘부처’와 ‘생기다’와 같은 실제 예들을 바탕으로 어원사전 편찬에 있어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어원사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의 다년간에 걸친 어원사전 편찬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것인바 국어 어원 연구나 어원사전 편찬 등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전체 논의가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충실히 정리된 것이어서 별도로 논의하거나 의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없어 굳이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나 말은 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른 단상 몇 가지를 언급해 두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결론에서 “비교언어학적인 어원사전이 상호 논의의 부재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학사적(學史的)으로 불행한 일이다. 과연 이러한 학문적 논의의 결여(缺如)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회의적(懷疑的)인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 비교 대상 언어의 역사적 심층성(深層性)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언어의 어휘 사전을 서로 비교하는 평면적 방법론이 주위의 긍정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논의하였지만 9쪽 26행에서는 “서정범(2018)에서는 형태의 비교와 변화를 통해서 원래의 기본 의미에 도달한다는 어원적 의도를 풀이에 반영하였다. 이들의 비교언어학적 검토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차치(且置)한다면, 어원 풀이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은 ‘뜻’에 초점을 둔 서정범(2018)이다.”라고 하여 신빙성 여부와 상관없이 어원을 탐구하는 작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듯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학술적 평가에 있어 신빙성을 차치하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12쪽 14행에서는 『한국어 어원사전』(2015)에 기술된 내용 중, ‘생기다’의 어형 변화를 “㉮ 삼기다 > 상기다 > 싱기다 > 생기다” 같이 예시하였는데 “‘독립신문’에 쓰인 ‘싱기다’는 사전(字典)에 나타나는 ‘生’의 한자음 ‘싱’을 잘 보여주는 표기이다. 여기에서도 ‘싱기다’의 어원을 한자 ‘生(싱)’과 관련시켰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듯이 ‘상기다 > 싱기다’는 표기상의 문제일 뿐 ‘ㅏ > ㅑ’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즉 7쪽 22행에 예시한 “가을 ㉮ (→ ㉮ 月序 16) > ㉮ 訓蒙 上1) > ㉮ 類合 上2) > 가을)”에서 ‘㉮ > 가을’은 실제의 음운변화를 보여주는 것임에 반해 ‘상기다 > 싱기다’는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물론 국어사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대 국어 시기에 ‘ㅏ > ㅑ’와 같은 변화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것이 단순히 표기의 문제임을 알 수 있겠지만 사전에서 처리할 때에는 음운변화와 표기형을 구분하여 줄 필요가 있을 듯하다. ‘상기다 > 싱기다[생기다]’와 같이 나타내거나 ‘상기다 > 생기다(<표기> 싱기다)’와 같이 나타내는 방법과 같이 음운변화와 표기의 변화를 구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국어 어원사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항범(충북대학교)

1. 서론
2. 국어 어원사전 편찬의 현황
3. 국어 어원사전 편찬의 실제
 - 3.1. 표제어 선정
 - 3.2. 어원사전의 형식
 - 3.3. 어원사전의 내용
 - 3.3.1. 내용 구성
 - 3.3.1.1. 최초 출현 형태 및 출현 시기
 - 3.3.1.2. 차용 사실의 확인
 - 3.3.1.3. 기존 연구 성과 검토
 - 3.3.1.4. 형태 분석 및 의미 해석
 - 3.3.1.5. 형태 변화 및 의미 변화
 - 3.3.1.6. 어휘 소실 및 그 원인
 - 3.3.2. 내용 기술 방식
 - 3.3.2.1. 분할식 방식
 - 3.3.2.2. 종합식 방식
4. 결론

1. 서론

본고는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국어 어원사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작은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는 사전 편찬의 ‘방식’과 ‘방법’에 해당하는데, 어원사전의 최종 목표가 정확한 ‘어원 해석’이고, 이는 다양한 방식과 방법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최적의 ‘방식’과 ‘방법’을 찾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회의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좋은 국어 어원사전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최적의 방식과 방법은 없겠지만, 적어도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방식과 방법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어떤 기술 방식과 방법을 적용했느냐에 따라 ‘어원 해석’의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좋은 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방식’과 ‘방법’을 어원사전의 ‘표제어 선정’, ‘형식’, ‘내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의 ‘표제어 선정’에서는 표제어 범주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를, 사전의 ‘형식’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사전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며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기술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로 보면 여기서의 ‘방식’과 ‘방법’은 어원사전 편찬에서 실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부 사항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특별한 이론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고는 어원사전 편찬의 실제 경험에 근거해서 진행한다. 곧 어원사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국어 어원사전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여러 국어 어원사전을 비교 자료로 검토한다.

2. 국어 어원사전 편찬의 현황

- (1) 金東縉(1927), 《四千年間朝鮮俚語解釋》, 德興書林.
- (2) G.J., Ramstedt(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SFOu 95.
- (3) 안옥규(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4) 한진건(1990), 《조선말의 어원을 찾아서》, 연변인민출판사, 연변.
- (5) 박일환 엮음(1994), 《우리말 유래사전》, 우리교육.
- (6) 김민수 편(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 (7) 백문식(1998),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삼광출판사.
- (8) 徐廷範(2000), 《國語語源辭典》, 보고서.
- (9) 김인호(2001), 《조선어어원편람(상), (하)》, 박이정.
- (10) 럽종률(2001), 《조선말 단어의 유래》, 금성청년종합출판사, 평양.
- (11) 조영언(2004), 《한국어 어원사전》, 다솜출판사.
- (12) 김인호(2005), 《어원유래상식(1)》,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 (13)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2007),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결과물(한민족언어 정보화: 어휘 역사 검사 시스템)〉.
- (14) 姜吉云(2010),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 (15) 김양진(2011), 《우리말수첩》, 정보와사람.
- (16) 李基文(2012, 2013, 2014, 2015), 〈語源 研究의 뒤안길(1)(2)(3)(4)〉, 韓國語研究 9, 10, 11, 12, 韓國語研究會.
- (17) 김무립(2012),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 (18)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19) 김무림(2015), 《(전면개정판)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20) 서정범(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1)은 우리말 俚語의 어원과 유래를 밝힌 일종의 어원사전이다. 여기서는 226항목에 달하는 어휘 및 관용 표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항간에 떠도는 어원설을 소개하고 비판한 뒤 저자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다. 전체로 보면 한자부회식 ‘민간어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민간에 널리 유포된 어원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는 최초의 국어 어원사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한국어의 어원을 수많은 알타이 제어와의 비교를 통해 푼 최초의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이다. 선구적 업적은 높이 평가되나 알타이 제어와의 대응 경위 및 과정이 상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의 제자 아얄토에 의해 《Studies in Korean Etymology II》(1953), 《Additional Korean Etymologies》(1954)로 이어졌고, 고송무 교수에 의해 《Paralipomena of Korean Etymologies》(1982)로 이어졌다.

(3), (4), (9), (10), (12)는 중국 또는 북한의 학자가 펴낸 어원사전이다. 이들은 한국의 어원 연구 성과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활용할 만한 가치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국어의 어원 문제에 골몰한 탐구 정신만큼은 높이 살만하다.

(5), (6), (7), (8), (11), (13), (14), (15), (16), (17), (18), (19), (20)은 1990년 이후 국내에서 발간된 어원사전 내지 어원사전에 준하는 성과이다. (6), (7), (8), (13), (14), (15), (16), (17), (18), (19), (20)이 국어학의 전문가가 만든 것이라면, (5), (11)은 비전문가가 만든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국어학 전문가가 체계를 갖추어 만든 최초의 어원사전은 (6)이다.

(6)은 이제까지의 어원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해당 어휘의 어원을 종합적으로 밝혀보려는 기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정 어휘에 대한 기왕의 어원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한 것은 이 사전의 큰 장점이다. 또한 상당수의 대상 어휘를 일관된 방식에 따라 해석했다는 점도 이 사전의 장점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 사전에도 약점은 있다. 해석이 주로 형태 분석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 불필요한 어휘까지 어원 해석의 대상으로 삼아 도리어 전문성을 해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8)은 굳이 말한다면 기원 어원론의 성격을 띠는 사전이다. 이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 특유의 祖語 再構 및 消失語 再構의 방법론을 통해 체계화한 규칙을 바탕으로 특정 어휘 어원을 해석한 것이다. 이 규칙은 국어뿐만 아니라 알타이 제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규칙에 근거한 어원 연구가 큰 공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20)은 그 증보판의 성격이다.

(13)은 역사 어원론의 성격을 띠는 사전이다. 개별 어휘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풍부한 문헌 예를 통해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의 국어사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그 내용이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다룬 모든 어휘의 어원 해석이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기왕의 연구 성과를 답습하거나 아니면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경우도 눈에 띄기 때문이다.

(14)는 책 제목이 보여주듯 비교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국어 어원을 다룬 사전이다. G.J., Ramstedt(1949) 이후 이룩된 최고의 비교언어학적 어원 연구 성과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주목된다. 상당수의 고유어를 터키어, 드라비다어 등 주변 언어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음운 대응 규칙이 완벽하게 적용되었는지 의심되는 어휘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음운 대응 규칙이 성립되지 않은 어휘까지 무리하게 비교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16)은 비교언어학과 국어사의 관점에서 우리말의 어원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들 일련의 글은 어원사전을 염두에 둔 것인데, 앞의 세 논문에서는 한 편당 100개의 대상어를 다루고, 뒤의 한 논문에서는 87개의 대상어(몽고어 차용어)를 다루고 있어 결국 387개의 대상어의 어원을 분석한 셈이다. 시기별 용례를 적절히 제시한 뒤 古形의 형태를 분석하여 기원적 의미를 밝히고, 그 역사적 변화 과정을 세밀히 따져보고 있다. 물론 비교가 가능한 대상어에 대해서는 알타이 제어를 두루 제시하여 그 친소 관계를 밝히고 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핵심 내용을 고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어원 해석의 전범을 보여준다.

(17)은 (13)과 같이 역사 어원론 성격의 사전이다. (6)의 편찬에 참여했던 저자가 어원 해석이 가능한 어휘를 추려서 일정한 주석 방식에 따라 기술한 것이다. 그동안 이룩된 국어사의 성과를 반영하여 깊이 있게 기술한 점에서 분명 이전의 어원사전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다만 표제어의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점,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두루 반영되지 않은 점, 형태 분석의 차원에 머물러 역사적 정보가 고루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이 사전의 보완 사항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보았듯, 199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 적지 않은 어원사전이 출간되어 양으로는 제법 풍성해진 셈이다. 최근에 출간된 몇몇 어원사전은 그동안 이룩된 국어사의 성과에 힘입어 질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어 어원사전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인다. 여전히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의 어휘가 우리말 총어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합성어나 파생어에 편중되어 있는 점, 그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 민간어원을 극복하지 못한 점, 형태와 의미를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점, 비교언어학적인 성과가 미진한 점 등이 눈에 띄는 문제점이다.

국어 어원사전은 결국 개별적인 어원 연구를 발판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어휘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성과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성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현재 국어 어원 연구를 위한 학문적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국어 어원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국어사를 비롯한 주변 학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어 정보화 사업에 따라 역사적 언어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3. 국어 어원사전 편찬의 실제

3.1. 표제어 선정

‘표제어’는 어원사전에 올리는 ‘표제 항목’을 말한다. 어원사전에서의 ‘표제 항목’은 ‘어휘’가 일차적이어서, ‘표제 어휘’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국어 어원사전에서 ‘어휘’라 하면 대체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차용어)’를 망라한다. 물론 여기에 ‘혼종어’를 별도로 내세울 수도 있고, ‘외래어’를 수용의 시기에 따라 ‘차용어’와 ‘외래어’로 나눌 수도 있다.

기존의 국어 어원사전에서 밝힌 표제어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김민수 편(1997): 어원적 설명이 가능한 국어의 고유어와 한자어 및 외래어 문헌상 혹은 논리적으로 형태 변화를 밝힐 수 있는 어휘

어원적 유래가 담긴 인명, 지명, 관명 등의 고유 명사

어원적 古事가 담긴 故事成語 및 속담

어원적 인식이 필요한 국어순화의 대상 어휘

(2) 서정범(2000): 토박이 우리말

어원을 밝힐 수 있는 어휘

외래어 가운데 외래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말화한 어휘

현대어를 올림말로 삼되 현대어에 없는 옛말(고어)도 일부 대상으로 하며,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도 포함함.

(3) 김무림(2012): 어원 설명이 가능한 국어의 고유어를 표제어로 하되 한자어나 외래어도

어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제어로 삼음.

(4) 이기문(2012): 고유어, 한자어, 차용어, 외래어를 대상으로 하며, 방언과 고어도 포함함.

(1)에서는 어휘를 중심으로 하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어휘 항목을 보면 ‘내셔널리즘, 네임 벨류’ 등과 같은 외국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제시된 기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1)에서는 무엇보다 ‘어휘’ 범주를 넘어 ‘고사성어’, ‘속담’까지 표제어에 넣은 점이 특별하다. (2)에서는 표제어를 철저히 ‘어휘’에 국한하고 있다. 그것도 고유어 중심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현대어뿐만 아니라 고어, 그리고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도 표제어에 넣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 ‘고어’나 ‘방언’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3)에서는 고유어를 위주로 하되 일부 한자어와 외래어도 표제어로 삼고 있으며, (4)에서는 이에 덧붙여 방언과 고어까지도 표제어에 넣고 있다.

이로 보면 기존의 국어 어원사전에서는 ‘표제어’가 ‘어휘’ 중심이라는 것을, 그것도 현대국어 ‘고유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원사전의 표제어는 ‘어휘’가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라 하더라도 성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어원사전의 ‘표제어 선정’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 표제어는 ‘어휘’를 중심으로 하되, ‘조사’, ‘접사’, ‘관용구’, ‘속담’ 등도 포함한다.

둘째, ‘어휘 항목’에는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차용어, 외래어도 포함한다. 물론 고유어를 주 대상으로 한다. 고유어에는 일반 어휘뿐만 아니라 ‘지명’, ‘비속어’, ‘욕설’, ‘신조어’(예. ‘지름신’) 등과 같은 특수 어휘도 포함한다. 그리고 표준어가 아닌 ‘방언’(예. ‘까망’), 현대어가 아닌 고어(예. ‘가람’) 등도 대상으로 한다.

고유어: 일반 어휘/특수 어휘(지명, 비속어, 욕설, 유행어, 신조어)

표준어/방언

현대어/고어(소실어)

한자어:

차용어: 중국어, 몽고어 등

외래어: 일본어, 영어 등

대상 고유어는 어원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위주로 하되, 어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형태나 의미 변화의 양상이 현저한 것이나 어원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차용어와 외래어는 수용 과정이 분명한 것을 위주로 하되, 형태가 심하게 변하여 고유어 처럼 인식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차용어의 경우는 기존 성과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셋째, ‘관용구’와 ‘속담’은 빈도가 높은 것을 위주로 하되, ‘관용구’에서는 생성 배경이나 과정, 의미 전이가 특이한 것, ‘속담’에서는 轉訛되어 본래 모습이 크게 훼손된 것을 선택한다. ‘관용구’의 생성 배경을 토대로 그 유래를 밝히고, ‘속담’의 轉訛 사실을 발견하여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어원론이다.

예1) 바가지를 긁다

이는 병귀(病鬼)를 쫓기 위한 주술적 행위와 관련되어 생성된 관용구이다. 옛날에는 ‘쥐통(콜레라)’이 돌면 무녀(巫女)를 불러 대청마루에서 굿을 벌였다. 이때 소반 위에 바가지를 올려놓고 득득 긁었는데, 그리하여 이러한 굿을 ‘쭉박긁’이라 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바가지 긁는 소리에 놀라거나 질려서 병귀(病鬼)가 도망가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 ‘바가지’를 벅벅 긁는 소리는 요란할 뿐만 아니라 또 짜증스럽기까지 하다. 한마디로 바가지 긁는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이다. 그리하여 ‘바가지를 긁다’에 ‘짜증이 나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다’는 비유적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으뜸인 것은 남편을 향해 종알대거나 쏟아내는 아내의 잔소리일 것이다. 그리하여 ‘바가지를 긁다’에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다’는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예2) 구렁이 제 몸 추듯

이 속담 속의 ‘구렁이’는 ‘굴원이(屈原-)'가 전와(轉訛)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의 속담 형식은 “굴원이 제 몸 추듯”이 된다. ‘굴원(屈原)’은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이다. 그리고 동사 ‘추다’는 ‘어떤 사람을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여 말하다’의 뜻이다. 權憲奎(1923: 132)에서는 이 속담 속의 ‘구렁이’가 ‘굴원이(屈原-)'의 전와임을 밝히고, ‘굴원’의 글을 보면 무비(無非, 그러하지 않은 것이 없이 모두) 자기 칭찬이어서 후세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칭찬하여 말하는 것을 빗대어 ‘굴원이 제 몸 추듯’이라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굴원이 제 몸 추듯’에서 변형된 “구렁이 제 몸 추듯”도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함’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굴원이 제 몸 추듯”은 잘 쓰이지 않는다.

넷째, ‘조사’(예. ‘가지’)나 ‘접사’(예. ‘개-’)와 같은 문법적 단위는 ‘문법화’의 과정이 분명한 것을 위주로 한다. 이러한 성격의 ‘조사’나 ‘접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예3) 개-

접두사 ‘개-’는 15세기 초 문헌에 ‘*가히-’로 보인다. ‘犬伊那里根’(鄉藥救急方 中:2 (1417))의 ‘犬伊那里’는 ‘*가히나리’에 대한 표기인데, ‘*가히나리’의 ‘*가히-’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가히나리’는 들판과 야산에 자생하는 백합 종류이다. 접두사 ‘*가히-’는 기원적으로 명사 ‘가히[犬]’(月印釋譜 21:42 (1459))에서 온 것이며, ‘질이 떨어지는’, ‘야생의’ 등과 같은 의미를 띤다. 전자와 같은 부정적 의미는 ‘犬’이라는 지시물이 갖는 천박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히나리’, 곧 ‘개나리’가 ‘참나리’(廣才物譜 三, 采柔 2 (18xx))에 비해 작고 화려하지도 않으며 또 ‘참나리’와 달리 재배하지 않고 야생한다는 점에서 ‘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하는’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가히-’를 붙여 변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접두사 ‘*가히-’는 명사 ‘가히’가 ‘가이’를 거쳐 ‘개’로 축약되듯, ‘가이-’를 거쳐 ‘개-’로 축약된다. ‘*가히나리’에서 변한 ‘개나리’((救急簡易方 3:31 (1489))가 15세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접두사 ‘*가히-’가 이미 15세기에 ‘개-’로 변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략)

3.2. 어원사전의 형식

* 김민수 편(1997)의 경우

- ① 표제어
- ② 의미
- ③ 어원
 - ※ 보충설명
- ④ 변화
 - ※ 보충설명
- ⑤ 참고
 - ※ 보충설명
- ⑥ 민간어원

③의 ‘어원’은 핵심 내용이다. 단일어의 경우는 ‘가’에 대한 ‘𠂇[邊]’처럼 최초의 어형으로 그 어원을 밝히기도 하며, 합성어와 파생어의 경우는 ‘가랑비’에 대한 ‘ㄱ[粉]+비[雨]’, ‘가람’에 대한 ‘갈-[分, 岐, 細, 長]+읍’에서 보듯 형태 분석으로 그 어원을 밝히고 있다. 다만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만 한자를 이용하여 의미를 제공할 뿐 합성어나 파생어의 전체 의미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어원’ 아래에 ‘※’와 같은 부호를 두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래’를 ‘갈-[耕]+애(접사)’로 분석하여 어원을 제시한 뒤에 “ ‘가래’는 경작(耕作)을 의미하는 ‘(논밭을) 갈다’에서 직접 파생된 말이지만, 이 ‘갈다’는 본래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는 의미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루’와도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다.”와 같이 기술하는 것이다.

④의 ‘변화’는 형태상의 변화를 말한다. 부호(>)를 활용하여 역사적 변화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주로 문헌에 나타나는 어형을 근거로 하지만, 재구형을 근거로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랑비’를 “*ㄱ[粉]비>ㄱ[粉]비(월석 1:36)>ㄱ[粉]비(역어 상:2)>가랑비”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사전에서는 문헌 예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변화형의 예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예가 한정적이다.

⑤의 ‘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도 ③과 같이 형태 분석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와 같은 부호를 두어 보충 설명하고 있다.

⑥의 ‘민간어원’은 주로 《東言考略》 속의 한자부회설, 그리고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오는 민간어원을 소개한 것이다.

예4) 가웃[-웁] (명)(의존) 되, 말, 자의 수를 셀 때 약 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어원 갑-[中]+웃[접사]. 변화 가웃(언태 40)>가웃. ※어원적 형태로부터의 어형변화는 ‘갑웃>가웃>갑웃>가웃>가웃’과 같은 변화 과정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순음동화, ㅂ의 약화에 이른 탈락, 모음이화(母音異化) 등의 음운변화가 있었다고 하겠다. 민간 加五(東言攷略 34: 半을 謂호야 또흔 ‘가웃’이라 흙도 加五 | 니, 五 | 十의 半이 됨이니라.)] ㄹ가운데, 가위¹

* 김무림(2012)의 경우

- ① 표제어

- ② 표제어 정의
- ③ 어원 설명
- ④ 형태 분석
- ⑤ 형태 변화
- ⑥ 사료 문헌 용례
- ⑦ 참조

③의 ‘어원 설명’은 (一)(二)(三)(四) 등의 번호 항목에 따라 전개하고 있는데, 번호 항목은 설명의 논리적 전개와 서술의 편의를 위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번호를 두어 나눈 것은 크게 보아 단락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一)만으로, 또는 (一)(二)만으로 끝나는 것도 있어 이러한 번호 설정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원설명은 대체로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④의 ‘형태 분석’은 ‘어원 설명’을 바탕으로 표제어의 형태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득하다’의 경우는 ‘ㄱ득[滿]+ㅎ[爲]+다(어미)’로 분석한다.

⑤의 ‘형태 변화’는 역사적인 어휘 형태를 근거로 그 변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곧 ‘ㄱ득하다>ㄱ득ㅎ다>가득하다’와 같은 방식이다.

⑥의 ‘사료 문헌 용례’는 역사적 변화 형태에 해당하는 사료 문헌의 용례를 문헌의 간행 연대 순서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간행 연도는 달려 있지 않다.

⑦의 ‘참조’는 어원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참조할 표제어를 제시한 것이다.

예5) 가웃(접) 되, 말, 자 등의 수를 썰 때, 그 단위의 약 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一) ‘가웃’의 중세국어 형태는 ‘가온’이다. 이 말은 어원적으로 ‘가운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어원의 출발점은 ‘*갑[中]’에 있다고 생각된다. ‘가운데’는 어떤 것의 절반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원) 갑[中]+온(접사)

(변) *갑온>*가븐>가븐>가온>가웃>가웃

(예) · 물 흐 사발가온과(간이벽은방언해 7)

· 흐 되가웃(태산집요 40)

☞가운데, 한가위

* 이기문(2012)의 경우

- ① 표제어
- ② 설명
- ③ 붙임
- ④ 비교
- ⑤ 참고

②의 ‘설명’ 부분에서는 표제어의 ‘의미’를 밝힌 뒤에 구체적 예를 제시하면서 해당 어휘의 어원을 푸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기별 예를 풍부하게 든 점이 특별하다. 물론 표제어의 예만 제시하고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다(예. ‘빈대’). 이런 경우에는 ‘붙임’에서 관련 내용을 부연하고 있다. 어원은 주로 조어론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형태 변화는 음운 규칙에

근거하여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성과는 기술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태 분석’과 ‘형태 변화’를 도식화하여 보여주지는 않는다. ‘의미’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있다. 합성어나 파생어의 조어 과정을 설명하되, 기원적 의미는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고(예, ‘뒤웅’), 의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예, ‘사랑’).

③의 ‘붙임’은 ‘어원설명’을 보충하는 부분이다. ‘설명’이 충분하면 이 부분은 생략된다.

④의 ‘비교’는 알타이 제어와의 관계를 밝히는 부분이다. 물론 해당 내용이 없으면 이 부분은 생략된다. 다른 어원사전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예6) 가웃(명) 절반 정도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독립해서 쓰이는 일은 없고 ‘자’(尺), ‘말’(斗), ‘되’(升) 등과 함께 쓰인다. ‘말’ 뒤에서는 ‘아웃’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것은 중세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量·은·크니·는 :서·마·를 받·고 …… :저그·닌 ·말 아·오·돌 받·느·니’(月釋 25.54-55). 簡辟(7, 8)에 ‘물 혼 사발 가온(水一盞半)’이 보인다. 이로써 중세어의 어형이 ‘가온’이었음을 알게 된다. 근대어 문헌에는 ‘가웃’이라 표기되었다. ‘혼 되 가웃(一盞半)’(胎要 40), ‘두 말 가웃이 드니(容二斗半)’(煮硝 4)

[붙임] 이 말은 중세어의 ‘가본디’, ‘가온디’(中)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 말의 古形으로 ‘가툼’을 추정할 수 있다. 아마도 어간 ‘*갈-’에서 파생된 말일 것이다. 梁柱東(1962, 258).

[비교] 半을 뜻하는 몽고문어의 명사 qayas와 비교된다. Kowalewski(1846, 735)의 qayas(moitié) 참고. 중세몽고어(元朝秘史)에는 分離의 뜻으로 쓰인 예들이 보인다. qayas < *qawas < *kapas의 再構가 가능하다.

☞ 가운데, 가위², 말아웃

몇몇 어원사전을 검토해 본 결과, 국어 어원사전의 ‘형식’에서는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① 표제어
- ② 표제어 품사
- ③ 표제어 의미
- ④ 최초 문헌 용례
- ⑤ 해석 요약
- ⑥ 종합 설명
- ⑦ 참조¹⁾

④의 ‘최초 문헌 용례’는 기존의 국어 어원사전에서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항목이다. 해당 어휘가 최초로 나타나는 문헌 용례를 들어 등장 시기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⑤의 ‘해석 요약’은 ⑥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부분이다. 주로 ‘형태 분석’과 ‘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조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⑥의 ‘종합 설명’은 특정 어휘에 대한 본격적인 어원 해석 부분이다. 여기서는 어원사전의 ‘내용’이 담아야 할 모든 사항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3.3.1.의 ‘내용 구성’에서 상세히 언급할 것이다.

예7) -가웃

1)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2007)에서는 ‘제목’, ‘일련 번호’, ‘작성자’, ‘작성 날짜’, ‘검색어’, ‘표준어’, ‘품사’, ‘현대 뜻풀이’, ‘관련 한자어’, ‘세기별 예문’, ‘종합 설명’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다.

- * 품사: 접미사.
- * 의미: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된 단위의 절반 정도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 최초 문헌 용례: 저그년 말 아오돌 받느니 《月印釋譜 25:55》(1459)
- * 요약: ‘*가뵐’으로 소급하며, [*갑--오]으로 분석됨. ‘*갑-’은 ‘折半하다’, ‘二分하다’의 뜻임.
‘*가뵐>가온/가웃>가웃’으로 변함.

‘가웃’은 15세기 문헌에 ‘아온’(月印釋譜 25:55 (1459))으로 보인다. 16세기 문헌에 ‘가온’(簡易辟瘟方 7 (1525), 順天金氏墓出土簡札 65 (15xx))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온’은 ‘말[斗]’ 뒤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발음 형태로 이해된다. 물론 “두 말 가웃이 드니”(新傳煮硝方諺解 4 (1698))에서 보듯 ‘말’ 뒤에서 어두의 ‘ㄱ’을 유지한 어형도 나타난다. ‘가온’은 ‘*가뵐’으로 소급하며, 이는 ‘*갑--오’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뵐대(가운데)’, ‘*가뵐(>가외, 한가위)’, 그리고 현존 지명 ‘갑곶, 갑골, 갑말’ 등에서도 ‘*갑-’ 또는 ‘*갑-’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를 ‘折半하다’, ‘二等分하다’로 해석하기도 한다(梁柱東 1962: 258). ‘*가뵐’이 ‘병>w’에 따라 ‘가온’으로 변하고, ‘가온’은 중성에서 ‘ㄷ’과 ‘ㅅ’이 혼기됨에 따라 ‘가웃’(諺解胎產集要 40 (1608))으로 표기된다. 중세국어 ‘가온’이나 근대국어 ‘가웃’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주로 ‘되[升], 말[斗], 혼 사발, 자[尺]’ 등과 함께 쓰였다. ‘가웃’은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가웃’(밥(염상섭) 122 (1927.2.))이 된다. ‘가웃>가웃’은 이화(異化)의 일종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1920)에는 여전히 ‘가웃’으로 올라 있다. 반면 《朝鮮語辭典》(1938)에는 ‘가웃’이 표준어로, ‘가웃’이 비표준어로 제시되어 있다. 이 사전에는 ‘아웃’도 올라 있는데, ‘가웃’과 같다고 기술되어 있다. ‘아웃’은 주로 ‘말[斗]’ 아래에 나타나던 ‘아온’을 이은 것이다. 《조선말큰사전》(1947)에는 ‘가웃’과 ‘아웃’이 표준어로, ‘가웃’이 비표준어로 처리되어 있다. ‘가웃’은 명사로, ‘아웃’은 불완전명사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모두를 명사로 본 《朝鮮語辭典》(1938)과 다른 점이다. 《우리말큰사전》(1991, 1992)에는 ‘가웃’과 ‘아웃’이 모두 불완전명사로 분류되어 있다. 《(금성관)국어대사전》(1991)에는 ‘-가웃’이 접미사로 처리되어 있으며, ‘-아웃’은 비표준어로 분류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되가웃, 말가웃, 자가웃’ 등을 한 단어로 보고, ‘-가웃’을 ‘절반 정도의 분량’을 뜻하는 접미사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사발 가웃”, “석 자 가웃”(永遠의微笑(심훈) 104 (1935)), “한나절 가웃”(宿泊記(염상섭) 149 (1928.1.)) 등도 한 단어로 인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나절가웃(하룻날의 4분의 3이 되는 기간)’의 경우는 한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 가운데, 한가위

3.3. 어원사전의 내용

3.3.1. 내용 구성

3.3.1.1. 최초 출현 형태 및 출현 시기

‘최초 출현 형태’는 해당 어휘와 관련하여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형태를 말한다. 15세기 이후 문헌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이전 시기의 문헌 및 금석문, 목간 등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 만약 借字 표기된 자료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라면 그 표기에 대한 재구 형태가 최초 출현 형태가 된다. 예를 들어 ‘바리’에 대한 최초 출현 형태는 ‘咸安 城山山城’ 출토 목간에 나오는 ‘發’에 대한 재구형인 ‘*발’이 되며, ‘가위’에 대한 최초 출현형은 《鷄林類事》에 나오는 ‘割子蓋’에 대한 재구형인 ‘*ㄱ스개’가 된다. 현존 방언형이나 정음 표기 예를 통해 재구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發’에 대해서는 16세기 문헌에서 ‘바리’를 찾을 수 있고, ‘*ㄱ스개’에 대해서는 경상 방언이나 평안 방언에서 ‘가시개’를, 15세기 문헌에서 ‘즈애’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어휘가 우연하게도 옛 문헌에 나타나지 않기도 하여 비교적 최

근의 문헌에 나타나는 어휘를 ‘최초 문헌 형태’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에는 비속어나 욕설과 같이 글에 담기 어려운 어휘도 있다.

20세기 이후, 곧 일제강점기나 해방 공간, 6·25 전쟁 이후에 조어진 어휘는 해당 시기에 발행된 신문, 잡지, 문학 작품 등을 총망라하여 해당 예를 찾아야 한다. ‘깡패’라는 단어는 6·25 전쟁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문헌 자료를 폭넓게 검토한 결과 이것이 광복 이후에 등장한 당시의 新語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시기에 나온 소설 작품은 당시 사용된 생활 어휘의 보고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소설을 비롯한 문학 작품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일차 자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초의 표기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8) 깡패

‘깡패’는 1949년 문헌에 ‘경패’(새말의 이모저모(김기림) (1949))로 처음 보인다. ‘새치기, 소매치기, 양버들, 양철’ 등과 같이 8·15 이후에 만들어진 새말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는데, ‘깡패’가 아니라 ‘경패’인 점이 특이하다. ‘경패’가 1957년, 1958년 문헌에 다시 보인다. ‘경패’가 ‘깡패’와 함께 나오기도 하여 두 어휘가 함께 쓰이던 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깡패’는 동아일보 1953년 4월 14일 자 신문 기사에서 처음 확인되며, 그 이후 문헌에 적극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조선말큰사전》(1947)에는 ‘경패’든, ‘깡패’든 올라 있지 않다. ‘경패’가 1949년 당시에는 뒷골목에서나 쓰일 뿐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였다는 기록을 참고하면, 이는 당시의 신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신항(1991: 109)에서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몰라도 ‘깡패’가 6·25 피란 시기인 1951년~1953년 사이에 만들어진 단어로 보고 있어 혼란스럽다. 1949년 문헌에 ‘경패’가 나오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추정이다. ‘깡패’라는 단어는 이른바 ‘장충단 사건’이라는 정치 테러가 발생한 1957년 5월 25일 이후에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깡패’가 사전으로는 《국어대사전》(1961)에 처음 올라 있으며, ‘폭력으로써 행패를 일삼는 무리. 싸움패나 어깨 들’로 풀이되어 있다. (후략)

물론, 해당 어휘를 일일이 문헌을 넘기면서 찾을 수는 없다. 고어사전이나 역사 말뭉치를 활용하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기왕의 고어사전이나 역사 말뭉치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표기상의 오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과의 대조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에만 특정 어휘가 언제,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문헌 자료를 소홀히 검토하여 ‘최초 출현 형태’를 잘못 잡으면 어원 해석이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하룻강아지’를 ‘흐룻강아지’(韓英字典 132 (1897))에서 온 것으로 설명한 것은 그것을 최초 출현 형태(先代 어형)로 잘못 잡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 ‘하룻강아지’의 어원은 ‘하로기’(東韓譯語 939 (1789)), ‘하로강아지’(권익중실기 63 (1936)), ‘하로개아지’(녀장군전 41 (1916)), ‘하로개지’((녀장군전 46 (1916)), ‘하로강아지’(朝鮮俗談 230 (1922)) 등과 같은 예만 확보했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초 출현 형태’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출처를 밝힌다. 또 문헌 자료의 출간 연대를 기준으로 해당 어휘의 출현 시기를 제시한다. 출현 시기는 ‘세기’를 기준으로 한다. 물론 20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어휘는 ‘연도’로 출현 시기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다.

예9) 또라이

‘또라이’는 경향신문 1978년 11월 24일 자 신문 기사에 처음 보이며, 1980년대 이후 문헌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에 처음 올라 있는데,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다. 《우리말샘》(2016)에서는

이를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하여 앞의 사전보다 현실적이다. (후략)

3.3.1.2. 차용 사실의 확인

대상 어휘가 ‘차용어’라면 그것이 어떤 언어(중국어, 몽고어, 일본어 등)로부터 차용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차용된 것인지를 밝힌다. 이때 ‘借用語’와 ‘同源語’를 엄밀히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 ‘말[馬]’은 몽고어 ‘morin’의 차용어가 아니라 그것과 동원어일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중세국어 ‘아바[父]’와 몽고어 ‘aba’, 터키어 ‘abai’ 등은 차용 관계가 아니라 동원 관계로 설명한다.

예10) 말

‘말’은 12세기 초의 《鷄林類事 4》(1103)에 ‘末’로 차자 표기되어 나온다. ‘末’은 ‘*말’에 대한 표기이다. 15세기 정음 문헌에도 ‘말’(龍飛御天歌 5:30 (1447))로 보인다. ‘말’은 ‘*마르’에서 제2음절의 모음 ‘·’가 탈락한 어형일 가능성이 있다. 중세국어 ‘말’은 몽고어 ‘morin’과 비교되는데, 차용 관계로 보기도 하지만(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2007), 동원(同源)으로 보기도 한다(李基文 1985나). 18세기 문헌에 몽고어 ‘모리’(蒙語類解 下:30 (1768)), 만주어 ‘모린’(同文類解 下:36 (1748))이 보인다. 만주어 ‘모린’은 몽고어 차용어이며, ‘모린’에서 ‘ㄴ’이 탈락한 어형이 ‘모리’이다. ‘모리’가 함경 방언에 남아 있으며, 제주 방언에는 ‘모르’로 보인다. 중세국어의 ‘말’은 어두음절에서의 ‘· > ㅏ’에 따라 ‘말’(譯語類解補 49 (1775))로 변하여 지금에 이른다. (후략)

‘차용어’가 알타이 제어라면 음운 대응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여부를 따져 본다. 물론 이러한 ‘비교’에 의한 국어의 어원 기술은 비교 대상 어휘가 아주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차용 사실의 확인’은 기왕의 믿을 만한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

3.3.1.3. 기존 연구 성과 검토

해당 어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여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이는 어원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니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는 전문가의 어원설뿐만 아니라 민중이 만들어낸 ‘민간어원’까지 포함된다.

민간어원은 본능적이며 직감적인 인간 언어활동의 일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正道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므로 민간어원을 정확히 판정하고 극복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국어 어원 연구의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들 민간어원 가운데에는 뿌리를 깊이 내려 마치 정설인 것처럼 굳어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성격의 민간어원은 대체로 시대, 인물, 사건 등이 어우러져 잘 짜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민간어원은 바로 이렇듯 구체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민간어원은 너무나 그럴듯하여 그냥 믿어버리기 쉽상이다. 실제 아직도 정설인양 통용되는 민간어원이 한둘이 아니다. ‘도루묵’에 대한 다음의 어원설도 그러한 것 중의 하나이다.

예11) 도루묵

전에 임금이 난리를 피해 몽진하다가 우연히 수라상에 오른 ‘목(目)’이라는 물고기를 먹고 허기를 채웠다고 한다. 그 고마움에 ‘은어’라는 고상한 이름을 하사하고 특산물로 바치라고 하였다. 난리가 끝나고궁으로 돌아와 수라상을 받을 때 ‘은어’가 다시 올라왔으나 맛이 없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에 ‘은어’라는 이름이 삭탈되고 도로 ‘목’이라는 이름으로 떨어져 푸대접을 받았다.

물론 그동안의 노력으로 재해석된 민간어원도 적지 않다. ‘소나기, 후레자식, 화냥’ 등에 결부된 민간어원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허구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아직 정확한 해석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민간어원이 있고, 또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은 민간어원도 있다. ‘개판, 노다지, 도루묵, 설렁탕, 행주치마’ 등의 민간어원은 전자의 예에, ‘도무지, 자린고비’ 등의 민간어원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물론 ‘도무지, 자린고비’도 해결의 실마리가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무지’는 ‘도모지’로 소급하며 ‘도모지’는 ‘도모’와 ‘지’로 분석된다는 점, ‘도’는 ‘都’일 가능성이 있고 ‘도모지’ 전체는 ‘모두’라는 의미를 띠는다는 점, ‘모두’라는 의미에서 복잡한 의미 변화를 겪었다는 점 등은 밝혀낼 수 있다. ‘자린고비’는 ‘충주 자린고비 지방’으로 소급하며, ‘자린’과 ‘고비(考妣)’로 분석된다는 점, ‘자린’은 동사 ‘결다(기름 따위가 흠뻑 배다)’와 관련된다는 점, ‘결다’의 고대형은 ‘*꺠다’이며, 이것이 ‘결다’와 ‘*꺠다’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꺠다’가 구개음화에 의해 ‘꺠다’로 변하고, 그 관형사형 ‘꺠른’이 ‘자린’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점 등은 밝혀낼 수 있다. 이는 완결된 성과는 아니지만 그것대로 어원사전에 반영해야 한다.

국어 어원 연구는 權憲奎의 <閒者의 辭典> (1921)을 첫 출발로 해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동안 이룩된 연구의 양적 성과는 대단하다. 국어 어원사전에서는 이들 기왕의 연구 성과를 나열 차원을 넘어 온전히 소화하여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 과거의 성과를 뛰어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어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면모를 띤 최근의 어원 연구물들은 특히 꼼꼼히 읽고 그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

물론 수많은 연구 성과물을 읽고 기술된 내용에서 玉石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이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연구 성과 가운데에는 신뢰할 만한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玉’이 있는데도 그것을 간과하여 잘못된 어원설을 답습하거나 엉뚱한 주장을 한다면 이는 대단히 비생산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 ‘문설주’가 ‘門楔柱’임이 밝혀졌는데도 ‘설’을 ‘서-[立]’의 관형사형으로 본다든지, ‘닭의장풀’의 ‘장’이 ‘腸’으로 밝혀졌는데도 ‘穢’으로 본다든지, ‘병신’이 ‘病人’에 기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病身’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두 기왕의 연구 성과를 소홀히 한 탓이다.

기존의 어원 연구 성과를 검토하다 보면 그 가운데 정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첨예하게 대립하여 정설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논쟁 중에 있는 ‘쟁점 어원’을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가시내, 고드름, 넋할머니, 언니’ 등에 결부된 여러 어원설이 그러한 것이다. 논쟁 속에 있는 어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설을 꼼꼼히 검토하여 정설을 찾아 확정해야 하며, 기존의 설에 정설이 없다면 다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설을 확정하는 과정은 또 다른 어원 연구가 된다.

‘고드름’을 들어 얼마나 다양한 어원설이 결부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예12) 고드름

‘고드름’은 17세기 문헌에 ‘곶얼음’(新前煮取焰焰方諺解 16) (1635), 18세기 문헌에 ‘곶어름’(譯語類解補 4 (1775), 漢清文鑑 1:14 (1779))으로 보인다. 중세국어 어형은 아쉽게도 보이지 않는다. ‘고드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원사전에서 거론하고 있으며, 또 개별 논의를 통해 깊이 있게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① ‘곶-[直]+얼-[氷]+-음(접사)’ 설(이탁 1967), ② ‘곶은 얼음’ 설(안옥규 1989: 32), ③ ‘곶-[直]+어름/얼음’ 설(조항범 1997: 325, 백문식 1998: 39), ④ ‘곶-+얼-+-음’ 설(愼重珍 2006), ⑤ ‘곶-[直]+얼-[凍, 氷]+-口’ 설(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2007, 우리말샘 2016), ⑥ ‘곶/곶[錐, 串]+얼-[氷]+-음’ 설(김민수 편 1997: 84, 이병근 1999), ⑦ ‘곶[串]+어름/얼음’ 설(조항범 2003, 李基文 2014), ⑧ ‘곶(얼음)+어름’ 설(徐廷範 2000: 49), ⑨ ‘konnu(어름, 아이누어)+tar(드리다, 드라비다어(타밀))’ 설(姜吉云 2010: 121) 등이 있었다. (후략)

3.3.1.4. 형태 분석 및 의미 해석

‘형태 분석’은 합성어나 파생어가 대상이 된다. 당연히 해당 어휘의 ‘기원형’ 내지 ‘최초 어형’이 분석 대상이다. 형태 분석에는 반드시 조어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단일어는 형태 분석의 예외가 되어 어원 해석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형태 분석 과정에서는 기존의 성과가 있으면 반드시 소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술해 나간다. 기존의 성과에 정설이 있다면 그것으로 형태 분석은 끝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합성어나 파생어라 하더라도 언제나 형태 분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합성어나 파생어가 더 많다. 분석이 아주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 ‘곶에[族]’에 대해 ‘*kyʌrgay(*곶개)’를 재구할 수 있어도 그 형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고, 중세국어 ‘가마괴’에 대해서는 ‘감-’과 ‘-아괴’ 또는 ‘가마’와 ‘괴’로 분석할 수도 있다. 해당 어휘의 형태 분석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음의 ‘누룽지’의 예가 잘 보여 준다.

예13) 누룽지

(진략) ‘누룽지’의 어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첫째, ‘누룽지’를 동사 어간 ‘눈-[焦](救急簡易方 1:81 (1489))에 명사 파생 접미사 ‘-옹’이 결합된 ‘누룽’에 다시 접미사 ‘-지’가 결합된 어형으로 본다(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2007). 동사 ‘눈-’이 모음 앞에서 ‘ㄷ’이 ‘ㄴ’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눈-’에 접미사 ‘-옹’이 결합하면 ‘누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누룽이’와 ‘누룽기’를 ‘누룽’에 각기 접미사 ‘-이’와 ‘-기’가 결합된 어형으로 설명한다. 접미사 ‘-옹’은 ‘사룽(살+옹, ‘살강’의 황해 방언), ‘아궁(액[門, 口]+옹), ‘지붕(집+옹), ‘버둥(받+옹)’ 등에서 보듯 명사와 더불어 동사 어간에도 결합하므로 ‘눈-’에 접미사 ‘-옹’이 결합하는 것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누룽’이 단독으로 쓰인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주 방언과 함북 방언 ‘누룽밥’에서 ‘누룽’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누룽’은 그렇다 치더라도 접미사 ‘-지’의 정체는 모호한 것이 더 문제이다. ‘-지’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면 ‘누룽지가’ ‘누룽기’의 구개음화 어형이라는 설명을 부정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방언형인 ‘누름지, 누름이’를 고려하면 ‘누룽지’의 ‘누룽’이 ‘누름’과 같은 파생어이고, ‘-지’가 접미사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누룽지’를 ‘누룽기’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본다(김무림 2012: 245). 이러한 설에서는 ‘누룽이’를 ‘누룽기’에서 ‘ㄷ’이 탈락한 어형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누룽기’를 ‘눈-[焦]의 관형사형 ‘누른’에 접미사 ‘-기’가 결합된 ‘*누른기’의 자음 동화 형태인 ‘*누룽기’에서 제2음절의 모음 ‘ㅡ’가 제1음절의 모음 ‘ㅏ’에 이끌려 변환 어형으로 설명한다. ‘누룽기’에서 ‘누룽이’와 ‘누룽지’가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룽기’를 ‘눈-’의 관형사형 ‘누른’에 접미사 ‘-기’가 결합된 형태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관형사형에 접미사가 결합하는 조어 규칙은 아주 어색하기 때문이다. 한편 ‘누룽지’를 ‘*누른기’에서 변환 ‘누룽기’의 변화형으로 보되, ‘누른기’의 ‘기’를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로 보기도 한다(한성우 2016: 31). 이러한 설에서는 ‘눈은 #기’가 ‘누른기’가 되고, ‘누른기’가 ‘누룽기’를 거쳐 ‘누룽지’가 된 것으로 설명하며, 방언형 ‘누룽갱이’는 ‘누룽기’에 접미사 ‘-앙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명사 ‘*기’를

‘바닥에 달라붙은 무엇’ 정도로 풀이한다. ‘눌은#기’를 내세운 것은 ‘누른밥’의 단어 구조에 따른 것이지만, 이 경우는 명사 ‘*기’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누룽지’가 동사 ‘눌-’과 관련된 어형이라는 데에는 이견은 없으나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를 수 있다.

해당 어휘의 형태를 정확히 분석해야만, 그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형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원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형태 분석은 어원 해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솔길’을 ‘오솔’과 ‘길’로 분석하느냐 아니면 ‘오(<외’)와 ‘솔길(솔+길)’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불상놈’을 ‘불상(不常)’과 ‘놈’으로 분석하느냐 아니면 ‘불-(아주 심한)’과 ‘상놈(常-)’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아주 달라진다. 형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 해석이 엉뚱해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형태 분석에 유념해야 한다.

형태 분석과 의미 해석에는 ‘단어족’을 활용할 수 있다. ‘단어족’ 활용은 특정 어휘의 어원을 그것과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휘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를 활용하면 설명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꽃게’의 어원은 그 단어족인 ‘고잔, 곡갱이, 꼬챙이, 꼬치, 송곳’ 등을 함께 고려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단어족’을 설정할 때에 형태나 의미의 상호 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형태나 의미상 거리가 먼 어휘까지 지나치게 확대하여 범주화하면 어원 설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이 타당성을 잃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형태 분석이나 의미 해석에는 ‘방언(‘지명’ 포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잘 알다시피 ‘방언’에는 보수적 어형이 화석처럼 박혀 있기도 하여 이를 통해 귀중한 역사적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방언을 통해 얻어낸 정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또 불충분한 문헌어를 통해 추정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뚜막에 대한 전라 방언 ‘부스막’은 중세국어 ‘붓’(小學諺解 6:92 (1588))의 존재를 입증하여 중세국어 ‘브습’이나 ‘브석’이 그것에서 파생된 단어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까치설’에 대한 함경 방언 ‘아치설’은 ‘까치설’이 ‘아치설’로부터 변형된 어형이라는 것, 그리고 ‘아치’가 ‘앗-[小]’과 관련된 어형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형태 분석이나 의미 해석에는 언어 외적인 지식이 적절히 동원될 수도 있다. 대상 어휘가 특수한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나 형태와 의미 변화가 언어 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일 때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 어휘와 관련된 문화, 역사, 생활, 풍속 등과 같은 언어 외적 지식이 곁들여져야 한다. 언어 자료에 언어 외적 자료가 보완되는 방식으로 역사 기술 방법을 전개하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떼기’의 어원 설명에서 조선시대 선혜청(宣惠廳)의 창내장(倉內場)에서 객주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상인들에게 돛자리짜 물건을 팔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안다면, ‘도떼기’를 돛자리짜 떼어 파는 상거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형태 분석이나 의미 해석에는 언어적 증거와 언어 외적 지식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과 직관이 동원될 수도 있다. 연구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거나 연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객관적 기술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변뜩이는 상상력과 순간적인 직관에 따른 추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ㄱ라았다-’에서 확인되는 ‘*꺄-’에 대해 현대국어 ‘꺄-(무엇을 밑에 두고 누르다)’을 직관적으로 떠올려 ‘潛’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변화의 어느 단계에서 문헌상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선후 단계의 증거를 토대로 하는 추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추정이 도를 넘으면 의심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하여 추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여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1.5. 형태 변화 및 의미 변화

형태 분석이 끝나고 또 이를 근거로 기원적 의미까지 밝힌 다음에는 해당 어휘의 변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기술한다. 곧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다. 물론 ‘다락’과 같이 형태나 의미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 밝히면 된다. 그리고 의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형태 변화만 일어났다면 그것을 정밀하게 기술하면 되며, 형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의미 변화만 일어났다면 그것만 정밀히 기술하면 된다. 형태와 의미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기술해서는 안 된다. 양쪽에서 고른 조명을 받아야 어원 해석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기존의 어원사전에서는 ‘형태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으나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다루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기도 하여 새로운 어원사전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해야 할 듯하다.

‘형태 변화’의 경우에는 그 시기, 변화의 동인, 변화의 과정 등에 초점을 두어 기술한다. ‘변화의 시기’는 형태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말한다. 그 시기는 시기별 예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음운 규칙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변화의 동인’은 변화를 이끄는 음운 규칙을 말한다. 물론 모든 형태 변화가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형태 변화가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사 ‘비룻-’이 ‘비룻-’으로 변한 이유를 부사 ‘비로소’에 유추된 결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변화의 과정’은 최초 출현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사이에 발생한 형태상의 변모를 추적하는 과정이다. 변화 과정은 일차적으로 음운 규칙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구체적 예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예14) 해오라기

(전략) 16세기 문헌에는 ‘하야로비, 해야로비’ 이외에 ‘**히아로비**’(新增類合 上:11 (1576))도 보인다. ‘히아로비’는 ‘해야로비’의 제2음절에서 ‘y’가 탈락한 ‘해야로비’의 다른 표기 형태이다. 17세기 이후 문헌에는 ‘하야로비’가 많이 나오지만, ‘해야로비’(東醫寶鑑 1:40 (1613)), ‘**히올아비**’(類合(七長寺版) 7 (1664)) 등과 같은 어형도 보인다. 이 중 ‘히올아비’가 특히 주목된다. 이는 16세기에 보이던 ‘히아로비’ 계통인데, ‘히아로비’의 제2음절과 제3음절의 모음이 상호 도치된 어형이다. ‘히오라비’가 19세기 말 문헌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말의 《韓佛字典 83》(1880)에는 ‘히우라비’와 ‘**히오라비**’라는 두 어형이 함께 올라 있다. 전자는 ‘히오라비’의 제2음절 모음이 변한 어형이고, 후자는 ‘히오라비’의 제4음절 두음 ‘비’이 ‘ㄱ’으로 교체된 어형이다. 제4음절의 두음이 ‘ㄱ’인 어형이 비로소 19세기 말에 보인 것이다. ‘히오라비’는 20세기 이후의 《朝鮮語辭典》(1920)과 《朝鮮語辭典》(1938)에는 ‘해오라기’로 표기되어 나오며, 현재 이것이 표준어이다. 이로 보면 15세기의 ‘하야로비’가 ‘해야로비>해아로비>해오라비’를 거쳐 ‘해오라기’가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후략)

형태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형태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곧 형태 변화가 의미 분화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가 의외로 많다. ‘사살’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예15) 사살

‘사살’은 이른 시기의 문헌에 보이지 않으며, 19세기 말 문헌에서야 확인된다. 사전으로는 《큰사전》(1950)에 처음 올라 있는데, ‘잔소리로 늘어놓는 말’을 뜻하는 ‘사설(辭說)’에서 온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후 사전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 ‘사설(辭說)’의 제2음절 모음 ‘ㅓ’가 제1음절 모음 ‘ㅏ’에 이끌려 ‘사살’이 된다. ‘사설(辭說)’은 본래 ① ‘늘어놓는 말이나 이야기’의 뜻인데, 이에서 ② ‘잔소리나 꾸밈을 길게 늘어놓음. 또는 그 잔소리와 꾸밈’이라는 뜻으로 변한다. 그런데 ‘사살’이 나온 이후 ‘사설’은 주로 ①의 의미를 담당하고 ②의 의미는 ‘사살’에 넘겨주게 된다. 형태 변화에 따라 의미가 분화된 것이다. ‘사살’이 갖는 ②의 의미는 의미 가치도 떨어져 경멸적인 쪽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沈在箕 1980: 209).

‘의미 변화’는 ‘형태 변화’와 달리 비가시적이어서 변화의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의미 변화’에서 그 변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기별 관련 예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의미 변화’의 경우에는 ‘변화의 시기’, ‘변화의 원인’, ‘변화의 과정’ 등에 주목하여 기술한다.

‘의미 변화의 시기’는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대략적인 시기를 말한다. 이전과 의미가 달라진 예가 나타나면 바로 그 시기를 변화의 시기로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엇디 흐려뇨 어엿비 너겨 우리를 혼 씨 밥 쌀과 밀 답과 콩을 밧피여 줌이 엇더흐뇨”(老乞大諺解 上:47 (1670)), “흐르 세 씨 더를 주어”(朴通事諺解 上:10 (1677))에 나오는 ‘씨’를 근거로 ‘씨’가 17세기에 ‘時’에서 ‘食事’라는 의미로 변했음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미 변화 사실은 확인되어도 그 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예가 훨씬 더 많다. 현대국어를 통해 의미 변화의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해당 예를 확보하지 못하여 그 시기를 추정하지 못하는 예가 너무나 많은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지 의미 변화 사실만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의미 변화의 원인’은 의미 변화를 이끄는 동인을 말한다. 여기서는 ‘유의성, 생략, 전염, 민간어원’ 등과 같은 언어 내적인 요인과 함께 ‘사회 구조 변화’, ‘시대적 상황’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요인까지 아울러 고려한다. 예를 들어, ‘兩班’이 ‘지배 신분층’ 또는 ‘사대부’라는 의미에서 ‘점잖고 예의 바른 남자’라는 의미로 변한 것은 班常의 신분 차별 제도가 붕괴되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겨레’가 ‘親戚’에서 ‘集團, 集合’으로, ‘集團, 集合’에서 ‘民族’의 의미로 의미가 확대된 것을 ‘유의 경쟁’이라는 언어 내적 요인 함께 ‘민족’을 뜻하는 어휘를 요구하는 ‘시대 상황’과 같은 언어 외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설명한다.

‘의미 변화의 과정’은 의미 파생의 고리를 밝혀 변화의 계기적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 ‘얼굴’이 ‘몸 전체’에서 ‘顏面’으로 의미가 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연결 고리가 있었음을 밝힌다.

예16) 강냉이

(전략) 그런데 ‘강냉이’가 ‘강낭이’로 변하면서 ‘강남(江南)’과의 유연성은 상실된다. 《國漢會語 11》(1895)에서 ‘강낭이’를 단순히 ‘옥수수’와 같은 식물 품종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으로 이해된다. ‘강낭이’는 ‘옥수수’라는 식물에서 ‘옥수수의 열매’라는 의미로 변한다. 곧 전체에서 부분으로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다. “玉위米미 강낭이”(華語類抄(가람문고본) 46 (18xx))에 나오는 ‘강낭이’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다. (중략)

예17) 화냥

(전략) 한편 근대국어의 ‘화냥’은 특이하게도 ‘계집질하는 남자’라는 의미로도 쓰였다(조항범 2003다). “부릅쓰고 대를 왈 이 무도훈 화냥는 드르라 네 국녹지신으로 일도 방빅이”(당빅전(경관28장본) 12 (1860))에 쓰인 ‘화냥’은 ‘국녹지신(國祿之臣)’과 대응되어 ‘계집질하는 남자’로 해석된다. 梁柱東(1938)에서 ‘화냥년’에 대한 ‘화냥놈’이라는 단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도 ‘화냥’이 한때 남성에게도 적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화냥’의 의미 적용 범위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화냥’이 ‘여성’에게만 적용되어 다시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다. 현대국어에서 ‘화냥’은 더 이상 남성에게 적용되지 않고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화냥’의 이와 같은 의미 적용 범위 축소는 의미 적용 범위 확대에 이은 두 번째 의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화냥’은 의미 적용 범위 확대와 축소에 의한 의미 변화를 함께 겪은 특이한 단어가 된다.

3.3.1.6. 어휘 소실 및 그 원인

만약 분석 대상 어휘 또는 그와 관련된 어휘가 소실되었다면, 그 소실 현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해당 어휘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문헌, 소실의 시기, 소실의 원인, 소실의 결과 등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臍’을 뜻하던 ‘열’은 20세기 초 사전의 기술 내용을 볼 때 20세기 이전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뜰개’와의 유의 경쟁의 결과 소실된 것으로 설명한다.

예18) 귀머거리

(전략) 15세기에는 ‘귀머거리’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떡덩이’(月印釋譜 13:18 (1459))가 쓰였다. ‘떡덩이’는 동사 어간 ‘떡-[塞]’에 접미사 ‘-덩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덩이’는 명사 ‘덩’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파생 명사 ‘덩이’가 접미사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덩’을 한자 ‘丁’으로 보기도 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덩이’는 ‘곱덩이’에서 보듯 ‘-덩이’로도 나타난다. 이는 ‘-덩이’에서 ‘ㅇ’이 ‘o’으로 표기된 어형이다. 모음조화에 따라 ‘-덩이’ 또는 ‘-덩이’가 선택된 것이다. ‘-덩이’와 ‘-덩이’는 일찍이 접미사화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에 어떤 결합이 있는 사람’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떡덩이’도 ‘귀가 막힌 사람’으로 해석된다. 15세기의 ‘떡덩이’는 일찍 사라져 현대국어 방언형 ‘귀떡쟁이(제주), 귀떡쟁이(평남, 평북), 귀떡쟁이(전남), 귀떡쟁이(강원)’ 등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귀머거리’와의 유의 경쟁에서 밀려나 소실된 것이다. 이들 방언 형태들이 ‘귀떡덩이’(서유기(연세대본) 3:4 (18xx)), ‘귀떡장이’(서유기(연세대본) 6:54 (18xx))로 문헌에 나타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서 언급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최초 출현 형태 및 출현 시기
- ② 차용 사실의 확인
- ③ 기존 연구 성과 검토
- ④ 형태 분석 및 의미 해석
- ⑤ 형태 변화 및 의미 변화
- ⑥ 어휘 소실의 시기 및 원인

3.3.2. 내용 기술 방식

3.3.2.1. 분할식 방식

‘분할식 방식’은 어원 해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부분을 하나하나 나누어 기술하는 방식이다. 김민수 편(1997), 김무림(2012), 이기문(2012) 등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민수 편(1997)에서는 핵심 내용을 ‘어원’, ‘변화’, ‘민간어원’ 등으로, 김무림(2012)에서는 ‘어원 설명’, ‘형태 분석’, ‘형태 변화’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는 ‘사전’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 방식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주요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또 그것이 유기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기호화해서 보여주거나 요약해서 보여주면 일반인에게는 도리어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3.3.2.2. 종합식 방식

‘종합식 방식’은 ‘내용’을 나누어 기술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합하여 기술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무엇보다 역사적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고 또 여러 정보를 유기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종합식 방식’은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기술하는 것이므로, 자칫하면 정보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해당 예와 그에 대한 출처, 선행 업적 등과 같이 자잘한 사항까지 기술해야 하므로 전체 내용이 혼잡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을 요한다.

‘종합식 방식’에 의한 ‘내용’ 기술이 성과를 얻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듯하다.

첫째,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사항들, 곧 ‘최초 출현 형태 및 출현 시기’, ‘차용 사실의 확인’, ‘기존 연구 성과 검토’, ‘형태 분석 및 의미 해석’, ‘형태 변화 및 의미 변화’, ‘어휘 소실의 시기 및 원인’ 등을 고루 반영한다. 이들 사항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되는 예는 드물지만, 그래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술해야 한다.

둘째,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사항들은 별개의 것이지만,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말하자면 기술의 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짜임새 있는 글이 될 수 있다.

셋째, 해당 사항마다 다양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되 그 정보를 사실과 근거, 규칙 등에 의거해 기술한다. 그래야만 해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제한된 공간이지만 대상 어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물을 충실히 반영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별 어휘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합 설명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한다. 곧 핵심 내용을 별도로 제시한다.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예19) 어머니

* 품사: 명사.

* 의미: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최초 문헌 용례: 또 슈너 어마니 조판서 썩고 조희 봉식 가느니 <順天金氏墓出土簡札 132> (15xx)

* 요약: ‘어마니’로 소급하며, [어마+-니]로 분석됨. ‘어마’는 ‘母’에 대한 호칭어이며, ‘-니’는 존칭접미사 ‘-님’에서 ‘ㄱ’이 탈락한 어형임.

‘어마님>어마니>어머니’로 변함.

‘어머니’는 16세기의 <順天金氏墓出土簡札 132> (15xx)에 ‘어마니’로 보인다. 그런데 16세기의 ‘어마니’는 아주 특이하다. 왜냐하면 ‘어마니’와 같은 ‘-니’형 친족어휘가 문헌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이기 때문이다. 언간에 보이는 ‘어마니’를 당시의 생생한 구어 자료로 볼 수도 있으나 필사 자료라는 점에서 오기(誤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順天金氏墓出土簡札 132> (15xx) 이후에는 18세기의 《조야첨지 37:38》 (1746-1776), 《念佛普勸文(海印寺版) 14》 (1776) 등에 와서야 ‘어마니’가 발견된다. ‘어마니’의 단어 구조에 대해서는 ‘어마’에 접미사 ‘-니’가 결합된 것(徐廷範 1969), 모성(母性)의 어근 ‘*엄’에 접미사 ‘-어니’가 결합된 것(劉昌惇 1971: 186), ‘어미’에 접미사 ‘-아니’가 결합된 것(崔明玉 1982), 함경 방언에서 확인되는 ‘어만’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것 등과 같은 여러 어원설이 있으나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 ‘어마니’는 그 존칭형인 ‘어마님’에서 마지막 음절의 말음 ‘ㅁ’이 탈락한 어형이기 때문이다(千素英 1984). ‘-님’에 선행하는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개방성에 이끌려 ‘-님’의 말음 ‘ㅁ’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바님’이 ‘아바니’로, ‘할마님’이 ‘할마니’로, ‘한아바님’이 ‘한아바니’로 변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어마니’는 존칭형 ‘어마님’에서 변형된 것이지만, 존칭이 아니라 평칭 내지 그 이상의 등급이었다. ‘어마니’가 평칭 체계로 들어오면서 근대국어의 ‘母’ 관련 친족어휘의 평칭어는 얼마 동안 ‘어미, 어마(>엄마), 어마니’의 세 단어가 된다. ‘어미’가 평칭에서 비칭으로 등급이 떨어진 이후에는 ‘엄마’와 ‘어마니’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어마니’는 19세기 이후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어머니’(출향전(경관35장본) 31 (1840), 남원고소 1:40 (1864-1869))가 된다. 현재 ‘엄마’는 유아어로, ‘어머니’는 성인어로 대립하는 양상이다.

■ 어마님

4. 결론

지금까지 보다 나은 국어 어원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놓고 ‘표제어 선정’, ‘사전의 형식’, ‘사전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국어 어원사전의 문제점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1) 기존의 국어 어원사전은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석 대상의 어휘가 적은 점, 그것도 합성어나 파생어에 편중되어 있는 점, 그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 민간어원을 극복하지 못한 점, 형태와 의미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점, 비교언어학적인 성과가 미진한 점 등이 그러한 것이다. 어떤 국어 어원사전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후속 국어 어원사전은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나아져야 하기에 그 문제점을 잘 알고 편찬에 임해야 할 것이다.

(2) 기존 국어 어원사전의 ‘표제어’는 어휘, 그것도 고유어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국어 어원사전에서는 ‘조사’, ‘접사’, ‘관용어’, ‘속담’까지 아울러야 하며,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외래어’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일부이지만 ‘방언’(지명 포함)이나 ‘고어’까지도 대상어에 넣어야 한다.

(3) 국어 어원사전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형식’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① ‘표제어 품사’, ② ‘표제어 의미’, ③ ‘최초 문헌 용례’, ④ ‘해석 요약’, ⑤ ‘종합 설명’, ⑥ ‘참조’ 등이다. ④는 ⑤의 ‘종합 설명’을 요약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다.

(4) 국어 어원사전의 ‘내용’은 ① ‘최초 출현 형태 및 출현 시기’, ② ‘차용 사실의 확인’, ③ ‘기존 연구 성과 검토’, ④ ‘형태 분석 및 의미 해석’, ⑤ ‘형태 변화 및 의미 변화’, ⑥ ‘어휘 소실 시기 및 원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④와 ⑤가 핵심이다. 형태 분석과 의미 해석에는 ‘단어족’과 ‘방언’을 활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 외적 지식, 상상과 직관 등도

동원한다. 주로 ‘형태 변화’에서는 변화의 시기, 변화의 동인, 변화의 과정 등을, ‘의미 변화’에서는 변화의 시기, 변화의 원인, 변화의 과정 등을 기술한다.

(5) 국어 어원사전의 ‘내용’ 기술 방식은 크게 ‘분할식 방식’과 ‘종합식 방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분할식 방식’은 국어 어원사전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별도로 제시하는 방식이고, ‘종합식 방식’은 이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통합하여 기술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있다.

참고문헌

- 姜吉云(2010),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 姜憲奎(1986), 〈한국어 어원연구사 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강헌규(2017), 《국어 어원학 통사》, 보고서.
- 權憲奎(1921), 〈閒者の 辭典〉, 《開闢》 8.
- 金東縉(1927), 《四千年間朝鮮俚語解釋》, 德興書林.
- 김무림(2012),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 김무림(2015), 《(전면개정판)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김양진(2011), 《우리말 수첩》, 정보와사람.
- 김인호(2005), 《어원유래상식(1)》,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 김인호(2001), 《조선어어원편람(상), (하)》, 박이정.
- 렴중률(2001), 《조선말 단어의 유래》, 금성청년종합출판사, 평양.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2007),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결과물(한민족 언어 정보화: 어휘 역사 검색 시스템)〉
- 박일환 엮음(1994), 《우리말 유래사전》, 우리교육.
- 백문식(1998),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出版社.
-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 徐廷範(2000), 《國語語源辭典》, 寶庫社.
- 서정범(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 안옥규(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출판사.
- 劉昌惇(1971), 《語彙史 研究》, 宣明文化史.
- 李基文(1985), 〈語源 研究의 方法〉, 《第1차 KOREA學 國際交流세미나 논문집》.
- 李基文(1986), 〈國語 語源論의 課題〉, 《崔泰士先生喜壽記念論文集》.
- 李基文(1987), 〈國語의 語源 研究에 대하여〉, 《第一回 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 李基文(2006),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 李基文(2008), 〈한국어 어원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7-1.
- 李基文(2012), 〈語源 研究의 뒤안길〉, 《韓國語研究》 9.
- 李基文(2013), 〈語源 研究의 뒤안길(2)〉, 《韓國語研究》 10.
- 李基文(2014), 〈어원 연구의 뒤안길(3)〉, 《韓國語研究》 11.
- 李基文(2015), 〈國語 속의 蒙古語 借用語〉, 《韓國語研究》 12.

- 李秉根(1999), 《어휘사》, 태학사.
- 조영언(2004), 《한국어 어원사전》, 다솜출판사.
- 趙恒範 編(1994), 《國語 語源研究 총설(I)》, 태학사.
- 조항범(1994), 〈20세기 초의 국어 어원 연구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10.
- 조항범(2014), 《(개정판) 국어 어원론》, 충북대학교 출판부.
- 崔昌烈(1986), 《우리말 語源研究》, 一志社.
- 한진건(1990), 《조선말의 어원을 찾아서》, 연변인민출판사.
- 홍윤표(2009),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 Ramstedt, G. J.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SFOu 95.

“국어 어원 사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문

이건식(단국대학교)

0. 조항범 선생님께서는 우리말의 어원과 지명의 어원을 오랜 기간 동안 깊이 있게 탐구해 오셨습니다. 우리말의 어원에 대한 선생님의 탐구 정신이 결실을 맺어 우리말의 참모습이 밝혀 지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저는 우리말 어원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의 질문에 우둔한 점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1. ‘2장 국어 어원사전 편찬의 현황’에서 20가지의 어원 사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면의 제약이 있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어떤 어원사전에 대해서는 수록된 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어원사전에 대해서는 수록된 양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원사전에 기술된 양적 성과도 그 동안의 어원 연구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측면에서 어원사전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어원사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2장의 기술은 내용적으로도 소략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주장한 표제어 선정, 어원사전의 형식, 어원사전의 내용 등의 관점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거시적 지표에서 설명하고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2장에서 기술될 내용들 일부는 3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장 국어 어원사전 편찬의 실제’는 표제어 선정, 어원사전의 형식, 어원사전 내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원사전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만 기술한 것으로 어원사전의 목표 설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발표문의 제목에 ‘어떻게’를 강조하여 ‘구성 내용’만 기술한다고 하셨지만 발표문을 읽고 국어어원사전과 국어사전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피상적 생각으로는 발표문의 내용은 이상적 국어사전 편찬의 문제를 다룬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각 시대 음운이나 문법 체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국어사전에서 다루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시대 음운이나 문법 체계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국어어원사전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의 이러한 구별 기준은 사실 선생님의 발표문에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3. ‘3.1 표제어 선정’은 사실 ‘표제어 선정의 범위’일 듯 합니다. 3.2. 어원사전의 형식에서 제시한 ① 표제어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3.2에서 말한 ① 표제어는 표제어의 표기 원칙에 대해 기술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예컨대 두 단어 이상으로 된 표제어의 경우 띄어쓰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표제어의 이칭 정보를 수록할 것인지의 문제가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발표문이 어원사전 편찬의 매뉴얼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문제를 굳이 기술할 필요는 없지만 자료 조사의 완전성을 위해 처음부터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3.1 표제어 선정’에서 관용구와 속담은 빈도가 높은 것을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빈도가 높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히>개’의 변화를 어원 사전에서

다룬다고 하셨는데 이 지점에서 국어어원사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의 변화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해온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는 국어 사전에서 기술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5. 3.2. 어원사전의 형식에서 ④ 최초 문헌 용례만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최초 문헌 용례만 가지고 정확한 어원이 밝혀질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용례는 문헌별로 가급적 모두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어원 탐구가 자칫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례를 가급적 문헌별로 제시한 사례로는 홍윤표(2009)가 있습니다. 홍윤표(2009)의 어원 풀이는 다양한 용례 제시 때문에 어원 풀이에 믿음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원사전 편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극복해야 할 것은 어원사전의 풀이가 민간어원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용례의 제시도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다른 증거 자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 3.3 어원사전의 내용에서는 '⑤어원(해석 요약), ⑥해석(종합설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형태 분석, 의미 해석, 형태 변화, 의미 변화 어휘 소실 및 그 원인 등의 내용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태, 의미와의 유기적인 분석은 민간어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원에 대한 다수의 견해가 존재할 때, 다수의 견해를 어느 범위에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전문가 대다수가 비논리적 어원 해석으로 판단한 것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 양립되는 어원 해석이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설명할 것인지의 문제, 전문가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을 위해서 유력한 어원 해석 순서를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 3.3. 어원사전의 내용에 제시된 어원 설명의 사례를 보면 어원 설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것은 출전이, 어떤 것은 형태 분석이, 어떤 것은 의미 해석 등에 치우쳐 기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원 설명의 기술 내용 구조를 형식화하고 계량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량화는 어원 설명이 논문이 아니고 사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홍윤표(2009)가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방언 어원 연구의 방향과 과제

-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 -

이태영(전북대학교)

1. 서론

국어사의 어원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중세국어와의 관련성 또는 그 이전 시대와의 관련성까지 끌어 올리는 작업을 통해, 한 단어의 근원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가장 오래된 고형을 재구하려는 경향으로 인하여 주로 재구가 가능한 어휘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방언의 경우, 많은 어휘들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또는 중세 이전 시기의 언어와 관련이 있어서 충분히 어원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주로 동원되는 기제가 중세국어와 비교하거나 그 이전 시기의 언어로 재구하는 방법이다. 이런 어원 연구 방법은 방언을 국어사와의 관련성 안에서 그 통시적 변천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병근(2004ㄱ)에서는 ‘질경이([길경 + 이]), 뽕이([뽕#뽕+양이])’의 어휘사를 다루면서 방언 ‘배뽕쟁이’를 통해서 ‘뽕-(織)’가 ‘*뽕즈-’ 정도로 재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병근(2004ㄴ)에서는 ‘마름’의 어원을 ‘*물#뽕>*물뽕>말뽕>말뽕>말뽕> …>마름’으로 재구하고, ‘마름’의 평북 방언 ‘말감(말개미)’을 통해 어휘사를 방언학적으로 새로 조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고(53쪽) 말하고 있다. 이병근(2004ㄷ)에서는 ‘고양이’의 어원을 ‘*고니>*고이>괴’의 여러 단계에서 ‘고니, 고이, 괴’ 계통이 지역에 따라 쓰이면서 ‘고냉이(*고니+양이), 고앵이(*고니>*고이+양이), 고양이(괴+양이)’ 등으로 쓰이게 되었다고(131쪽) 보고 있다. 이병근(2004ㄹ)에서는 ‘지느러미’의 어원을 밝히면서 ‘*진, 진+에(16세기 이후), 진+어미(18세기 후기 이후), 진+을+어미(19세기 이후)’로 나누고(145쪽), 방언형에서 ‘깃’ 계통의 방언형과 분포를 가지고 ‘깃, 기스레미, 기시레미’와 ‘짚, 지지미, 지치미, 찌시레미’ 등이 ‘지느러미계’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51쪽) 한편 이병근(2004ㄹ)에서는 ‘올가미’의 어원을 문화사적으로 밝히면서, 방언을 통하여 ‘*흙->웁- +-아미’의 변화를 재구해 내었다.

이길재(2005)에서는 ‘등겨’의 방언형의 어원을 다루고 있고, 이길재(2006)에서는 전라 방언의 기초적인 어휘 천여 개에 대해 그 변천과정과 분포를 밝히고 있다. 위평량(2003, 2004, 2005)에서는 전남 방언 어휘의 어원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신중진에서는 ‘고드름 ([[곧-+-얼-]v+-음]n)’(2006), ‘냉이 (‘냉- + -이 → 나히’(냉히>냉이))’(2007), ‘두드러기 ([[*둔-+-을-]v+-역]n)’(2008), ‘부스럼 ([[*붓/붓- ~ 붓/붓-]v+-을/을-]v+-음)’(2010), ‘미꾸라지 ([[*뭇 ㄱ/*뭇 ㄱ(漚)+-을-]v+-이]n+-아지]n)’(2011)의 어원을 형태사의 관점으로 방언과 함께 밝히고 있다. 천정아(2012)에서는 ‘진달래’를 ‘*진들뽕>진들외’로 재구하고 각 지역의 방언형의 어원을 밝히고 있다. 정승철(2013)에서는 ‘고무래 (‘*고물-(*곰+-을) + -애’)의 어원을 방언의 이형태와 함께 밝히고 있다. 배영환(2016)에서는 ‘오분자기(*오불-[奎] + -ㄴ + ‘자개’[貝]의 변화형)’의 어원을 방언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김태우(2018)에서는 ‘조스’(자위)의 어휘사와 방언 분포를 다루고 있다. 이태영(2000ㄱ)에서는 ‘나물’의 변화

과정을 '*늪, 늪>늪 + -을>늪>늪>나물>나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영(2009ㄱ)에서는 '내음'의 방언형 '내금'(臭)을 통하여 '*내그- + -음'을 재구성하였다.

한편, 방언의 어휘를 가지고 공시적으로 변화의 과정과 원인을 탐구하는 방법이 있다. 전북 방언의 경우, 최전승(2009)에서는 전라 방언에 나타나는 '근디(鞦韆)'의 공시적인 언어변화를 추적하면서 '근두(跟徒) + -이>근뒤>근디'의 변화과정으로 보았다. 이태영(2001ㄴ)에서는 부사 '솔찬히'의 어휘사를, 이태영(2009ㄴ)에서는 '내비두다, 내짜두다'의 어간재구조화를, 이태영(2012)에서는 부사 '겁나게'의 어휘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공시적 연구 방법은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 방언에서 공시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어휘에 대한 연구가 정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 방언의 기초 어휘조차도 그 방언 자체의 변화에서 변화의 요인이나 과정을 찾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 국어사 연구를 위해, 방언 어휘의 통시적 연구는 필수적이며 상관적인 과정이다.¹⁾ 따라서 문헌의 국어사 연구와 방언의 역사적 연구가 병행되어야만 전체 한국어 어휘의 역사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방언 어휘에 대한 어원 연구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위에서 언급한 논문에서와 같이 하나의 어휘를 대상으로 여러 지역의 방언을 살피게 되면, 그 어휘에 대한 전체 한국어의 보편적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표준어를 산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지역 방언의 기초적인 어휘에 대해 어원 연구를 통해서 복수 표준어로서의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어원'이란 '어떤 단어의 근원적인 형태. 또는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²⁾ 그러나 최근 방언의 어원 연구는 '어원 연구, 어휘사, 형태사, 음운사, 변천과정, 분화,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원 연구의 폭을 넓히면서 연구하여 왔다.

어원 연구가 주로 명사에 한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지만, 다행스럽게도 국어사와 특정 지역 내지는 전국 방언 자료를 함께 다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전체 한국어의 관점에서 국어사 연구에 도움을 주는 방향의 어원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견해보다 더 정밀한 고어형을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재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방언형과 비교하여 다양한 이형태 또는 방언분화형의 어원을 제시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또한 방언형을 이용하여 국어사의 고형을 재구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더욱이 공시적인 변화형도 정밀하게 그 변화과정을 살피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방언의 어원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방언의 특성에 따른 어원의 개념을 어휘사 내지는 변천 과정과 같이 조금 넓게 적용하여, 방언의 어원 연구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중세국어와 전라 방언의 상관성

국어사와 방언은 여러 측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방언 어휘는 국어사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방언의 해석에 국어사적 관점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1) 표준어보다 오래된 어휘에 대한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표준어는 보존하고, 표준어보다 더 오래된 지역 방언을 '遺形, 殘存形' 등으로 무시하는 언어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방언의 기초 어휘의 고어형을 복수 표준어로 선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어원'의 뜻풀이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역으로 국어사의 해석에도 빈칸이 많이 있다. 이러한 빈칸은 방언의 연구를 통하여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국어사 문헌에 나오는 어휘들이 전라 방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어사에 나타나는 표기의 문제가 전라 방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중세국어에서 전라방언으로의 변화

발음의 변화에 따라 이형태가 많은 방언은 이형태마다 그 음운론적 변화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³⁾ 최근의 어휘사 논문에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세국어에서 전라방언으로 변화한 전북 방언의 예를 일부만 들어보기로 한다.

『訓民正音 諺解本』과 『訓民正音 解例本』에는 ‘밍 ㄱ노니<1446훈언3a>, 아ㅅ 爲弟 <1446훈민해,56>, 브섭 爲竈 <1446훈민해,57>, ㅍㅍ 爲小豆 <1446훈민해,56>, 호·미 爲鉏 <1446훈민해,57>’와 같이 전라 방언과 관련된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어휘들은 전라 방언에서 ‘밍글다>맹글다/맹길다, 아ㅅ>아수/아시, 브섭/브석>부석, ㅍㅍ>ㅍㅍ, 호미>호무’ 등으로 말하고 있다.

‘아ㅅ’(弟)는 문헌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그런데 이 ‘아ㅅ’는 자음과 휴지(休止) 앞에서는 ‘아ㅅ’로 나타나지만 모음 앞에서는 ‘앗이, 앓이, 앓울’과 같이 ‘앗ㅇ’로 공용한다. ‘아ㅅ’는 전북에서는 ‘아ㅅ>아스>아시~아수’로 변화였고, 중부방언(표준어)에서는 ‘아ㅅ>아으>아으>아오>아우’로 변화했다.(이길재, 2006 참조) 전라 방언의 ‘아수보다, 아시보다’는 ‘동생이 생기다’의 뜻인데 이러한 관용표현에 ‘아시, 아수’가 쓰이고 있다.⁴⁾

‘부역’의 15세기 형태는 ‘브섭’과 ‘브석’이다. 이들은 명사 ‘붓’과 접미사 ‘-업’, ‘-역’과의 결합형으로 볼 수 있다. ‘붓’의 더 오래된 형태는 ‘*붓’으로 재구된다. 중세국어 ‘브섭’은 중부방언(표준어)에서는 ‘브섭>브석>브역>부역/부석’으로 변화하였다. 전라 방언에서는 이미 중세국어에 존재하는 ‘브석’이 있기 때문에 ‘*브석>부석’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ㅅ’의 기원을 ‘ㅈ’으로 본다면 ‘브석>브석’의 변화로 봐야 할 것이다.⁵⁾(어휘 역사 검색 프로그램 참조) 전라 방언에서는 ‘부석’이 주로 쓰이고 있다.⁶⁾

중세국어에서는 ‘밍글다’가 쓰였다. 전라 방언은 중세국어에서 바로 ‘밍글다>맹글다>맹길다’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쓰인 어휘들은 이미 중세국어 이전부터 쓰이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최근 ‘우리말샘’에서 제보자들이 제보하는 방언의 경우, 음운론적 이형태가 압도적으로 많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이형태를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말샘’에서는 방언의 어원이나 음운변화의 과정을 제시하는 일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4)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서 ‘아수, 아시’의 이형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소보다 <충북>, 아수보다 <전북><충남><충북><전남>, 아쉬보다 <충남>, 아시2가 났다 <경남>, 아시2로 본다 <경남>, 아시2를 본다 <경남>, 아시2본다 <경남>, 아시보다 <전북><전남>

5) 중세어에서 ‘ㅈ’이 ‘ㄱ’으로 바뀌는 경우는 여러 단어에서 확인되고 있다. ‘거북>거북(龜). “거북 <1447석보상,21:40a>, 거북 귀 (龜)<1664유합철,9b>”. ‘솥>속’(內). “裏 솥 리<1527훈몽자,하,15a> 裏 속 니<1576신유합,上,2b>”. ‘붓>복’(鼓). “鼓 붓 고<1527훈몽자,중,14a> 打鼓 복 티다<1690역어유,상,20b>”. ‘거북’과 ‘거북’, ‘솥’과 ‘속’, ‘붓’과 ‘복’은 15·6세기에 서로 공존하다가 ‘거북, 속, 복’의 형태로 고정되었다.(어휘 역사 검색 프로그램 참조)

6)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서 ‘부석’과 관련된 이형태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부사개, 부사개, 부삭<전남>, *부삽<경남><경북><전남>, *부서개<전남>, *부석<충남><경남><강원><경북><전남><전북><충북><평남><평북><함남><중국>, *부섭<전남>, *부석<충남><충북>, *부석<경남>, *부수개<충남><충북><함남><함북><중국>, 부수개<함남><중국>, *부속 <경남>, *부순개, 부숫개<함남><함북>, *부송<전남>, *부식, 부식<경북>

- (1) ㄱ. 阿育王이 듣고 시름하야 날오디 내 다몬 훈 {앗이} 더런 모딘 쓰들 머그니 아므례나 고티
 게 호리라 호고 <1447석보상,24:27a>
 ㄴ. 善友 | ㄱ복샤 도즈긴가 너기샤 {앗이} 일흠을 ㄱ장 브르시니 <1459월인석,22,10a>
 ㄷ. {아수} 爲弟 <1446훈민해,56>
 ㄹ. {브섭} 爲寵 <1446훈민해,57>
 ㅁ. {브서빅} 고·깃 내·어·닐 사·호논 ·짜·헨 ·쎄 ·하야·호도·다 <1481두시초16,72a>
 ㅂ. 안호·로 붓·그로·디 {브석} 굼·기:검디:몬훈 ·나를 <1481두시초22,51a>
 ㅅ. 세도고 양반이고 인자 죽어 부렸는다. 아무 짝에도 쓸 디 없제. {부석}{부역} 앞에 불태고
 았있는 내가 낫제.<최명희,훈불,1996,6,126>
 ㅇ. 정제서 쇠물술에서, {부석짜}{부역}에가 오그리고 았았다가,<5-5전북정주시*정읍군
 편,637p>
 ㅈ. 또 五色幡 {밍굴며} 燈 허 아닛 위여 붉게 호며<1447석보상,9:35a>
 ㅊ. 구든 쓰들 머그샤 도헌 根源을 {밍 ㄱ복쇼셔}<1459월인석,10,9a>

전라 방언의 많은 어휘들은 중세국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분화되었다. 그러한 예를 가지고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5세기의 ‘꺠애, ㄱ새(剪)’는 ‘자르다’를 의미하는 동사 ‘꺠-’ 뒤에 파생접사 ‘-개’가 결합한 후에 ‘△’ 뒤에서 ‘ㄱ’이 ‘ㅇ’으로 약화된 결과이다.(‘어휘 역사 검색 프로그램’ 참조) 전라 방언에서는 ‘꺠이>ㄱ시>ㄱ시>가새’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 (2) ㄱ. {꺠애와} 자과로 지소물 뵈아누니 <1481두시초10,33b>
 ㄴ. 剪 {ㄱ새} 전 <1527훈몽자,중,8a>
 ㄷ. 요집 사람덜은 괴기를 짜를 때도 {가새를} 쓰도만. <전라 방언>
 ㄹ. 시방은 옛장시들을 볼 수가 없는다, 그전으는 큰 가새 들고 땡임서 옛을 팔고 땡깁는다,
 시방도 어디가 그런 {가새} 든 옛장시가 있으까? <전라 방언>

15세기의 ‘냘, 나모(木, 樹)’는, 단순 모음 앞에서는 ‘냘’으로 실현되고 그 이외의 환경에서는 ‘나모’로 실현된다. ‘냘’에 접사 ‘-이’가 결합된 ‘냘기’를 단독형으로 본다면 ‘냘기>냘긔>냘계/냘긔/냘귀>냘구>냥구’와 같은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이길재, 2006) 전라 방언에서는 ‘냘기, 냘구, 냘계, 냘그, 냘구’가 많이 쓰이고 있다.)

- (3) ㄱ. 꺠과 果實와 플와 {나모와틀} 머그리도 이시며 <1447석보상,3:33b>
 ㄴ. 이 東山은 {냘기} 도홀씨 노니논 짜히라 <1447석보상,6:24a>
 ㄷ. 봄인디 받이다 {냘구를} 조깨 심귀야것는다 무신 냘구가 좋으까이?<전라 방언>
 ㄹ. 아 대추 냘구도 있고, 자두 {냘구도} 있고, 글안으면 다른 과실 냘구도 괜참지.<전라 방

7) 전남방언에서는 ‘가시개’의 이형태가 많이 쓰인다.
 8)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서 ‘냘기’와 관련된 이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냘계<전남><경남>, *냘구<경남>, *냘그<강원><경남><충남><전남><충북><평남><평북><함남><함북><황해>, *냘긔<경기>, *냘기<경북><전남><충남><함남>, *냘긔<경남>, *냘개<경남>, *냘계<경북><경남>, *냘구<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평남><평북><황해><중국>, *냘귀<경남><경북><충남> *냘그<강원><경기><경남><전남><전북><충남><충북><평남><평북><함남><함북><황해><중국>, *냘기<강원><경남><경북><전남><충남><평남><평북><함남><함북><중국>

언>

현대국어 ‘냉이’의 15세기 형태는 ‘나시’이다. 대체로 ‘나시>나이>냥이>냉이’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⁹⁾ 한편, 전라 방언에서는 ‘나시’에 접사 ‘-앙’이 결합된 ‘나상’에 다시 접사 ‘-개, -이’가 결합하여 ‘나승개, 나싱이’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 따르면 ‘나상개, 나승개, 나싱이, 나생이, 나상이’ 등이 아주 다양한 이형태로 쓰이고 있다.

중세국어 ‘므슌’은 전라 방언에서는 ‘므슌>므슌>므슌>마슬>마실’로 변화하였다. 표준어로는 ‘므슌>므슌>마을’로 변화하였다. 중세국어 ‘그스름(煤)’은 동사 ‘그슬다’의 어간에 명사파생접미사 ‘-음’이 결합한 것이다. 전라 방언에서는 ‘그스름>그스름>그시름>끄시름’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표준어에서는 ‘그스름>그으름’의 변화를 겪는다.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 의하면 전라 방언에서는 주로 ‘그스름, 그시름, 끄스름, 끄시름’이 쓰이고 있다.

중세국어 ‘기슴’은 ‘논밭에 잡풀이 많이 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깁-’에 명사파생접미사 ‘-음’이 결합한 것이다. 표준어는 ‘기슴>기음>김’의 변화를 겪었고, 전라 방언은 ‘기슴>기슴>기심>지심’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전북에서는 ‘김매다’를 ‘지심매다, 기심매다, 기음매다’라고 한다. 이때 ‘기심’은 한자어 ‘莠草’에 대한 우리말이었다.

표준어 ‘감’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표준어 ‘감’은 역사적으로 ‘꺄슴>꺄음>꺄음>가음>감’의 변화를 겪어왔다. 서정주 시인은 그 역사적인 과정에 있던 고유어 ‘가음’을 주로 사용한 것이다.

- (4) ㄱ. ·뉘 엿·귀를 ·쁘다 니르·노·뇨 ㄷ·로미 {나·시} ·곧도·다 <1481두시초08,18a>
 ㄴ. 싱싱헌 {나승개} 조개 사기라우. 사다가 국 끼리면 맛나라우. <전라 방언>
 ㄷ. {므슌히} 멀면 乞食히디 어렵고 하 갖가뵤면 조티 못히리니 <1447석보상,06:023b>
 ㄹ. {그스름} 툃<1527훈몽자,하,15a>
 ㅁ. 노내 {기스미} 기서나들 햏야 브리듯 햏니라<1459월인석,10,19a>
 ㅂ. 아이고 우리 고상 헌 거는 말도 마려요. 아침 일찍 먹고 하루 쫓일 {지심매고} 나면 짐심 한 손가락 햏고 또 땡별이서 밭매고 나면 집이 가서 저녁햏고 그르케 살엿당게요.
 ㅅ. 그만하면 네 {아내가음으론} 꺄찰을레라 <서정주, 바람>
 ㅇ. "햏 고 계집애 속엿/햏망구가 열대여섯명 들어 앉아서/장차 며누릿 {가음으론} 쓸만 햏겟다." <서정주, 암순이네집 밭상머리>

2.2. 전라 방언을 통한 재구형

중세국어의 표기 규칙 중 가장 일반적인 규칙은 받침을 다음 음절의 초성에 내려서 적는 ‘연철 표기법’이다. 그러나 중세국어에는 ‘달애다, 몰애, 말이다, 벌애’와 같이 연철 표기법을 지키지 않는 어휘가 존재한다.

전북에서는 아이가 울면 ‘아이를 달꺄다.’고 한다. 사람을 달꺄 때도 ‘살살 달꺄다.’고 표현한다. 전라 방언의 ‘달꺄다’는 표준어로는 ‘달래다’이다. 전라 방언 ‘달꺄다’와 표준어 ‘달래다’는 중세국어 ‘달애다’와 관련이 있다. 중세국어 ‘달애다’는 연철 표기로 하면 ‘다래다’로 표기되어야 한다. 연철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달애다’의 ‘애’의 ‘ㅇ’이 ‘ㄱ’이 약화된 성문유성

9) 신중진(2007)에서는 ‘냉이’의 어원을 ‘냉- + -이 → 나히’로 재구하고 ‘나히>냥히>냥이>냉이’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마찰음 [h]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달애다’보다 더 오래된 어휘는 ‘*달개다’인 것이다. 전라 방언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아이들) 달개다’는 중세국어보다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재구할 수 있다.

- (5) 가. 무신 일을 헐 때 허드라도, 나를 살살 {달개감서} 히여. 나 설움게 말고오.<최명희, 혼불, 1996, 3, 21>
- 나. 지그 마누라 {달개(달래)} 갖고 아들 졸막졸막헌 것을 디렸고(테리고), 그래 갖고는 그놈 달리고 대체 이부자리 짚어지고 갔드래.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남원편, 264>
- 다. 王이 미조차 가샤 {달애야} 되셔 오샤 出家호실가 저호샤<1447석보상절3:16a>
- 르. 驪山 役徒를 일호샤 지브로 도라 오실 제 열희 무스물 하눌히 {달애시니} <1447용비어천가, 018>

중세국어 ‘물애(沙)’도 역시 연철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물애’의 ‘애’의 ‘ㅇ’이 ‘ㄱ’이 약화된 성문유성마찰음 [h]이기 때문이다. 전라 방언에서는 ‘물개, 목새’로 쓰여서 이미 이 음이 발음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물애’보다 더 고어형은 전라 방언에서 쓰이는 ‘*물개’인 것이다. 전라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에서는 ‘모래’를 ‘물개’라고 한다. 전북에서는 ‘모래’를 ‘목새, 모새’라고도 하는데 여전히 ‘ㄱ’음이 남아 있다.

- (6) 가. 비느레 허근 벌에 잇는 꿀와 더븐 {물애} 모매 븐는 꿀왜라<1447석보상절13:8a>
- 나. 阿難야 이 바리엣 {물애를} 내든니는 짜해 썩라라<1447석보상절24:9b>
- 다. 장마가 저서 {물개가} 이만치 큰 무리져서 있으니, 물개가 이만치 있으니 거다 갖다 획집어 던져뿌렸어. <한국구비문학대계6-9, 전남화순군편, 159p>
- 르. 응, 돈을 모을 적에 원 백암리(2) {목새(모래)가} 꼭 백미같이 생겼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5-7, 전북정주시·정읍군편, 510p>

전라 방언에서 쓰는 ‘싸움을 말기다’에서 ‘말기다’도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방언이다. 표준어로는 ‘말리다’로 쓰고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말이다’가 쓰이고 있다. 중세국어에서 ‘말이다’로 분철 표기를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말이다’의 ‘이’의 ‘ㅇ’이 ‘ㄱ’이 약화된 성문유성마찰음 [h]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국어 ‘말리다’는 ‘*말기다>말이다>말리다’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라 방언 ‘*말기다’는 중세국어보다 ‘말이다’의 고어형으로 재구된다.

- (7) 가. 누가 시집가라면 가지 말라고, 나는 도시락 싸들고 땡김서 {말기고} 싶어라우.<최명희, 혼불, 1996, 10, 266>
- 나. 저것을 어떻게 삼을 {말길꼬}.<5-6, 전북정주시*정읍군편, 215p>
- 다. 阿私陟 | 두립사리 {말이습고} 솔보디<1447석보상, 3:2a>
- 르. 世尊이 줍줍 호샤 {말이다} 아니 호시니라<1447석보상, 13:47a>

‘벌레’의 방언 형태는 ‘벌레, 버래, 버러지, 벌게, 벌거지’가 있다. ‘벌게’는 ‘벌애/버래’보다 오래된 고어형이다. 그래서 ‘벌게’의 경우 방언에서는 ‘벌개, 벌기, 벌기’ 등으로 나타나고, ‘벌레’의 경우는 ‘버래, 벌레, 버랭이’로 나타난다.

‘벌거지>버러지’의 변화에서 보는 것처럼, ‘벌거지’의 경우도 ‘*뽕-’에 접미사 ‘-어지’를 연결해 쓰는 고어형이다. 방언에서는 ‘벌거지, 벌가지, 벌격지, 벌그니, 벌갱이’로 쓰인다. ‘버러

지'의 경우는 '벌'에 접미사 '-어지'를 연결한 것으로 '벌러지, 버럭지, 버레기'가 나타난다.

'벌레'의 15세기 형태는 '벌에'다. 그런데 '벌에'는 '버레'가 아닌 '벌에'로 표기하였다. 제2 음절의 'ㅇ'은 'ㄱ'이 약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벌에'의 이전 형태는 '*벌게'로 추정할 수 있다. '*벌게'는 '*뱀-'에 접미사 '-에'가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본형 '*뱀-'에 접미사 '-어지'가 연결되면 전라 방언에서 많이 쓰는 '벌거지'가 된다.

- (8) ㄱ. 그서 속에 있는 {벌거지} 짝 빠져 나왔어.<5-6.전북정주시*정읍군편,50p>
 ㄴ. 언제 한 번도 한 소리로 소리 내 보도 못한 놈의 {벌거지} 같은 인생살이, 인제라도 한 소리로 뉘야서 창사가 터지게 울읍시다.<최명희,혼불,1996,3,40>
 ㄷ. 더 수프레 잇는 {벌에} 증싱들토 다 깃거 太子씩 오스 북며 <1447석보상,3:33a>
 ㄹ. {벌에} 나비 ㄷ외면 거루물 올마 ㄴ로미 ㄷ외오 <1461능엄언7,83b>
 ㅁ. 꾸메 혀근 ㄴ눈 {벌에} 數업시 모매 븐고 <1475내훈언,2,40b>
 ㅂ. 비 븐고 여위어든 양향군을 줍 빠 머그면 {벌에} 절로 나리니 <1489구급간,2,84b>

이태영(2009)에 따르면, 문헌에서는 '냄새'의 이형태로 17세기에 '내음'류가 나오고 이어서 '내음새'류가 나오다가 '냄시'류로 정착된다. 그러나 방언 자료를 살펴보면 '내금'과 '내금새'가 나오는데, 이를 통하여 '내음'의 어원을 '내금'으로 보았다. '내금'은 '*내금'으로 재구되는데 '*내금>내음'의 변천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방언의 '내구다'를 '*내ㄱ-'로 재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금'은 '*내ㄱ-+명사파생접미사 'ㅁ'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9) 내금 <경상>, 내금새 <강원><경남><경북><충북><전남>, 내김 <경북>

현대국어 '굴다'의 15세기 어형은 '그울다, 구울다, 구을다'이다. '구을다>굴다'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방언에서 우리는 '궁굴다'를 볼 수 있다.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서 검색해보면, 전북은 물론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궁굴다'를 통하여 '굴다'의 변화과정을 '*궁굴다>*궁을다>구을다>굴다'로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이태영, 2016:69 참조)

- (10) ㄱ. 轉 궁글 전 <완판 杏谷本千字文,15ㄴ>
 ㄴ. 궁글며 <완판조웅전,50ㄴ> <완판장풍운전,10ㄱ> <완판장풍운전,29ㄱ> <완판조웅전이,17ㄴ> <완판유충열전,83ㄱ>
 ㄷ. 특기란 놈 거동 보소 씨굴찌굴 궁글더니 精神찰여 헉난 말이<1887별토가(가람본),23b>

2.3. 형태 변화, 어휘화에 따른 역사성¹⁰⁾

전북에서는 '고소하다'는 말을 '고습다, 꼬습다'라고 많이 쓰고, 또 '꼬소롬하다'라고도 쓴다. 전라방언 '고습다'는 '고스다>고소다, 고수다>고습다, 꼬습다'의 변천을 거쳤다. '고습다'는 중

10) 전북 방언에서는 문법 형태소, 문법적 구성의 변천 과정이 아주 다양하다. 예를 들면 '와겠소?'에서 보이며 존재를 나타내는 '-아 겨-'에서 유래하여 굳어진 구성, '장은 무시 째뎨'에서 나타나는 '짜디어?' 구성에서 출현하는 국어사와 관련된 '짜등겨?', 원래 접속어미였던 '-관디'에서 발전한 수사어미의 종결어미 '-간디?', 융합형 '뉘고니' 등 많은 문법 형태소와 구성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의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국어 ‘고스다’의 변천 과정에 있는 ‘고수다’에 형용사 파생접미사인 ‘-압/업-’이 연결되면서 ‘고습다’가 된 것이다.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압/업-’이 연결되는 예는 아주 많다.

현대국어 ‘고소하다’는 중세국어에는 ‘고스다’가 처음 나타나고, 이후 ‘고소다’도 보인다. 19세기에 ‘고소하다’가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고스다>고소다>고소하다>고소하다’의 변화 과정을 겪는다. ‘고소하다’는 ‘고스다>고소다’의 변화에 형용사파생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11) ㄱ. 아 깨를 볶으면 {꼬순} 내가 진동을 혀. <전라 방언>
- ㄴ. 아 떡도 콩 볶아서 빵구가꼬 그 콩꼬물로 버무리면 얼마나 {꼬순디}. <전라 방언>
- ㄷ. 찹쌀 톨 {고스게} 붓가 혼디 디허 ㄱ느리 처 굴을 밍 ㄱ라 <1489구급간,2,42b>
- ㄹ. 쟁 {고소다}. <1690역어유,상,53a>

‘지렁이’는 ‘지룡(地龍)’에서 기원하였다. 그러나 전북 방언에서 많이 쓰는 ‘끄시랑/거시랑’은 ‘지렁이’와는 발음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현대국어 ‘지렁이’는 문헌에서 16세기에 ‘디룡이’, 17세기에 ‘디룡, 디룡이’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렁이’는 ‘디룡이>디렁이>지렁이’와 같이 변화한 것이다. 지렁이의 옛말은 ‘거쉬’이다. 전라 방언에서는 ‘거쉬>거쉬>거시>그시’로 바뀌면서 쓰이다가, ‘거시랑, 그시랑’은 ‘거시, 그시’에 접미사 ‘-랑, -랑이’가 연결되고, 된소리가 되면서 ‘끄시랑, 끄시랑이’가 쓰이게 된 것이다.¹¹⁾

- (12) ㄱ. 비조개 오면 {거시랑이들이} 마당으는 말헐 꺄도 읍고 토방까장 올라와서 신발 욱으도 돌아댕기고, 사방간디로 돌아댕긴당게. <전라 방언>
- ㄴ. 쏘 {디룡이롤} 소곰 불라 뇨가 물 되어든 흙 업게 하고<1542온역이,024b>
- ㄷ. 밥 우히 노하 떠 닉거든 {디룡을} 업시 하고 아히 주어 머기라 <1608두창언,上,8b>
- ㄹ. 蚯蜚 {디룡이} <1613동의보,2,14a>
- ㅁ. 蚯 {거쉬}¹²⁾ 구 蜚 {거쉬} 인 蚘 {거쉬} 곡 <1527훈몽자회(존경각본)上:21b>

중세국어의 동사 ‘값-’에 접미사 ‘-브-’가 연결되면 형용사 ‘깃브다’가 되고, ‘-어하다’가 연결되면 동사 ‘값어하다’가 된다. 15세기의 ‘깃거하다’는 ‘기써하다’를 거쳐 현대국어 ‘기꺼하다’가 되었다. 이 동사가 전라 방언에서 구개음화를 일으켜 ‘짓거하다’가 된 것이다.

- (13) ㄱ. 사또 도련임 승벽 잇스믈 크게 {짓거하야} 이리 오너라 칙방으 가 목낭청을 가만이 오시 리라<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 ㄴ. 부원군이 더욱 {짓거하며} 일변 조복을 갖초오고 예관을 썩라 별궁의 드러가 황후게 뵈 온디<완판본 심청전下>

바지를 의미하는 중세국어는 ‘고의(袴衣)’이다. 이 어휘는 전라 방언에서 ‘고의>고이>괘>괘>

11) ‘한국방언자료집(전북편)’에서 ‘지렁이’의 군 단위 조사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생이 <전북>[진안, 장수], *거:시 <전북>[진안], *거:시랑 <전북>[옥구, 부안, 임실], *거:시렁이 <전북>[진안, 순창, 남원], *그:시 <전북>[완주], *그:시랑 <전북>[익산, 김제, 정읍, 고창], *그:시렁이 <전북>[김제], *끄:생이 <전북>[무주], *끄:상 <전북>[완주], *끄:시랑 <전북>[완주], *지렁이 <전북>[고창, 순창, 남원]

12) 표준어 ‘거위’는 사람의 뱃속에 들어있는 회충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는데 ‘횃배’를 ‘거위배’라고 한다.

깨'의 변화가 일어난다. 고려시대의 문헌인 『鷄林類事』에서 중세국어의 '고의(袴)'는 '珂背'로, '고의(裨)'는 '安海珂背'로 표기하고 있다. <석보상절>에서 'ㄱ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세국어 '고의'는 '*ㄱ외>ㄱ외>고외>고의'의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 (14) ㄱ. 袴 {고의} 고 <1527훈몽자회(존경각본)中:23a>, 袴兒 {고의} 一云 袴子, 衲袴兒 누비바다. <1690역어유해上:45b>, 袴子褪了 {고의} 벗다 <1690역어유해上:47a>
 ㄴ. 袴曰珂背, 裨曰安海珂背 <1103계림유사,006b>
 ㄷ. 풍류흔는 겨집돌히 니기 줍드러 옷 {ㄱ외} 헤디오고 추미며 더러븐 거시 흐르게 햏야둔 <1447석보상절3:22b>

전라 방언과 국어사의 변천 과정으로 보면, 전라 방언의 '피'는 '*ㄱ외>ㄱ외>고외>고의>고이>괴>피>깨'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라 방언에서 '피를 벗다'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고의 벗다'가 늘 함께 쓰이면서 '괴 벗다'가 되고 이게 다시 '괴벗다>피벗다'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고의 벗다>괴 벗다>괴벗다>피벗다>깨벗다'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피를 벗다, 피벗다'는 '바지를 벗다'의 의미이고, 표준어의 '발가벗다'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피를 활썬 벗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복합동사 '피벗다'가 '발가벗다'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이태영, 2011c 참조)

- (15) ㄱ. 천지 요란흔니 {괴버슨} 아희들은 상흔 궁시로 범을 쏘논쪼다 <완판본 용문전,11>
 ㄴ. “어서 {피를 벗으시오}.” 하고 옷을 나무 가지에 딱 걸어놓고 갓을 얹쳐났단 이말여. <5-3,전북부안군편,433p>
 ㄷ. 그 처자는 저그 집이 오도 안하고 거가 {피벗고} 앉엇단 말여. <한국구비문학대계5-7,전북정주시·정읍군편, 30p>
 ㄹ. 문구먹을 옛본게 이눔이 {피를 활썬 벗고} 자거든. <5-5전북정주시·정읍군편,297p>

3. 방언의 공시적 어원 연구의 방향

방언은 공시적으로 일어난 언어 변화가 많다. 예를 들어 '솔찬히, 겁나게, 내비두다' 등은 공시적으로 일어난 언어 변화이다. 통시적으로 일어난 언어변화보다도 이러한 공시적 언어변화의 특징이 그 방언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국어사 위주의 방언 어원 연구도 중요하지만, 방언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기초 어휘에 대한 공시적 변천과정을 정밀하게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시적 언어변화에는 '접미사의 첨가로 인한 어휘의 파생, 새로운 부사의 형성, 어간 재구조화로 새 어휘 파생, 혼태에 의한 새로운 어휘 탄생, 의성어·의태어의 어근을 사용하는 반복복합어, 구에서 변화된 복합어' 등이 있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어원과 관련된 방언의 어휘적 관점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공시적 범위 안에서도 예를 들면 1920년대, 30년대, 50년대와 같이 연대별로 어휘 변화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3.1. 접사 파생의 어휘

방언에는 사동사와 피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각종 품사를 파생시키는 파생 접미사, 그리고 부사성어근과 연결되어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들이 매우 많다.

전라 방언 ‘나꾸다’는 동사 ‘낫-’에 접미사 ‘-우-, -구-’가 첨가된 것이다. 동사 ‘낫다’는 ‘무엇을 갑자기 붙들거나 잡아채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나꾸다’는 ‘낫다’의 의미보다 훨씬 거센 느낌을 준다.(이태영,2010:149 참조)

전라 방언 ‘나수다’는 ‘낫다’에 사동접미사 ‘-우-’가 연결된 것이다. ‘나수다’는 ‘병을 낫게 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전라 방언의 동사 ‘느꾸다’는 표준어 ‘늦추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전라 방언에서는 ‘늦-’에 사동접미사 ‘-구-’가 연결되어 ‘늦구다>느꾸다’가 생성된 것이다.

전라 방언 ‘울구다, 울기다’는 표준어 ‘우리다’에 대응한다. ‘우리다’는 ‘올다’에 사동접미사 ‘-이-’가 연결된 것이다. 전라 방언에서는 사동접미사 ‘-구-, -기-’가 연결되어 ‘울구다’가 쓰인다. 전라 방언에서는 사동접미사 ‘-구-’가 쓰여, ‘늘리다-늘구다, 삭히다-삭구다, 기르다-질구다’와 같은 어휘를 생성한다. ‘울구다’는 ‘울귀내다, 울귀먹다’의 복합어로 많이 쓰인다.

- (16) ㄱ. 머리공지를 확 {나꾸어} 잡아채드만요. 그대로 끌려갔겠지요. <최명희, 혼불>
- ㄴ. 미상불 눈에 아니 보이는 의사보다도 간호부가 송이의 병을 {낫우어} 주는 성만 싶었던 것이다. <채만식, 인형의 집, 1987, 97>
- ㄷ. 처음 병을 {낫우어} 주느라고 명님이를 알게 된 내력부터 시작하여, 이내 삼 년 동안이나 친누이동생같이 귀애하던 것이며 <채만식, 탁류, 1987, 377>
- ㄹ. 쓰러진 우군의 시체를 밟고 넘으면서 후속부대는 {느꾸지} 않고 뒤로 뒤로 연방 육탄의 돌진을 계속하였다. <채만식, 여인천하, 1987, 379>
- ㅁ. 처음 생각 같아서 여남은 그릇을 먹을 것 같더니 두 그릇째 먹고 나니 속이 얼떨떨하고 배가 불룩 일어나 허리띠를 {느꾸었다}. <채만식, 停車場近處, 1987, 304>
- ㅂ. 썩의 독기를 {울귀내고}, 쌀을 많이 섞지 못하는 떡을 보드랍게 하자면 서너 차례 물갈이를 하면서 이틀은 걸렸다. <조정래, 태백산맥, 2001, 4, 185>

전라 방언에서는 형용사 ‘건전주름하다, ‘간잔조롬하다’가 자주 사용된다. 눈이 작은 모습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인다.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에 ‘간잔조롬하다’가 나온다. 채만식의 작품을 보면 ‘넓주름하다, 뽕족조롬하다’를 쓰고 있는데 ‘넓-’에 접미사 ‘-주름하-’가 연결되고, ‘뽕족하다’에 접미사 ‘-조롬하-’가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건전주름하다’도 ‘건전’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주름하다’가 연결된 것이다.¹³⁾

표준어 ‘깨적지근하다’에 상대되는 전라 방언 ‘꺄적지근하다’는 ‘꺄적’에 ‘-지근하-’가 연결된 것이다. 전라 방언에서는 형용사에 접미사 ‘-지근하-’가 연결되는 어휘가 많이 존재한다. ‘얼적지근하다, 후답지근하다, 묵지근하다’ 등의 형용사는 접미사 ‘-지근하-’가 연결된 어휘이다.

- (17) ㄱ. “글안해도 {건전주름헌} 성님 눈에 잠이 따뽕 찻소. 혀도, 금세 출발명령 떨어질 것잉께 잠잘 생각이야 허덜 마씨요.” <조정래, 태백산맥, 2001, 8, 296>
- ㄴ. 춘향이 이 말 듯더니 고닥기 발연변식 이 되며 요두절목으 불그락 푸르락 눈을 {간잔조롬하게} 쓰고 둔섭이 속썩하여지면서 코가 발심발심하며 이를 쏘도독 쏘도독 갈며 온 몸을 썩순 입틀 덧하며 미 썰 차난 듯 하고 안던이 허허 이게 웬 말이요 <열녀춘향수절가

13) ‘넓-, 뽕족-’에 ‘-주름하-’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 ‘간잔주름하다’의 ‘간잔, 건전’은 ‘가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上, 37ㄴ>

- ㄷ. “아, 이야기럴 허자면 순서가 착착 맞아야 허능것 아니드라고. 그 중헌걸 빼묵고 지내가면 맘이 {꺄꺄지근히서} 담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용게 그려제.” <조정래, 아리랑, 1995, 4, 318>

이러한 접사 파생에 해당하는 어휘는 매우 많다. 한 지역의 방언과 전국 방언을 검토하여 접사의 쓰임을 검토한다면 한국어의 파생 규칙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⁴⁾ ‘간잔, 건전’이나 ‘꺄꺄’ 등의 어원을 밝히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3.2. 부사 ‘겁나게, 솔찬히’의 어원과 변천과정

전라 방언의 부사 중 가장 일반적인 부사로는 ‘겁나게, 솔찬히, 포도시’ 등이다. 이러한 부사들은 전라 방언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방언 어휘조차도 그 어원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전라 방언의 부사 ‘겁나게01’은 국어사전을 보면 아주 간단히 처리되어 있다. 이러한 국어사전의 기술 태도는 아주 기초적인 방언 어휘의 어원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겁나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많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그 어원과 변천과정을 정밀하게 살필 필요성을 느낀다.

- (18) ㄱ. 겁나게 「부」방 「1」 매우01 의 방언(전라, 충남). 「2」 아주01 의 방언(전라, 충남). <표준국어대사전>
 ㄴ. 겁나게 - 굉장히. <전남방언사전>

이태영(2012)에서는 전라 방언의 ‘겁나게’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겁나게01’은 부사로서 ‘매우, 아주, 아주 많이’의 의미를 갖는다. ‘겁나게02’는 부사형으로서 ‘겁이 나게, 겁이 날 정도로’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전라 방언에서 부사로 쓰이는 ‘겁나게01’은 어디서 온 것일까? 국어사전에서는 ‘겁나다01’과 ‘겁나다02’로 나누어 뜻풀이를 하고 있다.

- (19) ㄱ. 겁나다01「형」『방』 매우 많다(전라). <표준국어대사전>
 ㄴ. 겁나다02(怯--)-「동」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표준국어대사전>

이태영(2012)에서는 ‘겁나다02’에서 출발하여 ‘겁나다01’의 의미가 파생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겁나다02’가 수효, 분량, 정도를 나타내는 체언과 만나게 되면,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떠나서 ‘많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때 ‘무섭고 두려운’ 수나 양, 정도를 나타내야 하므로 ‘매우 많다, 굉장하다’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겁나다01’은 ‘사람이 인식하는 수효나 분량, 정도가 기준보다 훨씬 또는 극단적으로 넘은’ 상태

14) 문학작품에 나타난 전라방언의 접미사를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태영, 2011 ㄱ:146 참조)

(-주름하-, -조름하-) 건전주름하다, 간잔조름하다, (-으름하-, -으름하-) 달코름하다, 고소름하다, 꼬소름하다, 째소름하다, 발그름하다, 매꼬름하다, 썩꼬름하다, 솟두름하다, 뻐조고름하다, (-으스름하-) 너부스름하다, 굵스름하다, 둥그스름하다, 얇브스름하다, (-으족족하-) 푸르족족하다, 노르족족하다, 불그족족하다, (-딕딕하-) 불그딕딕하다, (-듬하-) 시쁘듬하다, 기쁘듬하다, 찌쁘듬하다, (-으막하-) 크막하다, 째막하다, 야트막하다, 나지막하다, 그들막하다, 멀찌막하다, 나차막하다, (-지근하-) 늘이지근하다, 꺄꺄지근하다, 얼꺄꺄지근하다, 후덥지근하다, 묵지근하다, 구꺄꺄지근하다, 나르지근하다.

를 말하는 형용사로 발전하게 된다.(이태영, 2012:79 참조)

(20) 겁나다01 「형」『방』사람이 인식하는 수효나 분량, 정도가 기준보다 훨씬(또는 극단적으로) 넘다.

형용사 ‘겁나다01’에서 ‘겁나게01’이 파생된다. ‘겁나게01’이 전라 지역에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이면서 사용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전라 방언의 화자들은 ‘매우 많다’를 표현해야 할 단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쉽다’의 뜻을 가진 ‘수월하다’가 부정형이 되면 ‘쉽지 않다’는 뜻을 가진 축약형 ‘수월찮다’로 쓰인다. 이 ‘수월찮다’는 태도나 방법에서는 ‘쉽지 않다’의 뜻을 가지고, 수나 양에서는 ‘상당하다’의 뜻을 갖는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던 ‘수월찮다’가 차츰 ‘상당하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었다.

(21) ㄱ. 수월찮-이 「001」 「부사」 꽤 많이. <우리말샘>
ㄴ. 솔찬-히 「001」 「부사」 「방언」 꽤 많이(전북). <우리말샘>

전라 방언에서 ‘솔찮다, 솔찬하다’는 ‘적지 않다’ 또는 ‘꽤 많다, 상당하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솔찬하다’는 활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솔찮다’는 활용 빈도가 매우 적고 대체로 부사 ‘솔찮이’로 굳어졌다. 이처럼 ‘솔찮다’가 형용사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부사 ‘솔찮이’로 쓰이게 되자, 지역민들은 형용사와 부사가 잘 발달된 ‘상당하다’와 ‘상당히’를 선호하면서 언어사용이 차츰 바뀌게 되었다.(이태영, 2011년 참조)

3.3. 의성·의태어의 어원

의성어와 의태어의 어원을 밝히는 일은 쉬운 듯 보이지만 매우 어렵다.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말하는지, 또한 어떤 모습을 말하는지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언에서 반복복합어의 경우, 그 지역의 방언을 대표하는 부사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 어원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의성의태어의 어근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품사들은 어근의 어원이 밝혀진다면 다양성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발름, 써득’과 관련되어 파생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경우 ‘발름’의 뜻이 ‘탄력 있는 물체가 부드럽고 조금 넓게 바라졌다 오므라졌다 하는 모양.’으로, ‘써득’은 ‘갑자기 몹시 썩늘한 느낌이 드는 모양.’으로 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파생된 어휘도 품사별로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2) ㄱ. 발름, 발름-거리다, 발름-대다, 발름-발름, 발름발름-하다, 발름-이다, 발름-하다, 발름-히
ㄴ. 써득, 써득-거리다, 써득-대다, 써득-써득, 써득써득-하다, 써득-이다, 써득하다, 써득-이

전라 방언 ‘사운거리다’는 표준어 ‘살랑거리다’에 대응된다. 표준어 ‘살랑’은 ‘조금 사늘한 바람이 가볍게 부는 모양.’으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전라 방언에서 ‘사운’의 정확한 뜻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 여러 용례를 통하여 다음 어휘들의 뜻풀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용례를 통하여 전라 방언의 ‘사운거리다, 사운대다, 사운사운’은 ‘풀벌레, 꽃, 대숲, 가랑비’ 등이 보여주는 작은 소리나 그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이태영, 2011ㄱ:133 참조)

- (23) ㄱ. 철새 나는 하늘을 무서리 내려 풀벌레 {사운대는} 밤은 정작 고요도 한저이고 <신석정, 秋夜長古調>
 ㄴ. 실비가 건듯 스쳐가고, 가랑비가 {사운거리며} 한식경씩 내리고 이슬비가 함초롬히 솔잎을 적시다 가면 <조정래, 태백산맥, 8, 296>
 ㄷ. 사르락 사르락 댓잎을 갈며 들릴 듯 말 듯 {사운거리다가도}, 쇠아 한쪽으로 몰리면서 물 소리를 내기도 하고, <최명희, 혼불, 1, 11>

이처럼 의성의태어에서 연유하는 복합부사의 어근에 대한 어원은 사실상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부사는 한국어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그 어원을 탐색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용례를 통하여 그 쓰임과 어원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전라 방언 ‘짜드락짜드락’은 표준어로는 ‘시위적시위적’에 해당된다. ‘사들사들’에 접미사 ‘-악’이 붙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들’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말하기 어렵다.

전라 방언 ‘느시렁느시렁, 느시랑느시랑’은 표준어로는 ‘느릿느릿, 느실느실’이 해당된다. 전라 방언의 의태어인 부사 ‘느시렁’은 ‘느시렁대다, 느시렁거리다’와 같이 동사로 파생이 가능하다. 표준어 ‘느릿’ 또는 ‘느실’은 동사로 파생이 가능하지 않다. ‘느시렁느시렁’은 ‘느실느실’에 접미사 ‘-앙/-영’이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¹⁵⁾ 의성의태어에서 파생된 수많은 복합부사의 어원을 추적하다 보면 이들 어근의 사용 규칙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원 탐색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4) ㄱ. 급한 걸음 허다가 무단히 개골창이나 논바닥에 거꾸로 백히지 말고, {짜드락 짜드락} 이야기도 해 감서 갑시다야. <최명희, 혼불>
 ㄴ. 성님이 으짖 일로 요참에는 앞자리를 양보하고는 {느시렁느시렁} 맨 꼬래비로 나타나서 그 잘난 화상 인자사 귀경시키는 것이 쪼깨 요상허드라 <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1997, 1, 262>

3.4. 어간의 재구조화

방언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공시적으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어휘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어원을 밝혀서 연구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5) 내비두다, 내싸두다, 조그마하다(조그맣다), 건방구지다(‘건방 + 굶다’>구지다), 몰뚝잡하다(몰뚝잡다), 으젓잔하다(으젓잡다), 지드란하다(지덴하다) 등등

전라 방언 ‘내비두다’는 ‘내버리다’에 조동사 ‘두다’가 연결된 구조로 아주 많이 쓰는 어형이다. 어간재구조화가 된 ‘내버려두다’가 ‘내비두다’가 되고, 더 줄어서 ‘냅두다’로 쓰인다. 전라

15) ‘느시랑’은 ‘느리다, 느멀느멀, 느릿느릿, 느실느실, 느적느적’ 등과 관련되어서 ‘느리다’는 의미를 갖는 듯하다.

방언 ‘내썩두다’는 ‘내썩다’에 조동사 ‘두다’가 연결되어 ‘내썩아 두다’가 되고 이것이 어간재구조화가 되면서 ‘내썩두다’가 된 것이다.(이태영, 2009ㄴ 참조)

전라 방언의 ‘몰뚝잡다’는 ‘기분이 몰뚝잡다, 걸기가 몰뚝잡다’의 예처럼 ‘몸이나 기분이 불편하다.’의 뜻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어간재구조화된 ‘몰뚝잡하다’로도 쓰인다. 전라 방언 ‘지드란하다’는 표준어 ‘기다랗다’에 해당한다. 전라 방언에서 ‘커드란하다, 지드란하다’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 ‘길다, 크다’에 접미사 ‘-드란하-’가 연결되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3.5. 융합형

전라 방언 ‘뭔고니’는 군말이나 화용표지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에서 축약되어 사용된다. 즉 의문사 ‘무엇’에 융합형 어미 ‘-고니’가 연결된 것이다. ‘-고니’가 ‘언제인고니, 누군고니, 왜고니, 어떤고니, 뭐고니, 열만고니, 몇인고니, 어딘고니, 어느 놈인고니’ 등과 같이 의문사와 직접 연결되어 많이 쓰인다.

그 중에서 ‘뭔고니’는 자주 쓰이다 보니 어떤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뚝을 들이는 군말로 발전하였다. 한편으로는 문장의 여러 성분 뒤에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화용표지로 사용하고 있다.(이태영, 2010ㄱ 참조)

방언에서 많이 쓰이는 군말, 화용표지, 감탄사로 쓰이는 어형에 대한 변천과정도 깊이 있게 다루어야 부분이다.

(26) 그것은 #뭔고니# 사과여 (cf. 그것은 사과여)

3.6. 혼태로 인한 이형태

혼태(blending) 현상은 접촉 방언에서 주로 발생하는 어휘 혼합 현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어휘가 서로 섞이는 언어현상이다.¹⁶⁾ 방언 어휘의 이형태의 어원을 밝히는 작업으로 접촉지역의 방언을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어휘의 형태사 연구에서 방언의 혼태 현상에 의한 어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7) 틀부다(달부다+틀리다), 얄잡다(낮잡다+얄다), 역부러(역지로+일부러), 모다(모두+다), 늘상(늘+항상), 첨면에(처음에+첫번에), 기영코(기연시+기영코), 내립다(넙다+들립다), 어클다(엮다+영클다), 패각질(포각질+태각질), 냅싸두다(넙두다+내썩두다)

한국방언자료집 전북편에서 ‘개구리’를 찾아보면 다양한 이형태가 나온다. 전북의 인접 지역과 비교해 보면, 충청남도와는 ‘개고리, 개구락지’가, 전라남도와는 ‘깨고락지, 깨구락지, 개우래기’ 등이 관련되어 접촉방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ㄱ. *개고리 <전북>[옥구, 김제], *개구락지 <전북>[임실], *개구래기 <전북>[순창], *개구리 <전북>[익산, 완주, 남원], *깨고락지 <전북>[부안], *깨고래기 <전북>[정읍], *깨구락지 <전북>[남원], *깨구래기 <전북>[고창], *깨구리 <전북>[진안, 무주, 장수]

16) 접촉 지역에서는 ‘-보리(보고+더러), -맹이로, -같이로, 맨치로, 맹키로’와 같이 문법형태소도 혼태형이 많다.

- ㄴ. *개구리 *깨구리 *깨고리 *깨가리(경남), *개구리 *개고리 *깨구리 *개고리 *개구락지 (충남), *깨고락지 *개고리 *깨고리 *개골태기 *깨골태기 *깨우락지 *깨우리 *깨우래기 *깨구락지 *개우래기 *머거리 *머구리(전남)

이태영(2010ㄴ)을 참고하여 문학작품에 나타난 전북 방언의 혼태형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방언의 부사 ‘고닥새’는 표준어 ‘바로’에 해당하는 어휘로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의 의미를 갖는다. 전라방언에서 아주 많이 쓰는 어휘로 ‘고닥’으로도 쓰고 있다. ‘고닥’이 하나의 부사라면 부사 ‘곧’에 접미사 ‘-악’이 연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뒤에 ‘금새’의 형태와 혼태를 일으켜서 ‘고닥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까막새’의 경우 ‘-새’가 연결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표준어 ‘그까짓’의 방언형인 관형사 ‘그께잇’ 뒤에는 ‘것’, ‘놈’ 등의 명사가 주로 온다. 이 어휘는 전형적인 전북 남원 방언의 어휘이다. 전라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까짓, 그따오, 그따오, 그따이’ 등이 쓰인다. ‘그께잇’은 ‘그까짓’과 ‘그따이’가 혼태되어 나타난 형태로 보인다.

표준어에서 ‘기연히’는 ‘기필코 꼭 그렇게’의 뜻을 가지고, ‘기어코, 기어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라는 뜻으로 두 어휘가 뜻이 매우 유사하다. 전라도에서는 ‘기연히, 기어코’의 방언형이 매우 다양하게 쓰여 ‘기연시, 기연치, 기영코, 기영씨, 기어치, 기어이’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쓰고 있다. 전라 방언형 ‘기영코’는 ‘기연시’와 ‘기어코’가 혼태된 형태로 보인다.

전라 방언 ‘남싸다’는 표준어 ‘날래다’와 대응하는 어휘로 보고 있다. 전라방언의 ‘싸다’는 ‘빠르다’의 의미인데 ‘남’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다. ‘남싸다’와 함께 ‘날싸다’를 쓰는데 이는 표준어 ‘날싸다’와 대응한다. ‘남’과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형태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날래다’와 ‘잡싸다’가 혼태되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내립다’는 채만식의 작품에만 나오는 특이한 형태의 부사이다. 표준어로 ‘몹시 세차고 빠른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는 ‘넙다’와 ‘들입다’를 쓰고 있다. ‘넙다’와 ‘들입다’는 방언에서도 활발히 쓰인다. 그 결과, ‘넙다’와 ‘들입다’가 혼태를 일으켜서 ‘내립다’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라 방언 ‘눈꼽쟁거리’는 ‘눈꼽재기’에 접미사 ‘-아리’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어휘는 조정래의 작품에서만 보이는데 ‘눈꼽쟁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다른 작품에서는 같은 뜻으로 ‘눈꼽쟁이, 눈꼽재기’가 사용되고 있다.

‘눈꼽’은 ‘눈꼽’으로 발음하는데 거기에 접미사 ‘-쟁이, -재기, -재가리’ 등이 연결된 것이다. 특히 경남에서는 ‘눈고바리, 눈꼬바리’로 쓰고 있는데 이 어휘와 ‘눈꼽재기’가 혼태되어 ‘눈꼽재가리’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9) ㄱ. 까짓대를 푹 짧아서 그 물에다가 한참씩 수족을 정구고 나면 {고닥} 풀리느니라. <윤흥길, 장마>

ㄴ. 누가 쳐들어와서 나무칼로 날날이 귀때지 끊어가도 몰르게 {고닥새} 잠이 들고 말 거여. <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ㄷ. 새참이라고 어디 애들 장난맹이로 한 손구락씩 엉게주면, {그께잇}거 머, 한 볼때기 깨물고 말 것도 없는다. <최명희, 혼불>

ㄹ. “서방 없다고 그렇게 막말 허능 거 아니여, 누가 {그께잇} 노무 몸뎡이를 내노라고나 허능게비네.” <최명희, 혼불>

ㅁ. “어찌끄나, {기영코} 그리 되었구나!” 필녀는 발로 땅을 굴렀다. <조정래, 아리랑>

- 바. “이놈이 {기영코} 일얼 저질러뿌렸구나. 이 일을 워짜야 쓸꼬. 이 일얼…….” <조정래, 태백산맥>
- 사. 내가 받은 설움에다 이자 쳐서 {남싸게} 값어 줄랑게. 두고 바라. <최명희, 혼불, 1996, 6, 185>
- 오. 그놈이 그 구멍으로 해서 좇아나와 {내립다} 사람을 물어 죽인다든지 잡아 먹는다든지 하고…… <채만식, 정자나무 있는 插畵>
- 자. 네 이놈, 경손아! 유리쪽으로 내다보고 있든 미달이를 {넙다} 벼락치듯 와르르 따악 열어 재치면서 집안이 원통 떠나가게 웨장을 칩니다. <채만식, 천하태평춘>
- 차. 자 건국이다. 친일파를 없애여라. 민족반역자를 버히라. 이렇게 {들입다} 목이 터지도록 웨치구 붓이 닳도록 쓰구 하질 않는가? <채만식, 역로>
- ㅋ. 원망이야 {눈꼽째가리만치도} 옳은게 원이 풀릴때꺼정 몸이나 성허씨요. <조정래, 태백산맥, 2001, 5, 229>
- ㅌ. 앞뒤로 구석구석 돌아보고, 어제 없던 풀이 돌아나 있으면 비록 {눈꼽재기만한} 것이라도 반드시 손수 뽑았다. <최명희, 혼불, 1996, 5, 247>

이처럼 각 지역 방언을 대표하는 어휘의 경우, 단순히 어원뿐만 아니라 그 변천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서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방언 어휘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그 어원을 살펴보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초적인 어휘의 어원을 밝혀 보는 일은 방언의 특성은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까지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4. 문화적 어원 탐색의 방향

앞선 연구에서는 이병근(2004)에서 ‘올가미’의 어휘사를 다루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그에 따른 어휘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이제 방언 연구도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임을 보여준다.¹⁷⁾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조건, 자연 환경적 조건, 생활 문화적 조건, 교통의 조건 등에 따라 언어가 다르게 발전한다. 지역마다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삶에서 파생되는 지역문화가 다르다. 전북의 경우, 넓은 평야에서 농사를 짓는 농도였기 때문에 농사문화가 발달되어 농사 관련 언어도 잘 발달되어 있다. 해안과 인접하고 있어서 젓갈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젓갈이 발달되어 김치 문화도 잘 발달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을 통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한민족의 생활어를 수집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켜가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은 2007년

17) ‘다슬기’의 이형태의 전국 분포를 보면 ‘고동, 고둥, 고당이’(경남), ‘골뱅이’(경북, 강원), ‘올갱이, 올강, 올뱅이, 베틀올갱이, 베틀올강’(충청), ‘달팽이’(강원, 경기), ‘다슬이, 대사리, 대수리, 다실개’(전북, 전남), ‘물고동’(전북), ‘갯고동, 갯다사리, 갯물고동, 갯비트리, 비트리’(전남), ‘가메기보말, 민물보말’(제주) 등이다. ‘고동, 골뱅이’는 주로 바다에 서식하는 연체동물을 말한다. ‘다슬기’를 ‘고동, 골뱅이’라 부르는 지역은 바다와 인접해 있다. ‘달팽이’는 주로 논과 밭이나 풀숲에서 사는데 내륙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다슬이, 대수리’를 쓰는 지역은 하천이나 연못이 많은 지역이다. ‘물고동’은 바다에 사는 ‘고동’에 비해 민물에 사는 ‘민물고동’을 일컫는 방언이다. 각 지역마다 문화적인 모습이 방언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언어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을 포함한 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10년간 수행하였다.

전북의 경우, 김치와 젓갈은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조숙정(2007)을 참고하여 김치, 젓갈과 관련된 어휘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0) ㄱ. 지, 짐치, 금치, 짐장, 짐장짐치, 짐장지, 묵은지, 묵은짐치, 썩지, 익은지, 신지, 햇짐치, 곁절이, 싱건지, 물짐치, 짓국, 말국, 가닥지, 헌틀지, 짓거리, 반지, 배추헌틀지, 배추지, 배추짐치, 폭지, 배추물김치, 백지, 백짐치, 봄동곁절이, 숙지, 얼갈이물김치, 얼갈이배추지, 얼갈이배추짐치, 얼갈이지, 조선배추지, 폭지.
- ㄴ. 황새기젓, 꼬록젓(꼰뚜기젓), 등피리젓(디포리젓), 깡달이젓(황석어젓), 되미젓, 단팽이젓, 송에젓, 순태젓, 전어속젓, 전어밤젓, 전에젓, 황송어리젓, 기알젓, 고개미젓(곤쟁이젓), '꼰기장', '꼰기전, 독기젓, 무젓, 동백하젓, 북새우젓, 오젓, 육젓, 자젓, 참기전, 추젓, 오징에젓, 쭈끼미전·쭈꾸미전.

‘헌틀지’는 ‘헌틀다’(훅다)에 김치를 나타내는 ‘지’가 연결된 복합어이다. 배추 가닥을 양념으로 마구 ‘헌틀헌틀’ 버무려 담기 때문에 ‘헌틀지’라고 한다. ‘건틀지’는 ‘무청이 달린 잔 무로 담근 물김치.’를 말하는데 의태어 ‘건틀’과 ‘지’가 연결된 복합어이다.(조숙정, 2007:102, 108 참조) 여기서 알게 된 부사의 어근 ‘건틀’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틀다’는 있지만 ‘건틀다’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31) {건틀건틀} 막 잎삭 차 막 담아서 먹은게. 그건 {건틀지여}. <2007 민족생활어 조사6>

‘황새기젓’은 ‘황새기’는 ‘황석어’의 방언으로 조기 새끼를 말한다. ‘황석어를 소금에 절여 담근 젓’, 또는 ‘삭은 황석어젓을 양념으로 무친 젓’의 의미를 갖는다. ‘황송어리젓’, ‘깡달이젓’이라고도 한다. ‘깡달이, 황송어리’는 ‘황석어’의 전라도 방언이다.(조숙정, 2007:173 참조) 여기서 ‘황새기(황석어), 황송어리, 깡달이(황강달이)’의 정확한 어원과 뜻풀이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문화와 관련된 방언의 연구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화의 시대에 지역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어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사람들은 표준어 ‘넘어지다’보다는 ‘자빠지다’를 많이 사용한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는 ‘넘어지다’를 쓰는 전북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왜 전북 사람들은 주로 ‘자빠지다’를 사용할까? 그 해답은 바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말이었기 때문이다. 15세기에는 ‘젓바디다’가 쓰이고, 16세기에는 ‘젓바디다, 젓싸디다’의 형태가 쓰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세국어에서 ‘젓바디다>젓바지다>*젓바지다>젓바지다>자빠지다’로 변화를 한 것이었다.

18세기에 나타난 ‘넘어지다’가 중부지역에서 사용되면서 그것이 20세기에 와서 표준어로 자리하였다. 여기서 ‘젓바디다’의 선대 고어형을 재구해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빠지다’와 ‘업더지다, 넘어지다’의 의미의 차이를 밝히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자빠지다’는 ‘沛’로, ‘넘어지다’는 주로 ‘倒, 顛’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어원 연구에서 의미를 분명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 (32) ㄱ. 그런 것을 글세 절하고 보입던 못할 망정 버얼떡 {자빠져서는)(*넘어져서는) 한다는 소리가 무얼 훗어 먹느라고 주둥이를 끌고 다녔냐는 게 첫인사니 놨이 후레자식이 아납니까<채만식, 천하태평춘, 1938.8, 241>

- ㄴ. 그 어디 보리밭에 {자빠졌다가} 눈도 코도 相思夢도 다 없어진 후 燒酒와 같이 燒酒와 같이 나도 또한 나라나서 공중에 푸를리라.<서정주,뎡둘레꽃>
- ㄷ. 시꺼먼 털이 송얼송얼한 정강이를 통째로 드러내놓고 {자빠져}(*넘어져) 자는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서, 초봉이는 커튼으로 몸을 가렸다.<채만식,탁류,1987,267>
- ㄹ. “밀지 말어, {자빠지겠네잉}.”<최명희,혼불,1996,1,26>
- ㅂ. 病흔 사름미 {젓바디여} 누워 활시우를 베오<1466구급방,상,61b>
- ㅅ. 沛 {젓빠딜} 패<1583석봉천,17a> - ‘넘어질’ 한자는?
- ㅇ. 그 곁히 쪼고만 나모 패루를 세우고 두 편의 남글 버티워 {너머지지} 아니하게 햏야시니 <1765을병연행록3,129>
- ㅈ. 밋그러 {너머지다} <1779한청문감1:32a>

전북에서는 ‘자빠지다’를 오랫동안 써온 관계로 다음과 같이 관용표현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자빠지다’란 동사를 비하하는 표현에 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빠지다’가 그냥 ‘넘어지다’의 의미를 벗어나,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쓰이게 되었다. ‘자빠지다’를 오랜 세월 써오면서 지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비하하는 뜻을 가진 동사로도, 이어서 비하하는 표현에서 보조동사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 (33) ㄱ. 구신 찢나락 까먹는 소리 허들 말고 빨리 자빠져 자라.(*넘어져 자라)
- ㄴ. 저 사람 놓고 자빠졌네.(있네, 았았네, *넘어졌네), 지랄허고 자빠졌네.(있네, 았았네, *넘어졌네), 매렵는 소리허고 자빠졌네.(있네, 았았네, *넘어졌네)

국어사전에서도 ‘자빠지다’와 ‘넘어지다’의 의미와 형태의 차이를 보여준다.¹⁸⁾

- 자빠-지다 「001」 「동사」 【…에】 【…으로】 뒤로 또는 옆으로 넘어지다.
- 자빠-지다 「002」 「동사」 【…에】 【…으로】 ‘눕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자빠-지다 「003」 「동사」 【…에】 【…으로】 서 있던 물체가 모로 기울어져 쓰러지다.
- 자빠-지다 「004」 「동사」 몸에 탈이 나거나 몹시 시달려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다.
- 자빠-지다 「005」 「동사」(속되게) 게으르게 한곳에만 처박혀 있다.
- 자빠-지다 「006」 「동사」 책임을 저버리고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다.
- 자빠-지다 「007」 「보조 동사」(동사의 ‘-고’ 활용형 다음에 쓰여) ‘있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넘어-지다 「001」 「동사」 【…에】 【…으로】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
- 넘어-지다 「002」 「동사」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망하다.
- 넘어-지다 「003」 「동사」 【…으로】 병 따위를 견뎌 내지 못하고 쓰러지다.
- 넘어지다 「004」 「동사」 「복한어」(완곡하게) ‘죽다’를 이르는 말.

어원을 연구하는 방향이 오래된 형태를 찾는 방향도 있지만, 오래된 어휘가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의 연구를 통하여 그 지역의 문화로 자리하는 과정을 탐색하면서, 고어형의 의미와 지역 방언의 문화적 특징을 드러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방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8) ‘자빠지다’는 ‘나가자빠지다, 나자빠지다, 처자빠지다’로 쓰이지만, ‘넘어지다’는 ‘걸고넘어지다, 나가넘어지다, 나넘어지다, 뒤넘어지다’로 쓰이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역의 방언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현재 방언의 어원 연구는 음운론과 형태론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국어사를 해석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방언의 어원연구가 아니라, 각 지역 방언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어휘사 연구를 통하여 국어사와 상호 보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원 연구는 학술연구용과 사전편찬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은 전문적인 학술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특히 방언의 어휘는 역사적인 변이형, 잔존형, 공시적인 변이형들이 뒤섞여 있어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일반인들은 방언 어휘의 어원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언 어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방언사전과 국어사전에서 방언 어휘의 어원을 제시해야 한다.¹⁹⁾ 연구자는 물론 일반 대중들도 실용적인 어원 풀이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방언 어휘의 어원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샘’과 같은 웹기반 국어사전에서도 방언의 어원은 아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방언의 어원 중 통시적 변화와 공시적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서 어휘 하나하나를 연구한다면, 문화적 차원의 어원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방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이다.

방언의 어원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방언의 경우, 국어사 문헌과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공시적인 언어 변화의 경우는 주로 방언사, 방언 조사 자료, 고전 문학·현대문학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채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여러 용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단한 형태소 검색이 필요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 또는 문학 말뭉치와 같이 전국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말뭉치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방언, 어휘의 접사 등의 전국적인 분포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표준어 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국어 연구에서도 언어정책적인 연구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하나의 어휘에 대해 국어사, 방언사, 개화기 국어, 현대국어, 문학어 등 종합적인 관점으로 연구하여 그 어원이나 변화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곧 ‘우리말샘’과 같은 국어사전에서 아주 긴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19)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방언사전’의 편찬에서는 ‘원어 정보’ 항목이 있어서 어원과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프로그램』.
- 김태우(2018), 「'자위(核, 心)'의 어휘사와 방언 분화」, 『방언학』 27, 71-95.
- 배영환(2013), 「'뚫-'[穿]의 형성과 방언 분화」, 『語文論集』 56, 63-91.
- 배영환(2016), 「제주방언 '오분자기'의 어휘사」, 『국어문학』 63, 39-69.
- 백두현(1998), 「嶺南 文獻語에 반영된 방언 어휘 연구」, 『국어학』 32, 217-245.
- 신중진(2006), 「'고드름'의 方言 分化와 語源」, 『국어학』 48, 313-336.
- 신중진(2007), 「"냉이[薺菜]"의 어원과 방언분화 분석」, 『우리말연구』 21, 239-262.
- 신중진(2008), 「'두드러기[癩疹]'의 형태사와 그 방언형 연구」, 『국어학』 53, 257 -278.
- 신중진(2010), 「문헌과 방언을 통해 본 '부스럼[furuncle]'의 형태사」, 『국어학』 57, 153-173.
- 신중진(2011), 「'미꾸라지[鰍魚]'의 형태사와 방언분포」, 『국어학』 61, 239-264.
- 위평량(2003), 「방언(方言)의 어원(語源) 2」 : 전남방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6, 173-192.
- 위평량(2004), 「전남방언의 어원(語源) 수제(數題)」, 『용봉인문논총』 33, 33-66.
- 위평량(2005), 「전남방언의 어원(語源) 수제(數題)2」, 『호남문화연구』 36, 183-208.
- 이근열(2013), 「부산 방언의 어원 연구(1)」, 『우리말연구』 35, 182-207.
- 이기문(2008), 「韓國語 語源 研究의 回顧와 展望」, 『학술원논문집』 : 인문, 사회과학편 47, 49-97.
- 이길재(2005), 「'등겨'의 방언형과 그 어원」, 『한국어학』 29, 187-209.
- 이길재(2006), 『'호남문화 자료 조사와 문화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언어)'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 이병근(2004ㄱ), 「'질경이(車前草)'의 어휘사」, 『어휘사』 소재, 태학사.
- 이병근(2004ㄴ), 「'마름(菱仁)'의 어휘사」, 『어휘사』 소재, 태학사.
- 이병근(2004ㄷ), 「'고양이(苗)'의 어휘사」, 『어휘사』 소재, 태학사.
- 이병근(2004ㄹ), 「'지느러미(奔水)'의 어휘사」, 『어휘사』 소재, 태학사.
- 이병근(2004ㅁ), 「'올가미'의 어휘사」, 『어휘사』 소재, 태학사.
- 이태영(1992), 「대명사 '누, 누구(誰)'의 변천과정과 방언분화」, 『유재영교수회갑기념논총』.
- 이태영(2000ㄱ), 「'늑물ㅎ, 늑믄새'의 어휘사 연구」, 『국어학』 36, 39-63.
- 이태영(2000ㄴ), 『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신아출판사.
- 이태영(2009ㄱ), 「'냄새(臭)'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70, 5-24.
- 이태영(2009ㄴ), 「전라방언 '내비두다, 내씩두다'의 어간 재구조화와 의미 변화」, 『방언학』 10, 93-117.
- 이태영(2010ㄱ), 「전라방언 융합형 '-ㄴ고니'의 문법과 화용적 특성」, 『한국언어문학』 75, 191-212.
- 이태영(2010ㄴ), 『문학 속의 전라방언』, 글누림.
- 이태영(2011ㄱ), 『전라북도 방언 연구』, 역락.
- 이태영(2011ㄴ), 「전라방언 '솔참다'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78, 117-138.
- 이태영(2011ㄷ), 「전라 방언 "꽤벗다"의 방언사적 연구」, 『영주어문』 21, 149-172.
- 이태영(2012), 「전라방언 '겁나게'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83, 69-90.

- 이태영(2016), 「국어사전과 방언의 정보화」, 『국어문학』 61, 51-75.
- 이태영(2018), 「방언으로 본 전복」, 『전라도 천년 전복의 역사문화』,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총서 43, 31-60.
- 이태영(2019 예정),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의 등장인물 ‘상단이’에 나타난 문화사」, 『이상규교수정년기념논문집』.
- 정승철(2013), 「‘고무래’의 방언 분포와 방언형의 분화」, 국어학 67, 35-61.
- 정재영(2004),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 나타난 文法形態에 대한 研究」, 口訣研究 12, 99-132.
- 천정아(2012), 「'진달래'의 방언형과 그 어원」, 개신어문연구 35, 69-97.
- 최전승(2009),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그네'(추천)의 방언형 '근딤' 계열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일 고찰」, 어문연구 61, 103-141.
- 현평효(1969), 「濟州島方言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語辭에 대하여」, 國語國文學 論文集 7-8, 19-35.
- 홍운표(2009),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지역 방언 어원 연구의 방향과 과제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백두현(경북대학교)

이태영 교수의 발표는 방언 어휘의 어원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그 방향을 모색해 본 것이다. 각각의 지역 방언에는 특유의 방언 어휘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일반인들 혹은 국어학 연구자들이 관심 있어 하거나 흥미롭게 여기는 어휘들의 어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태영 교수의 발표를 토론자가 이해한 바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 문헌을 통한 국어사 연구와 방언의 역사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각 지역 방언의 기초적 어휘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면서 전국의 다른 방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언급하였다.

2장에서 “중세국어와 전라 방언의 상관성”이라는 제목으로 중세국어에서 전라방언으로의 변화, 전라 방언을 통한 재구형, 형태 변화, 어휘화에 따른 역사성을 각각 나누어 설명했다. ‘가위, 부엌, 여우, 만들다, 마을, 그으름, 김, 달래다, 모래, 벌레, 냄새, 고소하다, 낚다, 늦추다’ 등에 대응하는 방언어휘의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은 해당 어휘의 역사적 형성과정이나 역사적 특성을 기술하는 데 유용한 토대가 될 듯하다.

3장에서는 “방언의 공시적 어원 연구의 방향”이란 제목 아래, 접사 파생의 어휘, 부사 ‘겁나게, 솔찬히’의 어원, 의성·의태어의 어원, 어간의 재구조화, 융합형과 혼태로 인한 이형태로 나누어, 어원 기술의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특히 3.3절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내용과 3.4절 재구조화한 방언형의 예들은 전라방언 특유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썩득-썩득, 사운거리다, 사운대다, 싸드락싸드락, 느시렁느시렁, 몰뚝잡다, 내썩두다, 커드란하다, 지드란하다 등). (고닥새, 아까막새, 기연시, 기연치, 낚싸다, 헛틀헛틀, 헛틀지 등). 이런 어휘들은 어원사전을 위한 자료일 뿐 아니라 일반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흡수되어 들어가야 할 낱말이다. 앞으로 진행될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 특히 주목되어야 할 어휘들이며, 여기서의 연구 결과는 일반 국어사전을 확충 발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4장 “문화적 어원 탐색의 방향”에서는 각 지방의 지리적 조건, 자연 환경적 조건, 생활 문화적 조건, 교통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방언 연구를 해야 하듯이, 어원 기술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지역문화와 관련된 방언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해당 지역 사람의 심리적 태도와 지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낱말의 예를 들고, 그것의 의미를 분석하는 예시를 보였다.

5장 결론에서는 방언의 어원 연구가 음운론과 형태론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점에서 벗어나 각 지역 방언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어휘사 연구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국어사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위상으로서의 방언 어휘 연구가 아니라, 양자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태영 교수는 어원 연구는 학술연구용과 사전편찬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고, 일반인들이 가진 방언 어휘의 어원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방언사전과 국어사전에서 방언 어휘의 어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방언 어원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방언 조사 자료, 고전문학·현대문학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색해야 하고, ‘한국구비문학대계’나 문학 말뭉치 등 어휘의 전국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말뭉치 이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어휘의 어원 기술에서 국어사, 방언사, 개화기 국어, 현대국어, 문학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해당 어휘의 어원이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표한 내용에 나타난 방언 어휘 연구의 방법론과 어원 설명 방법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이태영 교수가 언급한 내용 혹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을 보태어 보기로 한다.

1) 특정 방언에만 존재하는 어휘를 선정하여 표제어로 삼을 때,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특정 방언 특유 어휘만 가려낸다면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전라방언의 ‘권’(귀여움), ‘게미~개미’(음식의 깊은 맛), ‘아심찮다’(미안하면서 고맙다). 경상방언의 ‘말뜩다’(마땅하다), ‘오감타’(분에 넘치다), ‘오질없다’(참견 잘하다) 등. 이런 특정 방언어휘는 표제어를 별도로 세워서 기술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여러 방언에 공유된 어휘도 있다. 몇몇 방언에 공존하는 어휘는 방언 어휘로 다루지 않고 일반 어휘에 넣을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일반 어휘들 중에서 어원 기술의 대상으로 삼은 표제어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일단 어원 기술의 대상이 되는 어휘 목록을 부류별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 제2, 제3부류 등.

토론자의 생각으로 국어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낱말의 어원이 궁금한지? 궁금하여 설명을 듣고 싶은 어휘 목록을 적어보게 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제1부류 표제어 목록으로 삼아 보는 것이다. 제2 및 3부류 어휘 목록 선정은 연구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10년?)에 걸쳐 어원사전 편찬 작업이 이어진다면 제1부류를 3년, 제2부류 3년, 제3부류 3년, 종합정리 1년.... 이런 방식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3) 어원 기술 기본 구조

①총설 : 전체 설명을 요약한 총설적 개괄 설명을 앞에 둔다.

②세부적 기술 : 총설에 이어 보다 깊은 세부 구조 항목을 두고 설명한다.

아래 4)항의 내용

*3) ①항의 총설에 기술된 내용은 장차 「우리말샘」 사전에 흡수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어휘를 기술하면서 지역 방언적 특성을 기술하는 항목을 별도로 두고, 이 항목에 방언 어원론적 설명을 넣는 방법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기술된 어원 설명을 「우리말샘」에 흡수해 넣어야 할 것이다. 발표문의 마지막에 “‘우리말샘’과 같은 국어사전에서 아주 긴요하게 사용될 것”임을 강조해 놓은 것은 어원사전 편찬 사업을 통해 얻게 될 성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4) 어원 기술 세부 기술의 구성 방안: 토론자는 하나의 어휘를 기술하는 기본틀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 ①어학적 설명
- ②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문헌 용례 제시).
역사적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문화적 설명(시대배경, 생활문화적 배경 등의 요소를 기술).
- ④기타 고려해서 설명할 사항.

	표제어
총설	표제어 어원에 대한 요약적 설명
어학적 설명	음운, 형태, 조어 상의 특징을 설명한다. 방언적 차이도 여기에서 기술한다.
역사적 변천	해당 어휘의 역사적 변천을 용례 자료를 들면서 해설한다.
문화적 설명	문화적 차원에서 표제어를 해설한다. 속담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기타 설명	

*4)의 ③을 어떤 분야의 누구에게 집필토록 의뢰할 것인가? 항목의 특성에 따라 위촉할 분야와 집필자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해당 분야의 원숙한 전문가 및 해당 분야의 박사급 연구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후자는 미래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집필자 모집단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국어학자로만 국어사전을 집필하는 시대는 이미 가버린 것이 아닐까 싶다. 국어학자가 중심이 되고, 인접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신진 연구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원사전을 책으로 낼 것인가? 인터넷 서비스만 할 것인가? 책으로 낸다면 일반인을 위한 사전, 전문가를 위한 사전을 각각 구별해서 낼 것인가?

*하나의 원천 사전을 편찬하여 이 책을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one-source multi-use)

2018. 12.6.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고려대, 운초관)

※ 각종 장소 안내 ※

<점심식사 장소>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학생식당



<저녁식사 장소>

아침바다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3길 13(종암동), tel: 02-929-1352

